위대한 수령님께서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아주 잘 썼다고 높이 평가하여주신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1936년 3월초부터 5월초까지의 력사적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고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여명의 사령부경위대원들만 데리고 경박호반을 떠나 백두산기슭 동강에로의 행군길에 오르신다.

두달간에 걸치는 간고한 행로에서 수령님께서는 미혼진, 마안산밀영들에 들리시여 열병환자들을 돌봐주시고 100여명의 《민생단》혐의자들의 문서보따리를 불태워버리신후 그들로 새로운 주력사단을 편성하시는 대용단을 내리신다.

이 과정에 《민생단》혐의를 받고 온갖 곡절을 겪어온 리경준부부, 아동단지도원 한남실과 아동단원들, 작식대원 장철구 등 수많은 사람들이 사령관동지의 품에 안겨 새삶의 길에 들어선다.

한편 행세식《공산주의운동》에 환멸을 느끼고 항일유격대의 전과에 반신반의하며 실태를 알아보러 찾아왔던 《대통령감》 리동백은 수령님을 만나뵙는 첫순간부터 그이께 매혹되여 나중에는 입대를 청원하며 사령부출판소 책임자로까지 성장한다.

그는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을 친히 작성하시며 온 민족을 하나의 기치밑에 묶어세우시는 수령님의 위대한 전민족대단결사상과 현명한 령도, 고매한 풍모에 탄복을 금치못하면서 력사적인 동강회의에서 온 민족의 념원을 담아 수령님을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한다.

소설은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백두산기슭으로 진출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주도적흐름에 각이한 크고작은 부대들과 각이한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 합류되여 도도한 혁명의 대하를 이루는 구성형식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편집부

주 요 인 물

리동백　별명 《대통령감》, 사령부출판소 책임자

강세호　조선인민혁명군 7련대장

리북철　사령부 경위대장

리경준　정치공작원, 《민생단》 혐의자

최선금　리경준의 안해, 재봉대원

장철구　사령부 작식대원

한남실　아동단지도원

박문필　무송 《금강사진관》 주인, 지하조직원

정치주임 좌경배타주의자

제 1 장

1

눈덮인 숲속의 태고연한 정적을 깨치며 마른나무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울리였다. 그 소리에 뒤따라 부르르한 갈기에 고드름들이 달리고 재빛털에도 성에가 끼여 그 본색갈을 쉬이 알아보기 힘든, 가슴이 암팡지게 벌어진 말이 귀를 쭝긋 세우고 눈을 디룩거리며 숲속의 공지로 불쑥 나왔다.

말잔등에는 흰 위장포를 둘러치고 손에 권총을 든 유격대지휘관이 앉았는데 나무가지를 피하느라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에도 경계심어린 그 눈초리만은 주의깊게 앞을 살피고있었다.

그의 귀덮개를 올린 털모자에도 성에가 하얗게 불렸다.

좁은 공지에 나서자 그는 묻는듯한 시선으로 뒤따라오는 늙은이를 돌아보았다.

《그냥 곧추 나가게. 그저 나무그림자들이 뿌리를 둔쪽으루.》

성에탓에 회색빛으로 변한 가라말을 탄 길잡이늙은이는 비록 누덕누덕 깁기는 했으나 아래가생이나 목깃, 소매밑으로 드리운 푸시시한 털로 보아 무슨 짐승의 털을 안에 댄 커다란 덧저고리에 오소리털모자를 썼다.

그뒤로 역시 말을 타고오는 두명의 유격대원은 줄곧 좌우 한켠씩만 말아 살피군했다.

이 척후병들에게서 얼마쯤 떨어져서 도끼와 톱 그리고 왜놈들에게서 빼앗은 군도를 휴대한 5명의 유격대원이 뒤따라왔다. 부대의 행군에 방해로 될만한 나무와 관목들을 찍어버리며 통로를 개척하는 사람들이였다.

이들과 초간히 사이를 두고 사령부와 왕청5련대의 제4, 제5중대로

이루어진 기본행군대오가 따라오고 후위척후가 뒤를 살피고있다.

한낮때,긴 기마대렬은 백두산쪽을 향하여 돈화의 수림속을 흘러가고있다.

지금도 떙떙 얼어붙어있는 경박호반의 마을 남호두에서 소자지하의 맑은 물줄기를 따라 수십리두메에 고독하게 묻혀있던 작은 귀틀막에서 얼마전에 중대한 회의가 있었다. 그 회의에서는 조선혁명을 전국적판도에서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 혁명의 사령부가 새롭게 자리잡아야 할곳이 확정되였으며 그에 따라 사령부는 지금 백두산기슭을 향하여 남하의 길에 오른것이다.

첫 대면의 감격을 환송의 눈물로 바꾸던 북만의 마지막 마을도 멀리 뒤에 남았고 북만원정의 가지가지 전설들을 남긴 잊지 못할 고장인 판지땅도 이미 지나왔다.

여기는 벌써 돈화땅이다.

가도가도 끝없는 수림과 눈뿐,바야흐로 봄은 다가오건만 산천은 아직 깊은 눈속에 묻혀있다.

계절을 따지면 이미 3월에 접어들었으니 봄이라고 불리우련만 다리가 성큼한 말들조차 발굽을 뽑기 힘겨워하는 이 장설과 갈기에 고드름이 달리게 하는 추위속에서 그 누가 봄을 감촉할수 있을것인가?

로흑산전투에서 로획한 중기와 박격포들까지 가지고 로야령을 넘어 북만원정의 길에 올랐을 때에는 록음방초 우거지던 푸른 계절이였다. 제4련대와 제5련대 그리고 청년의용군에서 선발된 10여개 중대로 이루어진 원정부대는 온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경박호와 목단강을 넘나들며 넓디넓은 북만땅에서 멸적의 총성을 울렸고 인민들의 심장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그런 뒤에 거의 열달이 지나,바야흐로 새봄에 접어들어 되돌아나오는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령부와 함께 나오는 인원은 10여명의 사령부호위성원들과 원정부대의 5분의 하나도 채 못되는 제5왕청련대의 두개 중대뿐이다.

일부 부대들은 사령부에 앞서 먼저 나갔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만에서의 유격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곳에 남았다.

앞으로 왕청부대성원들도 백두산기슭까지 내내 사령부와 동행하게 될는지 그것은 아직 알수 없다. 장군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주실지 모른다.

그리고 북만땅에서 나무발구밖에 끌어보지 못했던 말들도 역시 이 력사적인 진군에 끝까지 봉사하게 될는지 그것도 아직 알수 없는 일이다.

숲은 차츰 성글어졌다.

기마행군대렬은 새초밭에 들어섰다. 경박호에 흘러드는 목단강상류의 어느 한 지류가 흐름을 시작하는 어방이다. 물줄기는 눈밑에 묻혀버렸다.

흰 얼룩점이 이마에 박힌 늘씬한 밤빛말을 타고 대렬 한가운데서 행군하시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회중시계를 꺼내보시고 말고삐를 한쪽으로 슬쩍 잡아당기시였다.

머리를 주억거리며 무작정 앞으로만 나가려던 령리한 말은 곧 그 뜻을 알아차린듯 눈속깊이 빠진 성큼한 다리를 옆으로 옮겨 행군종대에서 비켜섰다. 갈기에 매달린 잘다란 고드름들이 춤추듯 흔들거렸다.

《봉길이, 꽤 견딜만 하오? 춥지?》

엉뎅이가 넙죽한 흰말을 타고 바로 뒤에 따라오던 오돌차게 생긴 애젊은 전령병 주봉길은 자그마한 눈을 빛내이며 태연하게 웃음지으려 했지만 볼이 꽛꽛하게 얼었던탓에 웃음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

《북만의 추위보다는 한결 낫습니다. 말을 타니까 다리가 좀 시리지만 몸은 후끈후끈합니다.》

명민하게 빛나는 주봉길의 눈에서는 지친 기색을 엿볼수 없다.

《말타기가 조련치 않지?》

《일없습니다. 이젠 단련이 된것 같습니다.》

《벌써 단련이 되였다? 허허… 웬만히 단련되자 해도 아직 지나온 길만큼이야 더 타야지. 미혼진에 가댈쯤 되면 말을 좀 탈줄 안다고 말할 정도가 될거요.》

장군님께서는 웃음절반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리고나서 지시를 주시였다.

《봉길이, 앞으로 나가서 경위대장동무에게 전진을 멈추고 길

잡이늙은이를 모시고 오라고 이르시오. 그리고 전방척후성원들과 4중대장동무에게 휴식명령을 전하시오. 그동안 점심식사도 하고 말먹이 새초도 준비하도록…》

봉길이를 전방척후들에게 보내신 장군님께서는 다른 전령병 한종삼을 찾으시여 역시 휴식명령을 주어 뒤쪽으로 보내시였다. 멈춰선 대렬을 따라 두 어린 전령병이 달리는 말발굽소리가 앞뒤로 멀어져갔다.

눈우에서 새초잎들이 한들거리는 약간 둔덕진데로 말을 몰아가신 장군님께서는 주변의 산세를 얼핏 살피시고 백포자락을 젖히시며 그밑에 메고계시던 군용가방을 앞으로 당기시였다. 진한 밤색의 가죽가방은 얼어서 꾸둑꾸둑하였다.

그이께서는 가방속에서 꺼내신 여러겹으로 접혀있는 지도를 말잔등우에 펼치시였다.

잠잠하던 말이 불현듯 성에가 하얗게 낀 풍만한 꼬리를 휘 내저었다. 반뜩반뜩한 성에가루들이 푸시시 지도우에 흩날려내렸다.

장군님께서는 가볍게 말을 달래시고 지도우에 떨어진 성에가루를 조심스럽게 털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도에서 지금 행군대오가 멈춰선 지점을 찾아보시였다. 잠시 지도를 굽어보시던 그이께서는 이번에는 쌍안경을 쳐드시여 그것으로 주위의 산지형을 거듭 살피시며 지도에 표시된 등고선의 형태와 대조하시였다.

이제 길잡이늙은이를 데려오면 그와 같이 올라가 전망을 굽어보실 봉우리까지 정하고 쌍안경을 내리우신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지도를 들여다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앞으로 가야 할 백두산기슭에로의 로정을 지도우에서 더듬으시였다.

그이의 눈길은 수많은 물줄기들이 얼기설기 얽히며 모인 씨하와 그 류역의 넓은 소택지를 지나 점점 더 짙은 토색바탕에 아룽아룽한 등고선들이 빽빽이 들어찬 남부로야령산줄기를 거쳐 돈화와 안도의 현계지대에 붉은 색연필로 표시되여있는 동그라미에가 멎으시였다. 미혼진밀영이였다.

미혼진, 그곳은 장군님께서 남호두를 떠나실 때부터 백두산기슭으

로 향해나가시는 이 행군길에서 매우 중요한 첫 리정표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고장이였다.

장군님께서 내짚으신 이번 걸음은 남호두회의에서 토의결정하신대로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시기 위한 뜻깊은 걸음이시였다. 이 길은 열한해전,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품으시며 건느셨던 그 압록강연안으로 나가시는 길이였으며 또 바로 그 강을 넘으시여 조국땅에까지 나가시여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리시려는 길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불과 얼마 안되는 사람들만 데리시고 떠나시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압록강에까지 이르는 이 길우에서 장차 그 강을 넘어 조국땅에 진군해나갈 인민혁명군의 대군을 마련하실 웅대한 구상을 품고계시였다. 그 첫사업을 바로 미혼진에서 하시기로 계획하신 장군님께서는 그곳에 사람들을 부르시였다.

지난 10여년간 귀중히 키워오신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실 거창한 결심을 품으신 장군님께서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큰일을 받쳐주고 도와줄 사람들이 그리우시였다.

(강세호동무가 미혼진에 꼭 오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도에 표시된 미혼진에 눈길을 멈추신채 거기 와야 할 사람들을 하나하나 머리속으로 더듬어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문득 혼자 말씀으로 외우시였다. 화룡산골의 한 외진 산전막에서 상처를 치료받고있다는 그가 이번에 꼭 와내겠는지 은근히 걱정되시였던것이다.

강세호는 장군님께서 오가자에서 지하혁명활동을 하실 때부터 친히 키우신 전사의 한사람이였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의지가지할데 없는 고아가 되여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며 고생스럽게 자라난 강세호는 당시 오가자근방의 한 농촌에서 머슴살이를 하였었다.

장군님께서는 오가자일대에 갓 조직하신 농우회와 청년회 사업을 지도하시러 그 마을에 나가셨다가 지주집 외양간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감싸쥐고 달려나오는 머슴군을 만나시였다. 지주집 소여물을 썰다가 작두에 손을 벤것이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손수건을 찢으시여 그의 손을 싸매주시였다.

이리하여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게 된 때로부터 계급적으로 각성되기 시작한 강세호는 마침내 지주집을 뛰쳐나와 혁명투쟁에 투신하였다.

용하고 순박하기만 하던 강세호는 준엄하고 시련에 찬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원칙적이고 과감하고 결단성있는 믿음직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휘성원으로 자라났다. 그러기에 장군님께서는 남호두회의를 준비하실 때에 벌써 그에게 보다 더 무거운 다른 사업을 맡기실 작정으로 중요한 정치공작임무를 수행하고있었던 그를 남호두로 부르시였다. 공작지에서 떠나 남호두로 오던 강세호는 도중에 적들과 조우하는바람에 부상당하여 오지 못하고 련락갔던 통신원만 돌아와서 그런 사연을 보고했다.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남호두를 떠나심에 앞서 다시금 강세호에게 통신원을 보내시면서 가서 보고 그의 상처가 아물었으면 미혼진에 오도록 하고 채 아물지 않았으면 서둘지 말고 나은 다음 미혼진에 와서 사령부의 행처를 알아가지고 찾아오도록 하라고 일러보내시였다.

(강세호의 상처가 꽤 아물었겠는지.)

어찌하면 이번에 미혼진에서 하게 될 중요한 토의에도 그가 빠지게 될수 있었다.

그가 무탈하기만 하다면 후에 만나도 별일은 없겠지만 장군님께서는 퍼그나 강세호가 보고싶으시였다.

그이께서 강세호의 소식 못지 않게 궁금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근거지해산후의 뒤처리를 하느라 왕청에 남았던 사람들, 그중에서도 몹시 기다려지는 리경준이네 부부였다.

리경준은 인민혁명정부사업도 했고 지하공작사업경험도 가지고있는 유능한 유격대원이였다.

그의 안해 최선금은 소왕청유격근거지에서 알뜰하고 부지런하고 바느질을 잘하기로 소문난 녀자였다. 소왕청에 계실 때 장군님께서 입으신 군복들은 거의다 최선금의 손으로 지어진것이였다.

그들부부를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던 장군님께서는 종종 그들의 집에도 찾아가군하시였으며 그들의 자녀들도 몹시 귀해하시였다.

다정하고 성실한 혁명가부부였다. 바로 그랬던만큼 장군님께서는 근거지해산과 관련한 뒤처리때문에 사람들을 남기실 때 그들부부를 떨구어두신것이다. 물론 그들에게 두 어린것이 달려있는 사정을 동시에 고려하신때문이기도 하시였다.

그들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지니고계시는 장군님께서는 남호두에서 떠나시기 직전에 리경준내외가 두 어린것을 데리고 장군님을 찾아 소왕청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들으시였다. 어째서 부디 엄동에 어린것들까지 데리고 떠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소식을 날라다 전해드린 사람도 딱히 알지 못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행군도상에 혹 민가에 들리시게 되신다든가 마을을 지나시게 될적마다 꼭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떤 내외간을 보지 못했는가고 물으시군하시였으며 통신원들에게도 그들의 소식을 탐문하도록 이르시군하시였다.

(지금 그들은 어디서 헤매고있는지, 아이들에게 먹일것을 제대로 먹이고 입힐것을 제대로 입히고 지내는지.)

이런 생각에 잠기시였던 장군님께서는 리북철경위대장과 전령병 주봉길이가 길잡이늙은이와 함께 곁에 오는 기척을 느끼시고 지도를 접으시였다. 그것을 군용가방에 넣으신 장군님께서는 말우에서 내리시였다.

《로인님, 수고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길잡이늙은이에게 인사말을 하시고 그가 말우에서 내리는것을 도와주시였다. 그러시고 벌써 저쯤에서 말을 내려 가까이 다가오며 보고할 차비를 하는 리북철경위대장에게로 돌아서시였다.

《무슨 정황이 없소?》

《특별한것이 없습니다.》

리북철의 대답이였다.

《남호두에서 통신원으로 떠나보낸 동무들중에 돌아온 동무도 없소?》

있었으면 물으시기전에 경위대장이 먼저 보고하리라는것을 아시면서도 기다려지시여 확인해보시는것이다.

《없습니다.》

리북철은 그런 대답을 올리기 미안해하는 기색이였다.

《경위대에서도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말먹이새초를 좀 장만하도록 하시오. 나는 로인님과 같이 저 봉우리에 올라가 전망을 살펴보고 내려오겠습니다.》

리북철에게 당부하신 장군님께서는 길잡이늙은이와 함께 서쪽켠 봉우리로 향하시였다.

2

휴식터의 이곳저곳에서는 불이 피여오르고 불무지마다에 걸린 군용밥통들과 대야들에서는 눈덩이들이 녹아 물씬물씬 김을 올리고 있었다.

말들은 거뿐해진 몸으로 여기저기 널려 눈우에서 한들거리는 마른 새초잎들을 뜯기 시작하였다.

작식분공을 받지 않은 대원들은 날창이며 단검이며 마초를 벨수 있는 도구들을 있는대로 하나씩 들고 사처에 흩어져서 말을 먹이는 한편 새초들을 베였다.

주봉길은 자기의 흰 암말과 길잡이늙은이가 탔던 가라말을 끌고 될수록 다른 대원들이 보이지 않는데를 찾아갔다.

그는 좀 부루퉁했다. 경위대장 리북철이 사령관동지께서 타시는 말을 자기에게 넘겨주지 않고 경위대원들가운데서 제일 로대원이라고 이르는 기관총수한테 그 말을 맡겨버린때문이였다. 봉길은 경위대장이 자기는 어리기때문에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것처럼 생각하는것이 늘 못마땅하였다.

외진데를 찾아서 두필의 말을 끌고가던 봉길은 밋밋하게 비탈진 산언저리에 이르러 맞춤한 새초밭을 찾아냈다. 마른풀을 뜯어먹게 말들을 놓아준 봉길이는 호주머니에서 칼집이 달린 빼또칼을 꺼내들고 새초를 베기 시작하였다.

자기한테는 새초를 베라는 과업이 차례지지 않았지만 길잡이늙은이가 타는 말까지 합쳐 두필의 말먹이새초를 스스로 마련함으로써 자기가 결코 《어린애》가 아니라는것을, 자기를 늘 어린애취급하듯하는 경위대장을 비롯한 유격대원들에게 그들 못지 않는 당당한 《어른》이라는것을 보여주리라는 배심이다.

빼또칼로 한대한대 베자니 한단을 만들기에도 꽤 품이 들었다. 로대원들이 지니고있는 단검만큼 큰칼이면 한결 쉬울걸…

봉길은 자기가 풋내기대원임을 드러내놓는것만 같은, 그래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킨다고 생각되는 그 촌에서 쓰던 빼또칼을 단검과 바꾸기를 은근히 바라고있는터이다. 자기를 잘 모르고있는 새로 입대한 대원들앞에서 혹은 인민들의 집에서 숙영하게 될 때 적에게서 로획했다는것이 명백히 알릴 단검을 척 꺼내들고 점잖고 의젓하게 칼질을 하게 된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애티있다고 얕보지 못할것이다.

(왜놈과 맞다들기만 해라.)

단검을 손에 넣을 기회가 언제나 돌아올가 하고 안달아하면서 겨우 새초 한단을 묶어놓고 다시 두번째단을 절반쯤 베였을 때 봉길은 문득 웅글고도 야무지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손가락으로 현악기통을 잽싸게 두드리는것 같은 묘한 가락이였다.

그것은 딱따구리가 나무를 쫏는 소리였다.

마른 삭정이가 부러지는 가벼운 소리도 멀리까지 들리는 겨울의 숲속이라 그 소리는 엄청난 메아리를 울리며 숲의 고요를 흔들었다. 더우기 오늘은 맵짜기는 하나 유난스레 잠풍하고 고요한 날이다.

(아, 고것 참!)

딱따구리가 내는 그 기막히게 묘한 소리에 현혹된 봉길은 새초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는 소리나는데를 찾아 이 나무, 저 나무 살펴보며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밀림의 특유한 악기소리가 나는곳을 발견하였다. 푸른 잎대신에 마른 송라만 가지끝에 드리우고있는 커다란 분비나무강대에서 그 소리가 울리고있는것이다.

이미 말라버린지 오랜 그 강대나무에도 무슨 먹을만한것이 깃들어있었던지 주먹만한 딱따구리 한마리가 빤히 쳐다보이는 줄기에 붙어서 빳빳한 꽁지로 뒤를 받치고 길다란 부리로 나무줄기를 자못 맹렬하게 쪼아대고있었다. 쫏다간 민첩하게 사위를 둘러보기도 하였다.

다른 나무뒤에 숨어서 그놈이 하는 모양을 살피며 혼자서 듣기에는 너무도 아쉬운 그 묘한 악기소리에 한참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던 봉길은 그놈을 사로잡고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만약 저놈을 잡아가지고 가기만 하면 모두가 눈이 휘둥그래지리라. 언제나 자기를 숙볼사하는 경위대장 리북철이도 묘한 악기소리를 내는 새를 좀 보여달라고 할테지. 그리고 저 억세고 날랜 새를 사로잡은 솜씨에 은근히 탄복할테지…

봉길은 자기를 부러워하고 탄복도 할 뭇눈매들이 눈앞에 선했다.

그는 딱따구리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그놈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꿇어앉아 눈을 움켜쥐여 커다랗게 덩이를 빚었다.

돌팔매질엔 언제나 자신이 있는 봉길이다. 지난해 봄에도 그는 자기 집 뒤산과 앞내에서 돌팔매질로 장끼 한마리와 물오리 한마리를 잡은적이 있었다.

그 일을 유격대에서는 아무도 모르기때문에 자기가 로대원들 못지 않게 수류탄이나 작탄을 잘 던질수 있다는것을 인정하려고들 않는다.

봉길은 꽁꽁 다져 빚은 눈덩이를 들고 일어났다. 그는 나무뒤에 숨어서 강대줄기를 쪼고있는 딱따구리를 겨누었다.

그러나 그가 던지려는 순간 딱따구리는 무슨 불행이 닥쳐오는 기미를 채기나 한듯 머리를 들고 사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봉길이를 보지 못했던지 안심하고 부리를 나무줄기에 대고 칼을 갈듯 슬슬 문대고나서 또다시 구멍속에 들이밀었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주봉길은 겨냥했던 눈덩이를 던졌다. 눈덩이는 꽁지우의 등때기에 맞았다. 하지만 그 령리한 딱따구리란놈이 어느새 눈덩이가 날아오는것을 눈치채고 날려던 순간에 맞았기때문인지 또는 약간 빗맞았는지 새는 금시 떨어져 눈속에 처박힐것 같

더니 요행 자세를 수습하고 다시 날아올랐다.

딱따구리는 너무나 기겁했던 나머지 죽지로 잣나무가지를 들이받아 비틀거리며 사선으로 날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젖은 목화송이같은 눈뭉치들이 후두두 떨어지고 눈가루가 뽀얗게 흩날려내렸다.

그쪽으로 달려나가던 봉길은 눈앞을 가리는 눈가루때문에 잠시 새가 어느쪽으로 떨어졌는지 몰라 두리번거리다가 그놈이 채 떨어지지 않고 그냥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낮추 떠서 가까스로 나는것을 보았다.

조금만 따르면 떨어질것 같았다.

그는 새를 쫓아 산비탈을 달려올라갔다.

《무슨 일이요?》

마른 가둑나무숲뒤에서 누군가 불쑥 앞을 막아나섰다. 경위대장 리북철이였다.

《아, 경위대장동지, 딱따구리를…》

봉길은 말끝을 마무리지 못하고 얼떨떨해져 경위대장을 쳐다보았다.

눈귀가 약간 들리고 코날이 서서 얼핏 보기에는 날카로운듯한 인상을 주지만 녀성처럼 부드러운 입매와 늘 변함이 없는 담담한 눈빛으로 하여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경위대장 리북철이 조용하라는 뜻으로 손가락을 세워 입술에 댔던것이다. 그는 주봉길이가 잠잠해지자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금방 이 근처에서 얼씬거리며 지나간게 딱따구리였댔소?》

《네, 딱따구리였는데 그놈이…》

《쉬, 조용히!》

봉길은 입을 다물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경위대장이 까닭없이 이렇게 외진 산비탈에 나타날리 없고 또 까닭없이 이렇게 조심을 요구할리 없다. 그리고 새가 공기를 헤가르며 지나가는 소리에도 놀랐다는것은 경위대장이 매우 긴장되여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리북철경위대장이 사령관동지를 호위하고있는중이란 말인가? 아까 장군님께서 길잡이늙은이와 함께 오르신 산봉우리가 이 산봉우리였던가?

봉길은 나무그루들사이로 저 웃쪽 산마루에서 쌍안경으로 어디인가를 살펴보고계시는 장군님의 후리후리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옆에는 키가 작달막한 길잡이늙은이가 손으로 역시 그 어데인가를 가리키며 무슨 말씀을 여쭙고있었다.

《나는 또 무슨 급한 정황이 생겨서 보고하러 뛰여오나 했지.》

리북철의 말이였다.

《그놈이 등때기에 얻어맞구 다 떨어지게 됐는데…》

리북철은 눈을 흘겼다.

《어린애처럼 굴지 말구 빨리 내려가 말들을 먹이라구. 특히 저 로인님이 탔던 말을 잘 먹여야 하오.》

《왜 가라말만 특별히 잘 먹여야 합니까?》

봉길은 볼부은 소리로 되물었다. 경위대장이 가라말을 특별히 잘 먹이라고 한 리유를 알고싶어서라기보다는 역시 자기를 어린애취급하는것 같은 그의 태도에 은근히 반발심이 났던것이다.

《그것은 물을 필요없소.》

리북철은 잘라 말하였다.

약간 시무룩해져서 돌아서는 주봉길을 지켜보고있던 리북철은 웬일인지 조용히 그를 불러세웠다.

봉길은 다시 돌아서며 흘끔 리북철을 치떠보았다.

《이것 보오, 봉길동무!》

리북철은 타이르듯이 말하였다.

《지금 사령관동지께서 얼마나 중대한 행군길을 헤쳐나가시는지 봉길이도 알고있겠지. 그런데 말을 배불리 먹여서 우리의 행군을 잘 보장할 생각은 안하구 딱따구리에 홀려다녀? 좀 채심해야지. 저 먼저 불무지보초를 설 때 실수했던 일을 벌써 잊어버리면 되나?》

봉길은 아무 대답도 못했다. 불무지보초때 졸았던 일과 결부시키는것이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이 하도 엄청난 후과를 가져왔던지라 할말이 없었던것이다.

봉길은 터벅터벅 내려와서 아까 새초를 베던 자리를 찾아냈다. 그러나 말들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딱따구리에 정신이 팔려다니는동안 저절로 풀을 뜯어먹으며 멀리 간것이 틀림없었다.

눈우에 찍힌 말발굽자리를 밟아가며 이리저리 헤매봤으나 헛물만 켰다.

봉길은 당황해나기 시작했다. 그 말들은 녕안의 어느 목재소습격전투때에 로획한 말들이 아니라 북만에서 활동하고있는 부대에서 사용하던 군마였다.

그것은 사령관동지께와 사령부호위성원들에게만 각별히 골라드린 많지 않은 군마들가운데의 두필이였다.

그 말들을 받으셨을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봉길이더러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을 골라잡으라고 하시였다. 말을 타본적은 얼마 없었지만 그런 티를 보여드리고싶지 않았던 그는 담차고 날쌔게 생긴 말을 골라잡았다.

《그 말보다 이 말이 어떻소?》

장군님께서는 너그러운 웃음을 띠우시고 유순해보이는 흰 암말을 가리키시였다.

《건 싫습니다.》

《왜?》

《전 암말은 싫습니다.》

《허허,이런 자존심 보지. 말 탈줄은 모르면서두 암말은 싫다? 암말을 타면 누가 업신여길가봐서? 나도 왕청근거지에서 이런 흰 암말을 타고다니구 오의성부대를 찾아 라자구에 갈 때두 백마를 탔댔는데 우리 봉길의 말을 듣구보니 잘못했던것 같구만…》

그 말씀을 듣고 봉길은 이번에는 기어이 백마를 타겠다고 조르다싶이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엊저녁에 만난 길잡이늙은이에게도 여러가지를 고려하시여 친히 순한 가라말을 골라주시였다.

그런 말들을 잃어버리다니?

봉길은 울상이 되였다.

사색이 되여 헤매다니는 애젊은 전령병을 도와 숱한 대원들이 애써 찾아봤으나 끝끝내 두필의 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대렬이 출발준비를 갖추기 시작했을 때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는 경계보초를 나갔던 대원들과 말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을 부르시여 그들에게 적정이 없었는가를 다시 확인하시였다.

《토벌대》놈들이 싸다닌것 같은 흔적이나 기미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적정이 없었다면 행군서렬을 짓고 공포를 한방 놓으시오. 북만동무들에게서 길든 군마들이니 아주 멀리 가지 않았으면 총소리를 듣고 찾아올수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근방에 적이 있다면 말을 찾으려다가 바라지 않았던 전투가 벌어질수도 있었다. 봉길은 일시적인 유혹에 끌리는대로 행동한 그 후과가 얼마나 엄중해지고있는가를 느끼고 머리를 쳐들지 못하였다. 자기가 경솔했던탓에 은밀성을 보장해야 할 부대의 행동질서에 혼란을 주고 중대한 행군길을 지체시키고 뭇사람들에게 걱정과 수고를 끼친것이다.

불과 며칠사이를 두고 또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른 봉길은 엄한 질책을 기다리며 서있었다.

장군님께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였다.

《말을 찾아다니느라고 봉길이는 점심도 못먹었지? 딱따구리도 못잡구 얼굴은 긁히구, 허허 손해가 막심하구만.》

봉길은 화끈 달아오른 얼굴을 점점 더 깊이 숙이고 신끝으로 애꿎은 눈만 다졌다.

《말은 우리가 찾아볼테니 어서 가서 점심을 먹소. 북철동무, 식사를 시키시오.》

장군님께서는 봉길의 잔등을 떠밀어주시였다.

봉길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총소리가 울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연 그이께서 예견하셨던대로 말 두필이 련이어 달려왔다. 숲속으로부터 눈덩이를 발통으로 찍어뿌리며 달려오는 말들을 보자 봉길은 너무 기뻤던 나머지 눈물까지 솟았다.

출발에 앞서 장군님께서는 길잡이늙은이더러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르시였다. 늙은이는 해저물녘까지만이라도 더 길을 안내해드리겠다고 간청하였으나 장군님께서는 굳이 만류하시였다.

대원들중에 누구도 지나보지 못한 생소한 산길을 헤쳐나가야 하는만큼 다른 길잡이를 찾아내거나 만날 때까지 그를 앞세우면 한결 헐하게 행군해나갈수 있었지만 나이 많은 늙은이에게 지나치게 무리한 걸음을 시키지 않도록 하시려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늙은이와 헤여지시면서 집까지 타고 가서 화전농사에 쓰라고 늙은이가 여기까지 타고왔던 가라말을 주시였다.

그제야 봉길은 리북철이 그 가라말을 각별히 잘 먹이라고 일러준 까닭을 알았다. 말을 찾았으니 다행이지 만일 그 가라말을 잃었다면 길잡이늙은이에게 바로 그 가라말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계셨던 장군님의 뜻을 어길번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생각하니 봉길은 가슴이 서늘해졌다.

고요하던 수림에 바람이 설레이기 시작할무렵,대렬은 다시금 행군길에 올랐다.

이번에는 장군님께서 친히 전방척후병들과 함께 앞장에 서시여 길을 인도하시였다.

새초단을 한단씩 말우에 더 얹은 기본대렬이 따라서고 기본대렬꽁무니에는 말먹이귀밀포대들을 등에 얹은 부림말들이 무거운 짐에 눌려 긴목을 껍석거리며 뒤따랐다. 대렬 마지막에는 후위척후대원들이 섰다.

늙은이는 눈보라가 일기 시작한 수림속으로 대렬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있었다.

그의 흰수염끝에는 흘러내린 눈물방울이 구슬처럼 얼어붙었다.

남호두에서 예까지 2백리길을 함께 오다가 늙은이와 더불어 떨어지게 된 그 가라말도 작별의 서러움을 느끼는것인지 순하고 어진 눈을 슴벅이며 코를 벌름거렸다.

잠자던 숲은 다시 뒤설레이기 시작하였다.

바람은 눈가죽을 핥으며 나무그루밑에서 수만갈래의 실오리같은 눈갈기를 일으키더니 삽시에 온 숲속을 뽀얀 눈가루로 뒤덮어버리였다.

광란하는 눈바람은 하늘과 땅의 넓은 공간을 돌아치면서 언제 고요가 있었더냐싶게 울부짖었다.

3

밤새 모진 눈보라에 몸부림치던 수림은 아침녘에야 지친듯 잠잠해졌다.

다시 고요해진 망망한 수림의 바다속에서 한점의 불꽃이 가물가물 타고있었다. 그 외로운 불무지둘레에는 네사람이 앉아있었다. 서로 다른 처지에서 저마끔 곡절 많은 생활경로를 거쳐왔지만 그리운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찾아 떠난 이 길우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다.

장철구는 바위돌곁에 앉아서 묵묵히 차돌로 잣을 까서는 물이 설설 끓는 두개의 군용밥통속에 집어넣군하였다. 그의 주름잡힌 이마와 귀밑에는 군모밑으로 삐여져나온 희슥희슥한 머리칼이 드리워져있었다.

유격대원들은 그를 보통 《철구어머니》라고 불렀다. 누가 먼저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나 나이 많은 그를 존대해서 그렇게 불렀다기보다는 동지들에 대한 그의 극진한 사랑에 감동되여 그렇게 부른것이였다.

장철구곁에는 왕청유격근거지에서 바느질을 잘하기로 소문난 최선금이 마른 삭정이를 깔고앉아서 바느질을 하고있었다. 그는 배가 불룩한 배낭우에 가위며 천쪼박들을 올려놓고 아이들의 통버선을 깁고있었다. 오랜 재봉대일에서 손끝 한번 다친적 없는 그는 이 밤에는 그답지 않게 바늘끝으로 손끝을 자주 찌르군하였다. 손끝을 찌르군할 때마다 누가 보지 않았는가 놀라며 갸름한 얼굴에 차분히 내려진 눈시울을 들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는 서둘러 일감을 잡았다.

잣나무가지를 펴고 그우에 마른풀을 깔아 만든 자리에서는 최선금의 어린 아들딸이 어른들의 커다란 솜저고리 하나를 덮고 시름없이 자고있었다.

고집스레 도드라져나온 이마우에 어른처럼 손을 얹고 무엇인가 못마땅한듯 조그마한 입술을 삐죽거리는 사내애는 올해 8살인 명일이였고 숨박곡질을 할 때처럼 눈을 꽉 감고 모은 두 손에 차거운 볼을 의지하고 자는 처녀애는 올해 6살나는 명숙이였다.

최선금의 맞은편에는 어깨가 쩍 벌어지고 몸집이 우람찬 장기령이 앉아서 자그마한 도끼로 나무강아지를 깎고있었다. 명숙에게 줄것이였다.

그옆에서는 턱아래 목에까지 흘러간 거밋거밋한 구레나룻자리때문에 나이 지숙해보이는 최선금의 남편 리경준이가 일행의 유일한 무기인 얼어붙은 장총을 우둥불에 녹이고있었다. 이윽하여 장총의 격발기실부분에 맺힌 이슬방울을 헝겊으로 조심스레 훔쳐낸 그는 무릎우의 유지를 천천히 헤쳤다. 유지안에는 당콩알만한 노루기름덩이가 붙어있었다.

리경준은 노루기름을 얼마만큼 쓸것인가 가늠하듯 그것을 한참동안 들여다보더니 헝겊에 닿을락말락하게 도려내가지고 격발기앞턱과 격발기실에만 살짝 기름칠을 하였다. 침착하고 리지적인 사람인 리경준은 일찌기 지하사업도 하였으며 유격근거지에 있을 때에는 인민혁명정부의 토지부에서 일한 남다른 경력을 가지고있었다.

일행의 지친 얼굴과 판이 난 신발과 해진 옷으로 그들이 어려운 행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것을 한눈에 알수 있었다.

이들은 《민생단》혐의를 받은 유격대원들이였다.

간악한 일제는 혁명대렬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민생단》이라는 반혁명적간첩단체를 조작하고 거기에 끌어들인 주구들을 유격근거지에 잠입시켰다. 일제의 음흉한 책동은 그 초기에 벌써 여지없이 분쇄되였다. 그러나 배타적인 좌경분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반《민생단》투쟁은 극좌적으로 진행되였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통찰하신 사령관동지께서는 1935년 봄 다홍왜와 요영구에서 련이어 회의를 소집하시고 배타적인 좌경분자들과 그에 아부굴종한 종파분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시였다.

그리하여 반《민생단》투쟁은 바른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제2차 북만원정을 떠나신후 배타적인 좌경분자들과 종파분자들이 또 머리를 쳐들었다.

그자들은 터무니없이 날조된 《자료》를 꾸며내여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으며 자기들의 종파적행위에 추종하지 않는 견실한 혁명가들에게 함부로 《민생단》감투를 씌웠다.

유명한 기관총수인 장기령도 《민생단》원이라는 혐의를 받고 내쫓겼다.

산속에서 헤매던 어느날 장기령은 우연히도 리경준부부를 만났다. 말은 없었으나 그들은 침통한 얼굴빛을 보고 서로의 심중을 헤아리였으며 마음의 고통을 나누었다. 명일과 명숙은 아저씨가 왔다고 장기령의 군복자락에 매달리면서 무척 반가와하였다.

리경준은 겨우 용단을 내여 장기령에게 사령관동지께서 남호두에 계신다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면도를 하지 못한지가 오랜 거뭇한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종파분자들은 리경준과 최선금이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반《민생단》투쟁방침을 받들고 적극 투쟁했을뿐아니라 그들의 타락한 생활을 폭로비판한데 대하여 은근히 앙심을 품고있다가 장군님께서 북만원정에 오르신 다음 그전에 혐의를 받은적이 있는 《민생단》원이 리경준에게 보낸 의심스러운 편지가 최근에 발견되여 자기들의 수중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들을 모해하였다. 그때 리경준과 최선금은 그것이 놈들이 만들어낸 가짜편지라는것을 폭로하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였다. 그들이 유격근거지를 떠날 때 종파분자들은 적통치구역으로 갈것을 검질기게 설교하였다. 그러나 살아도 죽어도 오직 장군님께로만 향하고 그이만을 모시고 따르려는 그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당신들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아무 상관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사령관동지를 찾아가겠다.》

경준은 단호하게 언명하였다.

그것은 지난날의 체험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굳어진 철석

같은 의지였으며 신념이였다.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의 압제와 착취밑에서 마소처럼 부림받고 모멸을 당하다가 장군님께서 펼치신 새세상— 유격근거지에 찾아들어와 그이의 품속에 안긴 때부터 비로소 참다운 인간적존엄과 혁명가의 당당한 자부심뿐아니라 그이의 크나큰 신임까지 받아안게 되였던 리경준이였고 최선금이였다. 그들은 한번 사람답게 사는것이 어떤것인지를 안 이상 다시는 전처럼 살수 없었으며 장군님의 품을 떠나서는 어떠한 삶도 무의미하다는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통절히 느끼고있었다. 그들은 또한 오로지 장군님께서만이 혁명앞에 끝까지 충실하려고 애써왔던 자기들의 티없이 깨끗한 마음을 알아주실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장 그 순간에 목숨이 지는 한이 있더라도 장군님으로부터 자기들이 혁명을 배신하지 않았다는것을 인정받게 된다면 원이 없을것 같았다. 혁명의 배신자로 락인을 받은 소식이 그대로 장군님께 알려지게 된다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것 같았다.

음험한 구름도, 세찬 비바람도 태양으로만 향하는 해바라기의 지향을 막을수 없듯이 종파사대주의자들도 장군님을 찾아가려는 리경준부부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꺾을수 없었다.

그자들은 그들부부가 두 어린아이를 데리고 엄동설한에 북만으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으며 설사 떠난다 하여도 북만의 심한 눈보라에 묻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것이라고 타산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막지 않았다.

유격근거지를 떠날 때 앞으로 있게 될 어려운 행군을 예견하고 또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리경준은 거듭 생각하던끝에 명일과 명숙을 적통치구역의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기자고 하였다.

최선금은 고집스레 머리를 흔들었다. 아이들을 장군님 곁으로 꼭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에게 섭섭한 눈길을 보냈다.

장기령이 리경준부부를 만난 그 이튿날은 때없이 추운 날씨였고 거기에 눈보라까지 또 심하였다. 추위와 눈보라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명숙을 등에 업고 도끼를 꽁무니에 차고 앞에서 눈을 가르며 걷고있던 장기령은 뜻밖에도 잣나무숲속의 커다란 바

위를 의지하여 우등불을 피워놓고 외로이 앉아있는 장철구를 발견하였다.

장철구는 사람이 곁에 와있는것도 모르고 군모를 깁고있었다. 적들이 《토벌》올 때마다 끓는 가마를 뽑아 이고 다니노라고 머리칼이 타고 반은 빠져서 성겨진 머리, 유격대원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던 그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있었다.

《철구어머니—》

장기령이 목갈린 소리로 불렀을 때 장철구는 와뜰 놀라 무릎에서 군모를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름잡힌 눈가에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일행을 맞이한 철구는 장기령이 어떻게 산중에 홀로 있는가고 묻자 한줄기 가느다란 한숨으로 대답하였다.

《모두 어데루 이렇게？…》

철구는 장기령의 등에서 명숙이를 받아안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장군님을 찾아서 남호두로 갑니다. …》

장철구의 가느다란 주름이 간 볼편이 씰룩거리더니 눈에 눈물이 그득 고이였다.

철구도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민생단》혐의를 받았다. 종파분자들은 철구가 어느때인가 한번 밥을 태운것을 트집잡아 《민생단》으로 몰았다.

어느날 철구는 적《토벌대》가 근거지에 밀려들 때 한창 끓는 가마를 이고 뒤산으로 올라가서 밥을 짓게 되였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얼마나 세찼던지 눈을 뜰수 없었다. 재차 가마를 걸고 불을 피울 때 적들이 뒤산으로 밀려들었다. 그래서 또다시 물이 설설 끓는 가마를 이고 뛰였다. 아침식사도 못하고 《토벌대》놈들과 싸우는 유격대원들을 생각하며 철구는 밥을 끓이려고 몹시 애를 썼으나 결국 밑쌀은 타고 웃쌀은 설익게 되였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였으나 배타적인 좌경분자들은 이것을 《민생단》의 근거로 악용하였다.

장철구는 억울하고 통분하여 가슴을 쥐여뜯었다. 혁명의 길에 남편을 바치고 아이를 원쑤놈들에게 빼앗긴 철구였다. …

이렇게 되여 네명의 유격대원들은 우연히 모이게 되였고 서로 의

지하고 부축하는 하나의 자그마한 집단이 되였다.

기관총수 장기령은 일행중에서 제일 젊은 청년이였다. 그는 명일이 아니면 명숙을 업고 늘 앞장에 서서 허리를 치는 눈길을 헤쳐나갔으며 숙참이 되면 선참으로 우등불을 피울 차비를 하느라고 서둘렀다.

우등불이 타오르고 얼었던 몸이 어지간히 녹으면 장기령은 의례히 자리에서 일어나 눈속을 헤매며 부지런히 잣을 따들이였다. 리경준이나 철구는 잣따러 나갔다가 때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장기령은 한번도 허탕을 치지 않았다.

워낙 장기령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우스개소리를 잘하는 쾌활한 기관총수로 알려져있었다.

그는 도대체 이 세상에 슬픔이라든가 고통따위가 있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늘 벌쭉벌쭉 웃으며 다녔었다. 정중해야 할 자리에서도 장난기어린 우습강스러운 눈짓을 해서는 참을성이 적은 녀대원들이 그만 웃음을 터뜨려 꾸중을 듣지 않을수 없게 만들기도 했으며 허튼소리도 곧잘 하군했었다. 그의 허튼소리에 몇번이나 속히우고 망신까지 당할번했던 어느 한 녀대원이 《엉터리》라고 부른것이 그의 성과 어근합성을 일으켜 그는 《장터리》로 불리우게쯤까지 되였었다. 그래도 그는 그 별명으로 불리울 때면 무슨 구두감사라도 받은것처럼 일부러스럽게 더 벌쭉거렸다.

《아이 참,저 동문 좀 모자라지 않아?》

언젠가 작식대원들옆을 지나던결에 그런 말을 들은 장기령은 금시 입이 함지박만해지며 대꾸했다.

《역시 작식대동무들이 날 알아주누만. 내 늘 모자랄사 해서 은근히 불만이 아니였겠소?》

《뭐가 불만족이예요?》

《식사량이 모자랄사 하단말요.》

그렇게 쾌활하던 장기령은 《민생단》혐의를 받은 이후부터는 하루종일 가도 말없는 청년이 되였다. 입을 꾹 다물면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한두마디의 요긴한 말밖에 하지 않았다.

철구는 스스로 일행의 때식을 맡아하였다. 그의 배낭뒤에는 군용

밥통 두개가 늘 매달려있었는데 때가 되면 그 밥통은 언제나 어김없이 우등불결에서 끓고있었다.

오늘저녁에는 아무것도 없을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장철구는 군용밥통에 무엇인가 꼭 끓이군하였다. 겨우내 말라버린 머루잎을 뜯어 소금물에 끓이기도 하고 더운물에 잣나무잎을 따넣어 차물을 만들기도 하였다. 동지들이 식량걱정을 하는 눈치가 보이면 《걱정마세요. 쌀이 왜 없겠어요.》 하고 배가 불룩한 자기 배낭을 내보이군하였다. 그러나 동지들은 그 배낭에 한되박 되나마나한 비상미밖에 없다는것을 알고있었다.

행군할 때마다 장철구는 줄곧 잣송이나 마른 머루잎 같은것을 찾았다.

《눈이 이렇게 깊지 않으면 마른 나물이라도 찾을수 있겠는걸.》

그는 하루에도 몇번씩 이런 말을 되풀이하였다. 자신이 허기질 때에는 남몰래 눈덩이를 조금씩 입에 넣군하였는데 눈치빠른 최선금이조차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면 장철구는 의례히 두개의 군용밥통을 알른알른하게 닦아서 배낭뒤에 매달았다. 그는 때로 명숙을 업고 행군하기도 하였다. 명숙은 장철구를 큰어머니라고 불렀다. 철구는 하루종일 서글픈 얼굴을 하고있다가도 일행에게 자기가 마련한 식사를 대접할 때에는 유격근거지에서 작식대원으로 있을 때처럼 환한 웃음을 띄우군하였다. 물론 일행은 그 웃음이 동지들을 위하여 우정 꾸미는 웃음이란것을 알았으나 그래도 그 웃음을 쳐다보면 한순간이나마 마음이 개운해져서 은근히 그것을 기다리게 되는것이였다.

최선금은 말이 적은 녀성이였다. 두 아이들이 일행에게 큰 부담으로 되고있는것을 날이 갈수록 더욱 가슴아프게 느끼며 늘 미안해하는 눈길로 장기령과 장철구를 바라보았다.

장철구는 말할것도 없고 장기령이조차 최선금의 그 심중을 모를리 없었다.

《선금동무, 명숙이와 명일이만 없으면 우리는 아마 더는 지탱하지 못할거야. 그래두 그것들이 있으니 대렬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우? 나는 주저앉았다가두 어린것들의 얼굴을 쳐다

보고는 우리 죽지 말고 꼭 장군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차고 일어나군하지. 그리고보면 어린것들이 얼마나 장해. 우리한테 힘을 주고 기쁨도 주구…》

이것은 언제인가 철구가 선금에게 한 말이였다.

한번은 장기령이도 리경준에게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다.

《명숙이와 명일이만 없다면 저는 갑갑해서 죽든가 무슨 일이 났을것입니다. 내 어깨에 기관총대신 명숙이와 명일이가 올라앉은 셈이지요.》

잠결에 그 말을 들은 선금은 그것이 진정이라는것을 믿어의심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들을 위해서,그렇게도 깨끗한 마음을 가진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건 찾군하였다.

최선금의 엄청나게 큰 배낭안에는 재봉대에서 쓰던 여러가지 천쪼박이며 가위,실토리,재봉기바늘,북 따위의 바느질도구와 감들이 있었다.

장기령은 그런것들을 보면서 최선금이 재봉대를 등에 지고 다닌다고 하였다.

최선금은 일행의 군복을 스스로 맡아서 기웠다. 하루의 고달픈 행군이 끝나면 그는 우선 일행의 솜외투며 군복이며 배낭이며 장갑을 버릇처럼 살펴보았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로 그것을 알뜰하게 손질해놓군하였다. 그 덕에 험한 숲속을 헤치며 행군하는 그들이지만 옷은 언제나 단정하였다.

일행의 뒤에는 그들을 보위하기에 언제나 준비된 리경준이 장총을 메고 따랐다. 그는 일행중에서 그중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였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동지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려고 애를 썼다. 그는 일행이 《토벌대》놈들을 우회하여 가게 될 때마다 탄알이 몇알밖에 없는 장총을 어루만지며 한숨을 쉬군하였다. 숙영할 때마다 보초는 도맡다싶이했다. 그는 쉬는 시간보다 보초서는 시간이 더 많았다.

명일은 이따금씩 춥다고 몸을 옹크리군하였지만 배고프다는 소리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 맥없이 우등불결에 앉았다가도 장기령이

나 장철구가 잣을 따러 갈 때면 따라일어서는것이 어른스러웠다. 아침이면 세면하기 싫다고 도리질을 하는 명숙이한테 몰래 호주머니에 간수해두었던 잣알을 손에 쥐여주며 제법 솜씨있게 달래군하였다.

명숙은 어른들이 자주 입에 올리군하는 남호두라는 이름에도 익숙해져서 남호두라는데가 어디냐고, 인제 얼마나 더 가면 되느냐고 따져묻군하였다.

명숙은 장철구의 등에 업혀가면서 은근히 묻군하였다.

《남호두에 가면 장군님께서 계시나？》

그러면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던 장철구는 입가에 미소를 담고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래, 장군님께서 계신단다. 명숙이랑 오는가 하구 기다리시지…》

남호두, 그곳은 천리수해를 헤쳐오고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포구였다. 그리로 가면 반드시 그리운 마음의 등대를 보게 되리라는 크나큰 희망과 기대로 하여 그들은 모진 고생을 이겨오고있었다.

수림속에 남아있던 새벽어스름은 말끔히 가셔졌다. 해가 떠올랐다. 마구 뒤엉킨듯한 나무잎새들속에서 깨여진 유리쪼각마냥 산산쪼각난 눈부신 빛발이 펼쳐지며 밤서리에 뒤덮인 사위를 이를데 없이 밝고 아름답게 장식해주었다.

기름칠한 총을 배낭에 기대놓고 일어난 리경준은 우등불곁을 떠나 숲속으로 걸어나갔다. 어제밤의 모진 바람에 다져진 눈이 발밑에서 빠득거렸다.

온통 서리를 들쓴 나무들은 하얀 털실같은 송라들까지 줄줄 드리운것이 마치나 새옷단장을 한데다가 눈구슬꿰미로 온몸과 팔에 그 무슨 명절치장이라도 한듯싶었다.

상쾌하고 유난히도 아름다운 아침이다.

리경준은 눈을 한웅큼 쥐고 무기소제에 어지러워진 손을 비비였다.

서너차례 손을 씻고난 경준은 다시 눈으로 얼굴을 문대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청신하고 상쾌한 대기를 가르며 울려오는 까치의

울음소리를 들은것이다.

마치 갑자기 머리를 쳐들면 우짖던 까치가 달아나기라도 할것처럼 그는 눈덩이가 묻어있는 얼굴을 그냥 그대로 조심스럽게 들고 새를 찾았다. 어디서 우는지 까치는 보이지 않고 그 무엇인가 즐거운것을 약속해주는듯한 까치의 지저귐만 들렸다.

깍깍— 까각깍깍—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까치소리다. 이 천고의 수림속에 까치라니？ 근처에 인가가 있을듯하지 않은데 어디서 날아온 까치일가？

내심 무척 바라왔던때문인지 난데없는 까치소리를 듣자 리경준은 그 무슨 몹시 기쁜 일이 생기려나싶으면서 자못 마음이 뒤숭숭해진다. 전나무잎새짬으로 올려다보이는 하늘은 그지없이 맑다.

저절로 갈마드는 이런 생각에 잠기고보니 문득 어제 점심때쯤해서 들은 그 먼 총소리에 대한 의혹이 되살아났다.

《경준동지, 어서 오십시오. 식사가 다 됐답니다.》

장기령이 소리쳐불렀다. 어디로 날아가버렸는지 까치는 더는 울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 그 반가운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가 하여 경준은 한참이나 기다리다가 돌아섰다.

벙글거리며 성큼성큼 불무지곁으로 다가오는 리경준을 보고 장기령은 의아해하였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까치가 울었소. 못들었소？》

《여기에 무슨 까치가 있겠습니까？》

《글쎄 그건 까치더러 물어봐야지 나보구 물으면 어떡허우？》

모두 웃었다.

경준은 불무지곁에 있는 진대나무에 걸터앉으며 말했다.

《그런데말이요. 어제 그 총소리 있지 않소？ 아무래두 그게 우리 사람들의 총소리였던것 같소.》

장기령이뿐아니라 최선금이, 장철구도 놀란 눈을 경준이에게로 돌렸다.

《무슨 흔적이라두 차… 찾았습니까？》

장기령은 흥분때문에 말을 떠듬거렸다.

《흔적은 보지 못했지만 까치가 울지를 않았소?》

유력한 증거를 기대했던 세사람은 경준의 그 말에 서글픈 웃음을 띠웠다. 경준이답지 않게 오늘아침엔 괜히 실없는 소리를 하여 사람들을 놀래운다는 무언의 나무람이였다. 그러면서도 비록 허황한 이야기일망정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는 말을 듣는것이 싫지 않은 그들이였다.

《저보구 늘 미신적이라더니 당신은 웬일이예요?》

최선금의 말에 리경준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이건 미신이 아니요. 까치가 있다는건 어딘가 가까운데 인가가 있다는걸 말해주는게요. 인가를 맞다들면… 알겠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귀인이 있을지…》

《글쎄 당신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선금은 한숨을 쉬였다. 장기령이, 장철구도 소리없는 한숨들을 쉬였다.

《자, 얼른 아침을 먹고 기운을 내여 또 찾아가봅시다. 신심을 가지구…》

경준은 장철구를 재촉했다.

4

다시 행군길에 오른 그들은 과연 리경준의 말대로 얼마 가지 않아서 통나무 굴뚝에서 연기를 피워올리고있는 작은 귀틀집 하나를 발견하였다.

안침진 골짜기의 숲속에 홀로 들어앉아있는 그 귀틀집의 뒤벽에는 처마밑까지 장작단이 높이 가려져있을뿐 산전막인지 포수막인지 분간해낼수 있는 유표한게 없었다. 피해야 할 집이라고 생각될만치 의심스러워보이는것도 물론 없었다.

다만 한지에 있는 가라말 한필이 미심쩍어보였다. 마구간이 없

이 그냥 나무에 고삐를 비끄러맨것을 보아 귀틀집주인이 부리는 말 같지 않았다. 누군가 타고온 말일수 있다. 저쯤 잘 먹인 말을 타고 나타날만한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일것인가?

보기드문 인가를 찾은 이상 그대로 지나칠수는 없었다. 벌써 여러날째 그들은 어디쯤까지 왔는지 알지 못한채 낮이면 해를, 밤엔 별을, 흐린 날엔 나무가지를 살펴 방위를 어림짐작하면서 무턱대고 서북방향으로 들어오고있는터이다.

길량식도 없었다. 게다가 모두 지칠대로 지쳤다. 다문 몇시간이라도 하늘을 가리운 집이라는데 들어앉아 어린것들을 따뜻한 온돌우에 눕히고싶었다.

여하튼 이 집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어제 있은 그 먼 총소리의 사연까지도 혹 알게 될지 모르는것이다.

그들은 눈속에 엎드려 근기있게 기다리며 감시하였다. 위험을 무릅쓰고 귀틀집에 더 바싹 접근해볼것인가 어쩔가 망설이고있을 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붕우로 물씬 삼단같은 김이 솟구쳐올라왔다.

집모퉁이에서 김이 문문 피여오르는 커다란 함지가, 다음에는 그것을 든 늙은이가 나타났다. 여물이 나오기를 퍼그나 기다렸던듯 성급히 마주 가려던 말이 고삐에 걸려 골을 내저으며 제자리걸음으로 서성댔다.

늙은이가 여물함지를 내려놓기도전에 말은 주둥이를 들이밀었다가 흠칫하였다. 뜨거웠던 모양이다. 함지를 내려놔준 늙은이도 다시금 주둥이를 들이미는 말덜미를 툭툭 쳐주며 무어라고 중얼거렸다.

늙은이가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리경준은 장기령이에게 총을 내밀며 말했다.

《여기들 있소. 내가 가서 늙은일 만나보겠소.》

《아니, 제가 가보겠습니다.》

장기령은 리경준이 내민 총을 밀막으며 제먼저 일어날 차비를 했다.

《좀더 살펴보는게 낫지 않아요? 그러다 혹시…》

최선금은 걱정스러워 남편을 돌아보았다.

《적이 있을것 같지는 않소. 적이 타고온 말이라면 저 로인이 덜미를 저렇게 살틀하게 쓸어줄턱이 있소?》

《그 사람이 늙은이로 가장한 밀정일수도 있지 않을가요?》

《재기만 하다간 종일 여기서 감시하다가 말겠습니다. 까짓것 밀정이면 제끼지요.》

장기령은 배낭을 벗어놓고 일어났다.

그는 리경준이 잡을새없이 눈구뎅이에서 성큼 나갔다.

《조심하라구, 덤비지 말구…》

그의 등뒤에 대고 낮은 소리로 타이른 리경준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몇알밖에 없는 탄알을 재웠다.

그가 귀틀집모퉁이로 사라진 시각부터 담배 한대 피우나마나한 짧은 동안을 리경준은 매우 초조하고 불안한 속에서 긴장하게 보냈다.

장기령은 불시에 집모퉁이로부터 달려나왔다. 그는 마구 헤덤비면서 그들이 숨어있는쪽을 향해 뛰여올라오면서 소리쳤다.

《빨리! 빨리!》

허둥지둥 달려오던 장기령은 중간쯤 와서 맥빠진듯 멈춰섰다.

리경준은 어안이 벙벙해서 총을 내리며 얼굴을 들었다.

《어떻게 된거요?》

리경준은 다급한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목소리를 낮추었다.

《사령부의 행처를 알게 됐단말입니다!》

《아니, 뭐라구!》

리경준은 허겁지겁 장기령이한테로 달려내려갔다.

《어데 있단말이요, 사령부가?》

리경준은 떨리는 손으로 장기령의 팔소매를 틀어잡았다.

《그걸 글쎄 어서 알아보잔말입니다. 어제 길안내까지 했다는데.》

《누구말이요?》

《저 집 늙은이말입니다.》

장기령은 리경준을 마구 끌고 걸음을 다우쳐가며 대꾸했다.

마음이 급해진 그들일행이 아이들과 배낭을 막 걷어안고 내려

갔을 때 귀틀집로인이 덧저고리단추를 채우며 마주나왔다.

《아니, 이 어린것들까지 데리구 얼마나 고생을 했겠나? 이거 인사는 무슨 인사를… 어서 들어가세.》

문 열고 들어설 때 찬기운에 구름처럼 문가에 서린 김이 뽀얗게 떠서 잠시 그들은 옮겨짚을데를 몰랐다. 그속에서도 주인늙은이는 손잡아 이끌기도 하고 등을 떠밀어주기도 하면서 어서 몸부터 녹이라고 부산스레 친절을 베풀었다.

점점 설펴지는 김속에서 아궁이 터지게 통나무를 물고 질질 거품을 내뿜고있는 부엌이며, 뜨물때가 더덕더덕 덕지앉은 가마며, 조짚으로 자리를 엮어 깔아놓은 좁은 구들이며, 낫가락도 꽂혀있고 헌 옷가지도 걸려있고 무슨 창들과 옥노도 걸려있는 귀틀벽이며 그을음에 새까매진 거미줄들이 흐느적이는 잣나무가지를 마구 올려덮은 천정이며가 서서히 드러났다. 산전막인지 포수막인지는 여전히 알수 없었고 늙은이가 여기서 혼자 지내고있는지, 안늙은이도 있는지 그런것도 알수 없었다.

리경준은 무엇을 좀 대접할셈으로 가마쪽으로 몸을 움쭉하는 주인늙은이의 손을 잡아앉히며 물었다.

《로인님, 배고프지 않습니다. 먼저 사령부소식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잠간만… 우선 더운 물이라도 마시구 듣게.》

《물은 우리절로 떠먹지요. 말씀해주십시오. 사령부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쪽으로 갔습니까? 장군님을 로인님이 직접 만나뵈였습니까?》

늙은이는 하는수없이 이끄는대로 화로앞에 주저앉으며 《허어—》 하고 웃었다. 늙은이는 은발의 성근 수염을 버릇처럼 한번 내리쓸었다.

《성급하기두, 그렇게 단꺼번에 여러가지를 물어보면 내가 어느것부터 대답해야 좋겠나?》

《그저 좋을대루… 어서 말씀하십쇼.》

《음, 그래.》

늙은이는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천천히 조끼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러다가 투박한 오지화로옆에서 담배쌈지를 찾아내가지고 장죽에 담배부스레기를 눌러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장군님께서 어디 계시나？》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를 신기한듯이 쳐다보며 장군님 이야기가 이제나저제나 나오는가 하고 기다리던 명숙의 소리였다.

《오냐, 너도 퍽 궁금했구나.》

로인은 명숙이의 머리를 쓸어주고 어깨를 껴안아주며 마치 그에게만 알려주듯이 말했다.

《과히 멀리 계시지 않다. 예서 백리밖쯤 가셨을게다. 어제낮에 유격대와 헤여져서 내가 한 40리쯤 돌아왔으니 나보다 20리쯤 더 나갔다쳐두 모두해서 백리안팎일게다.》

모두 놀랐다. 도무지 백리, 잘만 가면 이틀안에 가닿을수 있는 길이다.

《어느쪽으로 갔는가요？》

《내가 타고온 말발굽자리를 따라가면 유격대가 나간 길자리가 그대로 나질걸세. 유격대도 모두 말을 타구 갔네.》

《아, 그래요？》

사령부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였다는 이 사실앞에서 그들은 사령부를 만난것처럼 기뻤다.

사령관동지께서 이 초라한 귀틀막에 부대를 친솔하시고 들리신 때로부터 로인이 길을 안내해드리고 돌아설 때까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서 그들은 어제 점심녘에 들은 한방의 먼 총소리가 바로 잃어버린 말을 찾기 위한 총소리였다는것을 알았다. 약간만 길이 어긋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벌써 어제 사령부와 만나게 되였을것이다.

《그럼 저 로인님, 사령부가 어디로 가는지 그건 모르시나요？》

장기령은 은근한 기대속에서 비쳐보았다.

《알고있네！》

뜻밖에도 늙은이는 자신만만하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처럼 사령부를 찾는 유격대원들이 이 귀틀막에 들리게 되면 무송쪽으로 찾아나오도록 일러달라시던 장군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뿐만아니라 머지 않아 군사를 크게 꾸려가지고 조선으로 왜놈을 쳐부시러 나가실 작정이시더라는것과 온 조선 2천만동포를 한덩어리로 묶어세우실 넓고 깊은 생각을 지니고계시더라는 사실도 전해주었다.

이야기마다 가슴들먹이게 하고 새힘이 솟게 하는것들이였다.

늙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단 한시각이라도 지체하고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들은 외로운 귀틀집늙은이의 권고를 사양하고, 편안한 하루저녁의 휴식도 마다하고 그리운 사령부의 자취를 따라 다시금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사령부의 행군방향대로 서남방향으로 향해 나가는 길이였다.

5

연길땅과 접해있는 화룡의 깊은 산간벽지, 소란한 바깥세상과 동떨어져있는 자그마한 화전마을에 화전민들의 유일한 기쁨인 간이학교 비슷한 글방이 열린것은 얼마전의 일이였다.

그 글방에서는 리동백이라고 하는, 반나마 흰 머리칼이 때이르게 주름살이 패인 이마우에 드리우고 게다가 두볼이 꺼져들어가서 사십이 훨씬 넘어보이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있었다.

마을사람들은 진중한 행동거지와 뜻이 깊은 이야기며 그리고 성긴 눈섭아래서 때때로 생기를 잃지 않고 번쩍이군하는 눈을 보고 리동백을 은근히 존경해마지 않았다. 리동백은 낮엔 글을 가르치고 밤엔 밤마다 모여드는 아이들에게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군하였다.

오늘밤도 리동백은 글방으로 쓰는 아담한 귀틀집안에 오구구 모여앉은 아이들한테 에워싸여 리순신장군이야기를 들려주기에 밤가는줄 모르고있었다. 이밤따라 그의 말투는 격정에 넘치기도 하고 비분에 떨리는듯도 하였다. 자정 가까이 되여 문밖에서 인기

척이 나더니 문이 빠끔히 열리며 조카딸 옥선이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왜 왔냐?》

리동백은 하던 이야기를 끊고 조카딸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외삼촌을 모셔오래요.》

누이는 리동백이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면 가끔 찾으러 나오거나 옥선이를 보내군했다. 그가 덮개를 안덮고 아이들의 글방에서 그냥 자다가 감기걸린적이 가끔 있군하기때문이다.

《하던 얘길 끝내면 어련히 들어가지 않으리. 들어오너라. 잠간 앉았다 같이 가자.》

《아이참, 외삼촌이 안들어와서 어머니가 속상해해요.》

옥선이는 그냥 문을 열고 바깥에 선채 울상이다. 아이들한테 해주던 이야기를 계속하려던 리동백은 잠시 주저하다가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외삼촌은 정말 아무것두 모르시네. 어서 가야 해요.》

리동백은 어쩔수 없다는듯 가볍게 한숨을 쉬였다.

《알겠다. 그럼 너 먼저 가서 내가 곧 간다고 어머니한테 일러라.》

《제가 또 심부름을 오지 않게 어서 와요.》

옥선이는 오금을 박아 당부하고 문을 닫았다. 얼음버캐를 밟아 부스러뜨리며 종종걸음으로 달려가다싶이 하는 옥선이의 발자국소리가 멀어져갔다.

다시 이야기를 잇자니 흥도 깨지고 밤도 너무 깊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드시 오늘중으로 끝내야 할 이야기도 아니니 그럴바에는 차라리 래일밤에 계속하여 아이들한테 이야기 듣는 재미를 돋구어주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았다.

《얘들아! 이제는 밤도 깊었는데 그만하구 래일밤에 마저 듣는게 어떠냐?》

눈이 초롱초롱해서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기다리고있던 아이들은 헨둥하게 아쉬워하는 기색들이였다. 그러나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것을 눈치챈 그들은

《좋습니다.》

하고 한결같이 대답하며 우르르 일어들났다.

《자, 그럼 돌아들가거라.》

리동백은 광솔불을 들어 아이들이 제 짚신짝들을 찾아신을수 있게 밝혀주었다.

《선생님, 밤새 안녕히 계십시오.》

더꺼머리 총각애들과 길게 머리채를 따늘인 처녀애들이 굽벅굽벅 인사하고 물러갔다.

아이들이 다 돌아가자 리동백은 광솔불을 꺼버리고 맨나중에 글방을 나섰다.

달이 밝았다. 보름가까운 달이 마을을 하얗게 덮고있는 눈우에 그림자를 진하게 던져주고있었다.

서로 헤여지며 인사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제 집에 찾아드는 작은 주인들을 맞으며 반갑게 짖어대는 개소리, 집에 들어선 아이들의 문여닫는 소리가 와짝 들리다가 점차 가라앉았다.

우중충한 거목들속에 여기저기 널려져있는 집들은 모두 불들이 꺼져있고 동기와추녀끝에 달린 팔뚝같이 굵은 고드름들만이 달빛에 번들거린다.

창호지에 불빛이 어려있는 집은 그가 얹혀살고있는 누이네 집뿐이다. 무슨 군불을 때는지 굴뚝에서는 불티 섞인 연기가 꾸역꾸역 솟구쳤다.

리동백은 누이네 모녀와 함께 세 식구를 이루고 살고있었다. 누이는 살곳을 찾아 이곳까지 오는 도중에 남편을 잃고 홀몸으로 이 벽지에 들어와 억척같이 땅을 뚜지며 외딸을 키워왔다.

리동백은 리동백이대로 사회운동을 한답시고 나돌다가 홀몸이 된채 번거로운 바깥세상을 피하여 재작년에 누이한테 왔었다.

《이제사 오는구만, 날래 방에 들어가서 초불이나 켜놓소.》

그가 부엌문안에 들어서자 김이 뽀얗게 서린 가마목에 앉아서 그릇에 음식을 담고있던 누이가 기다렸던듯 말을 건넸다. 누이는 그보다 6살 맏이였다.

《무슨 일로 찾았소, 누님?》

리동백은 신발을 벗고 정지구들에 올라섰다.
《내사 그럴줄 알았지비. 오늘이 무슨 날인줄두 모른당이.》
누이는 주걱으로 가마에서 밥을 퍼담으며 혼자소리를 했다. 옥선은 한옆에서 접시에 고사리채를 담고있었다.
《무슨 날이게?》
《에그— 기차기두, 아버지 제사를 받들 아들이 자기밖에 없는줄 뻔히 알면서 어쩌문 저럴수가 있을가. …》
리동백은 누이의 푸념을 못들은척하고 부친의 기일제를 차리느라고 잔뜩 그릇가지들을 벌려놓은 부엌을 새삼스럽게 훑어보았다.
《아버지 제사차비를 하느라구 밤중에 이 분주탕을 벌려놨소?》
리동백은 아버지의 제사마련은 생각지도 않고있었던것이 미안스러웠지만 제를 지내자고 궁색한 살림에 일부러 무얼 갖추고 만들고 하느라 어지간히 애썼을 누이가 측은하게 생각되였다.
《그러문 자식이란게 제 부모 기일도 모르고 제사두 안지내구 살아야 옳겠소?》
누이는 못마땅한듯 리동백을 흘겨보았다.
《나라고 아버지 제사날까지야 잊겠소. 허지만 나라 없는 백성이 제 아버지 제사는 지내 뭘하우? 부질없는 일이지. 제를 지낸다고 돌아간 어른이 살아나겠소, 망한 나라가 광복되겠소.》
무릎을 짚으며 일어나려던 누이는 그 말을 듣자 다리가 후들거려서인지 도로 주저앉으며 원망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에구우! 어쩌문 아버지 제사를 두고 그런 말을 입밖에 내오? 내사 오래비 속을 모르겠당이.》
《아버지는 차라리 잘 돌아가셨지. 이 빛없는 세상에 값없이 오래 살면 뭘하겠소?》
리동백은 사이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
아연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동안 사이문쪽을 지켜보고있던 옥선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해졌다.
《실루 오래빈 너무 하오. 아버지가 뼈빠지게 일하면서 뒤를 받쳐 학교랑 보내놓으니 운동바람이 나가지구 아버지가 돌아가두

와볼줄 알았겠소, 언제 한번 아버지 제사를 지내봤겠소? 그러구서두 상기 모자라서 그런 소릴 하오? 그래두 난 의지가지할데 없이 혼자 살다가 제 살붙이라구 오래비가 왔을 땐 이렇게 모진 말을 들을줄은 생각도 못하구 기뻐했더니… 그렇게 제 부모두 모르면서 어떻게 나라를…》

누이는 한참 넋두리하듯 토설하다가 오랍동생의 아픈 마음을 너무 찌르는것 같아서인지 뒤말을 삼갔다.

《어머니, 그만해요. 외삼촌은 뭐나 다 귀찮아서 해보는 소린데…》

옥선이의 귀속말이였다.

《나도 그런줄은 안다. 그렇지만 외할아버지 제사를 앞에 놓구 너무 모진 말을 하는게 씨만해서 그런다.》

울음섞인 누이의 목소리였다.

리동백은 뜻하지 않게 누님을 너무 노엽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어느덧 자기도모르는 사이에 회의적인 인간으로 돼버려서 진지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할 문제에서도 비뚤어진 말을 하는 때가 종종 있다는것을 문득 깨달았다.

《누님, 차례를 지낼 시간이 지나는데 마음을 풀구 제상을 들여오시구려. 나라구 정 아버지를 잊기야 했겠소? 어쨌든 나는 그렇다치구 누님의 성의만이라두 아버지가 받게 해드립시다.》

리동백은 도시생활의 유일한 흔적으로 남아있는 파이프에 써레기담배를 담아 피워물며 정지간에 대고 말하였다.

부모슬하에서 누이와 같이 멋모르고 자라던 유년시절에 대한 애틋한 추억과 나이 마흔이 넘도록 자식된 도리를 거의나 지켜본적 없는 자신에 대한 가책, 덧없이 흘려보낸 지난날들에 대한 허무감속에 제사를 지내고 상을 물릴무렵에 마당에서 개짖는 소리에 이어 인기척이 나더니 누군가 찾는 소리가 들렸다.

리동백이 일어나기전에 상을 정지간으로 들어내갔던 옥선이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누구세요?》

《지나가던 길손입니다.》

귀에 선 목소리였다. 기웃이 밖을 살피던 옥선은 웬일인지 목

을 주춤 움츠러뜨리며 문을 닫고 황급히 사이문턱을 넘어왔다.

《외삼촌이 내다봐요.》

겁이 나서 하는 귀속말이였다.

《왜?》

《수상한 사람이예요. 권총이랑 찬것 같아요.》

어지간히 긴장해진 리동백은 제사를 끝내자마자 또 불여문 파이프를 손에 든채 헛기침을 하며 일어서서 방문을 열었다.

정지문앞에 서있던 시꺼먼 형체가 다리를 살룩살룩 절며 방문앞으로 다가왔다. 달빛을 등지고있었지만 리동백은 그가 무슨 짐을 지고 옥선의 말대로 권총같은것도 차고있는것을 인차 알아보았다. 이 깊은 밤, 이 깊은 벽지에 무장을 가진 정체모를 사람이 찾아든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마음놓고 대할 일이 아닐뿐더러 달갑지 않은 일이였다. 비적들이 끓인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것은 아닌지?

《어떻게 찾아온 손님이요?》

그 사람은 금시 달려들어 물어뜯을듯이 짖어대는 개를 돌아보고나서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좀 페를 끼칠 일이 있어 들렸는데 조용히 안에 들어가 의논할수 없겠습니까?》

《어디서 왔소?》

《안에 들어가 말씀드리지요.》

그 사람은 역시 낮은 목소리로 서둘러 대답하며 경계하는 눈초리로 이웃집들을 돌아보았다. 자기가 이 집에 찾아온것을 누군가 볼가 보아 안심치 못해하는 눈치였다.

정체모를 사람을 들여놓기가 께름직했지만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난처했다. 한가지 약간이나마 위안이 되는것은 손님의 공손한 말투였다.

《정 그러면 들어오시오.》

리동백은 시답지 않게 응하며 문을 틔워주었다.

《저… 실례입니다만 부엌간에 들어가 만날수 없겠습니까?》

그 사람의 제의가 하도 류달랐던만큼 리동백은 어떻게 종잡을

지 몰라 선뜻 대답을 못했다.

《신발이 얼어서…》

신발이 얼어서 쉽게 벗을수 없기때문에 신은채 부엌에 들어갔으면싶다는 말이였다.

《그러시오.》

그는 방문을 닫고 정지간으로 나갔다. 누이와 옥선이는 불안스러운 나머지 앉지들도 못하고 해쓱해진 얼굴로 정지구들복판에 부산히들 서있었다.

리동백은 부엌문을 열어주었다.

색이 바랜 군복에 털모자를 쓰고 멜띠를 따라 허리에는 권총을 거뜬하게 찬 키가 큰 젊은이가 들어왔다. 목소리를 듣고 짐작한 것보다 훨씬 젊은 청년이였다. 그가 모자를 벗자 불빛아래 시원하고 번듯한 이마와 은은하면서도 침착한 눈이 유표해서 리동백의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약간 넓어보이는 하관에는 면도자리가 푸릿푸릿하게 드러나보였다. 옷은 비록 낡았으나 가뜬한 차림새며 방안을 돌아보는 부드러우면서도 예리한 눈길이며 든든한 턱은 어덴지 모르게 리동백으로 하여금 그를 소홀하게 대할수 없게 하였다.

손님은 구들목에 서있는 리동백이와 구들복판에 서있는 누이네 모녀들한테 눈인사를 했다.

《이렇게 깊은 밤중에 찾아들어서 미안합니다. 불이 켜져있는 집을 찾아들다나니 이 집에 왔습니다.》

《어디서 온 손님이요?》

《저는 조선인민혁명군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그의 대답에 리동백은 저으기 놀랐다.

유격대가 전부 《괴멸》당하고 유격근거지가 해산되였다는 출판물의 보도를 본지가 벌써 반년도 넘었고 유격대가 없어졌다는 소문이 난지는 한해도 더 되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자기를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난것이다.

솜군복에 연장도 견장도 달리지 않은것을 보면 전해듣던바와 같이 유격대원 같기도 했다. 혹시 《괴멸》된 유격대에서 어쩌다

살아남아 산에서 지내는 유격대원인지도 모른다. 언제부터 한번 만나봤으면 하던 유격대원일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 그 말을 쉬이 믿을수 있겠는가? 비적이나 밀정들도 그런 차림을 하고 또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어찌 알겠는가?

리동백이 아무 말없이 잠자코 있자 그 사람은 찾아온 까닭을 이야기했다.

《다름아니라 오늘밤 이 집에서 쉬고갈수 없을가 해서… 산을 타고 지나가다가 불빛을 찾아 내려왔습니다.》

《…》

리동백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것을 보고 손님은 변명이라도 하듯 말을 보탰다.

《오는 도중에 성냥을 잃지 않았더라면 산에서 불을 피우고 쉬였겠는데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잘못 믿었다가는 화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리동백이로 하여금 랭담성을 잃지 않게 하였다.

《딱한 사정같소만 이 집엔 오늘밤에 제사가 있어서… 보는바와 같이 방금 제상을 차려놓던참입니다.》

하며 그는 가마목에 내놓은 상을 가리켰다. 상을 가리키는 순간 자기가 한 거짓말을 손님이 눈치챌수도 있다는것을 알았다. 물사발에 밥이 말려있고 향보시기에서 타다남은 향나무가 실연기를 피워올리고있는것을 손님이 알아볼수 있는것이다.

《제사손님이 많은가요?》

《손님은 없습니다만…》

손님은 제상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다시 리동백에게로 눈을 돌렸다. 리동백은 그 눈을 보고 그가 자기의 거짓말을 눈치채였지만 모르는것처럼 한다는것을 느꼈다.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강한 인상이 리동백의 뇌리에 스며들었다.

《정 딱하면 어쩌겠습니까. 다른 집을 구해보지요.》

이렇게 말한 손님은 벗었던 털모자를 썼다. 그러자 리동백은 그의 차림으로 보아서나 사람을 대하는 품을 보아서나 전해듣던바대로 틀림없는 유격대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기의 느낌을 확인하기 위하여 누이와 옥선이를 얼핏 돌아다보았다. 그들은 언제인가 이 마을에도 온적 있다는 유격대원들과 대면해봤으니만치 자기보다 더 잘 알아맞힐수도 있었던것이다.
옥선은 외삼촌의 묻는듯한 눈길과 마주치자 가볍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것을 보자 리동백은 비로소 안심이 되였다.
(그래, 이 사람은 유격대에서 용케 살아남은 사람임이 틀림없어!)
랭담했던 리동백의 눈빛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그의 온 얼굴에 반가움이 피여났다.
《손님, 노여워마시오.》
리동백은 손님의 손을 덥석 그러잡았다.
《나의 지나친 조심성을 리해해주시오. 세상사람들이 다 진실만을 말하며 사는건 아니지요. 허투루 믿은 탓에 화를 당한 사람들도 적지 않지요.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 참과 거짓을 분별한다는것도 헐치는 않습니다. 유격대는 다 없어지고 그대신 비적들이 사처에 끓인다니 진짜 유격대조차 몰라볼번했습니다.》
리동백은 거듭 손님의 손을 꽉 쥐여흔들며 중언부언 사죄하고나서 어서 신발을 벗고 올라오라고 끌었다.
《안심하고 올라오시오. 나는 이 마을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구 저인 우리 누님과 조카입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온 동무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서 데려오시오. 우린 세식구뿐인데 자리는 넉넉합니다.》
그 손님은 두 청년을 데리고 왔다. 한 청년은 그처럼 낡은 솜군복을 입고 배낭과 장총을 메였지만 한 청년은 촌젊은이 차림처럼 토스레 덧저고리에 머리에는 털모자 대신 토목수건을 싸맸고 짚신을 신었다. 그에겐 총도 없었고 배낭도 없었다. 그저 흰 광목보자기에 무언가를 싸서 둘둘 말아 어깨에 걸멘 괴나리보짐이 가진것의 전부였다. 모든것을 잃고 몸만 간신히 빼여낸후 어디서 얻어입은것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들이 산에서 고생했을것을 짐작하니 몹시도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겨졌다.
리동백은 질화로를 들고 부엌에 나가 이글이글한 새 불을 담아서 들여왔고 담배도 권했다. 그리고 누이와 옥선이더러 산에서 몹시

굶주리며 지냈을 손님들에게 아끼지 말고 음식들을 지체없이 들여보내라고 일렀다.

그가 일러준대로 담배 한대씩 마저 태우기전에 음식을 받아달라고 옥선이가 사이문밑에서 귀속말로 찾았다. 그는 사이문을 열고 상과 음식들을 받아들여놓았다.

나중에 들여보낸 토기술병과 잔을 받아놓고난 리동백은 음식을 권하기전에 손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이 마침 우리 부친의 기일제날이랍니다. 나는 명심치도 못했거니와 누님이 제상을 차리는걸 보면서두 부질없는 일을 한다구 나무랐구 그래서 퓐잔과 노여움까지 샀댔는데 마침 내가 전부터 한번 꼭 만나보구싶었던 유격대를 이렇게 만나게 되니 제물을 준비한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변찮은대로 허물 말고 드십시오. 우선 술부터 마시십시오. 몸들이 얼었겠는데 술이 들어가면 나을겝니다.》

《술은 그만두십시오. 우린 마실줄들 모릅니다.》

하고 맨 처음 찾아들어왔던 손님이 사양했다.

《원 별말씀, 사내대장부들이 술을 못마시다니? 딴 사정이 없다면 어서 드십시다. 나라를 찾자고 싸움길에 나설 때의 초지를 버리지 않은채 여직껏 용케 살아온 당신들을 만나보게 된 나를 축하해주는셈치고…》

《우린 못마십니다.》

다시금 잘라 말한 그 손님은 리동백의 손에서 병을 앗아들었다.

《그대신 선생한테는 우리가 부어드리지요.》

손님은 리동백의 잔에 찰찰 넘게 술을 붓고 받쳐올리기까지 했다.

《어서 드십시오.》

《술잔을 혼자 드는 법이야 어디 있습니까?》

《만일 진정으로 우리들을 위해주고싶으면 권하지 말고 드십시오.》

그 사람의 례절바르고도 위엄있는 태도에서 종시 뜻을 이룰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리동백은 그가 권하는 잔을 할수없이 받아들었다. 그는 멋적은김에 허거프게 웃었다.

《허허… 이런 괴이한 술자린 나도 처음입니다. 그럼 어서 편들을 드시오.》

리동백은 손님들이 수저를 들고 음식을 집는것을 보고서야 술을 마셨다. 손님은 다시 빈잔에 술을 부어주었다.

그러나 리동백은 한잔을 여러번씩 꺾어마시며 어쩌다 한점씩 안주를 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음식을 먹는 그들의 모습을 동정어린 눈으로 찬찬히 지켜보았다.

먼저 수저를 놓고 양치물을 마신 그 사람(그는 자기를 강동무라 불러달라고 했다.)은 깍듯이 인사를 하고나서 스스럼없는 어조로 어째서 인민혁명군을 만나고싶어했는지를 물었다.

리동백은 손에 들었던 술잔을 비우고 코수염에 묻은 술방울을 손수건으로 훔치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그 까닭을 제대로 온전히 이야기하자면 아마 며칠을 두고도 다 말하기 힘들겁니다. 몹시 곤할 손님들앞에서 긴 사연을 굳이 말해 뭘하겠습니까? 별로 들을만한 가치도 없는 은둔자의 구슬픈 회고담으로 모처럼 차례진 이 귀중한 밤을 보낼게 있습니까? 경박한 호기심에서라고는 생각지 마시오. 단순한 호기심에 넋을 팔기에는 이젠 내 나이도 적지 않았구 가슴에 서린 교훈도 엷지 않소. 솔직히 말해서 한때 나는 당신들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품구 동경까지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혹 당신들께는 내가 괴이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벽지를 일부러 선택하여 은둔한 처지에 있으면서 력사에서 교훈을 찾아보고저 하는 사람입니다. 시간도 갔으니 내가 꼭 알고싶던걸 한두가지 묻고싶은데…》

《말씀하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당신들이 유격구역에서 〈공산제도〉를 실시하다가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유격구역까지 철페당하고만것 같은데 그 주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리동백의 이 솔직한 질문을 받자 그 사람은 웃으며 되물었다.

《선생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근거라니?… 그거야 당신들자신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군

이 내가 말해야겠습니까？》
《어디 말씀해보십시오.》
《좋습니다.》
움쭉 일어난 리동백은 앉은뱅이책상앞에 가서 서랍을 열었다. 그는 거기에 따로 건사해두었던 신문장을 뽑아들고 왔다.
《자, 이걸 좀 보시오. 산에서 지내는 당신들도 본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신문을 펼치고 고직활자체의 커다란 기사제목을 가리켰다.
《반년전 신문기사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리동백은 손님앞에 신문을 밀어놓고 믿지 못하겠으면 제눈으로 어디 보란듯이 초불을 들어 신문지를 밝혀주었다.
손님들은 그 기사를 눈으로 읽었다.
그 기사에는 아래와 같이 씌여져있었다.

동양평화의 화근 드디여 제거

황군은 5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값비싼 대가를 치른후에야 공산유격근거지 소탕의 성공의 날을 보게 되였다. 이로써 난공불락이라던 공산군유격대근거지는 종말의 종을 울리고 공산군은 소탕되고 아울러 동양평화의 화근은 제거되였다.
이는 황군의 대승리이며 대일본제국의 경사이다. 세상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공산군유격근거지는 전동아의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는 대일본제국의 심장부에 박힌 종처였던바 그것은 심장부를 썩이고 나중에는 불치의 종양으로 화하고있었다. 그러므로 개전하여 사흘만에 흉악한 만주군벌을 물리치고 심양을 함락시켜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한 우리의 무적황군이 그것을 제거하는데 5년이 걸린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 할수 없는것이다. …

강동무라는 사람은 몇줄 읽다말고 신문을 접어 리동백의 앞에 돌려주었다.

《선생은 이것을 믿습니까?》
《아니 그럼 유격구역이 그냥 존재한다는 말씀인가요?》
눈으로 날려드는 담배연기를 피하여 실눈을 지으며 손님의 표정을 지켜보고있던 리동백은 물었던 파이프를 뽑아들었다.
《그건 물론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믿고 안믿고 하는거야 문제설 여지도 없지 않소?》
《아까 선생자신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세상사람들이란 모두 진실을 말하고있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놈들이 진실을 말할것 같습니까?》
대답이 궁해진 리동백은 입에 다시 문 파이프를 뽑지 않았다. 일단 뽑으면 입을 열어야 하는 더 난처한 립장에 빠지게 되는것이다.
《유격근거지는 적들에 의하여 〈철페〉당했거나 〈소탕〉당한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동적으로 해산한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혁명군은 〈소탕〉된것이 아니라 장성강화되고있습니다.》
리동백은 저도모르는 사이에 파이프를 다시 입에서 뽑아들었다.
《아니 그럼?!… 그건 당신네들의 주동적조치였다는 말씀이요?》
《네.》
리동백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것은 자기의 의혹이 풀려서가 아니라 손님의 이야기를 정 못미더워하는 태도를 거듭 보이는것이 미안스럽기때문이였다.
리동백은 될수록 상대방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집요하게 자기가 관심하는바를 알아내려고 하였다.
《만일 강동지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당신네 유격대는 아직도 적잖게 남아있는셈이겠습니다?》
강동무는 빙긋이 웃었다.
《왜 그것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 세사람뿐인것 같습니까?》
《정 그렇진 않겠지만 최근 반년나마 되는동안 이 일대에서 유격대의 활동에 대한 소문을 얻어듣기 힘들게 된것만은 엄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인민혁명군의 군사행동도 정세의 요구와 혁명의 전략전술이 변

하는데 따르는것입니다. 이제 오래지 않아서 인민혁명군의 대부대가 조선에까지 나가서 원쑤놈들을 벌벌 떨게 한다는 소식이 날아들겝니다. 항상 진실을 말하고있지 않는 일제의 어용신문들까지도 조만간에 있게 될 그 사실을 다는 감추지 못할겝니다.》

회의적이던 리동백의 눈도 이때만은 동자가 커졌다.

《그건 물론… 실례입니다만 놀래우기 위해 하는 말은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사령관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확정하신 결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리동백의 두눈은 타는듯이 이글거렸다.

《장군님께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장군님께서도 건재해계시단말씀입니까?!》

《네, 무고하십니다. 앞으로 오래지 않아 일제에게 짓밟힌 3천리조국강토가 혁명의 대군을 거느리시고 압록강을 건너서시는 장군님을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아, 그래요!》

가볍게 탄성을 올린 리동백은 그 사람곁에 바싹 다가앉았다.

《대체 지금 장군님께서는 어디 계신가요?》

《조만간에 알려지게 될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들의 가장 큰 비밀로 될 이야기여서 그런지 두리뭉실하게 말했다.

속이 안달아난 리동백은 진지하고도 열렬하게 간청하였다.

《동지, 솔직히 말해주시오. 나를 믿어주시오. 이래뵈도 나는 량심을 지니구 순결한 어린 눈동자들앞에 서군하는 교사입니다. 어용교과서의 랑송자라고 여기지 마시오. 량심밖에 가르칠것 없는 내가 량심을 파는 인간으로 되지 않으리라는걸 믿으십시오.》

《못믿어서가 아니라 딱히 어디라는걸 우리자신도 모르기때문입니다. 그이께서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계시다는것을 아는 정도입니다. 저희들도 장군님을 찾아가던 걸음입니다.》

그 말을 들은 리동백은 그의 손을 꽉 잡아쥐였다.

《동지, 고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리동백은 두손으로 그의 손을 잡아흔들었다. 그리고는 일어났다.

《이거 내가 너무 체면없이 이야길 시켜서 미안합니다. 밤도 퍼그나 깊었는데 이젠 눈들을 좀 붙이십시오.》

리동백은 사이문을 열고 누이를 불러 상을 내가고 자리를 펴드리라고 일렀다.

6

길손들은 이미 잠든지 오래고 누이와 조카 옥선이도 고르로운 숨소리를 낼뿐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오직 리동백이만이 잠들지 못하였다.

난데없이 찾아든 유격대손님과의 뜻밖의 상봉은 리동백의 고요했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켰다. 리동백의 앞에 나타난 유격대원 강동무의 말은 분명 얼어붙은 그의 마음의 호수에 던져진 커다란 돌멩이였다. 그 돌멩이는 리동백의 마음속에서 소란한 외계에 대한 일체의 관심을 덮어버리고있었던 혐오와 불신과 회의의 얼음장에 커다란 구멍을 내면서 구멍밖으로 출렁 물방울이 튕겨오르게 했다.

어찌하여 그렇게 두터운 얼음장이 마음의 호수우에 얼어붙었고 또 어찌하여 그 두터운 얼음장이 난데없는 손님의 출현으로 구멍이 뚫리게 된것인가?

…리동백은 소작살이를 하는 가난한 농가태생으로 어려서부터 머리가 총명하고 감수성이 예민했다. 어려서는 마을의 서당에 다녔고 다음에는 고을의 보통학교를 다녔다. 그는 일찌 소년시절에 망국의 쓰라린 비운을 체험하였다. 하루는 나무단을 팔려고 지게를 지고 고을에 나갔다가 고을의 영문앞에 나붙은 치욕적인 《을사보호조약》에 대한 방문을 보고 점도록 그앞을 떠나지 않고 울고 또 울었다.

그가 《아는것이 힘이다, 배워야 나라를 찾을수 있다》는 애국적인 계몽운동에 공감하여 농사일을 일시 쥐여버리고 서울로 올라간것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한두해 지나서였다.

중학에 다닐 때 리동백의 흥미를 끈 과목은 력사였다. 그는 곰팡이 쓴 낡은 신문과 들깨기름이 배인 서책들속에 파묻히면 밤이 지새는줄을 몰랐었다.

리동백은 당시 류행하던 《쟌 다르크전》이나 《웰남망국사》 같은 책도 탐독하였다.

중학을 졸업한 다음 함북도 해변가의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애국문화계몽운동에 투신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난 소식은 한주일이상 지나서야 동해가의 한적한 그의 고향마을에 전해졌다. 마을의 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리동백은 그 소식을 듣자 선생들과 학생들의 선두에 서서 고을로 내려가 온종일 만세를 부르고 몽둥이를 휘둘렀다. 리동백은 고을의 경찰서를 점거한후 서장놈의 책상을 길가에 내다놓고 짚신발로 올라서서 《조선독립 만세!》를 불렀다. 조선독립이 다되는것 같았다. 그러나 얻은것은 독립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갇힌 류치장생활이였다.

리동백이 맑스주의서적에 심취된것은 류치장으로부터 감옥을 거치는 2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서 열렬한 공산주의신봉자로 되였다.

그러나 순진하고 결백한 젊은 공산주의신봉자의 유혹을 자아낸 《선배》들은 그와 같이 투명하고 고결한 넋으로 시대의 사조를 받아들인것은 아니였다. 리동백은 멋도 모르고 《선배》공산주의운동자를 따르다나니 그 유혹적인 사회운동의 첫걸음부터 미처 제정신을 차릴새 없이 파쟁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들어갔다.

리동백은 그럴듯한 행색과 언사로 치기스러운 권세욕과 협잡놀음을 가리워버린 종파분자들의 풍에 떠서 몇년동안 얼떨떨해 돌아쳤다. 그러다가 시궁창속에 빠진 자기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쯤해서 그는 한평생 소작살이에 지치다 못해 병에 걸린 아버지가 세상을 하직했고 그에 련이어 아버지를 모시고 혼자 살다싶이했던 젊

은 안해도 산후탈로 숨이 지고 자기의 피를 받은 갓난아이도 죽고말았다는 소식을 받았다.

문득 그 행세군들을 따라다니며 그 풍에 놀다간 자기가 어떠한 인간이 되고 말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리동백은 스스로도 두려웠다. 그 이상 그 사람들 곁에 있다가는 질식당해 죽어버릴것만 같았다.

하여 그는 공산당이 해산되기전에 자기가 따라다녔던 인간들의 종말을 내다보고 그들과 결별했다.

그는 서울을 떠났다. 그러나 고향엔 잠시 들렸을뿐 거기에 머무를 생각이 없었다. 아버지와 안해와 어린것의 무덤에 복토를 하고 잔디를 입혀주고는 간도로 넘어왔다.

그는 룡정에 있는 《민생일보》사에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엔 펜을 들고 그것으로 식민지사회의 암을 들창낼것처럼 또 몇년 보람없는 정열을 허비하면서 마지막 푸른 시절을 속절없이 흘러버렸다. 거기서 공산당이 해산된 소식도 들었고 파벌을 일소하고 민중속으로 들어갈것을 호소한 국제당의 12월테제라는것도 접했다. 그쯤되였으니 종파쟁이들도 교훈을 찾으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자들은 교훈을 찾지 않았다. 종파분자들은 당이 해산되자 만주에 몰려들어와서 당재건운동이요 뭐요 떠들어대면서 이국에 와서까지 다시 파쟁을 계속했다. 다시금 리동백이까지 그 진흙탕속으로 잡아끌어들이려 하면서 참으로 집요하게 책동했다. 소란스럽고 시끄러워 리동백은 거기에서도 견딜수가 없었다. 그런데다 시국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흉흉한 소문끝에 9.18사변이 터졌고 만주땅도 종시 왜놈들에게 삼키우고말았다. 언론계는 해가 바뀜에 따라 더욱더 횡포해지는 권력의 머슴군으로 굴러떨어져갔다.

몇해 지나서 때늦게나마 헛되게 산 일생을 쓰겁게 돌아본 리동백은 사회운동자의 마지막 행색마저 벗어던지고 누이가 살고있는 이 화룡땅의 깊은 산골에 들어와박혔다.

이때부터 리동백은 바깥세상에 자기 마음이 유혹되여버리지 않도록 얼음을 얼궈붙였다.

얼어붙은 호수라는것은 얼음바깥의 드넓은 세상에서 해가 뜨건 달이 뜨건 바람이 불건 눈이 오건 하늘이 개이건 흐리건 상관없이 잔물결조차 일으키지 않고 고요히 자기나름대로의 안정된 세계를 유지해나간다.

소란하고 변화무쌍한 바깥세상을 외면해버린 리동백은 이 깊은 산간벽지의 화전마을에서 자기식으로 안착된 생활을 꾸리기 시작했다. 애국문화계몽운동과 그 운동자들, 파쟁을 일삼는 공산주의운동과 그 운동자들, 이를테면 기왕의 운동과 기성의 운동세대들을 통채로 부정해버린 리동백은 탁류에 오염되지 않고 자연이 베풀어준 모습그대로의 소박성과 정직성과 생동성을 고스란히 지니고있는 이곳 벽지의 아이들을 진정한 애국자들로 키워내볼 작정으로 간이학교를 세웠다. 그는 자기가 이룩할수 없었으나 버릴수도 없는 애국의 뜻과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을 때묻지 않은 동심에 심어주는데 전념하였다. 그것을 리동백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보람차고 유일한 필생의 량심적인 사업으로 간주하였다.

일제의 어용선전물들이 《공산비적》들이라고 이름지었던 항일유격대와 유격근거지에 대한 소문을 더 자주 듣기 시작한것은 바로 이럴무렵이였다. 이른바 공산주의운동의 선배들과 권위자들에게 경솔하게 유혹당하여 그들을 묻어다닌 대가로 멸시와 배신과 쓰디쓴 환멸밖에 얻은것이 없었던 리동백은 《공비》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얼음장밖에서 울리는 소리는 얼음장안에서도 들리기마련이다.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널리 세상에 퍼지고있는 《색다른 공산주의자들》, 《색다른 근거지의 공산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완고한 불신감에 찌들어든 은둔자의 관심도 끌지 않을수 없었다.

류달리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것은 그 새로운 공산주의운동의 지도자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소문이였다.

그이의 영향력을 두려워한탓인지 일제의 어용출판보도수단들은 처음에는 장군님에 대한 보도를 매우 드물게 내고있었으나 인민들은 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였다.

전해지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실화적요소보다 전설적인 요소가 더 많은것들이였다. 그것도 향토전설에서 듣는것 같은 흔한 보통의 전설이 아니라 건국신화들과도 같이 신비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찬 전설들이였다.

장군님께서 태여나시던 날 백두산마루에 새로운 큰 별,장수별이 뜨고 천지에서 룡이 하늘로 날아올랐다는등 10살때 백두산에 걸터앉아 동해에 발을 씻었다는등 권총을 차고 왜놈들 앞을 버젓이 지나가시는데도 왜놈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보이고 인민들의 눈에만 보였다는등 그이께서 솔방울을 던지시면 금시에 폭탄으로 변하고 나무가지를 쥐시면 곧 총으로 되고 백지장에 말을 그리시면 그 말은 진짜말로 변한다는등 이러루한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았다.

그러한 여러 전설들에 의하면 **김일성**장군님은 우리 나라의 건국신화들이나 고대동서방의 유명한 신화들에 나오는 의인화된 신적존재 이상의 신기한 힘과 지혜와 용맹을 겸비하시고 천기를 타고나신 비범한분이시였다.

유물론자로 자처하고있는 리동백은 신비성이라는것을 믿지 않고있었다. 그러나 신화나 종교적인 전설밖의 대부분의 전설들에서 이야기되고있는 신비로운 현상들을 잘 살펴보면 그 밑바닥에는 실지 있은 력사적사실이 깔려있군하였다.

그런데 나날이 보충되고 확대되면서 널리 퍼지고있는 축지법이라든가 놀라운 지략에 대한 이야기들은 먼 옛날의 신화적인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금 그 어디에선가 나라의 광복을 위하여 싸우고계시는 조선의 청년장군님에 대한 전설들이였다.

오늘의 세상에서 실지로 살며 싸우고계시는분에 대한 그 가지가지 전설들을 과연 근거없는 허황한 이야기라고 단정할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현대인들속에 퍼지고있는 그분에 대한 이 신비로운 전설들은 그 어떤 사실들의 루적과 인민적념원의 교차현상이 아니겠는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날리 없고 근거없는 소문이 퍼질수 없다. 발원지 없는 강물이 흐를리 만무하다.

발원지를 찾아가보기만 하면 어찌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킬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운 물이 흐르게 되는지 명백히 깨달을수 있을것이다.

리동백은 전설의 발원지를 찾아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싶었고 전설의 영웅을 직접 만나뵈옵고싶었다.

지나온 인생행로에서 이른바 명사라고 하는 거짓위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속아왔던 리동백은 그것이 소박한 사람들의 지나치게 간절한 념원속에서 빚어진 신기루에 불과한것이 아니라는것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이제 다시 자기의 운명을 경솔하게 의탁해버리는 따위의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이러한 속심밀에 벌써전부터 장군님을 찾아 유격근거지에 들어가보자던 리동백은 그곳에서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널리 퍼지고 지어 확실한 근거도 없이 함부로 일제의 주구로 몰아 처단해버리는 가슴섬찍한 일까지 벌어지고있다는 이야기를 얻어듣게 되자 주저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역시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다는 느낌과 함께 소문에 또 속았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여 한가닥 희망에 밝아졌던 그의 마음은 어두워지고말았다.

몇달이 지나서 그는 자기를 주저하게 하였던 근거지에서의 심상치 않은 사태들은 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빚어졌었다는것과 불행한 그러한 사태를 끝장내기 위하여 바로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위험을 무릅쓰시고 결연히 나서시여 싸우시였다는 소문을 얻어듣게 되였다.

그의 열망은 되살아났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강렬해졌다. 그러나 미처 길을 떠나기전에 그는 일제의 《토벌》에 유격근거지들이 《완전소탕》되고 유격대가 《전멸》당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였다.

그의 마음은 이를데없이 허전해졌다.

세상에 널리 퍼진 이야기처럼 세기에 드문 영걸이 어찌 불우한 우리 민족속에서 나왔으랴 하는 의혹을 품으면서도 행여나 하고 안타까이 품어왔던 한가닥 기대는 허물어지고말았다.

이제는 모든것이 끝장났다. 이제는 행여나 조선을 구원해주고 뜻가진 사람들을 바른길로 이끌어줄만한 인물이 없을가 하고 찾아볼만한데도 없다. 이제는 두더지처럼 벽지에 박힌채 새세대가 자라날 장래나 바라보며 그럭저럭 목숨을 잇다가 때가 오면 이 벽지의 한줌 흙으로 변하고말리라… 이런 서글프고 쓸쓸한 생각속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여왔다.

그러던중에 홀연 나타난 유격대원들을 만난것이다.

처음 그들을 대하였을 때 리동백은 그들 세사람을 왜놈들의 《토벌》에 근거지에서 쫓기운 유격대원들중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로서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먹을것을 얻자고 내려온것이라 생각했다.

유격대원들이 확실하다는것을 깨달은 순간에 리동백이 그들과의 상면을 반가와한것은 유격근거지에 대한 소문과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던 때같이 한가닥의 기대와 관심을 품은때문이 아니라 이 30년대의 력사무대에 출현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방식으로 광복투쟁을 벌려오던 그들도 어떻게 되여 실패하지 않을수 없었는가를 알고싶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강동무란 사람은 유격근거지가 해산된 다음부터 리동백이 품어왔던 견해를 일시에 뒤집어엎는 이야기들을 하였다.

자기들의 조선인민혁명군은 《전멸》당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세하고있다, 유격근거지는 해산당한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산한것이다, 장군님께서는 건재하실뿐더러 오래지 않아 일제를 쳐부시러 조국에로 진군하시게 된다. … 참으로 놀랍고 얼른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였다.

하늘에서 불시에 뚝 떨어진 커다란 돌멩이같은 그들의 말로 하여 리동백의 마음을 덮고있던 얼음장엔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평온했던 마음속에서는 설레이는 물결과 같은 충격적인 상념들이 소용돌이쳤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유격대가 《전멸》되지 않고 도리여 승승장구한다니?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라면 과연 장군님께서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전설에서처럼 그 무슨 신묘한 수

를 쓰셨다는말인가?)

얼떨떨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가을 누님이 장보러 먼길을 갔다 와서 들려준적 있는 한가지 전설이 리동백의 머리속에 떠올랐다. 장군님께서 병인년에 조국광복을 위한 싸움의 길을 떠나시면서 어머님께 10년만 기다리시면 뜻을 이루시고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였다는 이야기였다.

장거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수군거린 늙은이들은 래년이 병자년이라 장군님께서 집을 나서신지 만 10년째되는 해인데 래년에는 국운이 트일것이라고들 하였다는것이다.

그 말대로 된다면 올해 1936년에는 온 민족이 일일천추로 고대하는 조국광복이 이룩될 해이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러한 천지개벽이 생길수 없다. 참으로 신비한 수를 써서 왜적들을 일시에 격멸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것이다.

리동백은 그런 기적적인 힘이나 신비한 수가 이 세상에 존재할수 있다고 생각지 않았다. 늙은이들이 했다는 이야기는 인민적념원이 빚어낸 그야말로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전설적이야기와 같은 유격대손님의 말을 그저 이야기로만 들어버릴수 없었다.

강동무나 그와 같이 온 두 청년은 거짓말을 하거나 《행세군》들처럼 허풍을 떨고 망탕 흰소리를 칠 사람들이 아니였다. 겉볼안이라고 리동백은 손님들의 외모를 보고서도 그들이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한 말들은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곧이곧대로 믿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믿을수도 없었다.

(과연 유격대가 《전멸》당하지 않고 오히려 승세하고있을가? 과연 유격근거지해산이 이 사람들의 주동적조치였을가? 과연 장군님께서는 건재하시는지? 도대체 어떠한 비범한 인격과 인품을 지니신분이기에 그이를 뵙지도 못한 사람들속에서는 갖가지 전설들이 전해지고 그이의 부하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이야기가 연방 터져나오게 되는가?)

이리저리 뒤척이며 둥 떠워놓고 하는 생각만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풀길이 없는 착잡한 생각속에 모대기던 리동백은 마침내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앉았다.

(백번 듣느니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데 저 사람들을 따라가보자. 장군님을 찾아가뵙자. 가서 내 눈으로 형편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지. 제3자의 말을 믿을수 없다!)

드디여 그는 이렇게 결심하였다.

(가서 제눈으로 얼마간만 케를 보면 모든 의혹을 풀수 있겠지. 이제는 내 나이도 젊지 않고 세상풍파도 겪어봤고 인생경험도 적지 않게 쌓았고 사람을 보는 눈도 틔였으니 얼핏 보기만 해도 알수 있으렸다. 내 귀까지는 속일수 있어도 내 눈만은 못속이리라.)

더는 그 어떤것에도 유혹되지 않고 이 벽지에 박힌채 영영 바깥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작정이였던 리동백은 자기의 인생행로에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속는셈치고 마음이 끌리는 길을 떠나보자는 생각이였다.

이번 길은 그전날 젊은 시절에 떠났던 길들에 비해서 훨씬 어렵고 위험하고 고생스러우리라는것을 그는 모르지 않았지만 일단 마음을 낸 이상 씨원히 가보아야만 이 벽지의 은거생활에 영원히 마음을 갈앉힐수 있을것 같았다. 장군님을 찾아가 뵐 연줄이 잡힌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영영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듯했고 그렇게 되면 행이 되든 불행이 되든 마지막으로 겪어야 할 인생체험을 놓쳐버린 아쉬움속에 나머지 삶을 내내 후회막심하게 지낼듯싶었다.

베개밑에 놓아두었던 담배통에서 파이프를 찾아 담배를 피우며 결심을 굳힌 리동백은 곁에서 자고있는 누이를 흔들어깨웠다. 곤하게 자고있던 누이는 몇번 흔들어서야 깨여났다.

《웬 일이유?》

누이는 농사군 남정네처럼 장알이 박히고 터슬터슬하고 꽛꽛한 손으로 자기를 흔들어깨운 리동백의 손을 더듬어잡으며 잠에 취한 소리로 물었다.

《조용히… 손님들이 깨겠소.》

리동백은 귀속말로 주의를 주었다.

《웨 벌써 깼수? 식전담배는 해롭다는데 새벽담배까지 피우구.》

갈이 늙어가기 시작하는 리동백을 언제나 어머니다운 다심한 정까지 겹쳐 사랑해주는 누이다. 제사전에 가졌던 노여움은 자는사이에 가뭇 잊어버린듯싶었다. 누이는 뒤가 없었다.

《아직 난 잠들지 못했소.》

《창이 훤한것 같은데 새벽이 되지 않았수?》

《지는 달빛이 비낀것 같소.》

《그런데 왜 상기 잠들지 않구?》

《그럴 일이 있어서… 누이,곤한대루 좀 일어나주.》

누이는 부시럭거리며 두말없이 일어나 앉아서 불안한듯 입속말로 물었다.

《무슨 일이게?》

《딴건 아니구 길 떠날 차빌 좀 해주.》

《유격대손님들이 벌써 떠나시겠다우?》

《손님들 조반 말고 내가 떠날 차비말이요.》

《오래비가? 갑자기 어딜?》

누이는 퍼그나 의아스러워했다. 리동백이 이 벽지에 와서 들어박힌 다음 마을을 벗어난 일은 한번도 없었던것이다.

리동백은 딱히 어디 간다는 이야기는 없이 그저 인가 없는 산속에서 여러날씩 지내도 얼지 않고 굶지 않도록 길차비를 해주면 되겠다고 부탁했다. 그러나 누이는 오랍동생이 자기 한사람의 길량식만이 아니라 손님 세사람의 길량식까지 같이 차비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에서 그가 어떤 결음을 떠나려 한다는것을 눈치채고는 떠나서는 안된다고,떠나보내지 못하겠다고 막아나섰다.

《누님,손님들이 듣겠소. 좀 조용히! 왜 그러우?》

리동백은 어둠속에서 누이의 두손을 모아잡고 속삭였다.

《오래빈 벌써 잊었소? 세상이 좁다하게 운동자란 운동자는 다 따라다닌끝에 구새먹은 나무등걸처럼 돼서 이 집에 오던 일을… 다시는 내결에서 떠나지 않겠다구 다짐한게 언젠데 또 무슨 귀신이

들어서 떠나잡네?》
《이보우 누님, 내 말을 좀 듣구려.》
리동백은 토스레저고리우로 누이의 어깨를 어루쓸었다.
《내가 뭐 죽을 길을 떠나오?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오? 내 며칠 갔다가 꼭 돌아오리다. 내 저 사람들을 따라가서 장군님을 만나뵙구는 인차 돌아서오겠으니 소란스럽게 굴지 말구 길차빌 해주구려.》
《그럼 오래빈 장군님을 뵈오러 가자구?》
《그렇소! 그분이 과연 어떤분이신지 내 눈으로 한번 뵈옵자는거요.》
누이도 장군님에 대한 소문과 전설을 적지 않게 들은지라 그 이야기에는 마음이 동했는지 대꾸가 없었다. 한참만에 누이는 한숨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 아무리 그렇대도 지나가던 손님들의 말을 어떻게 다 믿겠소? 나는 실루 하늘이 무너진대두 곧이들리질 않우. 유격대가 남아있다면야 워쩽거 몇해전엔 우리 마을에두 들락거리던 그 유격대가 그지간에 그리 즘즉했겠소?》
《그러게 내가 헛걸음삼아 한번 따라가보고 오자는게 아니겠소.》
《외삼촌, 다녀오시라요. 내 그새 간이학교 아이들을 맡아 가르칠게. 엄마, 외삼촌 길차비를 해주자요.》
잠귀 빠른 옥선이는 어느새 깨여나 그들의 귀속말을 들었는지 아무 기척 없다가 참네해나섰다.
《네 외삼촌은 그저 한뉘를 돌아다닐 팔자를 타고난갑다.》
한숨섞인 누이의 말에 리동백은 소리없이 혼자 웃음지었다.
덕대우에서 새벽닭이 울었다.

제 2 장

1

북만의 강인 목단강과 동만의 강인 할바령하는 남부로야령산줄기의 계곡들에 뿌리를 두고 하나는 동북방으로 흐르고 하나는 동남방으로 흘러내려 두만강에 들어간다.

그러나 한품속에서 태여난 두 강의 지류들은 그 생김새와 성질이 배다른 형제처럼 다르다.

비교적 성급한 할바령하의 지류는 제 성미와 같이 곧은 흐름을 이루며 험한 골짜기를 내달리다가 장백산줄기에서 뻗어나온 물줄기와 합쳐질무렵에야 좀 완만해진 흐름으로 동쪽으로 꺾어져가서는 두만강에 흘러든다. 호방하고 씨원씨원한 그 성미를 닮아서인지 맑은 강물에서는 울툭불툭한 바위들이 미역을 감고 기슭에는 기암절벽이 솟고 허공에 드리운 나무들은 장쾌한 폭포가 던져주는 구슬들을 받아쥐군한다.

그와 달리 경박호 웃쪽의 목단강 상류는 까다롭고 변덕스러운데다 음흉하기까지 하다. 물길은 바르지 않고 빌빌 탈렸고 갈래도 많다. 물굽이 어디인지 기슭은 어디서부터인지 통 알수 없다.

이 강의 상류일대는 손꼽히는 유명한 대소택지대다. 넓이가 10～20리 때로는 사오십리씩이나 되는 습지가 펼쳐져있는 이곳에 잘못 들어서기만 하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흔적도 없이 빠져든채 솟아나오지 못한다는 무서운 대천연함정이다.

풀이나 관목덤불이 자라있는것을 보고 무심히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풀로 위장하고있었던 그 음험한 진펄이 기다렸던듯 지체없이 삼켜버리고만다. 그런 뒤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듯이 태고연한 침

묵을 지킨다. 사람이나 짐승이 빠져들어간 자리에서는 감탕물거품이 불룩거리는 일조차 없는것이다.

소택지가 얼어붙은 겨울에만 그곳을 안심하고 지나다닐수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가 그 무서운 사하의 대진펄지대를 무사히 횡단하던 나날들도 철로 따지면 역시 겨울날들이였다.

그러나 불과 며칠후 사령부가 무송현가까운 돈화현의 동남부지대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겨울은 물러가고 바야흐로 봄이 마중오고있다는 자연의 소식이 전하여왔다. 1936년의 첫 봄소식을 누구보다먼저 받으신분은 사령관동지이시였다. 그것은 옥수천부근수림에서였다.

어둠이 깃든 수림속에 말을 멈춰세우시고 척후정찰을 나간 대원들을 묵묵히 기다리시던 그이께서는 곁에 있는 경위대장과 두 전령병에게 문득 조용히 물으시였다.

《동무들에게도 물소리가 들리오？》

언제나와 같이 바라지 않는 위험이 어느 시각에 어느쪽으로부터 다가들고있지나 않는가 하는데 신경을 쓰고있었던 리북철은 물론이였고 정찰나간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고대하고있던 봉길이와 종삼이도 그이의 물으심에 인차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과연 들렸다. 마치 꿈결에서처럼 어디선가 쪼르륵거리는 가느다란 물소리가 들려왔다.

《들립니다！》

먼저 봉길이가 환성을 올리다싶이 대답했다.

《들립니다！》

《들립니다！》

한종삼이와 리북철이도 잇달아 대답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예고해주는 소리인가를 온몸으로 느꼈던것이다. 그것은 눈밑에서 숨새여나온 물이 실처럼 가는 줄기를 이루어가지고 조롱박만큼이나 될 물웅뎅이에 떨어지는 소리밖에 다른것일수 없다. 그것은 분명 해묵은 풀잎을 타고 봄이 오는 소리였다.

《눈석이가 시작되는게 아닐가？》

장군님께서는 혼자말씀처럼 물으신다.

세상만사를 죄다 환히 꿰뚫어알고계시는 장군님께서 저 물소리가 봄이 오는 소리, 눈이 녹아 풀잎을 타고 작은 웅뎅이에 떨어지는 소리임을 모르시여 물으실가?

《그런것 같습니다. 날이 저문 뒤에도 오늘은 눈이 굳어지지 않고 그냥 말발굽밑에서 질척거렸습니다.》

봉길이의 대답에 그이께서는 중떠보시듯 말씀하셨다.

《래일이나 모레쯤이면 다시 꾸덕꾸덕해질수도 있지.》

봉길이 대답에 궁하여 어쩌지를 못하고있는 사이 이번에는 종삼이가 제법 경험자연한 말을 했다.

《인젠 눈이 와도 진눈까비나 오면 왔지 눈다운 눈은 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봉길이보다 한살 맏이인 종삼이는 가끔 봉길이보다 제법 아는 소리를 하군했는데 아닌게아니라 그의 답변이 더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종삼동무도 그렇게 생각하오? 우리 종삼이가 그렇다고 말하는걸 봐서 아마도 인젠 봄이 시작되나보군.》

장군님께서는 웃으시였다.

사하의 대소택지대를 벗어나서 낮에도 해빛이 스며들지 않는 넓은 수림지대를 지나 이 옥수천부근까지 오는 사이에 날씨는 어찌나 푸근해졌는지 겨우내 수림속의 짙은 그늘밑에 깔려있던 눈도 약간씩 녹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봄의 입김앞에서 늙은 겨울이 더이상 버틸만한 기력을 못가지여 물러앉기 시작한 모양인지?

사령관동지께서는 올해의 눈석이가 때맞추 시작된다고 생각하시였다. 만약 인간이 임의대로 계절변화의 시기를 선택할수 있다하더라도 이 이상 더 좋은 때를 고를수 없을만치 적절한 눈석이였다. 그것이 며칠전에 시작되기만 했어도 사하의 진펄지대를 무사히 통과해내지 못했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득불 멀고 험한 산길 아니면 위험한 도시주변의 평야지대를 에돌아야 했을것이다.

진펄을 웃쪽으로 에돌자면 말들을 버리고 로야령산줄기의 가장 험악하고 가파로운 령과 골짜기들을 지나야 하는것이며 그 길을 피

하자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적들이 우글거리는 도시와 큰 부락 주변을 지나야 했을것이다.

이 두번째 우회로는 피투성이싸움을 예견해야 하는 길이였다. 당분간은 싸움을 될수록 피해야 하는 때인데 적과 맞붙는다는것은 어느 모로 보나 손실로 될수밖에 없었다.

알맞추 시작되는듯한 눈석이로 하여 그 어느 길로도 돌지 않고 행군시일도 허비하지 않았다는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였다.

한편 눈석이가 지금보다 더 늦어진다는것도 바람직한것이 못된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땅이 풀리고 날이 따뜻해지고 새 움이 트는 봄이 와주는것이 아주 좋다. 눈 없는 계절들은 인민혁명군의 맹활약시기로 될것이다. 더구나 올해의 눈 없는 계절들이 더욱 그렇다.

《허허, 우리가 사하의 넓은 진펄을 지나오니 눈석이가 시작되는것 같구만. 우리 봉길이랑 종삼이랑 덜 고생하라구 날씨도 알아봐주는것 같거던.》

사령관동지의 말씀에 봉길은

《아닙니다.》

하고 당돌하게 대답을 올리였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건 사령관동지께서 미리 날씨가 이렇게 될줄 아시고 행군을 다그치셨기때문입니다. 천기를 내다보셨기때문입니다.》

《날씨란건 하늘의 조환데 내가 하늘의 조화를 알아보나?》

《사하진근처에서 얼음이 풀리기전에 어서 사하의 소택지대를 지나가야겠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에게 출발을 재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느결에 들었댔는지 그때 하신 말씀의 의도까지 정확히 알아맞히고있는 주봉길이였다. 귀도 밝고 령리하기도 한 전령병이다.

《그렇지만 날씨가 이렇게 신통하게 굴어줄 법이야 있나? 나는 봉길동무를 고생만 시키는데 하늘은 고생하는 봉길동무를 위

해줬거던.》

《장군님께서는 저를 아직 철부지아이처럼 여기십니다.》

《허허… 그건 또 무슨 소리지？》

《사실 저는 고생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건 봉길이가 자진해서 입대한것을 후회하지 않기때문에 그렇게 생각할뿐이지 정직하게 말하면 고생스럽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정확치 않은지 아직 해명할 여지가 많아. 그래 다음은？》

《다음은말입니다. 하늘이 알아준것은…》

봉길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기를 웬일인지 망설이였다.

《…》

사령관동지께서는 정찰대원들이 나타날수 있는 앞쪽 한결 희슥해지는 어둠속을 주시하며 봉길의 말을 기다리셨다.

끝내 봉길은 무엇인가 주저되여 하자던 이야기를 못하였다. 그는 장군님은 바로 하늘이 낸 장수이시기때문에 하늘이 낸 장수가 가시는 걸음을 하늘이 알아주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 이야기를 올리기 쑥스러웠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전령병들과의 담소를 아쉬운대로 그이상 이으실수 없으시였다. 여러 사람의 성급한 발자국소리가 앞쪽에서 들려왔다. 한결 훤해진 수림속에 정찰나갔다 돌아오는 대원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들을 마주 나가시여 보고를 들으셨다. 정찰조를 인솔했던 4중대장의 보고에 의하면 마을에서 숙영해도 무방할것 같았다. 밀림속 깊이 들어앉은 외로운 마을이여서 옥수천에서 이따금 적들이 올라오군하지만 겁나서 대낮에만 다녀가군한다는것이다.

그이께서는 마을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동시에 경각성을 높이며 특히 앞으로의 행군준비를 잘 갖출데 대한 지시를 내리시였다.

지휘관들은 흩어져갔다. 다시 마을을 향해 떠날 차비로 잠시 대

렬마다 술렁거렸다.

《출발！》

나지막한 구령소리에 뒤이어 말자갈들이 절렁거리고 안장들이 삐꺽거렸다.

말들은 저벅거리며 좁은 나무그루사이를 빠져나가느라 서로 옆구리를 부딪쳤다.

수림속이 환히 밝아졌다. 마침내 솟아오른 달이 푸르스름한 빛을 던져준것이다. 축축한 땅에서 서려오르는 김이 달빛속에서 그물거렸다. 겨울을 녹여버리는 봄의 입김일가. 아니, 바야흐로 눈석이철을 맞는 자연이 마련해주는 부드러운 우유빛주단인듯도 했다.

말들은 나무뿌리언저리로 엷은 안개마냥 깔린 그 우유빛주단을 주저없이 밟아 마구 헝클어뜨리며 우불구불한 수림속 오솔길을 빠져나갔다.

갑자기 앞이 탁 틔였다. 드문드문 나무그루터기들이 박혀있는 눈덮인 공지에는 거무스름한 띠가 얼레빗살마냥 일매지게 늘여져있었다. 양지쪽이 녹아서 땅이 드러난 밭이랑들이 그렇게 보였다. 말발굽밑에서 묵은 수수그루터기들이 밟혀 부스러졌다.

은근한 빛으로 모든것을 신비롭게 채색해버린 밝은 달이 밭 저편 숲의 울바자우에 둥실 떠있다. 한쪽 볼이 약간 설익은 둥근달이였다.

(그런즉 래일이 음력 보름이겠군？)

온몸에 스며드는 봄의 훈향에 혼곤히 잠겨드신채 미혼진에 가시여 하실 사업에 대하여 머리속으로 더듬으시던 사령관동지께서는 열나흘달을 보시게 된 그 순간에 래일이 신입전령병 주봉길의 생일날이라는것을 문득 상기하시였다. 무심히 넘겨버리실수 없는 날이다.

지금쯤 흑석향의 그의 늙은 부모는 추녀끝에 걸린 저 달을 쳐다보면서 집을 떠나 객지에서 처음으로 생일을 맞게 될 외아들을 생각하며 뒤숭숭한 심정들일는지도 모른다. 늘 품고지내던 병아리같은 어린 자식을 내놓고 소식도 모를 부모들의 그 심정인들 오죽이나 허전하고 불안스러울것인가？

봉길이도 지금 없는 살림에나마 생일상을 차려주군하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고있는지 모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뒤를 돌아보시였다. 혼자 입속으로 무엇인가 중얼중얼 외우고있던(아마도 오늘의 학습과제를 암송하고있는것 같았다.) 봉길은 자기를 돌아보시는 그이의 시선을 감촉했던지 눈길을 쳐들며 입을 다물었다. 눈길이 마주치자 쑥스러웠던 모양 벌씬 웃는다.

언제나 사령관동지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봉길은 그이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눈치다. 사령관동지께서도 사랑스러운 전령병에게 무엇인가 따뜻한 말씀을 해주고싶으시였다. 하지만 허리를 너무 꿋꿋이 펴지 말라고, 그러다 말이 나무뿌리에라도 발굽을 걸채게 되면 말등에서 떨어지리라고 타일러주시고는 머리를 돌리시였다.

(래일은 봉길이한테 뭘 좀 해줘야겠는데… 무얼 해준다?)

마을에 당도할 때까지 사령관동지께서는 그 한가지 생각에 골똘하시였다.

숲 저편에서 개짖는 소리와 닭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퍼그나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2

밤중에 새로 갈아대였던 두번째 초대도 이제는 손가락 한마디 기장만큼밖에 남지 않았다.

새벽닭은 두홰째 울었다.

책에 열중하신 장군님께서는 닭울음소리를 듣지 못하시였다. 행군중의 휴식짬과 숙영의 밤에 틈틈이 사흘째 읽으시는 책이였다. 어떤 책이건 일단 시작하시게 되면 끝까지 철저히 읽고마시는 장군님이시였다.

갑자기 너무 밝아지는 초불에 눈길을 돌리신 그이께서는 성냥

개비로 거의 타서 처져내린 새까만 심지를 끊어내시고 대밀에 흘러내려 고드름처럼 엉켜붙은 초쪼각들을 뜯어 불심지옆에 올려놓으시였다. 불길은 곧 움츠러들었으나 잠간사이에 얹어놓은 초쪼각들을 녹여버리고는 다시 키를 솟구었다.

그러기를 몇번, 마침내 심지가 다 타기전에 마지막 책장을 덮으신 장군님께서는 회중시계를 꺼내보시였다. 곧 주무시면 두시간쯤은 쉬실수도 있었다.

장군님께서 주무시기전에는 자기들도 자지 않겠다면서 공부를 하던 봉길이와 종삼은 어느새 노그라져버렸는지 들어가도 모르게 정신없이 자고있다. 사령부의 행군서고로 되고있는 책배낭은 봉길의 베개가 되여 그의 잔등과 머리밑에 깔려있었다.

열여섯, 아직 한창 자랄 나이인데다 익숙치 못한 행군에 어지간히 지친 모양인지 제법 코고는 소리까지 낸다.

손수건으로 봉길이의 입언저리와 뺨을 닦아주고나신 장군님께서는 움쭉 허리를 펴시고 봉길의 곁에서 일어나시려다가 전령병의 머리맡에 둔 책을 보시였다. 어떤 불의의 정황이 생긴다 해도 곧 행동할수 있도록 책을 배낭속에 넣어두는것도 필요했지만 전령병들이 편하고 뜨뜻이 쉬게 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자는대로 두실수 없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주무실 자리로 내여놓은 방아래목에 봉길이를 조심스럽게 들어옮겨눕히시였다. 책배낭에 책을 간수하시고 웃목에서 새우잠을 자는 종삼이도 옮겨눕히시였다. 그래도 전령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곯아떨어졌다.

저절로 다 사위여가는 초불을 불어끄신 장군님께서는 퇴창가의 맨 웃목에 누우시였다. 빨간 반점이 되였던 초불심지는 어둠속에 묻혀버렸다.

방문에는 달빛이 환했다. 달이 퍼그나 기울었는지 사이 뜬 문살들이 폭넓은 그림자를 진하게 비꼈다. 지금쯤 달은 아주 둥그러져서 저렇게 밝은지 모른다.

달이 아주 둥글게 영글면 보름이다. 음력 2월보름이다.

생일날이면 혈육이 더 그리워지는 법이다. 래일은, 아니 오늘은

봉길이를 섭섭치 않게 해주어야 한다.

처절썩… 문앞에서 무엇이 떨어져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동기와지붕처마끝에서 떨어진 고드름인듯하였다. 환한 창문지에 고드름그림자들이 비꼈다. 아래로 길게 드리운 그 그림자끝부리에서 이따금 락수방울 그림자가 언뜻거리고 뒤미처 쫄벙쫄벙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눈이 다 녹아버리면 새 움이 트고 꽃피는 계절이다.

봄! 1936년의 봄, 우리 조선혁명이 활짝 피여날수 있는 봄,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 하셔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은 봄이다.

갓 진행한 남호두회의의 결정대로 무장투쟁을 더욱 확대하여 국내에까지 들어갈 준비를 갖추며 조국광복회의 기치아래 전 민족을 굳게 단합시키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독자적인 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준비도 힘차게 내밀어야 할 봄이다.

이 모든 사업을 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인민혁명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확대하여야 한다. 적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안겨주는데서는 두말할것도 없고 민족통일전선결성에서도 당창건의 준비에서도 인민혁명군은 주추돌로, 기둥으로 되는것이다. 그 고리부터 풀어야 다른 모든 고리들이 풀린다.

인민혁명군을 정비, 보강, 확대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게 취해야 할 조직적대책은 사령부의 친위대로 될 새로운 사단을 편성하고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사령부가 친솔하게 될 이 새로운 사단은 전체 조선인민혁명군의 핵심으로, 주력으로, 본보기로 되게 꾸려야 한다. 앞으로의 국내진공을 비롯한 인민혁명군의 모든 군사작전과 군사행동은 바로 이 새로운 부대를 주력으로 삼아 수행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

엇갈려 갈마드는 궁금하신 생각에 마음이 뒤숭숭해져 잠못이루고 계시던 장군님께서는 갑자기 자지러지게 짖어대는 개소리에 생각을 깨치셨다. 마을끝에서 여러마리가 짖어댔다. 무슨 일이 생긴것인가? 낯선 사람이 마을에 나타난것인가? 순찰대원을 보고 짖어대는것일가?

한동안 소란스럽게 짖어대던 개소리는 점차 뜨음해졌다. 이따금 컹컹 짖다가 얼마후에는 아주 잠잠해졌다.

그러나 몇분쯤 지나서 다시금 일제히 짖어대는 소리가 일더니 그 소리가 점차 가까이로 옮겨왔다. 다급한 발걸음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무슨 정황이 생긴듯했다.

장군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달빛어린 방문턱밑에 들여놓아두셨던 지하족을 신으시며 바깥소리에 주의깊게 귀를 기울이시였다.

두사람의 발걸음소리였다. 한사람의 발걸음소리는 규칙적이였고 다른 한사람의 발걸음소리는 한쪽발을 살룩살룩 저는 발걸음소리였다. 먼 길을 온 통신원들이 아닌가?

집근처에 와서 그 발걸음소리는 동안이 떠지는것 같더니 사립문밖에서 멎어버렸다. 사처에서 개들이 기승스럽게 짖어댔다.

창호지를 바른 출입문 한가운데 붙어있는 손거울만한 유리쪼각을 통하여 바깥이 내다보이였다.

달빛 푸른 마당에 시꺼먼 그림자를 던지며 솟아있는 발구채옆에서 세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한사람의 어깨우에서는 날창이 서늘한 빛을 뿜고있다. 보초근무를 서고있는 경위대원 문룡이였다.

멜띠 달린 군복에 권총을 차고 귀덮개를 올린 털모자를 쓰고있는 사람은 경위대장 리북철이였다. 항상 사령부호위에 신경을 쓰고있는 리북철은 어쩌다 눈무지속에 박혀 잠자게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추운 때라도 절대로 귀덮개를 내리워놓는 법 없이 지내는 사람이다. 그의 별명과 같이 《밝은 귀》를 언제나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모자를 벗어들고 주무르며 이 집을 향해 서있는 세번째 사람은 대체 누구인지 짐작이 가지 않으셨다. 달빛은 시원한 이마만 륜곽을 드러내보인다. 일행중에 저렇게 번듯한 이마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여시고 마루에 나서시였다.

《북철동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 불쑥 문을 열고 나오시는것을 본 리북철은 저으기 당황했다.

《아니, 별일이 없습니다.》

북철은 어물어물 대답하며 슬며시 곁사람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어서 물러나자는 신호였다.

《그건 누굽니까? 먼길을 걸어온것 같은데.》

장군님께서는 낮고도 웅글은 목소리로 물으시며 마당에 내려서시였다.

뜻하지 않은 정황에서 피할 도리가 없게 되였다는것을 깨달은 순간 리북철은 몸가짐을 바로잡고 보고를 드렸다.

《강세호동지가 찾아왔습니다. 저희네 중대 정치지도원으로 사업하던…》

《옆에 선게 세호동무란말이요?》

《네.》

장군님께서는 천만뜻밖이시였다.

그를 생각하실 때마다 이번에 미혼진에서 만나게 되면 다행이리라 여기시였던 강세호였다. 미혼진에도 오게 될지 말지 걱정스럽던 그 귀중한 사람이 사령부가 지나다가 하루밤 자고가게 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돈화오지의 작은 산간마을에 나타나게 될줄은 장군님께서도 짐작하지 못하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급해진 걸음으로 강세호에게로 다가가시였다. 강세호도 부르튼 발을 가볍게 살룩거리며 장군님 앞으로 마주 달려왔다. 그대로 장군님의 품속에 안겨들듯 다가오던 강세호는 겨우 자신을 다잡고 두어걸음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춰서며 털모자굽에 오른손을 올려다붙였다.

《사령관동지!》

기쁨에 겨워 아뢰는 그의 목소리는 감격의 목메임속에 잦아들었다. 이전보다 퍽 수척해서인지 관골이 더 두드러진듯한 그의 량볼에서는 두줄기의 눈물이 달빛에 번들거렸다.

《왔구만! 동무가 왔구만!》

장군님께서는 몹시 그리웠던 전사를 가슴에 부둥켜안으시였다.

전보다 어쩐지 더 넓어진듯한 강세호의 어깨와 잔등이 소리없는 감격의 흐느낌에 물결쳤다. 이 억센 사내대장부의 뜨거운 눈물을 대하는것은 얼마만이였던가? 로야령의 낯선 외딴 집에서 처음으로 정신이 드시였을 때 첫눈에 뜨인것이 바로 이 강세호의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였다.

이번 북만원정을 떠나시기전에 그에게 정치공작임무를 주고 공작지로 떠나보내실 때에도 역시 눈물이 그렁해지던 강세호였다.

《반갑소. 동무가 이렇게 살아돌아와서 고맙소!》

장군님께서는 강세호의 어깨를 떼여놓으시고 그의 얼굴을 잠간 마주보고는 또다시 꽉 그러안으시였다.

장군님의 속눈섭에도 눈물방울이 맺혀 달빛에 반짝이였다.…

《손을 잡아보니 강세호가 분명키는 분명쿠만.》

포옹이 거듭된 뒤 마침내 강세호를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가시려고 그의 손을 잡으신 장군님께서는 새삼스러우신듯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강세호의 손을 잡으신 순간 오가자에서 머슴살이를 할 때 작두질을 하다가 다친 허물자리를 감촉하신것이다.

《부상당했던 상처는 다 아물었소?》

《다 아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리는 저오? 왼발에 관통상을 받았댔다지?》

《네, 다 나아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모르겠다, 정말인지…》

장군님께서는 혼자말씀으로 뇌이며 미심쩍게 웃으시였다.

강세호는 마주 웃는 가운데서도 장군님의 신색을 살피고 또 살피군했다.

강세호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장군님께서는 유쾌히 말씀하시였다.

《내가 또 촉한이라도 걸리지 않았는가 해서 그러는게 아니요? 이번엔 일없소. 감기에도 안걸렸습니다. 그런데 련락갔던 현팔동무는?》

장군님께서는 리북철을 돌아보며 물으시였다.

《현팔동무도 같이 무사히 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만나뵈라고 했습니다. 강세호동지도 뵙기는 아침에 만나뵙겠는데 사령관동지께서 주무시는 이 집울타리밖에까지만이라도 와보자구 해서…》
장군님께서는 조금이라도 가까이 와있고싶어했을 강세호의 뜨거운 마음을 느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정겹게 강세호를 돌아보시였다. 그러나 강세호는 괜한 이야기를 꺼내서 자기를 어색하게 만든다고 나무라듯 리북철을 슬쩍 흘겨보았다. 그런 눈치를 챈 리북철은 강세호이야기를 중둥무이하고 보고드려야 할 다른 이야기를 마저 말씀올렸다.
《그밖에 또 두사람이 같이 왔습니다. 강세호동지가 데리고 온 사람들인데 그들은 현팔동무와 같은 집에서 쉬도록 했습니다.》
리북철의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다시 강세호를 돌아보시였다.
《데리고 왔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데리고 온게 아니라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데리고 온게 아니구 따라왔다?… 가만,이렇게 여기 서있지 말구 들어가서 들읍시다. 우리가 떠들어서 주인집사람들이 다 깨여나겠습니다. 자 어서 들어갑시다.》
장군님께서는 강세호의 팔을 잡으시였다.
주저하며 장군님께 이끌려오던 강세호는 퇴마루밑에 이르자 멈춰서고말았다. 그는 장군님께 죄송스러운듯 아뢰였다.
《저도 같이 온 동무들한테 가서 자고 아침에 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를 사양하는 강세호의 속심을 장군님께서는 대뜸 알아차리시였다. 날이 샐녘이 오래지 않았는데 장군님께서 좀 주무시게 해드리자는것이였다.
《그럼 나와 같이 잡시다. 내가 말을 시키지 않을테니.》
웃음속에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이였다.
강세호는 어줍게 뒤머리를 긁고는 장군님을 뒤따라 어두운 방안으로 들어갔다. 리북철이도 따라들어가서 자못 궁금한 강세호

의 이야기를 듣고싶었지만 방안이 비좁은데다 경계초소들을 마저 돌아보아야 할 일들때문에 바깥에 남고말았다.

두 어린 전령병들은 장군님께서 강세호를 따뜻한 자리에 앉히시느라 자기들을 약간씩 떠밀어올리고 다시 이불을 덮어주시는데도 그냥 정신없이 자고있었다.

《새 초대가 배낭안에 있지만 어두운대로 그냥 잠간 이야기합시다.》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화로를 강세호앞에 옮겨놓으신 장군님께서는 부저가락으로 재속에 파묻혔던 불들을 헤집어놓으시였다.

《자, 불을 쪼이며 대체 어떻게 돼서 여기로 오게 되였는지 그것부터 좀 말해보시오. 어디서 현팔동무를 만났습니까?》

《제가 치료받고있는 화전막으로 찾아와서 상처가 나았으면 미혼진으로 오라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처음엔 미혼진으로 가자고 했댔습니다. 그랬는데 남호두회의 이야기와 사령부가 나오고있다는 이야기랑 듣고나니 가슴이 끓어번져 미혼진에 가서 사령부가 나오기를 기다려낼것 같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남호두회의에도 참가 못하고 중도에서 발을 묶이운게 분하고 안타까왔댔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한시바삐 뵙고싶어서 견딜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곧장 미혼진으로 넘어가면 길도 그리 멀지 않고 고생도 덜 할텐데 채 낫지도 못한 그 발로 행처도 잘 모르는 우리를 찾아오다니? 나는 동무생각을 할 때마다 미혼진에도 꽤 와낼가 하구 걱정했댔습니다.》

자기를 나무라듯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에 강세호는 변명처럼 말했다.

《현팔동무한테서 이번 남호두회의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에 전력해야 한다고 하신 사령관동지의 뜻대로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풀리고 우리 조선혁명앞에 새로운 창창한 앞길이 열리게 되였다는 이야기랑 듣고나니 한시바삐 직접 만나서 통쾌한 회의이야기를 자세히 알고싶기두 하구 새로운 방침을 받들고 하루속히 일하고싶기두 했습니다. 그래서 현팔동무를 만난 그길로 길을 떠났

는데 제가 치료받던 주인집아들이 따라나서지 않겠습니까. 조두칠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유격대에 넣어달라고 저한테 그냥 조르군했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어둠속에서 소리없이 웃음지으시였다.

《동무도 그 집 신세랑 지군 했으니 떠날 때 같이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겠지?》

《전 그저 어정쩡하게 말해두었는데…》

강세호는 뒤말을 어물어물했다.

장군님께서는 너그럽게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하여튼 좋습니다. 부상당한 몸으로 치료를 받으면서도 유격대원까지 양성해냈으니… 같이 데리고 왔다는 다른 한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정말 제가 데리고 온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리까지 속이며 따라온 사람입니다. 화룡과 연길 접경지대의 벽지에서 간이학교 선생노릇을 하는 리동백이라는 사람인데 좀 별난 사람입니다. …》

강세호는 오는 도중에 바라지 않았던 동행자를 만나던 사연을 간단히 말씀드렸다.

《…이튿날 새벽에 그 집에서 다시 길을 떠날 때 그 사람도 먼길 가는 행장으로 따라나서며 자기도 다니러 올데가 있는데 한동안 길을 안내해주는겸 동행하겠다질 않겠습니까? 우린 그저 그런줄 알고 고맙게 생각하며 같이 떠났습니다. 수십리를 와도 어디까지 다녀가려는지 떨어지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사람때문에 우리 걸음은 지체되고 해서 이제는 그만 갈데로 가라고 했지만 그냥 같이 가자고 하며 따라왔습니다. 나중에는 량해를 구하고 우리는 길이 바빠서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자기의 속심을 털어놓는데 자기는 장군님을 뵈옵기 위해서 따라나섰으니 같이 가자는겝니다. …》

무슨 까닭으로 장군님을 찾아뵈옵자는가? 공식적태도로 묻는 강세호의 질문에 리동백이도 또한 정중한 태도로 그것은 이미전부터 갈망해왔던 평생의 숙망이였다고, 그이를 뵈옵는것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고, 당신네가 의심하거나 경계할만한 불순한 동기는 자기 가슴의 그 어느 구석에도 없다고 대답하면서 만일 자기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더라도 자기는 기어코 따라가야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다는것이다.

《…한번 그렇게 말을 내놓고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념을 안했습니다. 지레대로도 움직일수 없는 고집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는수없이 데리고왔습니다. 의심스러워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시는 철저히 하라고 제가 현팔동무와 두칠동무에게 일러두었습니다.》

강세호는 이런 말로 바라지 않았던 동행자였다는 《별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맺었다.

내내 아무런 말씀도 없이 듣고계셨던 장군님께서 물으시였다.

《몇살이나 됐습니까?》

《마흔이 넘은것 같습니다. 코수염을 기르구 나이가 있기때문에 저하구 같이 온 동무들은 〈대통령감〉이라구 합니다.》

《대통령감이라니?》

《담배를 피울 때면 꼭 파이프에 담아 피우군합니다. 그의 말을 좀 들어보니 공부도 했구 도회지물도 먹고 경력도 꽤 복잡한 지식인인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줄은 어떻게 알고 찾았습니까? 현팔동무도 우리의 행군로정은 모르고 동무한테 갔겠는데?》

《미혼진에서 제일 가까운 돈화의 마지막마을부터 남호두쪽으로 거슬러올라가며 찾느라면 사령부를 꼭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일이 되느라 묘령에서 잘가 하다가 달이랑 좋은 김에 령을 내려와서 이 마을까지 행군해왔는데 마을어구에서 만난 첫 사람이 리북철동무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무들을 만난건 잘됐지만 그렇게 찾아오자니 얼마나 숨차게 걸었겠습니까? 그 성하지도 못한 다리를 가지구… 어쨌든 동무가 오니 나도 마음이 더 든든해지는구만. 참 잘 왔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다시한번 허물자리 있는 강세호의 손을 꽉 잡아 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강세호가 채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어찌하여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하여 행군중의 사령부를 찾아 달려왔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으시였다. 강세호가 남호두회의 이후 새롭게 해결하여야 할, 전에없이 벅찬 사업들을 벌려야 하시는 장군님을 한시바삐 가까이에서 모시고 그 사업들을 보좌해드리기 위하여 달려왔음을 간파하신 그이께서는 강세호를 무척 고맙게 여기시였다.

자신께서 친히 키우신 믿음직한 지휘성원의 한사람이 지금 여기, 바로 곁에 와있는것이 장군님께서는 마음 든든하시였으며 기쁘시였다.

그이께서는 감개무량하신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도 현팔동무한테서 들어 대강 알겠지만 이번에 녕안현 남호두에서 가진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조선혁명을 마음먹고 크게 앙양시켜야 하겠는데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놓고 여러날 토의하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해서 첫째로 하자고 토의결정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조선인민혁명군이 국경지대와 국내에까지 진출해서 싸우자는것입니다. 그래야 일제의 야수적인 폭압속에서 우리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는 국내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희망과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줄수 있고 국내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지도를 능동적으로 보장할수 있으며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 대앙양의 바람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경지대와 국내에 나가 싸우자면 국경연안에 새로운 근거지가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무장대오를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백두산일대에 새로운 형태의 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결정과 그곳에 나가 싸울 력량을 꾸리기 위해서 튼튼한 주력부대로 될 새로운 사단이랑 편성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얼핏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부풀고 힘이 용솟음치는 장군님의 명쾌한 말씀에 흥분한 강세호는 기쁨을 못이겨 불쑥 이야기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번 조국땅에 나가서 왜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겨봤으면 하는게 큰 소원이였는데 이제 저도 그 소원을 풀게 되였습니다!》

《왜 동무만 그렇겠습니까?》

하고 장군님께서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되받으며 말씀하시였다.

《나도 그렇고 모든 대원들이 다 그런 숙망을 품고있었는데 과히 멀지 않은 앞날에 그 숙망들이 풀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새로운 주력부대를 편성하구 백두산근거지를 꾸려내는가에 따라 그 숙망을 푸는 날이 가까와질수도 있고 좀 멀어질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그만큼 조선혁명도 빨리 앙양될것이고 나아가서 조국광복의 날도 앞당겨질것입니다.》

언제나 침착한 편이던 강세호였지만 그는 자주 앉음새를 고치며 어둠속에서 부시럭거렸다. 날듯한 기분으로 하여 마음을 진정시킬수 없었던것이다.

《…우리 혁명의 새로운 앙양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겠다고 토의결정한 중요한 문제는 극소수의 반동분자들을 제외한 전체 조선인민을 조국광복전선에 하나같이 묶어세우는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오자는것입니다. 온 민족의 힘을 총동원해서 일제와 맞서 싸우게 하자면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진 포괄적이고 전일적인 통일전선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인민혁명군이 국경지대와 국내에까지 나가 적들을 치게 되고 전체 민족이 단합하여 광복전선에 떨쳐나서게 되면 우리 혁명은 한층 고조될것이 명백합니다. 거기에 또한 당창건준비사업까지 적극 추진시키게 되면 우리 조선혁명은 바람을 탄 불길처럼 세차게 타오를것입니다.》

강세호는 3천리조국의 온 강토에서 장엄하게 타번지는 혁명의 불길을 눈앞에 보는듯싶었다. 그것은 말그대로의 불길이였다. 그 화염속에서 순식간에 타버린 일장기가 재티로 되여 산산이 흩어지며 날아나는 통쾌한 모양도 보이는듯하고 그 장엄한 불길에서 풍

기는 뜨거운 열기가 자기 몸에도 끼쳐지는듯하였다.

《…남호두회의에서 토의결정한 이러한 방침들과 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백두산기슭을 향해서 먼 행군길을 떠났습니다. 이 길은 곧 우리의 새로운 투쟁무대인 국경지대와 조국땅에로 나가는 길이며 새로운 근거지를 꾸리러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로 나가는동안에 우리는 새로운 주력사단이랑 편성해서 튼튼히 꾸려야 하고 전 민족을 하나로 묶어세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의 창립도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기슭에 가닿을 때에는 조국땅으로 진군할 군사적준비도 기본적으로 해놓고 온 민족이 단합해서 조국광복전선에 총동원할수 있는 준비사업도 다 하자는것입니다. 즉 백두산으로 나가는 이번 행군을 통하여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을 마련하자는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가 다시 이으시였다.

《나는 이제 나가다가 미혼진에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개편문제,특히 새 사단 편성문제를 토의하자는것입니다. 그래서 동무랑 미혼진에 불렀습니다. 앞으로 새로 편성하게 될 부대를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로 만들자고 합니다. 새로 꾸리는 부대에서 동무는 튼튼한 주추돌이 돼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무가 미혼진에 꼭 와주었으면 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말씀을 맺으시고 어둠속에서 눈만 반짝이는 강세호를 넘겨다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강세호에게 새 사단의 한개 련대를 맡기실것을 생각하고계셨지만 그것만은 아직 말씀하시지 않으시였다. 흥분에 겨워 내내 몸을 안정하지 못하고 앉아있던 강세호는 갑자기 얼어붙은듯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사령부의 친위부대,인민혁명군 주력부대로 될 새로운 사단의 하나의 주추돌로 믿어주시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이 그한테는 너무도 엄청나고 아름찼던것이다. 과연 자기가 사령관동지를 떠받들어올릴 굳건한 주추돌이라 할만큼한 자격이 있겠는지 또 그렇게 책임적이고 무거운 사업을 감당할수 있겠는지? 감격스러운 동시에 아름차게도 느껴진 강세호는 소리없이 큰숨만 내쉬였다.

《동무가 너무 남호두회의이야기를 듣고싶어하는것 같아서 이

야기를 좀 해준다는게 길어진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만큼 이야기하고 좀 눈을 붙입시다. 이제 눈을 붙여도 한시간은 잘수 있습니다. 래일은 또 길을 떠나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강세호에게 목침을 내주시고 묵묵히 앉아있는 그의 옷자락을 가볍게 잡아당기시였다.

《어서 누우시오.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누워봅니다. 왕청에서 갈라진후로는 처음이지?》

《네.》

《참 잘 왔소.》

《…》

《빨리 잠드는 법을 잊지 않았겠지?》

《네.》

《그럼 어서 잡시다.》

숲너머에 달이 기울었는지 창문은 아주 어두워졌다. 오래지 않아 날이 밝을것이다.

철썩!

창밖에서는 녹아떨어진 고드름이 땅에 부딪쳐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3

리동백은 무슨 짐승의 울음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어찌나 놀랐던지 잠깨는 순간 진땀이 났다. 어떤 맹수가 잠든 자기를 노리며 달려드는줄 알았던것이다.

그러나 주위에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도 우중충한, 나무숲도, 희끗희끗한 눈무지도 보이지 않았고 볼을 찌르는 잣검불도, 뼈속까지 스며드는 랭기도 없었다. 눈 닿는데마다 귀틀벽들이 둘러막혀있고 잠자리밑은 따끈따끈한 온기가 돌았다. 한지가 아니라 집안이였다.

그제야 리동백은 간밤 마을어구에서 유격대순찰병들을 만났던 일과 어느 한집에 안내되였던 사실을 상기하였다. 그 다음일은 기억에 아리숭하다. 누이네 집을 떠난지 사흘만에 지칠대로 지친 몸으로 따뜻한 집안에 들다보니 이내 잠들어버렸던것 같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지 방안은 어둑시근한데 아무리 둘러보아야 같이 들어와 곁자리에 누웠던 현팔이와 두칠이도 없고 어둠속에서 자리를 좁혀주며 어서 누우라고 자리를 권하던 다른 인민혁명군대원들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나만 두고 어디로들 떠나가버린게 아닐가?)

강세호네를 따라 떠난 때로부터 줄곧 그의 의식속에 잠재하고 있던 불안이 머리를 쳐들자 가슴이 섬찍해졌다.

그러나 때마침 그의 의혹을 풀어주기나 하듯 바깥에서 용을 쓰며 코투레질하는 말울음소리에 뒤이어 귀에 익은 강세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은 아직도 깨지 못했소?》

《말두 마십시오. 아주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됐습니다.》

익살꾸러기 현팔이의 목소리였다.

《부르튼 발이 몹시 쏘는지 끙끙 앓음소리를 내면서두 정신없이 잡디다.》

두칠이가 곁달아 말했다.

(잠결에 어지간히 추한 꼴을 보인 모양이군. 원 사람들두, 그렇더라두 좀 눈을 감아줄거지.)

리동백은 무슨 일이건 강세호에게 죄다 꼬치꼬치 보고하군하는 현팔이와 두칠이를 나무라면서도 그들을 고맙게 여겼다. 역시 그들은 자기를 혼자 남겨두고 가버리지 않은것이다. 저렇게 배낭이랑 모포랑 주련이 있는것도 보지 못하고 한순간이나마 그들을 의심했던것이 부끄럽고 미안스러웠다.

《동무네도 발이 부르텄는데 선생이야 말할것 있소? 그래두 행군할 때엔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참질 않소?》

웬일인지 강세호가 두둔해주었다.

《그건 우리가 떼놓고 갈가봐 그러지요. 아주 능청스럽단말입

니다.》

《여, 듣겠어.》

두칠이의 말에 현팔이가 윽박지른다.

《아예 녹초가 돼서 곯아떨어졌는데 듣길 어떻게 듣는다구…》

《아무렇든 용한 어른이요. 그런데 어쩐다? 미안한대로 깨울가?》

강세호의 말은 의논조였다.

《당장 출발입니까?》

《아침도 안먹고 출발이겠소? 다른 일이 있소.》

《무슨 일입니까?》

《동무넨 상관없소. 아침을 치르고는 인차 출발할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지시를 기다리오. 옷차림이랑 잘해야겠소.》

리동백이 미처 잠자리를 거두기전에 강세호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일어나셨군요! 마침 잘됐습니다. 아직도 주무시나 해서 깨우려던 참입니다.》

강세호는 뜻있게 웃었다.

《무슨 일인데요?》

《저하구 같이 갑시다.》

《어딜말인가요?》

《가보면 알게 됩니다.》

강세호는 리동백을 도와 모포를 접다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밖으로 도로 나가더니 잠시후 주인집에서 더운 물이 담긴 세면소랭이를 빌려들고 들어왔다.

《제깍 세면하십시오.》

리동백은 여느때없이 초조하고도 엄숙한 표정이 떠도는 강세호의 얼굴을 묻듯이 쳐다보았다. 그러나 강세호는 왜 세면을 제깍 해야 하는가 하는 리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

(내 신분과 정체를 캐보자는걸가?)

리동백은 강세호의 보고를 받은 부대장이나 또는 그 수하사람이(그는 이 마을에서 숙영한 부대가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친

솔을 받고있는줄은 알지 못하고있었다.) 그 무슨 심문같은것을 하려는것이 아닐가 하고 생각했다. 파악 없는 사람이 무장대렬에 끼여든만큼 어떤 류의 군대건 이런 경우에 알아보려고 안할리 없을것 같았다. 그러나 한편 강세호가 세면시켜가지고 데려갈 생각을 가지는걸 보면 딴일인지도 모른다.

《면도도 해야겠는데?… 사흘째나 수염을 밀지 못해서…》

리동백은 수염이 더부룩한 턱을 손바닥으로 어루쓸었다. 면도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에서보다는 면도에 대한 동의여부가 무엇인가를 암시해줄수도 있지 않을가 해서 물어본 말이였다.

강세호는 그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살펴보고나서 구들에 걸터앉았다.

《약간 지체하더라도 그러는편이 낫겠습니다.》

심문은 아닐듯했다.

그가 세면을 끝내자 강세호는 손수 세면물까지 버려주었다. 사흘만에 면도질을 한 리동백은 머리를 빗는김에 코수염까지 잘 다듬었다.

《됐습니다. 이젠 갑시다.》

세면도구들을 자기의 등산용배낭주머니속에 밀어넣고 일어나던 리동백은 문을 열고 앞서 나가는 강세호의 등뒤에 대고 넌지시 물었다.

《이 짐도 가지고 갈가요?》

《아니, 그냥 나오십시오.》

따뜻한 집안에서 자고 더운 물에 세면을 해서 그런지 봄날처럼 푸근하게 느껴지는 새벽대기였다. 하늘은 한창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어느결에 함께 잔 부대사람들과 친했는지 주인집마당 청소를 하는 혁명군들속에 어울려 밤새 추녀밑에 떨어진 고드름들을 삼태기에 주어담고있던 두칠이의 아침인사를 받으며 강세호를 뒤따라 마당밖에 나선 리동백은 역시 여러명의 인민혁명군대원들이 마을길을 쓸고있는것을 보았다.

아침연기 자욱한 마을 곳곳에서는 산간마을의 아침에 흔히 들

을수 있는 각가지 소음들이 울려왔다. 그러나 인민혁명군에 대하여 탐방기자와도 같은 관심이 촉발된 리동백은 이 낯선 마을에서 듣는 아침의 소음들이 여느 산간마을에서 흔히 들을수 있는 소음들과는 전혀 류가 다르다는것을 느끼였다. 여기서 듣는 아침소음은 활기에 차고 약동감으로 충만된것이였다. 씩씩하면서도 나직한 구령소리와 언땅을 울리는 말발굽소리들,무기가 부딪치는 소리들이 태고연한 대자연의 아침소음과 어울려 장엄한 화음을 이룬탓인지 모른다.

커다란 까치둥지를 떠이고 서있는 늙은 봇나무와 연자방아 사이로 내다보이는 마을 저편 거뭇한 전나무숲 변두리에서는 몇명의 인민혁명군대원들이 매놓은 말에 비질을 해주기도 하고 마구를 손질하기도 하고 어떤 대원들은 김이 문문 나는 말여물을 날라오기도 하였다.

시뻘건 맨발에 짚신을 신은 한떼의 조무래기들이 우르르 그리로 몰려가 벅적 떠들어대며 구경들을 하고있었다.

그 애들을 보자 리동백은 불현듯 누이집을 떠나온 이후 지난 며칠동안 까맣게 잊고있었던 학생들을 상기하였다.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들은 선생 없이 어떻게 지낼는지! 낮엔 옥선이가 그럭저럭 가르치겠지만 밤엔 옛이야기를 듣지 못해 몹시 기다릴테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마을길을 얼마큼 걸어가다가 리동백은 강세호에게

《어디 가면 장군님을 만나뵈올수 있을지 부대사람들에게 알아봤습니까?》

하고 은근히 귀속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리동백은 미처 그의 대답을 들을수 없었다. 강세호가 그더러 잠간 기다려달라는 눈짓을 남기고 길옆집 사립문안으로 들어간것이다.

지붕우에 묵은 풀대들이 비죽비죽 돋아나있는 허술하고 자그마한 그 집 마당안에서는 웬 젊은 혁명군이 장작을 패고있다가 강세호가 들어서자 허리를 폈다.

무어라 이야기하는 강세호의 말을 들으며 사립문밖의 리동백을 돌아본 젊은 혁명군은 손에 들었던 도끼를 방금 패자던 나무토막

에 박고 손을 털었다. 그리고는 손수건으로 땀난 이마와 목을 훔친 다음 끌러놓았던 웃단추들을 채우고 비록 무릎어방에 동전잎만큼 덧대인 자리가 력력한 군복바지를 입었으나 매우 단정한 차림새로 사립문밖으로 걸어나왔다. 그는 오랜 지인을 만난듯 반가운 웃음을 띠우며 친절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멀고 어려운 길을 오시기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두손으로 다정히 꼭 잡아주는 젊은 혁명군의 손길에서 리동백은 하치 않은 자기의 로고따위를 깊이 헤아려주는 따뜻한 심정을 대번에 느꼈다.

《저야 고생이 있습니까? 길 걷는 사람의 고생따위를 강도 왜놈들과 혈투를 벌리며 풍찬로숙하는 혁명군동지들에게 비기겠습니까?》

《각오하고 나선 젊은 저희들 혈기에야 얼음우에선들 못견디겠습니까. 발탈이랑 났다는데 몹시 쏘지 않습니까?》

《일없습니다. 저 강세호동지가 성냥딱총이랑 놔줘서 무탈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 방에 들어갑시다.》

젊은 혁명군은 마치 부축해주듯 그의 팔을 잡고 안내하였다. 뜰안에서 장작가치들을 우물정자모양으로 차곡차곡 쌓고있던 애젊은 혁명군이 오돌차게 경례를 붙였다.

리동백은 수고한다는 말로 인사를 받으며 방문앞에 다가갔다. 그는 자기가 방안에 있을 그 어떤 상관에게 안내되는가부다 생각했다. 그러나 방문앞에는 벗어놓은 신발이 없었다.

그를 안내하던 젊은 혁명군은 방문을 열어주면서 어서 방안으로 들어가라고 권하였다. 젊은 혁명군더러 먼저 들어가라고 사양했지만 결국 혁명군들이 하라는대로 할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되여 삿자리를 깐 방안에 들어갔다. 꺼멓게 끄슬은 서까래가 그냥 드러나 보이고 바람벽에 붙인 우불구불한 시렁우에는 헌 이부자리와 모서리를 쥐가 썬 궤짝 등 가난이 여실히 드러나는 가장집물들이 얹혀있었고 방 한구석에는 목침 서너개가 쌓여져있었다. 방금

아침을 지은 불을 화로에 담아 들여놓아서인지 연하고 푸르스름한 연기가 떠도는 방안에는 화기가 돌아 아늑한 맛이 있었다.

애젊은 혁명군에게 무슨 말인가를 일러주고나서 강세호와 함께 리동백을 뒤따라 들어온 그 혁명군은 방아래목에 덧깔아놓은 돗자리우에 리동백을 앉히고 앞에 화로를 들어다놓았다. 그리고 강세호와 나란히 웃목에 앉았다.

《담배를 퍽 즐기신다는데 피우십시오.》

《고맙습니다.》

리동백은 외투자락을 헤치고 양복주머니에서 가루담배를 넣은 가죽으로 만든 갑과 파이프를 꺼내면서 젊은분으로서는 놀라울만치 세심한 관심을 돌릴뿐더러 매우 부드럽고 친절한데 은근히 놀랐다.

《선생을 만난 기회에 우리가 여러가지로 알고싶었던것을 두루 묻고 이야기를 들었으면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시간이 없을것 같습니다. 강동무에게서 얼핏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돼서 길을 떠나오셨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젊은 혁명군이 청하였다.

리동백은 담배연기를 내뿜고나서 대답하였다.

《그저 한마디로 말씀올린다면 당신들의 사령관이신 장군님을 만나뵙자는 목적입니다.》

《어째서 꼭 만나자는것입니까?》

리동백은 대답을 고르느라 잠시 생각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려니 자기의 가슴속에 숨은 열망이 너무나도 크고 벅찬것이였다. 아니, 그것을 표현할만한 그 한마디의 말을 찾을수 없었다.

그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고나서 허거프게 웃었다.

《이거 참… 내가 온 목적에 관한것인데 몇마디로 여쭙기 어렵습니다. 장군님을 만나뵈야만 풀이가 저절로 될수 있는 성질의 문제이지요. 그러니 꼭 장군님을 뵈올수 있도록 도와들주십시오. 나의 간절한 심정은 이 강세호동지도 잘 압니다만…》

그는 차츰 열을 올리며 자기의 심정을 하소연하였다.

《솔직한 말로 나는 장군님을 찾아뵙기 위해 만난을 각오하고 길을 떠났지요. 젊다고 할수 없는 내가 길 없는 산발을 수없이 타구넘으면서 얼어죽을수두 있구 왜놈들에게 잡혀죽을수도 있는 사지판을 감히 헤매다닐 결사적인 각오를 품고 길을 떠났을 때엔 그만큼 깊은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 사연을 말씀드리십시오.》

강세호가 귀띔해주었다.

《장군님을 만나뵈오면 다 말씀드리겠으니 그이께서 계시는데를 알려만 주시구려.》

그러자 강세호가 웃음지으며 대꾸하였다.

《어서 말씀올리십시오. 선생이 만나뵙자는 장군님께서 여기 선생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해가 서쪽에서 떴다 해도 이 순간의 리동백이처럼 놀라진 않았을것이다. 너무나 뜻밖의 사실을 당한 리동백은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그 말을 한 강세호와 조용한 웃음을 짓고계시는 젊으신분을 번갈아쳐다보기만 하였다.

그 말이 참말인가！ 과연 이 젊으신분이 세상에 그렇게도 유명하게 소문이 나신 장군님이시란말인가！ 기운 군복솜바지를 입으시고 마치 고향집 방에 앉아계시듯 가난하고 허술한 농가의 때묻은 구름노전우에 앉으신분, 더없이 인자하신 얼굴에 부드럽고 겸허한 미소를 띠우시고 말없이 앉아계시는 이분이 과연 30년대 력사우에 높이 솟아오르신 새로운 공산주의운동의 지도자이시며 항일유격대 사령관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란말인가！

청년장군이시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리도 젊으신분이실줄은 상상도 못해본 리동백이였다.

그의 머리속에는 단꺼번에 수많은 의문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강세호의 정중하고도 정색한 태도와 장군님의 겸손하면서도 끝없는 무게와 깊이가 감출수 없이 풍겨나오는 미소에서 의심할나위 없다는것을 륙감으로 느낀 순간 리동백은 격한 흥분때문에 후들후

들 떨면서 일어났다.

《제 미처 장군님을 알아뵙지 못하구 변변한 인사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격식을 갖추어 절할 차비라는것을 헤아리신 장군님께서는 마주 일어나시여 만류하셨다.

《그러질 마십시오. 인사는 이미 아까 나누지 않았습니까?》

《장군님! 불민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손을 맞잡는것이상 더 좋은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답지 않습니다. 강동무는 선생을 아주 현대적인 지성인으로 소개하던데요. 허허허… 어서 앉으십시오.》

그 친절하고 소탈한 말씀과 가슴을 울려주는 통쾌한 웃음에 리동백은 어쩔수없이 주저앉고말았다. 그는 돗자리에 장군님을 모시고 자기는 구름노전에 내려앉으려고 애썼지만 종시 그렇게 할수 없었다. 그래서 그이의 인품에 끝없이 끌리우면서도 제가 오히려 돗자리에 앉아있다는것이 어느모로보나 온당치 못하게 생각되여 바늘방석에 올라앉은것처럼 한동안은 거북하고 송구스러웠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하시는 스스럼없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덧 송구스러움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말로써는 설명할수 없는 특유한 친화력으로써 한순간에 자기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장군님께 이끌리여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리동백은 장군님을 우러러보고 또 보았다.

현실적으로 뵈옵는 장군님은 참말 상상밖에 소박하시고 겸손하시며 소탈하시였다.

장군님을 우러러뵈옵는 리동백의 머리속에는 아직도 뇌리에 선히 박혀있는 지난날 제노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의 표상이 떠올랐다.

그가 서울과 상해와 연해주에서 만나본 공산주의운동의 《거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거개가 최신 류행복차림에 《맒스머리》를 하고 개화장을 들고다니였고 강당의 연탁 아니면 료정뒤고방의 주연탁에 마주앉아있는것이 일상사였으며 또 그것이 언제나 띄여보게 되는 생활자세였다.

리동백이 본 독립군두령이라는 사람들도 역시 그 차림과 거처

와 음식부터 병사들과 엄격한 차별을 두고있었다. 제노라는 공산주의운동의 《거두》들이나 독립군두령들이나 모두가 무엇인가 류다른 행색과 언동으로, 혹은 높은 대우와 절대적권력자세로 자기들을 비범하게 돋보이려고 하였었다.

지난날의 생활만이 아니라 력사와 전기들을 통하여 리동백의 머리속에 오래전부터 형성되여있는 영웅호걸들과 위인들에 대한 표상들 역시 그중의 어느 하나도 바로 그가 이 자리에서 받아안게 된 표상과 같은 모습을 하고있지 않았다.

《비범성》대신 철저한 평범성에 접한 리동백은 그 철저한 평범성이야말로 그 어느 영웅호걸이나 위인에게도 없었던 비범성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여적 가져보지 못한 생각에 잠겼다.

《찾아오신 까닭을 말씀해주십시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오셨는지?》

장군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리동백은 생각에서 깨여났다.

《무어라고 말씀드렸으면 좋을지…》

잠시 담배를 빨고난 그는 말을 이었다.

《차츰 말씀드리지요.》

《아침을 마친후에는 다시 길을 떠나야 하기때문에 만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선생께서 불원천리하고 찾아오셨는데 그대로 돌아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일부러 출발전의 바쁜 시간을 내시였다는것을 깨달은 리동백은 가슴이 후더웠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군님을 찾아온 저의 걸음이 하루이틀사이에 뵙고 돌아갈만한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 소청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며칠간만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로 그럽니까?》

《후에 아뢰겠습니다. 장군님, 허락해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난색을 지으셨다.

《며칠간이라고 해도 저희들과 같이 다니자면 고생이 막심합니다. 강세호동무네를 따라 여기까지 오시며 고생한 정도가 아닐겝니다. 년세도 적지 않으신데 유격대에서 단련된 젊은 사람들도

겪어내기 어려워하는 고초를 어떻게 견디여내겠습니까?》

《그것은 념려마십시오. 제 따라다니다가 길가에 쓰러져 숨이 진다 해도 절대로 뉘우치지 않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고쳐 생각하도록 그냥 권유하시고 강세호 또한 두세번씩 리동백을 타일렀지만 고집스럽게 거듭 승낙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끝내 아퀴를 짓지 못한 가운데 주인집에서 아침상이 올라왔다.

마을에 해살이 비쳐들무렵 류량한 나팔소리가 울려퍼졌다. 출발준비를 위해 집합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였다.

제 3 장

1

사령부의 자취를 뒤쫓으며 숨가쁜 행군을 해오던 리경준일행은 녹기 시작한 사하진펄에 맞다들면서부터 사령부일행의 말발굽자리를 잃게 되였다. 모험삼아 진펄에 들어섰다가 도저히 그 위험한 소택지의 건너편기슭까지 무사하게 가댈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그들은 할수 없이 되돌아나와서 진펄을 피하여 험한 산발을 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일행이 진펄을 되돌아서 나오게 되였을 때 최선금의 눈에는 저도모르는 사이에 눈물방울이 맺혔다. 그는 웬일인지 걱정스럽고 불안하게 살펴보는 남편의 눈길과 부딪쳐서야 자기가 눈물을 흘린줄 알고 바삐 씻어버렸다.

일행은 사령부의 자취를 따라갈수 없게 된 조건에서 이제는 행로를 귀틀집로인이 전해주던대로 무송방향으로 잡을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무송의 그 어디에 먼저 가있을지도 모르는 사령부를 찾기 위하여 남부로야령산줄기의 험한 산발과 골짜기를 타고 넘으며 점점 더 어려운 행군을 이어갔다.

밤이였다.

이날도 힘겨운 행군에 지친 일행은 잣을 우린 더운 물을 마시고나서 여느때없이 곧 노그라떨어졌다. 아무리 지쳐도 꽉꽉 불에 끄슬린 군용밥통을 닦고서야 잠간 눈을 붙이던 장철구도, 동지들이 잠든 사이에 찢어진 옷을 꿰매주노라고 질척해진 눈덩이로 눈시울을 비비며 갈마드는 졸음을 쫓아버리던 최선금도 자기의 엄격한 생활질서를 버린듯싶었다.

유독 일행의 년장자이며 오랜 투쟁경력을 지닌 사람답게 늘 일

행에게 은근히 관심을 돌리던 리경준만이 자기는 결코 잠들지 않았으며 언제나 일어날 용의가 되여있다는듯이 다리를 가드라뜨리고 나무밑동에 엇비듬히 허리를 기대고있었지만 본인의 마음은 어떻든간에 텁수룩한 구레나룻이 자라있는 머리는 중심을 잃고 이쪽저쪽으로 군드렁거리고있었다.

바람도 잦아들고 대기는 푸근했다. 방금 헝겊으로 훔쳐낸듯이 맑게 개인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곱게 흐르고있었다. 다감하고 어딘지 모르게 상념을 불러일으키는 밤이였다.

일행이 쉬고있는데서 얼마간 떨어진곳에 가지만 엉성한 쇠스래나무 한대가 서있었다. 그밑에서 장기령이 총을 메고 제자리걸음을 하며 보초를 서고있었다.

그는 별안간 새여나오는 한숨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 어지러운 환영을 쫓듯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장기령은 어쩔수없이 몸서리쳐지고 치욕스럽게 생각되는 그 저주로운 일을 다시금 회상하게 되는것이다. 일행과 같이 행군을 할 때는 어려운 일을 찾아하는것으로 그 저주로운 회상에서 벗어나던 장기령이였다. 그러나 홀로 보초를 서고있는 지금은 일감을 찾을수도 없는 노릇이였다.

장기령은 《민생단》의 루명을 쓴것이 더없이 억울하였지만 그보다도 자기가 견결히 싸우지 못한 탓으로 귀중한 혁명동지를 잃었다는 자책감으로 가슴이 쓰리군하는것이였다.

장기령은 오만복과 한지주집에서 2년동안 같이 머슴살이를 하였다. 여름이 되면 그들은 지주집 외양간우에 있는 다락에서 자군하였는데 오만복은 언제나 바깥쪽에 누웠다. 잠을 갈개는 장기령이가 다락에서 떨어질가봐 념려해서였다. 한밤중에도 오만복은 장기령이 제자리에 누워있나 해서 손으로 더듬어보군하였다. 그들은 동갑이였으나 오만복은 장기령보다 키가 작아서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두형제가 한지주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줄로 여겼다. 유격대에도 한날한시에 입대하였다. 그들은 근거지 해산에 따르는 여러가지 뒤일을 처리할데 대한 사령관동지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함께 근거지에 떨어지게 되였다.

그날이 바로 근거지인민들의 소개를 이틀 앞둔 날이였다. 유격대원들은 떠나는 인민들에게 식량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의 수송대를 습격하게 되였다. 그날 유격대원들은 열다섯포대의 밀가루를 로획했는데 오만복이 메고온 포대에는 썩은 밀가루가 들어있었다.

종파분자들은 그가 유격대와 인민들간에 쐐기를 박으려고 고의적으로 그런 밀가루포대를 메고왔다고 생트집을 걸어 《민생단》으로 몰았다.

그런줄 모르고 마을에 내려가 인민들의 행장을 돌보아주다가 돌아오던 장기령은 천만뜻밖에도 길가에서 구의 무슨 책임자라는 종파분자와 두 경호원에게 호위당하여 오는 오만복과 맞다들렸다.

웬일인가고 물었더니 그자는 대뜸 《민생단》이라고 하였다. 종파분자들은 《민생단》혐의를 받은 동지들을 다소 동정하기만 해도 《민생단》감투를 씌우려고 덤벼들었지만 장기령은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장기령은 그자의 앞길을 막아나서며 자기가 보증할터이니 묶은 오만복의 손을 끄르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자는 너털웃음으로 장기령의 요구를 잘라버렸다. 보증을 서겠으면 오만복의 속을 버선목처럼 뒤집어보이라고 하였다. 장기령은 격분하여 그자의 가슴을 떠박지르고 뚝심으로 오만복을 구원하려고 하였다. 격투가 벌어졌다. 장기령은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면서 사자처럼 싸웠다. 그러나 상대방은 셋인데다가 경호원은 장총을 가지고있었던 탓으로 결국 동무를 구원하지 못하였을뿐더러 그자신도 붙들렸다. 장기령은 너무도 분하고 억이 막혀 《이놈들, 이놈들！》 하고 소리를 지를뿐이였다. 장기령과 오만복은 각각 다른곳에 갇히였다.

그 일이 있은지 며칠 지나서 울분에 차서 밖을 내다보던 장기령은 산에 끌려가는 오만복을 보았다. 두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때 오만복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무엇인가 힘을 주려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것은 《내 걱정은 말라. 너나 무사히 잘 싸우라.》고 하는 뜻이였으나 장기령에게는 《기령아, 날 구원해다오.》라는 뜻으로 안겨왔다. 더우기 동무를 안심시키려고 부러 그 커다

란 눈에 웃음을 지으려다가 뜻밖에 볼편을 실룩거리게 되여 외면하던 오만복의 모습은 가슴을 쥐여뜯는듯했다.

종파분자들은 장기령을 《민생단》으로 몰려고 갖은 악랄한짓을 다하였다.

처음에는 오만복이 《민생단》이라는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석방시키겠다고 하였다. 장기령이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반대로 《혁명의 흉악한 원쑤》인 오만복을 분별없이 두둔해나선 사건도 그렇고 왜놈들과 싸울 때 장기령이 기관총으로 련발사격을 할 대신 점발사격만 한것은 왜놈《토벌대》놈들을 살려보내기 위해서이며 《민생단》이 아니고서는 감히 그런 짓을 못한다고 하였다. 장기령은 기관총명사수였다. 그는 련발사격을 하지 않았다. 짧은 점발사격으로 탄알을 아끼면서 탄알 한발로 두놈, 세놈의 적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

어제까지만 하여도 그의 점발사격솜씨에 감탄하던 그들이 오늘은 불시에 그것을 《민생단》의 작간이라고 하는것이였다. 장기령은 모든것을 부인했다.

그후 장기령은 석방되였다. 석방이라기보다 추방되였다. 혁명대오에는 있을수 없으니 갈데로 가라고 쫓아버린것이였다.

지금도 구원을 바라듯 고개를 끄덕이던 오만복의 모습과 부러 웃음을 지으려다가 볼편을 실룩거리며 외면하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밟혀왔다. 장기령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그럴 때마다 이제는 수백번이나 되풀이한 생각을 곱씹는것이였다.

(그때 내가 우둔했지. 단독으로 그자들에게 달려들것이 아니라 동무들에게 알리여 조직적으로 해결하는것이였어. 내가 우둔한 탓으로 오만복이 잘못되였지.)

장기령이 추방되여나왔을 때는 근거지에 남아있던 인민들도 떠나가고 공작차로 남아있던 동무들도 어디론가 떠난 뒤였다. 장기령은 정처없이 숲속을 헤매였다. 다행히 리경준부부와 맞다들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스스로 자결하였을지도 모를 일이였다. 장기령은 《민생단》의 루명을 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우둔했던 탓으로 동무를 잘못되게 한 자기만은 장군님 앞에 나설수 없다고 단

정한것이였다. 그러나 리경준부부와 장철구를 만났을 때 장기령은 새삼스레 자기는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만은 꼭 장군님의 품에 안기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였다.

쇠스래나무가 바람에 설레였다. 장기령은 어린애의 천진한 눈망울처럼 시름을 모르고 반짝이는 별들을 부러움에 차서 바라보았다. 그것은 어딘지 모르게 한남실의 눈을 련상시켰다. 한남실은 아동단책임자였다. 두사람은 이렇다할 말을 건넨적은 없었지만 서로 가까운 사이였다. 떨어져있으면 그리워지고 정작 만나면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말없이 묵묵히 앉아있는 그들이였다. 언뜻 자기에게 돌려지는 한남실의 맑디맑은 눈길을 느낄 때마다 장기령은 마주보는것마저 저어하여 외면하군하였다.

(한남실동무가 이 장기령이 《민생단》원으로 몰린 사실을 안다면?) 하는 생각이 느닷없이 떠올랐으나 장기령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 치사한 일에 한남실이를 끌어들이는것은 죄악으로 여겨졌고 또 이런 경황에서 다정한 녀성에 대하여 생각하는것부터가 용서할수 없는 일로 여겨진것이였다.

이게 다 그 편지탓일게야… 이렇게 생각하며 장기령은 편지를 건사한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일전에 한남실이 부탁하더라면서 장철구가 전해준 편지였다.

문득 숲속에서 바스락소리가 들렸다.

그와 함께 나무가지사이로 예리한 쇠끝같은것이 번쩍이였다.

순간 장기령은 긴장했다.

한무리의 검은 그림자가 총창을 총에 꽂은채 허리를 구부정하고 바로 장기령과 열댓걸음 사이를 두고 지나려는 참이였다. 장기령은 륙감적으로 적이라는것을 느꼈다. 놈들은 장기령의 일행이 이곳에 있는것을 모르는것 같았다. 그것은 놈들이 눈무지며 나무가지들을 마구 밟으며 가고있는데서 알아볼수 있었다. 그러나 놈들의 방향은 일행이 쉬고있는 자리와 잇닿아있는것이였다. 장기령은 얼결에 장총을 그러쥐였으나 쏘지를 못했다. 동무들에게 알리자니 이미 때는 늦었고 그렇다고 하여 총소리를 내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지 몰라서였다.

한순간을 지체할수 없었다. 장기령은 식은땀이 등골로 흐르는 것을 느끼며 대렬선두에 선놈을 겨냥하여 쏘았다.

총성이 울리고 앞선놈이 비명과 함께 꺼꾸러지자 적들은 주춤거렸다. 장기령은 얼결에 발밑에 짚이는 돌을 집어들어 놈들을 향해 냅다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아！》

그의 과감한 행동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검은 그림자들은 술렁이였고 뒤이어 나무그루에 총탁을 부딪치는 소리며 격발기를 여닫는 소리가 소란스럽게 울렸다. 그는 뒤걸음질을 치면서 또다시 소리를 쳤다. 이번에는 술렁거림 대신에 숲속이 번쩍하면서 단단한 바위가 짝하고 갈라지는것과 같은 야무진 소리가 났으며 그와 동시에 꽛꽛한 나무가지가 그의 어깨우에 떨어졌다. 이어 숲속에서는 줄번개가 인듯 불꼬리가 수없이 번쩍거렸다.

순간 장기령의 두툼한 입술은 피여오르는 미소로 하여 벙싯거렸다. 적들을 자기에게 유인하여 동지들을 구원할수 있게 되였다는 생각이 이런 다급한 정황속에서도 기쁨을 준것이였다.

장기령은 얼마간 달리다가는 돌아서서 소리를 치고 소리를 치고는 또 달리였다. 총알이 비오듯하였으나 그는 한번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꿋꿋이 달려갔다. 이러한 때 전투원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것을 모르는바는 아니였다.

후에 장기령자신이 자기 행동에 대하여 총화한바이지만 그는 사실 차라리 놈들의 총탄에 맞아 장렬하게 희생되는것을 바랐던것이다.

날이 밝을무렵에야 총소리는 뜸해지고 놈들은 기진해서 어디로인지 사라졌다. 장기령은 움푹진곳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자기도 모르게 눈우에 펄쩍 늘어지고말았다.

그의 눈앞에는 밤하늘에 곱게 비꼈던 은하수며 초롱초롱한 별들이 흘러갔고 무사했을 장철구며 최선금의 얼굴들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들은 자기를 바라보며 웃고있었다. 그러나 리경준을 회상하였을 때 속이 깊은 사람이 되여서 그런지 말없이 일행을 책임지고있어서 그런지 웃을 대신에 시무룩해서 그를 바라보는것이였다.

왜 그럴가? 장기령은 언뜻 간밤에 왜놈들과 맞다들린 순간 당황했던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그때처럼 그의 등골로 식은땀이 흘렀고 숨이 가빠졌다. 그는 자기가 과오도 무서운 과오를 저질렀다는것을 비로소 똑똑히 깨달았다.

(보초가 적들이 턱앞까지 기여든것을 모르고있다니. 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 딴 구실이 없는거지. 잡념에 빠졌던걸. 그래놓고서는 자기가 동지들을 구원한것처럼 생각했었지. 너절해. 너절하지 않구. 장기령이! 언제부터 이렇게 너절한 인간이 되였나? 그리구두 네가 장군님을 모시고 싸우는 유격대원이라구? 어림없지. 아—)

그것은 유격대에 입대한후 그가 범한 첫 과오였다.

리경준이 움푹진곳에서 장기령을 찾은것은 정오가 가까운무렵이였다.

그때까지 장기령은 눈우에 반듯이 누워서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않고있었다.

그가 리경준이 뒤를 따라갔을 때 일행은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명일이와 명숙은 아저씨가 왔다고 팔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기뻐하는것을 보니 장기령은 더욱 괴로왔다.

장철구는 기쁘다는 말 대신에 눈에 띄우리만치 해쓱해진 얼굴에 웃음을 담고 머리를 돌리고 앉아서 배낭뒤에 매달려있는 두개의 밥통을 풀었다. 밥통을 만지는 그의 손등에 한방울의 눈물이 떨어졌다. 장철구는 떨리는 손으로 군모를 벗어 눈물을 훔치는데 머리가 반나마 빠진 정수리가 오늘따라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보였다. 한낮때가 되였는데도 장기령이 오기를 기다려 아침밥을 짓지 않고있은것이였다.

리경준은 장기령의 손에서 장총을 받아쥐고 말없이 닦았고 최선금은 나무가지에 걸려 찢어진 장기령의 솜외투를 살펴보며 천천히 배낭 뒤주머니에서 바늘을 찾았다.

일행은 장기령이 무사히 돌아온 기쁨으로 하여 이날 보통때보다 두배나 되는 거리를 행군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피곤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저녁에 일행은 커다란 잣나무밑에서 숙영하게 되였다.

저녁식사가 끝난 다음 장철구는 밥통을 닦아서 배낭뒤에 매달고 잣을 깠으며 최선금은 가위밥을 대고 장기령의 벙어리장갑을 기웠다.

일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기령에 대한 존경을 더 두터이 하였으며 그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였다. 누구도 그러한 심정을 입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장기령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길은 한결같이 그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그럴수록 장기령은 그들의 눈길을 피하듯 고개를 떨구고 앉아서 너울거리는 불길을 바라보고있었다.

《놈들이 장동무한테 된벼락을 맞고 혼쭐이 났지. 그놈들이야 이 한적한 밀림속에 유격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을라구.》

리경준은 눈밑에서 긁어온 마른풀을 고르롭게 펴면서 얼핏 장기령을 쳐다보았다. 장기령에게 말을 시키려는 눈치였으나 그는 여전히 잠잠했다.

《정말 다행이였어요. 나는 우지끈하고 총소리가 나는바람에 얼결에 밥통을 찾았는데 어디 쉬이 손에 잡혀져야지요.》

장철구는 잣을 까다 말고 진정이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장기령은 더는 참을수 없었다. 그는 자세를 바로잡으며 침통한 어조로 말했다.

《모두 제가 잘못한탓이였습니다.》

뜻밖의 소리에 일행은 일손을 멈추고 장기령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은 한결같이 웬일이냐고 묻고있었다.

《잘못이라니? 장동무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지 마오.》

하고 리경준은 타이르듯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과오를 범했습니다.》

장기령은 리경준의 말을 밀막듯 떨리는 목소리로 황급히 말했다.

장기령은 가슴이 답답한듯 가쁜숨을 내쉬였다.

《저는 보초를 서면서 쓸데없는 잡념에 잠겨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턱밑에까지 기여드는것도 모르고… 사실 저는…》

이번에는 리경준이가 아니라는듯 머리를 저었다.

《무슨 소릴 하는지 모르겠소. 장동무가 보초를 잘못 섰으면 우

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앉아있을수 있겠소? 그런 소린 애당초 하지도 마오.》

최선금이 벙어리장갑을 깁다 말고 나무라듯 말했다.

《어두운 밤이니까 그럴수도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과오겠어요. 장동무가 너무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괴로와요.》

장철구는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그만두고 장기령에게 측은한 눈길을 보내였다. 동지들의 따뜻한 말을 들을수록 장기령은 점점 더 얼굴을 붉히며 괴로와하였다.

《아닙니다. 동무들은 아직 저의 과오를 모릅니다. 저는 보초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딴 생각에 정신이 팔렸더랬습니다.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등불가에는 잠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제 생각에 잠겨 말이 없었다.

한참후에 장철구가 살며시 머리를 들었다.

《장동무의 심정은 리해할만해요. 저도 자기 문제때문에 때로 맥을 놓기도 하고 일손이 잡히지 않아서 멍하니 있기도 하였습니다. 장동무라고 어떻게 자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과오고 여기에 무슨 책벌이 있겠어요?》

장철구는 마른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본인이 있는데서 이런 말을 해서 안됐지만 장동무가 희생적으로 적들을 끌고가지 않았더라면…》

개회도 없고 의제도 상정되지 않은 회의는 이렇게 시작되였으나 누구도 그것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장철구어머니 말씀이 옳아요.》

최선금은 동정어린 눈길로 장기령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생각엔 량심의 가책은 받을수 있겠지만 비판받아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져요.》

선금은 이렇게 말하고 일손을 잡았으나 바느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리경준이 말할 차례였다.

최선금과 장철구는 은근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가 속시원한

소리를 해서 울적한 분위기를 가셔주고 장기령의 침통한 마음을 돌려주었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랐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왔다.

《나는 그러한 내막이 있었다는걸 몰랐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엄중합니다.》

장철구와 최선금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눈길을 떨구었다. 늘 유순하던 리경준의 얼굴은 엄한 빛을 띠였다.

녀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긴장해졌으나 장기령은 이런 일이 있을것을 바란듯 머리를 떨군채 까딱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었다.

《장군님께서는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 어데서나 혁명의 원칙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루명을 쓴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혁명가임을 그만둔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우기 일시 혁명대렬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산만무질서하게 생활할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혁명가이기때문입니다. 혁명가들이 생활하는데는 반드시 혁명질서뿐만아니라 혁명적인 도덕과 의리도 따르는 법입니다.》

리경준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계속하였다.

《장동무의 자기비판은 정당합니다. 보초가 자기 의무를 잊어버리고 잡념에 빠져있었다는것은 엄중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과오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행군을 합니까? 육체적인 생명이나 구하자는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혁명을 하자고, 그래서 잃어버린 조국을 찾자고 이렇게 어려운 행군을 하는것입니다.》

우등불에 사려놓은 나무가지가 탁탁 튀였다. 잣나무가지에서 솔방울만한 눈덩이가 떨어져 우등불속에 들어가더니 씩— 하고 녹아버렸다.

《우리는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것도 아니고 우리스스로 우연히 만나서 한집단을 이루었습니다. 여기는 명령하는 사람도 그에 복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같이 혁명적인 생활질서에 복종하고있는것입니다. 이런 혁명적인 생활질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견디여내지 못할것입니다.》

최선금과 장철구도 고개를 숙이고 서로 억울한 처지에 빠진것을 동정한 나머지 원칙보다 인정에 흘렀던 자신을 뉘우치고있었다.
이윽고 장기령은 동지들의 비판이 고맙다고 진정어린 목소리로 말하고나서 다시는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그러면서도 오만복과의 사이에 있었던 치욕스러운 이야기는 끝내 하지 못했다.
모임이 끝나고 리경준이 장철구와 보초를 교대하고 우등불가에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훨씬 지났다. 최선금은 그냥 우등불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있었다.
《밤이 깊었는데 그만하고 쉬오.》
리경준은 안해의 건강이 념려되여 이렇게 말했다.
《이젠 다 됐어요. 장동무의 장갑이 판이 났길래 하나 지었어요.》
최선금은 가볍게 웃어보였다.
《그거 잘했소.》
최선금이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무 지나치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동문데…》
리경준은 안해가 장기령을 두고 하는 소리임을 인차 알아차렸다.
《장동무가 깊이 잠들었소?》
《예, 몹시 피곤했던가봐요.》
입가에 미소를 띠우며 리경준은 만족한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러면 됐소. 깊이 잠든걸 보니 비판이 지나치지 않은것 같소.》
《그러지 않아도 여러가지로 괴롭겠는데… 좀 따뜻하게 이야기해줄수 있지 않아요?》
《모르는 소릴 마오. 장동무가 먼저 자기 과오를 우리들앞에서 공개하지 않았소? 그는 비판을 받기를 원했던것이요. 회의도 아닌데서 그것도 자기만이 알고있는 결함을 내놓고 자기비판을 할 때 나는 무척 놀랐소. 내가 장동무한테 도리여 큰 교양을 받았소. 장동무를 잘 도와줍시다. …》
최선금은 그제서야 남편의 뜻을 리해하였는지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며 《예.》 하고 대답하였다.
리경준부부는 장기령과 날로 수척해지는 장철구를 두고 오래동안

걱정을 하였다.

《보초는 서지 말라구 그렇게 사정하는데두 기어코 서겠다고 하질 않소. 인차 나가서 교대해줘야겠소.》

《남성동무들이 수고를 많이 한다구 말끝마다 걱정해요.》

무엇을 생각하였던지 리경준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여보…》

최선금은 왜 그러느냐고 묻는듯한 눈길로 리경준을 바라보았다.

《여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당신이 약한 마음을 가지면 되오?》

《무슨 일인데요?》

최선금은 눈을 치뜨며 조용히 되물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리다니, 원 당신답지 않소.》

《아니? 제가 언제 눈물을 흘렸게요?》

《전날 사령부의 자취를 놓치구 진펄에서 돌아설 때말이요. …》

그제서야 최선금은 눈에 미소를 담고 머리를 숙이였다.

《정말 그땐 어떻게 할수 없었어요. 막 가슴이 쓰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게… 금시 장군님을 만나뵈옵게 되는줄 알았는데 사령부의 자취를 놓치게 되니 이러다 만나뵙지 못하구 말지 않겠는가 겁이 나구 막막해지겠지요. 그렇다구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만 그런건 아니예요.》

최선금은 고개를 돌려 먼 하늘가의 별빛을 우러렀다.

《나도 당신이 정 약한 마음에서 그런게 아니라는걸 모르진 않소. 그리움이 사무치면 누구나 눈물을 흘리기마련이지. 그건 결코 약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 눈물을 다르게 받아들일수도 있지 않소? 그날 당신이 그러니 멋모르던 아이들은 내내 울적해하질 않았소?》

《저도 미처 제가 아이들앞에서 눈물을 보이게 된줄 몰랐어요. 그때 저는 장군님께서 근거지 부녀회사업을 돌봐주시러 나오셨던 일이랑 제가 처음으로 장군님의 군복을 지어드렸을 때 몹시 기뻐하시며 변변치도 못한 저의 재봉솜씨를 높이 치하해주시던 일이랑 생각던 때였어요. 그때 장군님께서는 저더러 선금동무는 재봉기라는걸 구경도 못하구 자랐고 근거지에 와서 처음 재봉일을 배

웠는데 정말 솜씨있게 지었다고 하시며 장군님의 어머님께서 삯바느질을 하시며 고생하시던 지난 일이랑 들려주셨댔어요. 전 그때 첨으로 장군님의 어머님 이야길 들었댔어요. … 그런것을 두루 더듬으니 장군님을 만나뵈올 생각이 더 간절해졌는데 그만 사령부의 자취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 그만… 그렇게 되였어요.》

조용히 말하던 최선금의 눈에는 또 전날 진펄에서 돌아설 때와 같은 맑은 눈물방울이 맺혔다.

안해의 이야기를 들으며 역시 먼 하늘가의 별빛을 보고있던 리경준이도 눈굽이 뜨거워졌다.

이 밤, 장군님께서는 어디 계시는지? 귀틀집로인이 말해주던대로 과연 건강하신지? 전번 북만원정에서 돌아오셨을 때처럼 축가시지는 않으셨는지?

그들 부부는 저마끔 장군님에 대한 생각에 잠긴채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앉아있었다.

우등불만 이따금 탁탁 불찌를 튕기며 타올랐다.

《엄마, 저기 잣송이!》

하고 불쑥 명일이가 잠꼬대를 하면서 덮었던 솜외투를 차던졌다.

리경준은 아이들이 차던진 솜외투를 덮어서 꼭꼭 여며주고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명숙이도 인제는 다 자랐소. 전번에 엄마는 장군님 만나면 눈물 안흘리나 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지. …》

최선금은 조용히 눈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애들은 정말 총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면서 자랐소. 눈보라와 비바람을 맞으면서말이요.》

《애들이 크면 저희들이 자라던 때를 알기나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소. 다 회상할거요. 그 애들이 크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이 힘겨운 행군을 했구 무엇때문에 장군님을 찾아 천리눈길을 헤쳤는가를 다 리해하게 될거요. 그때면 오늘을 두고 옛말처럼 외우게 되겠지. 혁명이 승리한 다음에 장군님을 광복된 조국땅에 모시고 우리가 이 밤을 회상할 그때를 상상해보오.》

부부는 행복한 그날을 눈앞에 그려보며 말없이 앉아있었다. 밤하늘에서 별찌가 꼬리를 길게 내뿜으며 아득히 멀리 밀림 저쪽변두리로 흘러갔다.

날이 밝자 일행은 또다시 떠났다.

2

서쪽숲언저리로 지는 해를 걱정스레 쳐다보기를 그 몇번, 한남실은 10명남짓한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깊은 산골짜기 막바지에 초막을 쳤다.

분비나무가지를 꺾어다가 대충 웃설미를 한 자그마한 초막, 그것은 한남실이가 열번째로 지어보는 초막이였다.

아동단원들이 손을 불며 안아온 송라며 마른 풀을 초막안에 골고루 폈다.

어설픈 초막의 이영사이로 스며들던 마지막해빛이 사위여질 무렵에야 한남실은 잘룩하게 동여맨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었다. 검은 눈섭아래서 유순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담차보이는 좀 클사한 눈이 밝은 빛을 뿌렸다. 촘촘하고 긴 속눈섭은 발산하는 눈빛을 가리울것 같아 저어하는듯 초리를 약간 쳐들고있었다. 그 눈빛만이 색이 바랜 풀색의 처진 솜옷과 오랜 행군에서 지친 한남실의 얼굴에 그늘이 지는것을 막고있었다.

한남실은 초막안을 휘둘러보았다.

초막안은 깨끗하고 아늑했다. 그는 만족한듯 입가에 미소를 짓더니 비로소 호— 하고 가볍게 숨을 내쉬였다. 초막을 치기 시작해서부터는 여직껏 숨 한번 돌릴새 없었던것이다. 초막안에서는 모닥불이 느물느물 피였다.

동그스름한 얼굴에 미소를 담고 모닥불곁에서 불을 쪼이고있는 아이들을 돌아다본 남실은 경수를 곁에 오라고 불렀다.

어깨에 허리가 휘여든 나팔을 멘 경수가 입술을 무겁게 다물고

정기가 도는 눈으로 묵묵히 서있는 동무들을 살피고있다가 한남실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눈과 도톰한 입술에는 가벼운 웃음이 어리였다.

한남실은 경수의 손을 눈가까이에 대고 찬찬히 살펴보고 다음에는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끝을 차례로 꼭꼭 쥐여보고 눌러보았다. 얼지 않았나 해서였다. 경수는 씩 웃었다. 손이 얼지 않았으니 선생님 걱정 마세요 하고 그 억실억실한 눈이 말하고있는것 같았다.

《응남이, 감기들지 않았나요？》

응남은 바지를 추어입고나서 자신만만한 태도로 한남실에게 되박이마를 내댔으나 한남실은 그의 이마를 짚어보고서야 안심되는듯 입가에 미소를 띠웠다.

《감기들지 않게 조심해요. 순녀, 이리 오세요.》

눈섭이 류달리 검고 코가 납작한 처녀애가 사뿐사뿐 걸어왔다. 남실은 순녀의 귀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귀바퀴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선생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순녀는 한남실을 쳐다보며 해쭉 웃었는데 그 웃음은 자기들때문에 고생하는 선생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것이였다. 한남실이도 따라 웃었다.

《광석이— 어데 있어요？》

한참후에야 아이들사이로 커다란 솜모자를 쓴 열살쯤 나보이는 아이가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한남실앞으로 걸어왔다.

한남실이가 손을 보자고 할 때 광석은 왼손만 내보였다. 호주머니에 넣은 바른손을 보자고 한남실이가 몇번 독촉해서야 마지못해 내보이는데 손은 천쪼각으로 동여매있었다.

《어떻게 다쳤나요？》

한남실은 놀란 눈으로 그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보며 물었다. 대답을 기다릴 사이 없이 한남실은 헝겊오리를 풀었다. 손바닥에는 무엇에 긁힌 자리가 있었다. 리광석은 그런데는 아랑곳없이 흐린 한남실의 안색을 근심스레 쳐다보았다.

어느 애가 손수건을 찢어 처매주었구나. 한남실은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였으나 짐짓 엄하게 물었다.

《누가 처매주었어요?》

광석의 눈길은 동무들뒤에 서있는 순녀한테 가서 멎었다. 순녀는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다.

광석은 우등불을 피우려고 나무가지를 끌고오다가 넘어졌는데 그 통에 끝이 뾰족한 나무가지에 손바닥을 긁혔다. 광석은 순녀가 손을 처매줄 때 선생님이 아시면 걱정하시겠는데 그만 숨기자고 하였다. 순녀도 광석의 말에 찬성했다. 그러지 않아도 선생님에게 얼마나 걱정이 많게! 한남실이도 물론 아이들의 이런 갸륵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것은 아니였다.

《순녀, 동무들이 다치면 인차 선생님한테 알려야 해요. 그래야 약을 바르지 않겠어요?》

약이란 말이 어떻게 튀여나왔는지 모를 일이였다. 어데 다치면 응당 약을 바르기마련이니까 그런 맹랑한 소리가 입밖에 나간것이였다. 한남실에게는 아무런 약도 없었다. 상처를 소금물에 씻고 두툼한 벙어리장갑을 끼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한남실은 아동단원들의 손과 귀를 차례로 살피였다. 그것은 하루의 행군이 끝난 뒤에 꼭꼭 있군하는 하나의 일과였다. 오늘따라 추위가 심했다. 한남실은 행군해오면서 아이들의 손발이 얼지 않나 해서 마음을 놓지 못했다. 대렬앞에서 눈을 헤가르며 걸으면서도 누가 기침을 하지 않나, 피로와하는 아이는 없나 하고 내내 아이들의 얼굴을 살피는 한남실이였다. 오늘은 아이들이 몹시 지친것 같아서 다른 때보다 한시간 일찍 초막을 쳤다.

한남실은 배낭뒤에 지고다니는 자그마한 남비를 풀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한홉이 될가말가한 피쌀을 꺼내서 남비에 담았다. 저녁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은 활기를 띠였다. 자기들의 배낭안에서 아동단학교에서 쓰던 공책, 연필꽁다리, 나무권총과 소리 안나는 하모니카, 고무총, 허리부러진 피리, 이런 잡동사니를 끄집어내여 펼쳐놓고는 뚝딱거리기 시작하였다.

경수는 광석의 곁에 앉아서 그의 허리부러진 피리를 고치느라고 씩씩거렸다.

《광석아, 손이 아프지 않니?》

《아니.》

《지금은 앓지두 말구 다치지두 말아야 해. 선생님한테는 아무약도 없지 않니?》

광석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손이 아프면 나한테 가만히 오너라. 선생님한테는 가지 말구. 응?》

《아프지 않은데뭐.》

《아프면말이야.》

광석은 그러겠다는 뜻으로 다시 머리를 끄덕이였다.

경수는 말없이 피리를 입에 대고 불어보았으나 삑삑거리기만 하고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다.

고드름이 달렸던 아이들의 옷에서는 어느덧 김이 문문 피여올랐다.

《응남아, 인젠 몇개 남았니?》

찢어진 외투를 깁고있던 순녀가 옆에 앉은 응남에게 하는 말이였다. 순녀의 말에 끌리듯 아이들의 눈길은 일시에 응남에게로 쏠렸다. 끄덕끄덕 졸던 아이들도 정신을 차리고 응남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모니카를 고치느라고 낑낑거리고있던 응남은 고개를 들고 동무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머리를 떨구었다. 그리고는 아무러한 응답도 없었다.

《응남아, 그만하구 빨리 세여보라는데두.》

《어서, 빨리.》

아이들이 등이 달아서 사방에서 졸라대자 응남은 하모니카를 품이 후렁후렁한 솜외투주머니에 찔러넣고는 자그마한 배낭뒤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는 한참동안 꾸물거리다가 꿩알만한 솔방울 한개를 내보였다.

《또 없니?》

《마지막이야.》

아이들속에서는 가벼운 실망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순녀는 믿어지지 않는다는듯 눈을 슴벅이며 응남의 배낭뒤주머니를 손으로 더듬어보았다. 솔방울이 더는 없는 모양이여서 순녀는 큰 잘못이나 저지른것처럼 자기를 쳐다보고있는 동무들을 외면하였다.

《벌써 열흘이 지났구나.》

광석이가 하늘이 내다보이는 초막지붕을 올려다보며 혼자소리를 했다.

응남은 아쉬운듯 솔방울을 손바닥우에 놓고 굴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모닥불속에 던졌다. 솔방울은 이내 불길에 휩싸이였다.

《오늘도 장군님을 만나지 못하는구나.》

《이제 며칠만 더 가면 될가?》

《그걸 누가 알겠니.》

허리 부러진 피리를 고치고있던 경수가 《쉿—》 하며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댔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였다. 아이들은 한남실의 눈치를 흘끔 살피고는 목을 움츠렸다. 초막안은 잠잠해졌다.

한남실은 아이들의 말을 못듣는척하고 앉아서 나무숟가락으로 끓는 죽을 조용히 휘젓고있었다. 행군을 시작한지 닷새가 되는 날에 아동단원들은 그에게 이제 며칠만 더 가면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에 닿을수 있는가고 물었다. 그때 한남실은 열흘만 가면 된다고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환성을 올렸다.

이튿날 행군을 시작할 때였다. 응남이와 순녀는 무어라고 소곤거리더니 솔방울 열개를 따서 응남의 배낭뒤주머니에 넣었다.

어려운 행군의 하루가 지나고 저녁 우등불이 타오를 때마다 응남은 그 솔방울을 한개씩 불속에 집어넣군하였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기뻐했다. 솔방울로 흘러가는 날자를 계산하며 장군님을 뵈옵게 될 그날을 손꼽아기다리는것이였다. 응남과 순녀의 이 날자세기는 어느덧 아이들모두의 관심사로 되였다.

솔방울은 행군의 하루하루가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 아동단원들의 기쁨은 커갔지만 한남실의 마음은 도리여 불안스러웠다. 행군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래일 하루사이에 무송땅

에 가닿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했다.
유격근거지가 해산되자 대렬내에 숨어있던 배타적인 좌경분자들은 아무러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아이들을 적통치구역의 친척집들에 보내라고 강요하였다. 《민생단》에 관계한 자식들이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과 친척되는 아이들이니 돌볼 필요가 없다는것이였다.
《우리는 장군님한테 갈래요. 적통치구역에는 죽어두 안갈래요!》
아이들은 아동단학교 선생인 한남실을 붙잡고 발을 굴렀다.
한남실은 불현듯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래, 장군님을 찾아가자.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장군님이 계시는데 왜 고아겠니. 장군님을 찾아가자.》
그리하여 길을 떠났는데 벌써 열흘이 지났지만 사령부의 소식은 두말할것도 없고 유격대원들조차 만날수 없는것이였다.
피쌀죽으로 저녁식사를 끝낸 다음 아이들은 모두 혼곤히 잠들었다.
한남실은 잠간만이라도 쉬고싶었다. 그러나 한남실은 배낭안의 피쌀을 남비에 쏟아놓은 다음 나무숟가락으로 떠서 주머니에 세여넣었다. 한 아이앞에 하루 한숟가락씩 쳐도 닷새분하고 두숟가락이 모자랐다. 그는 자기자신은 언제나 셈에 넣지 않았다. 때식을 준비할 때에는 자신을 잊어버리군하는 한남실이였다. 닷새동안 행군하면 사령부를 찾게 될는지 그것은 알수 없는 일이였다. 식량을 구해올 생각은 가슴속에서 불붙듯 일었으나 아동단원들때문에 자리를 뜰수가 없었다. 안타까움과 괴로운 심정을 하소연할 사람도 없었다. 한남실은 자기의 얼굴만 쳐다보고있는 아동단원들을 생각해서 모든 시련들을 조용히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한남실은 가슴에 갈마드는 어지러운 생각을 털어버리려는듯 머리를 흔들었다.
(가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장군님 품으로 가야 해. 나는 저 아동단원들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이야. 내가 약한 마음을 가지다니. 절대 그럴수 없어! 장군님께서는 《혁명전에서 쓰러진 렬사들의 귀중한 자녀들을 동무에게 맡기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우고 교양할 무거운 책임을 진 혁명가야.)

약해지려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한남실은 바늘을 찾아들고 아이들의 해진 옷과 신발을 깁기 시작했다. 옷은 그럭저럭 기우면 되겠지만 근심되는것은 신발이였다. 신발들이 인제와서는 다 거덜이 났다. 여섯아이가 어른들의 지하족을 신었고 세아이는 노루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었으며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짚신을 신었는데 그중에서도 짚신이 걷잡을수 없게 판이 났다. 응남의 지하족은 어제 밤에 기워준것인데 벌써 처졌다. 응남은 어찌나 곤하게 자는지 신발을 벗기는줄도 몰랐다. 어제는 신총이 끊어졌던 순녀의 짚신이 오늘은 바닥에 구멍이 뚫리였다. 한남실은 배낭안에 건사해두었던 피결으로 신총을 꼬았고 판이 난 바닥에는 노루가죽을 오려서 덧댔다. 짚신바닥을 대는데 쓰노라고 여러번 도려내서 어른이 깔고 누워도 남던 노루가죽이 인제는 손바닥만하게 되였다. 그 노루가죽은 근거지아동단침실에 있던것이였다. 짐도 많고 하여 그것을 버릴가 어쩔가 하고 여러번 망설이다가 버리기는 아까와서 배낭에 쳐가지고 온것인데 뜻밖에도 이렇게 요긴하게 쓰이는것이였다.

마지막으로 한남실은 광석이의 다친 손에 끼울 벙어리장갑을 만들려고 자기의 솜옷을 벗었다. 말이 솜옷이지 여러번 솜을 뽑아써서 인제는 거죽만 남았다. 그래도 한남실은 목도리부분에 아직 한줌 남아있는 솜을 뽑아내서 장갑을 만들었다.…

어설픈 잠이 들었던 한남실은 잣나무가지에서 커다란 눈덩이가 떨어지면서 초막이영을 내리치는바람에 눈을 떴다. 눈보라가 일었다. 바람은 눈을 몰아다가 나지막한 초막을 사정없이 묻어버렸다.

무릎치게 쌓인 눈이 앞을 막아버렸다.

한남실은 맨손으로 서둘러 눈을 헤치기 시작했다. 입술을 앙다물고 온몸으로 눈을 헤치는 한남실의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하였다.

눈보라는 여전히 초막에 눈가루를 몰아다가 덧쌓고있었다.

3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삶은 감자와 귀밀떡을 안겨주고 눈물속에 손저어 바래주는 마을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며 사령부일행은 미혼진을 향하여 또다시 길을 떠났다.

길에 늘어선 기마대렬은 꼬리를 물고 수림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처음에는 발구길을 따라가고 다음에는 눈에 묻힌 오솔길을 따라가다가 다시 그 다음부터는 길 없는 길을 내며 차츰 더 울울창창해지는 밀림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갔다.

돈화와 안도, 두 현접경지대의 높고 넓은 땅을 한품속에 덮어버린 거창한 밀림은 사람들과 말들을 깊숙이 삼켜버렸다.

《꽤 미끄러는대는군.》

대렬이 출발한 뒤 어디 있었는지 보이지 않다가 불쑥 리북철의 곁에 나타난 강세호가 혼자소리처럼 투덜댔다.

《어디 계셨습니까?》

《음, 전방척후와 후미척후를 좀 돌아봤댔소. 어떻게들 사나 해서 구경하느라구. 오래간만에 고향집에 온것 같아서 구경하고싶더란 말이요.》

강세호는 한바탕 산보라도 한듯이 말했지만 리북철은 그가 결코 구경하러 가지 않았다는것을 알았다. 여전히 다심하고 빈틈없는 그 강세호가 틀림없었다.

《그런데 동무는 출발직전에 어디 갔댔소?》

《뭘 좀 구하러 갔댔습니다.》

《뭘 구하느라구?》

북철은 무슨 비밀이나 말하듯이 낮은 소리로 알려주었다.

《주봉길동무의 생일이 음력 2월 보름날이랍니다. 그래서 사령관동지께서 뭘 좀 구해보라구 하시여서…》

《주봉길동무? 흑석향에서 입대했다는 전령병말이요?》

《네,저기 저앞에 〈대통령감〉이라던가요?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며 가고있는…》
《그래 좀 구했소?》
《겨우 닭알 세알밖에 못구했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2월보름날이던가?》
《그렇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오늘이라구 하십디다.》
《그래,그래.》
하며 강세호는 머리를 끄덕였다.
《새벽달이 만월에 가까왔지.》
그리고 무슨 생각엔가 잠겨있더니 불쑥 묻는것이였다.
《어떻소? 철이 좀 일러지는것 같지 않소?》
《글쎄요? 그런것도 같습니다.》
북철은 얼결에 나가는대로 대꾸하였다.
《동무두 그렇게 생각되오?》
《그저 그만한것 같기두 하구.》
《허허… 대체 어느쪽이요?》
웃음속에서도 예리한 빛을 잃지 않는 강세호의 눈을 대하자 리북철은 약간 면구스러워하며 솔직하게 말했다.
《일러지는지 늦어지는지 전 그 점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대답해야지.》
하며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강세호를 보고 리북철은 비위를 맞춰주기 위하여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는것을 질색으로 여기는 그 성미 역시 여전하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지난해초에 공작임무를 받고 떠난게 바로 음력으루 보면 어제였는데 그땐 밀림속에 쌓인 눈이 이렇게 녹기 시작하지 않았댔소.》
《정말 그랬던것 같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때 눈보라가 뽀얗게 이는 길로 떠나가던 일이. 그게 바로 한해전 이때였군요.》
참말 하루도 어김없는 만 1년만에 다시 만난 어제날의 중대정치지도원 강세호와 분대장 리북철이였다. 그런 사이였지만 지난

새벽에 만나자마자 강세호가 사령관동지께로 달려가서 출발직전까지 거의나 그이의 곁에서 지내다싶이 했으므로 서로 그간의 회포를 나눌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그들이였다.

《그래 만 한해전이지. 그땐 눈보라가 치구 그냥 한겨울이였소. 그런데 올해엔 벌써 저게 녹는 꼴이 아니요? 하긴 또 모르지. 하늘이 무슨 변덕을 부릴는지?》

《변덕을 부리지 않을겝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알겠소?》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고있으니말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여기 나오는 도중에 큰 진펄지대를 지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꽤 크다고 하는 진펄이라는데… 크기는 정말 큰것 같습디다. 드문드문 섬처럼 숲이 있을뿐 눈덮인 초원같이 가도가도 그냥 번번하기만 하더란말입니다. 그 진펄이 얼어붙었으니말이지 지금처럼 녹기 시작했더라면 숱한 고생을 하며 진펄을 에돌아 멀고 험한 산길로 행군했을겝니다. 그렇게 되면 날자두 여러날을 허비할뿐더러 아마 말들도 버리게 됐을게구요.》

《정말 그렇겠군.》

《아주 신통스럽지 않습니까? 진펄을 지나오자 녹기 시작했거던요. 그래서 주봉길동무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저보구 말하기를 장군님께서는 하늘이 내신분이시기때문에 하늘이 장군님께서 중대한 길을 떠나신 걸음이라는것을 알아봤다는겁니다.》

《하하, 처음으로 사령관동지를 모시는 봉길동무고보면 느끼게 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닐거요. 행군로정의 지형과 기후조건을 면밀하게 타산하신 사령관동지의 탁월한 령군술은 또하나의 전설을 남기였군.》

강세호는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봉길의 말대루 된다면 앞으로도 날씨가 방정맞게 굴진 않을겝니다.》

《그랬으면 좀 좋겠소?》

강세호는 입을 다물고 얼마동안 묵묵히 가다가 웬일인지 오한

을 느끼는 사람처럼 문득 몸을 움츠러뜨렸다.

리북철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웬일이냐고 묻는듯한 눈길로 강세호를 바라보았다.

강세호는 리북철의 마음을 알아차렸던지 머리를 저으며 걱정스런 음성으로 말하였다.

《눈두 밝군. 지독스레 춥던 먼저번 생각이 났댔소.》

리북철은 강세호가 전번 북만원정에서 돌아나오다가 로야령에서 겪었다던, 회상하기조차 끔찍스러운 그때 일을 상기하고 저도 모르게 몸서리쳤다는것을 깨달았다.

언제인가 강세호자신이 리북철이한테 말한바와 같이 그에게 있어서는 로야령에서 당하였던 그 일이 일생 영원히 잊을수 없는 가장 준엄한 체험으로 남아있을것이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것을 바라지 않을뿐더러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강세호이기에 불원천리 행처도 똑똑히 알지 못하는 길을 수소문하여 달려왔으리라는것을 리북철은 넉넉히 짐작하고있었다.

리북철은 가슴이 후더웠다. 존경어린 그의 눈길이 수척한 강세호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더듬었다.

강세호가 나타난 순간부터 마치 형이 곁에 와있는것처럼 마음든든해짐을 느낀 리북철이다.

리북철이 아는 사람들가운데는 강세호처럼 정확하고 견실하고 능숙하고 단정한 지휘관은 드물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그는 립장이 석연하고 명확했고 일단 결심했거나 하겠다고 대답한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집행하는 사람이였다.

《네》 또는 《아니》 하면 두말없이 그대로 하였다. 립장을 바꾼다든가 변덕을 부린다든가 홍정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사고에 있어서는 원칙적이고 행동에서는 절도가 있었으며 생활에서는 절제가 강하였다. 그는 례절바르고 검박했으며 절대로 허튼소리를 하는 법이 없었다. 자기앞에서 허튼소리를 하는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옷차림으로부터 전투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을 하건 빈틈없이 모가 나게, 맵시있게 그리고 두벌손질이 가지 않게 해내군하였다.

침착하고 인내성있는 강세호도 간혹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가 있었다. 정 비위에 거슬릴 때면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팩해서 넙다 쏘는것이다. 강렬한 정의감의 이 지나친 분출이 때때로 그의 결점으로 되기도 하였다.

《뒤로 전달, 허리를 굽히고 지나올것！》

앞으로부터 전달이 왔다.

리북철은 그 말을 되받아 뒤에 전하며 허리를 굽혔다. 말우에 바싹 엎드려 등을 스치는 굵은 이깔나무가지밑을 빠져나가자 이번에는 갑자기 길이 좁아졌다.

그는 고삐를 나꿔채여 좁은 길에 먼저 들어서려는 말을 멈춰세우고 강세호를 앞세웠다.

《실은 아까부터 알아보자고 했는데.》

아름드리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가운데로 이리저리 에돌아 빠져나가 마른 들쭉덤불이 눈우에 한벌 깔린 훤한 공지에 이르자 강세호는 곁에 다가오는 리북철을 기다렸다가 넌지시 물었다.

《군복예비가 없겠소？》

《없는데요.》

리북철의 눈길은 무심중 저앞에서 사령관동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란히 말타고가는 조두칠의 솜옷차림새를 스치였다.

《천은 좀 있소？》

《옷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단말이요？》

《네.》

믿고 손을 내민 강세호에게 꼭 필요한것 대신 무안만 준것 같아 미안스러워진 리북철은 변명하듯 덧붙였다.

《좀 있었댔는데 남호두를 떠나올 때 북만에 남게 된 동무들에게 몽땅…》

《다 주었소？》

《네.》

강세호는 소리없이 한숨을 쉬고 잠시동안 침묵을 지키고있다가 다시 물었다.

《경위대 대원이 열명이라던가?》

《네.》

《그러니 동무까지 호위성원은 도무지 열한사람뿐이요?》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적소?》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이나 되는 동무들을 사령관동지께서 북만의 다른 부대들에 파견하시였습니다. 그것도 제일 우수한 대원들을 뽑아서말입니다.》

《먼저번 북만원정때에도 사령관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친히 키우신 우수한 대원들을 파견하시여 부대들을 강화해주시군하시였소. 이번에도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것이요. 하지만 그대신 동무가 보충해와야지.》

《보충하려고 했지만 사령관동지께서 우리는 일없다고, 백두산기슭으로 나가면서 경위대도 인원을 증가하구 주력부대도 꾸리자고 하시며 사람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어쩌지 못했겠소?》

《네…》

《참 사람두… 욕심두 없구만.》

리북철은 눈을 내리깔고 덤덤히 있었다.

질척거리는 말발굽소리가 두사람사이에 팽팽히 헤워진 침묵의 공간을 채웠다.

마침내 강세호는 조용히, 그러나 엄하게 말했다.

《경위대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처신하는 법이 어디 있소?》

머리를 들고 한숨을 쉬며 강세호를 돌아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너무도 심각한 기색이 어려있는것을 본 북철은 황황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한참뒤에 리북철의 귀에 어쩐지 자책에 시달리는듯 자주 동강나는 강세호의 갈린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래두 통신원으루 왔던 현팔동무한테서 북철동무가 경

위대장직무를 수행하구있다는 이야길 듣구 마음이 놓였댔소. 동무가 경위대장이니까 우리모두가 바라는대로 사령관동지를 잘 모시구있으리라구 믿었댔소. 그런데 오늘새벽에 일어나 밝은데서…그이께서 입고계시는 군복바지를 보니 눈물이 나서 견딜수 있어야지. … 경위대장이란 사람이 그이께서 입으실 예비군복 한벌도 건사해두지 않다니? 호위성원이란것두 고작 열명밖에 안되고…》

강세호의 말을 들으며 북철이도 새삼스레 가슴이 저려들고 눈굽이 뜨거워졌다. 제구실을 못한 자기에 대하여 안타까와하는 그 말들이 두려울 대신 오래 바랐던것처럼 도리여 심금을 울려주었다. 혼자 불안고 애타게 모대기며 하소할데를 못찾던 남모르는 자기의 심정을 알아주고 받아줄 사람을 만난 순간처럼 설음이 북받쳤다.

강세호는 갈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마 동무도 어쩔수 없어 그랬겠지. 나도 짐작은 가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소? 대체 어찌된 일이요? 군복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기요. 나도 동무에게서 교훈을 찾게 좀 말해보우.》

북철은 긴 한숨을 내쉬고나서 이야기했다.

…남호두를 떠나 액목현의 어느 수림속에서 숙영할 때였다. 언제나와 같이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숙영하게 된 경위대는 그날 밤도 물론 불무지보초를 세워놓았었다. 그런데 당번보초였던 신입대원 주봉길이 피곤을 못이겨 조는바람에 우등불에서 튀여난 불찌가 사령관동지의 군복바지에 가닿은줄도 모르게 되였다.

잠결에 심상찮은 냄새를 맡고 리북철이 벌떡 일어났을 때는 이미 사령관동지께서 바지에 달린 불을 끄신 뒤였다.

단 한벌밖에 없는 그이의 군복을 태웠으니 이를 어찌하랴?

리북철의 가슴은 찢기는것 같이 아팠다.

봉길은 돌아앉아 소리없이 어깨를 들먹거렸고 련달아 깨여난 경위대원들 역시 얼마나 딱하고 민망스러운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알자 한숨을 쉬였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오히려 자신께서 깊이 잠드셨던 탓이라고 웃음속에 말씀하시면서 탄 자리에 손수 바느실을 대기 시작하

시였다. …

리북철은 거듭거듭 경험도 없고 단련도 되지 못한 주봉길에게 불무지보초임무를 맡겨놓고 잠들어버린 자신에 대하여 힐책하였다. 주봉길이가 불무지보초를 몇번 실수없이 잘 섰기때문에 그날 밤에도 안심했다는것이다.

《안심하고 부주의했다니? 불무지보초당번을 짜주면서 주의의 말을 안해줬소?》

이야기를 듣고있던 강세호가 물었다.

《그 말이야 해줬지요. 제가 잤으니말입니다.》

《부주의는 거기 있지 않소. 동무가 매일밤을 꼬빡 밝힐수야 없지 않소?》

《그렇지만 글쎄 신입대원을 세워놓구…》

《신입대원에게 내내 과업을 주지 않으면 언제 경험을 쌓고 단련되겠소? 동무는 이깔나무가 불찌를 몹시 튕긴다는걸 몰랐소?》

그에 대해서는 언제인가 강세호자신이 리북철이한테 알려준적이 있었다.

《채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이깔은 안피우구 봇나무나 쇠스래만 골라 피웠습니다.》

《불을 피울적에야 물론 그랬겠지. 그러나 불만 그렇게 해선 안되오.》

리북철은 말이 없었다.

《동무에게는 하치않은 일이란 없다는걸 알아야 하오. 동무가 하게 되는 모든 일은 불을 피울 나무를 고르는것이나 밥 지을 물을 뜨는 일이나 어느것 하나도 허술히 여길 일이 없다는걸 알아야 하오. 동무가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이나 다 아주 중대한 일이요. 말하자면 동무가 하는 일에는 어느것에나 최고의 중대성을 기해야 한다는거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다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을수 있고 별치 않게 여겨도 될 일이 있소. 그러나 동무나 경위대원들처럼 직접적으로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소. 학습이나 전투는 중요하고 불을 피우거나 물을 떠오는 것은 중요치 않고 그렇게 될수 없소. 어느 일이나 동등한 중요성을

가질뿐아니라 그 모든게 최대로, 최고로 중요하오. 동무들의 일거일동은 례외없이 다 그이를 모시는 사업의 한부분이기때문이요. 이것을 명심하지 않다간 이깔나무로 우등불을 피우는 일은 없어지겠지만 그보다 더 하치 않은것 같은 일을 소홀히 해서 그보다 더 엄중한 실수를 할수도 있소. 그런데 동무의 실수나 과오는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나 과오정도에 머무르는게 아니구 우리 인민혁명군에서 가장 큰 엄중성을 띠는 죄악으로 된다는걸 또한 알아야 하오. …》

강세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철은 자기가 그이의 군복을 태운 일에서 교훈을 본질적으로 찾지 못하였다는것을 깨달았다. 강세호는 북철이자신에게 석연치 못하였거나 일면적으로 리해된 잘못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었던가를 명확하게 깨우쳐주었다. 그리고나서 북철이더러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하였다.

북철은 그날 밤 이후 여기까지 행군해나오면서 내내 사령관동지의 군복을 새로 마련할데 대하여 마음을 써왔지만 그럴만한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럴수록 남호두에서 떠나올 때 그이의 군복예비를 끝끝내 건사해가지고 떠나오지 못한것이 갈수록 깊이 뉘우쳐졌다.

《왜 몽땅 다 내놓았소?》

《다른게 아닙니다. 제가 미물이였던 탓이지요. 내놓으라구 하신다고 해서 그것까지 내놓는 그런 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어이없는 짓을 했소?》

잠시 입을 다물고 씩씩거리던 리북철은 별안간 불을 뿜듯 열띤 말을 터쳐놓았다. 괴였던 물이 뚝을 틔워주자 마구 쏟아져나오는것과 같았다.

《말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정말 말해야 하겠습니다. 이건 강세호동지두 아시구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할 문제입니다. 남호두에서 떠나올 때 제가 뭐 군복이랑 신발이랑 모포랑 여벌로 건사한게 없었던줄 압니까? 제가 경위대장 구실은 제대로 못할망정 영 속궁리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벌로 하나씩 다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령관동지께서는 북만에 남을 동무들이 더 추운

데서 더 어려운 고생을 하게 될게라구 걱정하시면서 몽땅 다 내주라고 하시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모두 다 털어내놨지요. 그리구 오직 저만 예비를 그냥 감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그것마저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무엄하달만치 고집을 쓰니까 나중에는… 우리곁에서 떨어지기 아수해하는 동무들에게 그걸 마저 주고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좋겠느냐구, 그걸 가지고서야 어찌 발걸음이 떨어지겠느냐구 그러시면서 오히려 간청하시다싶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북만에서 활동할 때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 주봉길동무가 입대하던 날 밤입니다. 봉길동무는 놈들의 쌀을 지구 짐군으로 산에 끌려들어왔다가 우리에게 구원돼서 그 자리에서 입대하게 됐는데 그곳에 나타났던 아버지가 장군님의 유격대에 입대하게 된 아들에게 자기가 입었던 낡은 솜저고리를 입고 가라고 벗어줬습니다. 봉길동무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도루 아버지에게 드리려구 했구요. 그걸 지켜보시던 사령관동지께서는 봉길이더러 아버지의 사랑이 깃든 솜저고리를 받으라고 이르시고 봉길의 부친한테는 자신께서 입으셨던 털외투를 입혀보내셨단말입니다. 이렇습니다. 그후 한동안 외투 없이 지내시는 그이를 모신 우리가 얼마나 딱했겠습니까?… 경위대인원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있다는 사람들은 다 지난해와 올해에 입대한 동무들뿐입니다. 어디 전부터 있는 동무가 한사람이라도 남아있습니까? 얼굴을 알 동무가 있습니까?

저는 정 보내시겠으면 신대원을 배합해서 뽑아보내주실것을 간청했습니다. 뽑아보내신 다음에도 그만한 인원을 보충해주실것을 여러번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이께서는 호위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저는 정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이께서 늘 다른 사람들만을 돌보시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생각지 않으시니 대체 어쩌면 좋습니까? 좀 말씀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구 가르쳐주십시오!》

안타까와하는 북철의 심정을 강세호는 충분히 리해하였다. 그와 같은 경우를 한두번만 당해온 강세호가 아니였다.

《그러시질 못하게 할수는 없소. 그건 안되오. 누구도 안되오.》
강세호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마 더해지실거요. 날이 갈수록 더해지실거요.》
《그러면 어쩝니까? 우리는 어쩝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민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과 관심이 커가고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령관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더 잘 모시기 위해 애써야지. 사령관동지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처신하구 세심히 살펴 일하구 잘 받들어올려야 하오.
례를 들어 동무가 주봉길동무의 생일을 알아두고 그이께서 봉길동무의 생일날에 섭섭치 않게 해주시려고 마음쓰실수 있다는것을 미리 알아맞추어서 예견성있게 스스로 준비했다면 사령관동지의 걱정을 덜어드리지 않았겠소? 또 동무가 채심해서 숙영 우등불감으로 이깔나무를 엄금하구 봇나무나 쇠스래만 골라 피웠더면 지금 우리가 뵈옵기조차 민망스럽구 딱한 일은 안생겼을게 아니요?
그리구 사령관동지를 받들어모시구 안녕을 도모해드리는 일에서는 양보 없이 욕심을 써야 하오. 그 일에서는 양보를 해서는 안되오. 앞으로는 절대로 경위대인원을 내놓지 마시오. 나와 같이 온 두칠동무도 다른데서 끌어가기전에 동무가 당겨오오. 현팔동무도 내가 경위대에 배속되도록 하겠소. 그리고 나도 경위대원으로 취급하오. 동무에게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미혼진으로 가지 않고 사령부를 찾아오게 된것도 실은 현팔동무의 말을 듣고 보니 이러루한 일이 있을것 같애서 나 한사람이라도 동무의 사업을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기때문이요. 조선혁명의 대앙양기를 앞둔 지금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지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은 동무도 잘 알거요. 그건 동무의 심정이자 내 심정이고 우리 모든 조선사람들의 심정이란말이요.》
웬일인지 기마대렬이 앞으로부터 멎기 시작하였다.
강세호는 허리를 솟구고 잠시 앞을 살피더니 마치 량해나 구하듯 말했다.
《아무래두 좀 나가봐야겠소.》

《저두 갈가요?》
《안되오. 동문 있어야 하오.》
강세호가 전방척후를 찾아 멈춰선 기마대렬옆을 따라 앞으로 나가는것을 보며 리북철은 경위대장으로 임명된후 자기의 직책을 어떻게 수행해왔던가를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4

리동백은 말까지 얻어타고 사령부일행속에 끼이기는 했으나 얼마동안은 혼자 무료히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장군님께서는 대렬이 마을을 출발한 뒤에 곧 현팔이와 두칠이의 곁으로 가시였고 대렬앞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뒤쪽으로 갔던 강세호는 마침내 자기곁에 와주는가 했더니 경위대장이라던 사람과 어울려버렸다.
초면인사를 드린데 지나지 않은 장군님에 대해서나 그이를 모시고 가는 유격대원들에 대해서나 아직 너무나도 아는것이 적고 너무나도 알고싶은것이 많은 리동백이였다.
앞뒤를 이리저리 살피던 그는 바로 자기의 얼마뒤에서 말깨나 붙여볼수 있을만큼 풋낯을 익힌 사람을 발견했다.
장군님께서 패신 장작을 규모있게 가려쌓던 나어린 전령병,바로 자기한테 지금 타고가는 황부루를 끌어다주던 젊은이였다. 늘 장군님 곁에서 지내면서 그이의 령을 아래에 전하는 사람이니 비록 나이는 어리다 해도 그 누구보다 장군님에 대하여 잘 알것이요 또 장군님께서 품고계신 생각도 남먼저 알고있을게 틀림없었다.
리동백은 주봉길의 곁에 가고싶었다. 그러나 사정사정하여 겨우 혁명군대렬에 끼여든 처지에 정연한 행군대오에서 제멋대로 행동한다는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혁명군의 질서를 무시하고 문란시키는 행위로 되는것 같아서 삼가치 않을수 없었다.
그는 마음을 누잦히고 말이 가는대로 몸을 맡긴채 앞에서 움직여

가는 기마행렬을 멍하니 바라보며 혼자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이 혁명군대오는 어디로 향해가는것일가? 북만원정의 뜻을 이루고 지금은 조국땅을 향해 진군해나가는 걸음일가?

그렇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인원이 적은 대오였다.

장군님께서 북만원정을 가셨다는 이야기를 처음 강세호로부터 들었을 때 그리고 미구에 조선으로 쳐나가시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리동백은 장군님께서 북만에서 대군을 거느리시고 나오시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 장군님의 수하에는 한눈에 헤여볼수 있을 정도의 군사밖에 없었다.

조국광복의 큰뜻을 이룩할 대군은 어느 딴 고장에 있을가? 뒤에 떨어져오는가? 아니면 앞서 먼저 나갔는가? 혹은 불행히도 북만에서 꾸려가지고 나오던 대군이 도중에 참화를 당한것인가? 낡고 해진 군복들을 입은것으로 미루어보면 모두들 숱한 고생을 겪었던것이 틀림없는듯했다. 그리고 행군방향이 남쪽으로 잡혀있는것으로 보아서 그리운 조국땅이 있는쪽으로 나가고있는것도 분명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보면 북만에서 막심한 고생을 겪고 나서 되돌아나오는 걸음이라는 짐작도 갔다.

그러나 군사이동이란 지도우에 자를 대고 화살표를 긋는것처럼 행방이 언제나 곧바르고 아무 눈에나 두드러지게 드러나는것은 아닐것이다. 지금은 남쪽으로 가는것 같이 생각되지만 결국에 가서는 서쪽이나 북쪽에 가닿게 될지도 모르는것이다. 중도에서의 행군방향은 지형조건과 군사적필요에 따라 이렇게 될수도 있고 저렇게 될수도 있을것이다.

《심심치 않았습니까?》

곁에서 나는 우렁우렁한 귀익은 말소리에 리동백은 혼자생각에서 깨여났다. 현팔이와 두칠이의 곁에서 같이 행군해가시던 그이께서 그들과의 이야기를 끝맺으시고 리동백이한테로 오시는 참이시였다.

《뭐 별로…》

리동백은 자기가 괜히 바쁘신 장군님께 부담을 드리는것만 같아 죄송스러웠다.

《혁명군동무들의 행군모습을 구경하느라구 심심한줄은 모르고

왔습니다.》

《심심했겠는데 이제는 내가 선생한테 말동무를 해드릴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닿을데까지는 꽤 머니까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한테 찾아오신 사연을 풀어헤치자면 여러날 걸리겠다고 하셨는데 맘놓고 말씀해보십시오.》

장군님께서는 군복웃단추를 하나 끌러놓으시였다. 그 여유작작하신 모습에서 리동백은 이야기에 조바심치지 않아도 되리라는 안도감을 느끼며 웬일인지 자기의 모든것을 죄다 털어놓고 또한 이 기회에 자기가 알고싶었던것을 죄다 묻고싶은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두서없어도 괜찮고 길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워낙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장군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였다.

《하잘것 없는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시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리동백은 입을 다시며 잠시 생각하다가 가벼운 한숨과 함께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사실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데 리롭다고 하는데는 여기저기 다 약간씩 얼굴을 들이밀어보다싶이 한 사람입니다.

바람이 부는대로 이리로도 가보고 저리로도 가보는 난파선처럼 시대풍조를 따르면서 그러느라면 나라와 겨레가 구원될가 하고 이 운동,저 운동에 몸을 잠가보군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운동들에 대해서는 신물이 나도록 맛볼대로 맛을 봤구 그 모든 운동들에 대한 제딴의 결론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모든것이 헤실바실되고 갈길을 몰라 헤매고있을 때 저의 얼어붙고 터갈라진 가슴에 새 희망을 안겨준 청신한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군님께서 거느리시고 조국광복을 위한 싸움을 벌리고계시는 항일유격대입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전시대의 공산주의운동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공산주의운동세력이 나타나서 유격투쟁을 벌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왔습니다.》

리동백의 이러한 이야기에 장군님께서는 각별한 흥미를 느끼시고 새삼스럽게 그를 돌아보시였다.

《어떻게 되여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였습니까?》

《그건 파쟁으로 종말을 고한 이전의 공산주의운동자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것을 느꼈기때문입니다.》

《매우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선생은 우리 유격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신다는데 어떤 점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릴수 있었습니까?》

《장군님께서 지도하시는 새로운 공산주의운동세력은 말보다 오히려 행동을 앞세웠습니다. 총을 들고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무찌르자고 나섰고 유격구역에 공산주의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반면에 제가 잘 알고있는 20년대의 공산주의운동자란 사람들은 아무런 실천적행동도 안하고 헤게모니쟁탈을 위한 파쟁에 몰두하여 공리공담만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저의 체험을 통하여 그들의 추한 정체를 알게 되였고 쓰라린 교훈을 찾았습니다.》

《종파군들이 해괴망측한짓들을 참 많이 했지요. 어디 리선생의 체험담이나 들어봅시다.》

《제가 찾아온 목적을 석연하게 말씀드리는 의미에서는 소용될 이야기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자기의 지난날을 더듬고난 리동백은 구슬픈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는 멋도 모르고 감옥에서 저에게 공산주의사상을 주입시켜주었던 이른바 선배 공산주의자란 사람을 따라다니다나니 저도모르는 사이에 이 운동판에 끼여든 첫걸음부터 파쟁바람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공산주의운동자들속에서 애숭이취급을 받으며 그들축에 끼지도 못하고 지내던 어느날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쏘련 원동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가지 않겠느냐구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

으니 어찌나 반갑던지 그때 저는 세계최초의 로동자,농민의 국가로 된 쏘련을 몹시 동경하고있었습니다. 다른것은 그만두고 우선 쏘련에 한번 가본다는것만 해도 얼마나 굉장한 일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듣기만 해도 요란한 당창건대회에 참가한다는게 저같은 애숭이공산주의신봉자한테야 상상할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대회에 대표로 참가했다면 누구도 저를 얕보지 못할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내달라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무슨 아지트라고 하는델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는 대표증이라는걸 만들고있었습니다. 등사한 줄칸을 친 종이장에 이름이랑 적더니 이르꾸쯔끄파의 당대표가 분명하다는 둥그런 도장을 눌러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한 일이지만 그때 저는 기쁨에 들뜬 나머지 그 치사스러운 협잡놀음을 보고 구역질을 느낄 대신에 사정이 그러니 감자도장을 찍는게구나 하고 너그럽게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수치감도 느끼지 못했던것입니다.》

묵묵히 리동백의 이야기를 들으시던 장군님께서는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그러니 선생은 진짜 감자도장을 봤겠습니다?》

《보다뿐이겠습니까. 대표증을 받구나서 시들시들해진 감자도장에 인즙이 잔뜩 묻어 글자가 제대루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파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참 희귀한 물건을 구경했습니다. 나도 종파분자들이 더럽게 노는 꼴을 수태 보아왔고 오가자에 살던 변뜨로쯔끼라는 로인한테서는 고려공산당원증이라는것도 구경했습니다만 진짜 감자도장은 보지 못했습니다.》

《대체 그런 감자도장을 찍어가지고 가서 뭘하나 했더니 세력권확대에 필요했더군요. 그게 아마 1922년 10월경이였던것 같은데 원동에 있는 엘프뉴진스크라는데서 상해파와 이르꾸쯔끄파의 합동대회라는걸 열게 되였습니다. 그 대회에 량파가 서로 저희파의 대표를 더 많이 참가시키려고 협잡했습니다. 감자도장을 새겨가지구 가짜대표증을 수태 만들어 그 합동대회에 엉터리대표를 보낸셈이지요. 자기파 세력이 승해야 헤게모니를 장악하겠으니까

요. 그 협잡이 드러나가지구 또 서로 옥신각신 물고뜯었습니다. 회의에 림박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공격비난하는 성토문과 선언문을 발표하구 란장판이 됐습니다. 그러니 합동회의라는게 성립될리 없었지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결국 이르꾸쯔끄파의 고려공산당이라는건 해체되구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해외에서 조선공산당을 창건하려던 시도는 파탄되구 그 사업을 국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섰습니다. 그러자 종파분자들은 국내에 쓸어들어 또다시 헤게모니를 걷어쥐기 위해 별의별 짓들을 다 했습니다.…》

아까부터 여러번 조심스럽게 장군님 뒤에 다가와 머밀머밀하다가 물러나군했던 리북철이 실례될것을 무릅쓰고 장군님 곁에 다가왔다. 웬일이냐고 물으시는 그이의 눈길을 받은 리북철은 점심때가 지난지 오랬다는 말씀을 드렸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장군님께서 중천을 훨씬 기울어간 해를 쳐다보시고 이어 회중시계를 꺼내보시였다.

《선생의 이야기를 듣는 재미에 시간가는줄도 몰랐습니다. 오늘 점심은 좀 늦었구만. 휴식합시다.》

《알았습니다.》

활기있게 대답하고 옆에서 물러나려는 경위대장을 장군님께서는 다시 찾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낮은 목소리로 은근히 물으시였다.

《좀 구했소?》

《좀 구하느라구 했습니다만…》

경위대장은 난색을 지었다.

《…겨우 3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점심참에 해주랍니까?》

《이제야 어떻게 하겠소. 간단히 주먹밥들이나 구워 요기를 하구 곧 다시 떠나야지.》

《저녁이 좋겠습니다. 강세호동지하구 같이 어디에 무엇이 더 좀 없겠는지 알아보는중입니다.》

《고맙소.》

리북철이 물러나자 장군님께서는 말을 멈춰세우시였다.

《내려서 좀 쉬면서 점심요기를 합시다. 시장하겠습니다.》

《제가요? 전 정말 시장기를 못느꼈습니다.》

《선생에게 담배 태우실 짬도 없이 이야기를 시켜서 안됐습니다. 한대 태우십시오. 내 잠간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야 리동백은 그렇게 즐기는 담배마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말우에서 땅바닥에 내려온 그는 진대나무에 걸터앉아서 가루담배를 두둑이 눌러담은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이를데없이 맛좋고 구수한 첫모금에 노근한 취기를 느끼며 멎어선 대렬앞쪽으로 나가시는 장군님의 뒤모습을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간편한 유격대의 식사와 짧은 휴식이 끝난 다음 다시 길을 떠나자 리동백은 아까 끊어졌던 화제를 잇대여 고려공산당이 해체된 이후 자기가 지내온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런 뒤에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 한데 거기엔 거기대로 벌써 여러 파가 생겨나고있지 않겠습니까? 화요파요, 서울파요, 북풍회요, 상해파요 하는것들이 저마다 제가 주류라고 우겨대면서 아직 태여나지도 않은 당의 령도권을 걷어쥐여보려고 미쳐날뛰고 있었습니다.》

리동백은 1923년 1월 제3국제당 원동국에 내왔던 고려국까지 해산해버리지 않을수 없게 만든 종파들의 가지가지 추잡한 파쟁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그자신 새삼스럽게 어이가 없었던지 문득 입을 다물고 구슬픈 눈매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고 보면》

하고 한동안 침울한 표정에 잠겨있던 리동백은 갈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밤낮 서로 물고뜯는 내외사이에 태여난 기형아와도 같이 태안에서 벌써 병들어 나온 조선공산당이 그래도 3년동안이나 목숨을 부지했다는것이 오히려 기적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앙위원이란 사람들을 자루속에 잡아다가 곤봉으로 때리고 목침으로 머리를 까고 지어는 반대파를 경찰에 밀고해서 잡아가두게까지 했으니 가뜩이나 병든 기형아가 어찌 오래 살기를 바랄수 있겠습니까?》

리동백은 말끝에 한숨을 쉬였다.

《정말 수치스러운 종말입니다.》

혼자말씀처럼 외우시는 장군님의 안광에는 서늘한 빛이 비껴 있었다.

《그렇게 파쟁만 일삼았으니 당을 말아먹지 않을수 있었겠습니까. 모두 단결해서 당을 보존하고 잘 키워왔더면 우리가 싸우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혁명초기부터 우리 혁명대렬내에서 반종파투쟁을 강하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해왔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이 무슨 강령 같은게라두 있어서 그렇게 싸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장군님의 말씀대로 그들한테 무슨 그럴듯한 주장이라도 있어서 싸운게라면 지금껏 제가 이렇게 심한 정신적허탈감을 느끼진 않을겝니다. 사실은 그무렵에도 파쟁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 돌아치다가 약간이나마 정신이 드니 저에게도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상반되는 리념이라도 있고 론리라도 있어서 피투성이 파싸움을 하는것이냐 하구말입니다. 그러구보니 혁명을 한다는 말뿐이지 순 자리다툼만이 아니겠습니까?

자칭 맑스주의권위자라는 사람들이 웨치는 소리라는건 짧은 제소견으로 들어봐두 허망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론리였습니다. 탐위욕만 머리에 가득찬자들이니 어찌겠습니까? 리성도 지성도 없는 공허하고 빈곤한 두뇌에 있다는건 야심뿐이니 거기에서 나온다는게 순전히 다른 파와 엇서기 위해 줴치는 그따위 주장밖에 더 있겠습니까? 전수 자리다툼만 일삼는 고약한놈들이였습니다. 아주 나쁜놈들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기대할것이 없고 또 미련을 둘 여지도 없는자들이였습니다. 그자들에 대한 환멸감과 자기의 지난날에 대한 허무감에 사로잡혀있었던 제가 항일유격대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하는것은 짐작이 가실줄 압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나든 문을 열어보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방안에 들어박힌 사람에게 신선한 바람이 스며든것과 같다고 말씀드릴지.》

리동백은 항일유격대에 대한 소문을 들은 때로부터 강세호를 만나 떠나오게 되기까지의 긴 사연을 장군님 앞에 숨김없이 말씀올렸다. 그러나 장군님에 대하여 자기 마음속에 품고있는 경탄의 감정만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인민들속에서 떠도는 장군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렸을뿐이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리동백이 비록 말하지 않았으나 그가 찾아온 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으시였던지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겸손한 웃음을 띠우시며 딱해하시는듯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니 선생은 우리한테 소문대로 기대를 가질만한 사람들인가 알아보자고 정찰을 온셈이군요.》

《아니 그렇게까지…》

퍼그나 당황해진 리동백은 말끝을 마무리지도 못하고 허둥거렸다.

《머리를 낮추십시오.》

하시며 장군님께서는 그의 눈앞에 다가드는 나무가지를 손에 받쳐 올려넘기시였다. 그러시고는 안심시키시듯 아량있는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생소한 강을 건너가자면 먼저 깊이를 알아봐야 합니다. 군사행동에서는 정찰을 앞세우는것이 하나의 원칙인데 선생이라고 우리 유격대에 대해 정찰을 앞세우지 못하겠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은 자기 마음속까지도 환히 꿰뚫어보시고 그 심정을 깊이 리해해주시는 그이의 말씀과 너그러우신 웃음앞에 리동백은 깊이 숨겨두었던 자기 마음속 비밀의 마지막 매듭까지 저절로 스르르 풀려나가는것을 느꼈다. 아직까지 약간 굳어져있었던 그의 모든것이, 눈빛도 안면근육도 몸자세도 죄다 탁 풀어지고 말았다.

《장군님 앞에선 속을 다 털어놓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나살이나 먹은 사람이 지나치게 불손한 호기심을 품고 왔다구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두루 알아보구나서 따라가 싸움길에 나서든지 집에 돌아가 다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든지 하자는 속궁리도 노

상 없었던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기회주의자입니다.》

《허허허…》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솔직한 말씀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생의 마음에 들지 않구 우리들이 하는 일이 승산이 없는게라구 판단되면 그것으로 선생과 우리와의 관계는 끝나버리고마는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신념을 얻어내지 못하면 아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신념이 없이는 지조를 지켜낼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진리와 신념을 찾고있습니다.》

《진리를 찾자고 모대기는것은 결코 기회주의가 아닙니다. 의로운 뜻을 품고 진리를 탐색하는 선생과 같은분을 만나니 참 기쁩니다. 량심을 저버리지 않고 뜻을 잃지 않은 선생 같은분이 많이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혁명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때 혁명을 해보겠다는 뜻을 품고 나섰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것 같은데 더러는 변절해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다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저렇게 흩어지고말았습니다.

선생은 지조를 굽히지 않은채 여전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찾고계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을 위해서도 우리 혁명을 위해서도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자기와의 상봉을 진심으로 기쁘게 여기시는 장군님의 환하고 밝은 웃음에 리동백은 눈굽이 뜨끈해지는 한편 어리둥절해지기도 하였다.

기쁨과 행복으로 말하면 장군님을 만나뵈옵자던 오랜 숙망을 이룩한 오늘의 자기이상 기쁘고 행복할 사람이 다시 없을것 같았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하잘것없는 존재인 자기와의 상봉을 더 기쁘게 여기시는것이다.

그렇게도 탁류에 오염된 지식인이며 혁명을 외면하고 촌에 들

여박혀 지내온 무맥한 은둔자였으며 넋뿐만아니라 기력마저 쇠진해버린 초췌한 초학훈도에 지나지 않는 이 리동백을 만나신것이 어찌하여 장군님께서는 저처럼 환하고 유정스러운 웃음을 피워올리시는 기쁨으로 되는것일가?

리동백은 그 까닭을 헤아려내지 못한채 두눈을 연신 슴벅이며 말없이 장군님을 우러러뵙기만 하였다.

밀림속엔 어느덧 이 하루의 해가 저물어가고있었다.

5

앙상한 쇠스래나무가지끝에 둥실한 달이 걸려있었다. 숲속을 대낮처럼 밝혀주는 크고 환한 보름달이였다.

중대와 소대 단위로 몰려있던 대렬들이 저마끔 흩어지고 지휘성원들이 장군님 곁에 모여들기 시작하자 그이께서는 리동백에게 마치 량해를 구하시듯 말씀하시였다.

《우리들끼리 잠간 오늘 행군총화를 짓겠습니다.》

자기가 내처 장군님 곁에만 있으면서 많은 일을 보셔야 할 그이께 불편을 끼쳐드리고있음을 문득 깨달은 리동백은 눈치도 체면도 없는 자신을 마음속으로 힐책하면서 황황히 일어났다.

그가 자리를 피하려는것을 아신 장군님께서는 만류하시였다.

《그냥 계셔도 무방합니다. 앉으십시오.》

《아니 좀 바람을 쏘이겠습니다.》

리동백은 뒤걸음치며 사양하였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쾌히 수긍하시였다.

《종일 말을 타고 왔는데 좀 몸을 놀리는게 좋긴 합니다. 산보를 하면서 가벼운 운동도 하십시오. 그래야 몸이 풀립니다.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닌게아니라 다리가 뻣뻣하고 허리가 지긋지긋했다.

리동백은 유격대원들의 눈에 덜 띄울만한데까지 벗어져나와

아침체조시간마다 학생애들과 같이 하군하던 체조동작을 두번씩이나 되풀이하고나서 슬렁슬렁 거닐기 시작했다. 아니, 난생처음 보는 유격대원들의 숙영준비에 눈이 팔려 구경을 돌아다닌것이다.

장관이였다.

어느새 여기저기 피여난 우등불들이 우르르 소리를 내며 삼단 같은 불길들을 올리고있었다. 불무지마다에 김을 씩씩 내뿜는 군용밥통들이 걸려있었다.

두대의 굵은 나무대를 가지런히 눕히고 그사이에 장작으로 길게 불을 달아놓은데서는 주런이 걸린 여러개의 법랑소랭이가 김을 올리고있었다.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내가에서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시뻘건 팔을 드러내놓은 젊은 유격대원 몇이 우물가의 아낙네들처럼 솜씨있게 단검을 가지고 얼음판에 무우를 썰고있었다. 국거리를 만들고있는것이다. 궁근 얼음밑을 흘러가는 물소리가 둘둘 둘둘 웅글진 소리를 내고있었다.

개울 건너편 봇나무숲속에는 어느새 추녀끝을 높이 쳐든 커다란 기와집 같은 천막이 생겨났다. 어디선가 도끼들이 투닥거리고 톱들이 쓰르릉쓰르릉 나무를 켜댔다.

리동백은 강대를 찍어넘기고 자를 대고 잰것 같이 키가 가쯘하게 켜서 패놓은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올리고있는 젊은 유격대원들옆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당장 때게 될 장작을 그렇게 일매지게 패는것이 이상스러웠고 또 그렇게 규모있게 쌓아놓는것도 이상스러웠다.

거기서 떠난 리동백은 담배를 피워물고 후미진데로 내려서다가 이번에는 두사람이 전나무가지로 《ㄷ》자 모양의 자그마한 울타리를 치는것을 보고 다시 멈춰섰다. 울타리안은 사람 하나 들어서기 알맞춤할만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데 보초막을 친다고 인정하기에는 군사에 대하여 잘 알고있지 못한 그의 소견으로써도 자리가 적당한것 같지 않았다.

《이건 보초막인가요?》

그를 돌아다본 두 대원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일시에 쏟아져나

오는 웃음을 참을수 없는듯 대꾸를 못하고 키득거렸다. 방금 서로 우스운 이야기를 하던 참인지도 모른다.

그중의 한사람이 웃음을 겨우 참아가며 머리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그리고는 잠시 거북한 표정이다가 정중하고 공손하게 뒤간이라고 알려주었다.

(이 깊은 산중에 변소까지？！ 더구나 하루밤 지내고 떠나가버릴 숙영지에？)

돌아서서 발 가는대로 산보길을 이어가던 리동백은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한가지 생각에 걸음을 멈추었다. 유격대가 여기서 여러날 묵을것이라는 생각이였다. 그렇지 않다면 하루밤 자고 떠날곳에 저렇게 착실한 살림차비를 할리가 없는것이다.

이제는 의문스럽던 여러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풀렸다.

어느덧 숙영지에는 여러개의 천막들이 질서정연하게 일어서 있었다.

말들은 사람들에 앞서 저녁거리를 받았는지 군데군데 몰켜서서 머리를 주억거리며 무엇인가를 씹고있었다.

손이 난 유격대원들은 우등불둘레에 앉아 혹은 총을 닦고 혹은 신발을 손질하고 혹은 떨어진 단추를 달거나 나무가지에 찢긴 옷을 기우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다 익은 음식냄새가 숲속에 자욱히 떠돌았다.

외따로 떨어져있는 한 구석진곳에서는 어린것들의 소꿉놀이불같이 피워놓은 작은 불무지옆에 나이 지긋한 한 대원이 숨어앉아 무엇인가를 굽고있었다. 세그루의 애잣나무가 그를 가리워주고있었다. 잉걸불우에 올려놓은 군용밥통뚜껑안에서는 무엇인가 보질거리며 구미를 돋구는 깨고소한 탄기름내를 풍겼다. 남몰래 맛있는 무슨 기름튀기를 료리하는것이다.

엄동산중에서도 못하는 일이 없는것 같았다.

리동백은 무얼 하는지 알아보고싶었지만 여느 사람들보다 나이들어보이는 그 대원이 무참해하리라는것과 자기자신 또한 체면이 없어지리라는 생각이 들어 못본척하고 슬그머니 그 옆을 피해 에

돌아갔다.
산뜻하게 쳐놓은 장풍결을 지나 봇나무만 골라서 피워놓은 우등불곁에 이르러 리동백은 두 전령병과 함께 계시는 장군님을 뵈옵고 멈춰섰다.
그이께서는 몇걸음 마주오시며 반기시였다.
《무슨 구경거리라도 있었습니까?》
《네, 한바퀴 돌면서 유격대가 숙영준비를 하는것을 봤습니다.》
하고 리동백은 대답했다.
《이런걸 첨 봅니까?》
《첨이지요. 거 산에서도 못하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어… 한가지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물으십시오. 선생은 알아보실게 많아서 일부러 찾아온 걸음이 아닙니까?》
장군님께서는 호방하게 웃으시였다. 리동백이도 따라웃었다.
《다른게 아닙니다. 여기에 얼마나 머무실 예정인지 그리구 여기서 뭘 하실걸 계획하시는지 알고싶었습니다.》
《한밤 자고 래일 새벽에 다시 떠납니다. 여기서 묵을 일이 없습니다.》
리동백의 짐작은 뒤틀어지고말았다. 다시 그 굳건한 숙영준비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로 되였다.
《래일 떠난다는분들이 장작가리랑 쌓구 그렇게 굳건히 틀고앉을 차비를 합니까?》
《한밤 자고 떠난다 해서 아무렇게나 지낼수야 없지요.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동무들은 되는대로 사는걸 좋아 안합니다.》
리동백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루밤 자고 떠나가버릴 무인지경 밀림속에서 장군님 휘하의 인민혁명군대원들처럼 이렇게 알뜰하고 문화성있고 질서있는 생활기풍을 유지할만큼 높은 교양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데 또 있으랴? 아무리 잘 교양받았다고 하는 문명인이라도 산속에서 뜨내기살이를 하게 되면 며칠 못가서 문명이전으로 되돌아가 되는대로 살아

버릇하고말것이다.

리동백은 휘하 사람들을 교양있게 훈련시키신 장군님의 인격에 마음속으로 은근히 감복하였다.

《좀 쌀쌀해지는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갑시다.》

리동백은 장군님을 따라 천막안으로 들어갔다.

약간 매캐한 연기내가 떠도는 천막안은 훈훈했다. 안쪽의 한켠에는 잘 핀 잉걸불만 골라담아다가 모아놓았는지 한창 이글거리는 불무지가 있었다.

천막을 받쳐올린 가운데기둥에는 3대의 초대가 매달려있었는데 그중의 한대에는 이미 불이 켜져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나머지 두 초대끝에도 불을 옮겨붙이시였다. 천막안이 한결 더 밝아졌다.

《이게 잠자리겠습니다, 장군님?》

리동백은 맨땅에 상록수가지들을 깔고 그우에 마른풀대들을 베여다 두둑이 깔아놓은것을 보고 물었다.

《네, 행군중에 숙영할 때에는 이렇게 해놓고 자군합니다. 몹시 추울 때에는 오히려 천막을 치지 않고 우등불을 크게 피워놓고 그 밑에서 몸을 덥히며 자는편이 낫습니다.》

《여기다 모포를 깔겠습니다?》

《여벌이 있으면 깔겠는데 지금은 여벌이 없어서 그러지 못합니다. 좀 배기구 찌르긴 합니다만 푹신한 멋도 있어서 괜찮습니다. 좀전에 바깥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인것만큼 비록 하루밤을 지내더라도 살멋이 있게 꾸려놓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형편이 이 이상 더 훌륭한것을 마련할수 없게 합니다.》

《장군님께서도 이런데서 주무십니까?》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나한테야 이 이상 더 좋은 잠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데가 좋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진정으로 만족하신듯 밝은 웃음을 지으시였다.

하루밤의 로숙침상으로는 정말 그 이상의것을 마련할수 없는 조건이였다. 그러나 알뜰하고 문화성있게 꾸리기를 좋아하는 인민

혁명군대원들이 장군님께도 그와 같은 잠자리밖에 마련해드리지 못하게 될 때마다 그 심정들이 오죽 안타까우랴싶었다.

《우리는 단련돼서 일없지만 아직 단련이 부족한 어린 대원들을 이런 잠자리에 눕힐 때면 마음이 편치 못해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며칠간이라도 한곳에 머무를 때에는 구들을 놓고 따뜻한데서 자게 합니다. …》

천막밖에서 인기척을 느끼신 장군님께서는 말씀을 끊으시고 누가 왔는지 들어오라고 찾으시였다.

출입구자락이 조심스럽게 들리더니 나어린 전령병이 머밀머밀하며 들어왔다. 봉길이였다. 눈덕을 내리깔고 흐린 기색이였다.

《봉길동무가 좀 뿌루퉁했군. 무슨 일이 있었소?》

장군님께서는 웃음속에 물으시였다.

봉길은 눈을 들었다가 다시 떨구었다.

《말해보라구.》

장군님께서는 달래듯 재촉하셨다.

《경위대장동지가 저만은 오늘 저녁 식사운반을 하지 말라는것입니다.》

장군님의 입가에는 전에없이 의미있는 웃음이 피여났다.

《어째서?》

봉길이는 더 깊이 머리를 숙이고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웅얼웅얼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사령관동지께 가서… 그런 처벌을 당하게 된 까닭을 알라고 했습니다.》

《배식자격정지정도의 〈처벌〉밖에 못받았소?》

《네.》

《너무 눅거리로군. 그런 〈처벌〉을 당하면 오히려 편안해서 좋지.》

장군님께서는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봉길이도 숙인 머리를 들며 씨물 웃었다. 그리고는 웃을 체면이 못된 처지에서 웃는것이 창피스러웠던지 귀바퀴까지 새빨개졌다.

《저리 들어가 리선생옆에 앉아서 곰곰히 생각해보오.》

봉길의 곁에 다가가신 장군님께서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떠미시고는 그가 서있던 출입구가까이에 쌓여있는 마른풀을 땅바닥에 고르롭게 펴놓으시였다. 그러신 다음 천막에 드나들기 편리하게 출입구자락을 젖혀올려 흘러내리지 않도록 손질하시였다.

해사한 보름달이 새물새물 웃으며 터놓은 출구의 한 귀퉁이로 갸웃이 천막안을 들여다보았다. 여기 들어온 애젊은 전령병이 어쩌고있나 알고픈듯이.

봉길이의 일이 어떻게 돼갈지 궁금스레 앉아기다리던 리동백은 뚜껑짬으로 김이 몰몰 새여나오는 군용밥통 두개를 량손에 나눠든 강세호가 들어서는것을 보고 바삐 일어났다.

그가 자리를 피할 기미임을 알아채신 장군님께서는 그의 팔소매를 잡고 제자리에 눌러앉히시였다.

(끼니때마다 그이의 곁자리에 끼여들다니?)

리동백이 이렇게 될줄 모르고 주책없이 멍청히 앉아있은 자신을 마음속으로 꾸짖고있는동안 경위대장 리북철과 전령병 한종삼이도 음식그릇을 날라왔다. 강세호는 건초깔개우에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다.

《종삼동무는 그만하구 봉길동무옆에 가만히 앉아있소.》

하고 이르신 장군님께서는 경위대장에게 분부하시였다.

《동무네 몫도 이리 가져오시오. 좀 비좁은대로 오늘 저녁엔 같이 둘러앉아 동무해줍시다.》

누구를 동무해주자는 말씀이신지 리동백은 그 뜻을 해득할수 없어 얼떨떨해하며 유격대의 숙영지에서 처음 보는 저녁상에 눈길을 주었다.

비록 맨땅우에 마른풀을 깔고 그우에 그냥 차려놓은 소박한 음식이지만 깨끗하고 성의있게 만들었을뿐아니라 이런 눈덮인 무인지경 산속에서는 뜻밖이라 할만큼 희귀하고 빛다른것도 올라있는 저녁이였다.

조밥에는 세일정도이지만 툭툭 속살이 터져나온 팥알들이 섞이고 된장 대신 맨소금을 넣어 끓인듯한 말간 국에는 그나마 감자국거

리가 들어있었으며 삶은 닭알 세알에 양념은 못쳤지만 소금으로 무친 깨끗한 무우생채 그리고 무슨 가루를 묻혔는지 얇게 저민 감자속을 넣어 기름에 튀겨낸것까지 있었다.

줄창 산속을 떠다니며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차려놓았다는것이 참으로 놀라왔다.

《이거 웬 감자랑 가루랑 생겨서 튀기까지 만들었소?》

찬그릇들을 어린 두 전령병과 리동백이 앉은쪽으로 가까이 옮겨놓으시던 장군님께서도 좀 뜻밖이신듯 경위대장 리북철을 돌아보시였다.

《강세호동지가 어디선지 좀 구해와서…》

리북철은 강세호의 눈치를 흘끔 살펴보며 얼버무렸다. 그런 일이 있은척 하지 않는 강세호에게로 옮기신 장군님의 시선에 말없는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우리 살림에 이만하면 부자놈들의 진수성찬 못지 않구만.》

장군님께서는 대견스런 웃음을 지으시며 곁에 앉아있는 봉길이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시였다.

《자, 오늘은 봉길이가 주인인데 봉길이부터 들라구.》

그이께서는 살뜰히 권하시였다. 내내 머리를 숙인채 앉아있던 봉길은 너무나 놀라서 커다래진 눈을 두리번거리며 장군님과 둘러앉은 사람들 그리고 범상치 않은 음식그릇들을 돌아보았다.

《우리 쌍둥이전령병 종삼이도 봉길이하구 같이 닭알을 하나씩 맛보라구.》

하고 장군님께서는 삶은 닭알 하나씩을 봉길이와 종삼이의 밥그릇우에 얹어주시였다. 종삼이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묻듯이 봉길이를 돌아보았다.

장군님께서는 나머지 닭알 한알을 그릇채로 리동백의 밥그릇과 국그릇사이를 비집고 옮겨놓으시였다.

《어려운 길을 찾아오신 귀한 손님에게 별로 대접할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침 오늘같이 좋은 날에 오셨으니 이만큼이라도 찬을 차릴수 있는것 같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네.》

리동백은 앉은채 장군님 쪽에 허리를 굽석했다.

《그런데 유격대에서는 오늘이 어떤 뜻깊은 날로 되는지 저도 좀 알고나 들게 해주십시오.》

리동백은 장군님께 소청을 올렸다.

장군님께서는 봉길이를 정겹게 돌아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 봉길동무한테 명절로 되는 날입니다. 봉길동무가 이 세상에 태여난 날이지요.》

장군님의 기쁨에 넘치신 말씀을 듣고 리동백이나 쌍둥이 전령병 종삼이보다 당자인 봉길이가 더 놀랐다. 그는 오늘이 자기의 생일날이라는것을 전혀 모르고있었던 모양이다. 갑자기 불에 덴 어린아이처럼 흠칫 몸을 젖히며 얼굴을 찡그리였다. 마치 자기앞에 차례진 생일상이 천만부당한것이기라도 한듯.

그러나 너의 생일이 틀림없다고 일러주시는듯한 장군님의 정겨우신 눈길에 접하자 불쑥 굵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며 흐느껴울기 시작했다.

(당자도 알지 못하고있는 생일날을 장군님께서 어떻게 알고계시다가 이렇게 살틀하고 다정한 가족적인 좌석까지 마련하신것일가?)

리동백이 자못 놀랍게 여긴것은 바로 이러한것이였다.

《어린애처럼 못나게 굴지 말구 자, 어서 들라구.》

장군님께서는 울고앉아있는 봉길이의 손을 끌어다 저가락을 쥐여주시였다.

《주인이 나앉아있으니 우리도 얻어먹을수 없지 않소? 강세호동무랑 경위대장동무랑 일부러 없는걸 얻어다 차려놨는데 그 성의를 제깍 받아줘야지.》

그이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였다.

《달도 좋은데 오늘 밤엔 우리모두 노래랑 부르면서 봉길동무와 같이 즐겨줍시다.》

터놓은 천막문앞에 막아선 덩실한 보름달도 벙글벙글 웃고있었다.

웬일인지 리동백이도 눈뿌리가 저려나며 이슬방울이 솟아오름을 느꼈다. 다시 젊어져 봉길이또래의 나이가 될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여 이 따뜻한 사람들을 따라다니고싶었다.

제 4 장

1

사령부가 미혼진쪽으로 나간줄 알지 못하고있는 리경준일행은 그냥 곧추 무송방향으로 행군을 계속하고있었다.

들것을 든 장기령과 《재봉소》가 든 안해의 배낭을 멘 리경준이 앞에서 걸었고 명숙을 업은 장철구가 그들의 뒤를 따랐다. 명일은 아버지가 잡은 들것의 채를 잡고 종종걸음으로 따라갔다.

그들은 숲언저리우로 낮게 드리워 북쪽으로 밀려가는 검은 구름을 침울한 눈으로 바라보다가는 눈길을 조심스럽게 들것우에 떨구군하였다. 들것에는 최선금이 솜외투를 덮고 누워있었다. 얼굴이 해쓱해진 그는 들것이 흔들릴 때마다 남몰래 파릿한 입술을 옥물었다.

그때마다 뒤에서 들것의 채를 잡은 리경준은 괴로운 눈길을 하늘에 돌리며 가볍게 한숨을 쉬였다. 리경준은 심한 부상을 입은 안해가 그 몸으로 어떻게 아픔을 참고 견디는지 상상할수 없었다.

최선금의 얼굴에서 눈만이 예전처럼 정기를 잃지 않고 은근한 빛을 뿌리였다.

최선금은 동무들이 걸음을 늦출 때마다 안심시키느라고 애썼다.

《난 일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빨리 가자요.》

그의 목소리는 앓는 사람 같지 않게 여전히 맑고 정답게 울리였다.

《아닙니다. 숨을 좀 돌리느라고 그럽니다.》

들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애쓰면서 장기령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벌써 여러번 이런 말이 오고갔다.

때때로 최선금은 자기를 두둔해달라고 부탁하는듯한 눈길로 남편을 바라보았으나 리경준은 모르는체하고 외면하였다.

최선금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상처는 대수로운것이 아니며 이렇게 들것에 누워가는것은 긴장이 풀린탓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는 래일 아침에는 꼭 걸어가게 된다고 하였다.

또 실지 최선금은 아침마다 걸어간다고 걸음을 떼였으나 몇걸음을 옮기지 못하여 입술이 파랗게 질리군하였다.

동지들에게 근심과 부담을 끼치지 않으려는 최선금의 노력은 도리여 동지들을 괴롭혔다.

최선금의 건강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빠졌다. 동지들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서로 입밖에 내지는 않았다. 명숙이만이 상처가 나아진다는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명숙은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와 아저씨를 의아쩍게 쳐다보군하였다.

쉴참이면 늘 그러하듯이 장철구는 장기령과 리경준이 들것을 들고 서있는동안 반반한 눈우에 나무가지를 깔고 그우에 마른 새초를 고르롭게 펴놓았다. 명일은 장철구의 일손을 도와주느라고 부산스레 여기저기를 뛰여다니며 마른 풀잎이며 나무가지를 끌어왔다. 어머니가 들것에 누운 다음부터 명일은 통 말이 없어졌다. 들것이 마른 풀우에 내리워졌을 때 최선금은 자기를 부축하려는 장철구의 손을 가볍게 밀어놓으며 자기 힘으로 일어나 앉았다.

우등불이 피여오르고 장철구가 배낭에서 군용밥통을 풀어내여 점심차비를 하자 최선금은 맑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철구어머니,오늘은 특식을 차리자요. 모두 시장들 하겠는데 조밥을 푼푼히 하구 느타리로는 버섯채를 만들자요.》

장철구는 주름잡힌 눈가에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묵직한 배낭을 소중하게 어깨에서 풀어내렸다.

《느타리는 이리 줘요. 내가 물에 헹궈놓을게요.》

최선금이 들것에 앉은채 이렇게 독촉했을 때야 장철구는

《걱정 말라구. 내 어련히 하지 않을라구.》

하고 어색하게 웃어보이며 배낭끈을 풀기 시작하였다.

그는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오는것을 느끼였다. 그리고는 얼결에 한홉들이 고뿌에 그득히 좁쌀을 퍼냈다가 놀란듯이 도로 고뿌를 기울였다.

《너무 적지 않아요? 좀 넉넉히 하자요.》

최선금은 간청하듯이 말했다.

《적을가?…》

장철구는 다시 고뿌를 배낭아구리로 들이밀어 듬뿍 좁쌀을 퍼올리는척하다가 또다시 최선금이 몰래 고뿌를 흔들어 쌀을 덜었다. 그리고는 꼼꼼히 배낭아구리를 동여매는것이였다.

이윽하여 구수한 쌀 익는 냄새가 우등불 변두리에 퍼졌다. 피로 바꾼 쌀이였다.

얼마전이였다. 행군기일이 하루하루 늘어남에 따라 일행앞에는 어려운 일이 곱으로 늘어났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식량문제였다. 그동안에 장기령이 한번 식량을 구해오긴 하였으나 며칠이 못가서 동이 났다. 이번에도 선참으로 식량을 구해오겠다고 나선 사람은 장기령이였다.

숲과 눈밖에 없는 이 밀림속의 어디쯤에 인가가 있으며 또 갔다오자면 얼마나 시일이 걸려야 하는지 장기령자신도 몰랐다. 그러나 동지들과 어린것들이 잣을 우린 물이나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는것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터질것 같았다. 장철구는 장기령의 제의를 듣고 펄쩍 뛰였다.

《장동무두 참, 이것 봐요. 배낭이 이렇게 불룩하지 않우? 그렇다고 낟알이 남아돌아가는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형편도 아니라우. 근거지에 있을 때 비상미를 장만해두지 않았수? 그때처럼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좀 절약하자고 했을뿐인걸.》

이러면서 장철구는 가위밥이며 머루나무줄기며 마른 풀잎 등 속을 넣어서 배가 불룩한 배낭을 내보이였다. 그의 배낭은 언제나 그 모양으로 배가 불러있었다. 자기가 자진하여 맡은 취사문제지만 동지들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는 장철구의 뜨거운 심정이 담겨져있는것이였다. 이때에도 장철구는 식량문제가 제기되자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였으며 낟알을 구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 가야지 그러지 않아도 고생이 많은 남자들을 또다시 보낼수 없다고 생각한것이였다.

리경준은 처음에 장기령과 같은 심정이였으나 그동안 남아있을 녀성들과 아이들을 생각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결국 장기령과 리경준은 장철구가 배낭을 내흔들며 우기는바람에 속히우고 말았다.

그러나 최선금의 눈을 속일수는 없었다. 그는 녀자만이 느낄수 있는 감각으로 배낭안에는 서너숟가락 되나마나한 밀가루가 남았으며 다른것은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장철구는 그처럼 최선금과 가까운 사이면서도 배낭만은 그에게 맡기지 않았다. 밤에 잘 때도 배낭을 베고 잤다.

낟알을 구해오는 문제가 화제에 오른 다음날 아침 장철구는 전에 없이 밀가루로 뜨더국을 끓이였고 잣잎을 우려서 차물 대신 내놓았다. 이리하여 장기령과 리경준은 장철구의 세간살이솜씨에 감탄하였고 사실 그의 말대로 낟알이 아주 떨어지지는 않은게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서로 밀가루뜨더국을 권하며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장철구는 그릇이 모자라는것을 핑게삼아 그릇이 나는대로 천천히 하겠다고 하였다.

《념려들 말아요. 아무려문 작식을 맡은 사람이 배곯을라구요.》

그릇이 난 다음 장철구는 몇술 뜨는척하고는 더운 물을 끓여야겠다면서 밥통을 들고 정한 눈을 얻으러 숲속으로 들어갔다.

최선금이 장철구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그한테 간것은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것을 돌보아주노라고 얼마간 지나서였다.

숲속의 눈우에는 장철구의 발자국이 찍혀있었다. 장철구는 이깔나무사이로 봉긋이 부풀어오른 바위밑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었다.

《철구어머니―》

하고 최선금이 불렀을 때 장철구는 무엇인가 보여서는 안될 일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귀방울이 빨개지며 입에 넣었던것을 급히 삼키였다. 그리고나서 장철구는 붉어진 얼굴을 돌렸다.

《오랜만에 뜨더국을 먹었더니 물이 당기누만.》

그의 입언저리와 손에는 녹다만 눈덩이가 붙어있었다. 최선금

은 눈시울이 뜨거워 못본척하였다. 장철구는 동지들을 위해 자신은 굶고있는것이였다.

그날밤 역시 늦도록 녀성들끼리 세워놓은 생활질서대로 일하고난 최선금과 장철구는 배낭을 베고 나란히 누웠다. 벌써 잠들었는지 장철구의 홀쭉한 볼우에는 한오리의 흰 머리칼이 차겁게 드리워져있었고 입은 맥없이 반쯤 벌어져있었다. 미더운 동지들의 곁에 있으니 자기는 이렇게 마음놓고 잔다는 표정이였다. 늘 보아오던 장철구였으나 이 밤따라 더 측은하기도 하고 더 돋보이기도 하였다.

최선금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낟알을 구해와야겠다고 다짐한것은 이때였다. 최선금은 장철구가 베고있는 배낭아구리에 살며시 손을 들여밀었다. 천쪼박이며 머루나무줄기가 손에 닿았다. 한참 손더듬해서야 겨우 줌안에 들가말가한 밀가루주머니가 손에 잡혔다. 최선금은 소스라쳐 놀랐다. 그는 장철구에게 말없는 감사를 보내였다.

문득 깊이 잠든줄로만 알았던 장철구가 거칠은 손으로 최선금의 손목을 더듬어 지그시 잡았다.

《왜 이러나… 선금동무.》

장철구는 최선금의 손을 두손으로 꼭 감싸쥐였다. 최선금은 장철구의 뜨거운 체온이 자기의 가슴속으로 흘러드는것을 느끼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철구어머니—》 그는 더 말을 하지 못하고 장철구의 껄껄한 손을 볼에 대고 비비였다.

《철구어머니, 난 다 알고있어요.》

《알긴 뭘 안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어서 자요.》

장철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며 슬며시 돌아누웠다. 그리고는 점도록 말이 없었다. 얼마후 장철구는 돌아누운채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눈에 덮여서 그렇지 숲속은 온통 먹을것 천지라니까. 숲속에 한벌 깔렸던 고사리, 더덕, 참나무버섯은 다 어디 갔겠다구, 잣도 그렇지. 이고장에 잣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왜 잣송이가 한두개밖

에 보이지 않겠어. 우리가 뭐 어느 나라에서처럼 사막에나 와있는가요. 노력만 하면 풀려요. 그저 이 몹쓸 눈때문에 그러지.》

장철구는 입버릇처럼 눈타령을 하였다. 그러나 말과는 달리 장철구의 어깨는 가볍게 떨고있었다. 장철구는 이때 일행이 부딪친 난관이 생각던것보다 엄청나게 큰데 비하여 자신의 힘이 너무도 보잘것 없음을 새삼스레 통감한것이였다. 최선금은 참을수 없었다.

《난 철구어머니가 동지들을 생각하여 눈으로…》

최선금은 여기까지 말하고는 억이 막혀서 흑흑 느끼였다. 깜짝 놀라며 몸을 돌린 철구는 최선금의 손을 거머쥐고 다짐하듯이 물었다.

《명일이 아버지랑 장동무는 모르지？》

최선금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장철구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선금동무두 참, 남이 물이 당겨서 그런걸 가지고…》

그러나 그의 유순한 눈에는 커다란 눈물방울이 맺혀있었다.

별들도 잠든 밤이였다.

최선금과 장철구는 눈우에 반짝이는 별빛을 밟으며 숲속을 걸었다. 물론 동서남북 끝없는 밀림속 어디에 인가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디이건 찾아가야 했다. 그대로 이 밤을 지새울수는 없었다. 그들은 남정들과 어린것들 모르게 식량을 구하러 떠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만족하였다.

얼마나 걸었는지 삼태성이 기울무렵에 그들은 묵밭을 찾았다. 찾았다기보다 발에 밟히는 느낌을 통하여 그렇게 짐작한것이였다. 그들은 서둘러 정갱이를 치는 눈을 떠밀어내고 한줌의 흙을 그러쥐였다. 어슴푸레한 별빛으로도 거밋거밋한 흙과 몇오리의 조잎이 또렷이 보였다. 그때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던지 모른다. 그것은 한줄기 희망의 빛살과 같은것이였다.

밭을 찾은 다음에도 그들은 한식경이나 숲속을 헤매다가 겨우 어설픈 산전막을 찾았다.

산전막에는 흰 수염을 가슴우에까지 드리운 로인이 투박한 손에 나무숟가락을 들고 앉아서 수수지짐을 지지고있었다. 최선금

이 찾아온 사연을 말했을 때 안개가 낀듯 희뿌옇던 그 로인의 눈은 금시 밝아지였다.

로인은 최선금의 손을 덥석 잡아쥐였다.

《늙으니까 새벽잠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있었네. 자, 어서들 편히 앉으라구. 세상에 사내대장부로 태여난 내가 자네들 볼 면목이 없네… 자네들까지 나섰는데 하늘인들 어찌 무심하겠나. 오래지 않아 우리 민족이 나라를 찾게 되겠지!》

로인은 바삐 부엌바닥을 파헤치더니 그속에서 한말가량의 좁쌀을 꺼냈다. 그것이 로인에게 있는 식량의 전부라는것을 느낀 최선금이 망설이고있을 때 로인은 그의 등을 떠밀었다. 념려 말고 가지고 어서 떠나라는것이였다. 그리고 요긴할 때 쓰라고 시렁우에 얹어두었던 느타리퉁구리도 내놓았다. 잊을수 없는 고마운 로인이였다. 최선금과 장철구는 로인에게 부디 몸 성하여 조국광복의 그날까지 사실것을 신신당부하고 산전막을 나섰다.

그들은 배낭을 서로 지려고 싱갱이질을 하다가 결국 최선금이 지게 되였다.

걸음은 가벼웠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앞길에 불행이 기다리고있을줄은 몰랐다.

산전막을 나섰을 때 하늘이 흐렸었다. 그때문에 그들은 오던 길을 잃었다. 그리하여 얼마동안 숲속을 헤매게 되였는데 밀림속에 숙영하고있던 왜놈《토벌대》보초놈과 맞다들게 되였다. 놈은 다짜고짜로 왜가리소리를 지르며 서라고 호통을 쳤다.

최선금과 장철구는 얼결에 멈추어섰다가 홱 돌아서 냅다뛰였다. 갑자기 명주필을 째는 소리를 내며 불줄기가 휙 날아왔다.

처음에는 하나, 둘 셀만 하였는데 잠간사이에 숲속은 불줄기로 덮이였다. 이때 그들에게 밀림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였는지 몰랐다. 아름드리이깔나무와 전나무가 그 탄탄한 줄기로 그들을 막아준것이였다.

그 경황없는 속에서도 두사람사이에는 싱갱이가 벌어졌다. 최선금은 아무것도 부담이 없는 장철구더러 앞서라고 하였고 장철

구는 그런 걱정은 말고 어서 달리라고 하였다. 장철구는 뒤에 섬으로써 어린것이 달린 동지와 식량을 자기 몸으로 보위하고있는 것이였다.

《이러다가 큰… 큰일 나겠어요. 어서요!》

이러며 앞을 막는 집채만한 바위를 에돌다가 최선금은 오른쪽 어깨가 뜨끔해지는것을 느꼈다. 부상을 당했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손은 자기도 모르게 총알에 뚫어진 배낭구멍을 더듬어 쥐였다.

놈들의 추격에서 멀리 벗어나서 장철구에게 배낭을 넘겨주려고 걸음을 멈추었을 때 최선금은 눈앞이 아찔하여 자기도 모르게 눈우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꿰진 배낭에 얹은 자기의 손을 가리키며 힘겹게 말했다.

《쌀이 새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제서야 장철구는 최선금이 부상을 당한것을 알았다.

장철구가 최선금을 부축해가지고 숙영지에 돌아왔을 때 리경준과 장기령은 깊은 한숨으로써 말없이 맞이하였다.

장철구에게는 그 한숨이 무서운 질책보다도 더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리경준이 일행의 책임자답게 안해를 자리에 눕히고나서 한마디 하지 않았더라면 장철구는 목놓아울기라도 했을것이였다.

《수고했소. 정말 수고했소. 장군님께서 들으시면 기뻐하실거요.》

그러나 장기령만은 속이 풀리지 않는지 침울해있었는데 그의 눈은 《철구어머니, 왜 나한테는 알리지 않았소, 예?》 하고 원망하는것 같았다…

장철구는 느릅나무껍질을 짓이기려고 밑에 받칠 헝겊을 꺼내였다. 최선금의 상처를 치료하려는것이였다.

리경준은 명일이와 명숙의 손목을 잡고 우등불곁을 떠났다. 안해의 상처를 치료할 때마다 리경준은 내내 이렇게 했다. 아이들에게 제 어미의 상처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장기령도 리경준의 뒤를 따랐다. 느릅나무껍질은 최선금의 유일한 약이였다. 그래서 장기령은 이번에도 그것을 구하는 일을 도맡아나섰는데 그의 허리에는 늘 도끼와 함께 느릅나무껍질타래가 데룽거렸다.

재빛하늘에는 이름모를 새들이 끽—끽— 울면서 낮게 떠돌고

있었다.

수리개가 잘망궂은 메새들을 비웃듯이 천천히 나래를 스적이며 남쪽으로 날아갔다. 수리개는 검은 구름도, 가없는 밀림도 아랑곳하지 않는것 같았다. 장기령은 부러움에 찬 눈으로 나무우듬지우로 사라지는 수리개를 좇으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아—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면 이제라도 장군님의 품에 안기련만…

《수리개가 가는쪽이 남쪽이 옳지요?》

《분명히 남쪽이요.》

리경준은 더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장기령은 여느때없이 침통해진 그의 표정에서 그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더듬고있다는것을 느꼈다.

최선금은 남정들과 아이들을 가벼운 웃음으로써 맞아주었다.

상처가 퍽 나아졌다는것을 알리려는것이였다.

리경준과 장기령은 고개를 숙이고 들것에 마른 풀을 펴고있는 장철구의 얼굴을 살폈다.

환자인 최선금에게서가 아니라 장철구의 표정을 통해서만 상처의 경중을 헤아려낼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장철구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그늘진 얼굴을 보고 리경준과 장기령은 최선금의 상처가 나아질 대신 더 중해지고있다는것을 알았다. 두사람은 서로 모르게 한숨을 쉬였다.

2

아침에 숙영지를 떠난 기마대렬은 또다시 한줄로 긴 행군종대를 이루고 조용히 수림속을 누벼나가고있다.

또다시 눈앞에서 말엉뎅이가 탄력있게 뚱기적거리고 또다시 말발굽에 찍힌 눈덩이들이 튀여오르고 또다시 눈에 덮인 땅과 나무그루들이 말옆구리로 흘러가고있다.

무수한 아름드리기둥들에 떠받들리운 숲의 천정은 가도가도 끝이

없을듯 아득히 펼쳐져있다.

껍질들이 터슬터슬 갈라터진 나무줄기들도, 앙상한 관목가지에 어쩌다 한두잎씩 매달려있는 강굴강굴 마른 잎사귀들도, 해묵은 풀이파리들도 밤새 내린 서리를 뽀얗게 들썼다. 그 서리 낀 나무들과 흰눈우에 숲천장을 꿰뚫고 비스듬히 비껴든 수만갈래의 해빛이 알룩달룩 아롱지며 대낮에도 밀림속에 거접하려는 어둠을 쫓고있다.

어제 하루사이에 받은 인상들을 머리속으로 더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리동백은 오른쪽 목덜미와 볼편에 끼쳐드는 후덥고 눅눅하고 비린 말입김을 느끼고 얼굴을 돌렸다.

새까만 말대가리가 자갈 물린 주둥이를 쳐들며 불쑥 옆에서 나왔다. 말우에는 강세호가 타고있었다.

《말행군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강세호가 물었다. 리동백은 그를 오래간만에 만나기라도 하듯 가볍게 머리를 숙이며 반갑게 맞이하였다.

《아니, 편합니다. 마침 잘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를 지나 앞으로 나가던 강세호는 말고삐를 잡아당기며 뒤돌아보았다.

《정 바쁘지 않다면 잠간만 나에게 시간을 내줄수 없을가 해서… 꼭 알아보고픈게 있어서 그럽니다.》

강세호는 당장 꼭 봐야 할 급한 일은 없었던지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합시다. 뭔지 이야기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두 강동지하구 제일 구면이 돼서…》 하고 마음속을 터놓은 리동백은 엊저녁부터 의문스럽게 생각해오던 이야기를 꺼냈다.

《봉길이라던가요? 제일 어린 장군님의 전령병말입니다.》

《네, 주봉길입니다.》

《그 봉길이라는 전령병은 장군님밑에서 퍽 어릴적부터 자라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군님께서 오래전부터 잘 알고계시는

젊은이인지？》
《아닙니다. 입대한지 두석달밖에 안되는 동무입니다. 북만에서 자란 동무이기때문에 전부터 아시지도 못하시구요.》
강세호의 그 대답에 리동백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강동지한테 내가 이야기했던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세분이 우리 누이집에 왔던 그날이 우리 부친의 제사날이였지만 별로 명심하지 못하구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전에 누이한테서 잔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명심하지 못하면 흔히 제 아버지의 제사날도 그냥 넘기는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신 장군님께서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대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따로 외우기도 헐치 않은 일일줄 짐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령병의 생일날까지 기억하셨다가 쇠여주실가 하는게 엊저녁부터 내가 풀지 못하고있는 수수께끼입니다. 엊저녁에 보니 당자인 봉길은 자기 생일날인줄 몰랐던것 같습니다. 그러니 봉길이가 장군님께 자기 생일날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다는건 명백한데…》
리동백은 심중한 표정으로 강세호를 돌아보았다.
강세호는 머리를 끄덕였다.
《봉길의 생일을 장군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는 나도 딱히 물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경위대장동무에게서 들은 다른 이야기를 통해 짐작은 갑니다.
장군님께서는 봉길이의 입대청원을 받으시고 그의 아버지를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 아버지한테서 알아두셨던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 음력으로 계산하시여 봉길이의 생일을 쇠여주신것을 보아서도 그렇구요. 나이 많은분들은 다 자식의 생일을 음력으로 기억하고있지 않습니까？》
《듣고보니 정말 그렇군요.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신대원을 받으시면서 생일날까지 죄다 헤아려가시며 알아두시는가요？》
《사령관동지께서는 언제나 대원들에 대하여 놀랄만치 세심하게 료해하고계십니다. 비단 생일날뿐아니라 그가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떤 성격과 취미를 가지고있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생활습성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까지도 죄다 알고계시며 그가 바라는것은 무엇이고 고민하는것은 없는지, 기분이 어떤지도 일일이 헤아리시며 세심히 돌봐주십니다…》

리동백은 딴 세상의 이야기나 듣듯 신기해하는 표정으로 강세호를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있었다.

그 무슨 지나간 일이 회고되였던지 강세호는 잠시 명상에 잠긴 기색이다가 말을 이었다.

《언제인가 내가 남몰래 집을 그리워하는 한 신입대원의 생일을 모르고 지난적이 있는데 그때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그 동무의 부모는 조국광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맡겼소, 부모들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의 운명을 내맡겼고 대원들자신도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는데 그들의 운명을 맡아안은 우리가 생일조차 모르고 지나서야 되겠는가… 하구말입니다.》

강세호의 이야기를 듣는 리동백의 머리속에는 그 이야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지난날 자기가 겪었던 한가지 일이 떠올랐다. 그는 《주의자》들속에 섭쓸려 돌아가던 마지막 시기에 이번에야말로 기대를 걸만한 《지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은근히 숭배하였다. 한번은 그 사람의 지시를 받고 두달가까이 상해에 심부름을 갔다온 리동백이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각각 다른 서류 갈피속에 끼여있는 전보 두장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한달전과 보름전에 자기한테로 온 전보들이였는데 앞의것은 고향에서 아버지가 사망되였다는 전보였고 뒤에 온것은 안해의 죽음을 알리는 전보였다.

후에 리동백은 안해가 해산직후의 병약한 몸으로 남편 없이 혼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느라 바람을 맞고 무리했던탓에 뒤이어 인차 사망하였다는것을 알았다.

리동백이 서류철에서 얻어낸 전보들을 내놓고 어떻게 된것인가고 물었을적에야 그를 상해에 보낸자는 바빠서 그만 잊어먹고 그에게 전보를 치지 못했노라고 변명삼아 사과삼아 말하였다. 리동백은 전보장들을 발기발기 찢어 그자의 상판대기에 던지고 문을 차고

거기서 영원히 떠나왔었다. …

그것은 자기들을 믿고 따르고 시키는대로 한 사람에 대한 배반이였다. 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배신이였다.

강세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억의 갈피속에 묻혀있던 자기의 지난 일을 문득 회고하게 된 이 순간, 리동백은 섬광같이 번쩍이는 심장의 느낌으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특출한 성품을 발견하였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나 여직껏 보지도 듣지도 읽지도 못하였던 비범한 성품! 그것은 사람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진 숭고한 정신과 거룩한 인품만이 빚어낼수 있는 위대한 인격이였다.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한몸에 체현하신 거룩하신분!

이것이 바로 리동백이 마음속으로 탄성을 올리며 놀라 마지 않은 새 발견이였다.

(그렇다. 그이는 군을 통솔하시는 사령관이실뿐아니라 그 각자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한몸에 맡아안으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이야말로 만인의 운명을 한몸에 맡아안으실 비범한 천품이시며 만인이 의탁한 운명을 감당하실 특출한 자질이시다.)

갑자기 새벽빛이 비끼고 눈이 밝아진듯한 이 순간, 리동백은 비로소 사십이 넘도록 붙일데를 못찾고 정처없이 헤매던 자기의 인생쪽배를 안심하고 갖다붙일수 있는 포구에 와닿아있음을 문득 눈앞에 본 심경이였다. 형언할수 없는 기쁨과 안도감이 온몸을 휩쌌다.

그는 열기띤 눈으로 만인의 운명을 감당해나서신 장군님을 눈앞에 그리며 홧홧 달아오른 입술을 추겼다.

《저는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장군님에 대한 여러가지 전설들을 들었습니다.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그가운데는 장군님께서 어리실 때 백두산에 걸터앉으시여 동해에 발을 씻으시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의문을 풀어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러한 전설에 대한 열렬한 공감의 표시였다.

그러나 강세호는 리동백의 회의적인 말에 버릇이 되여있었기때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그런 전설의 출처로 된 이야기가 생각난듯 웃

으며 말하였다.

《그건 아마 장군님의 할머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리동백은 흥분때문에 목소리마저 떨면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하였다.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끝없이 듣고싶었다.

《…제가 언젠가 장군님의 어머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장군님께서 열두살되실 때 아버님께서 그이를 조선서 공부시키시려고 조부모님들이 계신 고향집에 떠나보내신 일이 있었답니다. 장백팔도구라는데서 평양 만경대까지는 천리가 되는 길인데 그때에는 철도라는것도 빽빽이차길이 겨우 개천이남까지 놓인 때였기때문에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대부분의 로정을 걸어가셔야만 하시였답니다. 그런데다가 눈이 강산같이 쌓인 겨울철이였다니 얼마나 어려운 걸음이시였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열사흘만엔가 평양부근에 있는 만경대고향집에 들어서시였는데 열두살 되시는 나이에 혼자 천리 눈길을 헤쳐오셨다는것이 아마 할머님께는 잘 믿어지시지 않으셨던것 같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몹시 놀라시며 네가 어떻게 천리나 되는 두 나라 지경길을 혼자서 왔느냐구 물으신 모양입니다. 그러자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목책을 내보이시면서 아버님께서 그 목책에 적어주신대로 걸으시고는 주무시고 주무시고는 걸으시고 어디어디서는 아버님께 어딜 지나신다는 전보도 치군하시면서 오셨다고 대답하셨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할머님께서 억이 막히시여 말씀하시기를 어린 너를 혼자 떠나보낸 네 아비도 범 같은 사람이다만 두 나라 지경 천리길을 혼자 온 너는 이담에 백두산에 걸터앉아 동해물에 발을 씻자고 할게다. 사내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하셨답니다.》

벌써 어리신 시절부터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품이 남달리 담대하시고 출중하시여 친할머님마저 놀래우신 장군님의 비범한 풍모에 리동백은 다시금 넋을 압도당해버린듯 한동안 머리가 멍할뿐이였다.

(12살… 천리길… 백두산… 동해물…)

머리속에 이런 이어지지 않는 말마디들만이 떠올랐다.

그러다가 문득 백두산마루턱에 걸터앉아 푸른 동해에 발을 씻는 소년장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음에는 그 소년장수가 발을 그대로 동해바다에 잠그고 일어나서 하늘의 구름당반우에 얹어놓았던 어마어마하게 큰 장검을 내리워 백두산을 숫돌삼아 썩썩 갈고있는 모습으로 바뀌였다.

그런 장엄한 환각속에 옛장군의 시구절이 떠올랐다.

백두산의 돌은 칼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 먹여 다 말리리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 평정 못하면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랴

때이른 소년기에 벌써 백두산에 걸터앉으시여 동해에 발을 씻으셨다고 하여도 말이 모자랄만치 담대무쌍한 기개를 나타내신 장군님이시다.

10대에 벌써 구국의 장검을 비껴드시고 광복성전의 진두에 나서신 희세의 청년장군님이시다.

옛시대로 장군님께서 지금 한창 20대,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대로 올해에 참말로 장군님에 의하여 2천만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고대하는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이 이룩된다면 얼마나 좋을것인가.

강세호는 행군종대의 앞쪽으로 나갔다. 리동백은 말이 움직이는대로 몸을 흔들거리며 그냥 명상에 잠겼다.

기마대렬은 여전히 긴긴 행군종대를 이루고 조용히 수림속을 누벼나가고있다.

여전히 말엉뎅이는 앞에서 탄력있게 뚱기적거리고 여전히 말발굽에 찍힌 눈덩이들이 튀여오르고 여전히 눈에 덮인 땅과 나무들이 말옆구리로 흘러가고있다.

그러나 태양은 어느새 자리를 바꾸어 하늘 한복판에 높이 떠있었다. 리동백의 눈도 달라진듯 주위의 산천초목을 새로운 기분으로

보았다.

오, 참으로 황홀하게 찬란한 하늘땅이였다. 신비롭게 아름다운 숲이였다.

3

한남실은 가냘픈 어깨를 옹송그리고 앉아서 시름없이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았다. 생기가 돌던 그의 반듯한 이마와 두볼은 그늘에 가리운것처럼 침침해보였다.

동굴안에서는 아동단원들이 날이 훤하게 밝은줄도 모르고 지쳐서 자고있었다.

이즈음에 와서 한남실은 아이들에게 웃음을 줄 힘이 없다는것을 두려움속에서 깨닫고 소스라쳐 놀라기도 하였다.

함박눈이 지꿎게 내렸다.

멀리 바라보이던 삼각봉도, 눈이 내리면 새끼노루를 잡을수 있다고 하던 동굴앞 맞은편의 새초밭도 모두 내리는 함박눈에 가리워 보이지 않았다.

남실은 신비스럽고 아름답고 언제나 즐거운 감정만을 불러일으키던 함박눈을 지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있었다.

함박눈은 이미 사라진줄 알았던 눈보라를 몰아올수도 있고 그 끝에 강추위가 뒤따를지도 모른다.

(행군을 계속해야 하나? 그러다가는 뜻하지 않는 불행이 생길수도 있어. 인가를 찾아가서 다문 며칠이라도 아이들에게 휴식을 주는것이 옳지 않을가? 이럴 때 의논할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가?)

그러자 문득 장기령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 동문 지금 어데 있을가. 장군님을 모시고있겠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줄은 정말 모를테지…)

한남실은 서글프게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생각은 자꾸만 깊어만갔다.

부드러운 손길이 조심스레 남실의 등을 어루만졌다. 손끝으로 더듬거리다가 바른쪽 어깨에 손을 얹고 살며시 턱을 기대였다.

살뜰한 손길과 어깨를 꼭 누르는 턱의 감각으로 남실은 그가 순녀라는것을 알아차렸다.

기특하게도 새벽잠이 없는 순녀였다.

다른 때 같으면 눈을 뜨자마자 《동무들！ 기상이야！ 일어낫！》하고 한바탕 돌아치며 떠들었을 순녀가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숨소리조차 죽이는것 같았다. 그리고 남실의 어깨를 쓰다듬는 소녀의 손이 사랑스럽기보다는 어른들처럼 무겁게 느껴지는것이 이상하였다.

《선생님,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면 어떡하나요？》

《순녀는 함박눈이 싫어？》

《인제는 막 무서워요.》

한남실은 순녀의 대답에 한숨을 쉬였다.

《동무들도 모두 무섭다구 해？》

순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듯 물었다.

《선생님, 동무들을 깨울가요？》

《깨우지 말아. 모두들 순녀처럼 함박눈을 무서워할걸.》

《아니예요. 나 혼자만 무서워해요.》

《그래？…》

《나는 눈이 크니까요. 우리 할머니가 눈이 크면 무서움을 잘 탄다고 했어요.》

《정말…》

하고 남실은 순녀의 팔을 더듬어잡고 말끝을 흐리였다.

순녀는 기다렸다는듯이 남실의 앞으로 다가앉으며 은근하게 물었다.

《선생님, 봄이라면 여기에두 고운 꽃이 많이 폈겠지요？》

《그럼, 사방에 꽃밭이지. 나비도 날구 꿀벌두 날구.》

《야, 봄이라면 좋겠네！ 꽃다발을 만들게.》

《꽃다발은 해서 뭘하련？》

순녀는 호— 한숨을 내쉬였다.

《그저… 소왕청에서 공부할 때 꽃다발을 만들어서 우리 아동단학교에 찾아오신 장군님께 드리던 생각이 났댔어요.》

남실은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감추려고 고개를 돌렸다.

이윽하여 순녀는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저아래에 마을이 있는 모양이예요.》

남실이의 대답이 없자 순녀는 동굴초입의 돌우에 있는 또아리를 들어보이였다.

새초로 튼 또아리였다.

그것은 남실이가 이미 본것이였다.

또아리는 누렇게 말랐으나 속의 새초가 아직도 파란 빛을 잃지 않고있는것으로 보아 작년 여름에 튼것임에 틀림없었다.

새끼오리도 있고 도토리열매를 깐 흔적도 남아있었다.

《선생님, 그런데 이런게 왜 굴안에 있을가요?》 하고 순녀는 물었다.

《여름에는 굴안이 시원해서 쉬기가 좋단다. 나무단을 이고 가다가 여기서 쉬고 내려간 모양이구나. 비를 그었던지…》

《마을은 먼데 있을가요?》

《그리 멀진 않을거야…》

금시 순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경수는 알지도 못하면서 우쭐대기만 하지. 또아리를 보고 새둥지라고 하지 않아요. 아래에 마을이 있을거라구 하니까 마을은 무슨 마을인가구 야단만 하구요.》

《경수가 뭐 우쭐하겠니. 순녀가 어쩌는가 보느라구 그랬겠지.》

《아니예요. 막 야단했는데요뭐.》

한남실은 웃어보였다.

《그야 순녀가 경수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러지.》

《저는 성을 내지 않았어요…》

한남실은 잘했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들중에서 그중 나이 차고 셈이 든 경수가 또아리인줄 알면서도 새둥지라고 우긴 까닭을 짐작할수 있었다.

한남실은 아동단원들의 마음이 자기가 여직껏 알고있는것보다 더 깊고 넓다는것을 그리고 자기가 아이들을 알고있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모르는것이 많다는것을 새삼스레 느끼였다.

그 느낌이 깊어질수록 한남실은 아이들을 위하여 바친 정성이 모자라는것을 뉘우치게 되였다.

그러나 한남실은 생각과는 달리 자기의 힘이 진했음을 가슴아프게 느끼였다.

인제는 자신도 누구에게나 의지하고싶었다.

그리하여 한남실은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결심하고 길떠날 차비를 하였다. 인가를 찾아서 아이들에게 다문 며칠이라도 휴식시키고 싶었다.

그와 함께 자기도 쉬고싶었으며 인정이 많은, 그리운 마을사람들에게서 위안이라도 받고싶었다.

아동단원들은 선생이 돌아올 때까지 동굴안에서 꼭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깊은 골짜기어구까지 내려왔을 때에야 함박눈은 멎었다.

골짜기어구에서 아래로 세갈래의 작은 골짜기가 흘러내렸다.

한참동안 망설이던 한남실은 그중 넓고 평평한 가운데골짜기를 바라고 다시 길 없는 숲을 헤치며 바삐 내려갔다.

소나무숲에 이른 그는 걸음을 멈추고 밋밋하게 자란 소나무줄기를 더듬어보았다.

소나무껍질을 벗긴 자리가 력력히 드러나보였다.

어른의 키가 미칠만한 줄기에 네각을 지어 벗겨낸 자리에는 속살이 하얗게 드러나고 거기에 구슬같이 맑고 투명한 송진방울이 층층이 맺혀있었다.

어떤 송진방울에는 허리가 잘룩한 개미가 매달려서 잠자는듯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그옆에 서있는 여러 그루의 나무줄기에도 역시 송기를 벗긴 칼자리들이 희뜩희뜩했다. 더러는 껍질을 벗긴 자리가 낮은것으로 미루어보아 분명 어린아이들의 손자리였다.

그것들은 이 근처에 사람 사는 집들이 있다는것을 말없이 귀띔해

주는것이였다.
남실은 어머니를 따라 산에 가서 송기를 벗기던 어릴적 일이 생각났다.
인가가 있으리라는 반가움보다는 인민들의 굶주리는 정상에 부닥칠것만 같은 불안이 앞선다.
남실은 거기서 얼마 내려가지 않아서 네채의 귀틀집을 발견하였다.
첫번째 귀틀집은 커다란 이깔나무에 의지하여있었는데 웬일인지 부엌문이 한쪽 돌쩌귀가 떨어진채 바람에 거들거렸다.
마당가에 이르니 새무리가 인기척에 놀란듯 휑뎅그레 열린 문으로 우르르 소리를 내며 밀려나와 바삐 어디로인가 날아가버렸다.
두번째 귀틀집에도 역시 사람이 없었다. 지붕에 얹은 동기와는 반나마 흘러내리고 마당 한쪽구석에 세워둔 나무절구안에는 눈이 수북이 담기고 그옆에는 손때묻어 반들반들 닳은 절구공이가 주인을 기다리는듯 눈을 들쓴 기다란 머리를 기웃하니 내밀고 서있었다.
한남실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였다.
얼마후 그는 연기내를 맡고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오동나무 두그루가 서있는 산비탈에 한채의 귀틀집이 있었다.
마당 한쪽구석에 서있는 오동나무밑에서 한남실은 누런 종이쪼각을 덧붙인 부엌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어떻게 주인을 찾을가 하고 망설였다.
주인을 찾는 자기의 목소리에 집안사람들이 놀랄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때 부엌문이 밖으로 힘없이 밀리더니 먼저 메마른 기침소리가 흘러나오고 뒤따라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함지박을 들고 나타나 마당가에 무둑무둑 쌓인 눈더미를 한참동안 바라보다가 함지박에 담긴 물을 쏟았다.
한남실은 오동나무밑에서 한걸음 나서며 나직이 불렀다.
《할머니.》
주름살에 둘러싸인 할머니의 눈은 먼데서 그 누가 나타나기를 기

다리는듯 멍하니 바라보고있었다.

한남실은 오동나무밀에서 몇걸음 더 나서며 이번에는 전보다 더 크게

《할머님—》 하고 불렀다.

《게 누구요?》

한남실은 할머니앞으로 성급히 걸어갔다.

《저예요. 유격대원이예요.》

한남실은 할머니의 손에서 함지박을 받았다.

《아이구, 이게 웬일이요!》

할머니의 눈언저리에는 눈물이 축축하였다.

할머니의 온기 없고 딱딱한 손이 남실의 어깨를 더듬었다.

남실은 함지박을 마루에 놓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할머니는 두손을 맡긴채 머리를 돌리고 누군가를 찾았다.

동그란 얼굴에 까만 머리가 곱슬곱슬한 예닐곱살의 처녀애가 지게문을 빠끔히 열고 내다보고있었다.

《옥이야, 인사를 드려라. 에그, 철두 없지. 네가 그렇게두 기다리던 유격대언니다. 어서 인사를 드려라.》

옥이는 귀여운 얼굴에 웃음 한점 담지 않고 한남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어린것이 세상을 등지고 살다나니 저렇게 사람을 두려워한다우.》

할머니는 살이 터진 노전우를 손으로 문다지며 한남실을 아래목에 앉히였다.

그리고 한남실의 곁으로 바싹 다가앉아 그의 얼굴을 오래동안 쳐다보고 또 보았다.

한남실은 흰머리가 하얗게 이마를 덮은 할머니의 얼굴에서 고향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듯하여 가슴이 저려왔다.

주름발이 된 눈언저리에는 아직도 눈물자리가 축축하니 젖어있었다.

할머니는 왜놈《토벌대》들이 반년전에 들이닥쳐 네채의 귀틀

집을 들추고 주인들을 끌어갔으며 웃집에 있던 옥이 어머니는 한달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옥이를 자기한테 맡겼다는 기막힌 이야기를 하였다.

인제는 자기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처지인데 여직껏 저 어린것이 불쌍해서 살아간다고 하였다.

《아들딸 먼저 보내구 저 웃집 젊은것들을 모두 먼저 보내구 무슨 렴치에 내가 더 살겠나? 지금이라두 저 죽일 왜놈들이 망한다면 내 머리 검어지련만.》

《할머니,뒤에 남은 우리까지 약한 마음을 가지면 되나요? 어떻게 하나 왜놈들과 싸워 이겨야지요.》

할머니는 천정에 매달았던 자그마한 쌀자루를 풀고 먼지를 털었다.

《할머니,배고프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인제 곧 돌아가야 해요.》

《산으루? 거기선 누가 기다리나?》

남실은 차마 굶주리고 지친 숱한 아이들이 산에서 자기가 입을것과 먹을것을 구해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있다는 말을 할수 없었다.

오히려 자기에게 한줌의 쌀이나마 남아있으면 할머니에게 주고싶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담?)

한남실은 안타까와 울고싶기만 하였다.

제 5 장

1

리동백은 장군님을 만나뵈온 첫날부터 일기를 적어왔었다. 1936년 3월 하순 그는 미혼진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들을 자기의 일기책에 남기였었다.

3월 ××일 (미혼진의 첫날)

미혼진의 인상(1)

오후에 드디여 미혼진이라는곳에 도착하였다.

장군님께서 인민혁명군 한 부대의 밀영이 있다고 말씀해주시던곳이다.

부드러운 기복을 이룬 산과 골짜기들은 그저 하나같이 어슷비슷하다.

사냥이나 약초를 캐려고 이곳 깊이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례외없이 미혼에 빠져 향방을 잃고 헤매다가 무주고혼이 되였다는 지명의 유래가 있다고 한다.

이름그대로 미혼의 산중에 드문드문 반토굴귀틀막들이 숨어있다. 이런 귀틀막들은 용도에 따라 달리 부른다고 한다.

이곳에는 군대실,병기창,후방병원 및 피복창들이 20～30리씩 간격을 두고 밀림속에 숨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강세호동지로부터 앞으로 백두산기슭의 대밀림지대에 밀영들을 설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밀영이란 어떤것인지 저으기 궁금했었는데 여기에 도착해서 뚜렷한 표상을 얻었다.

영접은 뜨겁고 육친적이면서도 조용하게 진행되였다.

말을 타고 밀영밖 멀리까지 나와 대기하고있던 몇사람이 원정의 먼길을 헤쳐나오신 장군님을 마중하여 모셔드렸다.

말보다 더 많은것을 말해주는 뜨거운 포옹과 격정의 눈물… 육친적상봉이였다.

본영근처에 이르러 나는 보초를 서고있는 녀대원을 처음 보았다. 인민혁명군에는 녀대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남성대원들과 달리 그들은 역시 녀성적인 차림으로 치마를 입었다. 머리는 단발, 인민혁명군에는 부인네들도 더러 있는데 그들도 례외없이 모두들 단발이라는것이다.

잊을수 없는 영상

미혼진에 도착한 오늘저녁 나는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또 하나의 새로운 풍모를 발견하게 되였다. 이것을 적자니 마음이 아직도 갈앉지 않아서 자꾸만 손이 떨린다.

나는 처음에는 무슨 사태가 벌어졌는지 리해하지 못하였다.

본영이 있는 깔골이라는데 도착하신 다음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귀틀집에 들어가시여 이곳에 있는 지휘성원들과 잠시 마주앉으시였다가 오래지 않으시여 솜외투와 모자를 벗으신 차림으로 나오시였다.

그럴 때 여러 지휘성원들과 호위성원들이 장군님을 뒤따라 다급히 그 집안에서 달려나오더니 장군님의 두리를 에워싸고 어디엔가 가시지 말아달라고 간청들을 하였다. 강세호동지와 리북철 경위대장은 그이의 팔소매까지 부여잡고 애걸하였다.

웬일인지 몰라 나는 그때 내결에 있었던 현팔이에게 물었지만 그도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장군님께서는 여러 수원들의 간청을 물리치시고 후미진 오솔길로 내려가시였다. 그 어떤 위구와 불안때문에 몹시 당황해보이는 사람들이 장군님을 뒤따라, 더러는 장군님을 앞질러 달려들갔다.

무슨 상서롭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지？ 나도 까닭모를 불안에 사

로잡혀 바깥에서 서성대다가 울상이 되여 나타난 장군님의 전령병 주봉길이한테서 사연을 알았다. 이곳의 지휘성원들에게서 밀영의 형편을 료해하신 장군님께서는 병원에 열병에 걸린 50여명의 유격대원들이 누워있다는것을 아시고 방금 그 열병환자들을 방문하시러 병원으로 내려가셨다는것이다.

미혼진에 도착하시여 다리쉼도 하시기전에 뭇사람들의 한결같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십명의 무서운 열병환자들부터 찾으시다니？！

그 이야기를 듣자 나는 가슴이 떨렸다. 장질부사와 같은 전염병환자는 모자간이나 부부간도 격리시킨다. 혈육은 혈육이고 병은 병이다.

장군님께서는 만인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셨음을 잊으셨습니까？수십명의 운명을 심려하시여 어찌 오직 장군님만을 우러러 믿고 따르는 2천만 온 겨레의 운명을 중태에 빠뜨릴 걸음을 하십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있을수 없어 장군님께서 내려가신 병원쪽으로 달려갔다. 마침 장군님께서는 뭇사람들이 막아나서는 바람에 아직 병원귀틀집에 들어가시지 못하고계시였다.

참으로 눈물겨운 광경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앞에서, 옆에서 막아나서는 뭇사람들에게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간청하다싶이 하시고 또 뭇지휘성원들은 모두 장군님께 들어가시지 마시라고 간청을 올리고… 강세호동지와 리북철경위대장은 병원귀틀집문앞에 막아서다싶이하고들 서있는데 그들은 눈물이 글썽해서 장군님을 우러렀다.

《동무들, 이러지 마시오. 고집을 부리지 말고 물러서주시오. 내가 잠간만 들어가서 앓는 동무들을 만나보게 해주시오.》

장군님께서는 조용하신 목소리로, 그러나 몹시 절절하게 사정하시듯 말씀하시였다.

《사령관동지！ 이번만은, 정말 이번만은 저희들의 청을 거역하지 말아주십시오！》

역시 낮으나 애원에 찬 목소리로 강세호동지가 말씀을 드렸다.

《내 마음을 왜 동무들이 그렇게 몰라줍니까？ 왜 그렇게 고집들

을 부립니까?》
강세호동지는 그냥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선채 안타깝게 장군님을 우러러뵙기만 했다. 나는 그가 이 순간 장군님께서 촉한에 걸리셨을 때 조선혁명이 얼마나 엄중한 위험에 처했던가를 상기하고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조선혁명이 큰걸음을 내짚는 이 력사의 전환기에 조선혁명의 령도자 **김일성**장군님의 안녕을 지키는것은 과연 얼마나 중대한 일일것인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아니 나까지를 포함한 2천만 겨레에게 장군님의 안녕을 보장하는 일처럼 중대한 일이 과연 어디 있을가!
나도 장군님 앞에 나서서 무엄하나마 간절한 심정을 아뢰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내 손을 잡으시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선생, 선생까지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저안에 앓아누워서 고통을 받고있는 동무들과 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싸움에 나선 사람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대원들이 앓아누워있는데 내가 이마도 짚어보지 못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프고 괴로울 때면 사람이 더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나는 동무들의 생사를 책임진 사람이 아닙니까! 동무들이 다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나만은 들어가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장군님의 뜨거운 인간애앞에서 강세호도 리북철이도… 모든 지휘성원들과 수원들과 나까지 울며 머리를 숙였다.
끝내 장군님께서는 병원귀틀집안에 들어가시여 앓아누운 최현이라는 련대장의 손을 잡아보시고 이마도 짚어보시며 따뜻이 보살피시였다. 다른 대원들도 빠짐없이 돌보시였다. 환자들은 모두 목메여 울었다.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의 열도와 크기와 깊이를 헤아릴수 있는 표현을 나는 찾을수 없다. 오직 그것이 위대하다고 말할수밖에. 그리고 이 세상에 그이처럼 깊고 크고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분은 다시 없다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우리 조선이 세상에 다시 없는 위대한 장군님 같으신분을 모시게 된것은 우리 겨레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된 일인가!

3월 ××일(미혼진의 두번째 날)

미혼진의 인상(2)

오늘도 여전히 쾌청한 날씨다.

류달리 해별이 따사롭고 하늘이 맑았다.

홈타기마다에 녹아내리는 눈석이물이 굴러내렸다.

병기창앞마당에서 담배를 나눠 피우며 안면을 익힌 병기창 일군은 3월에 접어들자부터 여기 미혼진숲우에 전에없이 따사로운 해별이 비쳐들고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고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다가오는 이해 봄은 별스레도 살틀히 군다고 여겼는데 어제 장군님께서 미혼진에 오셨다는것이다.

나는 병기창을 구경했다. 야장간을 련상시켜주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각종 저격무기가 수리되고있다.

손으로 깎아 맞추었다는 총탁은 군수공장의 제품에 비해도 손색없을만치 훌륭했다. 병기창일군은 자기가 도끼와 손칼로 깎아 만든 그 총탁이 아까 장군님으로부터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고 못내 자랑삼아 말했다.

지난날 근거지의 병기창들에서는 장군님의 지도밑에 《연길폭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각종 수류탄들과 무기들을 만들어 전투에 사용했다고 한다.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그는 즐겨 사용했다.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싸워온 이야기도 해주었다.

인민혁명군의 병기창, 이것을 현대적군수공장과 기계적인 대비를 한다면 오산을 면할수 없을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인간들이 강철로 벼려지고있다.

여기서 자력갱생의 정신이 부단히 산생되고있다.

장군님의 예민하신 통찰력

오후에는 다른 밀영들을 구경하고 돌아오던길에 보초를 선 현

팔이를 만났다. 그는 어제 녀대원이 보초를 서던 그 자리에 서있었다. 무심히 보며 지나왔는데 방금 군대실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듣고보니 그렇게 스쳐지날 일이 아니였다.

장군님께서는 미혼진에 도착하신 어제밤사이로 환자들에 대한 급식이 하루 두끼 때로는 한끼의 콩죽으로 줄어든 사실과 간호 및 작식뿐아니라 병원경계근무까지도 녀대원들에게만 맡겨져있는 형편을 료해하시였다고 한다. 그후 장군님께서는 밤중으로 친솔해오신 원정부대의 남성대원들로 경계근무를 전부 바꾸어서도록 조치를 취하셨다는것이다.

또한 이 밀영이 겪고있는 곤난자체보다 환자들에 대한 홀시와 무관심성을 더 중요하게 보신 장군님께서는 예민한 통찰력으로써 이색적요소의 숨은 작간을 간파하시고 이러한 사태의 근원을 발가내셨다는것이다. 이곳 생활을 책임지고있은자가 일제와 련결된 불순분자라는것이 드러났다 한다. 그자는 녀대원들에게 열병환자들을 맡겨버리고 자기는 전염될가봐 병원이 있는 본영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곳에서 내내 지내왔다는것이다. 그자가 환자들을 굶기다싶이하며 비상식량이라는 구실밑에 누구도 모르게 땅속에 묻어둔 낟알을 오늘 강세호동지가 찾아냈던 모양이다.

장군님께서 제때에 오시여 사태를 바로잡아주시지 않으시였더라면 미혼진밀영에서 엄중한 화를 당했을것이라고들 말하였다.

이밤따라 대원들은 장군님에 대한 경탄과 경모의 정을 금할수 없어 그이에 대한 이야기를 앞을 다투어가며 나누고있다.

적과의 준엄한 전쟁은 외견상 고요한 후방으로 생각되는 밀영에서도 계속되고있다. 오직 보이지 않는 전쟁일뿐 역시 전쟁은 전쟁이다.

3월 ××일(미혼진의 세번째 날)

나는 무엇을 할것인가?

오늘은 아침부터 밀영지에 엄숙한 분위기가 떠돌았다. 인민혁

명군간부회의가 시작되였다는것이다.
사위는 어디라없이 조용했다. 병기창의 마치소리도 오늘은 들리지 않았다.
병기창과 한지붕을 쓰고있는 군대실에는 어쩌다 지휘간부들이 한둘씩 드나들뿐 대원들은 한사람도 얼씬하지 않았다.
바로 거기에서 회의가 진행되고있다는것이다.
그앞에 지켜선 쌍보초는 오직 주봉길에게만 군대실출입을 허가하였다.
어디로인가 련락을 가던길에 나를 만난 봉길은 여느때없이 엄숙하고 점잖은 티를 지어보이며 지나갔다.
그 1호군대실에서는 무슨 중대한 토의가 시작되였는지?
나는 웬일인지 종일 외롭고 쓸쓸했다. 서러웁기까지 했다.
종일토록 대원들도 어디 갔는지?
넓은 군대실안에는 나혼자뿐이였다. 나 한사람을 위하여 모닥불은 열을 올리고 양철주전자안에서는 물이 끓었다.
투박하나 굳건하게 만들어진 반통나무책상과 반통나무 긴 걸상도 오늘은 맘껏 써보란듯이 종일 나 한사람에게 제공되여있었다.
외로움에 못견디여 훈풍에 설레이는 숲속을 한바퀴 돌았다. 봄이 태동하는 숲속을…
하늘이 좁게 트인 공지에서 다리쉼을 하느라 나무등걸에 걸터앉아 하염없이 숲을 보고있다가 문득 나자신처럼 외로운 강대 한그루를 발견하였다. 오래전에 말라버렸는지 잔가지들은 세월의 풍상에 꺾이고 거의나 줄기만 남은 아름드리 강대는 뭇나무의 설레임속에 휩쓸리지 못하고 혼자 뻣뻣이 서있었다. 온 숲이 훈풍에 푸른 가지들을 너울대며 설레이건만 강대만은 설레일 잎도 가지도 없어 그 희열의 륜무속에 휘말려들지 못했다. 가련한 관람객, 강대줄기에는 눈물같은 나무진이 배여나와 맺혀있었다.
불현듯 나의 처지를 돌이켜보았다. 가련한 탐방객으로 외로이 남아있는 나의 처지! 나무진 같은 눈물방울이 눈가에 맺히는것을 의식했다.
나는 외롭다. 못견디게 쓸쓸했다.

2,3일째 그이의 곁에 있지 못한것이 이리도 나를 외롭게 하는줄 나자신도 몰랐다. 이제 더는 장군님 곁을 떠나서는 쓸쓸해 지낼수 없다. 그이의 곁을 떠나서는 산다는것자체가 고통으로 될것만 같다.

어찌하여 그이께서는 단 며칠사이에 혼자 있으면 이리도 애타고 외롭도록 나를 변모시키신것일가?

나는 아직 그이에 대하여 너무나도 아는것이 적다. 너무나도 적다. 그러나 이미전부터 나는 나자신의 운명을 장군님께 내맡겨야한다는 충동을, 스스로 북받치는 충동을 받지 않았던가? 그것을 나날이 더 뚜렷하게 의식해오면서 어찌하여 아직도 나는 탐방객의 처지대로 자신을 남겨두고있는것인가?

숲언저리에 석양노을이 비끼고있다.

하루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시각은 저녁노을이 비끼는 석양녘일수도 있다.

나는 인생의 황혼기에 삶을 아름답게 장식할는지도 모른다.

어쩐지 이제는 외로움이 사라졌다. 나의 가슴에도 희열이 북받친다. 나는 앞으로 그이의 곁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가?

3월 ××일(미혼진의 네번째 날)

나의 사명

나는 지난밤 온밤을 모색한 끝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바라는 일이며 하고싶은 일이며 그 누가 못하게 한다 해도 하지 않으면 안될, 또 반드시 해내고야말 일이다.

어찌보면 나는 바로 그때문에 장군님 곁을 떠나고싶지 않고 떠날수도 없고 또 떠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그이와의 상봉직후부터 벌써 싹트기 시작한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 나는 력사를 기록할것이다.

력사는 기록해야 한다. 위대한 인간의 력사는 반드시 기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참된 위인의 삶일진대 그 발자취는 사말

사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여 남겨져야 한다.

그러한 위인의 삶은 영원불멸한 전 인류의 공동재부이다. 그 생활의 아주 작은 일조차도 범상한 인간들의 옹근 한생과도 비할수 없을만큼 고귀한것이다. 따라서 그런 위인과 관련되여서는 자료들의 크고작음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나의 사명이다. 만약 스스로 의식한 이 사명을 수행치 않는다면 나는 전 인류와 후대들에게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될것이다.

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세계

오늘은 종일 처음 보는 유격대의 소책자들과 바깥세상의 신문들에 정신이 팔려 시간가는줄 몰랐다.

아침에 봉길이가 갖다주었다. 갑갑할 때 보라고 장군님께서 보내주셨다는것이다.

《공산당선언》, 《레닌주의기본》, 《사회주의대의》, 《유격대동작》 그리고 지하공작에 대한 상식자료를 묶은 소책자… 숱한 사람의 손때가 묻고 보풀이 일어 누런 종이에 찍힌 등사글자가 잘 알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흥미있는 소책자들이였다.

유격대에서 이런 출판물까지 만들어냈다는게 우선 놀랍다. 그리고 바깥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있는 이 겨울의 심산속밀영지에 바로 며칠전 신문까지 들어와있다는 사실도 놀라왔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만선일보》 세 신문이 다 닷새 엿새전에 발행한것들이였다.

나는 주로 소책자들만 열독했다. 이전에 암송하다싶이 여러번 읽었던 《공산당선언》과 《레닌주의기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두번씩 재독했다. 가장 관심을 끈것은 《유격대동작》이다. 이 소책자는 따로 발취해두고 연구해야겠다.

지하공작에 대한 소책자 역시 깊이 연구해야 할 책이다. 이 두 책은 내가 전혀 모르고있던 세계에 대하여 나의 눈을 틔워주고 새로운 투쟁의욕을 북돋아주는 귀중한 책들이다.

특히 오늘아침 결심대로 앞으로 장군님을 모시면서 나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자면 《유격대동작》을 깊이 터득해야 할것 같다.

간명하고도 통속적으로 씌여진 《사회주의대의》는 내가 앞으로 장군님의 슬하에서 감당할수 있는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을 깨우쳐주었다.

신문들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있는 그 썩고 병든 세계에서 나날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 생활사말사들로 얼룩져있다. 청신한 새로운 세계에 접한 지금에 와서는 보기에도 역겨운것들이였다.

추　　기

발취하기전에 적어둘, 방금 들은 새 소식이 있다.

이틀간 련속된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가 오늘저녁에 끝났다고 한다. 좀전에 나는 밖에 나갔다가 리북철대장이 강세호동지더러 《정치지도원동지》라고 말머리를 뗐다가 황황히 《련대장동지》라고 고쳐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회의에서 인사변동까지를 포함한 그 무슨 중대하고 급박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리라고 짐작하고 너무나 궁금한 김에 용기를 내여 전령병 주봉길에게 물어보았더니 나를 측은하게 생각했던지 약간 선심을 써서 매우 모호하고 개략적이나마 회의의 토의내용을 좀 귀띔해주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호두회의의 로선과 방침들을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인 문제로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개편문제가 중심적으로 토의결정되고 그밖에 몇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이 또한 구체적으로 토의되였다고 한다.

부대개편문제가 중심적으로 토의결정되고 강세호동지가 련대장으로 불리우게 된것으로 보아서 이제부터는 그의 수하에도 많은 대원들이 있게 될것이 아닌가.

차후 인민혁명군의 행동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듯싶다. 모르긴 해도 장군님께서는 여기서부터 대부대를 친히 인솔하시게 되시지 않을가? 이제부터는 조국진군의 거창한 흐름이 이루어지게 되는것이 아닐가? 각처에서 이곳 미혼진에 모여왔던 모든 지휘

간부들과 대원들, 부대들이 새로 대렬편성을 하고 모두가 장군님의 친솔밑에 움직이게 되는것이 아닐가?

내가 보고싶었던 대군의 행군을 나는 곧 보게 될듯한 느낌이 든다.

미혼진밀영에서의 마지막 밤에 리동백이 쓰던 일기는 여기에서 중단되였다.

2

한창 그날의 일기를 쓰고있던 리동백은 강세호가 나타나는바람에 채 끝내지 못하고 중단하였다.

《제가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강세호는 리동백이 쓰던 일기책을 곁눈으로 살펴보며 미안쩍은듯이 물었다.

《어서 앉으십시오. 일없습니다.》

리동백은 일기장을 덮어서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무얼 쓰시는가요?》

《그저 좀 적어두고싶은게 있어서…》

리동백은 만년필뚜껑을 닫으며 강세호쪽으로 돌아앉았다.

《요즘은 뵙기 힘듭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선생과 상론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세호를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은근히 바라왔던 리동백은 마침 잘됐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인지요?》

그의 물음에 강세호는 주저없이 이야기를 꺼냈다.

《래일 우리는 장군님을 모시고 이곳을 떠나 다시 먼길을 가게 됩니다. 이번에 떠나면 아마 선생이 살고있는곳과는 반대되는쪽으로 멀리 행군하게 될겝니다. 선생이 우리를 이이상 더 따라가게 되면 집에 돌아갈 길이 너무 멀어집니다. 선생이 장군님을 찾

아온지가 그럭저럭 한주일 잘됐으니 그쯤하면 선생의 숙망이 풀리지 않았겠는가 생각됩니다. 마침 래일 선생의 누이네가 살고있는 화룡쪽으로 새로운 공작임무를 받고 떠나는 대원이 있는데 길동무가 있는 기회에 여기서 선생을 집으로 돌려보내드리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집이 훨씬 더 멀어지기전에 말이지요. 선생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강세호는 조심스런 미소를 입가에 지었다.

《네…》

엄숙하게 앉아 강세호의 이야기를 듣고난 리동백은 가볍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는 갑자기 정기가 사라지고 입술까지 바르르 떨렸다.

그는 한숨을 쉬고 침울한 어조로 말하였다.

《어느땐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나올줄 몰랐을뿐이지. 아마 부담이 되겠지요. 짐이 되구…》

《부담이 돼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돌아갈 길이 멀어지는것이…》

《그렇게 생각해주시는건 고맙습니다만 나는 다른 생각을 품구있습니다. 그때문에 나도 강동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자던 참인데…》

리동백은 약간 동안을 두었다가 심중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주제넘은 생각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로 작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강동지를 따라서 떠나올 때는 장군님을 잠간 뵈옵고 돌아갈 생각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간 장군님 곁에서 지내고보니 돌아가고싶질 않습니다. 나도 장군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에 몸바쳐 싸우고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왕 나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는김에 더 크게 마음을 써서 나를 인민혁명군에 받아주길 바랍니다.》

정중하게 청을 하는 리동백의 이야기에 강세호는 저으기 놀랐다. 그렇게 회의적인 사람같았던 이 대통령감이 요즘엔 유격대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인 립장에로 기울어지기는 하였지만 지난날 이

러저러한 잡스러운 운동자들을 따라다니다가 겪은 쓰라린 체험도 있는것만큼 유격대에 입대할것을 청원한다든가 혁명투쟁에 스스로 투신할 용기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할수 없었다. 더우기 그 나이로 보아서도 입대할 생각을 가질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해온 강세호였다.

자기의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없는 강세호를 잠시 지켜보고있던 리동백은 그가 자기 나이때문에 망설이며 주저한다고 해석하고는 서둘러 말을 하였다.

《나는 나의 청이 강동지를 매우 딱하게 해드리리라는것을 생각못한게 아닙니다. 내 나이로는 모두가 젊고 팔팔한 인민혁명군대원들을 따라다니기가 힘들리라는것도 생각해봤구 유격대생활이 지난 며칠동안 내가 겪어본것보다 훨씬 어려워질수 있으리라는것도 생각해봤습니다. 고생할 각오는 이미 다 되여있습니다.》

《선생의 년세에 입대할 결심을 가질 때에는 생각도 많았고 각오도 높았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주 기쁜 일입니다만 욕망만으로 뜻을 이룰수야 없지 않습니까? 년세와 육체적조건을 우리 유격대에서는 고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고쳐 생각해보는것이 어떻습니까?》

《고쳐생각해볼 여지없이 결심이 확고하니 허락만 해주시오.》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강세호는 딱해하는 웃음을 지으며 자신없이 말했다.

《사령관동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지… 보통 다른 청년들의 입대청원이라면 몰라도 선생의 경우엔 저혼자 확실한 대답을 할수 없습니다. 정 의향이 그러시다면 그대로 말씀드려는 보겠습니다만…》

《제 입대문제에서는 강동지가 어떤 립장을 취하시는가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말에 강세호는 서슴없이 자기의 립장을 밝혔다.

《나는 선생이 직접 총을 들고 유격대원들을 따라다니는데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생이 우리를 도와줄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장군님께서는 온 민족을 광복전선에 한결같

이 떨쳐나서게 할 통일전선체조직을 가까운 앞날에 내오시기 위해서 각지에 우리 유격대공작원들을 파견하시게 됩니다. 래일 선생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 동무도 그런 임무를 받고 떠나게 됩니다. 선생도 그 거족적인 조직을 내오는 사업을 도와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리동백은 강세호가 말을 마치자마자 기다렸던듯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물론 지하공작원들을 돕는 일이 중요하고 내게 알맞을수 있습니다. 그리구 내 나이에 총을 들고 젊은 유격대원들과 같이 싸운다는게 나도 썩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내가 보통 유격대원이 되자는 생각만으로 받아달라는건 아닙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무엄하고 버릇없는 생각이였습니다만… 나는 그토록 이름높으신 장군님께서 과연 어떤분이신지 한번 뵙기나 하고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강동지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곁에 와서 며칠 지내는동안 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소문이나 전설보다 훨씬 더 위대한분이시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신 분으로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실 유일한분이시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이야말로 우리 2천만겨레가 높이 우러러모셔야 할 분이십니다. 늘 장군님을 가까이 모시고 지내는 당신네들은 장군님께서 얼마나 걸출하신분이시며 위대한 령도자이신가 하는 것을 곡절이 많은 나만큼은 심각하게 생각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지금 장군님을 모시고 싸우고있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빛나는 력사의 한페지,한페지로 되고있는지를 나만큼은 느끼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자신들이 흔히 있는 보통일로 여겨 흘려버리고말지도 모를 그 매일,매시간,매분의 생활이 얼마나 귀중한 력사의 흐름으로 이어져가고있는가를 나만큼 모를수도 있습니다. 나는 장군님의 곁에 있으면서 그 모든것을 력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력사의 관조자로서가 아니라 이 빛나는 력사의 적극적인 참가자로 되면서 말이지요. 강동지!》

자기의 속심을 절절하게 털어내놓은 리동백은 강세호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아쥐였다.

《이 일은 강동지의 결심여하에 달린 일입니다. 장군님 앞에서야 어찌 이런 속심을 다 여쭙겠습니까? 나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리동백은 강세호의 손을 열정적으로 잡아흔들었다. 언제나 뿌옇게 퇴색한것 같이 보이던 그의 재빛눈은 이글이글 타는 불덩이처럼 열기를 띠였다.

강세호는 가슴속이 후더워지는것을 느꼈다. 사령관동지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오느라 애쓴 자기였지만 력사의 망각속에 묻혀서는 안될 사령관동지의 거룩한 투쟁과 활동의 걸음걸음을 력사의 기록으로 남길데 대해서는 미처 머리를 돌려본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부끄러운 반면에 자기를 깨우쳐준 대통령감이 고마왔다. 강세호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각별한 친근감과 존경심을 품고 기쁨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선생의 깊은 뜻을 잘 알겠습니다. 선생의 뜻대로 유격대에 남도록 해봅시다.》

《그게 정말입니까?》

어린 아이의 웃음같이 천진한 웃음이 리동백의 얼굴에 피여났다.

《그렇게 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령관동지께 선생을 집으로 보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려던 참입니다. 선생이 래일 집으로 가시겠다면 사령관동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만나뵈올 기회를 어떻게 좀 마련해드리자는 생각도 했고… 아마 사령관동지께서도 선생을 여기서 돌려보내실 생각이신것 같은데 이제 저하고 같이 가서 청을 올리는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겠습니다.》

리동백은 서둘러 일어났다. 일기장을 자기의 등산용배낭주머니에 넣고 강세호를 뒤따라나서던 그는 자기가 보고난 신문장들에 눈이 갔다.

《신문들을 다 봤는데 어떻게 할가요?》

장군님께서 자기를 위하시여 보내주신것들인데 가져다드려야

할것 같아서 물어본 말이였다.

《가져갑시다.》

강세호는 문을 열고 나서며 대답했다.

3

이그러진 달이 미혼진숲우에 걸리고 별들이 총총했다.

마주 다가오던 거뭇거뭇한 그림자들이 그에게 말없이 고개숙여 인사하며 옆으로 어기여 지나갔다. 그들의 어깨우에서 총구가 한점의 푸른빛을 뿌렸다. 보초교대를 나가는 대원들이였다.

리동백은 강세호를 묵묵히 뒤따라갔다.

둔덕길을 내려 왼편으로 꺾어들자 허리통이 굵은 여러 대의 미출한 나무들사이로 누런 불빛이 어린 좁은 뙤창문이 어른거렸다. 저녁때까지 쌍보초가 서있던 자리에 털외투를 입고 홀로 서있는 보초는 아무말없이 그들을 통과시켜주었다.

크지 않은 반토굴귀틀집안에서는 말소리가 두런두런 새여나왔다.

출입문앞에서 옷매무시를 바로잡은 강세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고 대답하시는 장군님의 음성이 들렸다.

강세호는 뜻있게 들어가자는 눈짓을 하고 앞서 들어갔다. 그를 뒤따라 안에 들어서자 석유내가 풍겼다.

《아, 선생이 오셨습니까?》

웬 한사람과 말씀하고계시던 장군님께서는 친히 일어나시여 반가운 웃음으로 그를 맞아주시였다.

《거기 좀 앉으십시오. 우리 이야기는 인차 끝납니다.》

장군님께서는 강세호에게도 자리를 권하시고 하시던 말씀을 이으시였다. 어디인가 멀리로 떠나가는 사람에게 작별인사삼아 주시는 말씀이시였다.

리동백이 마주앉은 투박한 통나무책상우에는 붉은색 바탕에 호랑이 무늬가 새겨진 모포가 덮이여있고 그 한귀퉁이에는 석유등이 타

고있었다.
어딘가 아늑한 감이 나는 귀틀집이였다.
처음보는 1호 군대실 귀틀벽에서 먼저 리동백의 눈을 끈것은 정면 한복판에 《일심 조선혁명》이라고 써붙인 글이였다. 그을음 한점없이 깨끗한 종이와 금시 붓끝을 뗀것 같은 생생한 글자로 보아서 써붙인지 며칠 되지 않는듯하였다.
이 막막하고 거치른 밀림속에서 오직 한마음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리라는 그 글발을 대하니 매캐한 먼지구름속을 헤매다가 청신한 대기속에 들어선것 같이 정신이 들고 답답하던 가슴이 열리는것 같았다.
그의 맞은편 귀틀벽에는 백두산일대의 지도가 붙어있었는데 거기에 붙이기전에 몇겹으로 포개여가지고 다니던것이였던듯 개킴새마다 보풀이 일고 어떤데는 종이오리로 덧붙인 자리가 있었다. 지도옆의 나무옹이에 장군님의 전투가방과 군모 그리고 솜외투가 걸려있었다. 그가 등지고 앉은 벽면에는 누렇게 색이 바랜 세계지도가 붙어있었다. 그것은 전부터 붙어있었던것인지 낡지는 않았다. 구들을 놓은 잠자리에는 농촌집 깔개같이 거뭇한 구름노전이 깔리고 모포를 말아얹은 배낭들이 벽밑에 질서있게 놓여있었다.
리동백은 강세호가 양철주전자에서 따라주는 쌉쌀하게 향기가 풍기는 솔잎차를 한모금 마시고나서 지도를 바라보았다.
미혼진밀영이 어디쯤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는 돈화와 안도와 화룡땅이 서로 맞붙어있는 어방을 눈으로 더듬었으나 황토색바탕에 여러겹의 우불구불한 등고선이 아룽다룽하게 그려져있는 그 일대에는 도대체 지명을 밝힌 글자같은것이 적혀져있지 않았다.
(저 험한 장백산줄기를 타고넘으며 아직도 수백리길을 나가야 한다지?… 백두산기슭까지 이르게 될 먼 행군도상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게 될가?)
제자리에 돌아와앉아 지도를 보고있던 리동백은 자기에게 말씀을 건늬시는 장군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머리를 들었다.
《선생을 앉혀놓고 일을 봐서 안됐습니다.》
담화하시던 지휘관을 내보내신 장군님께서는 미안해하시는듯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요즘 내가 좀 바쁘다나니 선생과 같이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사이 심심하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뭐 별로…》

방금전에 강세호와 나눈 이야기가 불현듯 머리에 떠올라 공연히 얼굴을 붉힌 리동백은 어망결에 이런 대답을 했다.

《그동안 미처 돌봐드리지 못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정신을 수습한 리동백은 황송스럽게 말하였다.

《밀영이란델 처음 왔는데 심심하게 보낼리야 있습니까? 보는것, 듣는것마다 다 새로운것인데 구경에 정신이 팔려 심심한줄을 전혀 모르고 지냈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신문이랑 소책자랑 보내주셔서…》

리동백은 자기 무릎우에 들고있던 신문들을 장군님 앞에 내놓았다.

《정말 잘 보았습니다. …》

《신문들을 벌써 다 봤습니까?》

《네.》

《그럼 강세호동무, 이걸 이제 곧 차동범동무에게 보내주시오.》

장군님께서는 리동백에게서 받으신 신문들을 강세호에게 내주시였다.

그제야 리동백은 장군님께서 병석에 누워 몹시 갑갑하게 지낼 련대장들에게도 아직 보이지 못한 신문을 자기에게 먼저 보내주셨다는것을 깨닫고 자기에 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관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신문에 참고가 될만한 기사들이 있었습니까?》

하고 장군님께서 물으시였다.

《예, 국제련맹의 결의를 소개한 기사들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선생은 그 국제련맹의 결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듭디까?》

강세호가 나가자 장군님께서는 다시 리동백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물으시였다.

파쑈이딸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과 관련한 국제련맹의 결의를 두시고 하신 말씀이시였다. 방금 강세호가 들고나간 그 신문들의 1면 웃단에 바로 그 결의가 소개되여있었다. 신문들은 결의와 함께 그에 대한 각이한 립장의 기사들을 실었었다.

보수성이 강한 신문은 이른바 보도의 객관성을 지킨다는 태도로 어느때 국제련맹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는 무엇이 결의되였다는 것을 몇줄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고말았었다. 진보적인 경향을 띠고있다는 신문들에서는 국제련맹의 결의에 대해 《파쑈이딸리아에 대한 정의의 징벌》이라거니 《인류정의의 단호한 조치》라거니 하고 평가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두른 인도의 회교도들—지원병들이 화승대 같은것을 메고 아디스 아바바의 거리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받쳤다.

《글쎄올시다…》

리동백은 어줍게 웃었다.

《저는 아까 그 결의란걸 읽으면서 어쩐지 배반당한것 같은 느낌이 들었댔습니다. 〈정의의 징벌〉이요, 〈강력한 제재조치〉요 하고 소리는 요란했지만 국제련맹이 기껏 취한 조치란 이딸리아에 대한 알루미늄 수출금지 하나뿐입니다. 국제련맹의 처사가 왜 그런지 왜놈들이 만주를 쳤을 때의 일을 방불케 합니다. 그때도 국제련맹에서는 중국의 제소를 받고 국제시찰단을 현지에 파견한다고 소리는 요란스레 쳤지만 결국은 저들의 체면이나 유지하는데 머물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리동백을 바라보시며 웃으시였다.

《그때는 체면을 유지하는데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표독스러운 수리에 날개를 달아주고있지 않습니까?》

《네?!》

리동백은 뜻밖이였다. 그는 국제련맹이 마지못해 체면유지나 하기 위한 조치쯤으로 생각하고있었다.

《그럼 국제련맹이 오히려 파쑈놈들을 도와주고있는셈입니까?》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련맹의 경제봉쇄

라는것을 보십시오. 이딸리아에서는 알루미늄의 원천인 보크사이트가 쓰고 남아서 외국에 팔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딸리아파쑈놈들에게 알루미늄수출을 금지한다는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무어가 무엇인지 알수 없는 세상통속을 일격으로 빠개여보이시는 예리한 칼날같은 말씀이시였다.

《과연 그렇습니다. 정말 제국주의자들은 파렴치하고 교활합니다. 바로 그놈들에 의하여 침략전쟁이 조장되고있구 정의와 부정의, 진리와 범죄가 뒤죽박죽되고있다는게 명백해집니다.》

장군님께서는 이번에도 웃으시였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침략전쟁이 조장되고있다는 리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은 제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파쑈이딸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략했지만 래일은 파쑈도이췰란드와 제국주의일본이 제2, 제3의 나라를 침략할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이 파쑈분자들은 쏘련을 압살하고 세계 식민지를 재분할하기 위하여 결탁할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베를린, 로마, 도꾜가 맺어가고있는 3각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파쑈분자들이 이렇게 3각동맹으로 결탁하는 행정에 다른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리해관계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지금과 같은 모략과 음모를 계속할것입니다. 결국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비호와 파쑈분자들의 침략행위에 의하여 세계가 다시금 전쟁의 참화에 휩싸이리라는것은 불을 보는것처럼 명백합니다. 그러나 세계가 이렇게 어지럽게 되여간다고 해도 절대로 정의와 부정의, 진리와 범죄가 뒤죽박죽이 될수는 없습니다. 세계에는 제국주의자들만 있는게 아니라 그놈들보다 더 많고 더 강한 혁명적인민들이 있습니다. 정의와 진리, 이것은 언제나 혁명적인민들의 편에 있습니다.

정세는 긴장하지만 그것은 혁명에 매우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쏘련에서는 얼마전에 나라의 공업화와 농업집단화의 력사적인 과제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제국주의자들의 면전에 대고 로동

계급과 인민들이 지향하는 사회주의가 얼마나 유력한가 하는것을 시위하였습니다. 중국과 인도지나 혁명도 강화되고있고 프랑스와 에스빠냐에서는 인민들이 파시즘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습니다. 파쑈분자들의 발광은 로동계급뿐아니라 소자산계급과 지어 민족자본가들까지 혁명의 편으로 내몰고있습니다. 만약 제2차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전의 1차대전때처럼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민족해방투쟁으로 발전할것이며 세계 혁명적인 민족부대들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날것입니다.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도…》

어느덧 일어나시여 방안을 거니시며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안광에서는 불꽃이 번쩍이는것 같았다.

리동백은 숨을 죽이였다. 그이의 눈길은 유구한 세월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고 아시아의 동쪽 한끝 바다가에 외로이 떠있는 조선에 박히시였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것이며 조선혁명의 주인인 우리 힘으로 반드시 조국을 되찾을것입니다. 이것은 추호도 의심할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리동백은 어둠속에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비쳐든 불빛을 통하여 비로소 컴컴한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를 알아본 때처럼 어리둥절했다. 그는 병원에 신문을 보낸 강세호가 돌아온줄도 모르고있었다.

《우리 나라 혁명정세도 좋습니다. 일제의 파쑈화정책과 이에 따르는 정치, 사상, 경제면에서의 야수적인 폭압과 략탈은 조선의 로동계급과 농민들만이 아니라 소자산계급과 나아가서는 민족자본가들까지 반일의 길로 나가게 하고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우리 혁명의 승패여부는 몇몇 안되는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내놓고 어떻게 2천만 겨레를 묶어세우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를 든 거족적인 조직을 내오면 모든 조선사람들을 다 단합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선생도 아시겠지만 단결이 곧 힘이 아닙니까? 전 민족이 단결하

여 강도일제와 맞서 싸우게 되면 제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왜적들이라도 우리 조국강토에서 물러나지 않고는 견디여 배겨내지 못할것입니다.》

확신에 넘치신 장군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리동백의 머리속에는 지난날의 이러저러한 운동이나 투쟁이 한결같이 망해버린것은 그것이 모두 사분오렬되여 제가닥로 놀았거나 당파싸움만 일삼은데 그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는 우리 민족의 2천만겨레를 한품속에 품어안으신 장군님을 모시였으니 분렬과 파쟁으로 얼룩진 민족사에 종지부를 찍고 영광의 새 력사를 기록하게 되였다는 생각에 리동백은 가슴이 후련했다.

《…이제 우리가 조국광복회라는 명칭을 붙이기로 내정한 그런 조직을 내오는 날에는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는 급진적으로 더욱더 유리해질것입니다. 승산이 내다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민의 손으로 우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할수 있으리라는 신심을 갖고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선생은 집에 돌아가도 끝까지 신심을 잃지 마십시오.》

책상 맞은편에 다가오신 장군님께서는 리동백을 넘겨다보시였다.

리동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군님!》

하고 그는 정중히 말씀을 드렸다.

《전 사실 집을 떠나기전까지는 손맥이 풀려 무슨 투쟁이나 운동에 다시 관여치 말고 나앉아있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앉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심도 생기고 의욕도 북받칩니다. 그래서 강동지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유격대에 남아있자고 합니다.》

엄숙한 표정으로 리동백의 이야기를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선생이 다시 투쟁의 길에 나서리라는것은 나도 예감했습니다만 총을 들고 싸우겠다는건 뜻밖입니다. 앉으십시오.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장군님께서는 리동백을 자리에 앉히시고 자신께서도 맞은편 자리

에 앉으시였다.

《강세호동무는 어떻습니까?》

장군님께서는 강세호를 돌아보시였다.

여태 묵묵히 앉아있던 강세호가 기다렸다는듯 일어서며 몸을 바로잡았다.

《선생의 뜻을 돌리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강동무자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생은 우리 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령부밑에 출판소를 꾸릴것을 예견해서나 또 다른 사업… 례를 들어 〈사회주의대의〉나 〈레닌주의기본〉 같은 해설제강도 작성할수 있을것 같고 또…》

강세호는 조국광복회창건준비위원회 사업도 맡겨줄수 있을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는 어떻게 하나 리동백의 입대가 성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할수 있는 여러 방면의 일들을 찾아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리동백이처럼 귀한 사람이 흔치 않을것 같았다.

장군님께서는 리동백과 강세호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하신듯 뜻있는 웃음을 지으시였다.

《강세호동무가 이미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것 같은데 내가 승낙하고 어쩌고 할게 있습니까. 선생도 좋고 강동무도 좋다는데 그대로 합시다. 혁명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승인이 필요합니까?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혁명을 하는것도 아니고 무슨 증명서를 받고 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강동무에게 혁명을 해도 좋다는 증명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혁명은 누가 시켜서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싶어서 하는것입니다. 하고싶어서 하는 일은 막지 못합니다. 나는 선생이 우리와 같이 손잡고 싸워주시겠다니 대단히 기쁩니다.》

장군님께서는 책상너머로 리동백의 손을 힘있게 부여잡으시였다.

자기를 축하해주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손길에 자기 손이 감싸이는 순간 리동백은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뜨거운것을 느끼며 두눈을 슴벅거렸다. 잔주름에 둘러싸인 두눈에서 감격의 눈물방울

이 흘러내려 희끗희끗한 수염발이 섞이기 시작한 코수염에 맺혔다가 옷자락에 떨어졌다.

눈물에 흐려진 그의 눈앞에는 처음 장군님을 뵈옵던 날 갈이 말을 타고 행군해오실 때 자기의 지나온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기 심중을 그리도 깊이 리해해주시고 기뻐해주시던 그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장군님을 만나뵈옵자던 오랜 숙망을 푼 자기보다 오히려 기뻐하시던 장군님! 그때 그는 어찌하여 장군님께서 하잘것없는 자기를 만나신데 대하여 자기이상으로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하였다.

지금, 바로 지금에야 그때의 수수께끼가 풀려졌다.

장군님께서는 맑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고결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한줄속에 나란히 세우기에는 너무나도 때묻고 찔어든 이 인간을 앞으로 손잡고 같이 싸울 혁명동지로 여기시고 그리도 기뻐하신것이였다. 바로 그러하신 장군님이시기에 지금도 리동백이 올려야 할 감사를 오히려 리동백에게 주시는것이다.

격정에 사무친 리동백은 자기 가슴속에 끓어번지는 말을 한마디도 올리지 못하고 한참이나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다.

(장군님! 제 명이 다하는 때까지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맹세다지였다.

4

그날밤 리동백은 누이와 조카딸에게 자기가 유격대에 남아서 장군님을 모시고 싸우기로 결심했으니 기다리지 말아달라는 사연을 알리는 편지를 썼다. 그는 새벽에 화룡쪽으로 떠나간다는 유격대공작원에게 그 편지를 누이집에 전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미혼진밀영을 떠난 사령부일행속에 끼여 무송방면으로 향한 행군길에 올랐다. 이제는 사민이 아니라 조선인민

혁명군 사령부에 직속되여있는 당당한 유격대원으로서 말을 타고 장군님의 뒤를 따라갔다.

이 행군의 첫 휴식참에 그는 자기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벌써 미혼진밀영은 멀리 뒤에 남았다.

지나온 산들에 가리워져 나흘밤을 지낸 밀영이 어느쯤이였던지조차 알수 없다.

지금은 출발후의 첫 휴식참이다.

우리는 아침 늦게 미혼진을 떠났다.

출발 직전까지도 나는 우리의 일행이 이렇게 적어질줄은 알지 못했다.

밀영에서 우리보다 앞서 떠난것은 미혼진까지 장군님의 친솔을 받으며 그이를 모시고 왔던 제5련대의 두개 중대 대렬이였다. 그들은 의란현 방향으로 떠난다고 했었다.

장군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그들을 친히 바래워주시였다.

다음에 떠난것은 몇개의 소부대성원들이였는데 그들은 동만쪽으로 넘어갈 사람들이였다. 그밖에도 적지 않은 대원들이 남아있었으므로 나는 그들이 새로 장군님을 모시고 동행하게 되는줄로 여겼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일행이 말을 타고 출발하게 되였을 때 나는 몹시 놀랐다.

장군님을 모시고 떠나는 우리 일행은 강세호련대장과 나까지를 모두 합쳐 열다섯사람에 불과했던것이다.

강세호련대장을 제외하면 열네명에 한자루의 경기관총…정규무력의 한개 분대에나 비길수 있는 호위무력으로 걸음마다 위험이 살판치는 머나먼 백두산기슭까지 뚫고 나가시려고 하시다니?

장군님의 안전을 우려한 여러 지휘관들이 한개 중대의 전투호위성원만이라도 더 데리고 떠나시라고 거듭 간청을 드렸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일없다고 거듭거듭 타이르시고 끝끝내 15명의 경위

인원만 데리고 떠나신것이다.

어떠한 위험이 드리워져있는지 모를 먼길을 떠나는 너무나도 단출한 우리 장군님 일행을 미혼진사람들은 깊은 우려와 불안과 작별의 서러운 눈물로 바래였다. 그 마당에서 웃음을 보인분은 오로지 장군님 한분뿐이시였다.

어제밤에만 해도 나는 장군님께서 이제부터는 대군을 친솔하시고 길을 떠나실줄로 알았다. 그런데 나까지 열다섯명이다.

어찌하여 미구에 대부대 국내진공을 예견하시는 장군님께서 신변의 위험도 돌보시지 않으시고 북만에서부터 데리고오시던 중대들마저 국경과 정반대되는 먼 의란현 방향으로 떠나보내셨는지?

나는 알수 없다. 그리고 불안스럽다. 참으로 불안하다.

지금 저 눈덮인 바위에 걸터앉으신 장군님께서는 무슨 생각에 골똘하시였는지? 휴식명령을 내리시자 외따로 앉으시여 몇줄 급히 적으시더니 깊은 명상에 잠기셨다.

구름이 끼고 한산한 날씨다. 다시 눈이 내리고 추워지려는지? 잉크가 얼어 만년필촉을 입김으로 녹이시며 다시 적으신다. 무엇을 적으실가?

우리의 앞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있을가?

제 6 장

1

동지들의 한결같은 정성과 간호에도 불구하고 최선금은 눈에 띄울만큼 하루하루 수척해갔다.

아침이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절로 걸어간다고 하면서 동지들을 괴롭히던 일도 이제는 그만두었으며 자기때문에 근심하는 동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며칠만 견디면 회복된다고 장담하던 일도 어느새 잊어버린듯 그만두었다.

동지들은 최선금의 신상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와 자기들의 불안한 예감을 가지고 말없이 고개를 저었는데 더우기 엄중한것은 환자인 최선금자신이 희망이 없다고 단정한것이였다. 그런 생각은 어느날 밤 신음소리를 치다 말고 문득 깨여나서 강물처럼 소리없이 흘러가는 부드러운 안개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자기가 장군님을 만나뵈올 순간까지 견디여내겠는가고 의심한 때로부터 시작된것이였다. 최선금은 소스라쳐놀랐으며 자기가 어떻게 그런 약하고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였을가 하고 의아해하였다. 그후 최선금은 깊은 고민과 자책을 거듭한 끝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였다.

최선금은 부상을 당하기전보다 더 명랑해졌으며 동지들은 최선금의 얼굴을 의아쩍게 바라보면서도 어쩔수 없이 그의 기분에 끌리게 되는것이였다.

한겨울마냥 호함진 눈이 펑펑 쏟아져내린 날 저녁에도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장철구가 최선금의 상처를 돌보았다. 리경준과 장기령은 아이들과 함께 마른풀을 한아름씩 안고 돌아와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장철구의 얼굴을 살폈다.

장철구는 배낭아구리를 헤쳐놓고 가위밥사이에 끼여있는 잣을 고르는데 골몰한척하였다.

최선금은 류달리 기분이 명랑해서 명일이와 명숙이가 안고온 새둥지만한 마른풀을 받아가지고 자리에 골고루 깔았으며 장철구의 일손을 도와서 잣을 까기까지 하였다.

《나무에 앉은 저 눈을 보니 왜 그런지 어린시절이 생각나누만요. 눈이 오면 왜 그리 좋았던지 그리고 썰매를 타는 총각애들이 또 얼마나 부럽던지… 계집애라고 누구도 나한테는 썰매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들것채로 쓰던 대쪽을 얻었어요. 요만한건데…》

기장을 가리키려고 손을 들던 최선금은 어깨의 아픔으로 하여 눈살을 찌프렸다.

《그걸 발밑에 깔면 씽씽 잘두 나갔어요. 여러번 무르팍도 깨고 치마도 찢었지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글쎄 그 대쪽을 아궁지에 처넣으려구 하시며 〈이놈의 겨울 빨리 가야지 가뜩이나 가난한 집이 뽕빠지겠다.〉 하질 않겠어요. 나는 그때 왜 어머니가 겨울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차차 철이 들면서 나는 리해하게 되였답니다. 나무걱정, 옷걱정, 끼니걱정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지요.》

최선금은 말라든 입술을 혀끝으로 추기면서 기력이 진해진 눈에 정기를 모았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나는 속으로 겨울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 야학에 다닐 때 야학선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을 가르쳐주면서 겨울도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세상에는 일년내내 무더운 여름만 계속되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 한해동안 눈과 얼음이 녹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온 다음에는 만가지 꽃이 피는 여름이 오고 하늘이 푸르고 단풍이 붉게 타는 가을이 지나면 또 온 천지에 탐스러운 눈꽃을 하얗게 피우는 겨울이 온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사시장철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이예요.

그래서 난 야학선생이 돈많은 사람이 아닌가고 의심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우기였어요. 그랬더니 선생은 웃으면서 왜 우리가 겨울을 나쁘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기때문이다, 철이 원쑤로 될수 없다, 우리가 추위에 떨고 굶고 손발이 얼고 하는것은 절대로 겨울때문이 아니다, 바로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기때문에 우리가 못사는것이다, 겨울을 원망하지 말고 원쑤들을 반대해서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지요. 그때부터 나는 차츰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 그런 말씀을 올렸더니 어머님은 네 말이 옳다고 하시며 설음이 북받쳐 우시였어요. …》

최선금은 잠시 말이 없다가 어지간히 격해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겨울을 원망하고있다고 생각해요. 하루빨리 그들이 금수강산 아름다운 우리 조국을 마음껏 즐기며 살도록 해야겠는데… 그런걸 생각하니 막 안타깝군요.》

말을 마친 최선금은 우수수 바람이 불 때마다 숲 어디서인지 날리는 목화송이같은 흰눈발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래…》

얼마후 장철구는 손등에 떨어진 커다란 눈송이를 털며 이렇게 말했다. 리경준과 장기령이도 동감이라는듯 고개를 끄덕이였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공감과 함께 놀람의 빛이 력력하였다. 평소에 말이 적은 최선금이 때아닌 때에 어린 시절이야기를 꺼낸것이 이상하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어디까지나 행군도상의 녀성대원이며 앞으로도 계속 전투원으로 남아있으리라는 확신을 표명했기때문이였다.

동지들의 이러한 놀람은 날이 갈수록 평범한 일로 바뀌여졌고 동지들의 근심을 덜려는 최선금의 노력을 어색하게 느낄 대신 오히려 그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새삼스럽게 탄복하였다. 장기령과 장철구는 말할것 없고 남편인 리경준이조차 놀람과 감동 속에서 최선금을 바라보게 되였다.

최선금은 쉬임없이 맑디맑은 정신적인 빛을 소리없이 내뿜는것

같았다.

날이 푸름해지면 최선금은 꼭 아이들을 깨웠다. 그러면 장철구가 눈을 녹여 덥힌 물을 명일이와 명숙이 앞에 내놓았다. 한고뿌가 되나마나한 물이였다.

최선금은 들것에 앉거나 누워서 두손을 모아쥔 아이들의 손에 조금씩 물을 부어주었다. 세면이 끝나면 최선금은 배낭속에 건사해두었던 참빗으로 명숙의 머리를 빗어주었고 명일이의 옷매무시를 바로잡아주었다.

우등불은 리경준일행의 충실한 벗이였다. 일행이 숙영할 때면 우등불은 눈우에서건, 바위밑에서건 어김없이 꼭꼭 타올랐다.

그날밤도 우등불은 기다렸다는듯이 어둠과 추위를 물리치며 기세좋게 타올랐다.

일행은 좁쌀죽으로 간단히 요기를 하고나서 우등불을 바라보거나 어두워진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장철구는 소리내기를 저어하는듯 마른풀로 가만가만 밥통을 닦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우등불주변에 감돌았다. 이맘때면 의례히 찾아드는 침묵이였다. 긴장한 행군과정에서는 잊어버렸던, 벌써 몇십, 몇백번을 곱씹은 생각들을 되풀이하는것이였다. 영 잊었으면 하는 《민생단》건이며 우리가 과연 무송땅으로 가고나 있는지 하는 불안한 생각들이였다.

문득 최선금은 애들을 불렀다.

명일이와 명숙이는 어머니가 이제 덮고 잘 솜외투를 내주려는것으로 알고 발끝걸음으로 살금살금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어머니는 솜외투를 내놓을 대신 사랑하는 두 남매를 찬찬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명일이와 명숙이는 오늘 어떤 좋은 일을 했나요?》

두 남매는 어머니가 오늘따라 별스레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서 마주보았다.

놀란것은 두 남매만이 아니였다.

참나무가지 한대가 얼마나 오래 타는가 시험해보듯 우등불을

바라보고있던 구레나룻이 터부룩한 리경준이도 고개를 들었고 마른 풀우에 반듯이 누웠던 장기령이도 팔굽을 짚으며 천천히 허리를 일으켰다.

명일이는 부끄러웠던지 히죽 웃어보였다.

최선금은 엄한 표정을 하고 재촉하였다.

《그럼 명일이가 먼저 대답을 해봐요.》

명일이는 어머니의 엄한 눈을 피하듯 눈길을 떨구고 자꾸 옷섶을 잡아당겼다.

《명일은 낮에 아저씨를 따라다니면서 아무 일도 한것이 없나요?》

명일은 그제야 고개를 번쩍 들고 장기령아저씨를 보며 벌쭉 웃고나서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난, 저기… 아저씨가 잣을 따러 갈 때 발자국을 메웠어요.》

《그래요? 우리 명일이가 참 훌륭한 일을 했군요. 아주 착한 일을 했어요.》

행복의 맑고 따스한 물결이 최선금의 눈이며 볼이며 목소리에 흘러넘쳤다. 아버지된 리경준은 말할것도 없고 장기령과 장철구도 이제까지의 시름을 잊고 따라 웃었다. 명일이는 어머니를 보고 또다시 벌쭉 웃고는 당당한 자격을 가지고 어머니곁에 앉았다.

입에 손가락을 물고있던 명숙은 얼결에 오빠를 따라가려고 한발을 내짚다가 어머니가 다음은 명숙이 차례라고 일러주는바람에 흠칫하고 멈춰섰다.

명숙은 어리광을 부리듯 어깨를 흔들었는데 까만 눈에는 눈물이 가랑가랑했다.

어린 딸이 가엾었던지 최선금은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명숙인 노래를 불러봐요.》

그바람에 명숙은 기운을 얻어가지고 고개를 들었다. 노래라면 명숙은 겁날것이 없었다. 명숙의 노래를 늘 들어온 어른들은 미리부터 흐뭇해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명숙은 최선금의 손을 붙잡고

《엄마, 나 댕기—》 하고 까만 머리를 숙여보이였다. 노래를 부르겠으니 댕기를 달라는 뜻이였다. 최선금은 장철구를 돌아보며

잠시 망설이는듯하더니 배낭안에서 분홍색 댕기를 꺼내서 명숙의 손에 쥐여주었다. 명숙은 댕기를 받아들고는 한번 껑충 뛰며 해해 웃었다. 그러던것이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갑자기 시무룩해지며 바람결에 나비처럼 나풀거리는 분홍색 댕기를 최선금앞에 도로 내밀었다.

《엄마, 나 댕기 그만둘래.》

《왜 그러니?》

최선금은 주저주저하는 명숙이의 손에서 얼결에 댕기를 받았다.

명숙은 발끝을 내려다보며 머뭇거리다가 챙챙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댕기를 매면 안되지뭐.》

《왜 안되니?》

《장군님께 인사드릴 때 댕기 맬래.》

《…》

《엄마, 그게 좋지?》

최선금은 불쑥 눈에 고이는 눈물을 감추려고 머리를 돌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장군님께 인사드릴 때… 달자…》

이윽하여 최선금은 댕기를 차곡차곡 접어서 이번에도 역시 배낭속에 깊숙이 간수하였다.

명숙은 장한듯 댕기 없는 머리를 언뜻 들고 일행을 돌아보았다.

명숙의 챙챙한 목소리가 우등불가에 울려퍼졌다.

어데까지 왔니 산에까지 왔다
어데까지 가려니 남호두까지 간다
무엇하러 가려니 장군님께 간다
누구하고 가려니 우리모두 간다

근거지의 아동단원들이 즐겨부르던 노래였다. 그러나 명숙은 본래의 가사를 좀 바꾸어 불렀다. 거기에는 장군님께로 달리는 어린것의 깨끗하고 맑은 심정이 굽이치고있었다.

노래를 다 부르고난 명숙은 까만 눈을 반짝이며 늘 차례지군하던 어른들의 칭찬을 기다렸다. 뜻밖에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명숙은 눈이 둥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저씨와 큰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저씨도 큰엄마도 노래를 성의껏 불러드린 명숙이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듯 무슨 생각엔가 잠겨있었다.

어머니는 댕기를 간수해넣은 배낭에 한손을 얹은채 머리를 숙이고있었는데 우등불에 비친 어머니의 상큼한 코등으로 눈물방울이 굴러내렸다. 아버지도 깊이 머리를 수그린채 손에 들고있던 참나무가지로 공연히 재를 헤집으며 앉아있었다.

노래를 듣자고 마른풀우에 일어나앉아있던 장기령아저씨는 어느 틈엔지 불무지를 등지고 옆으로 돌아누워있었는데 머리를 감싸쥔 두팔과 어깨와 잔등이 소리없는 흐느낌에 떨고있었다.

밥통을 닦던 큰엄마는 얼른 일어나 불무지곁에서 물러가며 소매로 눈굽을 훔치고있었다.

점점 당황해하며 어른들을 둘러보고 다시 둘러보고있던 명숙의 눈에도 피잉 눈물이 감돌았다. 명숙의 입술은 금시 이그러졌다.

《엄마, 울지 마!》

명숙은 불현듯 소리치며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다. 명숙은 어머니의 목을 그러안고 눈물에 젖은 볼에 뺨을 대고 비비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랑 모두 울면 나두 장군님을 더 보고파.》

그 말에 울음소리를 참고있던 장기령은 흐느낌소리를 터뜨렸다.

입을 비죽비죽하며 앉아있던 명일이까지도 아버지의 잔등에 얼굴을 파묻었다…

최선금은 완강한 의지로 아픔을 이겨나갔다. 그는 어깨에 동통이 오고 온몸이 열에 들뜰 때도 동지들앞에서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눈굽은 검은빛이 감돌면서 오목하게 꺼져들어갔고 홀로 생각에 잠겨있을 때면 전에없이 입가에 두가닥의 가느다란 잔주름이 잡히군하였다. 동지들은 최선금을 위하여 그처럼 세심한 관심을 돌리면서도 그의 생명이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오히려 동지들은 최선금이 중환이라는것을 잊어버리고 즐겨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였으며 때때로 말없이 아픔을 참는것을 보면 그가 또 무슨 아름다운 환상에 잠겨있는줄 알고 빙긋이 웃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허리에 늘 피나무껍질을 달고다니는 장기령이 한남실의 편지를 두고 최선금의 조언을 받으려고 은근히 기회를 엿보고 있은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였다.

다음날 쉴참이였다. 최선금의 들것에 깔아주려고 송라를 한아름 뜯어안고 돌아오던 장기령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최선금의 조언을 받기에 딱 좋은 기회였다. 최선금은 들것우에 한쪽 팔굽을 짚고 엇비슷이 누워있었고 다행히 동지들과 어린것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송라가 아니예요? 어디서 뜯었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구 서있어요? 빨리 와서 불을 쪼이지요.》

장기령은 들것을 에돌아서 가물가물 소리없이 타오르고있는 우등불곁에 앉았다. 그는 마른나무가지를 두어개 골라서 우등불에 꽂아넣고나서 용기를 내여 최선금을 불렀다. 그러나 그 소리는 목안에 잦아드는 소리였기때문에 최선금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장기령은 고개를 들고 다시 최선금을 찾으려다가 그만 시선이 꿋꿋해지고말았다.

최선금은 수첩을 보고있었다. 그러나 장기령을 놀라게 한것은 수첩을 보고있는 그 사실보다 그의 입가에 잡힌 두가닥의 가느다란 주름이였다.

장기령은 가슴이 섬찍했다. 동지의 아픔이 절절하게 안겨왔고 그러한 동지에게 부질없는 소리를 하려고 한 자신이 심심히 뉘우쳐졌다.

《우리 녀성들에게는 참말로 일이 많아요.》

최선금은 밑도끝도없이 이렇게 말을 하였다. 장기령은 의아한 눈으로 최선금을 쳐다보았다. 최선금의 눈은 열정에 불타고 두 가닥의 잔주름이 잡혔던 입가에는 부드러운 웃음이 물결쳤다.

《장동무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있었는지 아세요? 3년전의 일인데 소왕청 마촌에서는 왕청지구부녀회열성자회의가 있었답니다. 그때 글쎄 장군님께서 몸소 회의에 나와주시지 않았겠어요. 장군님께서는 그때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댔어요.》

최선금은 빛나는 눈을 들고 숲우에 펼쳐진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다. 흰구름떼들이 어데론가 가볍게 흘러가고있었다.

《…이 회의에 참가하고있는 부녀회열성자들은 물론 근거지의 부녀회원들모두가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선봉대이며 녀성혁명가들이다. 지금 우리 조국에서는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녀성들이 일본제국주의와 봉건의 2중3중의 억압과 착취 속에서 신음하고있다. 동무들은 바로 이들에게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의 권리와 자유와 녀성해방을 가져다주어야 할 영광스러운 사명을 지닌 일군들이다. …》

온화한 정오의 한때였다. 이따금 이깔나무가지에 앉았던 눈덩이가 제 무게에 못이겨 소리없이 떨어졌다. 그때마다 이깔나무는 몸을 부르르 떨었고 눈안개가 뽀얗게 일어나군하였다.

최선금의 목소리는 다시 울렸다.

《우리 녀성들이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조국이 광복되면 우리 녀성들은 먼저 부녀회중앙을 세워야 할거예요. 지금까지는 촌부녀회,구부녀회가 있었지만 그런 자그마한 조직만을 가지고 어떻게 삼천리에 널려있는 천만 녀성들을 조직하고 지도하겠어요? 부녀회중앙간부라면 교양이 높고 부녀회사업경험도 많고 모범적인 동무들이 되여야 할것 아니예요. 그것도 그렇고 한 부녀조직에 50명씩 넣는다치고 온 나라에 20만의 부녀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부녀책임자만 해도 20만이야요. 이 많은 간부들을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그렇다고 부녀조직을 꾸리는 일을 미루겠어요? 이 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할 일이 무척 많아요.》

최선금은 근심어린 얼굴을 장기령에게 돌렸다.

《아무래도 우리 녀성들의 해방과 권리를 찾는 일에 남성동무들이 도와나서야겠어요. 혁명적으로 녀성간부들을 키우자면 근거지에서처럼 강습과 야학의 방법으로 해야 하겠는데 남성들이 큰몫을 말아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땐 장동무도 강사가 돼줘야지요. 어때요?》

《네… 아직… 전…》

장기령은 자기도 모르게 최선금의 이야기에 끌려들어가서 어줍게 머리를 쓸어올리며 애매하게 대답했다. 사실 장기령은 녀성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니 처음이였다. 최선금은 소리내여 웃었다.

《아니… 2천만 겨레를 왜놈의 야만통치에서 해방하고 새 사회를 세우자면서 2천만의 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생각 안했단말이예요? 유격대원답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게 아니라… 왜 생각 안했겠습니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주머니처럼 구체적이 되지 못하였을뿐입니다.》

장기령은 얼굴을 붉히며 변명삼아 이렇게 말했다. 최선금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녀성문제가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였다. 결국 장기령은 최선금에게 조국이 광복되는 날 민족군대를 조직하고 강화하는 일도 바쁘겠지만 어떻든 녀성들을 위해 강사로 출연할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장기령은 광복된 그날 숱한 녀성들앞에 강사로 나설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다. 이때까지 그는 학습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있었을뿐더러 정치사업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로 여기고있었다.

장기령은 이때 그렇게 망설이던 한남실의 편지를 최선금앞에 내놓았다.

《나한테 오는 편지예요? 누가 보냈을가? 아유, 한남실동무가 보낸거군요. 마음씨 곱고 착한 남실동무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남실이가 보고싶군요. 그런데 남실동무가 왜 나한테 편지를 보냈을가?》

최선금은 접은 쪽지편지를 앞뒤로 살피면서 의아해하는 눈을 장기령에게 주었다.

거기에는 또박또박 한남실이라고 박아썼을뿐 받을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장기령은 얼굴을 붉히고 더수기를 긁었다.

《네… 저… 사실은…》

장기령은 용기를 내여 이야기했다.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이처럼 어려운 때

에 딴 생각을 하군하는것을 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바는 아니지만 그게 사… 사실 기관총알을 쏴내깔려버리는것처럼 씨원씨원하게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금동지한테 방조를 좀 받자고…》

최선금은 말없이 웃는 얼굴로 편지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장기령은 어떻게 리해해야 좋을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다.

《나는 아까부터 장동무의 눈치가 좀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할번했군요. 남의 편지를 내가 왜 읽겠어요. 그것두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온 편진걸요.》

장기령은 손을 내흔들며 그렇지 않다고 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더우기 지금같은 처지에 있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이예요? 장동무가 어떻다구요? 난 장동무가 장군님의 훌륭한 전사라는것을 단한번도 의심한적이 없어요. 나는 누구앞에서도 그걸 이야기할테예요. 인주어요. 그렇다면 읽어보겠어요.》

장기령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얼굴을 돌렸다. 이윽하여 부드럽고 맑은 최선금의 목소리가 울렸다.

《장동무, 량해해주세요. 일이 바빠서 못가고 이렇게 인편에 전합니다.

만나면 꼭 하자던 말인데 장동무, 정말 부탁입니다. 학습을 하셔야 해요.

동지로서 부탁합니다.

한남실 올림》

《아니 무슨 편지가 이래요? 암호를 쓰듯했군요.》

최선금은 유쾌하게 웃었다. 장기령도 빙그레 따라웃었다. 최선금의 얼굴에 자리잡았던 긴장한 빛은 사라졌다.

《난 왜 그러는지 통 모르겠군요. 뻔한걸 가지고 벙어리 랭가

슴 앓듯하다니?》
최선금은 그를 나무라며 편지를 돌려주었다.
《장동무한테 좀 이야길 해야겠어요. 장동무는 이런 때에 남실동무 생각을 하는것을 큰 죄악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것부터가 잘못이예요. 그래 이것이 동지적인 심정에서만 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구 이렇게 쓴 사람이니 지금 같은 처지에 있는 장동무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도 않을게라구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예요.》
장기령은 고개를 떨구었으나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어쨌든 장기령은 명랑해진 최선금을 보는것이 기뻤고 한남실의 진정을 안것이 또한 기뻤다.
리경준이가 아이들을 앞세우고 돌아왔다. 그들은 잣송이를 얻으러 갔다오는길이였다. 장기령과 최선금은 명일과 명숙이를 맞노라고 편지건에 대한 이야기를 맺지 못하였다.

2

미혼진을 떠나 서쪽으로 향한 단출한 사령부일행은 새 행군의 첫날 밤을 어느 한 산전막에서 보냈다.
그것은 돈화땅과 안도땅을 한품속에 걷어안고있는 넓은 밀림속에 외따로 있는 산전막이였다.
이 산전막에도 세상을 등지고 사는 하얀 채수염의 늙은이 한분이 있었다.
일행은 그 늙은이에게서 며칠전에 사령부를 찾아 헤매다니는 두 아낙네가 먹을것을 구하러 이 산전막에 들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동만땅 어디에선가 떠나 사령부가 원정간 북만으로 찾아들어가던 중에 사령부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서서 그 행처를 찾아 헤매더라는것이였다.

늙은이는 그 아낙네들이 산전막을 나선지 얼마 안되여 어지러운 총소리가 한동안 울렸기때문에 개처럼 쏘다니는 《토벌대》놈들에게 필경 잘못된줄 알고 산중을 돌아다녀보았지만 멀리 사라져간 발자국들과 눈우에 얼마간 흘린 낟알들, 점점이 떨어진 피자국 그리고 여러번 어푸러졌던 자리밖에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다행히 어두울무렵이여서 용히 몸을 피한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튿날 또다시 기마행군을 해가던 일행은 한 우등불자리에서 가위밥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가둑나무물을 올린 군복천오리였다. 우등불주변에 있는 바람받이언덕밑에는 바람에 날려와 쌓인채 녹지 않은 눈우에 조꼬만 어린아이의 생생한 짚신자국과 흘려진 잣알이 있었다.

그것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신 사령관동지께서는 해가 아직 퍼그나 남아있었지만 행군을 멈추어세우시고 오늘은 여기에서 숙영하자고 말씀하시였다. 몇명의 인원으로 숙영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하시는 한편 그이께서는 세사람씩 조를 짜주시며 부상당한 몸으로 어린것들까지 데리고 사령부를 찾아 헤매고있을 근거지 녀성들을 그 주변일대에서 찾아볼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그리고 자신께서도 친히 경험 없는 리동백이와 현팔이를 데리시고 한방향을 맡아 떠나가셨다. 강세호도 리북철이도 한조씩 맡아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찾아떠났다.

…사령부를 찾아 헤매고있다는 부상당한 부녀자들을 찾지 못한채 조원들과 약속한 바위아래에 먼저 돌아온 리북철은 아까부터 서성거리며 그들이 나타나기를 초조히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이따금 근심어린 눈으로 흰눈이 깔린 이깔나무숲을 살피였다.

숲의 설레임소리에도, 바람에 마른 삭정이가 부러지는 소리에도 날카롭게 귀를 도사렸다. 그러다가 그것이 인기척이 아니라 바람소리임을 알고는 가볍게 한숨을 쉬였다.

문득 맞은편 이깔나무숲에서 텅—텅—하고 나무밑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처음에 두번, 다음에 세번 울리였다. 그런데 그 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김빠지게 울리였고 두번째 마지막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리북철은 대뜸 주봉길이가 왔으며

그것도 사람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는것을 알았다.

이윽하여 아름드리 이깔나무사이로 주봉길의 모습이 언뜻언뜻 보였다. 작달막한 키에 총탁이 눈우에 끌리는 기병총을 멘 그가 숲속에서 나왔을 때 리북철은 혹시나 해서 그의 어깨너머에 눈길을 주었다. 뒤따르는 사람이 없나해서였다.

《아무것도…》

주봉길은 기가 죽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돌렸다.

리북철은 다른것을 묻지 않고 《수고했소.》 하고는 그의 차거운 손을 다정히 잡아쥐고 바위가 있는데로 갔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다놓았던 나무로 불을 피웠다. 떡갈나무가지는 찌르륵 찌르륵 진을 내뿜으며 기세좋게 타올랐다. 그들은 서로 묵묵히 앉아있었다.

이윽고 숲속에서 또다시 나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둔중하게 천천히 두번, 다음에는 되알지고 크게 세번 울리였는데 마지막에는 은은한 메아리같은 여운까지 남기였다.

《문룡동무가 왔소!》

리북철은 이렇게 소리치며 일어섰다.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게 하는 신호였다. 리북철은 주봉길에게 눈짓을 하였다. 그러자 주봉길은 우등불곁에서 재빨리 맞춤한 나무토막 하나를 손에 잡더니 나무밑둥을 텅텅 하고 연거퍼 두드렸다. 그것은 응답신호였다.

얼마후 허우대가 크고 어깨가 쩍 벌어진 문룡이 너부죽한 얼굴에 가벼운 웃음을 담고 솜외투의 어깨와 가슴에 앉은 눈을 털며 나타났다. 가죽혁띠를 두른 그의 둥실둥실한 허리에는 수류탄 두알이 매달려있었는데 그것은 황소목에 매달린 왕방울처럼 데룽거렸다. 리북철은 이번에도 기대에 차서 문룡의 뒤를 살폈으나 역시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리북철의 눈치를 알아차린 문룡은 의미심장하게, 전에없이 활기있게 경례를 하는것이였다. 그다음에는 묻는듯한 눈길로 자기를 빤히 올려다보고있는 주봉길에게 눈을 껌벅해보이였다.

불이 달린 떡갈나무가지들을 헤쳐놓고 언손을 쪼이며 문룡은 장황하게 이야기했다. 문룡은 숨을 크게 쉬고나서 이렇게 덧붙이였다.

《이렇게 허탕만 치다보니 앞이 막막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몹시 심려하고계신다고 생각하니 발이 떨어지질 않습디다. 그래서 경위대장동지랑 봉길동무랑 기다릴줄은 알면서두 골짜기 하나를 더 뒤졌지요. 한창 올려추는데 앞에 저것보다 엄청나게 더 큰 바위가 턱 나지더란말입니다. 집채만합디다. 바위밑은 함지박처럼 우묵 들어갔는데 사람 대여섯명은 넉넉히 앉아 쉴수 있고 또 찬 바람도 막을수 있겠습디다. 에라, 여기나 한번 보구 가자. 그래 가서 살펴보았더니 글쎄…》

문룡은 여기서 이야기를 중둥무이하고는 솜외투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엇인가를 찾았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리북철의 눈앞에 줌을 펴보이였다. 문룡의 손바닥에는 열개가 되나마나한 새노란 잣껍질이 놓여있었다.

《그게 뭐요?》

리북철은 의혹에 찬 눈으로 잣껍질과 문룡의 얼굴을 번갈아보며 다그쳐물었다. 그리고 문룡의 대답을 기다릴 사이 없이 그것을 얼른 받아쥐였다.

《경위대장동지, 거기에도 우등불자리가 있었습니다.》

문룡의 목소리는 떨렸다.

리북철은 연한 속껍질이 안에 남아있는 그 잣껍질에서 무슨 비밀이라도 찾아내려는듯 꼼꼼히 살펴보기도 하고 조심스레 이리저리 굴리여보기도 하였다.

《다른것은 없었소?》

리북철은 그 잣껍질들을 주봉길에게 넘겨주면서 은근한 기대가 담긴 눈으로 문룡을 쳐다보았다.

《다른게 없나해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봉길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오?》

이렇게 리북철이가 묻자 주봉길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글쎄말입니다… 우리 동무들일가요?》

《이 속껍질을 보오. 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았소. 잣을 깐지가 며칠 되지 않았소. 분명 우리 동무들이요. 우리 동무들이 아

니면 이 엄동설한에 이런 깊은 산속에서 누가 잣알을 까고있겠소.》
뒤말을 더 이으려던 리북철은 무엇인가 결심한듯 자리에서 일어서며 등뒤로 밀려간 권총갑을 앞으로 당겨놓았다.
그의 의도를 알아차린 주봉길은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봅시다!》
리북철은 서둘러 앞장섰다.
그들은 눈속에 빠져 서로 부축해가며 두어아름이나 되는 진대나무를 기여넘으면서 보통때 같으면 한시간은 실히 걸릴 길을 반시간만에 대여갔다.
드디여 일행은 유격대의 귀틀집만큼이나 큰 거밋거밋한 바위앞에 이르렀다.
이깔나무숲이 묵묵히 리북철의 일행을 맞아주었다. 새소리 하나 없는, 모든것이 죽은듯이 적막한 숲이였다. 그 깊이를 알수 없는 공허가 그들을 휩쌌다.
리북철은 가까스로 찾은 한가닥 희망의 실오리마저 끊어지는것같아 맥이 풀려 우뚝 서버렸다.
《경위대장동지, 저깁니다.》
문룡은 경위대장의 심중을 모르고 성큼성큼 앞질러나가면서 어린 봇나무 세대가 나란히 서있는 바위밑을 가리켰다.
《가만있소, 문룡동무!》
리북철은 손을 들어 문룡을 멈춰세웠다. 그가 무슨 귀중한것을 마사버릴것만 같았고 또 자기가 직접 우등불자리를 돌아보고싶었던것이다.
《우등불자리는 내가 보겠소. 동무들은 여기에서 다른 표적이 없는가 살펴보오.》
리북철은 팔소매를 걷어올리면서 무릎을 치는 눈길을 조심스럽게 헤치고 우등불자리로 걸어갔다. 그는 우등불자리라고 하는, 눈우에 널려있는 네댓개의 거밋거밋한 숯덩이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옆에 덮여있는 눈을 밀어냈다. 처음에는 타다 남은 이깔나무가지와 참나무가지가 나왔다. 리북철은 그중에서 한뽐이나 되는 참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귀중한 보물이라도 찾아낸것처럼 얼굴에

반가운 미소를 띠웠다. 눈을 털고보니 도끼날자리가 력력하였다. 그것은 누가 도끼로 나무를 찍었다는것을 말해주었다.

리북철은 나무토막을 따로 내놓고 이번에는 숯덩이를 손에 쥐여보았다. 숯덩이는 싸늘하게 식어있었다. 숯덩이를 꺾어보니 겉에는 습기가 있으나 속은 말랐다.

리북철은 눈가루에 뒤범벅이 된 재를 헤치고 손끝으로 밑바닥의 흙을 뚜졌다. 썩은 락엽이 덮인 겉층은 얼지 않은채로 있었다.

리북철이 우등불자리 근처에서 실날모양으로 오려진 누런 천쪼박을 찾아낸것은 얼마후의 일이였다.

《동무들—》

리북철은 이렇게 웨치며 가위밥을 쥔 손을 머리우로 높이 흔들었다.

버섯모양으로 가지를 펼친 잣나무밑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돌아가던 주봉길이 먼저 달려왔다. 그는 리북철의 손에서 가위밥을 받아들더니 환성을 올렸다.

《이건 아까 거기서 발견한 가위밥과 같은 천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가위밥입니다.》

뒤이어 문룡이도 허리에 찬 수류탄을 데룽거리며 허둥지둥 달려왔다.

《경위대장동지, 이건 그 군복쪼박이 아닙니까?》

리북철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건 제가 왕청에서 해입은 작년 여름군복천이 틀림없습니다. 제겐 첫 군복이였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문룡은 그 천이 바로 작년봄에 왜놈수송대를 들이치고 로획한 천이라고 하였다.

《그때 재봉대 녀성동무들이 여름군복을 짓노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최선금동무랑 모두 밤을 밝혔지요.》

리북철은 가위밥에서 깊은 밤에 동지들의 해진 군복을 기우며 사령부를 그리워했을 녀성대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읽었다. 좀더 일찍 우등불자리를 찾았더라면 그들을 만나 사령부로 데려갈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운 생각에 가슴이 아릿하였다.

그는 오늘 행군을 여느때없이 일찌기 멈추어세우신 사령관동지의 뜻을 짐작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눈우에 찍힌 아이들의 발자국과 가위밥을 보신 순간에 리경준내외를 생각하신것이였다.

이 사나운 겨울에 경준네 내외간이 아이들을 데리고 장군님을 찾아떠났다는 소식을 들으신 때부터 리경준과 최선금 그리고 그들의 재롱스러운 두 남매에 대한 걱정을 한시도 못놓으시는 장군님이시였다.

그런 장군님께로 또다시 빈손을 들고 돌아갈수 없는 심정인 리북철은 우등불자리를 세번씩이나 돌다가 단호한 어조로 말하였다.

《이 속이 만만한 잣껍질과 속이 얼지 않은 숯덩이는 그들이 여기를 떠난지 대엿새밖에 안된다는것을 말해주고있소. 그러니 여기를 거쳐 그 산전막에 갔다가 아까 그 우등불자리가 있는쪽으로 향해간것 같소. 이 근처는 더 찾을 필요가 없으니 서남쪽으로 좀 더 나가봅시다.》

서남쪽 숲언저리우로 희끄무레한 쪼각구름떼가 서서히 밀려가고있었다.

해가 어느덧 서쪽 하늘가로 기울어지고있었다. 앞으로 가닿아야 할 무송땅이 있을 그 하늘가였다.

3

리경준일행은 앓는 사람이건 성한 사람이건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할것없이 기력이 빠질대로 빠져버리고 지칠대로 지쳐버렸다.

말할 힘조차 없어진 최선금은 하루 몇마디씩 번지는 말도 힘에 겨운지 겨우 입술을 움직거렸다. 억지로 지어보이군하던 웃음도 더는 짓지 못하게 되였다.

최선금의 얼굴에는 그 어떤 의지로써도 지워버릴수 없는 슬픔이 비끼였다. 시시각각 삶을 앗아가고있는 그 무서운것이 최선금

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던지기 시작한것이다.

어머니가 들것에 실리게 된 때로부터 어른들의 잔등신세를 더는 져보지 못하고 내내 걸어온 아이들도 그이상 걸을 형편이 못되였다.

교대하는 사람 없이 줄곧 들것을 들고온 리경준이와 장기령이도, 일행의 배낭을 혼자 도맡다싶이한 장철구도 자주 헛걸음을 치며 비틀거리였다.

멎어서면 다시는 일어날것 같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인적없는 산중에서 주저앉은채로 얼어죽고말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에 이를 악물고 걸음을 간신히 옮겨놓고있었다. 움직일수 있는 한에서는 기여서라도, 한걸음이라도 더 사령부 가까이에 가서 죽기를 바라는 그들이였다.

기어이 장군님을 만나뵈오려는 그들의 열망은 기력이 진해질수록 스러져가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다. 최후의 시각을 앞두고 점점 더 세차게 불타오르는 그들의 열망은 사령부의 가까이에 가서 쓰러지리라는것이였다.

그들은 긴긴 행군의 이 최후의 날이 저물어가고있는 어슬녘에도 멈춤없이 행군을 계속하였던것이다.

그 불타는 열망에 대한 보답이기나 한듯 마침내 그들앞에 유격대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도끼소리가 들려왔고 그다음에는 바람을 타고 연기내가 실려왔다.

왼쪽놈들만 맞다들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든 구원받을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힘을 얻은 그들은 얼마 걸어가지 않아서 과연 이제까지 오는동안 단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던 인민혁명군대원을 만나게 되였다.

꽁무니에 도끼를 찬 그 대원은 찍어넘겨뜨린 강대를 끌고 산비탈을 내려오다가 그들을 보자 끌던 나무를 버리고 그들에게로 바삐 달음쳐왔다. 그러다가 사람들을 가려볼만한 거리에 이르자 멈춰서서 유심히 살펴보기만 할뿐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자기들과 같이 지내는 사람들가운데서 누군가 부상당한 사람이 있어 그를 들것에 싣고오는줄로 여겼다가 두 어린아이들까

지 달린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모양이였다.

리경준이도 장기령이도 장철구도 그 사람의 차림새와 거동을 보고 그가 비록 총을 메지는 않았지만 인민혁명군대원이라는것을 직감하였다. 그들에게는 그 사람이 그저 단순히 인민혁명군대원인것이 아니라 사령부소속성원인것처럼 생각되였다.

금시 울어버릴것 같이 감격에 북받쳐 리경준은 안해를 실은 들것을 내려놓을념도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해 소리쳐 물었다.

《유격대원이 아닙니까?》

《…》

상대방은 웬일인지 인차 대답하지도 않고 더 내려오지도 않았다. 그냥 서서 잠시 그들을 살피기만 하더니 나지막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어디서 누구를 찾아오는분들입니까?》

《왕청에서부터… 사령부를 찾아옵니다.》

《사령부요?… 여기엔 사령부가 없는데… 누가 이 마안산에 사령부가 있답디까?》

그는 오히려 의아해하였다. 그리고보면 그는 사령부가 이 무송땅으로 나왔다는것을 모르고있는 모양이였다.

틀림없이 경준이네보다 앞서 나왔을 사령부가 넓은 무송땅의 다른 지역에 들어서기는 했으나 아직 이곳과 련락을 맺지 못한것이라고 짐작되였다. 혹시 사령부가 어디에서 지체하면서 무송땅에 채 들어서지 못하였는지도 모를 일이였다.

《여하튼 유격대원들이 있는데로 안내해주십시오.》

마음이 급해진 리경준은 이렇게 청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상스럽게 그냥 그 자리에 지켜선채 대답없이 얼핏 주위를 휘 돌아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그 사람에게는 비록 안면은 없다 해도 혁명동지끼리 만나게 될 때 의례 있게 마련인 반가움이라든가 정다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들것우에 환자가 누워있는것을 번연히 보면서도 도와줄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을뿐더러 유격대원들에게로 안내해달라는 리경준의 청을 듣고서도 가까이 와주려고 하지 않

았다.

자기들에 대한 의심때문에 그러는줄로 짐작한 리경준은 자기들도 유격대원들이라고 말하면서 안심하고 좀 가까이 와달라고 간청하다싶이 하였다.

그 사람은 다시한번 주위를 휘 돌아보고나서야 비로소 몇걸음 더 내려왔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데까지는 오지 않고 또 멎어섰다. 군데군데 찢기고 해져서 솜뭉치가 비죽비죽 내민 몹시 낡은 겨울군복을 입고있었다.

누렇게 황이 들어있는 얼굴에는 아무러한 생기도 활기도 없어보였다. 젊은 사람이였지만 어쩐지 겉늙어버린듯했는데 미안쩍어하는것 같기도 하고 반기는것 같기도 한 가냘픈 웃음을 처음 보여준 순간에조차 얼굴에 깃들인 음울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퍽 고생들 하며 오신것 같습니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환자는 심합니까?》

《빨리 손써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장기령의 대답이였다.

그 사람은 자기가 나무를 끌고 내려가던 방향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쪽에 커다란 귀틀집이 몇채 있는데 거기로 가면 안됩니다.》

그리고는 다른편을 가리켰다.

《이편으로 내려가십시오. 저 낮은 등성이아래로 가면 아늑하게 들어앉은 자그마한 귀틀집이 있습니다. 거기로 찾아들어가십시오. 지휘부로 쓰던 귀틀집인데 거기 가면 정치주임이란 사람이 있을겁니다. 모셔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되게 되여있습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역시 례절도 있고 친절하기도 한 사람이였지만 무엇때문인지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도와줄 마음은 분명 갖고있는것 같은데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마음같이 하지 못하는것이였다.

도와못주는 그의 안타깝고 죄송스러워하는 심정을 느낀 리경준은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고 그가 가리켜준쪽으로 돌아섰다. 그 사람

은 오래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부러워하는것 같기도 하고 동정하는것 같기도 한 눈길로 일행을 바래주었다.

그가 알려준 지휘부귀틀집은 낮은 등성이아래의 청림속에 자리잡고있었다.

퇴창에 비친 불빛을 보는 순간 일행은 오래동안 객지에서 고생하며 방황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 집 창문에 어린 불빛을 본 사람들처럼 감개무량하였다. 이제는 제 사람들을 만났으니 굶어죽을 념려도, 얼어죽을 념려도 없을것이며 중태에 빠져있는 최선금에게도 늦은대로 손을 써볼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사령부소식도 알게 될것이며 미구에 사령관동지의 품에 안기게 될것이다.

밤길을 지나가는 길손에게도 불빛어린 인가의 창문은 반가운 법이다. 유격대의 정치주임이랑 들어있다는 귀틀집창문의 불빛을 본 리경준일행의 가슴은 기쁨과 감격으로 설레였다.

바로 이와 같은 유격대귀틀집의 불빛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간난신고를 겪으며 먼 동만의 소왕청에서부터 북만의 돈화땅을 거쳐 장설이 덮인 천리수해속을 헤쳐온 그들이 아니였던가?

그렇다. 그것은 객지에서 돌아온 식구를 따뜻이 품어줄 고향집의 반기는 눈동자였다. 고향집이 반기는 웃음이였다.

일행은 저마다 말없이 눈들을 슴벅이며 좁은 귀틀집마당에 들어섰다.

낯선 귀틀집이기는 하나 그리웠던 식구들이 있는 제집마당에 들어서는것처럼 리경준은 잠시 서서 불빛이 어린 퇴창을 한참동안 바라보며 서있다가 마음을 누갖히고 출입문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일부러 신발을 털어 인기척을 내며 집안에 대고 물었다.

《들어갈만 합니까?》

《예—》

한참만에야 집안에서는 턱에 눌린듯한 시들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리경준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후끈한 화기가 도는 귀틀집안에는 자그마한 얼굴에 턱이 뾰족하고 역시 자그마한 눈이 반들반들한 사람이 깃에 털을 댄 외투를 걸치고 혼자 있었다. 새옷처럼 깨끗한

군복차림인 그는 책상우에 세워놓은 초불아래서 난로쪽으로 돌아앉아 입귀에 문 담배연기때문에 실눈을 지어가며 손칼로 손톱을 깎고있었다.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는 성미인지 그는 왼손의 엄지손가락손톱을 깎느라고 머리를 들지 않았다. 산에서 만났던 유격대원과는 달리 그는 어딘지 모르게 태평스러워 보이였다.

귀틀집에는 그밖에도 몇사람이 같이 들어있는지 모포를 깔아놓은 여러개의 잠자리가 마련되여있었다.

마침내 엄지손가락끝에서 손톱을 깎아낸 그는 칼날로 손톱을 다스리면서 비로소 눈을 들어 출입문가에 서있는 리경준을 건너다보았다. 그제야 자기가 늘 보아온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라는것을 알았는지 손질을 멈추고 경준의 수염투성이 얼굴과 험한 군복차림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처음 보는것 같은데… 어디서 왔소?》

그는 입에 물었던 담배꽁초를 버리고 이렇게 물었다.

《여기에 정치주임동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소?》

그는 의자등받이에 기댔던 허리를 펴며 일어섰다.

《정치주임동무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리경준은 그앞에 다가가며 두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의심쩍어서인지 약간 주저하며 마주 내미는 그의 오른손을 두손으로 반갑게 꽉 잡았다.

《왕청과 화룡에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먼곳에서 왔군요. 고생했겠습니다. 여러 사람입니까?》

리경준의 람루한 차림과 지친 얼굴에서 이미 그도 퍽 고생했으리라는것을 짐작한 모양이였다.

《어른 넷하고 아이가 둘입니다. 밖에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어떻게 아이들까지 있습니까?》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부상당한 환자가 있어서… 먼저 좀 들여다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 그렇게 합시다.》

아직 파악 없는 사람들을 무리로 들여놓은것이 께름직해서인지

별로 시답지 않아하는 눈치였지만 먼길을 고생스럽게 왔다는 사람들을 그냥 차거운 한지에 세워둘수도 없어서 이렇게 대꾸했다. 그리고 문옆에 지켜서서 들것우에 누운채 들려들어오는 최선금과 장기령, 아이들과 장철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맨 나중에 비칠거리며 들어오던 명숙이가 문턱에 걸려 넘어질번하자 그를 붙잡아세워주고는 문을 닫았다.

최선금을 들것채로 바닥에 내려놓은 리경준과 장기령은 아이들과 장철구를 도와 짐도 내려놔주고 난로곁에 데려다 불도 쪼이게 해주고나서 초불이 켜져있는 통나무책상앞으로 다가갔다.

정치주임은 의자를 손님들에게 권할것도 잊어버리고 뒤짐을 짚고서서 여전히 아무 말없이 그들을 한사람 한사람씩 살펴보며 리경준이가 보고하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책상우의 초대옆에는 써레기담배가 담긴 나무곽과 함께 꽁초들과 담배재가 수북한, 나무뿌리를 파서 만든 재털이가 놓여있었다.

말아본지 오랜 담배내가 코를 찌르자 리경준은 우선 한대 피우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아직 인사도 변변히 못한 주제에 권하지도 않는 담배부터 청하고싶지 않았기때문에 참고말았다. 그러나 앉고싶은데 대하여서는 굳이 스스로 사양하여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대로 그냥 서있자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몸을 지탱해낼수가 없었다.

《실례입니다만 좀 앉아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정치주임은 그제야 먼길을 걸어온 손님들에게 의자를 권하지 않았던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처사에 대해 스스로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눈살을 찌프리며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오.》

경준은 통나무를 깎아만든 긴의자에 앉으며 장기령에게도 앉으라고 눈짓하였다. 장철구와 두 아이는 난로가의 땅바닥에 주저앉아있었다.

정치주임만은 여전히 선채로 있었다.

리경준은 그렇게 서있는 사람앞에 앉은채 보고하기가 매우 미안하고 지어 불손한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리해해주리라는 믿

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북만원정을 떠나신 사령관동지를 찾아서 먼 돈화땅에까지 들어갔다가 사령부가 무송방향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했다.

《사령부가 여기 나왔다고 누가 그럽디까?》

정치주임은 의아해하였다.

《돈화의 밀림속에 있는 한 산전막로인에게서 들었습니다. 자기가 길안내까지 했다던데요. …》

리경준은 로인이 해주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였다.

정치주임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모를 소리요. 사령부는 여기 나오지 않았을뿐아니라 나온다거나 나왔다는 련락도 우린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도중에 다른데로 향했거나 좀 지체되는게 아닐가요?》

《그 늙은이의 말을 어떻게 그대로만 믿겠소?… 그건 그렇구, 저 아이들도 처음부터 데리고 떠난 아이들이요?》

《저의 아이들입니다. 소왕청에서부터 데리고 왔습니다.》

《저 아주머니는?》

《제 처입니다. 도중에 부상당했습니다.》

정치주임은 들것우에 누운채 눈도 뜨지 못하고있는 최선금과 난로옆에 쪼그리고 앉아 졸고있는 두 아이를 잠시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에야 자리에 앉으며 리경준에게 다시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군이 이 엄동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험한 걸음을 떠났소? 일부러 사서 고생하면서말이요? 눈이 다 녹은 다음에 떠난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기막힌 일을 일시에 회상한 리경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였다.

《봄이 되여 떠났더면 좋은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런 까닭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워도 좋겠습니까?》

가슴이 답답해난 리경준은 얼결에 담배를 청하였다.

《피우시오.》

정치주임은 후들거리는 손으로 담배를 말아 초불에 대고 불을 붙

이는 리경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펴그나 출출했던데다가 오래간만에 마른 가랑잎이 아니라 진짜 담배연기를 들이킨 리경준은 정신이 핑 도는것 같았다. 어지럼증을 느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정신을 수습하였다. 그리고는 담배불을 재털이에 꾹 눌러 꺼버렸다.

《제가 무슨 말을 하댔던가요?》

정치주임은 뾰족한 턱을 들고 반들거리는 눈을 쪼프리며 리경준을 바라보았다.

《봄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지 않을수 없었던 까닭이 있었다고 했댔소.》

《그렇습니다. 제때에 그곳에서 떠나지 않았더면 우리는 벌써 잘못됐을수도 있었을겁니다. 억울한 일입니다만 우리는 〈민생단〉으로 몰렸댔습니다. 그냥 있게 되면 어차피 억울한 루명을 뒤집어쓴채 혁명의 변절자로 처단당할 처지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럴바에야 무엇때문에 거기 앉아서 떳떳치 못한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웬일인지 이야기를 듣고있던 정치주임은 책상우에 올려놓고 깍지끼였던 손을 내리우며 몸을 뒤로 젖혔다. 무심중 그렇게 하여 마주앉은 리경준이며 장기령이와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멀리해버린 그의 얼굴에는 이제까지 감추어왔던 경계하는 기색이 뚜렷이 드러났다.

《어떻게 돼서 〈민생단〉 협의를 받게 되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오.》

그것은 청이 아니라 요구였다.

막다른 처지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해줄 유격대의 한 정치일군을 만난김에 여태 하소할데조차 없었던 억울함을 처음으로 그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던 리경준은 그의 얼굴에 나타난 싸늘한 표정에 차츰 당황해졌다. 그러나 진상을 죄다 알게 되면 그 싸늘한것이 따뜻한 동지적인 리해로 바뀌리라는것을 믿으면서 자기네 부부와 장기령, 장철구가 각각 협의를 받게 된 경위를 될수록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이따금 한두마디씩 캐여물으며 시종 랭담한 표정을 가시지 않

고있던 정치주임은 불쑥 일어나 출입구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출입문결에 주련이 벗어놓은 배낭에 기대세운 리경준의 총을 손에 들고 돌아서며 물었다.

《탄알이 몇발이 있소?》

《한발뿐입니다.》

《이 탄창안에 있소?》

《네.》

《다른 총은 없소?》

《그것뿐입니다.》

《잠간만 기다리오.》

그는 총임자의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탄창에서 탄알을 뽑아쥐고 다시 총을 눕혀놓았다. 그런 다음 출입문과 반대쪽에 있는 안벽구석에 가서 귀틀벽 나무옹이에 매놓은 노끈을 몇번 잡아챘다. 그 끈은 귀틀벽짬으로 해서 바깥의 어덴가와 통해있는듯했는데 무슨 련락을 취하는데 사용하는것 같았다.

《당신네들도 〈민생단〉이란말이지?》

구석에서 돌아선 그는 권총을 찬 혁띠에 량손의 엄지손가락을 걸며 혼자소리처럼 말하였다. 그의 얼굴은 표표하였다.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민생단〉혐의를 억울하게 받았다고 말입니다.》

리해나 동정 정도가 아니라 충분한 공감에서부터 우러나온 격분을 보게 되리라 생각했던 정치주임에게서 오히려 뜻하지 않았던 랭혹한 의심을 받아안게 된 리경준은 아연해져서 그이상 다른 말을 할수 없었다.

《당신네들이 〈민생단〉이 아니라는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소? 누가 보증하겠소?》

정치주임은 따져 물었다. 그것은 소왕청에 있을 때 그들에게 《민생단》혐의를 들씌우던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말투였고 또 너무나도 신통히 같은 말마디들이였다.

《아니 금방 한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내내 참견하지 않고 앉아있던 장기령이 결김에 내쏘았다.
《우리가 왜 무서운 고생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지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단말입니까?》
뒤이어 리경준이 분기가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정치주임은 여전히 랭정하고도 침착하게 높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법정에서는 본인자신의 변호를 인정하지 않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것은 범죄자들의 일반적경향이요.》
《아니 그럼 우리가 범죄자란말이요? 죄인이란말이요?》
장기령은 책상을 짚으며 일어섰다. 그러다가 몸이 비칠거려 도로 주저앉고말았다.
《그건 좀더 알아봐야 하겠소.》
《만약 우리가 〈민생단〉혐의에 걸렸었다는 이야기를 안했더면 당신은 어쨌겠소?》
리경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걸음 내디디였다.
《그랬더면 우리도 골치거리를 또 당하지 않았을지 모르오.》
《그 우리라는건 대체 누구들이요?》
《위임받은 사람들이요. 그건 더 이상 알 필요 없소.》
그는 리경준일행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기 한사람만이 아니라는것을 암시하였다. 아마도 이 귀틀막에 잠자리를 두고있는 몇사람들을 념두에 둔 말인듯하였다.
《그럼 당신네는 우릴 어쩔테요?》
《〈민생단〉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인 이상 그냥 놓아보낼수는 없소. 우리도 당신들 같은 혐의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붙어나는게 시끄럽소. 여기엔 지금 거의 백명이나 되는 당신네 같은 사람들이 있소. 해명될 때까지 당신들도 그들과 같이 있어야 할것이요.》
《당신들한테서 우리가 죄인취급을 받자고 여기까지 온줄 아오?》
《어쩔수 없는 일이요. 할수 없소.》
그는 여전히 랭담한 어조로 내밸듯 말하였다.
장기령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울기오른 그의 이마와 목줄띠에서 피줄이 툭 불거져나와 풀떡풀떡 뛰였다.

그러더니 드디여 탁 터진 입술사이에서 불같은 한마디의 말이 튀여나왔다.

《이 개자식！》

그 말을 토해버린 그는 밑둥이 잘린 나무그루마냥 방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때마침 들어선 두명의 총멘 사람에게 정치주임이 지시를 주었다.

《이 사람들을 협의자들의 귀틀집에 호송해가시오.》

그것은 산에서 길을 가르쳐주던 처음 만난 사람이 가지 말라던 그 귀틀집들이였다. 그들에게 길을 대주던 사람도 바로 그 귀틀집에서 지내고있는 협의자의 한사람이라는것을 리경준과 장기령은 그날밤에 알게 되였다.

제 7 장

1

바야흐로 눈석이가 시작될무렵이였다.

김일성장군님을 모신 사령부일행은 마침내 안도의 대원시림과 진펄지대를 벗어나 푸르허 기슭의 벌판으로 나섰다. 무연한 버덩을 헤쳐나가면 자주 도로가 나지고 강기슭이며 양지쪽산턱에 크지 않은 동네나 농가들이 가끔가끔 눈에 띄였다.

사하의 진펄을 지날무렵 언뜻 봄의 입김을 날려 산중에 깊이 쌓인 눈을 금시 다 녹일듯하다가 미혼진에서 다시 얼구어버렸던 날씨가 마안산을 향해 떠난 그날부터 아주 풀릴 차비인지 양지쪽은 땅속의 얼음까지 흐물흐물 녹여버렸다. 서북차진펄을 지날 때에는 진창속에 말이 발목까지 빠져 애를 먹이더니 푸르허 기슭의 진펄에 이르러서는 정갱이까지 빠져들었다.

이제 와서는 말이 오히려 길을 지체시키게 되였다.

사령부일행은 마침 처창즈근거지가 해산될 때 이곳 산속에 와서 화전을 부칠 작정으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며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있는 인민들을 만난 기회에 그 말들을 넘겨주었다.

봄은 거의 다 온듯하다가도 또 숲변두리에서 아직도 바재이는듯 음달이나 고원의 깊은 숲속에는 여전히 눈이 무릎을 치게 쌓여있었다.

때로는 진펄의 감탕판에 행전과 바지까지 적시며,때로는 종일 깊은 눈을 헤치며 장군님을 모신 15명의 사령부일행은 마안산으로, 마안산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말이 없어지니 일행은 더욱 단출해진듯하였다.

아직 군복을 입지 못한 리동백은 말할것 없고 언제나 사람들앞에

서 유격대원답게 당당하고 의젓하게 굴려고 은근히 애를 쓰고 있는 주봉길이조차 이제는 말발굽소리도 투레질소리도 들을수 없게 된 행군대오를 새삼스럽게 불안한 눈매로 돌아보군하였다.

그들의 불안은 근거없는것이 아니였다. 자주 나타나는 도로나 부락들은 적이 어느때 나타날지 모른다는것을 의미하였고 실지로 행군대오를 앞질러 척후로 나가있는 강세호로부터 적들의 동태에 대한 보고가 자주 들어왔다. 때로는 강세호자신이 긴장된 표정을 하고 장군님께로 달려오군하였다.

장군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적정에 대한 보고를 주의깊이 들으신 다음 정황을 능숙하고 과감하게 처리하군하시였다. 이러한 일이 점점 자주 되풀이되였다.

푸르허와 대사하의 합수목어방에서 적 《토벌대》가 길목을 지키고있으며 그놈들과의 충돌을 피하자면 100여리가량 동쪽으로 돌아가서 길을 건널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긴장해서 바라보는 강세호와 리북철에게 힘있게 한팔을 쳐드시여 곧추 남쪽을 가리키시며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에돌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바삐 새로운 사단을 꾸리자면 빨리 무송에 나가 2련대동무들을 찾아야 합니다. 길목이나 지키고있는놈들은 냅다 치고 단숨에 쭉 빠져야 합니다. 그놈들도 이제는 우리가 백두산쪽으로 나간다는것을 알아채고 발악을 하는것이니까 맞받아치고 나갑시다.》

그리하여 이날 사령관동지께서는 강세호와 기관총수 현팔을 보내시여 큰길가의 적초소에 기관총의 세찬 련발사격으로 놈들을 제압하게 하신 다음 눈깜빡할 사이에 일행을 길건너의 숲속으로 이끌어내시였다.

바로 그 이튿날 점심때였다.

푸르허물줄기를 따라 펼쳐진 버덩을 지나니 꽤 깊숙한 산줄기가 나지고 그 산아래에 엉성하게 흩어진 10여호의 마을이 펼쳐졌다.

간밤을 숲속에서 보낸 일행이 휴식도 겸해 마을에 잠시 들려 간단히 점심요기를 하고 막 떠나려 하는데 별안간 보초소에서 위험을 알리는 총소리가 울려오고 뒤미처 리북철이가 권총을 뽑아들

고 뒤를 경계하면서 사령관동지께로 달려왔다.

《사령관동지, 적정입니다.》

리북철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더듬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장군님께서는 이미 행장을 다 갖추시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집들에 몇사람씩 흩어져 쉬는 대원들이 출발준비를 갖추기를 기다리시다가 리북철을 돌아보시였다.

《저 앞산줄기에 떠돌아다니던 산림대가 있다고 하더니 그게 사실은 산림대로 가장한 적 〈토벌대〉였습니다. 그놈들이 우리가 이 마을에 든것을 눈치채고 은밀히 내려와서 포위했습니다. 여기는 념려마시고 산으로 올라주십시오.》

리북철은 낯빛이 질려 애원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평소에 그리도 침착하고 듬직하던 리북철이가 어지간히 다급해하는것을 보시고 벌써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하신듯 이윽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시더니 눈길을 앞산쪽으로 돌리시였다. 앞산의 산줄기는 밋밋스름한 굴곡을 그리며 남북으로 아득히 뻗어나갔는데 그 곁가지들이 무수한 주름살처럼 푸르허 기슭으로 뻗어내렸다. 그중 한가닥이 바로 동네변두리를 스치며 지난해의 묵은 새초가 엉성하게 덮여있는 버덩으로 이어져있었다.

앞산 비탈로부터 동네로 이르는 버드나무가 듬성듬성한 새초밭에서는 벌써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저것은 강세호동무입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전투가방의 멜빵을 조이시며 총소리나는쪽을 눈길로 가리키시였다.

《그렇습니다. 련대장동지는 결사적으로 적을 견제하겠으니 한시바삐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마을에서 벗어나라고 저더러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벌써 이쪽으로도 우회했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벌써부터 결사전을 서둘 필요도 없고 결사전을 할만한 대상도 못됩니다. 현팔동무를 나에게 보내시오. 그리고 북철동무는 나머지 대원들을 데리고 전투를 하다가 포위가 풀

리면 즉시 앞산턱밑으로 빠져 적을 옆으로부터 타격하시오.》

《알았습니다.》

리북철은 장군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이런 급한 정황속에서는 명백히 리해할수는 없었으나 우선 장군님을 호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선뜻 달려나가려는데 마침 현팔이가 기관총을 비껴들고 달려왔다.

《현팔동무, 사령관동지를 잘 모시오.》

리북철은 현팔에게 짤막하게 한마디 하고 장군님께 비장한 결의가 어린 얼굴로 경례를 올린 다음 대원들이 달려오는 골목을 향해 맞받아 달려나갔다.

《현팔동무, 저 둔덕중턱에 서있는 버드나무가 보입니까?》

장군님께서는 현팔의 한쪽팔을 끌어당기시여 맞은편 언덕을 가리키시였다.

빤히 바라다보이는 그 언덕에 유표한 지형지물로서는 거의 유일하달만치 외따로 서있는 그 가지만 앙상한 버드나무는 아무 눈에나 쉬 뜨일 극히 평범한 보통나무에 지나지 않았다.

현팔은 강세호련대장과 리북철이 사령관동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결사전을 벌릴 각오를 하고있는 이 촉급한 시각에 너무나 태연하게 서계시는 장군님의 모습과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의의도 있어보이지 않는 그 껑충한 버드나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현팔의 목소리는 긴장한 나머지 석쉼하게 갈려나왔다.

《좋습니다. 재빨리 저 자리에 기관총좌지를 잡아야 합니다. 갑시다.》

그이께서는 낮으나 힘찬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성큼 걸음을 떼시였다. 현팔은 그이의 뒤를 따라 새초밭속을 달리면서도 그렇게 유표한 자리에 기관총좌지를 잡으라고 하신 그이의 의도를 선뜻 리해할수 없었다.

버드나무까지는 직선거리로 400메터 남짓하였다. 기관총명중률은

더없이 좋을 거리였으나 너무나 유표한것이 장군님의 신변때문에 마음에 걸리였다. 어느새 시꺼먼 개털외투들로 변장한 《토벌대》놈들이 크지 않은 동네를 멀찍이 에워싸고 죄여들고있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벌써 지형을 다 보아두신듯 허리를 치는 묵은 새초밭사이를 헤치시며 곧장 산중턱으로 치달아오르시였다.

한편 리북철은 사령관동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 지휘하에 남은 대원들을 이끌고 일단 사령관동지께서 계시던 집까지 왔다가 그이께서 계시지 않는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강쪽으로 죄여드는 적을 향해 불질을 하며 달려나갔다. 불과 얼마 안되는 대원을 데리고 아직도 산쪽으로 난 길목에서 뻗치고있는 강세호에게 마음속으로 존경을 표시하면서 무겁게 입을 열었다.

《동무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견지하는가 하는것은 곧 사령관동지의 안전을 얼마나 든든히 지키는가 하는것과 같습니다. 련대장동무의 모범을 따라 결사적으로 싸웁시다. 그리고 리선생.》

하고 리북철은 사방에서 자지러지는 총소리때문에 어지간히 당황해진듯한 리동백을 불렀다.

《선생은 이 수류탄을 더 가지십시오. 이런 때는 손에 서툰 총보다 이것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는 이걸로 놈들을 제끼고 내달려야 합니다.》

《경위대장동무.》

리동백은 뜻밖에도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너무 나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조선인민혁명군대원입니다.》

리북철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날리며 총을 재우는 리동백의 심각한 얼굴을 이윽히 뜯어보았다. 분명 강한 충격을 받기는 했으나 이미 죽음을 초월한 침착성이 깃들어있었다.

적탄이 토피담벽을 허물어뜯고 묵은 풀대를 쓸어눕혔다.

《생포하라!》

《왼쪽으로 죄여라!》

적지휘관놈의 악다구니소리가 뚜렷이 들렸다.

리북철은 결단성있게 돌아서서 대원들을 산개시키고 쓸어드는 적

들에게 불을 안겼다. 적들은 무리로 쓰러졌다. 그러나 놈들은 너무나 많았다. 아무리 쏘아눕혀도 자리가 나지 않았다.

어느새 강세호네 길목쪽에서도 총소리가 성글어진다.

(사령관동지께서만 무사하시다면…)

리북철은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총신이 화끈 달만큼 연신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면서도 리동백을 지켜보며 그를 위험에서 막아주느라고 윈심을 썼다.

《침착하게 겨누어서 하나, 둘, 셋, 던지시오!》

리동백은 몸을 솟구었다.

꽝!

묵은 새초밭속에 꺼먼 개털외투의 얼룩을 지으며 흙먼지와 불기둥이 한꺼번에 치솟았다.

그래도 적들은 메뚜기떼처럼 껑충껑충 뛰며 덮쳐들었다.

별안간 기관총소리가 터져올랐다. 리북철은 땅바닥에 바싹 엎드리며 고개를 돌렸다. 적도 아군도 사격을 멈추었다. 정신차릴새 없이 련발로 날아오는 기관총탄알은 혼전속에 든 적아를 정확하게 가려보며 뒤전에 몽킨 적들만 골라 휩쓸어눕혔다.

적들은 멩해서 도대체 이런 벼락이 어디서 떨어지는가 하고 하늘과 땅을 두루 살폈다. 그러면서 뒤로 비슬비슬 쫓겼다. 그러자 기관총탄알은 란도질을 하듯 적진을 후려쳤다.

비로소 적의 눈길은 둔덕중턱의 버드나무아래에서 내뻗치는 예광탄의 불줄기를 알아보았다.

《저쪽이다!》

한놈이 소리치자 적의 서렬은 별안간 수리개에게 쫓기는 참새떼처럼 우르르 버드나무가 선 둔덕을 향해 달려갔다.

《아, 사령관동지!》

리북철은 한순간에 풀려나가는 적의 포위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땅바닥에 무릎을 끈채 아까는 미처 다 리해할수 없었던 그이의 말씀의 깊은 뜻을 다시금 새겼다.

《저기 장군님께서 계십니다.》

리동백이 리북철의 무릎을 잡아흔들며 그 역시 목메인 소리로 말

하였다.

《북철동무, 사령관동지를 보위하지 않고 뭘하고있소?》

허물어진 담장을 바람처럼 뛰여넘어 달려오며 강세호가 소리쳤다.

리북철은 목이 메여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사령관동지를 호위해야 하겠는데 오히려 사령관동지께서 우리모두를 구원하셨다고 말했다.

그들이 산턱으로 빠져 적을 옆으로부터 갈기려고 할 때 어느새 둔덕중턱에서 울리던 기관총소리는 마구 내갈기는 적의 일제사격소리에 휘말려든듯 흐리마리해지더니 별안간 동네 저편에서 적의 옆구리를 후려갈기기 시작하였다.

적들이 둔덕중턱의 버드나무만 겨누고 무질서하게 불질을 하며 치달아오를 때 기관총은 벌써 자리를 옮긴것이였다.

적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일부러 눈에 잘 뜨이는곳에 기관총사격좌지를 잡게 하셨다가 놈들이 휩쓸어들자 그 틈에 기관총을 빼내여 적들을 옆으로부터 공격하시려는 사령관동지의 의도를 비로소 다 깨달은 강세호와 리북철은 재빨리 대원들을 이끌고 장군님의 명령대로 기관총의 반대쪽 익측에서 적을 공격하였다.

적을 마주 끼고 치자 급해맞은 놈들은 더는 견딜수 없어서 앞산과 둔덕이 갈라지는 잘루목으로 내빼기 시작하였다.

이때 산천에 쩡 하고 메아리치는 사령관동지의 명령이 울렸다.

《돌격 앞으로!》

유격대원들은 총창을 비껴들고 만세소리도 드높이 골짜기로 덮쳐들며 적을 휩쓸어버렸다.

(이것이로구나. 신출귀몰이란 바로 이런것이로구나.)

리동백은 만세소리와 함께 내달리며 마음속으로 목메여 부르짖었다.

×

장군님께서 령활하신 전법으로 적의 포위를 역포위로 전환시키

시여 적의 대부대를 단숨에 산산토막을 내버리신 그날밤에 사령부 일행은 이미 푸르허 기슭에서 몇십리나 벗어져나온 숲속에서 우등불을 피우고 잠자리를 마련하였다.

통쾌한 승리로 끝나기는 했으나 힘겨운 전투를 치른데다 전에 없이 먼길을 헤쳐온 대원들은 모두 눕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끝까지 우등불을 지키고있던 리북철이마저 그믐달이 기울자 내리드리우는 눈시울을 비비기 시작하였다. 오직 사령관동지께서만 진대통우에 걸터앉으시여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어깨에 걸치신 솜외투의 깃에는 차츰 성에가 진하게 내불리고 앙상한 나무가지를 스쳐나온 쌀쌀한 찬바람이 무릎우에 펼치신 책장을 번지였다.

그것은 조국광복회의 강령초안이였다. 우등불가에 전투가방으로 지질러놓으신 또 한뭉테기의 원고는 장차 백두산지구에 진출한다음 광범한 군중들속에서 정치사업을 벌릴 때 쓰려고 준비하고계시는 원고였다.

방금까지 그 원고를 손질하시던 장군님께서는 문득 이미 써놓으신 조국광복회강령의 교육조항에 조선혁명의 특성이 더욱 뚜렷이 반영되도록 다듬으실 생각이 드시여 강령초안을 집어드신것이였다.

달이 기울어감에 따라 하늘에는 별들이 더욱 많아지고 더욱 초롱초롱해지는듯싶었다.

그것은 마치 구원을 부르는 수많은 조선의 어린 눈동자들처럼 그이의 사색을 끝모를 깊이에로 이끌어가는것이였다.

그이의 생각을 잡고 놓지 않는것은 별들만이 아니였다.

안도현 미혼진으로부터 무송현 마안산까지의 길은 장군님께 평생 지워질수 없는 지난날의 각가지 사연들을 걸음마다 련상시키는 감회깊으신 길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을 벌릴데 대하여 호소하신 송강,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시던 시기에 짧은 한때를 보내셨던 흥룡촌, 머슴으로 가장하시고 친히 지방정치공작사업을 하셨던 푸르허 가까운 농촌, 그 농촌은 낮에 전투를 치른 강기슭에서 량강구쪽으로 하루길이 못되는

거리에 있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깊어지는 병환에 계시는 어머님을 남겨두신채 갓 조직된 유격대를 이끄시고 남만으로 떠나시던 소사하, 남만에서 동만으로 가시던 걸음에 들리셨을 때에는 사랑하는 어머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영영 다시는 뵈올수 없으셨던 그 소사하 토기점골, 언 두부와 마실줄 모르시는 술 한병을 가운데 놓으시고 철주동생과 마지막으로 헤여지셨던 량강구…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무장투쟁의 첫걸음을 내짚으셨던 자욱자욱이였다.

사오년만에 그 땅을 다시 밟으시며 지나시는 장군님께는 걸음마다 가슴속에 방울방울 피눈물이 고이게 하는 추억이시였다.

또한 앞으로 마안산에서 벌리기로 계획하신 수많은 일들이 그이를 잠못이루시게 하였다.

조국광복회창립과 관련한 문건들을 완성하는 한편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외 여러곳으로 내보내야 할것이였다.

마안산에서 편성하기로 된 새 사단의 골간이 될 2련대의 일도 궁금하시였다.

제2련대는 마안산에 후방기지와 지휘부를 두고 지난 겨울을 무송일대에서 지내기로 되여있었다. 그들이 미혼진회의에 아무러한 련락도 보내오지 못한것으로 미루어보면 통신이 가닿지 못한것이 분명하였다.

과연 추측대로 통신이 가닿지 못했는지 아니면 자리를 어디로 옮긴것인지, 어느쪽인지 가보셔야만 아실수 있는 일이였다.

그이께서는 더는 한자 보탤수도 없고 깎아낼수도 없을만큼 빈틈없이 다듬어진 교육조항을 입안으로 외워보시다가 우등불가로 위태롭게 번져나오는 주봉길의 담요와 한종삼의 실한 장딴지를 조심스럽게 바로잡아놓으신 다음 천천히 찬서리 내리는 숲속길을 거니시였다.

아무리 힘든 행군끝이나 아슬아슬한 전투를 치르신 날도 장군님의 일과에는 조그마한 변화도 없으시였다.

대원들을 모두 잠재우시고 손수 우등불을 손질해가시며 바위나 진대통을 책상삼아 무르익은 사색을 글줄우에 옮겨놓으시는 이러

한 밤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리고 그 어떤 격렬한 전투가 지나간 날에도 그 어떤 위험한 적정이 예견되는 날에도 계속되였다.

2

마안산에서 맨먼저 사령부일행을 맞이한것은 텅 빈 낡은 절간이였다.

기와골에 해묵은 풀대들이 키높이 돋아있고 기둥들과 처마와 두공들을 장식했던 단청무늬들이 벗겨져 얼럭덜럭한데다 칠이 남아있다는것도 퇴색하여 볼품이 없이 되였다. 문짝들은 하나도 없고 안에는 부처도 없었다. 배가 홀쭉한 커다란 쥐 한마리가 제단우에서 바삐 뛰여내려 마루방구석을 한바퀴나 맴돌아치다가 삭아빠진 널마루구멍으로 사라져버렸다.

한 부엌아궁에는 바람에 쓸어든 눈이 오래전에 불타다 남은 나무토막과 재를 덮고있었는데 그 눈우에 크지 않은 짚신자국이 찍혀져있었다. 그와 꼭같은 신자국은 마당안에도 있었고 뒤뜰에도 있었다. 누구인지 이 절간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간 자국이였다.

행군중에 잠간 설핀 눈이 내린 때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틀전에 찍혀진 신자국이였다. 인민혁명군대원들은 흔히 지하족을 신군한다. 그러면 짚신은 어떤 사람의것인지? 자국의 크기로 보아 발이 아주 작은 사람이거나 녀자일듯했다. 혹시 이곳에 있을수 있는 제2련대소속의 후방병원이나 재봉대에 있는 어느 녀대원이 무슨 일로 이 절간에 다녀간것은 아닌지!

장군님께서는 강세호에게 몇명의 경위대원을 데리고 신자국이 난 방향으로 나가 사람을 찾아보라고 이르시였다. 리북철에게는 나머지 대원들을 데리고 숙영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주시였다. 그리고 자신께서는 두 전령병과 함께 절간 뒤봉우리로 올라가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전망을 살피기에 알맞춤한 자리를 찾으시여 거기에서 쌍안경으로 멀고 가까운 산발들과 골짜기들을 유심히 살펴보

시였다.
잎이 무성한 검푸른 상록수들과 가지들이 앙상한 회색빛 활엽수들이 엇섞인 혼성림속에 희끗희끗한 눈이 덮여있는 사위는 질은 적막속에 잠겨있었다. 횡포했던 겨울이 이고장의 모든 생명을 압살해버리기라도 한듯 날아다니는 날짐승의 깃소리조차 없고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서쪽으로 멀리 기울어진 태양의 설피고 뿌유스름한 빛이 비껴있는 드넓은 숲우에는 단 한줄기의 가는 연기도 떠오르는것이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다만 한군데에서 사람의 흔적을 발견하시였다. 양지쪽의 한 등성이에 아직 남아있는 흰눈우에서 분명 흙묻은 신자국이라고 짐작되시는 몇개의 반점들을 쌍안경으로 보신것이다. 그 신자국이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찾으러 나간 강세호네의 신자국인지 다른 사람의것인지는 멀리서 분간하실수 없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아직도 무릎을 치게 깊이 쌓여있는 눈을 헤치시며 다시 절간쪽으로 내려오시였다. 저절로 부러진 나무삭정이들을 보시는족족 주어안으시고 내려오신 그이께서는 두손에 잔뜩 흙발림을 하고 절간 부엌아궁을 손질하고있는 리북철에게 물으시였다.
《강세호동무네가 돌아오지 않았소?》
《네.》
하고 리북철이가 대답을 올리고났을 때 저쪽 숲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언뜻거렸다. 잠시후 그 숲속에서 숨차게 달려오는 강세호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람을 찾았거나 무슨 급한 정황이 생겼음을 짐작하신 장군님께서는 안고계시던 삭정이단을 던지시고 강세호에게로 마주 가시였다.
온 얼굴에서 김을 날리며 엎어질듯이 달려오던 강세호는 장군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멈춰섰지만 숨이 차서 입만 벌리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그의 얼굴은 땀에 젖어 번들거렸다.
《찾아냈습니까?》
기대에 찬 장군님의 물으심이였다.
강세호는 보고에 앞서 자기가 오던쪽을 손으로 가리켜드렸다.
《남실동무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길을 따라 나무들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숲쪽에 눈길을 보내고계시던 장군님께서는 강세호를 의아스럽게 돌아보시였다.

《남실이라니？》

《아동단지도원 한남실동무말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저윽 놀라시였다.

《그 동무를 어떻게 여기서 만났다는것입니까？ 왕청에 있을 동무가 이 무송의 산중에 와있다는것입니까？》

《네. 수색해나가다가 양지쪽 등성이에서 한 처녀가 어물거리길래 가봤더니 바로 그 동무가 피투성이 된 손에 나무꼬챙이를 들고 언 땅을 뚜지며 풀뿌리를 캐고있었습니다.》

《그래 그 동무가 어디 있소？》

《저기 뒤에서 같이 갔던 동무들이 부축해오고있습니다. 제대로 걷질 못해서 제가 먼저 보고하려고…》

그가 말을 채 끝맺기전에 장군님께서는 바삐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강세호는 돌따서서 그이를 따르고 곁에 와있던 리북철이도 눈을 움켜쥐여 흙묻은 손을 씻으며 뒤따라갔다.

강세호가 걸어왔던 발자국이 나있는 숲속으로 서둘러 마중나가시던 장군님께서는 저앞에서 두 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는 한 처녀의 모습이 나타나자 주춤 발걸음을 멈추시였다.

기진하여 끌려오다싶이 겨우 걸음을 옮겨짚으며 마주걸어오던 처녀도 장군님의 모습을 알아봤는지 흠칫 몸을 떨며 멈춰서고말았다.

자기를 부축해주는 두 대원들의 손을 가볍게 물리치고 금시 앞으로 달려나오려는 처녀에게서 퍼그나 변했지만 역시 틀림없는 한남실의 모습을 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한남실동무！》

하고 소리쳐부르시며 성큼 남실의 앞으로 다가가시였다.

《장군님！》

그리웠던 장군님을 우러러부르며 그이를 향하여 마주 걸음을 내짚던 남실은 그만 몸을 비칠거렸다. 남실은 이 순간 강심을 먹고

겨우 자신을 지탱해오던 최후의 탕개마저 다 풀려버린듯 비칠거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바삐 그에게 다가가신 장군님께서는 금시 쓰러지려는 그를 붙잡아주시였다.

곁에 있던 강세호가 대신 부축하려들자 그이께서는 솜외투를 벗어 눈우에 펴놓으라고 이르시고 그우에 남실을 조심스럽게 앉히신다음 그의 등뒤에 배낭을 괴여주시며 비스듬히 눕히시였다. 그러시고는 눈우에 처져내린 한남실의 손을 그의 가슴우에 끌어올리시다가 손톱눈마다 피지고 흙이 끼여있는것을 흐린 안색으로 살피시고 그의 얼굴과 차림새도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한남실의 피기없는 해쓱한 뺨에는 나무가지에 긁힌 자리들이 나있었고 푸릿푸릿하게 언 입술은 부르터있었으며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배여든 눈확은 푹 꺼져들었다. 그의 차림도 말할수 없이 험상궂었다.

허울만 남은 후렁후렁한 솜저고리,여지없이 해져 아래단이 너슬너슬한 치마,갖가지 천으로 깁고 또 덧기워신은 버선,여러개의 신총이 닳아떨어진 헌 짚신… 그 짚신은 발에서 벗어지지 않게 나무껍질로 돌려감겨져있었다.

《찾을 때 무엇을 하고있더라구?》

장군님께서는 강세호를 돌아보시였다.

《나무꼬챙이로 언 땅을 헤치며 저 풀뿌리를 캐고있었습니다.》

강세호는 한남실을 부축해왔던 한 대원이 들고있는 보자기를 받아서 그이께 보여드렸다.

《이겁니다.》

뚫어진 헌 보자기구멍으로 언 흙이 묻어있는 풀뿌리 하나가 비죽이 내밀려있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그 풀뿌리보자기를 보신 장군님께서는 다시 남실의 얼굴에 눈길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실의 눈굽에 괴여있는 눈물을 훔쳐주시였다.

장군님의 손길을 감촉한 순간 남실은 정신이 들었던지 두눈을 떴다. 맑고 푸른 하늘을 담아서인지 온 얼굴에서 전이나 다름없

는 아름다움을 유일하게 간직하고있는 쌍까풀이 진 시원한 두눈이 그리웠던 장군님의 영상을 다시 우러르게 되자 금시 옹달샘같이 맑은 눈물이 흥건히 괴여올라 그렁그렁해졌다.

《장군님!》

움쭉거리는 마른 입술짬으로 낮은 흐느낌같은 목소리가 새여나왔다. 이상스럽게도 가슴을 저미게 하는 목메인 부름이였다. 흐느껴우는 처녀의 량눈귀로 마구 솟구쳐올라 넘쳐나는 눈물이 장군님의 군복을 적시였다.

모두가 눈을 슴벅거렸다.

장군님께서도 눈물이 핑 감도는 눈으로 한남실을 지켜보시며 그의 손을 잡아주시였다.

《내가 여기 있소. 진정하고 정신을 차리오.》

《장군님…》

남실은 울음섞인 목소리로 외우더니 문득 말을 끊고 주위를 돌아보다가 다시 장군님을 한동안이나 우러러보았다.

《이젠 좀 말해보오. 왕청에 있던 동무가 어떻게 돼서 여기 마안산에 와서 풀뿌리를 캐게 됐는지?》

남실은 울음때문에 말을 더듬으며 소왕청에서 아이들과 같이 장군님을 찾아 떠나지 않을수 없었던 일과 눈덮인 밀림속을 헤매며 고생하던 일들 그리고 마안산까지 와닿게 되던 일들을 죄다 말씀드렸다. 꿈결에도 그리던 장군님을 만나뵈옵게 된 지금 남실은 자기의 이야기가 얼마나 장군님의 가슴을 아프게 해드리는가를 미처 생각할수가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이따금 목갈린 음성으로 《그래서…》, 《그담에는…》 하는 짤막한 말씀으로 남실의 이야기가 끊기지 않도록 재촉하시면서 묵묵히 들으셨지만 자신께서도 모르시는 사이에 손가까이에 있는 묵은 풀대들을 마구 잡아뜯으시였다.

《그래서?…》

《우리가 마안산에 왔을 때엔 우리 전에 다른곳에서 모여온 숱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와있는게 소왕청아이들만이 아니요?》

《아닙니다. 처창즈유격근거지에서 살다가 근거지가 해산된 다음 내두산을 거쳐서 여기 와있는 아동단원들도 있구 먼 연길지방과 화룡지방에서 온 아동단원들도 있답니다. …》

《그 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소?》

《적들의 추격을 받으며 산속에서 헤매다가 통신원을 만나서 온 아이들도 있고 저희들끼리 대오를 지어다니다가 유격대원들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이들을 시끄럽다고 쫓아버리며 먹을것도 안주고 이 추운 겨울에 헐벗은걸 보구서두… 전혀 돌봐주질 않아서… 그 숱한 애들이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고생하고있었습니다. …》

한남실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며 섧게 울었다. 마르고 튼 손가락짬으로 눈물이 새여나와 얼럭덜럭 기운 검정치마폭에 뚝뚝 떨어졌다.

《누가 아이들을 쫓는단말이요?》

이곳 마안산에 있는 민족배타주의자들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그자들은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그 아동단원들이 유격활동에서 큰 《부담》으로 된다고 하면서 전혀 돌봐주지 않았다는것이다. 그들은 아동단원들이 가까이에 있으면 적들에게 밀영이 드러날 위험성이 많다고 하면서 다른데로 가라고 하다가 의지가지할데 없는 아이들이 곁에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자기네가 피해가서 깊숙한 밀림속에 따로 밀영을 짓고있으면서 아이들은 근처에 얼씬하지도 못하게 했다는것이다. 아동단원들을 따돌릴 궁리만 해온 이자들은 량식조차 제대로 대주지 않았고 엄동설한에 떨고있는것을 보고도 옷 한벌 해입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자들은 심지어 나어린 아동단원들에게까지 《민생단》련루자라는 터무니없는 딱지를 붙여놓고 애들을 천대하고 멸시했다는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여느 유격대원들은 아이들을 도와줄 생각이 간절해도 《민생단》으로 몰려 죽을수 있다는 두려움때문에 아무도 도와주려는 엄두조차 내지들 못한다고 하였다.

《〈민생단〉이란건 무슨 소리요? 아직도 〈민생단〉에 몰리

는 사람들이 있단말이요?》

《있다뿐이겠습니까? 여기 있던 제2련대에만도 백명나마 된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총알도 세알씩만 주고 전투에도 참가시키지 않는답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던 험악하고 복잡한 사태가 벌어지고있다는것을 아시게 된 장군님께서는 몹시 놀라시였다.

《민생단》문제와 관련된 여파가 약간 남아있으리라는것은 예상 못한것이 아니지만 다홍왜회의와 요영구회의가 있은지 한해가까이 지난 지금은 이미 거의 다 풀렸으리라고 생각해오신 장군님이시였다. 그런데 제2련대에만도 백여명씩이나 아직까지 《민생단》혐의를 받고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놀라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그러면 제2련대는 모두 어디 있소?》

《련대의 기본성원들은 교하쪽으로 원정을 가고 〈민생단〉련루자들만 여기 남아있었는데 그들도 지금은 여기 없습니다.》

교하면 여기서 남호두보다 오히려 먼곳이다. 련대의 기본성원이 그 먼곳에 가버리고있는데다가 전투원 취급조차 못받는 백여명의 남은 성원들조차 없다는 소식에 장군님께서는 마음을 버티여주며 서있던 기둥이 졸지에 뽑혀져버린것 같은 느낌이시였다.

《그 혐의자들은 어디에 갔소?》

《먹을게랑 없고 해서 못가게 막는것을 뿌리치고 전투하러들 림강쪽으로 나갔답니다.

그 〈민생단〉련루자들이 림강쪽으로 전투하러 떠나게 되자 그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여기 남아있던 정치주임이랑은 그들이 변절해서 적을 달고올수 있을게라고들 하면서 밀영을 갑자기 또 딴데로 옮겨버렸답니다. …》

어느덧 장군님께서 앉으신 자리에는 부스러지고 부러진 풀대들이 수북이 쌓였다.

엄하신 낯빛으로 묵묵히 생각에 잠기시여 어딘가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무작정 풀대를 쥐여뜯으시던 장군님께서는 마침내 바스라진 풀대를 던지시고 결연히 일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원들

에게로 돌아서시였다.

《동무들, 숙영준비를 그만두고 길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군님께서는 리북철을 찾으시였다. 리북철은 몸을 바로잡으며 그이의 앞에 다가섰다.

《동무는 이제 걸음을 잘 걷는 동무들을 두사람 데리고 림강쪽으로 나가면서 〈민생단〉혐의자들의 행적을 찾아 그들을 본래 있었다는 련대 귀틀집으로 데려오시오.》

《알겠습니다.》

《련대장동무!》

장군님께서는 강세호를 부르시였다.

《동무는 이곳 정치주임이 숨어있는데를 찾아서 교하방면으로 원정갔다는 련대의 기본성원들이 즉시 마안산에 오도록 통신원을 보내라고 하시오. 우리 경위대동무를 보내도 좋소. 만일을 생각해서 통신원으로 보낼수 있는 두 동무를 데리고가시오. 그리고 정치주임을 데리고 나에게 오시오. 나는 아이들에게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나머지 성원들과 한남실을 데리고 아동단원들이 있는곳으로 향하시였다.

3

장군님께서는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가르시며 말잔등처럼 밋밋한 산릉선을 넘으시고 전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가 서있는 좁은 골짜기에 들어서시였다.

한남실을 친히 부축하시며 이곳까지 오시는동안 장군님께서는 내내 말씀이 없으시였다.

푸른 전나무가지사이로 아동단원들이 든 귀틀집 통나무벽이 들여다보이였다.

전나무밑에서 이쪽을 바라보고있던 응남이가 이깔나무사이로

얼른거리는 한남실의 모습을 먼저 알아보고는 《야, 선생님 오신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어디, 어디.》 하며 아이들이 응남의 곁으로 달려왔다.

응남이가 이쪽이라고 손짓을 하자 아이들은 저마끔 목을 빼들고 한남실을 찾았다. 그중 한 아이가 옳다고 손벽을 치며 귀틀집으로 달려가서 출입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안에다 대고 무엇이라고 소리치자 방안에 있던 아이들이 와르르 쏟아져나왔다.

아이들은 와— 환성을 올리며 앞을 다투어 마주 달려오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지켜보았다. 의혹의 선풍이 아이들을 휘감았다.

《장군님이시다!》

어느 아이의 입에선가 이런 나직한 부르짖음이 울려나왔을 때 아이들은 일시에 그대로 얼어붙은듯이 굳어져버렸다. 여월대로 여위여 잔뜩 커보이는 눈들만이 놀라움에 차서 펀들거렸다.

한순간이 지나자 한쪽 무릎살이 드러나는 궤진 바지를 입고 맨앞에 서있던 응남이가

《장군님!》

하고 소리치며 마구 어푸러질듯 앞으로 내달려왔다.

《엎어들지겠다. 천천히! 천천히!》

장군님께서도 마음이 급해지여 걸음을 다그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이들을 그러안아주려고 벌써부터 두팔을 벌리시였다.

그러나 몇걸음앞에서 응남은 웬일인지 달려오던 걸음을 갑자기 멈추고 우뚝 서버렸다. 그리고 자기를 밀치며 옆으로 삐여져나가려는, 커다란 어른의 헌 옷을 입은 다른 아이의 옷자락을 덥석 그러잡았다.

응남이에게 잡혀 멈춰선 아이는 그를 힐끗 돌아보더니 골을 낼대신 슬며시 응남이뒤에 숨었다. 그 애는 벌겋게 드러난 한 어깨를 너펄거리는 다른쪽 팔소매로 가리웠다.

다른 애들도 모두 응남의 뒤에 몰켜서며 몸을 사리였다. 깁고 또 기웠지만 더는 어쩔수 없이 찢기고 불에 타고 닳아떨어져서 몸에 걸쳤다는 명색뿐이지 기실 벌거숭이나 다름없는 행색들이였다.

비록 어린 아이들이였지만 저들의 옷이 너무나 험상궂고 람루했던 탓에 그리도 그리웠던 장군님을 만나뵙는 이 가장 기쁘고 환희로운 순간에 선뜻 그이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것이다.

그들을 향해 두팔을 벌리고 마주다가가시던 장군님께서도 아이들이 주춤 멈춰서자 팔을 벌리신채 한동안 말없이 서계시기만 하시였다.

소왕청에 계실 때 아동단학교에 찾아가시거나 다른곳에 나가셨다가 근거지마을에 돌아오실 때면 남먼저 함박꽃같은 웃음을 담고 달려와 아동단경례를 붙일것도 잊어버리고 가슴에 안기고 옷자락에 매달리던 그 응남이와 경수들이였다. 산에산에 붉게 핀 진달래꽃같이 웃음꽃을 피우며 에워쌀 꽃봉오리들이 된서리를 맞고 처참하게 시들어버려 단 한송이의 웃음꽃도 피우지 못하는것을 보시는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저리시였다.

《어서 이리 오너라! 어서…》

아이들께로 다가가신 장군님께서는 그 무슨 죄라도 진것처럼 고개를 떨어뜨리고 헌 짚신을 걸친 시뻘건 맨발 발등우에 굵은 눈물방울을 떨구며 서있는 응남이의 더벅머리를 그러안으시였다.

《얼마나 고생들 했느냐? 얼굴이 다 이렇게 텄구나.》

장군님께서는 광대뼈가 엉성하게 두드러진 응남이의 터슬터슬한 볼을 쓰다듬으시며 혼자말씀처럼 외우시였다.

《이렇게 헌 홑것들을 입고 지내면서 먹지들두 못하고…》

그이께서는 솜외투 앞자락으로 어깨살이 드러나는 어른의 헌옷을 입은 아이를 감싸주시고 다른손으로 그 옆에 서있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주시였다. 아이들은 모두 눈길을 떨군채 머리들을 들지 못했다.

장군님께서는 손이 미치지 않으시여 미처 다 쓰다듬어주지 못하시는 수많은 아이들을 잠시 흐린 안색으로 굽어보시였다.

《애들아, 얼굴을 들어라. 너희들이 헐벗고있는것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흐느낌을 자아내는 한줄기 금선이 울리더니 아이들속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였다. 부모를 빼앗은 원쑤놈들을 보지 않고 살자고

천신만고하여 찾아온 여기 마안산에서 따뜻이 품어줄줄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지독한 랭대를 받으며 헐벗고 굶주려온 아이들이 이제야 비로소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속에 안겼음을 문득 깨달은것이다.

《자, 어서들 집안에 들어갑시다. 아이들이 춥겠소.》

장군님께서는 우는 아이들의 잔등을 떠밀어 앞세우시며 대원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은 장군님 앞에서 물러서며 길을 틔워드렸다. 그중 어려보이는 두 아이의 차거운 손을 량손에 나눠잡으시며 걸음을 옮기시던 장군님께서는 길옆의 커다란 참나무그루뒤에 외따로 떨어져 숨어 울고있는 소녀를 보시자 다시 걸음을 멈추시였다.

순녀였다. 근거지에서 잘 싸우다 희생된 부녀회장 채섭의 딸 문순녀가 틀림없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뒤늦게 달려나온 탓에 가까운 자리에 설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무뒤에 홀로 멈춰서서 울고있는 순녀를 대하신 장군님께서는 가엾은 소녀에게로 발걸음을 돌리시였다.

《순녀야! 내가 왔다.》

손을 등뒤에 감춘채 울고있던 순녀는 장군님께서 자기앞에 다가오시자 한걸음 나서며 말없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다. 등뒤에서 풀려나온 순녀의 한손에는 다섯송이의 종이꽃이 달린 꽃가지가 들려있었다. 한남실이한테서 언제인가 장군님을 꼭 만나게 되리라는 이야기를 명심히 들어두었던 순녀는 오늘 남실이가 풀뿌리를 캐러 나간 짬에 꽃을 만든 모양이였다.

순녀는 그 종이꽃가지를 두손에 정히 받쳐 장군님 앞으로 내밀었다. 순녀의 흐느낌을 따라 공책장으로 만들어진 동그스름한 진달래꽃잎들이 바르르 떨고있었다.

금시 순녀를 안아주려고 팔을 벌리시려던 장군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꽃을 보시자 잠시 그대로 서계셨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줄도 모르고 이제야 왔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꽃다발을 주는구나. …》

그이께서는 목메인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꽃가지를 가냘픈 두손에 정히 받쳐들고 내민채 받으시라고 간청하는듯한, 애원하는듯한 순녀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져 그 엷은 종이꽃잎에 맺혔다가 잦아들었다.

《순녀야!》

장군님께서는 꽃가지를 든 순녀를 품에 안으시였다.

《이제야 온 나를 용서해라.》

아이들앞에서는 좀해서 눈물을 보이신적 없으신 장군님께서도 이 순간에는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군복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였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귀틀집안으로 들어가시였다.

싸늘한 랭기가 감돌고있는 썰렁한 집안에는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있었다. 단 한잎의 누데기이불도 덮지 못하고 앓아누워있는 수십명의 아이들이 해질대로 해진 거적때기우에 찢어진 홑옷들을 입은채 새우등처럼 꼬부리고 여기저기 몰켜있기도 했고 널려있기도 했다. 혹한과 굶주림 속에서 병을 얻어 일어나앉을 기운조차 없는 아이들이였지만 그리웁고 그리웁던 장군님께서 들어서시는것을 보자 어떻게 하나 일어나보려고, 일어나서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안깐힘을 쓰며 움쭉거렸다.

《누워들 있거라. 가만히들 누워있어라.》

장군님께서는 일어나려고 애쓰는 아이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달아오른 이마도 짚어보시였다. 그러시다가 한 아이의 머리맡에 보이는 하모니카를 손에 드시였다. 간살들이 부러지고 도금이 거의 다 벗겨지고 녹이 쓴 하모니카였다.

《소리가 나오?》

장군님께서는 한남실을 돌아보시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다 낡아서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지만 몹시들 애지중지하며 저저마다 불고싶어합니다.》

《저저마다 불고싶어한다. …》

장군님께서는 남실의 말을 조용히 되뇌이시며 다시금 잠시 그 녹쓴 하모니카를 이리저리 살펴보시다가 아이의 머리맡에 도로 놔주시였다.

무거운 침묵이 넓은 귀틀집안에 서렸다. 벽틈으로 스며들어 집안을 휘도는 바람에 길게 드리운 먼지투성이 거미줄들이 흐느적거렸다.

아무 말씀도 없이 한동안 방안을 둘러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입고계시던 솜외투를 벗으시였다.

그이께서 외투를 벗으신 까닭을 헤아린 눈치빠른 주봉길은 얼른 배낭을 벗어 배낭뒤에 매달았던 달달 말린 모포를 풀었다. 거의 동시에 다른 대원들도 모두 모포를 풀었다.

장군님께서는 손수 자신의 외투를 펴시여 찬바람이 스며드는 창문가에 누워서 눈물에 젖은 입술을 감빨며 일어나려고 애쓰고있는 머리가 감실감실하고 눈이 큰 소녀에게 다가가시였다.

주봉길은 모포를 들고 장군님 곁으로 갔다.

《외투는 그만두십시오. 여기에 모포가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냥 아무 말씀도 없이 외투를 덮어주시고 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들린데를 여며주시였다.

봉길의 아버지에게 털외투를 벗어주신후 한동안이나 외투 없이 한겨울을 지내시던 장군님께 겨우 장만해올린 솜외투였다.

《여기 모포가 있습니다.》

주봉길은 다시금 좀더 큰소리로 아뢰며 모포를 내려놓고 외투자락을 집었다.

장군님께서는 전령병의 손을 잡으시였다.

저저마다 모포를 들고나선 대원들과 전령병을 돌아보시며 장군님께서는 목갈린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이 아이들이 병들어 누워있고 추위에 떨고있는데 내가 백벌의 외투를 입는다고 한들 내 마음이 더워질수 있겠소?!》

그러시고는 주봉길이 들고있는 모포를 다른 아이들에게 덮어주시였다.

주봉길이도 리동백이도 그리고 다른 경위대원들도 모두 눈물을 떨어뜨리며 아이들에게 모포를 덮어주었다.

장군님을 따라 귀틀집안에 들어와있던 한남실이와 앓지 않는 아이들도 눈들을 슴벅거렸다.

그럴 때 출입문이 열리더니 강세호가 들어서고 뒤이어 목깃에 오소리털을 댄 두툼한 솜외투를 입고 새까만 곰털모자를 쓴 얼굴이 갱핏하게 생긴 사람이 문턱을 넘어 귀틀집안에 들어섰다. 그 두번째 사람이 들어서는것을 본 아이들은 일시에 약속이나 한것처럼 반사적으로 몸을 흠칫하였다. 아동단원들의 눈에서는 감출수 없는 두려움과 적의가 번쩍이였다.

급히 걸어온듯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귀덮개를 올린 털모자굽에서 김이 문문 서려오르는 강세호는 곧장 장군님 앞으로 다가가서 보고를 올렸다.

《사령관동지의 명령대로 제2련대에 통신원을 파견하고 정치주임동무를 찾아서 데려왔습니다.》

《누구를 파견했소?》

《아까 데리고갔던 사령부 경위대동무들을 보냈습니다. 그 동무들이 보다 책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수고했소.》

장군님께서는 강세호의 곁에 선 정치주임이라는 사람을 돌아보시였다.

정치주임은 갱핏한 두볼에 활등같은 여러겹의 주름살이 잡힐만치 폭이 넓은 웃음을 지으며 깍듯이 거수경례를 붙였다.

《안녕하셨습니까, 사령관동지! 정치주임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아무러한 대답도 하지 않으시였다. 악수조차 청하지 않으시였다. 지휘성원이건 보통대원이건 처음 만나시는 사람에 대하여 이처럼 준절하게 대하신적은 한번도 없으셨던 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엄하신 눈길로 정치주임을 뚫어지게 지켜보시였다. 억눌러오시던 분기를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장군님의 안광에서는 시퍼런 번개불같은것이 번쩍 또 번쩍 연거퍼 일었다.

《당신이 정치주임이요?》

장군님께서는 정치주임을 다시한번 훑어보시였다. 정치주임의 얼굴에 그려졌던 웃음은 졸지에 사라졌다. 그의 낯빛은 백랍같이

새하얘졌다.

《좀 나갑시다.》

콱 나꾸어채시는것 같은 한마디 말씀을 던지신 장군님께서는 군복자락에서 서늘한 바람을 일으키시며 출입문쪽으로 향하시였다.

4

몹시 격노하신 장군님께서 정치주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는것을 지켜보고있던 강세호는 지체없이 뒤쫓아나갔다.

그는 장군님께서 다른 모든 잘못들에 대하여서는 너그럽게 용서하실수 있으셔도 아이들과 관련된 잘못에 대하여서는 비록 그것이 아무리 가벼운것일지라도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으신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하물며 아이들을 잔혹하게 박해하며 쫓아내고 굶긴자들속에 섞여 지내온 한 지휘성원에 대해서랴!

강세호는 자기까지 송구해지는것을 느끼며 다른 경위대원들과 함께 긴장되고 엄숙한 낯빛으로 조심스럽게 뒤따라갔다.

음산한 저녁이였다.

하늘은 찌뿌드하니 흐려있고 어둑시근한 땅에서는 음울한 안개가 그물거리고있었다.

거목들이 우중충 들어찬 숲속에는 한결 짙은 어둠과 쥐죽은듯한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와자작… 바자작… 와자작… 바자작…

무거운 발에 밟혀 바스러지는 얼음버캐소리가 잔뜩 긴장된 공기를 한층 더 팽팽히 헤워놓았다.

와자작… 바자작… 와자작… 바자작…

점점 더 사이뜨게, 그러나 점점 더 아츠럽게 울리던 그 소리는 불시에 그쳐버렸다.

갑자기 들이닥친 정적은 고막에 부딪치며 잉— 하는 야릇한 소리

를 길게 질렀다.

침묵, 숨가쁜 침묵이 가슴들을 꽉 지지눌렀다.

불시에 그 침묵을 깨뜨리며 숲속에 메아리치는 장군님의 준절하신 목소리가 울리였다.

《당신도 인간이요？！》

숲속을 쩌렁하게 울린 그 메아리가 사라지기도전에 다시 연거퍼 울렸다.

《당신도 공산주의자요？》

길게 끄는 메아리가 잦아들고 또다시 야릇한 소리를 내는 정적이 깃들었지만 대답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인간으로서, 혁명한다는 사람으로서 어찌 아이들을 저 지경이 되도록 박대하는걸 보고만 있을수 있었소？ 무엇이 두려워서？》

《…》

정치주임은 바스락소리도 내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서있었다.

《저 아이들이 〈민생단〉에까지 들었다고 했다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서 〈민생단〉에 들수 있고 〈민생단〉을 위해서 무엇을 했겠는가 어디 좀 말해보시오.》

《…》

숲을 흔들며 머리우로 스쳐지나가는 바람소리가 여전히 대답 없는 침묵의 공간을 메워버렸다.

장군님께서는 격노하신 심정을 억눌러가시며 안타깝게,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생각해보시오. 저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그들의 부모는 모두가 일제와 싸우다 희생되였고 그들자신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끝까지 부모의 원쑤를 갚고 혁명을 하겠다고 유격근거지가 해산된후에도 적통치구역에 내려가지 않고 이곳까지 유격대원들을 따라왔소.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잘 돌봐주기는 고사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민생단〉련루자로 몬다는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커다란 죄악이요？…》

점점 더 깊이 머리를 숙인채 웅크리고 서있는 정치주임은 버섯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썩은 나무등걸 같았다.

《…조금이라도 인간다운데가 있고 혁명가다운데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을 저렇게 참혹하게 만들진 않았을것이요. 조금이라도 혁명가다운 의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와 한길에서 손잡고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전우들의 유자녀들을 저렇게 내버려두지 않았을것이요. 조금이라도 혁명가다운데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저 아이들을 저렇게 무참히 짓밟아버리지 않았을것이요.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혁명을 우리 대에 다하지 못하면 저 아이들이 하게 하고 또 저 아이들 대에도 다하지 못하면 그 다음 대에까지라도 이어가며 기어이 혁명을 완성하게 해야 하지 않겠소? 우리가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자신이 잘 싸울뿐아니라 혁명의 장래가 달려있는 저 아이들을 잘 길러내야 하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혁명가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는것이요.…》

장군님께서는 허리를 짚고계시던 량손을 내리우시며 말씀을 끊으시였다.

고개를 떨구고서서 여직껏 두손으로 벗어든 모자를 주물럭거리고있던 정치주임은 머리를 들었다. 삽시에 해쓱하게 질린 그의 갱핏한 얼굴에는 짙은 회오의 빛이 떠올랐다.

깊은 한숨을 앞세우면서 그는 얼어붙은것 같던 입을 열었다.

《잘 알겠습니다, 사령관동지!》

뜻밖에 활달한 목소리였다. 자책의 한숨뒤에 내놓은 그 말소리는 잘못을 깨우친 사람의 기쁨을 여실하게 표현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새삼스럽게 정치주임을 훑어보시였다.

《그 말이 너무 이르지 않소?》

그이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가슴이 얼어들만큼 서리발찼다.

《사랑에 대하여서는 머리로 깨닫기보다 심장으로 느껴야 하오. 사랑은 심장으로 하는것이지 머리로 하는것이 아니요.》

정치주임의 한쪽 볼편에 순간적인 경련이 일었다. 여윈 얼굴에 비하여 낯가죽이 두터운때문인지 그 경련은 곁에서 그를 지켜보고있던 강세호의 눈에 겨우 알릴락말락했다.

정치주임의 머리는 서서히 아래로 숙어졌다. 처음에는 눈만 내리

깔았다가 다음에 머리를 숙인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곰털모자를 주무르지도 못하고 까딱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를 측은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끊으셨던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소? 동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것이 우리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책임이구 의무이며 앞서간 전우들에 대한 혁명가의 의리를 지키는것임을 모르리라고 생각해서 한 이야기인줄 아오? 동무가 그걸 모를수 없소. 동무는 총명한 사람이요. 지나칠만큼 총명하오. 너무나도 응당한것을 알면서 실행하지 않은게 분하고 안타까와서 한 소리요. 살을 베보면 우리나 다름없이 뻘건 피를 가지고있을 사람들이, 가슴을 헤쳐보면 우리나 다름없는 심장을 가지고있을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수 있소? 어쩌면 그럴수 있나말이요?》

어느덧 처음 그를 만나신 순간처럼 다시금 격노하신 장군님의 눈에서는 푸른 불이 일었다.

《왜들 그랬는지 말해보시오. 왜 아이들이 저 지경이 되도록 돌봐주지 않았는지 어디 좀 말해보시오.》

정치주임은 그냥 머리를 떨구고 서있었다.

《대답하시오!》

그이의 목소리는 숲속을 쩌렁하게 울렸다.

정치주임은 흠칫 몸을 떨었다. 그는 가까스로 얼굴을 쳐들었으나 입술이 떨려 말을 못했다.

한참 있다가 떠듬거리며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 아이들이 모두… 〈민생단〉 련루자들이라고 해서…》

《무슨 근거로?》

《각처에서 아이들을 데리고왔던… 그 유격대원들가운데 〈민생단〉 련루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생단〉 련루자들이 데리고온 아이들이니 그 애들도 련루자다 그말이요?》

《네.》

《또 다른 근거도 있소?》

《그 아이들이 대개 〈민생단〉 련루자로 처단된 사람들의 자식들이라고…》

《아이들자신이 그렇다고 했는가?》

《그런건 없는데 그저 그 사람들이…》

정치주임은 민족배타주의자들에 대하여 애매하게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니 확실한 근거는 없단말이지?》

《네… 저…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마안산에 데리고온 유격대원들가운데 〈민생단〉 련루자가 있다는 근거는 있소?》

《예, 증거문건들이 있습니다. …》

《그 문건들을 동무가 보았소?》

《보았습니다. 제가 보관하고있습니다. 제가 있는 밀영에 가면… 있습니다.》

《그 백여명의 증거문건을 다 동무가 가지고있소?》

《네.》

장군님께서는 버석하고 얼음버캐를 밟아 바스러뜨리며 천천히 돌아서시더니 무거운 걸음을 옮겨짚으시였다.

괴로운 심경에 잠기시여 머리를 숙이고 무작정 걸어가시는 사령관동지를 이럴 때면 어떻게 모셔드렸으면 좋을지 알지 못하는 강세호와 경위대원들은 그저 안타까이 그이의 발자국소리에 귀기울이고있을뿐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들처럼 그 자리들에 못박혀 서있었다.

동안이 뜨게 울리는 그이의 발자국소리는 숲 안쪽으로 멀어졌다가 가까와졌다. 그이께서는 아까 그 자리에 돌아오시여 멈춰서시며 낮으나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그 문건들은 앞으로 내가 직접 검토해보겠소. 어른들은 〈민생단〉 협의자들이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엄연하게 증거문건들이 있다니까 문건을 본 다음에 판단하기로 합시다. 그런데 어른들이 〈민생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따라온 아이들이 어떻게 〈민생

단〉으로 된다는것이요? 협의자들과 같이 왔다는 사실만 가지고 애들도 협의자로 몰수 있단말이요?》

언뜻 눈길을 들었다가 떨어뜨리는 정치주임을 지켜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뒤짐을 푸시며 단호히 언명하시였다.

《아니요!》

그이께서는 두주먹을 꽉 틀어잡으시였다.

《우리 아이들을 〈민생단〉으로 몬것은 아이들이 귀찮으니 만들어낸 구실이요.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기 시끄럽구 싫으니 꾸며낸 작간이요. 그것은 우리 혁명에 대한 배신행위요!》

부르쥐신 오른 주먹을 흔드시며 격하게 말씀하시는 그이의 목소리는 하늘을 무너뜨리고 땅을 헤가를듯한 노호한 우뢰소리마냥 숲속을 뒤흔들었다.

장군님께서는 누구에게라없이 격하신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처럼 엄중한 일이 벌어질줄 모르고 먼길을 헤쳐나왔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맞다들린게 몹쓸 문제거리라는 사람들 백명에 한뭉테기의 〈민생단〉보따리, 돌봐주기 싫어서 내버린 저 아이들이란말이요?》

장군님께서는 이글이글 불타는듯한 눈길로 머리들을 떨구고 분한 눈물을 흘리고있는 경위대원들을 한사람한사람씩 둘러보시였다. 강세호, 한종삼이, 두칠이, 주봉길이, 현팔이… 마지막의 리동백에 이르기까지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그들모두를 부르시였다.

《동무들! 머리들을 드시오!》

그이께서는 눈을 슴벅거리는 경위대원들을 다시한번 둘러보시였다.

《눈물을 닦으시오!

우리는 한보따리의 바라지 않은 종이뭉테기밖에 받아안을것이 없지만 조선혁명은 승승장구하게 될것입니다. 조선혁명의 훼방군들은 이미 남호두에서 완전히 격파되였습니다. 그자들이 우리 혁명의 앞길에 이미부터 쳐놓았던 장애물들이 아직 더러 남아있을뿐입니다.

동무들, 마음들을 굳게 가다듬으시오. 기가 꺾이지 말고 신심을 잃지 말고 더러 남아있는 장애물들을 치워버리고 용감하게 박차면서 우리 조선혁명의 창창한 앞길을 닦아나갑시다. 조선혁명의 일대앙양의 길을 굳세게 헤쳐나갑시다!》

강세호는 머리를 높이 쳐들고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모든 대원들이 가슴을 쭉 펴고 그이를 우러르며 새로운 결심들을 가다듬었다.

5

리북철은 두 대원과 같이 룡강산줄기의 어느 한 수림속에서 어둠과 추위와 물탕과 싸우면서 여기저기 헤매고있었다. 그들은 늦어도 자정쯤에는 림강땅에 들어서려고 계획했었다. 그러던것이 뜻밖에 내리는 진눈까비와 물탕때문에 현경계를 20리 앞둔 지점에서 온통 물주머니가 되여 어둠속에서 헤매고있는것이였다.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지 못하고 그냥 헤매고있는 그들은 누구도 입밖에 내지 않았지만 인제는 행군을 중단하고 날이 샐 때까지 나무밑에서 진눈까비를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버릇처럼 발을 옮기고있었다. 선두에 서서 걷던 리북철이 무릎까지 치는 물웅뎅이에 빠졌다가 발을 빼고 돌아서며 손을 내흔들었다.

대원들은 진눈까비에 푹 젖어서 잔뜩 무거워진 솜군복을 와스락거리며 걸음을 멈추었다.

어둠속에 희끄무레하게 누워있는것이 녹다 남은 눈인줄 알았는데 물바다였다. 세사람은 잠간 머물러서서 의논하였다.

벌써 이런 일이 두번 거듭되는셈이였다. 한번 머리속에 새겨둔 길은 눈감고도 어김없이 찾아간다던 리북철도, 림강지대의 태생이여서 이 아근의 지리는 손금꿰듯한다던 문룡이도 이같이 지독스러운 어둠과 진눈까비의 조화 앞에서는 손을 들었다. 어둠은 모

든것을 삼켜버렸다. 더구나 진눈까비때문에 생긴 《홍수》는 모든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들은 한참동안 미츠러지고 무릎걸음을 하며 《물바다》를 에돌아서야 간신히 산릉선을 찾았다.

리북철의 신호에 따라 대원들은 소가죽같이 꽛꽛해진 외투를 와스락거리며 걸음을 옮기였다. 이때에도 리북철이의 머리에는 행군을 중단하고 날이 샐 때를 기다려 걸음을 다그치는편이 오히려 빠르리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100여명의 《민생단》혐의자들의 소식과 자기들을 기다리시여 잠못이루실 사령관동지를 생각할 때 리북철은 가다가 밤을 지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한순간도 쉴수 없다고 고쳐 다짐하였다.

그들은 오늘저녁무렵에 네채밖에 안되는 화전마을사람들한테서 바로 그저께 백여명의 유격대원들이 림강 마이허쪽으로 갔다는 소식을 얻어들었다. 행색이나 대렬구성에 대하여 말하는것을 보면 《민생단》혐의를 받고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리북철은 부랴부랴 다시 밤길을 떠난것이다.

하늘은 여전히 숨답답한 어둠속에 푹 잠겨있었다. 뒤에서 따르던 문룡이가 리북철을 불렀다. 리북철은 걸음을 멈추었다.

《경위대장동지, 림강땅은 서남쪽에 있겠는데 우리는 지금 동북쪽으로 가고있는것 같습니다.》

《문룡동무, 그게 무슨 소리요?》

리북철은 소스라쳐 놀랐다. 유격활동을 한 뒤로 이런 일이 있기는 처음이였다. 문룡이 손을 들어 나무우듬지를 가리켰다. 진눈까비를 맞아서인지 얼어붙어서 그런지 나무꼭대기어방이 어둠속이지만 약간 희끄무레하게 보였다.

《저걸 보십시오. 우리는 어쩐지 나무우듬지가 퍼진 방향과 반대쪽으로 가고있지 않습니까?》

리북철은 눈을 흡뜨고 올려다보았다. 문룡의 말이 옳았다.

리북철은 한동안 망연히 서있었다. 머리에 새겼던 표식이 하나도 쓸모가 없게 된것이였다.

이리하여 리북철은 라침판을 잃은 선장이 비장한 결심끝에 배

를 몰듯이 나무우듬지의 생김새를 어림잡아 서남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인제는 물웅뎅이가 나진다고 에돌아갈수도 없었다. 에도는 날에는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삐여지는지 걷잡지 못할것이였다.

6

모래알같이 딴딴하고 차거운 싸락눈을 날리던 바람도 멎고 기세좋게 타오르던 우등불도 노그라진 밤이였다. 이맘때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들리군한다는 산짐승의 서글픈 울음소리조차 없었다. 보초를 교대하느라고 바삐 걷는 경위대대원들의 발걸음소리와 기침소리가 유난히도 똑똑하게 울리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천막에 드시지 않으시였다. 아이들의 귀틀집옆에 사령부천막이 자리를 잡았으나 사령관동지께서는 여직 천막에 들어가보시지 않으시고 마당에 피워놓은, 불길이 가라앉은 우등불 주변을 천천히 거니시였다. 흰눈판에 전나무의 거밋거밋한 그림자가 드리운 저편 숲속에서 가벼운 도끼소리가 울리였다. 도끼소리가 부드럽게 울리는것으로 보아 속이 궁근 통나무를 쪼개서 우등불에 넣는 모양이였다. 마른 나무가지를 꺾는 소리가 난뒤에는 다시 조용해졌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아동단원들이 잠들고있는 귀틀집쪽으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집안의 모닥불이 사그라지지 않았는지, 아이들이 모포를 차던지지나 않았는지? 응남은 분명히 베개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곤하게 잘것이였다. 그리고 순녀는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그리고 덧기운 저고리어깨를 감추려 하는듯 손을 어깨에 올려놓고 고요히 자고있을것이였다.

아이들에게 우선 시급하게 옷을 해입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천과 솜은 어떻게 구한다? 돈은 어데서 구하고? 생각은 막

막하시였다.

그러시다가 사령관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군복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시였다. 체온이 배여 따뜻한것이 감촉되시였다. 그것은 유지에 두세겹 싸고 다시 천으로 싼 돈 20원이였다. 그 돈은 어머님께서 남기신 단 하나 귀중한 유물로 이날이때까지 군복안주머니에 고이 간직해오신것이였다. 어머님께서 편치 않으신 몸으로 삯빨래와 삯바느질을 하시여 한푼두푼 모으신 어머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깃든 돈이였다.

하기에 사령관동지께서는 그 간고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시면서 어려운 고비를 한두번만 넘으시지 않으시였으나 그 돈만은 쓰지 않으시고 고이 남겨두시였던것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1932년 초여름,갓 창건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을 거느리시고 남만원정을 떠나시기에 앞서 어머님께서 계시는 소사하의 토기점골에 들리시였던 때를 회상하시였다.

…부대로 돌아가시기 전날밤에 어머님께서는 밤늦게까지 희미한 방등밑에 앉으시여 여러번 손질을 하신,인제는 바느질을 더 할 여지가 없는 군복을 또다시 손에 드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어머님 곁에 누우시였다. 꼭 래일 떠나시기로 정해진 날자도 아니였으나 웬일인지 이번에도 어머님께서는 늦잡지 말고 래일은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차비를 서두르시였다. 집사정도 그렇고 더구나 어머님의 건강이 몹시 걱정되시여 하루이틀 돌보자고 생각하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어머님의 높은 뜻을 헤아리시고 떠나기로 결심하신것이였다.

밤은 깊어 마당가에서는 풀벌레가 찌륵찌르륵하고 간단없이 울었다. 형님을 따라 산에 나무하러 가서 땀을 흠뻑 흘린 철주동생은 어느덧 잠에 들었다. 종이를 바른 창문가에 어렸던 달빛도 넘어가고 방안은 한층 어둑어둑하였다. 어머님의 앉으신 그림자가 벽에 그늘을 짓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 주무시는줄로 아셨던지 아니면 어서 잠드시기를 바라시였던지 어머님께서는 기침도 삼가하시고 들었던 가위도 무릎우에 조심스레 놓으시며 바느질을 하시였다. 군복웃옷 혼솔도 더 감치시고 단추구멍도 만져보시더니

이번에는 어깨받치개를 더듬으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 밤따라 새삼스레 어머님께서 세월을 앞질러 늙으셨다는 애절한 생각이 드시였다. 작년까지만 하여도 눈언저리와 입가에 알릴듯말듯 스쳤던 잔주름이 인제는 어쩔수없이 자리를 잡았으며 손톱끝이 두터워지고 손은 거칠어져서 바늘을 힘들게 잡으시였다. 가뜩이나 약하신 어깨도 한결 내려앉은것 같았으며 작년에 입으셨던 하얀 무명저고리가 커보이시였다. 그리하여 사령관동지께서는 어머님께서 인제는 여생을 좀 편안하게 지내셔야 하겠다는 생각에 가슴을 태우시였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국땅에서 혁명을 하시는 어머님께서 어찌 편안히 쉬실것인가. 그것이 실현될수 없는 념원인줄 알고계시면서도 감당하시기 어려운 생활의 시련과 마음고생과 혁명사업으로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살아오신 어머님을 위해드리고싶으신 간절한 심정에서 하시는 생각이시였다. 가까운곳에 만경대가 있고 칠골이 있고 친척들이 있어 어머님을 걱정하여주신다면 그래도 한결 마음이 가벼우시련만 그런 위로의 말씀조차 드리실수 없는 어머님이시였다.

등잔불이 점점 어두워졌다. 어머님께서는 방등에 콩기름을 떨궈넣으시고 심지를 돋구시였다. 찌르륵 하고 심지에서 불찌가 떨어지고 불빛이 한결 밝아졌다.

《어머니, 인제는 그만하고 주무시지요.》

사령관동지께서는 부탁하시듯이 말씀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길을 보내시며 나직한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여직 자지 않았니? 먼길을 떠나겠는데 푹 쉬여야지.》

《어머니, 밤일을 많이 하시는데 석유등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기름불은 어두워서 안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바늘뜸이 잘 보이지 않으시여 눈을 조프리시였다.

《우리 처지에 석유등은 해서 뭘하겠니.》

《안도시내에 석유등이 많다는데 철주를 보내십시오. 석유값이 아무리 비싸도 꼭 석유불을 켜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는 밤일은 아예 그만두시라고 말씀하셔야 옳을것이였다. 그러나 그런 당부를 받으실 어머님이 아니시였다.

그나마 석유등 부탁만이라도 들어주신다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실것 같으시였다.

《세상이 온통 캄캄한데 그까짓 등불이나 밝아서는 뭘하겠니. 세상만 밝으면 등불 없이도 살것 같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한참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여전히 어머님께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신것이였다. 언제나 혁명을 생각하시며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그 고결하신 마음은 예전과 변함이 없으시였다.

《어머니, 밝은 세상을 찾기 위해서도 어머님은 오래오래 혁명사업을 하셔야 하지요.》

어머님께서는 소리없이 웃으시며 이그러진 손톱끝으로 실밥을 꼭꼭 누르시였다.

《혁명이 순탄하겠니. 어두운 밤에 일할 때도 있고 아픈 몸으로 일할 때도 있기에 혁명을 한다고 하지 않니. 내 걱정은 말아라.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병을 앓게도 되는게구 앓다가 나을수도 있는게지.》

사령관동지께서는 다시 말씀이 없으시였다. 이 며칠동안 어머님곁에 계시면서 어머님을 위하여 단 한가지 할수 있는 일은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는것뿐이라는것을 깊이 느끼시였다. 혁명외의 그 어떤 일도 어머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였다.

《그만 눈을 붙여야지 안되겠다. 인차 새벽닭이 울겠는데…》

하고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을 걱정하시였다.

《어머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원 별소릴 다 하는구나.》

어머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어머님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게 되시니 사령관동지께서는 무등 기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다시 자리에 누우라고 독촉하지 않으시였다. 아드님과 이 한밤을 조용히 이야기하시기를 은근히 바라신것이였다. 어머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마디마디에 배여있었다.

어머님께서는 바느실을 놓으시고 군복을 드시더니 이리저리 펴보시였다.

《어디 한번 입어보아라. 어깨받치개도 새로 대고 아래단도 좀 내리웠다. 바느질이란건 잘하자면 끝이 없단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군복상의를 입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어깨를 찬찬히 눌러보시고 아래단을 살펴보시더니 이번에는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는듯 등을 쓸어보시였다.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시며 사령관동지께서는 몸에 꼭 맞는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였다.

어머님께서도 만족하신듯 눈가에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번에는 군복이 아니라 아드님의 름름한 모습을 사랑에 넘치신 눈빛으로 살피시였다.

이른새벽부터 어머님께서는 아침밥을 지으실 차비를 하시였다.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를 듣고 곤하게 자던 철주가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내려갔다.

병약하신 어머님을 도와 아침마다 물초롱을 들고 우물가로 달려가는것이 버릇처럼 된 철주는 형님께 웃어보이며 물초롱을 들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동이를 이시고 밖을 나서시였다. 두 아드님께서 나서시여 안된다고 만류하시였으나 오늘아침만은 꼭 자신께서 가야 한다시며 우물이 그리 멀지도 않은데 쉬염쉬염 갔다오겠다고 하시였다. 이윽하여 어머님께서는 물이 절반도 채 못찬 물동이를 이고 오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자신께서 길어오신 깨끗한 샘물로 손수 아침밥을 지으시여 아드님께 차려주시고싶으셨던것이다.

배낭을 정돈하고 군복상의를 입으시던 사령관동지께서는 안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는것 같아서 더듬어보시였다. 빠닥 하고 종이소리가 났다. 아구리를 봉한 자그마한 종이봉투가 나지였다. 그것은 분명 어머님께서 넣으신것이였다.

무엇인가고 물으시니 어머님께서는 별것 아닌데 그냥 넣어두라고 하시였다. 아시고보니 그것은 돈이였다. 그것도 20원이라는 큰돈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돈봉투를 도로 어머님 앞에 내놓으시였다.

《어머니, 이러지 마십시오. 혁명하는 사람한테야 혁명하자는

사상과 총만 있으면 다 된다고 어머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님께서는 타이르듯 말씀하시였다.

《사사에 쓰지 말구 혁명에 쓰라고 어머니가 주는것이다. 받아두어라.》

《어머니!》

하시며 사령관동지께서는 머리를 숙이시였다. 집안형편과 어머님의 건강상태로서는 돈 20원이란 실로 놀라운것이였다. 그것을 한푼두푼 모으기 위하여 어머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겠는가!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우시였다. 그렇지만 어머님의 높은 뜻이니 어찌할수 없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설겆이를 하시다가 젖은 손을 훔치시였다.

《사람이란 돈이 없어서 못사는 법은 없다. 돈이란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법이다. 아버지는 늘 혁명하는 사람에게는 정 급할 때 쓸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아두었으니 그리 알고 혁명사업에 쓰거라.》

어머님의 높은 뜻을 마음속깊이 느끼시였지만 그래도 어려운 집형편과 어머님의 중한 병을 생각하시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시였고 안주머니에 보관한 돈이 더없이 무거워지셨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마음을 다잡으시고 어머님과 작별하시였다. 그것이 마지막 작별이 되는것을 아셨더라면 그렇게 인사 한마디 남기시고 떠나는것이 아니시였다. 문가에 오래도록 서계시는 어머님을 한번만이라도 더 돌아보시는것이였다. …

맞은편 숲속에서 격발기를 여닫는 소리가 철걱거리였고 얼어붙은 눈판을 밟는 발걸음소리가 들리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군복주머니를 더듬으시며 아동단원들을 위하여, 혁명의 후대들을 위하여 쓰는것이니 어머님께서도 아신다면 기뻐하시리라 생각하시고 이번만은 주저하지 않으시였다.

저편 산기슭너머에 눈길을 보내신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리로 가시려는듯 몇걸음 천천히 걸어나가시였다. 그 하늘아래에는 무송시내가 있을것이였다. 지척에서 보는 무송의 밤하늘이였다. 《새날》

신문을 안으시고 어머님과 함께 들길을 걸어가시던 그날 밤이 떠오르시였다.

방학때에 돌아오면 없는 살림이지만 반찬 한가지라도 더 장만하시느라 애쓰시던 어머니, 떠나갈 때면 멀리 송화강여울목까지 따라나오시며 언제 다시 오겠는가고, 객지에서 몸조심을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시던 어머님이시였다.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찾아가군하시던 아버님의 산소가 거친 저 산발너머 양지촌에 예나 다름없이 있을것이였다. 아버님의 산소를 찾아뵈온지도 인제는 오래 되시였다.

아버님께서 너무 일찍 가신다고 하였는데 어머님마저 또 그렇게 일찍 떠나시고 철주동생마저 혁명전에서 쓰러지고… 혁명은 사령관동지께 너무도 큰 슬픔과 시련을 요구한것이였다.

우등불가에서 갑자기 꽃보라 같은 불꽃이 흩날리며 하늘높이 날아올랐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뒤를 돌아다보시였다. 강세호가 허리를 굽히고 우등불에 나무토막들을 얹어놓고있었다. 다른때 같으면 그만 돌아가 쉬라고 말씀하실것인데 사령관동지께서는 강세호가 옆에 있기를 바라신듯 그의 일손을 거들어주시였다. 이윽고 우등불이 기세를 돋구자 사령관동지께서는 다시금 꾸등꾸등 얼어드는 숲속길을 거니시였다.

강세호는 그이의 뒤를 소리없이 따랐다. 잠시 말씀없이 거니시던 사령관동지께서는 문득 돌아서시여 강세호가 가까이오기를 기다리시였다.

《오늘 밤에 강동무한테 어려운 임무를 하나 맡겨야 하겠소. 임무가 중하고 책임적이기때문에 꼭 강동무가 맡아야만 하겠소. 래일 아침 무송시내로 내려가오. 박문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시오. 그 다음에는 아이들한테 옷을 해입힐 천을 구해오시오. 돈은 내가 마련해놓았소.》

사령관동지께서는 강세호의 손목을 이끄시여 오던 길을 되돌아 걸으시였다.

강세호는 평소에 돈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따로 보관하시는 일

은 더욱 없으시던 사령관동지께서 그것을 이미 마련해놓으셨다는것이 이상하였다. 자기들중에는 누구한테도 돈이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강세호였다. 그러나 어쨌든 헐벗은 아동단원들에게 옷을 해줄수 있고 사령관동지의 심려를 덜어드릴수 있게 된것이 천만다행이였다. 더구나 그 임무를 자기가 맡게 되였다고 생각할때 강세호는 입대후 첫전투에 나갈 때처럼 가슴이 설레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 한참후에 유지에 싼 돈 20원을 내놓으시였다.

강세호는 놀라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유지에 두겹세겹 싼 돈 20원, 북만원정당시 혹한을 만나시여 위독해지신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로야령의 외딴 집에서 며칠간을 보낼 때 강세호는 그 돈의 래력을 알게 되였다. 내내 앓으시다가 의식을 회복하신후인 어느날 사령관동지께서는 손더듬으로 그 유지를 만져보시며 강세호에게 그 돈의 래력을 말씀하시였던것이다.

《사령관동지, 안됩니다. 그 돈만은 절대로 안됩니다.》

《어서 받소. 그러지 말고 어서 받소.》

강세호는 다시 뒤로 물러서며 목갈린 소리를 하였다.

《사령관동지, 천이야 어떻게 구할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님께서 남기신 그 돈만은 허물지 못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딱하신듯 그냥 서계시다가 마침내 강세호의 두팔을 잡으시고 간절히 당부하시였다.

《강동무, 나를 괴롭히지 마오. 진정으로 나를 위해준다면 이 돈을 받소. 헐벗은 아이들, 혁명의 후비들을 위해서 혁명에 쓰는 돈이니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쓰는줄 아신다면 기뻐하실거요.》

강세호는 덤덤히 서있었다.

《강동무가 이 돈을 받으면 나도 잠들수 있을것 같소.》

《사령관동지…》

강세호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강세호의 손에 돈 20원을 쥐여주시고 거듭거듭 손을 쓸어주시였다.

7

한개 련대가량의 왜놈군대행렬이 무송시내의 서문으로부터 거리 중심으로 밀려들고있었다.

선두에는 진흙투성이가 된 무거운 군화를 질질 끌며 오랜 행군에 지친 대렬이 무엇에 끌리듯 걸어가고있었다.

개털외투깃에 머리를 틀어박은 《토벌대》놈들은 목을 놀리기조차 고달픈듯 다만 얼음장같이 차거운 눈길을 외투깃너머로 힐끗거렸다.

대렬뒤로는 땀에 뜬 군마들이 흰 거품을 물고 둔중한 야포를 끌고가면서 그렇게 내모는 모진 운명과 맞서기라도 하듯 대가리를 내젓고있었다.

아무도 바란적이 없는 《토벌대》놈들의 출현은 이 거리에 살벌한 기운을 풍겨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송지구진출은 일제를 극도로 당황하게 하였다. 이전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예감하고 동만과 남만 그리고 국경일대에 군대와 경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고있던 놈들은 그래도 조선인민혁명군이 무송경내에 들어서자면 적어도 한두달은 걸릴것으로 여기고 늘늘히 잡아왔던것이다. 급기야 일제는 무송지구를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막는 제일선으로 선포하였다. 집안, 통화, 림강, 장백, 몽강, 휘남, 류하 등지의 각 부대에 경계태세를 갖추게 하는 한편 관동군과 경찰, 위만군가운데서 선발한 무력을 무송시내에 들이밀고있는것이였다.

어데선가 행인들을 단속하는 경찰의 다급한 호각소리가 들려왔다.

시내에는 음산한 공기가 떠돌고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생활은 계속되고있었다.

길량옆에 옹기종기 둘러앉은 떡국집이며 지짐집이며 순대국집

에서는 주인들이 부지런히 손님들을 청해들이고있었으며 촌에서 장을 보러 왔던 아낙네들과 짐군들은 지짐이며 떡을 씹으며 왜놈 《토벌대》의 행렬을 별로 놀라와하는 빛도 없이 바라보았다.

흰 무명바지저고리를 입고 개털모자를 쓴 강세호는 콩기름병을 넣은 구럭을 등에 지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그는 기계소리가 요란한 정미소결에 자리를 잡고있는 자그마한 천가게에 들리였다. 광목, 토목, 비단 등 갖가지 천이 주련이 쌓여있는 매대앞에서 한동안 오락가락하였다.

몸이 뚱뚱한 가게방 안주인은 이 천 저 천 만져보고 쓸어보며 값을 묻기만 하는 콩기름장사를 동정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강세호는 다시 자전거방을 지나서 옆에 있는 가게방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안장코에 테가 없는 안경을 건 가게방주인은 종이에 관심을 가지는 그의 동정을 살피며 그앞에 백로지, 공책이며 꽃무늬가 돋친 도배지를 연방 펼쳐보이였다. 그것은 강세호가 아동단원들을 생각하면서 공책에서 눈을 뗄줄 몰랐기때문이였다.

거리로는 《토벌대》의 군마가 발굽으로 흙에 범벅이된 눈덩이를 휘뿌리며 왁살스럽게 지나갔다. 성난 눈으로 왜놈들을 흘겨보던 가게방주인이 인차 먼지털개를 들고 점포에 떨어진 눈가루를 털며 《저놈들 꼴을 언제면 보지 않겠는지…》 하고 내밸듯이 말하였다.

가게방앞에 모여섰던 짐군들과 행상인들이 목을 길게 빼들고 점포를 들여다보았다.

《왜놈들이 왜 저 지랄이라오?》

긴 대통을 입에 문 풍채 좋은 령감이 누구에게라없이 이렇게 물었다.

《놈들이 지랄을 하게 됐지요.》

하고 안장코에 안경을 건 가게방주인은 사방을 경계하듯 재빨리 눈알을 굴리며 알은체를 하였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게요?》

이번에는 목에 베수건을 걸치고 빈 지게를 한쪽어깨에 건 건장한 젊은이가 가게방주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 재밤중이군.》

먼지를 훌훌 털며 가게방주인은 《토벌대》놈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숱한 혁명군을 거느리시고 무송땅에 나오셨다오!》

모여섰던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래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장군님께서 오시다니,그게 정말이요?》

《그래 장군님께서 언제 오셨다오?》

《지금 어데 계시오?》

《자,이렇게 밀면 어떡하오? 덤비지들 말구 차근차근 말하시우.》

누군가가 이렇게 간청하듯 말했으나 사람들은 그대로 가게방앞으로 밀려들었다.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무슨 일이 있나 해서 가게방앞으로 밀려들자 가게방주인은 어지간히 당황해서 팔을 내저었다.

《모두 헤쳐가시우. 저기 경찰이…》

아닌게아니라 검은 제복에 긴 칼을 찬 키꺽다리 순사놈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이쪽으로 느릿느릿 걸어왔다.

《경찰이 오면 왔지,무서울게 있소?》

지게다리를 한손에 거머쥔 청년이 하는 말이였다.

그러자 가게방주인은 황급히 집안으로 들어가버리고 모여섰던 사람들은 하는수없이 하나 둘 헤여졌다.

강세호는 뜨거워지는 마음을 안고 될수록이면 어수룩한체 눈을 두릿두릿하며 촌사람티를 내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맞은편 우편국앞으로 걸어갔다.

벌겋게 언 맨발에 짚신을 신은 아이 셋이 한손에는 신문을 안고 다른 한 손은 머리우로 신문을 내흔들면서 챙챙한 소리를 지르고있었다. 《호외》,《특간》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학생들,중절모를 쓴 신사들,젊은 청년들,늙은이들이 신문을 사들고 긴장한 눈초리로 훑어보고있었다.

전주대밑에서 강세호는 점잖게 차린 중년의 행인이 펼쳐든 신문을 어깨너머로 넌지시 들여다보았다. 신문에는 어느새 어디에서 그렇게 빨리 알아냈는지 **김일성**장군님께서 무송땅에 나오셨다

는 내용의 보도기사가 실렸다. 《호외》나 《특간》은 아니였다. 장군님에 대한 소식이 실렸다고 해서 신문 파는 아이들이 그렇게 웨친것이였다.

강세호는 신문을 한장 사고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자기가 콩기름장사라는것을 생각하고는 그만 단념하고말았다.

《허, 이거 참 야단났군, 어떡한다?》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며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는 소리에 강세호는 고개를 돌렸다. 턱수염을 가슴우에까지 길게 기른 로인이 그 어떤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로인은 한손에는 지팽이를 짚고 다른 한손에는 자작 삼은듯싶은 대여섯컬레의 짚신꿰미를 들고있었다. 로인은 그가 콩기름장사인줄 알자

《콩기름장사니 식자야 없을테지…》 하고 서운한 웃음을 보내였다.

강세호는 로인에게 길을 내주면서 공손하게 말하였다.

《그러니 이렇게 밑천도 못건지는 장사나 합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로인은 허리를 주먹으로 몇번 두드리더니 괴춤에서 신문을 꺼내보이는것이였다.

《신문이란걸 내 처음으로 한장 샀지오다. 장군님 소식이 실렸다고 하기에 짚신 한컬레 판 돈으로 한장 샀는데… 눈뜬 장님이오다.》

강세호는 저도 모르게 로인의 손에서 신문을 받아들었다.

그는 로인을 데리고 으슥한 골목으로 가서 신문을 펼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신문기사를 읽어주었다.

《음…》 로인은 수염이 더부룩한 입가에 미소를 담고 만족해서 중얼거렸다.

《장군님께서 나오셨다는 소식이 헛소문은 아니였군… 음… 그래서… 어서 읽으시우…》

《로인님, 다 읽었습니다.》

《원, 다 읽다니, 신문에 글이 깨알같이 박혔는데 벌써 다 읽다니?》

《로인님, 장군님에 대한 글은 이게 전붑니다. 그 다음의것은 모두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아무렴, 이야기가 그렇게 짧을수야 있나?… 하긴 거짓말을 하는건 아니겠지?》

강세호는 한참동안 기사가 짧다고 불만스러워하는 로인에게 일제놈들의 검열이 심하기때문에 이이상은 신문에 내기 어려우리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다면 헐수 없는 일이구… 안됐소만 한번만 더 읽어주시우. … 천천히… 귀가 좀 어두워서…》

강세호는 로인이 청하는대로 신문기사를 다시한번 천천히 읽어주었다.

로인은 그 희한한 소식을 영원히 가슴속에 새겨두려는듯 되받아 중얼거리며 연송 머리를 끄덕이였다.

《고맙소. 내 생전에 우리 장군님을 만나뵙게 될는지…》

로인은 신문을 정하게 꾹꾹 접어서 저고리앞섶을 헤치고 깊숙하게 찔러넣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오셨으니 이젠 이놈의 세상이 끝장날 때가 되였지.》

로인을 믿을수 있다고 생각한 강세호는 그에게 무송현성근처에서 꽤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져있다는 박중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느냐고 물었다.

《박중건이라? 정미업을 가지 시작한 박중건씨말이시우?》

《가지 시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그저 농사만 지었다고 하더군요.》

《그럼 옳소다. 서로 원쑤지간처럼 지내는 아들 둘이 있다고 하지 않습디까?》

《두 아들사이에 의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형되는 사람이 전에 일본류학을 갔다고 합디다. 둘째 이름은 박문필인데 혹시 모르시는지?》

《아들들 이름은 모르겠소만 둘째가 사진관을 차려놓고 지내지요. 그게 아마 〈금강사진관〉이든가 그렇지…》

《그 〈금강사진관〉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로인은 손을 들어 우편국모퉁이를 가리키며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사진관이 있다고 하였다. 곁달아서 그 집주인은 마음이 좋아서 콩기름값을 후하게 줄것이라고 하였다. 마침 로인도 그쪽으로 가는길이여서 《금강사진관》을 쉽게 찾을수 있었다.

사진관은 함석지붕을 이은 목조건물이였다. 판자벽과 함석지붕은 비물에 씻기고 해빛을 받아 퇴색하였으며 창문틀에 칠한 푸른 뼁끼도 군데군데 떨어져서 나무속살이 드러났다. 사진관뒤켠으로 역시 목조로 된 2층집이 보였다.

강세호는 함석지붕밑에 걸려있는 《금강사진관》이라는 간판을 올려다보다가 간판밑에 있는 사진진렬장을 들여다보았다. 유리창안에는 여러개의 사진들이 주런이 걸려있었다. 금강산의 구룡연과 총석정의 해돋이, 묘향산의 가을 등 조선의 절경들이였다. 강세호는 사진관주인이 조국을 무척 그리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쌍두마차 한대가 좁은 거리로 달려왔다. 사진관앞길에서 살진 한쌍의 말이 투레질을 하다가 멈춰섰다. 마차는 바퀴를 삐거덕거리며 몇번 앞뒤로 기우뚱거리였다.

말들이 목을 길게 빼들고 처량하게 울며 요동을 쓰려고 하자 늙은 마부는 솜씨있게 말들을 달래였다. 마차의 검은 풍막을 들고 수달피 외투에 역시 수달피 모자를 쓴 뚱뚱한 젊은 사람이 상반신부터 먼저 내밀고 눈우에 내려섰다. 뒤이어 풍막의 한쪽귀가 빠끔히 들리더니 여우목도리를 두르고 진하게 화장을 한 녀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 녀자는 사나이를 쏘아보듯 내려다보며 앙칼지게 소리쳤다.

《당신은 이 집에 뭣때문에 자꾸 찾아오는거얘요, 대체?》

《들어가서 몸이나 좀 녹이지. …》

《흥, 얼어죽는다고 하지. 그따위년이 있는 집에 내가 들어가? 거지같은것들…》

녀자는 안으로 몸을 움츠러뜨리더니 풍막을 휙 내려버렸다.

《그럼 그냥 앉아있소그려.》

남편인듯싶은 그 사나이는 외투주머니에서 가죽장갑을 꺼내여 낀 다음 얼핏 마차를 돌아보고는 몸을 뚱기적거리며 사진관 유리문을 향하여 걸어갔다.

짚신 팔러 왔던 로인이 손에 든 짚신꿰미를 어깨에 걸치며 강세호에게 넌지시 귀뜸해주었다.

《저 사람이 바로 박씨의 큰아들이오다. 이 사진관주인의 형이지요. 이제 나오면 저 사람에게 물어보시오다. 그럼 나는 가겠소다. 젊은이, 또 만나게 되겠지? 나는 보름에 한번은 장엘 나온다오다.… 오늘 짚신을 다 팔지는 못했지만서두 마음은 기쁘오. 기다리던 우리 장군님 소식을 들려줘서 고맙소다.》

로인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의 구부정한 등에서는 팔지 못한 짚신 5컬레가 데룽거렸다.

강세호는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였다.

마차에서 내린 사나이가 주인을 찾으며 문을 두드리고있었다. 문에 끼운 커다란 유리가 불안스레 부르르 떨었다.

이윽하여 조심스레 문이 열리더니 흰 광목치마저고리를 입은 호리호리한 몸매의 젊은 녀인이 나타났다. 아마 사진관집 안주인인 모양이였다.

녀인은 사나이를 보더니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사나이가 먼저 푸접없이 물었다.

《문필이 어디 갔나?》

《예, 어데 잠간 다녀오겠다구 하셨는데…》

맑고 침착한 녀주인의 목소리였다.

《뒤숭숭한 세상에 어딜 자꾸 싸다니나? 집안에 꾹 박혀서 돈벌궁리는 하지 않구. 아직 철이 없어, 철이 없다니까. 자네두 옆에서 단단히 살펴야 하네.》

《…》

녀인은 시형벌되는 그 사나이의 얼굴을 한번도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채 덤덤히 서있었다.

《인제는 제 한몸만이 아니라는걸 알아야지. 제 처두 있고 또 부모와 형도 있는데 제 하나 잘못하다가는 온 집안이 화를 입는다

는걸 알아야 해. 그리구 며칠안으로 아버지 있는데로 집을 옮기라구 이르라구. 그래 문필이 없단말이지?… 음…》

그 사나이는 거친 목소리를 우정 청높게 뽑으면서 찌프린 눈으로 사진관을 한번 휘둘러보더니 녀인에게 인사말도 없이 마차있는데로 갔다.

녀주인은 떠나는 사람에게 이렇다 할 인사도 없이 덤덤히 서 있었다.

신사가 마차에 오르자 마차는 삐걱거리며 얼어붙은 길우로 굴러가기 시작하였다. 마차는 느릿느릿 골목으로 사라졌다.

강세호는 사진관근처에 있는 자전거방에 들어가 그 사진관주인인 박문필이 의가 좋지 못한 형과 달리 사치와 부귀를 탐내지 않고 수수하고 깨끗하게 살고있다는것을 알아내고는 아까 점찍어둔 천가게에 다시 가서 20원어치의 천을 사가지고 시내를 벗어났다.

그러나 강세호는 마안산으로 오는 도중 산길에서 뜻하지 않게 반일부대병사들의 습격을 받았다.

강세호는 혼자였고 반일부대병사들은 여러명이였다. 강세호는 처음 그들이 비적인줄 알고 한두명 쏴제끼였다. 그러나 접전을 벌리는 과정에 그들이 반일부대라는것을 알고 위협사격만 하면서 자기가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것을 소리쳐 알리고 물러갈것을 엄격히 타일렀다. 강세호의 능란한 사격솜씨에 처음부터 위압당한 그들은 더는 달려들지 못하고 뿔뿔이 도망쳤다. 그리하여 강세호는 등에 진 천에 총알자리 하나 남기지 않고 유유히 돌아오다가 마침 사령관동지께서 보내신 경위대원들의 마중을 받았다.

제 8 장

1

장군님께서는 바쁜 시간을 보내시였다.

강세호가 돌아오면 천으로 시급히 아이들의 옷을 지어야 하며 그러자면 이곳 재봉대에 가시여 형편도 료해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하며 병기창과 병원에도 가보아야 하실것이였다. 또한 《민생단》혐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료해사업에도 시간을 내야 하시였고 미구에 창건하실것을 계획하고 이미부터 준비하여오던 거족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의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도 완성하여야 하시였다. 어느것 하나 뒤로 미룰수 없는 그 많고 복잡하고 절박한 일들이 장군님의 끊임없는 사색과 정열적인 활동을 바라고 있었다.

강세호가 무사히 도착하였을 때 장군님께서는 활동과정을 보고받으시며 수고가 많았다고 만족해하시였다. 반일부대병사들의 행위에 대하여 강세호가 말씀드렸을 때 장군님께서는 그것이 무송지구에 널려있는 반순부대일것이라고 하시면서 일제를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반일부대와의 사업에 각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 문제때문에 심중해지셨던 그이의 안색은 강세호가 천보자기를 펼쳐놓자 곧 부드러운 화기를 띠였다. 장군님께서는 천필을 펼치여 쓸어보고 탄탄한가 당겨도 보고 마감에는 자신의 소매에 대보기까지 하시더니 천퉁구리를 보자기채로 강세호앞에 밀어놓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또 수고를 좀 해줘야겠소. 동무가 이곳에 있다는 재봉대에 가서 형편도 알아보고 아이들의 옷을 만들도록 과업을 주시오. 한

남실동무와 의논해서 근거지아동단원들에게 해입히던것과 같은 모양으로 짓는게 좋겠소. 재봉대형편이 어려우면 알리시오. 손이 모자라면 경위대동무들이라도 동원시킵시다. 강동무가 옷문제는 끝까지 책임지고 결속해야 하겠소. 내가 직접 재봉대에 가서 형편도 알아보고 재봉대원들을 만나보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민생단〉협의를 받은 동무들이 오기전에 그 문건보따리를 좀 헤쳐보아야 하겠소. 리북철동무가 그 동무들을 찾으면 2련대병실자리로 데려가도록 하였소. 아마 오늘래일쯤 도착할거요. 나는 2련대병실자리로 가는길에 병원을 돌아보겠소.》

장군님께서는 강세호를 재봉대에 보내신 다음 자신께서는 곧 병원을 찾아 길을 떠나시였다.

미혼진에서처럼 마안산밀영들도 10리 또는 20리씩 거리를 두고 이 골짜기,저 골짜기들에 널려져있었는데 병원은 아동단원들의 귀틀집이 있는데서부터 거의 두시간 걸음이나 될 외진곳에 자리잡고있었다.

긴 한채의 귀틀집으로 되여있는 병원은 무성한 전나무숲속에 숨어있었으므로 가까이에 다가갈 때까지 눈에 잘 뜨이지 않았다.

귀틀집에서 좀 떨어진 길옆의 평평한 너럭바위우에서 다리를 부상당한 어느 환자의 걸음련습에 쓸 쌍지팽이를 만들고있던 병원책임자 김장도가 장군님께서 오시는것을 남먼저 알아보고 달려왔다.

장군님께서도 3년전 가을에 소왕청에서 얼핏 만나보셨던 김장도를 대뜸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때 라자구전투를 계획하시면서 다른 현에서 활동하고있는 유격중대들을 소왕청 마촌으로 부르셨는데 련락을 뒤늦게 받고 전투가 지난후에 도착한 중대에 바로 이 나이지숙한 대원도 끼여있었던것이다.

그전부터 침이나 약간 놓을줄 알고 동약처방 몇가지를 알고있던 김장도는 유격대의 군의로 되여 이곳 병원에서 혼자 환자들의 치료와 간호,지어 후방사업까지 도맡다십이 하고있다는것이다.

병원에는 제2련대의 기본성원들이 교하원정을 떠나가면서 남겨놓은 환자대원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가운데서 이미 전투대렬로 돌아갈수 있을만치 회복

된 15명의 대원들은 멀리 원정 가있는 련대를 찾아 떠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겸 계속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을 위하여 식량과 후방물자를 해결해볼 작정으로 소규모의 습격전투를 하러 나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병원 귀틀집에는 예닐곱명의 환자들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김장도의 간단한 보고를 받으신 다음 먼저 남성대원들의 병실을 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녀성병실로 통하는 뒤울안쪽으로 가시다가 귀틀벽 모퉁이에 쪼그리고앉아 끄떡끄떡 졸고있는 어린 계집애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금시 잠이 들었는지 머리가 이쪽저쪽으로 군드렁거리는데 머리방아를 찧을적마다 놀라서 눈을 반쯤 떴다가는 인차 감으며 잠들어버리군했다. 피기없는 그 애의 량볼에는 채 마르지 않은 눈물방울이 붙어있었다.

그 아이를 유심히 내려다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저으기 놀라시는 눈길로 김장도를 돌아보시였다.

《이 애의 이름을 혹시 명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명숙입니다.》

김장도 역시 장군님께서 어떻게 그 애를 알고계시는지 매우 의문스럽게 여기는 기색이였다.

리경준이와 그 가족들의 소식을 모르시여 안타까이 지내오셨던 장군님께서는 여기에서 뜻밖에 리경준의 딸을 보시자 여간 놀라지 않으시였다.

《애가 어떻게 이 병원에 와있습니까?》

《이애의 어머니가 며칠전에 여기에 입원했습니다.》

《최선금동무가 여기 입원해있단말입니까?》

《네.》

《그러니 행군중에 우리가 본 가위밥이 최선금동무네가 여기까지 온 흔적이 틀림없었구만. 경준동무도 여기 있습니까? 저 애 아버지말입니다.》

《여기 없습니다. 환자와 두 아이만 여기 보내고 어디 다른데로 간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그러는데 누군가가 무슨 장아저씨란 사람하구 큰엄마하구 아버지는 딴데루 데리구 갔다는것입니다.

최선금동무한테는 묻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장군님께서는 김장도의 표정에서 최선금의 병세가 매우 위독하다는것을 짐작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알뜰하고 부지런하고 바느질에 솜씨있기로 유명한 최선금의 딸이라고 믿지 못할만치 람루한 명숙이의 차림을 다시금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얇게 솜을 두고 지은 몹시 때가 낀 흰 무명저고리는 팔과 어깨와 소매굽 곳곳에 덧기운 자리가 있는데다 최근에 찢겼거나 해진채 깁지 못하여 안에 있는 솜이 그대로 밀려나온데도 있었다. 앙상한 무릎을 감싸고있는 치마도 역시 깁지 못한 자리가 있었고 작은 버선은 더구나 말이 아니였다.
저고리에 덧댄 천조박들은 거의가 사령부일행이 미혼진에서부터 마안산으로 오는 도중에 어느 한 우등불자리에서 얻어보았던 가위밥과 같은 색갈, 같은 결의 군복천조박들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명숙이의 옷차림을 보시고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동안 얼마나 고생하였으리라는것과 지금 최선금이 자기 아이들을 돌보아줄 형편이 못된다는것을 짐작하시였다.
《사내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네, 명일이는 녀성환자대원들과 같이 잣을 따러 갔습니다. 어머니의 몸을 추세우는데는 잣죽이 좋다는 어른들의 말을 듣고…》
김장도의 대답이였다.
그러니 명숙은 자기를 혼자 남겨두고 슬그머니 가버린 오빠를 원망하며 울다가 지쳐 잠든 모양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주봉길을 돌아보시며 명숙이를 안아들여다 눕혀주라고 이르시고 녀성병실안으로 들어가시였다.
최선금은 홑로 모포를 덮은채 아래목에 조용히 누워있었다. 무겁게 눈을 감은 그의 얼굴은 몹시 창백하였다.
그렇게도 잰솜씨로 바느질을 하고 그렇게도 날파람있게 재봉기를 돌리군하던 손은 다시 움직여내지 못할듯 나른하게 밑으로 드리워져있었다. 피기없이 꺼져들어간 볼에는 이마에서 흘러내린 몇오리의 머리칼이 말려있었고 속눈섭이 차붓이 맞붙은 눈두덩에는

잠결에도 가셔지지 않는 수심이 어려있었다. 그의 보풀이 인 마른 입술은 약간 들려져있었다.

최선금의 머리말에 앉으시여 흐린 안색으로 그를 지켜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재봉일과 바느질을 그렇게도 걸싸게 하던, 그러나 지금은 말없이 늘어진 환자의 손을 잡고 맥을 조심스레 짚어보시고는 눈길을 천정으로 보내시였다. 한마디의 신음소리도 없는 최선금의 정상이 너무도 가슴아프고 쓰리시여 차마 바로 보기가 어려우신것이였다.

리동백과 다른 경위중대원들은 말없는 가운데 숨을 죽여가며 장군님과 최선금을 번갈아 지켜보고있었다.

최선금이 장군님께서 자기의 머리말에 와 앉으시여 맥을 짚고 계시는것조차 모르고 누워있는것이 안타까운 나머지 원장 김장도가 허리를 굽혀 나직하게 그의 귀전에 대고 불렀다.

《선금동무！… 사령관동지께서 오셨소. 사령관동지께서…》

장군님께서는 그냥 두라고 조용히 머리를 저으시였다. 그러나 김장도는 이번에는 최선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건드리며 안타깝게 불렀다.

《선금동무！ 선금동무！》

최선금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럴 때 어느새 깨여나서 주봉길이보다 앞서 달려들어온 명숙이가 무작정 어머니곁으로 다가서서 어푸러질듯이 매달리며 소리쳐 불렀다.

《엄마, 나 댕기— 장군님 오셨대. 댕기！ 댕기매구 인사하자. 일어나.》

고요하던 최선금의 눈언저리우로 한가닥 붉은 기운이 흘렀다. 뒤이어 영원히 떨어질줄 모를것 같이 차붓이 붙어있던 속눈섭이 바르르 떨렸다. 최선금은 눈을 떴지만 그 눈은 정기없이 멍하니 귀틀집천정 서까래를 바라보고있었다.

김장도가 기뻐서 《최동무！》 하고 불렀으나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반응이 없었다. 얼마후에야 그 눈동자는 한참동안 방안을 더듬다가 장군님의 모습에 미치였다.

그러자 그의 흐리멍텅하던 눈동자에 불꽃이 반짝 일어나면서 눈

시울이 크게 열렸다. 일시에 그 두눈은 영채를 회복하였다.

《！…》

최선금은 장군님을 우러르며 입술을 열었으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아, 장군님！》 하고 부르는 그 들리지 않는 가슴속의 말을 알아들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최선금의 손목을 따뜻이 잡아쥐신채 은정이 담긴 눈길과 가벼운 고개짓으로 선금의 부름에 응답하시였다.

최선금은 몸을 움쭉거리며 힘없는 팔을 쳐들려 하였다. 장군님께서는 그가 일어나고싶어한다는것을 아시고 말리시였다.

《그냥 누워있으시오. 일어나면 안됩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손을 가슴우에 얹어주시고 다시 당부하시였다.

《일어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최선금은 장군님께서 하시는대로 손을 맡긴채 장군님을 우러러보고 또 우러러보았다.

끝없이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던 선금의 눈길은 그이의 군복을 더듬다가 정하게 기운 자리에서 못박힌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움직일수 없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장군님의 군복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세심한 관심을 돌리군했던 몸에 밴 지난날의 관습을 잊지 않았던것이다.

무엇때문에 최선금의 눈빛과 낯색이 불시에 달라졌는지를 헤아리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옷섶을 여미며 말씀하시였다.

《선금동무！ 일없소. 걱정마오. …》

김장도는 묵묵히 무릎을 내려다보며 숨을 죽이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자리를 고쳐앉으시며 최선금의 손을 다시 모포우에 조용히 올려놓아주시였다. 그리고 인제는 떠나야 하겠다고 생각하시며 김장도에게 병원형편을 이것저것 물으시였다.

장군님께서 떠나려 하신다는것을 알아차린 최선금은 이번에는 꼭 일어나려는듯 김장도에게 제발 좀 부축해달라고 눈으로 부탁하며 얼굴을 들려고 애를 썼다.

무엇인가 간절한 부탁이 있는지 아니면 떠나시는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려는지 선금은 입술을 떨었다. 그러는 최선금을 만류하시려던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의 눈빛에서 무엇인가 가슴에 맺힌 절박한 사연이 있다는것을 느끼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장도를 돌아보시였다.

김장도는 당황한 기색이였다.

최선금의 입술사이로 《장군님… 저는…》 하는 소리가 새여나왔다. 그 다음의 말마디는 전혀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최선금의 머리말에 상반신을 숙이고 귀를 기울이시였다. 그러시던 장군님께서는 갑자기 상반신을 일으키시며 크게 놀라시였다.

《그게 무슨 소리요? 동무가… 동무가 그런 혐의를 받다니?》

사령관동지의 안광에 분기가 번쩍하였다.

《김장도동무, 어떻게 된 일이요? 최선금동무가 〈민생단〉 혐의를 받다니?》

김장도는 눈길을 떨구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최선금의 손을 다시 잡으시고 엄하신 모습으로 마디마디에 힘을 주며 말씀하시였다.

《선금동무, 그럴수 없소. 아니요! 동무는 혁명가요!》

최선금은 흐느끼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밖으로 나오시였다.

(저렇게도 진실한 사람을 《민생단》으로 몰다니? 깨끗한 마음으로 혁명을 하겠다고 우리를 따르고 사령부를 찾아 그 험난한 길을 헤쳐온 사람들을… 어떻게 이런 사람들까지 감히 《민생단》으로 몰수 있단말인가?)

밖에 나서신 장군님께서는 격하신 심정을 삭이느라고 한동안 그대로 서계시였다. 먹장구름이 무겁게 드리웠던 하늘에서는 어느덧 진눈까비가 쏟아져내리고있었다.

군모를 쓰실것도 잊으신듯 뒤짐지신 손에 드신채 이깔나무숲속 저편의 먼 하늘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는 장군님의 안광에 눈물방울이 고이고 그를 통하여 서리발같은 푸른빛이 내뻗쳤다.

껍찐껍찐하고 축축한 눈송이와 함께 굵다란 비방울들이 엇섞여 후둑후둑 떨어져 장군님의 머리칼과 군복과 모자를 적시였다.

진눈까비는 삽시간에 온 천지를 물탕으로 만들어버릴듯 먼 산들과 숲을 아물거리는 류다른 장막으로 가리워버리면서 점점 더 맹렬하게 퍼부어내렸다. 진눈까비에 온통 젖어드는줄도 모르시는듯 그냥 서계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안타까이 지켜보고있던 원장 김장도는 그이의 곁에 한걸음 다가서며 조용히 아뢰였다.

《사령관동지,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아니요.》

단호하게 말씀하신 장군님께서는 경위대원들을 돌아보시였다.

《동무들, 출발준비들을 갖추시오!》

당황해진 김장도는 대뜸 눈물이 글썽해진 눈을 들어 장군님을 우러르며 떠듬떠듬 말씀을 드렸다.

《사령관동지! 진눈까비가 멎은 다음에… 그게 멎기전에는 떠나시지… 못합니다. 인차 날도 저물겠는데…》

《아니요. 더는 한초도 지체할수 없소.》

장군님의 엄하신 말씀이였다.

그이께서는 김장도원장에게 완쾌된 환자들이 돌아오면 즉시 련락을 띄우라는 말만 남기시고 지체없이 병원에서 떠나시였다.

2

마침내 림강 마이허에서 《민생단》혐의자들을 찾아낸 리북철은 같이 갔던 두 경위중대원에게 소대단위로 여러곳에 나가있다는 그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곧 뒤따라오라는 과업을 주고 자기는 그 소식을 사령관동지께 보고드리기 위하여 지체없이 돌따섰다. 그가 낮이고 밤이고 쉬임없이 내처 걸어 제2련대 지휘부가 있던 귀틀집에 도착한것은 사령관동지께서 병원에서 이미 그곳에 오신 뒤였다.

그가 들어섰을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초불이 가물거리는 통나무책상앞에 앉으시여 이곳 정치주임이 보관하고있었던 그 《민생단》혐의자들의 문건을 보고계시였다. 문건은 책상우에 한가득 쌓이였고 책상옆의 긴의자우에도 무둑무둑 쌓여있었다. 리북철이 림강에 갔다온 정형을 간단히 보고드리자 사령관동지께서는 수고하였다고 하시며 어서 푹 쉬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는 사령관동지의 안색은 리북철이도 놀라리만큼 침통하시였다. 거기에 방안의 모닥불까지 꺼지였고 나무라는것은 진눈까비에 축축히 젖은것들이였다.

리북철은 사그라진 모닥불을 돋구기 시작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만하고 쉬라고 거듭 재촉하시였으나 리북철은 대답만 드리고 그냥 눌러있었다.

끝내 불을 피워놓고서야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던 리북철은 출입문 어구에 이르러 문득 가슴이 저릿하여 걸음을 멈추었다. 불빛에 비낀 사령관동지의 커다란 영상이 벽 전체를 차지하고있는데 어쩐지 깊은 시름을 자아내고있었다. 리북철은 얼핏 고개를 돌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책상우에 팔굽을 짚고 손우에 이마를 얹으신채 앉아계셨다. 책상우에는 문서더미가 무둑히 쌓였지만 그이께서는 조금도 움직이는 기색이 없으시였다. 다만 등잔불만이 가물가물 타고있었는데 이것은 어쩐지 방안에 떠도는 시름을 보태주는것 같았다.

리북철은 사령관동지께 다가가려다 말고 살며시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봉길이와 종삼이가 밖에서 기다리고있었다. 리북철은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에게는 한껏 물기를 머금고 거밋거밋하게 늘어진 나무가지며 흙물에 범벅이 된 눈무지며 게다가 방금 또 내리기 시작한 진눈까비며 하는것들이 모두 울적한 기분을 자아냈다.

불을 피우느라 땀을 흘렸던 얼굴에 진눈까비가 떨어지니 선뜩선뜩해왔다. 그러나 리북철은 사령관동지께서 쉬시기전에는 헐만한 마음의 여유를 못가진터이라 울적한 기분을 달래며 귀틀집둘레를 돌았다.

리북철이 모닥불을 근심하여 다시 집안에 들어간것은 퍼그나 지나서였다. 과연 근심하던대로 불은 사그라지고 옹이박이 나무끄트머리들이 남아서 그물그물 타고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가치를 꺾어가며 세모진 끄깔을 다시 만들었다. 사령관동지께 방해되지 않게 발소리를 죽여가며 출입문께로 나오던 리북철은 이번에도 벽 전체를 덮고있는 사령관동지의 영상을 뵙게 되자 가슴이 울렁거리는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사령관동지의 자세는 먼저 모습그대로이시였다. 책상우에 팔굽을 짚고 이마를 고이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아까나 지금이나 자그마한 움직임도 없으시였다.

다만 그이의 모습을 비치고있는 불빛에 아지랑이같은것이 가물거리고있을뿐이였다. 축축히 젖었던 사령관동지의 군복에서 피여오르는 김이였다. 그는 가슴이 옥죄여들어서 그만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사령관동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경위대에 담배가 있겠는데…》

사령관동지께서는 혼자소리처럼 말씀하시였다.

뜻밖의 말씀이시였다. 지금까지 사령관동지께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을뿐아니라 그것이 몸에도 해롭고 유격대활동의 은밀성을 보장하는데도 방해가 된다고 하시면서 대원들에게도 될수록 끊으라고 권하시였다. 그러시던 사령관동지께서 담배를 찾으시는것이다.

리북철은 영문을 알수 없었으나 심려에 잠기신 그이께 다시 여쭈어볼 엄두도 나지 않아서 곧장 담배가지러 달려갔다.

리북철이 담배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팔짱을 끼시고 방안을 거닐고계셨다. 무둑무둑 쌓여있던 문서더미가 펼쳐져있는 책상우에는 기름등잔이 밝게 타오르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리북철을 보시자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시였다.

《왜 쉬라고 하였는데 아직 쉬지 않고있소?》

리북철은 의아해서 종이에 싼 담배를 주물럭거렸다.

리북철은 이런 경우를 당하기는 처음이였다. 그이의 시선이 리북철의 손에 미치였다.

《손에 쥔것이 무엇이요? 담배라구… 이왕 가져왔으니 한대 피워봅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종이를 오려서 담배를 말으신 다음 불자리에서 불찌를 골라쥐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불찌를 담배에다 대려다 말고 머리를 드시였다.

사령관동지의 안광이 밝아지는듯하였다.

《그렇지, 북철동무가 알고있겠구만. 바야호마을에 김아무개라는 소년이 있었지.》

《예,있었습니다.》 하고 리북철은 활기에 차서 대답하였다.

김소년이란 사령관동지께서 친솔하신 부대가 1933년 초여름에 가야허부근에 이르렀을 때 바야호부락에서 알게 된 소년이였다. 그때 김소년은 마을녀성들의 혐의에 몰려 《민생단》끄나불이라는 더러운 루명을 쓸번하였다. 일부 유격대원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속탈을 만났는데 마을녀성들은 소년이 우물에 독약을 친것을 먹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김소년자신도 마을녀성들이 몰아대는바람에 그것을 시인하였다. 리북철은 사령관동지앞에 불리여온 소년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천연스레 자기가 독약을 쳤다고 하던 일이 어제런듯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그런것을 사령관동지께서는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베푸시여 김소년이 결백하다는것을 해명하시였으며 그것을 마을사람들앞에서 공개하시고 그를 유격대에 받아들인다는것을 선포하시였다. 김소년과 그의 어머니는 말할것도 없고 마을사람들 모두가 사령관동지의 위대한 풍모에 접하여 울었다.

리북철은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나는것을 느끼며 자기도 모르게 목청을 높여 말씀드리였다.

《그 동무는 녕안에서 활동하던 련대에서 싸웠습니다. 그 련대에서 로획한 기관총 세자루가운데서 하나는 그 동무가 빼앗은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장하오,장해! 그 동무가 벌써 한몫 단단히 하는구만. 그때 마

을녀성들만이 아니라 그자신도 독약을 쳤다고 했지.》

이러시며 사령관동지께서는 담배와 불찌가 달린 나무꼬챙이를 책상모서리에 놓으시고나서 먼저처럼 팔짱을 끼시였다.

《그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믿고 내버려두었더라면 어떻게 될번 하였소. 그가 어떻게 혁명대오속에 서며 어떻게 왜놈들을 족칠수 있겠소? 전에 차동범동무네 1중대에 있던 허동무도 그렇지. 허동무는 북만에서 싸우다가 영웅적으로 희생되였지만 본인은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순간에도 자기가 〈민생단〉혐의를 받고있다는것을 몰랐소. 몇몇 미련한자들이 그에게 더러운 루명을 씌우고 전투서렬에서 떼자는것을 우리가 막았소. 막았을뿐만아니라 그를 더 보람있는 전투에 참가시킴으로써 동지들속에서 자신을 검열하게 하고 또 위훈을 떨치게 하였소.

과연 누가 허동무가 영웅적인 최후를 마칠 때 그의 심장에서 터져나온 〈조선혁명 만세!〉의 웨침소리를 두고 〈민생단〉이라고 하겠소? 우리가, 조선혁명이 그걸 인정 안하오.》

사령관동지의 안광에서 섬광이 번쩍이였다.

사령관동지의 말씀은 책상우에 더미더미 쌓여있던 《진술서》요, 《조사서》요, 《증거문건》이요 하는 《민생단》문서들에 대한 엄숙한 판결이기도 하였다.

언젠가 사령관동지께서 근거지의 병기창에 들리시였을 때 한번 만나신 일이 있는 고명창이라는 동무의 자료에는 그가 유격대내에서 파괴작용을 하기 위하여 일부러 화약에 물을 쳐 불발탄을 만든것으로 되여있었다. 그와 같은 사실로서는 소왕청방어전투때 불발탄이 세개씩이나 났는데 그것이 모두 그 해독행위의 결과라는것이였다. 지난날 그는 외알배기 렵총을 메고 유격구에 들어왔고 그후 철선을 얻기 위하여 대담하게 현소재지근처에까지 나가서 전선줄을 끊어다가 작탄을 만들었는데 그 화약이라는것이 잘못 건사하면 누기가 갈수 있다는것을 생각할 때 자료에 대한 믿음은 영 없어지고마는것이였다.

자료의 태반이 이러루한것들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에는 본인의 자백서라는것이 뒤장에 붙어있

었다. 고명창의 경우에는 날자까지 밝혀가면서 1933년 10월 20일 밤 바닥초에 경계근무를 나갔다가 백가라는 밀정을 만나 과업을 받았다고 씌여있었다. 본인의 진술서를 무시할수도 없는 일이였다.

정반대의것들도 있었다. 본인들은 극력 부인하는것으로 되여있었지만 그대신 서술된 자료며 더우기는 옆사람들의 객관적진술이 틀림없는 변절자라고 락인하고있었다.

《과연 누가 일편단심 혁명에 바친 최선금동무의 충성의 마음을 부정할수 있소? 누가 감히 허동무를 조선의 혁명가가 아니라고 할수 있겠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라는 사령관동지의 대답소리에 이어 진눈까비에 푹 젖은 문룡이가 들어섰다. 리북철이 지시한대로 《민생단》협의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방금 도착한 모양이였다.

《모두 왔소?!》

사령관동지께서는 급히 마주오는 그에게로 다가가시며 물으시였다.

《왔습니다. 저너머 련대병실에 와있습니다. 모두 수백리길을 단숨에 왔습니다.》

《수백리길을 단숨에?!…》

책상모서리에 놓여있던 담배는 말은채로 그냥 있었고 불찌는 가물거리다가 가느다란 한줄기 연기를 남기고 스러진지 오랬다. 이미 바깥은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3

림강 마이허에서 불원천리 달려오며 고대하던 그 력사적인 순간은 불의에 닥쳐왔다.

늦은 새벽이였다.

련대병실귀틀집문이 소리없이 열리면서 사령관동지께서 들어오시

였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 《민생단》혐의자들은 한동안 멍청해서 사령관동지를 우러러보았다. 세찬 감격과 기쁨의 물결이 방안에 출렁인것은 그뒤의 일이였다. 아,얼마나 그립고 뵈옵고싶던 사령관동지이시였던가! 그들은 어린애처럼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령관동지의 모습을 우러렀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그들은 곧 무거운 자책과 죄송한 느낌으로 하여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은 사령관동지의 근엄하신 안색에서 자기들의 일로 하여 사령관동지께서 깊이 심뇌하시였음을 느끼였다.

이때 그들은 사령관동지께서 조선혁명전반을 령도하고계시는 몸이심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처럼 자기들의 마음을 괴롭히던 《민생단》문제는 보잘것 없는것이며 그 기나긴 밤과 밤을 이은 무서운 몸부림과 모대김도 모두 혁명의 근본문제와는 멀리 떨어진 사사로운 일이였던것 같아 일종의 부끄러움까지 느끼였다. 그리고 백날을 걸려도 못다할것 같던 가슴에 사무친 이야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것을 느꼈다.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나무우듬지를 스치며 지나가는 새벽바람소리가 와스스 들렸다. 그것은 일정한 사이를 두고 거듭되였다. 나무우듬지의 설레임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사령관동지의 다정한 음성이 나직이 울렸다.

《동무들,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어깨를 흠칫하였다. 한일도 없이 사령관동지께 근심밖에 끼친것이 없는 자기들에게 그러한 과분한 말씀이 계실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것이였다. 퇴창에 바른 종이가 펄럭거리고 나무그림자들이 춤을 추었다. 새벽녘이 되면서 바람이 일고 나무가 몹시 설레였으나 방안에는 태풍이 지난 뒤같은 정적이 흐르고있었다.

《동무들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시였다.

《나는 동무들에 대한 그 조사문건이라는것과 동무들자신이 직접 썼다는 〈진술서〉,〈자백서〉라는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주봉길이 갖다놓은 책상우의 문서배낭과 보따리를 가리키시였다.

《이것들을 보았으나 아무런 결론도 얻을수 없었습니다. 또 설사 그 자료라는것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동무들을 직접 만나보는것보다야 나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동무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맺힌 이야기들이 많을텐데 이야기를 합시다.》

녀성들속에서 먼저 《흑…》 하는 흐느낌소리가 울렸다.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방해할것 같아 몹시 삼가하여 숨죽이는 흐느낌이였다. 그 흐느낌은 무서운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졌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흐리신 안색으로 울고있는 동무들을 바라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서계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야기들을 하시오. 여기에는 누가 해명을 해주고 누가 해명을 바라는 일이 있을수 없습니다. 동무들자신이 투쟁하여야 합니다. 왜놈들은 무력만을 가지고는 안되니까 우리 대렬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려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벌써 1년전에 송두리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불화의 씨는 제거되였지만 그 독소는 아직 남아서 동무들을 괴롭히고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두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모두가 힘을 모아 이 마지막 독소를 들어내야 합니다.》

그러시며 사령관동지께서는 어서 이야기들을 하라고 여러번 재촉하시였다. 그러나 침묵은 여전히 무겁게 드리웠다. 나무우듬지우로 스쳐지나가는 바람소리만이 다시금 와스스 설레였다. 입을 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엇에 쫓기듯 나무그림자가 퇴창에 한껏 들씌워질 때 사령관동지의 확신에 찬 발걸음소리가 울려왔다. 사령관동지께서 방한가운데로 난 통로를 따라 지나시는것이였다. 그이의 눈길은 가볍게 물결치는 대원들의 어깨며 그들이 손에 구겨쥔 모자를 어루만지며 지나가다가 문결에 이르러 머리를 바투 깎은 나이지숙한 대원에게 머물렀다.

《고명창동무가 아니요？》

고명창은 어깨를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가 인차 숙이였다. 협의자들의 눈길이 사령관동지께 쏠렸다.

《고동무가 옳구만. 동무야 할 이야기가 많을테지. 어서 말을 해보시오.》

《…》

고명창의 가슴속에서 회파람소리 같은것이 새여나왔다. 뜻밖에 새여나온 한숨소리에 고명창자신도 놀라며 그것을 부정하려는것처럼 고개를 저었다.

《동무는 자신이 〈민생단〉과 관계가 있다고 했지만 나한테는 어쩐지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 그게 사실입니까?》

고명창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손에 쥐였던 모자를 주무르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검은 눈섭은 서글프게 축 처지고 얼굴은 이그러져 금방 울음이 터질것만 같았다. 그는 눈을 꾹 감고 입속말로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사령관동지, 전 〈민생단〉입니다.》

뙤창에는 수천마리 새들이 몰켜왔다가 날아가듯이 나무가지가 한껏 허리를 굽혔다가 일어서는것이 언뜩거렸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있었다. 사령관동지의 엄하신 음성이 방안을 쩌렁하고 울렸다.

《동무가 〈민생단〉이라니? 그러면 동무는 여기에 무엇때문에 왔습니까? 〈민생단〉에 들었을것 같으면 일본놈들한테 갈것이지 무엇때문에 산에서 먹지도 못하고 이 고생을 하면서 돌아다니는가? 집에 가서 뜨뜻한 구들에서 지내며 농사나 하면 편안할텐데 무엇때문에 산에서 고생하는가? 그래 4～5년동안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왜놈들과 싸운것은 무엇때문이였소? 어서 대답을 해보시오.》

고명창은 고개를 떨구고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윽고 고명창은 속으로 단단히 결심한듯 꼬깃꼬깃 꾸겨진 모자를 도로 품안에 꾹 움켜쥐며 머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눈물이 글썽해서 사령관동지를 바라볼뿐 말을 못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그래도 여기에 오면 동무들과 같이 백두산을 넘나들면

서 유격활동도 하고 또 동무들을 조선에 내보내여 지하정치활동도 시키리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랑림산줄기로 뻗어나가며 유격투쟁을 확대해나가고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전민족을 궐기시켜 본때있게 싸워보리라 생각하고 남호두에서 불원천리하여 동무들을 찾아왔는데… 그래 동무가 〈민생단〉이라니…》

사령관동지께서는 고명창의 손을 잡아드시였다. 고명창은 웬일인지 몰라 이끄시는대로 손을 치어올리였다.

《동무들, 고동무의 손을 보시오.》

사령관동지의 말씀에 유격대원들은 머리를 들었으나 영문을 몰라 고명창의 손이 아니라 사령관동지의 심각하신 얼굴만 우러러보았다.

《이 동무의 다섯손가락이 왜 이렇게 몽드라졌소? 병기창에서 작탄을 만들고 무기를 수리하느라고 줄칼질을 하는바람에 손가락끝이 이렇게 몽드라지지 않았습니까? 동무가 만든 작탄에 얼마나 많은 왜놈들이 죽었는가말입니다. 동무가 만든 첫 작탄이 터졌을 때 동무는 얼마나 기뻐하였소? 동무가 만약 원쑤의 편이라면 그렇게 기뻐할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손으로 왜놈의 손을 마주잡았다는게 사실이요? 왜 말이 없습니까?》

고명창은 여전히 사령관동지의 모습만 지켜보고있었다. 다만 무엇을 이야기하려는듯 움죽거리는 입술과 들먹이는 어깨가 그의 가슴속 깊은곳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말해보시오. 동무가 이 손으로 정말 왜놈의 손을 잡았단말이요?》

《아, 아닙니다. 제가… 제가 어찌 그렇게…》

《그런데 어째서 〈민생단〉이라고 하오?》

《그건… 그건…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 자꾸만 걸고 따지고드는데 못견뎌서… 약해져서… 저의 결백성조차 끝까지 주장해내지 못한 제가 무슨 혁명가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지킬줄 모르고… 강박앞에 무릎을 꿇은 저따위는 차라리… 〈민생단〉으로 몰려죽는게 낫습니다.》

고명창은 그만 머리를 푹 숙였다.

《정말 고동무답지 않소. …》

고명창을 내려다보시는 사령관동지의 눈길에는 질은 련민의 정이 어리여있었다.

장철구는 사령관동지를 뵈옵게 되였을 때 완전히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전날 행군준비를 마치고 사령관동지의 검열을 받을 때처럼 언제나 배낭뒤에 매달고 다니던 밥통이 제대로 있는가 하여 등뒤에 손을 가져가기까지 하였다. 그는 왜 자기가 여기에 와있으며 동무들이 무엇때문에 많이 모여있는지도 잊어버렸다. 가까와지시던 사령관동지의 발걸음이 멎고 여러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자기를 지켜볼 때에야 장철구는 사령관동지께서 자기앞에 와계신다는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장철구가 감격으로 몸을 떨며 머리손질을 하고 그이께 드려야 할 말씀을 찾고있을 때 사령관동지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다.

《철구어머니시구만,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그새 머리가 더 성겨졌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침통하신 안색으로 허옇게 살이 들여다보이고 머리칼이 버성겨진 철구의 머리를 보시다가 가슴아프신듯 눈길을 돌리시였다.

그제서야 그는 사령관동지를 찾아 왕청을 떠나 먼 돈화의 수림과 림강의 마이허를 거쳐 이곳까지 오던 때의 자기의 심정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으나 사령관동지께서는 벌써 자기앞을 뜨시였다. 장철구는 자기 문제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지나가신 그이를 찾을듯 모자를 든 손을 들기까지 하였으나 무엇이 주저되였는지 입을 열지 못하였다. 그이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철구의 눈에서는 굵다란 눈물방울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그전날과 다름없이 《어머니》라는 그 가장 친근한 말씀으로 자기를 불러주신 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대한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였다.

장철구는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사령관동지의 옷자락이 점점 마르기 시작하면서 더욱 또렷해지는 흙탕물자리를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장기령앞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알아보시고 걸음을 멈추시였다. 대뜸 그이의 격하신 음성이 방안에 울렸다.

《장동무가 아니요? 어떻게 되여 동무가 여기에 와있소?》

모두 긴장하여 사령관동지를 지켜보았다. 사령관동지께서 대원들때문에 이렇게 격분하신 일은 일찌기 없으셨던것이다. 장기령은 머리를 푹 수그리고 꿋꿋해있었다.

《동무야 혁명동지들이 불행을 당하고있는것을 보면 천리라도 달려와서 보고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닌가? 기관총은 어데다 두고 혼자 와있소? 기관총이 없이야 동무가 무슨 장기령이겠소? 기관총도 버리고 여기 와있단말이요?》

《…》

《그래 어느쪽이요? 혁명을 그만두려고 생각했소? 그렇지 않으면 〈민생단〉 관계자란말이요? 장동무가 혁명을 그만둘수는 없는것이고… 그래 동무가 〈민생단〉과 관계했단말이요?》

장기령은 눈을 꾹 감았다. 그의 해별과 바람에 그슬린 단단한 목에서 손가락같은 피줄이 꿈틀거렸다.

《그래 어느쪽이요?》

사령관동지께서 재촉하시자 장기령은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도로 머리를 숙이며 목안에 잦아드는 소리로 말씀드렸다.

《사령관동지, 저… 저는 절대로 〈민생단〉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는 혁명을 안하기로 하였단말이요?》

사령관동지의 말씀은 엄하시였다. 장기령의 구리빛 목에서 또다시 손가락같은것이 꿈틀거렸다. 그는 사령관동지께 무슨 보고라도 드릴 때처럼 결연히 머리를 들었다.

《사령관동지, 저는 〈민생단〉보다 더 엄중한 죄를 범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귀중한 동무가 〈민생단〉으로 몰려 희생되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제가 똑똑히 처신을 못했던 탓으로 오만복동무가…》

장기령은 끝까지 말씀드릴수 없었다. 무엇을 간절히 부탁하듯, 구원을 바라듯 그 커다란 눈에 눈물이 글썽해서 창고밖으로 지나가

던 오만복의 모습이 떠올랐다. 장기령은 오만복의 가슴아픈 모습을 지워버리려고 고개를 흔들었다. 다음 순간 장기령은 사령관동지의 뜻밖의 말씀에 그만 떨떨해졌다.

《오만복동무가 잘못되다니？ 아니요. 오만복동무는 아주 건강해서 싸움을 잘하고있소. 지금 북만에 있는 반일부대속에 들어가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있소.》

《네？！》

그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어 멍하니 그이를 우러러보기만 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몇걸음 옮기다 마시고 뒤를 돌아보시였다. 머리와 함께 굽은 어깨를 숙이고있는 뒤모습이 퍽 낯익은 모습이였다. 리경준이였다.

《리경준동무, 어떻게 되여 여기 와있소？ 나를 찾아서 떠났다는 사람이 나한테 안오고 여기 와있다니, 앓는 선금동무도 돌보지 않고 여기 와있다니…》

리경준은 어깨를 굽힌채 말이 없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대원들을 돌아보시였다.

《여기에 모인 왕청동무들은 모두다 최선금동무의 신세를 진 동무들입니다. 동무들이 입고있는 군복도 그렇고 나도 최선금동무가 지은 군복을 입었습니다. 우리한테 입힐 군복을 지으려고 밤잠을 안자고 그렇게도 애쓴 동무한테…》

차마 그 루명이라는 말을 입밖에 내실수 없으시여 사령관동지께서는 말씀을 끊으시고 대원들의 얼굴을 살펴보시였다. 대원들은 불현듯 선금의 미소어린 얼굴을 회상하였다.

《우리모두가 자랑으로 여기는 최선금동무는 지금 부상당한 몸으로 밀영병원에 누워있습니다. 훌륭한 녀성혁명가인 선금동무의 그 깨끗한 량심을 그 어떤자도 모독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허락하지 않을것입니다！》

이윽고 사령관동지께서는 걸음을 바꾸시여 방안 한쪽끝으로 가시였다.

《민생단》 혐의자들은 사령관동지께서 방 한쪽끝에 가시는동안

사열을 받듯 차례차례로 고개를 들며 기운차게 자기들의 결백함을 아뢰였다.

이윽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도로 책상앞에 서시여 그들을 바라보시였다.

《동무들을 오늘 누가 〈민생단〉이고 누가 〈민생단〉이 아니라고 결론하기는 곤난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누구도 증명할수 없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동무들에게 오늘 선포할것은 지금 이 자리에는 〈민생단〉은 한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동무들자신이 다 〈민생단〉이 아니라고 하기때문입니다. 나는 동무들의 말을 믿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사람은 안들었던 사람과 같이 오늘부터 새 출발을 하면 되는것이고 안들었던 사람은 원래 〈민생단〉하고는 관계가 없이 억울하게 의심을 받았으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사람이나 안들었던 사람이나 오늘부터는 다 백지로 돌아갑니다. 동무들은 다 지금부터 새로 출발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더는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문서보따리를 더는 캐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혁명은 안하고 이따위 문서보따리만 뒤지고앉아있겠습니까? 〈진술서〉요, 〈조사서〉요, 〈증거문건〉이요 하는 문서보따리보다도 동무들자신이 혁명의 길에서 싸우겠다는 그 결의를 나는 믿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옹호해 싸울수는 없습니다. 믿지 못할것을 옹호해나설수 있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동무들을 부당하게 박해하고 동무들의 혁명가적,인간적 존엄을 훼손하는 이따위 문서보따리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합니다.

동무들! 나는 이 시각부터 동무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민생단〉협의가 완전히 무효라는것을 선포합니다.》

일시에 흐느낌소리가 이구석 저구석에서 터져올랐다. 그것은 사령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의 맹세였고 그동안 어둠속에서만 지내던 사람들의 태양에 대한 열광적인 환호였다.

마당에 쌓은 문서더미는 자그마한 산을 이루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친히 그 어마어마한 문서더미에 불을 지르시였다.
문서더미는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슴속에 드리워져있던 암흑의 장막을 영원히 불태워버리는것 같은 그 불길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오래도록 바라보고있었다.
눈물에 젖은 그들의 얼굴에서 신선한 아침해별이 번들거렸다.
마침내 태양이 떠오른것이다.

4

작식터에서는 더운 김이 문문 피여올랐다. 장철구는 군복소매를 걷어올리고 앉아서 가마대신 쓰는 소랭이밑에 이깔나무삭정이를 꺾어넣고있었다. 철구의 맞은편에 앉은 얼굴이 갸름한 녀대원은 널판자우에다 밀가루반죽을 하고있었다.
《철구어머니, 노루를 몇마리나 잡을것 같아요?》
《글쎄… 한다하는 명사수들이 갔으니까 대여섯마리는 문제없겠지. 장기령동무랑 고명창동무랑은 잣꽉지를 쏴떨구는 명사수가 아니우?》
《노루고기로 속을 넣고 만두를 빚어봤으면 좋겠네!》
《만두만 빚겠수? 칼제비국도 해야지.》 하고 철구는 소랭이를 덮은 나무판대기를 열었다. 고소한 냄새가 풍겼다. 그는 소금물에 절인 콩을 두개의 군용밥통에 퍼담았다. 그리고나서 중천에 뜬 해를 쳐다보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위대에 가보겠어요.》
장철구는 팔소매를 내리고 옷매무시를 바로잡았다. 그러자 밀가루반죽을 하던 녀대원도 해를 쳐다보았다.
《아유, 해님이 저렇게 높아졌네. 사령관동지께서는 아침식사도 번지셨는데…》
녀대원은 일어나서 철구의 어깨에 앉은 검불을 털어주었다.

철구는 작식터를 떠났다. 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으로 억울한 루명을 벗어던졌을뿐아니라 그이께 드릴 식사를 마련하는 영광을 지닌 철구는 무한한 행복감에 잠겨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회의를 마치시자 억울한 혐의를 받고있던 대원들의 기분을 전환시켜주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사냥을 떠나시였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점심때가 되였는데도 돌아오지 않으시였다.

《사냥군》들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서야 돌아왔다. 여느때없이 떠들썩한 대렬이였다.

고명창은 거무틱틱한 얼굴에 노상 웃음을 띠우고 앞장에 서서 걸었다. 그전날의 사냥군솜씨를 보이며 몰이군을 지휘한 고명창은 사냥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골짜기와 산등판을 돌아다니는 기분이였다. 그는 뒤를 돌아다보며 벌쭉거렸다. 고명창의 뒤에는 장대에 노루를 달아서 멘 동무들이 따랐다. 장대는 활등처럼 휘여가지고 금시 부러질듯 아츠러운 소리를 냈고 땅에 드리운 노루대가리가 시계추처럼 좌우로 흔들거렸다.

밀영에 남았던 녀대원들이 여기저기서 달려나왔다. 삽시에 《사냥군》대렬은 녀대원들에게 둘러싸이였다.

《동무들, 수고했어요!》

《몇마리나 잡았어요? 뭐 일곱마리?! 그게 정말이예요?》

《어디 봅시다. 길을 좀 내요!》

《동무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

《구경군》들이 점점 늘어났다. 《구경군》들은 해빛에 반짝이는 노루털을 쓸어보기도 하고 흰점이 박힌 살찐 엉덩짝을 철썩 때려보기도 하였다. 또 어떤 녀동무는 활등처럼 휘여진 장대를 받아메기도 하였다.

《정말 고포수의 솜씨가 다르군요.》

겹겹이 둘러선 《구경군》들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고명창의 청청한 목소리가 응했다.

《아니요. 명사수 장기령동무의 솜씨요.》

장철구는 뒤늦게야 달려왔다. 고명창은 철구를 보자 반갑게 손짓

을 하였다.

《자, 철구어머니！ 받으시오. 자그만치 7마리요.》

《정말 7마리네！ 이 많은걸 다 어떻게 할가？》

철구는 처음에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래졌고 다음에는 난처해서 두손을 마주잡았다. 될수록이면 《사냥군》들이 많은 노루를 잡아오기를 바라던 철구였으나 정작 여러마리를 잡아온걸 보니 그것을 처분할 일이 난감했던것이다.

《철구어머니, 걱정마시우. 자셔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으니. 병원에랑 아동단원들한테랑은 안보내겠소？ 그러구두 남으면 배낭에 지고다니면서 두고두고 먹읍시다그려.》

고명창은 여전히 청높은 음성으로 말하고는 껄껄 웃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대렬뒤에 서계시였는데 리북철이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만족하신듯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부드러운 눈길만은 《사냥군》들한테서 떼지 않으시였다.

장철구는 노루생각을 잊어버리고 대뜸 사령관동지앞으로 달려갔다.

《사령관동지, 점심식사는 준비된지 오랩니다. 그런데 벌써 저녁때가… 아침식사도 번지시고…》

《아닙니다. 철구어머니, 저 동무들을 보십시오. 저 동무들의 웃음을 진수성찬에 비기겠습니까？》

숲속에서는 웃음소리가 좀처럼 떠날줄 몰랐다. 협의를 받고있던 사람들이 몇달만에, 그것도 사령관동지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우울을 가시고 피여난 웃음이니 그럴만도 하였다.

어느덧 저녁노을이 숲변두리를 곱게 감쌌다.

이날저녁 사령관동지께서는 아침과 점심을 겸하여 저녁을 드시였다.

밤에는 유쾌한 오락회가 벌어졌다.

오래동안 노래도 춤도 잊었던 사람들이 이날밤에는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르고 다리가 뻣뻣해지도록 춤을 추었고 있는 재간껏 웃기고 마음껏 떠들썩하게 웃어댔다.

어찌 춤추고 노래부르지 않을수 있으랴.

혁명의 변절자,배신자라는 그 몸서리쳐지는 억울한 루명을 벗어던지고 깨끗한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혁명가로서의 당당한 자부심을 되찾은 그들은 행복에 겨워 노래부르고 환희에 넘쳐 춤을 추었다.

그러나 이밤 그렇게 화락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사령부귀틀집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생각하고계시였다.

수많은 시름을 도맡다싶이 안고계시는 사령관동지이시였다.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가 무송현 경내에 나왔다는것을 벌써 알아내고 《토벌》을 준비하고있었다. 그런데 사령부수하에는 이제 겨우 100여명이 있을뿐이였다. 친솔부대의 골간으로,기둥으로 되여야 할 이 100여명의 사람들조차 버림받다싶이했던 사람들이였으므로 변변한 무기들을 못가지고있었고 더우기 탄알은 아주 적었다.

오늘 사냥을 나가서 그들이 가지고있던 총들을 시험해보니 대부분이 조준편차가 많은 낡은 총들이였다. 한사람앞으로 세알씩 가지고있었다는 탄알은 림강에 갔을 때 쓰고 오늘 사냥에서 쓰다나니 거의다 떨어졌다는것이다.

경위대에는 대원 15명과 기관총 한문밖에 없다. 군복들도 말이 아니고 식량도 없다. 이런 형편에서 적들과의 대결을 어떻게 주동적으로 겪어나가며 또 어떻게 짧은 시일안에 저 사람들로 조선인민혁명군에서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주력부대를 꾸려낼것인가?

약간 지체될수는 있으나 백두산기슭으로의 전략적이동은 불가피한데 그 수많은 아동단원들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밖에도 아직 소식이 없는 교하원정중에 있는 2련대성원들에 대하여,환자들의 치료문제에 대하여,백두산근거지창설을 위한 선발대파견문제에 대하여,조국광복회창건을 준비하기 위한 공작원들의 파견에 대하여 하나하나 매듭을 푸시고 구상을 짜시며 방도를 찾아내셔야 하였다.

모두가 번민과 우울을 털어버리고 춤과 노래로 즐기는 이밤 사령관동지께서는 삼검불처럼 뒤엉킨 수많은 문제들을 안으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5

장군님께서 사오년동안 품속에 고이 간직해오셨던 귀중한 돈을 받아들고 무송으로 천을 사러 길을 떠나던 순간부터 강세호의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그 혼자의 가슴속깊이 묻어두고있는 한가지 속궁리가 있었다.

그것은 헐벗은 마안산아동단원들의 옷을 마련하게 되는 이번 기회에 아직까지 기운 군복을 입고계시는 장군님께 새 군복을 지어 올리려는것이였다.

사실을 정확히 말하면 바로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기때문에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사랑이 깃들어있는, 가슴이 저리고 손이 떨려 감히 받아서 함부로 써버릴수 없는 그 20원돈을 더이상 사양하지 못하고 받아쥘수밖에 없었던 강세호였다.

그는 결코 헐벗은 아동단원들에게 당장 옷을 해입힐 다른 길이 없었기때문에만 그 돈을 받은것은 아니였다. 벌거벗다싶이한 아이들의 정상이 아무리 가긍하고 또 그 애들에게 한시바삐 옷을 해입혀주시려는 장군님의 소원이 아무리 절절하시였어도 그와 같은 속궁리를 가지고있지 않았더라면 그 돈을 그렇게 쉬이 받지 못했을것이며 설사 받았다 해도 그 돈으로 주저함이 없이 선뜻 천을 사들지 못하였을것이다.

아이들에게 그 누구도 함부로 써버릴수 없는 그 사연 깊은 돈의 래력을 말해주면서 며칠만이라도 참아달라고 터놓고 량해를 구하든가 아니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적의 수송대를 치든가 그밖에 다른 방도를 찾았을것이다.

장군님의 소망이 그러하신데다 여러가지 딱한 사정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돈을 쓰지 않을수 없는바에는 어머님의 사랑이 장군님의 몸에 어떻게나 남아있어 그이께서 항시 어머님의 따스한 사랑을 온

몸에 느끼실수 있도록 해드리고싶은것이 강세호의 심정이였다.

그렇게 하는것이 바로 장군님의 어머님께서 생전에 지니셨던 뜻을 지켜드리는 자기들의 드틸수 없는 의무이며 도리라고도 생각한 강세호였다.

지금껏 장군님께서 기운 낡은 군복을 그냥 입고계시도록 하고있는 자기자신에 대한 모멸감에 사로잡혀 그 누구앞에서나 무시로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민망스럽기만 하던 강세호였던만큼 그는 자기 결심대로 집행하였다.

그는 무송에 가서 아이들의 옷감을 사면서 각별히 고르고 골라 한벌의 군복을 지을수 있는 천을 같이 끊었었다. 그리고나서야 가벼운 기분으로 돌아서서 마음속에 날개라도 돋친듯 마안산에로의 길을 재촉해왔던것이다.

사령관동지께서 재봉대에 찾아가 형편을 료해하고 지체없이 아동단원들의 옷을 짓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강세호는 재봉대에 도착하자 실태를 알아본 다음 우선 남녀아동단복을 한벌씩 짓게 하는 동시에 아무도 모르게 따로 간수해가지고 갔던 감으로 장군님의 군복을 지을데 대하여 의논하였다.

여기서 강세호는 장군님을 모시는 사업에서 빈구석들이 있다고 리북철을 충고한적 있는 자기자신에게도 그만 못지 않게 빈구석이 있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장군님의 군복을 지어드리자고보니 필요한 치수를 알수 없었던것이다. 리북철이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사령관동지를 모시고있는 사람으로서 여적 그것조차 알아두지 않고 지내왔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그는 부끄러움속에 자신을 질책했다.

어림짐작으로 군복을 지어올릴수는 없었다. 언제나 흠모해마지않는 사령관동지의 군복을 처음 지어볼 영광을 지니게 된 마안산재봉대원들도 강세호도 군복을 몸에 꼭 맞게 지어드려야 하겠다는 일치한 생각들을 가지고있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한 치수를 맞춰낼수 있겠는가를 잠시 궁리하던 강세호는 최선금에게 생각이 미치자 그길로 병원을 찾아갔다.

왕청에서 몇차례나 사령관동지의 군복을 지어본적이 있는 최선금

은 비상하달만치 소매길이며 모자테의 둘레 등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치수를 정확히 기억해두고있었다.

강세호는 병원에서 재봉대까지의 꽤 먼길을 날듯한 기분으로 단숨에 돌아왔다. 그리고 순 녀대원들뿐인 재봉대원들의 살림에서 남자의 손이 가야 할만한 일거리를 찾아내여 이것저것 손질해주면서 장군님의 군복과 견본삼아 우선 만들라고 부탁했던 남녀아동단복이 지어지기를 기다렸다.

재봉대원들은 어린 아이처럼 자주 곁에 나타나서는 옷이 어느만큼 됐는지 보고 또 보군하는 강세호의 초조해하는 심정을 헤아려 밤에도 일손을 놓지 않고 갖은 정성을 다하였다. 재봉대원들의 귀틀집에서는 재봉기 돌아가는 소리가 밤새껏 울렸다.

장군님의 군복과 첫 남녀아동단복이 다 되자 강세호는 그것들을 정히 개여 배낭안에 넣어가지고 사령관동지께서 가 계실 제2련대병실을 찾아 지체없이 길을 떠났다.

재봉대원들이 대준대로 가파로운 고개를 두개 넘어서 다시 산굽이를 에돌아 텅빈 제2련대병실들이 자리잡고있다는 골짜기어구에 들어섰을 때 어디에선가 《련대장동지！》 하고 나지막하나 반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키낮은 전나무아래 바위뒤에서 개털모자를 쓴 경위대원 두칠이가 쌀쌀한 추위에 뭉툭한 코끝이 빨개진 얼굴을 내밀고 싱긋 웃어보였다.

《여기서 뭘 하오？ 보초근무요？》

《네.》

두칠은 나무아래의 바위뒤에서 나오려고 하였다.

《나오지 마오.》

강세호는 주위를 둘러보고 별다른 정황이 없다는것을 확인한 다음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날이 찬데 귀덮개를 내리우지…》

귀덮개를 우로 올린 두칠이의 털모자에는 삐죽삐죽한 마른 전나무잎들이 달라붙어있었다.

《일없습니다. 귀덮개를 내리우면 잘 듣지 못합니다.》

두칠은 《밝은 귀》로 알려져있는 경위대장 리북철의 본을 따

고있음이 명백하였다. 항상 밝은 귀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무리 추운 때라도 귀덮개를 내리우는 법 없는 리북철의 책임성있는 본을 따르는것은 좋은 일이다.

강세호는 저으기 흡족한 마음으로 지낼수록 정이 가는 두칠이에게 한가지 요령을 일러주었다.

《한쪽씩 엇바꾸어 내리우군하라구. 동무네 경위대장도 단련될때까지 그렇게 했다더구만.》

그것은 사실 리북철의 경험이 아니라 강세호자신의 경험이였다. 지난날 그는 사령관동지를 호위할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귀를 단련시켰던것이다.

《모자테에다 고무줄이나 노끈을 두르고 거기에 끼워놓으면 한쪽 귀덮개만 올릴수 있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서 들어가보십시오. 사령관동지께서 기다리실겝니다. 재봉대에서 오시는길입니까?》

《음,재봉대에서 곧장. 그런데 몹시 기다리시오?》

《련대장동지를 찾으시는 말씀은 듣지 못했지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불어났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다니?》

《〈민생단〉혐의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못들었습니까?》

강세호는 처음 듣는 소리였다.

《그 사람들이 왔소? 얼마나 왔소?》

《한 100명 잘되겠습디다. 우리 경위대장동지가 림강 마이허라는덴가 가서 찾아가지구 데려왔답니다. 그럼 련대장동지는 사령관동지께서 〈민생단〉보따리를 불태워버리신것도 모르고 오셨겠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강세호는 새라새로운 소식을 주어대는 두칠의 말에 얼떨떨했다.

《사령관동지께서 그 〈증거문건〉이란걸 다 검토해보시구 또 그 〈민생단〉혐의를 받았던 사람들과 친히 담화해보시구나서 어제 아침 그 동무들앞에서 이따위 의심보따리는 우리 조선혁명에 백

해무익하다구 선언하신 다음 손수 그 〈민생단〉 보따리에 불을 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두 울구 정말 굉장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과거는 다 백지로 인정한다, 동무들은 이제부터 다 새 출발을 한다고 선포하시구 친히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시여 어제 하루를 사냥으로 즐기도록 하시였습니다. 노루만 해도 자그만치 7마리나 잡았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만두를 빚어 모두 푸짐하게들 먹구 오락회를 열구 굉장하게 노는게 참 볼만했습니다.》

두칠이는 어제 자기가 본 장쾌하고 감격적인 광경들을 신이 나서 이야기하였다. 강세호는 그 모든 일들이 자기가 없는 때에 벌어졌다는것이 은근히 섭섭했고 두칠이가 몹시 부러웠다.

《그래, 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오?》

한결 더 마음이 급해진 강세호는 가만 둬두면 한정없이 그냥 떠들어댈것 같은 두칠이의 말이 잠시 동강난 틈에 물었다.

《병실마당에 찾아가보십시오. 아까 사령관동지께서는 거기서 〈민생단〉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로 림시대렬편성을 해주시고계셨습니다.》

《경각성있게 근무를 잘 서라구. 적들이 벌써 우리 인민혁명군사령부가 무송땅에 나왔다는걸 알고있으니만치 언제 여기에도 나타날지 모르니까.》

두칠이와 헤여진 강세호는 급한 걸음으로 골짜기를 톺아올라갔다.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들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얼음이 덮인 개울옆의 잔디밭에 여라문명나마 되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낡고 허술한 군복차림들이였으나 한결같이 밝은 얼굴빛을 띤 그들은 무슨 명절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마냥 유쾌한 롱말을 주고받으면서 맨 가위로 텁숙해진 머리를 깎기도 하고 깨진 절반짜리 쪼각손거울을 나무옹이우에 받쳐놓고 앉아 면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중의 한 대원은 날을 잘 세운 단검으로 시꺼먼 수염이 한벌 덮인 턱과 목을 밀어내고있었다. 얼음을 까낸 개울물에서 헉헉 흐느끼며 머리를 씻는 대원도 있었다. 방금 세면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문댄 두 대원의 시뻘건 얼굴에서는 김이 피여올랐다.

개울건너편 산비탈에는 다른 한무리의 사람들이 해를 마주하여 모여앉았는데 몸매 다부지고 목이 밭은 한사람이 그앞에서 주먹으로 가끔 허공을 내리치며 그들에게 무슨 말인가 하고있었다.

그리 넓지 않은,병실로 쓰는 귀틀집마당에는 두개의 대렬이 정렬해 서있었는데 그 무슨 행군준비정형을 검열하기라도 하는듯 대렬책임자들이 그들의 정돈상태를 살펴보고있었으며 마당 한귀퉁이에서는 다른 한떼의 사람들이 무기소제를 하기도 하고 혹은 배낭을 손질하거나 목달개를 달거나 행전을 치거나 신발을 손질하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으시였다.

강세호가 마당 한옆에서 복장과 무기를 손질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알아보려고 다가가고있을 때 분비나무숲사이의 오솔길에서 전령병 주봉길이 달려나오다가 그를 보고 멈춰서며 인사를 했다.

《사령관동지께서 어디 계시오?》

《지휘부귀틀집에 계십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가 등성이를 넘어서면 거기에 자그마한 귀틀집이 하나 있습니다.》

주봉길이 대준 그 귀틀집근처의 넙적한 너럭바위우에서는 리북철이와 현팔이가 기관총을 분해해놓고 앉아 한창 무기소제를 하고있었다. 리동백이도 옆에서 그들을 거들어주면서 기관총작용원리를 설명하는 리북철의 말을 듣고있었다.

강세호를 보자 세사람은 일시에 일어났다.

《수고했소. 경위대장동무！ 그 사람들을 용케 찾아 데려왔더구만.》

리북철을 여러날만에 보는 강세호는 거수경례를 붙인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기름이 묻어 어지럽습니다.》

리북철은 오른손을 등뒤로 가져갔다.

《원 별소릴 다 하오.》

강세호는 가볍게 나무라며 손을 그냥 내밀었다.

《괜히 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곧 사령관동지를 뵈올텐데요.》

강세호는 그러며 끝내 악수를 사양하는 리북철에게 새삼스럽게

정이 갔다.

《재봉대에 가셨다더니 거기서 오십니까?》

《재봉대에서 오는길이요. 〈민생단〉 보따리가 재로 돼버렸다면서?》

《벌써 들었습니까? 참 장관이였습니다.》

《여기 들어오다가 두칠동무한테서 방금 들었소. 지나오면서 보자니까 모두 얼굴들이 이만저만 밝지 않더구만. 명절준비를 하는 사람들처럼 흥성거리구… 뭐 벌써 대렬편성까지 했다면서?》

《아까 사령관동지께서 억울한 루명을 썼던 사람들을 가르시여 림시로 소대들을 편성해주셨습니다. 무기도 골고루 돌아가게 고려해서말입니다. 무기라는게 형편없습니다. 쓸만한 총은 몇자루뿐이구 나머지는 총알도 제대로 나가지 않는것들입니다. 탄알들도 거의 없구. 그래서 사령관동지께서는 우선 무기와 탄알을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의 전투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지시하시였습니다. 새로 조직되는 부대에 믿을만한 화력기재라군 이 기관총 한문밖에 없다싶이합니다. 아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대렬을 림시로 편성하시고나서 그 동무들앞에서 현재의 각박한 형편을 뚫고나갈데 대하여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기관총 한문밖에 없다, 기관총으로 적들을 들이칠테니 동무들은 육박전을 벌려서라도 무기와 탄알을 빼앗으라고말입니다. 그러자 모든 동무들이 환성을 올리며 육탄이 되여 싸워서라도 무기와 탄알을 갖추겠다고 앞을 다투어 다짐들을 했습니다.》

강세호는 《민생단》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미구에 있을 출전을 마치 명절을 맞는것 같은 기분으로 준비하고있는 그 심정이 리해되였다.

《재봉대에 갔던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리동백의 물음이였다.

《먼저 견본만 한벌씩 가져왔습니다.》

하고 강세호는 다시 리북철을 돌아보며 물었다.

《사령관동지께서 계시오?》

《네, 계십니다. 어서 들어가보십시오.》

강세호가 귀틀집에 들어서자 사령관동지께서는 반가와하시였다.
《수고했소. 그래, 아이들의 옷은 어떻게 됐소? 몇벌이나 만들었소?》
《우선 남녀아동단복견본만 가져왔습니다.》
《견본을? 어디 봅시다.》
강세호는 배낭속에서 견본으로 만든 옷들을 차례로 꺼내여 통나무책상우에 놓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 옷들을 일일이 다 펴보고 쳐들어보기도 하셨다.
《맵시도 있구 성의있게 아주 잘 만들었구만. 아동단원들이 받아입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소! 그런데 왜 두벌밖에 못만들었소? 재봉대의 형편이 어려운 모양이구만?》
《재봉대원이 모두 세동무뿐인데다 재봉기는 두대뿐입니다. 그중에 한대는 북이 못쓰게 돼서 돌리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마와 저고리는 손으로 누빈것입니다.》
《누빈거라? 손으로 누빈게라면 여기 재봉대에도 최선금동무처럼 솜씨있는 재봉대원들이 있는 모양이군. 견본은 마음에 드오. 유격근거지때에 입히던 아동단복과 같은것이니 아동단원들도 물어보나마나 마음에 들어할거요. 다 이 모양대로 해입히도록 합시다. 재봉기와 손이 모자란다니 여기 있는 작식대원들과 녀대원들에게 호소해서 손으로 누벼서라도 어서 벗은 애들부터 입혀줍시다. 필요하다면 남성동무들의 손까지 빌립시다. 좀 서투르게 지었다 해도 우리 아이들은 나무라지 않을것입니다. 그 애들도 유격대원들의 성의를 알아줄거요. 될수록 아이들의 몸에 꼭 맞게 지어야겠소. 한남실동무보구 당장 급하게 해입힐 아동단원들부터 몸을 재가지구 천이랑 여기 가지구 와서 녀대원들에게 맡기도록 하라면 될것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손수 사내애의 옷견본을 차곡차곡 접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알겠습니다.》
강세호도 치마를 접고 저고리도 마저 접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할것이 있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접으신 옷을 강세호의 손에 넘겨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여덟살나는 사내애옷과 여섯살나는 처녀애옷을 한벌씩 먼저 만들어 나에게 보내줄수 없겠소? 이 옷은 너무 커서 맞지 않을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호는 사령관동지께서 누구한테 입히시려는지 몰라 궁금했지만 외람된 질문으로 될것 같아 묻지 않았다. 마안산아동단원들가운데는 여덟살나는 사내애는 몇이 있었지만 여섯살로 보일만큼 어린 계집애는 본 기억이 없었다.

《그럼 래일 저녁때까지 나에게 동무가 직접 가져오시오. 동무가 오지 않으면 안될 일이 있으니 꼭 동무가 가지고 래일 저녁때까지 와야겠소.》

사령관동지께서는 강세호에게 하실 이야기를 끝내신듯 그가 아동단복들을 배낭에 도로 넣기를 기다리셨다. 그러나 강세호는 접은 옷들을 배낭옆에 쌓아놓은채 머밀머밀하고있었다.

《무슨 할 말이 있소?》

사령관동지께서 물으시였다.

《네!》

강세호는 몸을 바로잡으며 대답했다.

《그럼 말할게지. 뭘 동무가 다 망설이며 그러오?》

사령관동지께서는 가벼이 나무라시듯 말씀하시며 정겹게 웃으시였다.

강세호는 여며놓았던 배낭아구리를 헤치고 그안에서 새로 지어온 사령관동지의 군복을 꺼냈다.

그는 그 군복을 정히 받쳐들고 자기와 군복을 의아쩍게 번갈아보시는 사령관동지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사령관동지의 군복을 새로 지었습니다.》

잠시 책상우에 놓은 군복을 지켜보시다가 강세호를 넘겨다보시는 그이의 눈에는 놀라시는 빛이 어렸다.

《천이 어디서 났소?》

《그 20원에서 한감을 끊었습니다.…》

강세호는 무엇인가 더 말씀드리고싶었으나 말하지 않았다. 그의 눈길은 부지중 사령관동지께서 입고계시는 낡은 군복바지의 기운 자리로 쏠리였다.

장군님께서는 그 군복을 마련한 강세호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시였다.

어머님의 고귀한 사랑을 그 군복에 옮겨 그대로 남기고싶어하는 강세호의 심정을 장군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수 있으시였다.

《잊지 않겠소. 내가 이렇게 좋은 동무들속에 있다는것을 아신다면 우리 어머님도 퍽 기뻐하실거요!》

그러시면서 통나무책상우에 놓인 군복을 쓸어보시던 장군님께서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마침 잘되였소. 그러지 않아도 군복 한벌을 속히 마련할수 없을가 하고 궁리하던참인데… 그리고 한가지 기쁜 소식을 전하겠소. 오늘 미혼진에서 치료를 받던 차동범동무가 퇴원하여왔소. 강동무를 기다리던데 어서 만나보시오.》

6

강세호는 미혼진병원에서 기어이 퇴원하여 사령부를 따라 마안산까지 찾아나온 차동범을 인차 만나보았다.

워낙 차동범은 강세호가 단출한 사령부일행과 함께 미혼진을 떠날 때 그와 같이 사령관동지를 모셔드리며 나왔으면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만큼한 건강조건이 못되였으므로 그냥 미혼진병원에 남았었다. 그때의 건강으로 16명의 단출한 사령부일행을 따라 나선다는것은 도움은 고사하고 심려와 로고와 부담만 더해드린다는것을 생각했던 차동범은 건강이 웬만해지면 병원에서 도망쳐서라도 사령부를 따라 무송으로 나오겠다고 강세호한테만 귀뜀했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벌써 이 마안산에 나타난것이다.

두사람은 서로 안고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해빛이 다양하게 내려쪼이는 훤한데로 나왔다.

그들은 떠들썩 웃으면서 서로 어깨를 쥐여박기도 하였다.

《이마에 감았던 붕대는 왜 풀어던졌어? 응? 병원에서 도망치는데 붕대가 방해되였던게로군.》

강세호는 군모를 숱이 많은 눈섭우에까지 내려쓰기는 하였으나 관자노리의 상처자리는 감추지 못한 차동범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솜외투의 앞자락을 헤쳐놓은채 걷고있던 차동범은 눈을 찡긋하며 웃었다.

《이거 만나자마자 인사가 좀 날카롭군. 강동무한테야 언제나 실물교육이 필요하지. 그래 한번 보아야 마음놓을 작정인가? 자, 보라구—》 하고 차동범은 모자를 훌렁 벗고 딴딴하고 검실검실한 이마빡을 쑥 내밀었다. 뜻밖의 일이라 강세호는 뒤로 물러서며 쳐다보았는데 그때 벌써 차동범은 재빨리 모자를 쓰고말았다. 그런속에서도 강세호는 이마우에 동전잎만한 상처자리가 난것을 알아보고 가슴이 쓰려서 못본척하였다. 그리고는 마음에 없는 우스개소리를 하였다.

《허, 나는 차동무가 이렇게까지 정직한줄은 몰랐군. 거참 솔직한데—》

차동범은 튼튼한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다가 강세호의 등을 툭 쳤다.

《여보게 친구, 동무가 그렇게 깐깐한 친구인줄은 나도 처음 알았네. 걱정이 많으면 빨리 늙는 법이라네.》

강세호는 앞에 드리운 나무가지들을 밀어놓으면서 한걸음 뒤에서 걸어오는 차동범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느라고 애를 썼다. 단단하고 걸찬 이깔나무가지보다는 비록 메마르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황철나무가지가 연하고 탄력이 있어서 헤쳐나가기가 한결 헐했다. 이런 일에는 성질이 급한 차동범이보다 강세호의 손길이 다심한데가 있었다.

그들이 그간 서로 지내온 이야기를 나누며 은백색줄기를 곧게

세운 봇나무가 주런이 늘어선 공지에 이르렀을 때였다.

《가만—가만—》

차동범이 별안간 잦아드는 소리를 하며 강세호의 손목을 틀어잡고 어깨를 낮추었다. 그의 눈가에 천진스런 미소가 어렸다. 영문을 모르고 한걸음 뒤로 물러선 강세호는 차동범이 가리키는 두줄기 봇나무가 서있는곳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봇나무의 웃초리를, 다음에는 굵은 가지들을 더듬어보았으나 눈에 뜨이는것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인가 묻는듯한 눈길로 차동범을 돌아보았을 때 몇걸음 옮기던 차동범이 봇나무밑둥을 가리키며 또 걸음을 멈추었다. 봇나무밑에는 진회색 토끼 한마리가 꼬부린 등을 이쪽으로 돌리고앉아서 커다란 두귀를 까불짝거리며 장난을 하고있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갑작 돌아앉아서 보란듯이 머리를 뒤로 젖히고 마른 봇나무잎사귀를 삽삽하게 씹었다.

《어떻게 한다? 붙잡아야 할텐데—》

하고 차동범은 눈짓으로 강세호더러 측면으로 나서라고 하였다. 강세호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토끼가 빠져나갈수 있는 저쪽변두리로 슬금슬금 걸어나가며 긴장한 눈초리로 토끼를 살폈다.

바틈한 목을 어깨에 박고 금시 덮칠듯이 두손을 들고 튼튼한 아래턱에 힘을 준 차동범은 날카로운 눈빛을 감추기라도 하듯 눈을 쪼프리며 외나무다리를 건느는것처럼 한걸음한걸음 더듬어갔다. 그러다가 그만 백포자락이 삭정이에 걸린것을 모르고 걷는바람에 삭정이 부러지는 야무진 소리가 딱 하고 울렸다. 벌써 저편에서 방어태세를 하고있던 강세호가 못마땅한듯 성난 눈짓으로 흘겨보다가 나중에는 주먹까지 내보이였다. 차동범은 그저 입을 벌린채 눈을 꺼벅거리는것으로 사죄를 하였다.

이때 씹기를 그만둔 토끼는 눈송이가 달라붙은 주둥이를 높이 쳐들고 귀를 칼날같이 곤두세웠다. 반짝거리는 눈은 앞을 바라보고 두귀는 앞뒤로 숙여지기도 하고 좌우로 번져지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한데 모여 쭈뼛 일어섰다.

그러더니 강세호쪽으로 냉큼 돌아앉았다. 이때 강세호는 공지

에 나섰을 때였으므로 몸을 숨기지 못하고말았다. 초조감에 사로잡힌 차동범은 허리를 굽히라고 손시늉을 하더니 토끼의 뒤로 달려갔다. 그러나 토끼는 당황함이 없이 몸을 움츠렸다가 방비가 약한 구석을 찾고는 껑충 뛰여 달아났다.

《우—우—우—》

《우—여—어—》

두 련대장은 정신없이 허둥지둥 앞서거니 뒤서거니 토끼를 쫓았다. 곧추 달려가던 토끼는 방향을 돌려 원을 그리며 달렸다. 자신이 있는듯 한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달리다가 획 우측으로 꺾더니 강세호가 두팔을 벌리고 막아 서있는 바로 그 잡관목덤불속으로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두 련대장은 토끼가 다시 나오기로 약속이나 한듯이 컴컴한 덤불속을 한참동안이나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차동범이 먼저 허리를 펴며

《에헤,허탕을 쳤군.》 하고 아쉬운듯 손을 털었으나 눈에는 만족한 미소를 담고있었다.

《음,땀을 쭉 뽑았군.》 하고 강세호는 토끼때문인것이 아니라 차동범을 놓고 하는 소리라는 뜻으로 그를 외면한채로 묻지 않은 눈을 탁탁 털었다. 그러자 차동범은 껄껄 웃으며 강세호의 등을 툭 치고 슬쩍 밀쳤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유쾌하게 웃으며 또 밀림속을 거닐었다. 토끼의 출현으로 두사람은 한결 명랑해졌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동무의 부상때문에 내내 걱정하셨다네.》

《쓸데없는 부상을 당해놓고… 머리에 붕대까지 감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인사라니까. 사령관동지께서 보시면 또 심려하실것 같아 붕대를 풀어버렸네.》

밋밋한 피나무가지를 꺾어든 강세호는 머리를 끄덕였다.

《내 그런줄 알았네.》

《그새 강동무가 혼자서 수고많았네. 무송에두 다녀오구… 도중에서 뭐 그 천이랑 빼앗길번했다면서?》

《건 어느새 벌써 들었나?》

《사령관동지께서 말씀해주시더군. 나는 사령관동지를 만나뵙

고 정말 새삼스럽게 동무나 나나 얼마나 그이의 사랑을 받고있는가를 깨달았네. 동무에게 자주 단독임무를 맡기게 되신다고 하시면서 동무의 신변이랑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강세호는 가슴이 후더워졌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왔다.

《나는 정말 사령관동지께서 나 한사람만이라두 걱정하시지 말아주셨으면싶네.》

차동범은 한숨을 내쉬였다.

《아 참! 언제 가면 우리들이 제구실을 해보겠는지! 사령관동지의 심려를 덜어드려야 할 우리들이 늘 걱정만 더해드리니… 얼굴이 뜨겁네!》

튼튼한 턱을 언뜻 들고 날카로운 눈으로 파란 하늘을 쳐다보며 차동범은 목멘 소리를 하였다. 이즈음에 듣지 못하였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꽤 높았음에도 강세호는 귀를 기울이였다. 그것은 마치 차동범의 열정으로 높이 뛰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려는것 같았다. 강세호는 말보다는 표현되지 않은 차동범의 심중을 리해하는데 습관되여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자연히 사령관동지를 잘 모시는 문제를 두고 흘러갔다. 이것은 지휘성원들끼리 만나면 꼭 되풀이하는 이야기의 흐름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동안 사령관동지를 잘 모실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그들은 오늘아침 림시로 대렬편성을 했다는 《민생단》감투를 벗은 사람들을 앞으로 정식 대렬편성을 할 때에는 경위중대에 많은 인원이 가도록 하자는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되는 자기 련대들에서 가장 우수한 대원들을 골라 리북철이한테 넘기자는 약속을 하였다.

또한 그 더러운 루명을 벗은 사람들을 잘 돕고 훌륭히 키워내여 그들에 대한 사령관동지의 크나큰 신임을 찬란하게 빛내이자는 결심들도 다졌다.

차동범이와의 짧은 상봉의 즐거움을 나누고난 강세호는 다시금 아동단원들의 옷때문에 재봉대원들에게로, 그다음에는 한남실에게로 향해 떠났다.

제 9 장

1

멀리 숲의 변두리를 따라 햇솜처럼 가볍게 떠가는 흰구름도, 저편 애솔나무 숲속에서 우짖는 산새소리도 장기령에게는 뜻이 있어보였고 다정하게 들렸다.

인기척에 놀랐던지 애솔나무 숲속에서 까투리가 《꺼겅—》 하고 요란스레 깃을 치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장기령은 걸음을 멈추고 이깔나무숲 변두리로 사라져가는 까투리를 이윽토록 바라보며 싱글싱글 웃었다.

빈 배낭을 걸친 어깨에서 흰 백포자락이 그의 들뜬 기분처럼 펄럭이였다.

그의 뒤로는 새 군복에 발가우리한 얼굴의 신입대원 인택이가 장기령의 기분에 따라 웃기도 하고 감탄도 하면서 끌리듯 따라가고있다. 그들은 행군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작식터에 오는것이다.

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따라 그의 소대는 무기와 탄약을 얻기 위한 전투장으로 곧 떠나게 되여있었다.

점심식사가 방금 끝난 뒤인듯 언제나 분주스럽던 작식터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고 요즘 더욱 요란스럽게 울리던 칼장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작식터를 둘러친 도리풍안에 작식대원들이 있지 않는가 하여 기웃하고 들여다보니 작식대원들은 보이지 않고 말끔히 가시고 훔치여 나무판우에 포개여놓은 소랭이들이며 군용밥통이 해빛을 받아 오늘따라 유난히도 번들거렸다.

장기령이 이깔나무 숲속에 자리잡고있는 작식대원들의 숙소를 찾아가려는데 어디선가 녀대원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왔다. 바로 도리풍뒤에 있는 잣나무밑에 녀대원들이 모여서서 허리를 그

러쥐고 웃고있었다. 무엇이 그리 우스운지 장기령일행이 옆에 온것도 모르고있었다.

칼장단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여서 《번개손》이라고 불리우는 키가 작은 녀대원이 눈에 덮인 새초발속에서 나무토막을 찾아쥐고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숨을 가다듬고 몇번 눈을 깜빡거리던 그는 아찔하게 높은 잣나무의 우듬지 어방에 대고 금시 날아오를것처럼 팔을 내흔들더니 앞으로 몸을 숙이면서 나무토막을 힘껏 올리던졌다. 뱅글뱅글 돌며 훨 날아오르던 나무토막은 잣나무아지에는 미처 닿지 못한채 윙하니 소리만 내며 허공을 날았고 《번개손》은 얼결에 땅우에 무릎을 짚었다. 그와 동시에 웃음소리가 쏟아졌다.

《남 하는건 다 우스워보이지만 정작 하자면 그렇게 힘들어요.》

잣송이 따기내기를 하는 모양이였다.

이번에는 유격근거지에 있을 때 작탄을 불무지에 넣어 왜놈 《토벌대》 열놈을 단번에 잡았다고 하여 《작탄 10호》라 불리우는 암팡지고 힘이 있어보이는 녀대원이 자신만만하게 허리를 낮추었다가 힘껏 펴며 나무토막을 던졌다. 나무토막은 잣나무 우듬지를 향하여 기세좋게 뜨기는 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녀대원의 머리우로 곧추 올라가는바람에 그들은 제각기 웃고 고함을 치며 떨어지는 나무토막을 피하여 허둥지둥 사방으로 흩어졌다.

《인제야 와요? 얼마나 기다렸다구요.》

이때에야 녀대원들은 장기령과 인택을 발견하고 반가와서 소리쳤다.

《위장포를 척 쓰구 이렇게 나타나니 정말 몰라보겠어요!》

《동무들한테 오려구 위장포도 깨끗이 빨아서 걸쳤지요.》

하고 장기령이 허리를 굽석하는바람에 녀대원들이 또 웃었다.

장기령은 녀대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흔들며 인사하고나서 어깨에 걸쳤던 빈 배낭을 벗어 인택이에게 넘겨주었다.

《작식은 잘하는것 같은데 잣 따는데는 아직 1학년생들이구만. 내가 좀 도와줄가?》

떨어진 나무토막을 들고오던 《번개손》이 입술을 쑥 내밀고 눈

을 힐끔하였다.

《온 참, 흰소린… 녀대원들이라고 함부로 얕보지 말아요. 남자면 아무거나 다 잘하는줄 아는 모양이지요? 잣 따는게 그래 기관총 쏘는것하구 같은줄 아세요.》

《이거 너무 얕보지 마십시오. 좀 억울합니다.》

《얕보게 안됐어요? 사격에서나 잣따기에서나 우리 녀대원들만큼 잘 명중시키는 남성동무들이 있기나 해요?》

《아하— 그렇다면 우리 남대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두 기어쿠 솜씨를 좀 뵈줘야겠군.》

장기령은 위장포를 풀어서 눈우에 차곡차곡 개여놓더니 앞으로 나서며 팔소매를 한겹 접어올리였다.

《그만두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괜히 망신만 당할라구요?》

눈치빠른 인택이가 걱정스러운듯이 한마디 했다.

장기령은 맞춤한 참나무토막을 몇개 골라다가 가려놓았다. 그리고는 이마에 손을 대고 아찔하게 솟은 잣나무우듬지를 쳐다보았다. 정수리에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다섯개의 잣송이가 달려있었다. 바람에 나무우듬지가 춤추듯이 하느적거리고있었다.

투실투실한 잣송이를 눈여겨보고있던 장기령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자신없다는 태도다.

《벼르지만 말구 어서 던져보라구요. 잣송이가 내려다보구 웃어요.》

《자신 없는데…》

장기령은 우정 기가 꺾인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어느새 그의 손에서는 나무토막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바람개비처럼 돌았다.

나무토막은 맨 웃가지끝에 부딪치며 딱— 하고 야무진 소리를 냈다. 그러자 마치 거기에 앉았던 한떼의 새무리가 놀라서 후닥닥 날아나기라도 하듯 커다란 잣송이들이 훌쩍 공중에 솟구쳐 올랐다가 돌멩이같이 떨어져내렸다.

그와 동시에 잣나무에 앉았던 소담한 눈이 뽀얀 안개를 일으키며

가볍게 날아내렸다. 그속으로 찬란한 해빛이 비쳐들었다. 해빛에 반짝거리는 눈가루는 가지마다에 아롱아롱한 칠색무지개를 걸어놓았다.

《저 잣!》

《야—아!》

녀대원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손벽을 쳤다. 장기령은 잣나무를 향하여 연방 나무토막을 올리던졌다.

겨울무지개에 정신이 팔렸던 녀대원들은 눈속에 묻힌 산새라도 잡는듯이 승벽내기로 땅에 떨어진 잣송이를 찾아 허둥지둥 달려갔다. 잠간사이에 잣송이는 배낭에 가득찼다.

녀대원들은 장기령을 뒤따라가면서 탄복하였다.

《정말 솜씨가 대단해요.》

《장동무 말은 다 엉터리인줄 알았더니 잣을 잘 딴다는건 진짜군요.》

《철구어머니 말을 듣자니 기관총도 그렇게 잘 쏜다면서요?》

《그렇지만 장동무, 너무 우쭐대지 마세요. 잣 따기경쟁이야 이제 겨우 시작했을따름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좀 기분들이 들떴구 서둘러댔거던요.》

장기령은 어깨를 들썩거리였다.

《사실 나는 잣보다 동무들의 웃음소리가 더 듣고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없는 소리를 좀 했지요. 정말 나는 한때 동무들의 그 명랑한 웃음소리가 퍽 그리웠댔습니다.》

장기령의 마지막 음성이 뜻밖에도 갈린듯하여, 또 그가 루명을 썼던 일을 잘 알고있는 녀대원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작식터에 돌아온 녀대원들은 장기령과 인택의 배낭에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가지들을 차곡차곡 넣기 시작하였다.

불에 말린 노루고기, 가마에 넣어 노랗게 닦은 강냉이, 소금물에 절인 콩…

장기령은 자기들은 굶다싶이 하면서도 특식을 마련해준 작식대원들을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였다.

음식이 든 배낭을 메고 숲속의 눈길을 따라오던 장기령과 인택은

녀대원들의 병실앞을 지나다가 갑자기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통나무로 무은 출입문이 빠끔히 열려져있었는데 그리로 깔깔 웃어대는 녀대원들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웃을 일이 아니야요. 웃을 일이 아니래두요. 한마디씩이라도 좋으니까 모두들 의견들을 좀 내놓자요.》

산골짜기에 흐르는 시내물소리처럼 맑으면서 동시에 은은히 여운을 남기는 음성, 맺힘새 있게 또렷또렷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응석이 섞여있는듯한 그 부드러운 어조,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장기령은 얼굴이 확확해지는것을 느끼며 그리움에 찬 눈길로 그 아담한 귀틀집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틀림없이 한남실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장기령은 인차 아쉬운듯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한남실이가 아동단원들을 데리고있는곳은 여기서 20여리 떨어진곳인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있는 한남실이 여기에 와있을리 없다고 생각되였다.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저야 언제 아이들 옷을 말궈본적이 있어야죠? 제 생각엔 그저 춥지나 않게 든든하게만 만들면 좋겠어요. 좀 맵시가 없을진 모르겠지만…》

《맵신 무슨 맵실 보겠어요? 산속에서 누굴 보이겠다구요.》

그러자 맑으면서도 응석을 부리는듯한 음성이 다시 울렸다.

《없는 솜씨야 갑자기 어떻게 내겠어요. 그저 한시바삐 아이들에게 새옷을 입히시려는 장군님의 뜻대로 정성을 기울이면 되지요. 재봉대손으로는 그 숱한 아이들의 옷을 다 지을수가 없으니…》

그 다음부터는 속삭이듯 조용조용하게 울리는것이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가려들을수가 없었다.

《장기령동지, 갑시다.》

장기령이 어째서 눈속에 그냥 선채로 움직이지 않는지 알지 못하는 인택은 몇번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더는 참지 못하고 재촉하였다.

《아, 잠간만…》

장기령은 누가 자기를 잡아끌기라도 하는것처럼 목소리가 울리는 귀틀집쪽으로 한걸음 내디디면서 간절하게 말하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는데요.》

《글쎄 조금만…》

그대로 돌아가자니 아쉽고 그렇다고 오래 서있을수도 없는 일이여서 장기령이 엉거주춤하고있는데 병실문이 소리없이 열렸다. 장기령은 얼결에 한걸음 옆으로 물러서며 이깔나무뒤로 몸을 숨기였다. 병실에서는 키가 큰 녀대원이 안에 대고 무슨 말을 하며 나왔고 뒤따라 몸이 호리호리한 녀대원이 출입문 가름대에 머리가 닿는것을 저어하듯 고개를 숙일사하고 나왔다.

그는 키가 큰 녀대원과 함께 몇걸음 저쪽으로 갔다. 두 녀대원은 무어라고 다정스레 속삭이며 손짓을 하다가 다같이 가볍게 웃으며 손을 잡았다. 보건대 몸이 호리호리한 녀대원은 키가 큰 녀대원을 바래러 나온것 같았다. 이윽고 키가 큰 녀대원은 숲속으로 사라졌고 몸이 호리호리한 녀대원은 점도록 지켜서있다가 마지막에는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장기령은 어째서인지 한남실의 옛모습이 떠올랐다. 근거지의 아동단학교에 찾아갔다가 돌아오는길이면 한남실은 저렇게 손을 흔들며 오래오래 지켜보고있었지…

몸이 호리호리한 녀대원은 병실로 돌아오고있었다. 이번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듯 고개를 숙인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아직 시원히 아퀴를 짓지 못한 모임때문에 그런지… 녀대원이 이쪽으로 머리를 드는 순간 장기령은 하마트면 소리를 칠번했다. 그는 한남실이였다.

이때까지 치마저고리를 입은 한남실만 보아오던 장기령에게는 군복을 입은 그가 딴 사람같이 보였다. 좀 색이 바래긴 하였으나 두툼한 군복은 한남실을 의젓하게 만들었고 허리를 죄여맨 띠는 한남실을 몸이 호리호리하고 깔끔한 녀성으로 보이게 하였다. 이때 한남실은 무엇때문인지 먼 하늘을 쳐다보며 그 인상적인 맑은 눈에 미소를 담았다.

이깔나무우듬지에서 가볍게 깃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올려다

보니 산비둘기가 하늘높이 날아오르고있었다. 푸른 하늘 높이 떠서 빙 원을 그리는 산비둘기를 따라 눈길을 돌리며 웃고있는것이였다.

장기령이 인택이를 곁눈으로 살피며 망설이다가 마침내 이깔나무뒤에서 나서려 하였을 때 아쉬운 눈길로 유유히 사라지는 산비둘기를 쫓던 한남실은 병실로 들어가고말았다.

금시 한남실을 소리쳐부르며 병실로 쫓아들어갈듯 두어걸음 내딛던 장기령은 다시 자기를 다잡고 주춤 멈춰섰다.

그는 사령관동지께서 헐벗은 마안산아동단원들을 두시고 몹시 심려하고계신다는것과 어머님의 고귀한 은정이 깃들어있는 돈으로 무송에서 천을 사왔다는 소식을 이미 전해들었었다.

한남실은 바로 그 천으로 숱한 아이들의 옷을 속히 지어야 할 급한 일때문에 이곳의 녀대원들을 찾아왔음이 분명하였다.

한시바삐 옷을 지어 아이들에게 입혀야 할 사람을 불러내여 사사로운 일로 만나기가 어쩐지 마음에 걸리여 장기령은 그만 단념을 하고말았다. 하긴 숱한 녀대원들과 멋모르는 인택이의 호기심에 찬 눈길을 받으며 마음에 두고있는 처녀를 만난다는것도 쑥스러운 일이다. 어깨에 다시 기관총을 멘 버젓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처녀앞에 나타나고싶기도 한 장기령이였다.

(차츰 만나지. 그의 주소는 명백하니까.)

장기령은 마음먹고 돌아섰다.

《보지 않던 동무군요. 누굽니까?》

인택이도 한남실을 무심히 보지는 않은것 같았다.

《응?… 아, 그 동무, 나두 몰라.》

장기령은 귀틀집쪽으로 다시한번 눈길을 보내고는 인택의 손을 잡아끌었다.

《잠간 만나보지요뭐, 아직 시간이 있는데요.》

장기령은 머리를 젓다가 문득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어서 가자구, 소대에서 기다리겠어.》

장기령은 인택에게 잠시나마 그늘진 얼굴을 보인것이 화가 나서 왁살스럽게 걸어갔다.

2

다른 소대들에 이어 리경준이네 소대도 무기와 탄알을 빼앗아내기 위한 소규모전투를 하러 밀영을 떠나갔다.

리경준은 소대에 몇자루 안되는 온전한 총가운데서 그중 괜찮다는 총을 가지고있은만큼 응당 전투대렬에 끼이게 될줄 알고 착실히 준비를 갖춰왔었다.

그러나 소대장은 소대에서 리경준이 한사람만을 밀영에 남으라고 하면서 해도 좋고 안해도 그만인 긴치 않은 일을 과업이라고 맡기였다. 귀틀집 뒤울안에 쌓아놓은 장작단들을 옆으로 서너메터쯤 자리를 옮겨쌓으라는것과 귀틀집 주변정리를 하라는 과업이였다.

무엇때문에 장작단들을 옮겨쌓을 필요가 있는지 리경준은 리해되지 않았다.

그리고 귀틀집주변도 깨끗하게 정리되고 잘 손질이 되여있었다.

리경준은 그것이 순전히 자기에게 맡길 일감이 없어서 일부러 만들어낸 일거리라는것을 느낄수록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왜 나만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고 이따위 쓸데없는 일거리를 만들어내여 밀영에 남겨두는가?)

그는 그 까닭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여러모로 생각해보았지만 그럴상싶은 까닭이 머리속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한시간도 못되는 짧은 사이에 장작가리를 옮겨쌓았다. 그리고 이미 정리도 청소도 잘되여있는 귀틀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손을 더 붙일만한 일거리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눈도 치고 언땅을 파헤쳐 도랑도 만들어놓았다.

그런 일로 무료히 시간을 보내며 한창 땀을 흘리기 시작했을 때 사령부전령병 주봉길이 찾아와서 사령관동지께서 찾으신다고 알려주었다.

겨우내 흙먼지에 더럽혀진 질척한 눈을 움켜쥐여 손을 씻은 리경

준은 주봉길을 따라가면서 비로소 소대장이 자기를 밀영에 떨구어놓은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 사령부의 지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사령관동지께서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 리경준은 퍼그나 궁금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부귀틀집으로 넘어가는 오솔길옆에 있는 숲속의 공지에서 강세호련대장과 말씀을 나누고계시였다.

공지에는 볕이 쨋쨋하게 비쳐들고 바람이 막혀서 따뜻하고 아늑했다. 분비나무숲의 알싸한 잎내와 들크무레하고 구수한 썩은 락엽냄새 그리고 습습한 눈녹는 냄새가 여기서는 진하게 풍겼다.

《리경준동무가 오는군.》

사령관동지께서는 리경준쪽으로 마주 걸어오시여 그의 손을 반갑게 잡아주시였다.

여러날만에 뵈옵는것도 아닌데 뜨겁게 손을 잡아주시는 사령관동지의 다정한 손길을 접하면서 리경준은 그이께서 매우 중요한 과업을 주시기 위하여 찾으신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전투대렬을 따라가지 못해서 좀 섭섭하겠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강세호쪽으로 눈길을 돌리시며 웃음 절반으로 물으시였다.

강세호는 늘 면도질이 잘되여있는 아래턱을 버릇처럼 만지면서 리경준에게 뜻있는 눈웃음을 보내였다.

자기의 심정을 환히 알아주시는 사령관동지께 무슨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지 리경준은 짐작이 가지 않아 머뭇거리는데 그런 눈치를 알아차린 강세호가 역시 웃음절반 섞인 음성으로 말하였다.

《지금은 섭섭해하는 기색이 아닙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그럴수 있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이며 리경준을 마주보시였다.

《사실은 동무에게 전투보다 더 중요한 단독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내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리경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주시는 임무를 받게 되는 자신을 두고 생각에 잠긴 나머지 이때에는 차렷자세를 취해야 한다는것도 잊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경준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중요한 임무를 공식적으로 주시기보다는 무슨 개인적인 부탁을 하듯 주고싶으셨던지 리경준의 팔을 다정히 잡으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경준동무도 요즘 학습을 통해서 알고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부대들을 편성하고 그 힘을 하루빨리 키워야 할뿐아니라 전조선의 각계각층인민들을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워야 할 절박한 사정에 처해있습니다. 이 두가지 일이 경중을 론할 여지없이 한결같이 중요하다는것과 또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남호두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새로운 부대들을 편성하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물론 그 사업도 겨우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있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절박한 문제는 혁명동지들입니다. 부족한것은 사람이고 역시 귀중한것도 사람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어느덧 리경준과 함께 공지를 천천히 거니시며 부대들의 현재 형편과 앞으로 그가 진행할 사업과 관련한 말씀을 들려주시였다.

《새 부대들을 편성하려 해도 숱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부대를 편성하는것과 함께 조국광복회를 한시바삐 창건해야 하겠기때문에 단 한명의 대원도 금싸래기처럼 귀한 때지만 그 일을 위해 투쟁속에서 단련된 유격대원들을 돌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혼진에서 단 열다섯명을 데리고 떠나야 했을 때에도 바로 이 사업때문에 동만각지에 공작원들을 보냈습니다. …》

조국광복회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정형에 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리경준은 아직까지 막연하게만 생각해오던 거족적인 조직체가 눈앞에 바야흐로 펼쳐지는것을 뚜렷하게 의식하였다.

《앞으로 조국광복회가 내세울 강령도 기본적으로 마련되였고 다른 준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여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만 있으면 조국광복회를 창건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런 준

비와 함께 장차 조국광복회의 하부조직으로 될 각지의 반일회, 반일청년회, 반제동맹 등 통일전선단체들에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을 더욱 광범히 망라시켜 그 대표들을 창립회의에 준비있게 참가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 병행되여야 합니다. 창립회의에는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할수 있는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자들을 다 참가시켜야 합니다.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광복회를 내온다는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민혁명군대표들만 모여앉아서 조국광복회창립을 선포할수도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지금의 형편에서 가능한대로 각계각층인민들을 대표할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찾아내여 창립회의에 참석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

리경준은 왕청유격근거지에 있을 때에도 지하공작임무를 받고 반유격구에 파견되여 활동한적이 있었다.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한 그런 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서 경험이 없었던 그때에는 사실 꽤 그런 공작을 제대로 해낼수 있을가 하는 은근한 위구심과 불안 속에서 임무를 접하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위구심과 불안감이 전혀 없었을뿐아니라 오히려 그 임무를 틀림없이 수행할수 있다는 자신심이 생기는것이 자기로서도 놀라왔다.

얼마전까지 못믿을 사람으로 몰려왔던 자기에게 가장 믿는 사람, 언제, 어느 시각에, 어떤 엄혹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곳에 내보내도 배신하지 않을 사람, 설혹 적에게 붙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혁명적지조를 지킬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그런 중대한 임무와 가장 두터운 믿음을, 그것도 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주신다는것을 생각할 때 그는 눈에 눈물이 핑 고이는것이였다.

이때 그에게는 영영 잊으려고 마음먹었던 지난날의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

왕청에서 종파분자들이 자기와 안해와 아이들을 밀치다싶이 하며 《민생단》이라고 내쫓던 일들이 떠올랐고 뒤이어 병약한 안해와 아이들 그리고 억울함을 못이겨 줄곧 한숨짓는 장철구와 장기령이를 데리고 설한풍 휘몰아치는 밀림을 헤치고 또 헤쳐오던 나날의 일들이 회상되였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있는 지휘부 귀틀집

에 찾아들었을 때 자기들의 기막힌 사연을 랭담하게 듣고나서 총을 빼앗고 죄인다루듯하던 정치주임의 매정스럽던 얼굴도 떠올랐다. 그것은 과히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불과 며칠전의 일이다.

그러나 지금 장군님께서는 자기를 친히 몸가까이 부르시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을 안겨주시는것이다.

《동무는 무송에 들어가서 무송지구에 장차 조국광복회하부조직으로 전환될수 있는 반일청년회, 반일회, 반제동맹 등 통일전선적 단체들을 꾸려놓아야 합니다. 무송지구에 유력한 혁명조직을 꾸리는것은 당분간 이 지구에서 군사정치활동을 하게 될 우리 인민혁명군의 활동을 보장하는데도 아주 절실하고 긴박한 과업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계속하시였다.

《무송시내에 가면 〈금강사진관〉이 있을것입니다. 그 사진관 주인의 이름이 박문필입니다. 동무는 그를 찾아가시오. 그는 학생시절에 나와 같이 한학교에서 공부도 하였고 후에는 혁명투쟁에도 참가했습니다. 일전에 강세호동무가 천을 구하러 무송에 갔을 때 알아보니 그는 지금도 량심적으로 살고있다고 합니다. 자산계급의 출신이지만 량심적인 지식인청년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가 혁명적인 지조를 지키고있으리라고 믿고있습니다. …》

장군님께서는 박문필의 형되는 사람이 무송에 있는데 그의 사상경향이 나쁜것만큼 잘 알아보고 활동할데 대하여 세세히 일러주시였다.

그리고 장군님께서는 박문필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겠으니 그걸 가지고 가면 발을 붙이기가 한결 쉬울것이라고 하시면서 강세호더러 무송시내 지형과 《금강사진관》위치도 잘 알려주라고 당부하시였다.

공지를 벗어나신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강세호와 리경준은 자기 생각에 골몰하면서 장군님의 시선을 따라 무심결에 밀영병원이 자리잡고있는 맞은편 잣나무숲너머에 눈길을 보내였다.

자애에 넘치신 장군님의 음성이 울리였다.

《일이 바쁘다나니 그동안 리경준동무랑 최선금동무랑 한자리에 앉아 지내온 이야기도 변변히 나누지 못했구만. 경준동무, 떠나기전에 시간을 내서 아이들한테 한번 다녀오는것이 좋겠습니다. 최선금동무도 건강이 퍽 나아졌다고 합니다만 찾아가서 병세도 알아보고 우리의 안부도 전해주시오. 명일이랑 명숙이랑 무척 기다릴것입니다. 조국광복회창립회의에는 꼭 돌아와서 참가해야 하겠습니다. …》

강세호는 늘 인정미가 흐르는 눈에 만족한 웃음을 담고 벌써 리경준의 손을 잡아 이끌고있었다.

3

오늘 처음으로 최선금은 아이들의 부축을 받으면서나마 바깥으로 나오게 되였다. 아직 걸음을 떼자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어질어질하였지만 그래도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니 기뻤고 흐릿한 하늘이나마 바라보니 날아오를것만 같은 마음이였다.

아이들도 어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오니 좋아서 캐득거리며 어머니의 손을 이끌어주기도 하고 손이 빨갛게 되여가지고 어머니의 발길이 닿을 눈을 서둘러 치워주면서 최선금의 주위를 팽이처럼 돌아갔다. 그러면 선금은 눈을 쪼프리고 아이들이 하자는대로 손을 맡기고 자신보다는 어린것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것이 더 흐뭇하고 행복스러워 힘든 걸음을 옮기였다. 어머니가 자리에 누워있는동안 내내 침울한 그늘이 가실 날이 없던 아이들이였다.

오늘은 어머니를 데리고 봄날의 들판이라도 가는 기분이였다. 이렇게 기껏 걸어나온곳이 병원이 의지하고있는 나지막한 언덕우의 잣나무숲이였다. 성한 몸이라면 단숨에 다녀올곳을 최선금은 숨차하면서 쉬염쉬염 갔다. 간신히 잣나무숲속의 양지바른 바위밑 공지에 다달은 그는 아이들에게 잠간 앉았다 가자고 하였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뛰여다니며 새초며 마른풀을 뜯어다가

어른스럽게 자리를 마련하여놓고 자기들도 어머니곁에 바싹 붙어 앉았다.

선금은 아이들을 끼고앉아 이 세상에 태여나 처음으로 잣나무라는것을 구경하듯 푸르싱싱한 잣나무를 한참동안 정겹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자기가 삶을 되찾았다는것을, 그리하여 이제는 그 어마어마하던 치욕의 루명을 벗고 혁명하는 대오의 성원으로 되였다는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하는것이여서 하늘이며 잣나무숲이며 그전에는 그렇게 두렵기만 하던 하얀 눈도 다 정겨웠고 새로와보이였다.

사람은 오래동안 병석에 누워있으면 감상에 젖기 쉽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최선금의 심정은 그저 행복, 재생의 기쁨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무엇인가 모자랐다. 혼수상태의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최선금이 목마르게 바란것은 단순한 삶에 대한 욕망이 아니였기때문이다. 최선금은 푸르청청한 잣나무와 자기를 즐겁게 해주려는 아이들을 사랑에 찬 눈길로 바라보면서 혁명가들의 대오에 다시 당당한 한 성원으로 서게 되였다는 한량없는 기쁨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돌이켜보면 들것에 실린 몸이 되여 눈보라치는 숲속을 헤쳐오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여낸것은 사령관동지를 뵙기전에는 결코 죽을수 없다는 한가지 념원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최선금은 자기가 혼수상태에 빠져있을 때 문득 귀전에 울리였던 사령관동지의 조용하고도 웅글은 목소리를 기억하고있었다.

가슴사무치게 그리웠던 그이의 음성을 듣고 그이의 모습을 뵈온 그때부터 최선금은 다시는 사령관동지를 병석에 누워서 맞이할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리하여 한시바삐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모지름을 썼던것이였다.

최선금은 아이들이 모아놓은 마른풀더미에 엇비슷이 기대였다. 하늘에는 엷은 구름이 가볍게 떠있었는데 그것은 어딘지 모르게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구름이였다. 구름이 지나가면 파란 하늘이 드러날것이고 숲속에는 밝은 해빛이 실실이 드리워질것이였다.

장군님을 찾아서 무릎을 치는 눈무지를 헤치고 혹은 들것에 누워오는동안 세월은 흘러 어느덧 사나운 겨울은 고개를 수그렸다.

선금은 감회에 잠겨 이윽히 하늘을 바라보고있다가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한테 준다고 잣을 따러 간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가까운 숲속에서 또렷하게 들려왔다. 최선금의 맞은편 잣나무가지에서 이름 모를 새가 울었다.

《쪼르릉, 지—지—》 처음에는 목청을 돋구었다가 최선금이 이마에 손을 얹어 소리나는데를 찾으려고 하자 이번에는 선금을 놀래우지 않으려는듯 낮게 울었다.

새들도 사람이 그리워 마을근처에서 산다고 하는데 혹시 떼를 잃고 외따로 떨어져 저렇게 인적 없는 숲속을 헤매는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였다.

이름 모를 새는 울음소리를 그치지 않았다. 무엇인가 기쁨을 노래하고 새소식을 읊조리고있는것이였다.

최선금은 애기주먹만한 새가 비살처럼 머리우로 휙 지나가는것을 보았다.

배가 노란 작은 새는 넓지 않은 공지우로 날으면서도 은방울소리를 냈다.

어디서 저런 새가 왔는지? 아직도 얼음밑에서 잠자고있는 만물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봄을 노래하기 위해서 왔는지도 모른다.

최선금은 부러운 눈으로 작은 새가 사라진 잣나무숲속을 바라보았다. 새는 보이지 않고 멀어진 울음소리만 간간이 울려왔다. 그것은 어쩐지 선금에게 《어서 일어나요, 어서 일어나요.》 하고 독촉하는것도 같고 《봄이 와요, 봄이 와요.》 하고 속삭이는것도 같았다.

최선금은 정답고 고마운 새를 위해서라도 일어나 걸어다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뿐이고 다리가 떨리여 더 걸음을 옮길 자신이 없었다.

최선금은 이제 겨우 회복기에 들어섰을뿐이였다.

해를 가리웠던 구름 한가운데가 열리면서 따스한 해별이 쏟아져내렸다. 별에 노곤해진 최선금은 작은 새의 은방울소리를 들으

며 구름사이로 열린 파란 하늘을 보고있다가 달콤히 잠이 들었다.

쪽잠속에서 최선금은 조국땅에 진출하여 숱한 군중들앞에서 연설을 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과 일행이 되여 사령관동지를 찾아가던 일이 꿈속에 되살아났다.

일행은 쉬고있었는데 남편이 근심스레 담가에 누워있는 자기를 굽어보고있었다. 최선금은 일행이 자기때문에 지체하고있는것이 괴로와서 어서 떠나자고 성한 손을 내저었다. 리경준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명일이 아버지, 왜 자꾸 지체하고있어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서 떠나자요.》

최선금은 간절히 속삭이였으나 왜 그런지 말소리는 입안에서 뱅뱅 돌기만 하였다.

《여보!》

리경준이 이렇게 불러서야 최선금은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것을 알았다. 틀림없는 남편의 목소리였다. 최선금은 한참동안 말도 못하고 남편의 근심에 찬 눈을 눈부신듯이 바라보다가 남편의 도움을 청하여 일어나앉았다.

《어떻게 또 왔어요?》

《민생단》보따리를 태워버렸다던 그날 자기한테 다녀간적 있는 남편이 불과 며칠이 안되여 다시 이렇게 나타날줄 몰랐다. 매일같이 보고싶었던 남편이지만 정작 그가 눈앞에 나타난것을 대하니 고마우면서도 너무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있지나 않는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왜 한지에 나와있소?》

리경준은 그의 물음에 대답할 대신 도리여 되물었다.

《바깥에 나오고싶었어요. 너무 바람을 쏘이고싶어서…》

《그러다가 감기라도 들면 어떻게 하겠소.》

《일없어요. 이제는 살아난것 같아요. 근심하지 마세요. 난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좀 부축해줬지만 난 여기까지 거의나 제발루 걸어나왔어요.》

중태에 빠져있던 안해가 단 며칠사이에 산보를 할수 있을만큼 좋

아졌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지 리경준은 의아쩍은 눈길로 최선금의 안색을 살피고 다시 살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건강하셔요?》

《건강하시오. 그이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몹시 심려하고계시오.》

《전 이젠 일없어요. 다 나았어요. 가시면 제가 오늘부터는 산보랑 한다구 말씀드려주세요. 저때문에 그이상 심려하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신이 단 며칠사이에 이렇게 좋아졌다는 보고를 들으시면 매우 기뻐하실거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디 있소?》

《잣송이를 따다가 어머니를 준다면서 저기 잣나무숲으로 들어갔어요.》

최선금이 이런 말을 하고있는데 마침내 아이들이 돌아왔다.

《아버지!》

《아버지!》

아이들은 리경준을 보자 대뜸 소리를 지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래 우리 명일이랑 명숙이랑 그새 더 큰것 같구나. 엄마때문에 걱정들을 했지?》

명숙이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고 명일이는 그저 싱긋 웃어보이였다.

《아버지! 이것봐.》

명숙은 큰 감자알만한 잣송이를 불쑥 아버지앞에 내밀었다.

《오, 잣이로구나. 우리 명숙이 용타. 누가 땄지?》

리경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오빠.》

《명일이가 땄어? 그 참 대단하구나.》

《오빠는 장기령아저씨처럼 잣을 딴다고 아침마다 막대기를 쥐고 련습을 했는데뭐.》

그러자 명일이가 한마디 하였다.

《내가 잣을 따면 명숙이는 잣을 모으고 죽을 쒀서 엄마랑 환자아저씨들이랑 대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기령아저씨는 안오시나요?》

《장기령아저씨는 바빠서 못온단다. 왜놈들을 족치러 갔지. 아저씨는 왜놈들한테서 기관총을 빼어메구 돌아온댔다.》

《야, 장기령아저씨가 기관총을 쏘는걸 한번 봤으면 좋겠네.》

《아버지는 우리와 같이 있게 됐나?》

불쑥 명숙이가 묻는 말이다.

《아버지도 가서 싸워야지. 장군님의 명령을 받들구 싸우러 가야해. 명숙인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 좋겠나?》

명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숙인 아버지가 다시 가는게 섭섭한 모양이구나. 그대신 명숙이랑 명일이랑 기쁘게 해줄 선물을 가져왔다.》

《야!》

어린것들은 환성을 올리며 리경준이 잔등에서 벗어놓은 배낭에 매달렸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무슨 선물?》

기쁨이 커서 배낭을 풀어헤칠동안도 참아낼수 없을만치 마음이 안달아난 아이들이다.

《보채지 말구 기다려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최선금이도 배낭아구리매듭을 푸는 남편의 손이 너무 굼뜬것만 같았다.

《야! 옷!》

열어헤친 배낭속에서 먼저 단추 달린 까만 웃옷을 알아본 명일이가 소리쳤다.

리경준은 명일이의 웃옷과 바지를 들어내여 그에게 안겨주었다.

《아버지, 내 옷?…》

자기 옷은 없는줄 알고 금시 눈물이 가랑가랑해질듯하던 명숙이가 《야—》 하고 해사한 웃음을 지으며 손벽을 쳤다. 경준은 명숙이한테도 흰 광목저고리와 근거지에서 입던것처럼 아래단에 두줄의 흰띠를 두른 새까만 치마를 안겨주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마련된 옷인지 알아보기도전에 무턱대고 좋아했다. 명일이는 이제까지 입고있던 헌 웃옷을 벗어던지고 제절로

새옷을 입어보느라 씩씩거렸고 명숙이는 제몸에 견주어보고 또 보고나서 입기 아까운듯 다시 차곡차곡 개기 시작했다.

최선금은 방금전처럼 자기가 그냥 꿈을 꾸고있는것이 아닌가싶어 좋아서 어쩔줄 모르는 아이들과 그 애들에게 새옷을 입혀주고있는 남편 그리고 공지의 한옆에 서있는 그 푸르청청한 잣나무를 새삼스럽게 둘러보았다.

꿈이라고 믿기에는 모든것이 너무나도 또렷했다.

《명일이 아버지, 어떻게 된 일이예요?!》

《꼭 맞는구나. 신통히 꼭 맞는구나.》

새옷을 입고 싱글벙글 입을 다물줄 모르는 명일이를 이리저리 돌려세우며 실밥이랑 뜯어주고 품이며 기장이며를 살펴보고있던 리경준은 명숙이의 새옷차림까지 돌보아주고나서야 말하였다.

《장군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입히자고 친히 짓게 하신 옷이요.》

《네?》

최선금은 아직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요?!》

《그렇소.》

하고 경준은 아이들의 새옷에 깃든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철없어 그저 좋아만 하던 명일이와 명숙이도 숙연해진 표정으로 조용히 서있더니 눈물이 가랑가랑해졌다.

《장군님께서는 이 옷들을 내주시면서 어머니도 앓고 아버지도 애들곁에 있지 못한데 동무네 아이들부터 입혀야 내 마음도 좀 가벼워지겠다고 하시질 않겠소. 나는 그저 울음이 북받쳐서…글쎄 우리 애들에게 입힐 새옷을 내주시는 장군님께서는 지금껏 낡은 군복을 입고계시질 않겠소. …》

리경준은 눈굽이 척척해졌다.

최선금은 자기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는 어린 남매를 그러안고 그들의 머리우에 뜨거운 눈물방울을 떨어뜨렸다.

사령관동지께서 친히 자기 곁에 찾아오셨을 때 그이께서 물날은 군복을 입고계시는것을 보고 몹시 가슴아팠던 최선금이였다. 그이께서 그리도 애타게 아이들의 옷때문에 심려하시는줄도 모른

채 제 아이들한테 차례질 옷조차 바느질 못하고 편안히 누워 지내며 온갖 시름과 부담을 죄다 그이께만 안겨드린 최선금이였다.

《아이들의 옷을 못하더라도 누구보다 먼저 그이께 새 군복을 지어드려야지. 기운 군복을 입으시고 지내시는줄을 알면서… 저는 그래도 먼저날 강세호동지가 장군님의 군복치수를 알아보려구 저를 찾아왔길래 아마 장군님께 새 군복을 지어드리려구 그러는줄로 여겼댔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렇게…》

떠듬거리며 남편에게 원망스럽게 말하던 최선금은 그만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였다.

《엄마!》

《엄마!》

명숙이와 명일이도 최선금의 품속에 더 깊이 파고들며 울었다.

《강세호동지는 당신이나 우리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가지구 장군님의 새 군복을 마련했댔소. 장군님의 어머님께서 남기신 그 귀중한 돈을 그냥 아이들한테만 다 써버릴수가 없어서 어머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군복에 누벼 장군님의 신상에 남겨드리려구말이요. 그런데 사령관동지께서는 그 새 군복을 미혼진에서 입대한 유격대에서 제일 나이 많은 좌상인 〈대통령감〉이라구 하는 대원에게 입히시였소. 강세호동지랑 리북철동무랑 그냥 사령관동지께서 입어주시길 간청하구 〈대통령감〉도 내막을 알고 사양하구 또 사양했지만 사령관동지께서는 나이 많은분이 입어야 젊어보이고 좋다고,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새 군복을 입을 기회가 많은데 어서 입도록 하라고 하시며 기어이 〈대통령감〉에게 입히시였소. 그리고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그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돌보지 않으시고 자신께 차례지는 자그마한 기쁨도 수하사람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령관동지이시였다.

모든 심려는 도맡아 안으시고 수하사람들에게는 오로지 기쁨만을 안겨주시려고 마음 쓰시고 또 마음쓰시는 사령관동지!

새삼스러운 그이의 유별한 사랑에 목메여 최선금은 소리내여 흐느꼈다.

《세상에… 우리 사령관동지 같으신분이… 또 어디 계시겠어요!》

경준이도 한참 이야기를 못하다가 말을 이었다.

《정말 그렇소. 사령관동지께서는 모든 유격대원들과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두 더 기쁘게 더 좋게 해주시려구 늘 자심하게 마음을 쓰고계시오. 오늘만 해도 그렇지. 사령관동지께서는 내가 아이들과 당신을 꼭 만나보구 길을 떠나게 하시려구 우리 아이들의 옷을 자신께서 받으시였다가 나한테 내주셨소.》

최선금은 행복에 겨워 그냥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막지 못했다.

행복한 사람을 두고 말할 때 지금의 자기 식구들처럼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으랴! 유격대원들치고 그 누구인들 장군님의 고귀한 은정에 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랴만 자기네 가정처럼 큰 은정,큰 행복을 받아안은 가정은 둘도 없을것이다.

최선금은 그지없이 송구스럽고 안타까왔다.

《어떡하면 이 은정에 보답할가요? 저는 이렇게 앓고있지,저 애들은 어리지… 혁명에 도움줄 대신 부담과 근심걱정만 더쳐주고있으니…》

《그러게 어떻게 하나 어서 건강을 회복해주오.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면 그만큼 앞당겨 심려를 덜어드리게 되질 않겠소?》

최선금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말보다 더 뚜렷하게 그 마음속을 내비쳐주고있는 정기어린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정말이지 인차 회복할테니 당신도 안심하구 사업을 잘하세요.》

병원에 내려와서 리경준은 최선금에게 자기가 사령관동지의 지시에 따라 무송에 나가 당분간 공작하게 되였다는것을 알렸다.

리경준은 안해에게 남호두회의에서 조성된 국제국내정세의 요구에 맞게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체조직을 결성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이 제시된데 대해서와 그 거족적인 조직이 앞으로 전반적조선혁명을 앙양시킴에 있어서 놀게 될 거대한 역할과 의의에 대하여,사령관동지께서 기울이고계시는 로고와 그이의 구상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있는 준비사업들에 대하여 간명하게 리해시켜주었다. 그는 또한 미구에 선포하게 될 조국광복회의 창건준비를 위

한 지하정치공작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각지에 파견되여나간다는것도 말해주었다.

리경준은 떠날 때 안해에게 부탁을 남기였다.

《여보! 당신한테 한가지 부탁할게 있소. 우리 장군님께 새 군복을 한벌 마련해드리지 않겠소? 내 공작지에 내려가면 군복감을 구해서 보낼테니 어떻게 하나 꼭 당신 손으로 그이의 군복을 지어드리도록 해주오. 당신이 건강을 회복하고 짬짬이 지었다면 그이께서도 사양하지 않으시고 받으실거요.》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나도 사실 그런 이야길 하자던 참이였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합시다.》

그들 부부는 헤여지며 서로 당부하고 서로 격려하였다.

명일이와 명숙이도 엄마말을 잘 듣고 엄마를 도와 엄마가 빨리 추서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아이들다운 인사말을 하였다.

명일이는 아까 아버지가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령감이 사진기를 구하면 보내줄것을 아버지에게 부탁했다는 말을 귀결에 듣고난 뒤 그 말을 잊지 않았던지 아버지가 돌아오면 엄마랑, 큰엄마랑, 장기령아저씨랑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였다.

《오냐, 그렇게 하자. 조국광복회가 창건되는 경사스러운 날에 우리 같이 기념사진을 찍자꾸나.》

리경준은 아이들과 약속하였다.

리경준은 안해와 아이들의 따뜻한 바래움을 받으며 길을 떠났다.

4

어스름이 깃들무렵이였다.

무송시내의 대남문거리에 들어선 리경준은 《금강사진관》을 찾았다.

사진진렬장안에는 역시 강세호가 말해주던것처럼 조선의 아름

다운 산천경개를 찍은 사진들만이 걸려있었다. 그 사진들은 집주인의 됨됨과 애국적인 감정을 쉬이 엿볼수 있게 하였다.

리경준은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 집 주인인 박문필이라는 사람에 대한 새삼스러운 호감을 느낀 동시에 경험이 있는 지하공작원으로서의 예리한 감각으로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는 사진진렬을 달리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대꾸도 없고 누가 나오는 소리도 없었다.

리경준이 다시 커다란 유리문을 두드리며 은근한 목소리로 주인을 찾자 안쪽에서 녀인의 대답소리가 울리고 이어 신발을 끌며 바삐 다가오는 소리가 나더니 출입문에 달린 유리창으로 밖을 살피는 젊고 아련하게 생긴 부인의 얼굴이 보였다.

녀인은 리경준의 얼굴과 차림새를 두루 살피더니 걸려있던 문고리를 벗기고 빠끔히 문을 열었다. 겸손하고 소박한 조선옷차림의 녀인이였다.

《영업이 끝났는가요?》

《네,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경준은 길거리를 한번 살피고나서 낮은 목소리로 박선생이 집에 있는가고 물었다.

《어디서 오셨는지요?》

《좀 멀리서 왔습니다. 꼭 만나야 할 손님이 찾아왔다고 전해주십시오.》

젊은 녀인이 좀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간후 담배 한대를 거의 태우는데 안경을 낀 젊은 사람이 나타났다. 후리후리한 키에 갱핏한 얼굴을 한 그 사람은 문을 열듯이 문손잡이에 손을 가져가다가 말고 한걸음 뒤로 물러서며 경계하는듯한 기색으로 리경준의 행색을 훑어보는것이였다.

《때늦게 찾아와서 안됐습니다. 박문필선생인가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오시는 손님입니까?》

리경준은 지나가는 행인이 저쯤 멀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귀속말로 산에서 내려왔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만날 일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제서야 박문필은 리경준에게 문을 틔워주고 그가 안에 들어서자 다시 문고리를 걸어버렸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끝에 컴컴한 복도를 지나 옆으로 꺾어들더니 손님들의 대기실로 쓰는듯한 크지 않은 방으로 들어갔다. 역시 커다란 사진액틀들이 붙어있는 방에는 손님용긴걸상 두개가 벽에 기대있었다.

주인은 그중의 한 걸상에 앉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리경준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유리창으로 들여다볼수 있는 방에서 이야기하는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되여 머뭇거렸다.

주인도 다시 자리를 권하지 않고 리경준의 차림새를 유심히 훑어보며 물었다.

《무슨 일인지요?》

용건을 알기에 앞서 손님의 신분과 정체를 알고싶어 묻는 말임을 리경준은 대뜸 알아차렸다. 리경준은 우선 그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짤막하게 자기 소개를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에서 파견되여왔습니다.》

주인은 내심의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안경속의 눈을 내리깔고 잠시 서있더니

《오십시오.》

하고는 돌아서서 다시 복도로 나왔다.

리경준은 주인을 따라 두번이나 좁은 복도를 꺾어돌아가서 마침내 안마당으로 나갔다. 그러고보니 그가 방금 들어갔다나온 그 채는 사진영업을 위해 쓰는 채였던듯싶었다. 크지 않은 안마당 한쪽에 아담한 목조2층집이 있는데 주인은 그곳으로 리경준을 데리고갔다.

리경준은 박문필을 뒤따라 삐꺽거리는 나무층계로 올라가서 행길쪽으로 창문이 달려있는 크지 않은 방으로 들어갔다. 천정이 낮은 캄캄한 방안에는 벌써 석유등불이 켜져있었다.

돗자리가 깔려있는 널마루바닥 복판에 앉은뱅이책상이 놓였는데 그우에는 신문들과 신간서적들이 쌓여있었고 누르스름하게 퇴색한 도배지들때문인지 침침해보이는 벽에는 책을 꽂은 서가와 쇠침대가 붙여세워져있었다.

이채롭게 눈에 띄우는것은 책상 맞은편벽에 걸려있는 한폭의 조선화였다. 거기에는 소나기가 지나간 뒤에 푸른 하늘을 향하여 한껏 싱싱해진 가지와 잎새들을 펼친듯싶은 참대가 그려져있었다.

주인은 방석을 돗자리우에 내놓으며 자리를 권하였다. 그리고 창문에 휘장을 치고 화로불우에 늄주전자를 올려놓았다. 그런 뒤에 화로를 들어 손님앞에 놓고 책상우에 있던 담배함도 내려놓았다. 그가 열어놓은 함안에는 권연이 빼곡이 들어차있었다.

리경준은 담배를 권하는 주인에게 가볍게 머리를 숙여 사의를 표하며 담배를 붙여물었다.

박문필은 담배를 피울 차비가 아니였다.

박문필은 안경속에서 리경준의 얼굴을 다시한번 뜯어보고는 손님의 거동에서 진실한 구석을 찾아보았던지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으나 여전히 참을성있게 손님이 먼저 용건을 내놓기를 기다렸다.

리경준은 피우던 담배를 끄고 곧장 자기를 소개했다.

《저는 **김일성**장군님의 특명을 받고 박선생을 찾아왔습니다.》

화로에서 주전자를 들어내려던 박문필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졌다. 놀라운 빛이 안경에 번쩍하고 어리였으나 그것은 순간의 일이고 박문필은 인차 태연해지며 은근히 리경준을 쳐다보았다.

《박선생은 길림에 가서 중학을 다녔다지요?》

《네, 무송엔 중학교가 없어서요.》

리경준은 장군님께서 박문필에게 보내시는 편지를 주실 때 학창때를 회고하시며 해주시던 말씀을 상기하였다.

《장군님께서는 학창시절에 박선생과 같이 교정에 나무를 심으시던 일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습니다.》

박문필은 리경준의 앞으로 다가앉으며 손을 틀어잡았다.

《그럼… **김일성**동지께서 무송현에 나와계시다는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이 무송진에서 과히 멀지 않은 산에 와계십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니…》

박문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떨며 리경준의 손을 더 억세게 그러쥐였다. 안경알너머로 따뜻한 눈물방울이 피여올라 그

렁그렁하였다.

리경준은 자기 손을 으스러지게 그러쥔 박문필의 떨고있는 뜨거운 손길에서 그의 가슴속에 파도치는 격정의 높이를 력력히 헤아렸다. 장군님을 오래동안 사무치게 그리며 기다려왔던 박문필의 이 순간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할만한 체험을 그자신이 얼마전에 하였던것이다.

《그래 장군님께서는 건강하십니까?》

얼마후에야 박문필은 손수건으로 눈물에 젖은 눈과 안경을 닦고 벌겋게 된 눈으로 리경준을 쳐다보며 그이의 안부를 물었다.

《네, 건강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기쁩니다.》

하고 그는 또다시 리경준의 손을 그러잡았다.

《사실 저는 신문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무송땅에 나오셨다는 보도를 읽고 며칠째 아예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요즘은 내내 장군님에 대한 생각뿐이였습니다. 어떻게 하나 장군님께서 계신데를 알아가지고 만나뵈오러 갈 궁리뿐이였습니다. 간밤에는 학창시절에 장군님과 같이 지내던 일을 꿈에 다시 당하기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오늘 이런 행운을 받아안자고 그런 꿈까지 꾸었던 모양입니다.》

박문필은 다시금 눈에 눈물이 글썽해지며 환하게 웃음지었다.

《바늘이 없습니까?》

리경준은 양복저고리를 벗으며 박문필에게 물었다. 그를 의아쩍게 넘겨다보던 박문필은 손을 내밀며 청하였다.

《바느질할것이 있으면 인주십시오. 우리 집 사람에게 맡깁시다.》

《아니, 바느질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송곳이 없습니까?》

《송곳은 여기 있는데요.》

박문필은 책상우에 있는 필갑안에서 송곳을 꺼내여 리경준에게 주었다.

경준은 양복저고리를 뒤집어서 펴놓고 안겨드랑이실을 송곳끝으로 뜯어냈다. 그리고 가슴팍의 심지속에 감춰넣었던 편지를 꺼냈다.

《장군님께서는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

《네?!》

너무나 뜻하지 않았던 일에 놀란 박문필은 한동안이나 어리둥절해서 리경준이와 그가 내민 편지를 번갈아보기만 했다.

박문필은 일어나서 정중히 편지를 받아들고 아무 글자도 씌여지지 않은 겉봉을 또 한동안이나 들여다보았다. 편지를 든 그의 손이 가볍게 떨리였다.

《한일없이 지낸 저같은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편지까지…》

눈을 들어 리경준이를 쳐다보며 뇌이는 그의 목소리는 갈려있었다.

《어서 개봉하십시오.》

리경준은 언제까지나 봉투를 든채 그냥 서있을것만 같은 박문필에게 이렇게 권하고 화로옆에 앉았다.

박문필은 책상앞에 돌아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활달한 필체로 편지지의 첫머리에 내리씌여져있는 글줄에서 박문필은 오래동안 눈을 돌리지 못하였다.

박문필동무라고 불러주시면서 시작하신 편지를 읽으며 친근한 동무로 자기를 불러주신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 가슴에 벅차올라 솟구치는 눈물때문에 다음의 글줄을 훔쳐가며 세번이나 거듭하여 편지를 읽었다.

알고보니 박문필은 생김새와는 다르게 다정다감한 사람이였다.

《꿈만 같은 장군님의 편지를 받고보니 감회가 새로와집니다. 오래간만에 눈에 익은 장군님의 필체만 보아도 회포가 깊어지는군요. 사실 장군님께서 저를 이끌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지금도 저는 캄캄한 어둠속에서 헤매고있을것입니다.

저는 부농출신입니다. 그래서 같이 학교를 다닌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학비나 기숙비를 못내서 학교나 하숙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교복도 학용품도 다른 학생들보다 빛이 나는걸 입고 썼구 용돈도 과히 부족은 느끼지 않을만치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천성이 그닥 텁텁한편이 못되여서 저는 매우 가난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의 따돌림을 받았달가, 학생들속에서는 좌익서적들이 비밀리에 돌아가고 비밀독서회가 조직되여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섭쓸리고싶었지만 동무들은 될수록 저를 멀리하며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에 한번은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시내 학교 체육선수들의 대항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기에서 여러 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경기는 장거리달리기였는데 박문필도 선수로 나갔다. 친일분자였던 키가 구척같은 체육교원은 출발선에 나가는 박문필과 다른 선수들에게 괜히 승벽을 내지 말고 1등은 일본인학생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출전하는 선수들의 기색이 별로 좋지 않은것을 보자 체육교원은 그것이 운동회를 주최하는 시교학의 방침이라고 은근히 위협조로 덧붙였다.

그러나 박문필은 민족적의분과 정의감을 품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일본인학생선수를 뒤떨구어놓고 단연 우승테프를 끊었었다.

그 사건으로 하여 박문필은 체육교원에게 불려가서 격검채에 얻어맞았을뿐아니라 출학처분까지 당할번했으나 학생들이 들고일어나는바람에 무사할수 있었다. 후날 그는 자기가 출학처분을 당할번했을 때 학교가 몽땅 들고일어나도록 하신분이 바로 **김일성**동지이시라는것을 알았었다.

잊을수 없는 운동회가 있은지 며칠 지나서 학교운동장주변에 버드나무를 심던 날 문필은 학교도서관 책임자이신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가깝게 알게 되였다.

워낙 그는 길림에 중학공부를 오시기전부터 독립운동자들과 여러 학교 학생들속에 확고한 권위를 가지고계시는 뛰여난 학생으로 널리 알려지시였던 **김일성**동지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몇번 거리를 지나가시는 모습을 뵙기도 했지만 가까이 사귈만한 기회도 없었고 또 그럴 엄두도 못가지고있었다. 이 학교에 와서 그는 상급학년에 계시는 그이를 뵈옵고 그이와 한학교에서 공부하게 된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지만 전교학생들속에서는 물론 교원들속에서도 존경받고계시는 **김일성**동지께서 자기를 상대해주시리라고는 아예 상상도 못했었다. 그런데 이날 **김일성**동지께서는 친히 그의 곁에 오시여 같이 나무를 심자고 하시며 내내 그와 같이 삽질을 하시였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박문필을 퍽 너그럽고 소탈하게 대해주시며 운동회날에 아주 잘 싸웠다고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날의 운동회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민족정신과 투지의 대결이며 투쟁이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말고 민족적의분을 간직하며 사회적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일깨워주시고 고무해주시였다. 그리고 체육교원이 그에게 가한 란폭한 행위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료해하시였다.

며칠후 체육교원을 축출하기 위한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있었고 그후 체육교원은 끝내 학교에서 쫓겨나고말았다.

그뒤 어느날 박문필은 학교도서관에 구경을 오라는 그이의 초청을 받았다. 이때 학교는 경찰대의 수색을 받고있는중이여서 공기가 자못 험악하였으나 그이께서는 웃는 얼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박문필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그때로부터 박문필은 강도 일제에게 빼앗긴 아름다운 조국산천과 일제의 압제밑에서 피흘리며 신음하는 겨레의 고통을 더 깊이 알게 되였고 학교에서 배울수 없었던 조선의 찬란한 민족문화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박문필에게 고리끼의 소설 《어머니》를 선물로 주시였다. 그다음에는 《공산당선언》과 맑스의 《자본론》을 주시였다.

박문필은 모든것을 잊고 밤을 밝혀가며 그 책들을 읽었으며 읽은 다음에는 그이를 찾아가서 그이와 함께 독후감을 나누었다.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박문필은 자기는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조선민족의 아들이라는것과 이 세상에는 서로 용납할수 없는 두 계급이 존재하며 그 두 계급간에는 치렬한 투쟁이 계속되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전혀 알지 못하던 새라새로운 세계를 펼쳐보여주시였다.

방학때가 되여 무송에 왔을 때 박문필은 처음으로 소남문거리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댁을 찾아가보았으며 그이께서도 박문필의

집으로 한두번 오신적이 계셨다. 그이께서 오실적마다 박문필은 그이의 댁에 비하면 너무나 유족해보이는 자기 집이 오히려 역하게 느껴졌고 자기 처지가 부끄러웠다. 그 어떤 고상한 욕망이라고는 한가지도 없고 오직 치부욕밖에 없어보이는 아버지까지 원망스럽게 생각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에게도 한가닥 민족의식은 남아있어서 **김일성**동지의 뛰여난 인품과 감화력에 탄복하여 그이를 그저 아들의 동무를 대하듯하지 않았으며 어려워하는 기색까지 있었다.

그 방학후부터 박문필은 그이의 지도밑에 비밀독서회에도 참가하고 청년학생운동에도 참가하게 되였다. …

박문필은 소리없는 한숨을 짓고 리경준이한테라기보다는 자기자신의 혼자소리처럼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29년여름엔가 그이께서 놈들에게 체포되시여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지도자를 잃고보니 창졸간에 고아가 된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았다할지… 그런데다 학생조직에서는 당분간 피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

그즈음 그의 가정에도 둘째아들 박문필이를 길림에서 데려다 다른데 돌리지 않을수 없는 사정이 생겨났었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에 류학을 보낸 맏아들 박오필에게 자기의 적지 않은 땅과 재산을 상속시킬 생각을 품어왔었는데 그 아들이 류학이라는데를 가서 공부할 대신 돈만 물쓰듯하고 건달을 부리다가 방탕한 난봉군이 되여 중도에서 돌아왔던것이다. 돌아온 첫날부터 아비 얼굴에 흙칠하다싶이하며 별별 추한 꼴을 다 보이기 시작한 맏이한테 환멸을 느끼게 된 아버지는 얌전하고 똑똑한 둘째아들 박문필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길림에서의 학생소요들에 이어 학생운동지도자와 핵심들이 체포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자기 아들도 그 운동에 관련되여있을수 있다는것으로 하여 아버지는 즉시에 아들을 길림에서 떼여다 하르빈에 보냈던것이다.

《…**김일성**동지의 몸가까이에서 상시적인 지도를 받고있는동안은

저도 자기의 처지로부터 오는 제한성을 어느정도 극복하고 동지들의 투쟁대오에 합류할수 있었지만 하르빈에 가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투쟁의 변두리에 서있는것 같은 자신을 느끼면서도 학교를 그만두고 혁명투쟁의 한복판에 대담히 뛰여들 결심을 못내렸지요. 또한 그곳에는 불철저했던 저같은 사람까지 투쟁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게 할만한 학생대중의 앙양된 기세라는것도 별로 없었지요.… 이거 주전자가 끓는줄도 모르구 말만 하는군요.》

박문필은 차를 따라 리경준에게 권하고 자기도 한모금 마셨다.

《…그렇게 한동안 지내다가 저는 자신을 돌이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원쑤놈들자신이 저에게 충격을 가한셈입니다. 무덤에 들어간다 해도 잊지 못할 나라 없는 민족의 뼈에 사무친 모욕을 몇번 받고난 뒤부터 저의 머리속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깨우쳐주신 진리가 되살아났습니다. 홍역을 거친 셈이랄가, 정신적인 열병을 겪고난 다음부터 무어랄지… 스스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외람됩니다만 저의 세계관도 이제는 그 골격이 선것 같습니다. 저는 **김일성**동지께서 싸우고계신다는 동만으로 갈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되느라고 저는 진짜 몹쓸 열병에 걸려 눕게 되였습니다. 속이 탔습니다. 그렇게만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껏 외따로 떨어져 지내진 않았을겁니다. …》

박문필은 그때를 회고하고나니 지금도 속에서 불이 일며 입술이 말라드는듯 어지간히 식은 차물을 다시 한모금 마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가 지금껏 변함없이 싸울줄로 믿고계신다고 편지에 쓰셨는데 그 뜨거운 믿음을 저는 이렇게 빈손으로 접하게 되였으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이께서 인민혁명군을 조직하시고 여러 동지들과 함께 고난에 찬 혈투를 벌려오신 지난 몇해동안 저는 무맥하게 지내왔습니다. 리경준동지도 아까 말씀했지만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벌써 중학시절에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는 행운과 특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이의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이께서 기대하신것처럼 지내오지 못한것입니다. 뒤늦게나마 그릇되게 살고있는 자신을 깨우치고 다시 투쟁

을 시작하자고 결심해나서서 하였다는것이 고작 몇몇 동지들로 동지회 비슷한것을 무어본데 지나지 않습니다. …》

《그 조직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있습니까?》

하고 리경준은 박문필이 잠시 사이를 두었을 때 물었다.

《아직 활동이라고 할만한것을 별로 벌려보지 못했습니다. 갓 조직한 관계도 있습니다만 그저 앞으로 인민혁명군과 선을 잇게 되면 모두가 인민혁명군에 참군할것을 각오하고 무기와 탄약을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있을뿐입니다.》

《그건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 보고받으시면 몹시 기뻐하실것입니다. 친히 편지에 밝히셨겠지만 그이께서는 이 무송시내에서 앞으로 창건될 조국광복회의 하부조직을 많이 꾸릴것을 기대하고계십니다. 그이께서는 저를 떠나보내시면서 박문필동무가 그간 지내온 형편을 알아보고 조국광복회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의논하도록 지시하시였습니다. …》

리경준은 장군님께서 구상하고계시는 조국광복회조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네, 편지에도 그렇게 쓰셨더군요.》

《그런만큼 지금 있다는 조직은 조국광복회의 하부조직으로 전환시킬수 있게 개편하고 확대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 …》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그들은 시간이 가는줄도 몰랐다. 그러다가 마당에서 녀인의 가벼운 기침소리를 듣고 리경준의 신변때문에 은근히 신경을 쓰고있던 박문필이 밖을 살피려고 창문에 걸친 휘장을 들쳤을 때에야 그들은 벌써 거리에 인적이 드물어지고 밤이 꽤 깊었음을 알았다.

구름속의 어스름달이 희미한 빛을 뿌렸다. 마당에도 키낮은 널울타리근처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박문필은 마음놓을수가 없었던지 삐걱거리는 나무층계를 조심스레 밟으며 아래로 내려갔다.

잠시후 리경준은 널대문 근처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얼씬거리는것을 보았다. 그 그림자는 마당복판으로 나오며 2층에서 내려가서 역시 마당에 나선 박문필이와 마주섰다. 리경준이를 처음으로 맞아

주던 녀인이라고 짐작되였다. 아마도 그 녀인은 대문근처에서 망을 보고있었던게 틀림없었다.

다시 올라온 박문필은 저윽 미안해하며 말하였다.

《이거 용서하십시오. 피가 끓게 하는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듣는 재미에 저녁대접할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먼길을 오시기에 꽤 시장하셨겠는데…》

《아닙니다. 저도 밤이 깊어지는줄 몰랐습니다.》

리경준은 머리를 젓고나서 부인도 조직에 관계하고있는가고 물었다. 박문필은 멋적게 웃었다.

《아직 그런 수준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사업도 비밀에 붙이고있습니다. 아직 의식수준이 어립니다.》

《나는 조직원인줄 알았습니다.》

박문필은 스스럼없이 안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저의 집에서는 안해가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고 하여 우리가 결혼한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

박문필의 형과 형수는 문필의 안해 철숙이를 내놓고 랭대하고 온갖 욕설을 다하였으나 철숙은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지도 않았고 그들이 하는 무례한 행위를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는것이다.

가정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철숙은 남편이 형 아닌 형을 두고 분노하고 참지 못해한다는것을 안후부터는 남편에게 괴로움을 줄것만 같아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는것이다.

박문필이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 철숙이가 박문필에게 시집온지 얼마 안되여 형수라는 녀자가 찾아왔었다. 와서 하는 말이 시동생인 박문필이 근본이 가난한 철숙에게 홀려 신세를 망쳤다고 하였다. 철숙은 너무도 분하여 눈물을 흘리였다. 그때 밖에 나갔던 박문필은 안해가 눈물을 흘리는것을 보고 무척 괴로와하였다. 그후부터 철숙이는 혁명하는 남편에게 자그마한 걱정도 끼치지 않으리라 결심한듯싶다는것이다.

《박동무, 내 생각에는 부인을 꼭 조직에 망라시키는게 좋을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리경준의 권고였다.

《저도 사실 생각이 없지 않아서 요즘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혁명에 대한 눈이 틀만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고있습니다. 이제 좀더 준비시킨 다음에 정식 조직성원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아직은 이른것 같아서…》

《시제 당장은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조직에 망라시키고 사업을 통해 키우는것이 어떻습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구에 장군님께서 창건하시게 될 조국광복회는 광범한 반일대중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적인 조직체입니다. 그런만큼 준비된 공산주의혁명가들만 조직에 망라시킬게 아니라 광범한 대중을 흡수하는 방향에서 사업해야 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여태까지 조직을 넓히면 많은 사람들이 대렬에 들어오게 되는데 개중에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직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오히려 그렇게 될바에야 조직을 넓히는것보다 비록 몇이 안되더라도 준비된 사람들로 알심있게 꾸리는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고 그릇되게 생각했습니다.》

리경준은 겸하여 생각난김에 박문필이 주의하지 못하고있는 한가지 점에 대하여서도 일러주었다.

《저 그리구 진렬장안에 전시한 사진들을 바꾸는게 어떻습니까? 지금 전시해놓은 사진들이 너무 표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진들을 보고 문득 떠나온 조국산천과 고향을 생각할것입니다. 박동무의 의도도 여기에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사진들을 보면 누구나 사진관주인이 남달리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란걸 알수 있습니다. 왜놈들과 밀정놈들이 이것을 보지 못할가요? 지하사업인데 이것은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지하사업에서는 자그마한 부주의도 뜻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그제야 박문필은 얼굴을 붉히며 웃음을 지었다. 여직껏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지내던 일이였다.

《저자신도 어떻게 되여 그런 사진만 골라 붙였는지 모르겠습

니다. 그러고보니 사람의 사상이란 숨길수 없는가봅니다. 자, 어서 아래에 내려가서 늦은대로 저녁이나 듭시다.》

두사람은 철숙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을 같이 나눈후에 다시 마주앉아 앞으로 할일을 의논했다.

제 10 장

1

마안산계곡들을 흘러내려 이도송화강에 합쳐지는 실개울들은 얼음이 다 풀렸다.

음지쪽 바위밑에 지꿎게 도사리고있던 얼음덩어리들은 검불이 박힌 자리에서부터 구멍이 숭숭 뚫리며 녹기 시작하였다.

겨우내 두터운 눈이 하얗게 덮여있던 밀림속의 땅거죽은 온통 시꺼멓게 변해버렸다. 유구한 세월을 두고 덧쌓이며 썩어온 락엽층밑으로는 흐린 눈석임물이 슴새여내렸다.

넘쳐나는 봄시위물이 마안산계곡들을 콸콸 울리며 쏟아져내렸다.

풍만하게 넘치면서 흘러내리는 눈석임물은 얼음장들을 둥둥 떠이고 바다로 흘러갔다.

광막한 밀림을 씻어내리고 넓은 대지를 적시며 장엄하게 넘쳐나는 봄시위물과 같이 장군님께서 마안산에 나오시여 여러해동안 묵어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던 《민생단》보따리, 불신과 모멸의 문서장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리셨다는 놀랍고 장쾌한 소식은 삽시에 동서남북 곳곳으로 번져갔다.

혁명대오의 순결성을 고수한다는 이름밑에 실제에 있어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배척할 목적으로 무지몽매하고 편협하기 짝이 없는자들이 초혁명성을 내휘두르며 극좌적으로 진행해왔던 반《민생단》투쟁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항일무장투쟁에 횡포한 겨울을 가져다주었었다.

피끓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심장을 얼구어버리고 푸르싱싱 잘 자라오르던 조선항일혁명투쟁을 두터운 눈과 얼음으로 덮어버렸던 그 저주로운 겨울은 1935년의 다홍왜와 요영구에서 그에 종말을

고하는 봄의 뢰성이 연거퍼 울린 다음에도 채 녹지 않은 얼음덩어리들을 그냥 남겨두고있었다.

그 완고했던 겨울의 마지막 얼음덩어리들은 장군님께서 일생일대의 대용단을 내리시여 《민생단》보따리를 태워버리신 그 위대하고 뜨거운 사랑의 불길에 의하여 드디여 녹아버리게 된것이다.

그것은 력사의 눈석이였다.

죄악과 배신과 불신으로 엉켜붙어있었던 얼음덩어리들을 녹여버린 력사의 눈석이는 자연의 눈석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처에 있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가슴가슴에 번져가면서 그 가슴우에 얼어붙어있던 얼음장들을 녹여 둥둥 띄워보내고 졸아들었던 심장과 피줄에서 다시 조선혁명의 붉은 피가 펄펄 끓으며 뛰놀게 하였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자 곳곳에서 기쁨과 감격에 겨워 울며 춤추었다. 그리고 그 곳곳에서 백두산기슭으로, 마안산으로 장군님을 찾아왔다.

마안산을 향하여 흘러온 수많은 사람들의 크고작은 흐름속에는 교하에서 통신련락을 받고 달려온 련대도 들어있었다.

그리하여 1936년 봄에 있은 자연의 눈석이철과 일치한 그 력사의 눈석이철에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가 친솔부대로서 조직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단은 넘쳐나는 봄시위물마냥 엄청나게 불어났다.

장군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따라 림시로 무어주시였던 대렬들을 정비하시여 정식으로 대렬을 편성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또한 새로 편성하신 부대가 항일무장투쟁뿐아니라 전반적조선혁명을 이끌어나가야 할 정치적, 조직적 골간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령부직속으로 비서처를 꾸리시였으며 거기에 출판소도 내오시였다. 출판소 책임자로서는 리동백을 임명하시였다.

전례없이 많고많은 시름겨운 일들을 스스로 맡아안으시고 그 어느때보다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였던 이무렵에 장군님께서 가장 큰 주목을 돌리시면서 제일 많은 심려와 로고를 기울이신 사업은 새 부대의 편성과 함께 조국광복회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이였다.

인민혁명군사령부에 집중되는 그 모든 크고작은 일거리들을 일일

이 처리하시고 마안산의 여기저기에 수십리씩 떨어져 널려있는 밀영들과 병원,재봉대,병기창,아동단을 찾으시여 그 《문제거리》던 사람들과 병자들,로약자들,녀대원들,병기창일군들,아동단원들을 보살피시고 또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그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장군님께서는 자자구구 되새기시며 수정가필을 거듭해오셨던 조국광복회강령초안을 마침내 10개의 조항으로 고착하여 완성하시였으며 조국광복회의 규약과 창립선언문 기초도 끝내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또한 조국광복회창건준비위원회를 조직하시고 광복회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여러모로 다그치시면서 미구에 소집하게 될 창립대회에 제출할 보고를 비롯한 문건작성사업을 직접 조직지도하시였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신뒤에 그이께서 새로 편성한 부대를 거느리시고 마안산에서 떠나실것을 작정하시고계실 때 리경준으로부터 보내온 두번째 통신이 사령부에 전해져왔다.

통신은 박문필이 장군님께 선물로 보내드리는 신식사진기안에 들어있었다.

통신을 거듭 주의깊게 읽으시고 한동안 깊은 명상에 잠기셨던 장군님께서는 전령병 주봉길에게 서간도일대의 지도를 가져오라고 이르시고 강세호와 리동백을 곧 사령부에 도착시키라고 말씀하시였다.

봉길이가 통나무책상우에 서간도일대의 지도를 펴드리고 나간 다음 장군님께서는 잠시 지도를 살펴보시다가 다시금 사색에 잠기시여 귀틀집안을 거니시였다.

난로가 확확 단 열기를 내뿜어서인지 집안은 무더웠다. 장군님께서는 퇴창문을 들어올리시고 창턱에 놓여있던 막대기를 버티여놓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시원한 바깥바람을 받으시며 앙상한 가지를 늘어뜨리고 서있는 애어린 느릅나무를 바라보시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느릅나무밑에는 희끗희끗한 잔설이 남아있었는데 하루사이에 온데간데없이 죄다 녹아버렸다. 느릅나무는 눈석이물을 빨아올린때문인지 아니면 그 물에 밑가지들이 젖은탓에

그렇게 보이는것인지 내내 메마르게만 보이던 가지들이 한결 연해지면서 물기를 머금은듯하였다.

나무들이 드디여 깊은 잠에서 깨여나 한껏 숨을 쉬면서 물과 땅속의 자양분을 빨아올려 움을 틔울 차비를 시작하는것인지… 완고하고 심술궂던 겨울은 물러갔다. 눈 없는 계절, 움트는 계절이 시작되였다. 인민혁명군의 맹활약시기가 온것이다.

특히 올해의 봄을 찬란한 구상속에 고대하여오셨던 장군님께서는 마안산을 떠나시여 동강방향으로 행군하실 작전을 세우시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이어 언제나와 같이 단정하고 정중한 몸가짐으로 련대장 강세호가 들어섰다.

《갑자기 찾아서 련대사업에 지장을 준게 아닙니까?》

장군님께서는 띄창가에서 돌아서시며 인사를 올리는 강세호에게 물으시였다.

《아닙니다, 사령관동지. 며칠전에 새로 편입된 동무들만 모아놓고 남호두회의정신을 알려주다가 왔습니다.》

《아, 그럼 내가 학습을 방해한게로군.》

강세호는 서둘러 그런것이 아니라 금방 학습을 마치려던 참이였다고 말씀드렸다.

봄기운이 흐르는 창밖에 자주 보내시는 장군님의 다감하신 눈길과 허리에 단정하게 차신 권총갑을 매만지시는 손길과 웃음이 어린 음성에서 강세호는 필시 기쁜 소식이 있으리라는것을 예감하였다.

《그러면 괜찮겠구만. 급히 토의하고 대책을 취해야 할 일이 생겨서 찾았습니다. 자, 여기 와서 좀 앉으시오.》

장군님께서는 강세호에게 책상 맞은편 의자를 권하시고는 자신께서도 의자에 앉으시였다.

강세호는 책상우에 펼쳐져있는 지도와 그옆에 놓여있는 번쩍거리는 사진기를 두릿두릿 살펴보았다.

《경준동무한테서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동무가 무송에 내려간지 얼마 안되는동안에 적잖은 일을 해놨습니다. 박문필동무의 사진관을 아지트로 삼고 그의 적극적인 방조를 받으며 무송

시내의 적지 않은 사람들을 지하조직에 흡수하기 시작했다는것입니다. 박문필동무의 부인도 지하조직성원으로 끌어들였고… 그런데 시내보다 헐하게 조직망을 확대할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던 주변농촌지대에서 오히려 난관에 봉착했다는것입니다. 다른데는 예상했던대로 비교적 순조로이 되여가는데 남강마을과 그 일대는 그렇지 못하다는겁니다. 이걸 좀 보시오.》

장군님께서는 사진기밑에 깔아놓으셨던 련락쪽지를 강세호에게 내주시였다.

강세호는 쪽지를 받아들고 읽었다.

《미야께부대놈들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통신쪽지를 지도의 한 귀퉁이에 놓으시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 악명높은 미야께부대가 몹시 갈개는것 같습니다. 남강집단부락에 둥지를 틀고있는 그놈들이 이웃집간에 다니는것조차 트집잡고 조금만 비위에 거슬려도 잔인하게 학살하기때문에 인민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있습니다. 적들의 탄압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조직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못한다는것입니다. 이놈들이 남강부락만 아니라 제놈들의 통제밑에 있는 마을들에서는 아무데서나 집단부락을 만든다고 수많은 산재부락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운신 못하는 늙은이들까지 망탕 학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이 겁먹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지어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반순부대까지도 그놈들이 무서워 기를 못펴구 쫓겨다니다가 나중에는 비적질을 하게쯤 되였으니 경준동무가 남강마을과 그 주변일대에서 조직망을 꾸리기 위한 초보적인 활동조차 하기 어렵다구 안타까움을 적어보낸것이 우연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

장군님께서는 그렇기때문에 미야께부대를 소멸하지 않고서는 남강촌과 그 주변일대의 인민들이 기를 펴고 살수 없고 우리와 손잡고 반일항전을 해야 할 구국군부대가 토비로 굴러떨어져 헤실바실 흩어지는것도 막을수 없고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송지구활동

에서도 많은 구속과 제약을 받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특히 이 지대에서 반일대중조직들을 육성강화하여 앞으로 조국광복회에 망라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기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가벼이 거니시며 하시던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가 이제는 마안산에 더 이상 머물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안산에 머무르면서 하자고 계획했던 일들을 결속한것만큼 적극적인 군사적공세에로 넘어가면서 다시금 국경지대에로의 행군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마안산에서 새로 조직편성한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조국광복회를 창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는 하루빨리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진공적인 군사행동으로 그 모든 사업을 안받침해주는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안산을 떠날 작정을 하고있었는데 경준동무의 통보를 받고보니 더 절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장군님께서는 책상앞에 멈춰서시여 가장자리가 부풀어오른 지도를 손으로 가볍게 누르시였다.

《새롭게 조성된 이러한 제반 군사정치정세의 요구에 따라서 나는 마안산을 떠나 이 만강방향으로…》

하고 장군님께서는 지도에서 마안산과 만강을 찾으시여 그 두 지점을 련결해보이시였다.

《…사령부직속부대를 이끌고 나가면서 도중에 남강부락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야께부대를 쳐버리자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바로 여깁니다.》

장군님께서는 지도우에 네모반듯한 주민지로 표식되여있는 남강을 꾹 눌러 짚으시였다. 강세호는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지점들을 주의깊게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동무네 련대에서 남강마을에 정찰대를 파견하시오. 척후겸 정찰대로 내보내는것이니 인원들을 잘 선발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강세호는 굽혔던 허리를 펴고 엄숙한 자세로 명령을 받았다. 그의 번듯한 이마밑의 눈에 알릴듯말듯한 미소가 순간적으로 스쳐지나갔다. 자기가 그 영광스러운 임무를 받았다는것보다는 사령관동지의

심려를 덜어드리게 된 기쁨이 가슴을 들먹거리게 하였던것이다.

《이제 준비시켜서 점심후에 인차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고 련대의 나머지 성원들은 래일 새벽에 떠날수 있도록 행군준비를 시키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금 절도있게 대답한 강세호는 한쪽 코구멍을 벌룩거리더니 주저없이 말을 이었다.

《한가지 제기해도 좋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지도를 접으시다마시고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어서 말해보시오.》

《정찰대를 제가 직접 인솔하도록 허락해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강세호의 침착한 눈빛과 이런 때는 고집기가 있어보이는 입술을 살펴보시며 그가 쉬이 단념하지 않을 결심을 하였다는것을 알으시였다.

《그럼 련대의 나머지 성원은 누구에게 맡기겠소?》

《부대의 기본대렬과 같이 행동한다면 문제될것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소. …》

《정찰대가 친솔부대의 척후임무를 겸하는만큼 꼭 제가 책임지고 가도록 하여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생각했소. 어서 떠날 차비를 하시오.》

강세호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사령부를 나설 때 마침 사령부에 도착한 리동백이 역시 권총갑을 추슬리는 강세호의 뒤를 한동안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사령부에 들어선 리동백은 놀라운 소식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박문필이 선물로 보내올린 사진기와 필림 그리고 사진현상에 필요한 약품들과 기타 물자들을 넘겨주시였다.

강세호가 인솔하는 정찰대를 먼저 떠나보내신 장군님께서는 이날 오후 지휘성원들을 부르시여 전체 부대성원들이 마안산을 떠나기 위한 행군준비를 갖출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그 명령을 내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일부 사람들을 다젠창에 보

내시여 새로운 후방밀영을 꾸릴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것은 당분간 무송현 남부지대에서 진행하게 될 중대한 군사정치활동을 고려한 동시에 마안산에 남게 될 아동단원들과 병원,병기창과 재봉대를 보다 안전한 새로운곳으로 급히 옮기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였다.

그 이튿날 아침 장군님께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울며 떼쓰는 아동단원들까지 데리시고 마안산을 떠나시였다.

앓아서 데리고가실수 없는 아이들만은 한남실에게 맡기시여 남겨두시였다. 채 낫지 않은 최선금이와 그의 아들딸 남매도 마안산 후방병원에 남았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보호할 한개 소대가 떨어졌다.

마안산을 떠난 사령부친솔부대는 밤새 내린 봄비에 함빡 젖어든 숲속을 누비며 남강방향으로 굽이쳐나갔다.

앙상한 재빛의 활엽숲은 밤사이 미역을 감더니 청신한 생기를 띠며 연두빛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1936년의 첫 봄비가 내린 날이였다.

2

사령부친솔부대는 마안산을 떠난 다음날 남강부락에서 시오리쯤 떨어진 수림속에서 행군을 멈추었다.

거기에서는 정찰임무를 맡고 미리 나왔던 강세호가 정찰대원들을 데리고 어느새 사령부가 들 귀틀집과 아동단원들을 위한 또 한채의 귀틀집까지 지어놓고 부대가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동강으로 곧장 가는줄로 알고 행군해왔던 사람들은 여기에 도착하여 기본부대를 기다리고있는 정찰대원들을 보고서야 이곳에서 그 무슨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리라는것을 알았다. 그리고 남강부락 방향으로의 행군이 이미 마안산을 떠나기전부터 예견된 그 무슨 중요한 일을 치르기 위한 걸음이였음을 깨달았다.

지금 사령부귀틀집에는 사령관동지의 지시에 따라 모인 각 단위의 지휘성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아이들의 귀틀집을 돌아보시려 잠간 자리를 비우신 사령관동지께서 이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중이였다.

강세호는 곁에 앉은 리동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령관동지께서 돌아오시지 않으시나해서 자주 출입문쪽을 돌아다보군하였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이께서 이번 지휘성원들의 모임을 소집하신 리유를 알수 없었다.

그이께서 이곳에 도착하시자 강세호는 남강부락의 정찰결과를 보고하러 사령부에 들리였다. 정찰결과를 보고받으신 즉시로 작전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전투의 구체적인 방도까지 지적해주실줄로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이께서는

《가만있소. 여러 지휘관동무들과 같이 들읍시다. 보고할 준비를 하시오.》

라고 말씀하시였다.

어찌하여 그이께서 여러 지휘관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보고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지 강세호는 궁금했다.

이윽하여 사령관동지께서 방안에 들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어서는 지휘관들에게 자리에 그냥 앉으라고 손짓으로 만류하시며 책상곁으로 가시더니 군모를 벗으시며 아동단원들이 들 귀틀집을 알뜰하게 지었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자 지휘관들은 정찰조를 지휘하는 그 바쁜속에서도 시간을 내여 아동단귀틀집을 지어 사령관동지께 기쁨을 드린 강세호에게 제나름의 눈인사를 보내였다.

통나무의자에 앉으신 그이께서는 각 부대들의 행군결과와 숙영준비정형에 대하여 알아보시고나서 남강부락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야께부대를 타격할 전투계획을 토의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당장 진행하게 될 남강촌전투가 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를 강화하는데서와 조국광복회창건준비사업을 더 잘 수행해나가는데서 가지는 중요성을 간명하게 알려주시고 이번 전투를 다름아닌 남강에서 진행하자고 하는 리유를 설명하시였다.

《그러면 강세호동무의 정찰보고를 들어봅시다.》
말씀을 마치신 장군님께서는 강세호에게 눈길을 보내시였다.
강세호는 통나무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는 손바닥에 작은 수첩장을 펼쳐들기는 하였으나 그냥 든채 담담한 목소리로 집단부락인 남강부락의 지대적특성과 주민구성,적의 무력배치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남강에는 현재 300여명의 미야께부대가 주둔하고있습니다. 그중 두개 소대는 만강방향으로 구국군부대에 대한 〈토벌〉을 나갔습니다. 적의 무장에서 고려에 넣을것은 박격포 2문과 기관총 9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관총 4정은 집단부락 네귀에 세운 포대우에 각각 한정씩 배치되여있습니다. 적의 기본병력은 마을 한복판에 자리를 잡은 병영에 있습니다. 적들은 병영주변을 토성으로 둘러쌓고 거기에 의지하여 견고한 방어진을 구축하고 항시적으로 경계를 강화하고있습니다. 놈들은 토성밖으로는 빙 둘러가며 넓고 깊은 물도랑을 파놓았고 토성의 요소요소에 감시구를 설치해놓았습니다. 토성우에는 철조망을 높이 둘러치고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웃몸을 뒤로 젖히시고 심중히 듣고계시다가 강세호의 침착한 얼굴표정을 바라보시기도 하시고 저마다 생각에 잠겨 강세호의 목소리에 주의를 집중하고있는 지휘관들을 살펴보시기도 하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계속하라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여보이시였다.
강세호는 남강부락의 적무력구성과 그의 배치정형을 자세히 이야기하고나서 적의 린접에 대하여서도 설명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심히 고립되여있는 처집니다. 이놈들이 린접놈들의 지원을 받자면 적어두 네댓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까운곳에는 적들을 지원할만한 무력이 없습니다. 무송에서 군대를 급히 내온다 하여도 5시간은 걸려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저는 이번 전투에서 차단조는 감시임무나 수행할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기본공격대상은 남강부락에 배치되여있는 적의 주력입니다. 이 주력만 소멸하면 지휘부를 잃어버린 주변의 산재된 적들은 비교적 쉽게 소멸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강세호의 보고는 끝났다. 장군님께서는 강세호가 수첩을 접어 주머니에 넣는것을 기다리셨다가 물으시였다.

《적들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습니까?》

강세호는 생각을 더듬는듯 말없이 서있다가 전과는 달리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특별히 말씀드릴 정보는 없습니다. 혹시 참고삼아 말씀드릴것이 있다면 미야께부대장놈에 대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인민들이 돌리는 말에 의하면 미야께부대장놈은 괴상한데가 있습니다. 그놈은 조선인민혁명군이라면 벌벌 떨면서도 반순부대라고 하면 기를 쓰고 따라가서 때린다고 합니다. 또 이놈이 총을 괜찮게 쏘는 모양입니다. 반순부대병사들만 보이면 놈은 권총을 뽑아들고 앞장서서 10리건 20리건 쫓아간다고 합니다.》

통나무의자가 삐걱거리고 가벼운 기침소리가 났다. 방안의 긴장하던 공기가 다소 풀린것 같았다.

강세호자신도 미야께부대장놈에 대한 정보는 신통한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흥미를 느끼시였다. 통나무의자에서 일어나신 그이께서는 방안을 거니시며 미야께에 대하여 상세하게 물으시였다. 필시 다른 의도가 계실것이라고 짐작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여러 지휘원들을 돌아보시였다.

《동무들, 이런 정황에서 전투조직을 어떻게 하겠는가 의견을 제기하시오.》

방안은 조용하여 귀틀집지붕우에서 락수물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가려들을수 있었다.

지휘관들은 사령관동지를 바라보기도 하고 머리를 기웃거리며 옆에 앉은 동무들과 귀속말을 하기도 하였다.

한동안 침묵이 계속되는속에 사령관동지께서는 의견이 나오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지휘관들이 깊이 사색하기를 바라시는듯 책상주위를 조용히 거니시였다.

작전회의에 처음 참가하게 되는 리동백은 강세호와 나란히 통

나무의자에 앉아 호기심이 어린 눈으로 방안을 휘둘러보고있었다. 무엇인가 꼭 기록을 하려고 들고왔던 수첩과 만년필은 무릎우에 놓인채로였다. 대원들의 학습토론을 지도하실 때처럼 장군님의 눈에 부드러운 빛이 흐르는것으로 미루어보아서도 그렇고 옆에 앉은 강세호의 여느때와 다름없는 인정기 흐르는 눈길을 보아서도 그렇고 수백명의 적을 상대로 하여 생사결판을 내게 되는 전투조직이라고 하기에는 방안의 분위기가 너무 부드러웠다.

리동백이 이번에는 다른 지휘관들을 두루 살펴보고있을 때 바로 등뒤에 앉아있던 키가 크고 얼굴빛이 거무틱틱하고 코마루가 덩실한 8련대 3중대장이 일어났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들이 집단부락에 틀고앉아 견고한 방어시설을 구축해놓고있는것만큼 보통 습격전투로써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복판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는 적의 기본주력을 집단부락밖으로 끌어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을 마을밖으로 끌어내다가 소멸하면 놈들이 구축해놓은 견고한 방어시설물도 사실상 맥을 추지 못할것입니다.》

3중대장에 비하면 키가 작고 얼굴이 둥그스름한데다가 눈이 초롱초롱하여 령리해보이는 7련대 1중대장이 저편구석에서 일어났다.

《저도 마을밖에서 전투를 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다가 족치겠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활한놈들이라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유인전술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놈들이 견고한 방어시설물에 의거하고있는것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마을안에서 저항하리라는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에는…》

중대장은 동의를 구하듯 강세호의 얼굴을 쳐다보고나서 확신성있게 말을 이었다.

《오히려 대부대련합작전으로 이놈들을 장시간 포위하고 위협과 협박을 들이대서 무조건 항복시키는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한개 련대가 동원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리동백의 좁은 생각에도 1중대장의 생각이 옳은것 같아서 긍정한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리고 강세호를 돌아보았다. 강세호는 면도자리가 푸릿한 턱을 만지면서 덤덤히 앉아있는데 얼굴빛을 보고서는 1중대장의 의견에 대한 태도여부를 알수 없었다.

자기가 서뿔리 긍정했다는것을 리동백이가 느끼게 된것은 몸매호리호리한 8련대 2중대장이 일어나서 포위가 오래 계속되면 적이 다른놈들의 지원을 요청하게 될것이므로 오히려 불리한 정황에 빠질수가 있다고 말한후였다. 그러고보면 2중대장의 말이 옳은것 같았다.

내내 부드러운 눈빛으로 지휘관들의 의견을 듣고계시던 사령관동지께서는 강세호의 정찰자료를 다시 상기시키시고나서 말씀하시였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작전토의에서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우리 동무들에게 피해가 없이 적을 때리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특히 전인민적인 통일전선체를 창건해야 하는 위대한 사업을 눈앞에 둔 지금 조선인민혁명군의 인민적성격을 남김없이 보여주는것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런 원칙에서 출발할 때 적들을 마을밖으로 끌어내다가 족치자는 의견은 옳습니다. 그러면 적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끌어내오겠는가?》

뙤창밖의 애어린 잣나무가지에서는 저녁해빛에 구슬같이 반짝이는 물방울이 떨어지고있었다.

통나무의자들이 삐걱거리고 가벼운 기침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사령관동지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렸다.

《놈들의 약점을 리용하는 기만유인전술을 적용하는것이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아까 강세호동무도 같은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사령관동지께서는 결심하신듯 힘있는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합시다. 반순부대병사로 가장한 유인조가 부락에 내려가서 적의 초소를 하나 다쳐놓고 소란을 피우면서 반순부대병사들인척 행동하게 합시다. 그러면 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추격해오는놈들을 수리골 앞골짜기까지 끌고가서 족치면 될것입니다. 남강부락주변의 지형에서 그곳이 적을 몰아넣고 소멸하기에는 아주 유리한곳입니다. 그런데 미야께부대장놈과 적의

주력을 끌어내오자면 유인조의 인원이 좀 많아야 할것 같습니다. 검은옷 몇벌이 있으면 되니까 밑천이 들것도 없습니다. 그놈들이 총을 잘 쏜다고 하니까 여기에 알맞는 기만이 또 필요합니다.》

저녁해빛은 이미 창문가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리동백은 방안이 전과 같이 밝게만 느껴지였다.

긴장하였던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지휘관들의 모습도 역시 밝고 명랑한것이였다. 좌중을 둘러보는 속에서도 리동백은 장군님의 말씀만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가슴속에 새겨넣고있었다.

《우리 동무들이 매복한곳에 허위가장물, 허위진지를 만들어놓고 적을 다시 총구앞으로 바싹 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의 좌우익측과 후면에서 집중사격을 들이대야 합니다. 동무들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세호동무는 다른 생각이 없소?》

입가에 그 보기드문 웃음을 담고 강세호는

《사령관동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올렸다.

강세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우렁차고 어찌보면 약간 떨리는것 같기도 하여 중대장들은 그가 흥분하고있다는것을 느끼는 동시에 자기들도 그를 따라 벌쭉거렸다.

얼마나 명철하신 말씀이신가! 군사에 대하여 판판백지인 리동백은 지금이 전투를 앞둔 모임이 아니라 싸움을 이기고난후의 유쾌한 모임이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하게까지 되였다.

리동백은 자기도 이번 싸움에 꼭 참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책상 한옆에 놓인 군사용지도를 천천히 펼쳐놓으시며 지휘관들을 둘러보시였다.

《자, 그럼 구체적인 전투계획을 세워봅시다.》

지휘관들은 기다렸다는듯 책상곁으로 모여들었다.

역시 이 광범위한 작전토의는 전례가 없는것이여서 강세호는 잠시 머뭇거리며 사령관동지를 우러렀다. 그것은 강세호가 사령관동지께서 새 부대들이 확장편성됨에 따라 새로 임명된 중대장들을 비롯한 지휘관들을 키우시기 위하여 친히 오늘의 작전토의모임을 마련하시였다는것을 알았기때문이다.

3

수리골의 좁은 골짜기에 유격대원들이 매복하고있었다. 골짜기의 량쪽에는 경사가 급한 산줄기가 뻗어내렸다.

한낮이 되자 미야께가 거느린 한개 중대이상의 병력이 골짜기 안으로 쓸어들었다. 검은 옷을 입은 유인조의 몇몇 유격대원들이 재빨리 골안 깊숙이 적들을 끌고 들어갔다. 적들은 유인조에 끌리워가듯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노가지나무 한대가 겨우 뿌리를 박고 서있는 커다란 바위짬사이에 총을 걸어놓고 갑갑증이 나서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있던 장기령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골짜기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꾀바르고 날파람있게 나무를 잘 타서 《다람쥐》라고 소문난 허리가 잘룩하고 목이 긴 오동무가 유인조의 맨뒤 얼마쯤 떨어져서 골짜기를 오르고있었다. 그는 한참 산기슭을 타고 올리뛰다가는 걸음을 멈추고 슬쩍 나무뒤에 몸을 숨기기도 하고 이어 다시 나타나서 총을 쏘고는 또 숲속에 몸을 감추면서 뛰군하였다. 꼭 숨박곡질을 하는것 같았다.

저 친구가 어데서 저런 재간을 배웠는가. 장기령은 그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리없이 웃었다. 유인조는 가장물을 세운 산릉선에 올라서더니 일제히 적들을 향하여 한바탕 사격을 가하고는 이내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유인조에 뒤이어 릉선에서는 역시 검은옷차림을 한 허수아비가 머리를 쳐들고 적들을 내려다보고있었다.

장총이며 기관총을 어깨에 멘 적들은 약이 머리끝까지 올라서 총을 쏘아대며 유인조를 놓칠세라 꼬리를 물고 쫓아왔다. 대렬앞에서는 누런 만또를 어깨에 걸치고 번쩍거리는 장화에다 긴칼을 찬 놈이 백마를 타고 거들먹거렸다. 악명높은 미야께놈인듯했다.

유인조가 산릉선너머에 자취를 감추어버리자 만또는 말우에서 몸을 뒤로 젖히고 위세를 부리며 목에 걸었던 쌍안경을 눈에 가져

갔다. 전방을 감시한다기보다는 멋을 부려보자는것이였다. 이윽하여 그놈의 새하얀 명주장갑을 낀 왼손이 머리우로 올라갔다. 적대렬은 급히 산개하였다.

만또는 권총을 빼들더니 무작정 한 허수아비를 겨누어 몇방 연거퍼 쏘았다. 가느다란 나무아지가 무엇에 놀라듯 한뽐가량 공중에 튕겨올랐다가 떨어졌고 허수아비의 모자가 훌 나가떨어지는것이 보였다.

백마가 놀라서 앞발을 쳐들며 울어댔다. 백마가 다시 울어대며 요동칠 때 그놈의 머리우에서 칼날이 해빛에 번쩍하였다. 적의 산병선은 골짜기를 메우며 가장물이 있는 산중턱을 향하여 바삐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쪽의 숲속에서는 눈먼 총소리가 두세방 울렸다. 그것은 산릉선뒤의 은페지에서 유격대원들이 허수아비를 대신하여 쏘는 총소리였다. 놈들도 어지럽게 총질을 하였다. 만또가 고함을 치자 놈들은 와—와— 소리치며 좁고 깊은 골짜기로 쓸어올라갔다.

줄레줄레 늘어선 적들이 누런 외투자락을 땅에 질질 끌며 장총을 받쳐들고 헐레벌떡 지나가는것을 보며 장기령은 불현듯 기관총생각이 간절하여 신음소리를 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적들의 대렬이 눈앞을 지나가고있었다. 대렬의 맨뒤에서 끌리듯 따라가던 뚱뚱보 왜병이 무슨 인기척을 느끼였던지 개털모자밑에 붙은 데룩데룩한 눈을 들어 장기령이 매복해있는 바위우를 바라보았다. 장기령은 축축히 녹은 눈을 손으로 다져서 두루룩 아래로 굴리였다. 적은 거기에 얼리워 그냥 스쳐지났다.

이때 장기령은 적대렬의 정면에서 울리는 강세호의 신호권총소리를 들었다. 때를 같이하여 그쪽에서 일제사격이 시작되였다. 뒤이어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났다.

불의의 타격을 받은 적들은 골짜기아래로 사태처럼 쏟아져내렸다.

그제서야 누런 만또는 자기의 실책을 알아차린 모양이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뒤에 서서 전장을 바라보던 그놈은 밀려내리는 병졸사태를 수

습해보려고 고함을 치며 병졸들의 공포에 질린 면상을 향하여 권총을 휘둘렀으나 어쩐 일인지 병졸들은 누런 만또쪽으로 거침없이 밀려내렸다. 그 사태에 휘말려든 백마 역시 어쩔수 없이 골짜기아래로 밀려내리였다.

장기령이 인제는 우리가 적의 후면을 때릴 차례라고 생각하여 적들이 몰키여 혼잡을 이루는곳에 총을 묘준하고있을 때 나지막한 사격준비구령이 내렸다.

이때에도 장기령은 늘 어깨에 메고 다니던 기관총생각이 간절하였다. 동시에 기관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점발사격만 하여 많은 적을 놓아주었다고 하면서 자기를 《민생단》으로 몰던자들이 떠올랐다. 그뒤에 있었던 원망스럽던 나날과 장군님의 신임으로 다시 총을 잡던 감격이 되살아나서 눈앞이 흐려지고 총끝이 안개속에 잠긴듯 보이지 않았다.

손등으로 눈을 한번 비비고는 총탁을 어깨에 바싹 당겨다붙이면서 아래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는 사격구령이 나자 조심스럽게 방아쇠를 당겼다. 총대를 휘저으며 개털모자를 벗어던진채로 나무줄기사이로 교묘하게 내빼던 적병이 털썩 앞으로 꺼꾸러졌다. 그의 좌우에서도 사격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퇴로가 막혔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당황해진 적들은 무리로 쓰러지면서도 악을 쓰며 이쪽을 향하여 대응사격을 하였다. 미야께놈은 말우에서 어깨한번 낮추지 않고 이번에는 칼을 뽑아 허공에 번쩍거리며 반돌격을 해보려고 장기령이네가 매복해있는 산기슭으로 졸병들을 올리몰았으나 병졸들은 골짜기아래로 빠지려고만 하지 산기슭에 붙으려 하지 않았다.

장기령은 그 누런 만또가 어지간히 먼거리에 있고 그것도 가지가 퍼진 잣나무밭에 은근히 몸을 숨기고있어 쏘아눕히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숨을 죽이고 그놈을 겨누었다.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흠칫 말허리에서 튕겨오른 그놈은 푸른 하늘을 그러안으려는듯 칼을 떨어뜨리며 명주장갑을 낀 하얀 손을 허공에 펼치더니 나무토막처럼 말발굽밑에 털썩 떨어져버렸다. 허리에 미야께의 만또를 걸친 말이 주인을 짓밟으면서 선자리에서 맴돌았

다. 이때 누런 견장을 단놈이 한손에 권총을 빼든채 미야께를 구원하려는듯 말앞으로 달려들고있었다. 장기령이 그놈의 등허리를 겨냥하여 쏘는 순간 누런 견장은 휙 돌아서며 장기령이쪽으로 권총을 겨누었으나 이미 팔이 후들후들 떨리였고 몇초후에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듯 꼬꾸라졌다.

살아남은놈들이 바위짬이나 관목숲속에 숨으려고 서두를 때 어지러운 총소리를 누르며 돌격나팔소리가 울렸다.

매복선에서 자리를 차고 일어난 유격대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골짜기로 물밀듯 쏟아져내리자 그 소리에 넋을 잃은 적들은 저항할새도 없이 허둥지둥 도망쳤다. 유격대원들은 살같이 골짜기를 누비며 달려갔다. 겨우 살아남은 적 두놈만이 골짜기에서 남강부락으로 통하는 한길에 나서는것이 보였다. 멀리 뒤쫓아가던 장기령은 멈춰서서 개털모자며 외투며 장총이며 다 버리고 정신없이 도망치는 그 두놈들중의 한놈을 향하여 총을 겨누었다.

《쏘지 말것！ 쏘지 말것！》

뒤에서 강세호가 목갈린 소리로 부르짖듯이 웨쳤다. 장기령은 웬일인지 몰라 어깨에서 총탁을 내리며 강세호의 땀에 젖은 얼굴을 돌아보았다.

《련대장동지,그놈들을 왜 살려보냅니까？》

《사령관동지의 명령이시오.》

강세호는 총을 내리라는 뜻으로 손을 내저어보이였다. 그리고 빨리 전장을 수색하라고 하였다.

장기령은 적 두놈을 그냥 살려보낸것때문에 허전한 기분으로 장총을 비껴들고 놈들이 수두룩이 너부러진데로 걸어갔다. 유격대원들은 놈들의 시체사이를 다니며 적들의 총과 탄알을 한아름씩 거두었다.

그런데 유인조의 날파람있는 오동무가 어깨우에 번쩍거리는 기관총을 메고 장기령이앞에 나타났다. 장기령의 눈은 번쩍 빛났다. 이때에야 장기령은 전투에 앞서 기관총을 꼭 로획하자고 했던 당초의 생각을 그동안 자기가 까맣게 잊고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오동무가 벙글거리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장동무, 수고했어. 역시 명사수던데! 미야께란놈이 장동무의 총알에 맞아 너부러지는 꼴이 꼭 활동사진을 보는것 같더라니까.》

장기령은 허거픈 웃음을 입가에 띠우고 고개를 저었다.

《이 친구, 왜 갑자기 얼굴을 찌프리구 그 모양이야? 미야께를 잡고서두 뭐가 성차지 않나?》

장기령은 여전히 허거픈 웃음을 입가에 띠운채 스적스적 걸어갔다.

전장에 대한 정리가 끝나자 강세호는 서둘러 대렬을 정렬시키였다. 연기에 거밋하게 그슬린 그의 반듯한 이마밑에서 침착한 눈이 대렬을 훑어보고있었다. 군복은 여전히 다림질한것처럼 빳빳하고 움직일 때마다 덮개가 열린 권총갑이 허리에서 기세좋게 데룽거리였다.

《급히 매복진지를 옮겨야 하겠소! 앞으롯!》

강세호는 잡관목을 가르며 앞장에 서서 대렬을 이끌었다. 그의 뒤를 따라 대렬은 재빨리 움직이였다. 방금 전투가 있었던 전장을 뒤에 남기고 대렬은 남강부락 가까이의 골짜기어구쪽으로 이동하였다.

마른 풀대와 나무가지가 스치는 소리에 유격대원들의 가쁜 숨결소리가 어울리고 속삭이는듯한 짧은 구령이 대렬속에서 간간이 들렸다.

대렬은 남강부락이 빤히 내려다보이는 길목에서 행군을 멈추고 은밀하게 복장과 무기 등을 정돈하였다.

길의 량옆에는 수리골에서 내려오는 산줄기가 밋밋하게 누워있었다. 길은 협곡을 따라 흐르는 강처럼 평행으로 나란히 선 산줄기 사이로 났다.

강세호는 이깔나무, 봇나무, 물황철나무가 빼곡이 들어찬 산기슭에서 손에 잡힐듯 내려다보이는 남강부락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키가 큰 중대장이 권총탄창에 탄알을 재우느라고 허리를 구붓하고 서있었고 그옆에서는 어깨가 넓고 키가 자그마한 중대장이 방금전의 싸움에서 어지러워진 군복을 대충 손질하며 혁띠를 조이고있었다. 강세호는 사령관동지의 전술에 따라 대렬을 급히 이

지점으로 이동했다는것과 이제 여기에서 보다 큰 싸움이 벌어진다는것을 말하였다. 남강부락의 높이 솟은 네개의 포대는 언제나 불을 내뿜을 준비가 되여있다는듯이 주위를 굽어보고있었다. 병영을 휘감은 토담이며 그우에 거미줄처럼 얽힌 철조망의 륜곽들이 내려다보이였다.

강세호는 중대장들에게 명령하여 대원들을 매복지점에 다시 배치하고 사령관동지께서 계시는 우측 물황철나무숲속으로부터 나팔을 손에 들고 달려온 전령병 주봉길을 만났다. 전투를 앞두고 어지간히 긴장해진 모양인지 눈살이 꿋꿋해진 주봉길은 적의 포대를 제압할 습격조가 부락부근에 당도하였다는것과 그밖의 적에 대한 정찰자료와 함께 시급히 전투준비를 갖추라는 사령관동지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특히 전투에서 로획한 기관총을 잘 배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하였다.

강세호는 로획한 기관총을 가져다놓게 하고 장기령을 불러 그에게 번들거리는 기관총을 맡기였다. 장기령은 강세호의 얼굴과 기관총을 번갈아 살펴보면서 한참동안 머뭇거렸다.

《장기령동무한테는 장총보다도 역시 기관총이 더 어울린다니까. 어서 전투준비를 하시오. 기관총사격구령은 내가 직접 주겠소.》

하고 강세호는 장기령의 어깨에 기관총을 메워주었다. 무엇때문인지 장기령이 입술을 씰룩거리며 기관총을 바로 들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장기령이 가둑나무가 듬성듬성한 둔덕진곳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탄창을 끼워놓았을 때 남강마을 성문앞에서 누런 대렬이 총창을 번뜩이며 이쪽으로 이동해왔다. 꼬리가 긴 대렬이였다.

장기령은 대렬선두에서 머리에 흰 붕대를 처맨놈과 역시 팔에 붕대를 감은놈을 알아보았다. 방금 있었던 전투에서 강세호가 쏘지 말라고 명령하여 그냥 살려보낸 적병이였다.

(길잡이를 시키기 위하여 살려보냈구나!) 장기령은 기관총탁을 탁 치며 허허 웃었다.

전과는 달리 적병들의 얼굴에는 살기가 번뜩이였다. 벌써부터 장

교놈들은 칼을 뽑아 휘둘러대고있었다. 이미 너부러진 미야께의 복수를 단단히 벼르고있는 모양이였다.

강세호는 적의 대렬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장기령에게 손을 흔들어보이였다. 사격준비의 신호였다.

장기령의 기관총이 불을 토하는것과 함께 적의 후면에서도 수류탄이 터졌다. 장기령에게도 신기하리만큼 적들이 무리로 쓰러졌다. 장기령은 자기의 기관총사격이 아주 정확하다는것은 별로 느끼지 못하였다.

《쐇! 쐇! 1중대, 퇴로 차단할것.》

강세호의 호된 음성이 울렸다.

적들은 텅빈 좌우 길옆의 쑥대밭으로 밀려들었다. 그쪽에서 1중대장이 권총을 뽑아들더니 일제사격소리가 터져올랐다. 적들의 비명소리가 어지럽게 들리였다. 땅에 떨어진 일장기를 들고 아래로 내달리던 적을 쓸어눕히자 남강의 네개 포대에서 불기둥이 솟구쳐올랐다.

바람에 연기를 날리며 너덜너덜 불타고있는 일장기를 밟으며 유격대원들이 달려갔다. 마른 새초가 한벌 깔린 들에 대렬이 정렬하였을 때 강세호의 청청하고 힘찬 음성이 울렸다.

《차렷, 우—로—봣—》

벌써 사령관동지께서 대렬을 향하여 곧추 걸어오고계시였다. 그뒤로 네댓걸음 떨어져서 리북철이 따라섰고 리북철의 좌측으로는 나팔을 손에 든 주봉길이 먼 저쪽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틀스럽게 걸어오고있었다. 그의 거동이 좀 천진한데가 있어 리북철이 그쪽으로 눈을 주었지만 주봉길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이번에는 별스럽게 나팔을 해빛에 번쩍거려보이였다. 리북철의 뒤로는 미소를 담뿍 담은 리동백이 띠가 늘어진 권총을 한손으로 추슬리며 한손에는 로획한 기병총을 들고 떨어질세라 급히 따라오고있었다.

사령관동지를 향하여 기쁨과 행복에 불타는 눈길이 일제히 쏠리는 가운데 강세호가 정보로 걸어나가 어깨를 뒤로 젖히고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동무들, 잘 싸웠소.》

사령관동지의 음성이 울리자 《만세》의 우렁찬 합성이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격정의 파도는 대렬앞에서부터 뒤로 혹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퍼져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대원 한사람 한사람의 모습을 눈여겨 살피시였다.

유격대원들은 사령관동지를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그이께 전투보고를 드리였다. 그것은 유격대원으로서, 총퀸 전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사령관동지께서 이번 전투를 직접 지휘하시였고 자기들이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싸웠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한껏 부풀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장기령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시였다.

장기령이 차렷자세로 그이께 인사를 올렸을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뒤따르는 강세호에게 미소어린 안광을 돌리시였다.

《일년만에 장기령동무의 기관총소리를 들어보았군. 잘 쏘았소.》

《사령관동지!》

장기령은 총소리사태속에서, 수류탄이 터지고 적의 비명소리가 뒤섞인 싸움판에서 자기자신도 자기의 기관총소리를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리고 기관총소리를 회상할수도 없었다.

《내가 잘못 듣지 않았군. 분명 장기령동무 기관총이더군. …》 하고 사령관동지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 순간 장기령은 그만 눈물이 솟구치는 얼굴을 떨구었고 강세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사령관동지를 우러렀으며 리동백은 놀람속에서 《아, 장군님…》 하고 뜨겁게 마음속으로 불렀다.

4

미야께부대놈들을 순식간에 소멸한 우리 군대가 마을에 들어선다는 소문은 날개라도 돋친듯 마을의 골목골목으로 퍼져갔다. 마을사람들은 숨었던 움막들에서 뛰쳐나오고 나무낟가리를 헤치고 달

려나왔다.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친히 부대를 이끄시고 들어서신다는것을 어느사이에들 알아냈는지 사람들은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가며 꿈결에도 그려오던 **김일성**장군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뵈오려고 서로 밀리고 밀치며 달려들었다.

《**김일성**장군님 만세!》

사람들은 대렬선두에서 여느 유격대원들과 다름없이 수수한 보통군복을 입으시고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손을 드시여 인사를 보내시는 장군님께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였다. 늙은이들도 젊은이들도 아낙네들도 아이들도 장군님께로, 장군님께로 모여들었다. 하얀 채수염을 기른 늙은이들은 길가에 나와서 장군님께 큰절을 드리였다. 장군님께서 만류하시고 또 만류하셨지만 사방에서 모여드는 로인들을 다 만류하기 어려우시였다.

남강마을이 생긴이래 일찍 있어보지 못한 들끓는 환희와 격동속에 날이 저물었다. 집집에는 환한 등불이 켜지고 굴뚝들에서는 아구리가 미여지게 연기가 피여올랐다.

마을은 유격대원들에게 대접할 국수를 누르느라, 수수지짐을 지지느라 떠들썩하였다.

구운 감자며 수수지짐이며 조밥누룽지를 쥔 조무래기들이 명절날처럼 이 집, 저 집으로 우르르 밀려다녔다. 밝은 달이 떠있었다.

리동백의 마음은 즐거웠다.

난생처음 참가해본 전투에서 자기가 겨냥해 쏜 적이 두놈씩이나 나가너부러지는 꼴을 자기 눈으로 봤던 그는 가슴에 넘치는 기쁨을 누구와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심정이였다.

경위대가 들어있는 초가집 마당 한쪽에서는 웃통을 벗어제낀 리북철이가 커다란 통나무를 패느라고 힝힝 도끼질을 하고있었다. 사령부작식대원인 장철구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주인집 부뚜막을 손질하느라고 바삐 돌아갔다.

리동백은 그들에게 말을 걸려다가 그만두고 아래마을로 내려갔다.

우물결에 있는 아담한 초가집은 부엌문이 활짝 열려져있었다. 그

리로는 녀인들이 부산스레 들락날락하고 집안에서도 역시 녀인들의 웃음소리가 쉴새없이 흘러나왔다.

리동백은 그 집 문앞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부엌아궁에서는 나무가 탁탁 소리를 내며 타고 커다란 가마에서는 더운 김이 안개처럼 서려오르는데 가마우에 놓인 국수분틀에는 동네 녀인들이 몰켜서서 안깐힘을 써가며 가름대를 내려누르고있었다.

팔소매를 걷어붙인 주인집 로파는 싸리조리로 농마국수오리를 건져서는 찬물이 가득 담긴 함지에 쏟아놓고 솜씨있게 저어가면서 국수발이 굵다거니 반죽이 되다거니 하고 잔소리를 하였다. 부뚜막앞에서는 이마가 훌렁 벗어진 주인령감이 불을 때고있었다.

《령감, 마른 나무가지를 골라넣수다. 물이 끓어야 국수가 잘되지 않겠소. 원, 령감두 답답하지.》

《허참, 이거 오늘밤에는 꽤 잔소리가 심허군. …》

주인령감은 일부러 자그마한 재빛눈을 흡뜨며 혀를 찼다.

《잔소리 안하게 됐소? 남의 이마를 터쳐놓구 무슨 할 말이 있소?》

로파는 령감의 눈앞에 쪼글쪼글 주름이 잡힌 이마를 내밀었다. 눈두덩우에는 동전잎만한 상채기가 나있었다. 그것은 감자움 가름대에 부딪쳐서 생긴것이였다.

《허참, 그래 그게 어디 내탓이요?》

《에구우, 남이 창피해서… 남의 손목을 부러지게 잡구서 마구 감자굴로 끌고 간게 뉘시우? 간이 녹두알만한 령감하구 살려니 이 고생이지. … 쯧쯧…》

《하, 저는 어쩌구? 총소리가 나자 초풍난 사람처럼 와들와들 떤건 누구여?》

《내가 떨었수? 령감이 떨었지.》

《떨기야 로친네가 더 많이 떨었지.》

그러자 녀인들이 깔깔 웃었다.

주인내외도 따라웃었다. 한참후에 령감이 누구에게라없이 한마디 하였다.

《간이 메주덩이만한 사람이 있기로서니 이번같이 큰 전쟁통에 그냥 앉아배긴단말이요? 있다면 그야 정신나간놈이지—》

《우리두 보따리를 이고 들고 뒤산으로 내뛰지 않았습매. 마을이 다 없어지는줄 알았지비.》

실팍한 몸으로 국수분틀의 가름대를 누르고있던 얼굴이 넙죽한 중년부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자 녀인들은 자기네들은 어느어느 골짜기로 올리뛰였다느니, 감자굴에 숨어있었다거니 하고 한마디씩 하였다.

《이러나저러나간에 령감덕에 허물 하나 벌었수다.》

로파가 눈두덩우의 상채기에 손을 대보며 푸념을 하였다.

《걱정두 팔자요. 로친이 이제 또 시집가겠소?》

하는 령감의 소리에 녀인들은 또 입을 싸쥐고 키득거렸다.

리동백은 부엌안으로 들어서며 인사를 하였다.

《수고들 하십니다.》

주인령감과 녀인들은 뽀얀 김이 서리는 속이라 처음에는 리동백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리동백은 모자를 벗어들고 다시 인사를 하였다.

부엌아궁의 불빛과 벽에 걸어놓은 두개의 등잔불이 리동백의 반나마 흰 머리를 희미하게 비쳤다.

《어이구, 어서 오시오. 보아하니 꽤 높으신 어르신네 같은데 이렇게 루추한 집엘…》

주인령감은 감이 좋은 천으로 만들어진 그의 새 군복을 살펴보고 퍽 기뻐하면서도 한편 당황한 기색이였다.

《아니, 나는 보통유격대원입니다.》

주인령감은 리동백의 아래우를 두루 살피면서 물러앉았다.

《그래 내가 보통유격대원 같지 않습니까?》

《예예… 년세도 있는분이고 차림새도 여느 사람과 같지 않아서…》

《나는 평대원이지만 좌상이라구 나이대접을 받습니다.》

주인령감은 머리를 끄덕이며 리동백에게 뜨거운 부뚜막 한쪽에 자리를 권하였다. 그리고 기둥에 매달아두고 아끼던 담배타래에서 누런 잎담배 두잎을 뽑아서 리동백앞에 내놓았다.

리동백은 주인령감이 권하는대로 부뚜막 한켠에 앉았다.
《어데 상한데는 없는가요?》
《원, 무슨 말씀을… 상하다니요? 마을에 총알 하나 안떨어졌수다.》
싸리조리로 가마에서 국수를 건져내던 주인로파가 리동백한테로 얼굴을 돌리며 한마디 하였다.
《다치기는 이 늙은게 다쳤다우다. 저 령감덕분에 여기를 이렇게…》
녀인은 상채기가 난 눈두덩을 손으로 가리키며 곁눈으로 령감을 슬쩍 훔쳐보았다.
《거 정말 큰일날번했습니다.》
《이 못난 늙은것이 로친네가 귀해서 감자굴로 끌고들어가다가 그만…》
령감이 얼굴을 붉히자 녀인들은 또 웃었다.
《모두들 보따리를 싼다, 산으로 간다 야단법석했답니다.》
얼굴이 넙죽한 녀인이 능란한 솜씨로 반죽한 농마를 국수분틀에 밀어넣으면서 말참견을 하였다.
리동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두 큰일났다고 했겠습니다?》
《말두 마시우. 헌데 지금 생각해봐두 그저 꿈만같아요. 그 씨글씨글하던놈들이 눈깜박할 사이에 멸족했는데 이건 정말 하늘이나 알일이지요. 헌데 유격대어른, 대관절 이번 전쟁은 어떻게 된겁니까?》
《어떻게 되다니요?》
《나는 전쟁을 여러본 당해본 사람인데 아라사하구 왜놈들이 전쟁할 때는 왜놈군대가 한번 지나만 갔는데도 마을은 결딴이 났지요. 개, 돼지, 닭이 멸족이 되구 세간들은 털리우구 그저 쑥밭이 됐지요. 헌데 이번 전쟁은 머리우에서 하늘이 물러앉는 소리가 났는데두 마을이 이렇게 펀펀하지 않소. 내 이런 전쟁은 처음 봤다니까요. 그전날 어쩌다 독립군들이 지나갈 때두 마을이 피해를 입기가 일쑤였습니다.》
리동백은 껄껄 웃었다.

《이번 싸움은 인민을 위해 싸우는 우리 인민혁명군이 벌린 싸움이기때문이지요. 이번 싸움은 장군님께서 친히 인민들에게 조그마한 피해도 없도록 보살피시였습니다.》

주인령감뿐아니라 녀인들까지 일손을 놓고 리동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장군님께서는 마을에서 전투를 하면 인민들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가 있을수 있으니까 놈들을 마을밖으로 끌어내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둥지를 틀고 엎디여있는놈들을 무슨 수로 끌어냅니까? 그래서 모두 걱정들이였는데 장군님께서 묘책을 가르쳐주셨지요. …》

리동백은 신명이 나서 오늘 전투의 경위를 이야기하였다.

《과시 명장이십니다!》

이야기를 듣고난 주인령감이 무릎을 치며 감탄하더니 계속하였다.

《척 뵙기만 해두 천품을 타고나신 명장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장군님께서 그런 묘책을 내시여 보살펴주시니 우리는 아무 피해도 안받구 못되게 굴던 왜놈들만 녹아났군. 천하에 악독한 그 미야께란놈이 뒈졌다는 소문을 들으니 10년 묵은 체증이 꺼져내리는것 같습니다. 나도 그놈들한테서 정말 이루 말못할 수모를 받았수다. 집단부락인지 뭔지를 만들 때 그놈들이 하던짓을 생각하면…》

주인령감은 그때 당하던 뼈에 사무친 일들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의 원한을 산놈들이니 천벌을 받지 않고 될말이냐고 하였다.

《장군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인민들이 기를 펴고 살게 하시려고 이번에 이 집단부락에 틀고앉아 악독하게 굴던 미야께놈의 부대를 치게 하셨습니다.》

리동백의 말에 주인령감은 연신 머리를 끄덕였다.

《정말 고마우신 장군님이시외다! 우리는 그동안 놈들의 등쌀에 숨도 제대로 못쉬구 지내면서 장군님께서 우리 부락에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장군님께서 무송땅에 오셨다는 소문이 돌지 않겠소. 그 소문을 듣고는 그저 모여앉으면 장군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주인령감은 얼마전에 우리 나라 조종의 산인 백두산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소리가 울렸다는 소문이 어디선가 전해왔는데 그것을 두고 이해 봄에 나라에 대통운이 트일 징조라고들 령감네들이 말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리동백은 여직껏 자기가 보고 듣고 느껴온대로 장군님은 어떠한분이시라는것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하였다.…

밤이 깊어서야 리동백은 그 집에서 나왔다.

마을에는 여전히 달빛이 흐르고있었다. 리동백은 마을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만에 푸짐히 국수대접까지 받고난뒤라 마음이 흐뭇하였다. 코노래라도 흥얼거리고싶은 심정으로 걸음을 옮기던 리동백은 어데서 청년들의 노래소리가 들리자 그쪽으로 가보았다.

수수짚으로 울바자를 둘러친 초가집마당에서 청년들이 유격대원들에게서 혁명가요를 배우고있었다. 리동백이 마당안에 금방 들어섰을 때 장기령이 뒤따라 마당으로 들어서며 소리쳤다.

《동무들, 이제 장군님께서 연설을 하십니다. 모두들 저쪽 병영마당으로 갑시다.》

청년들은 와—하고 물밀듯이 달려나갔다.

놈들이 병영으로 쓰던 건물안마당에서는 우등불이 활활 타올랐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와그르르 쏟아져나왔다.

마당은 사람들로 차고넘쳤고 마을젊은이들은 불무지곁에 모여서 언제 배웠는지 유격대행진곡을 소리높이 부르고있었다.

장기령은 리동백과 함께 그리로 걸어갔다.

《장동무, 참 수고하오. 낮에는 전투를 하고 밤에는 또 이렇게…》

《오늘 전투는 얼마나 신바람납니까! 또 오늘밤은 얼마나 좋은 밤입니까!》

역시 장기령의 말이 옳았다.

벌써 마당에서는 《**김일성**장군님 만세!》 하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장기령은 리동백의 팔을 잡아 이끌며 그리로 달려갔다.

사람들은 겹겹이 둘러서있었다. 조무래기들은 어른들의 겨드랑이

밑을 빠져서 장군님 가까이로 나갔다.

장군님께서는 환호를 올리는 군중이 진정하기를 기다리다가 연설을 시작하시였다.

《친애하는 남강마을의 동포 여러분! 그립던 동포 여러분들과 오늘 저녁에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게 되니 나도 참으로 기쁩니다.》

기침소리 하나없이 귀기울이고있던 마을사람들은 와그르 박수를 올렸다. 앞자리들을 마을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뒤자리들에 서 있던 인민혁명군대원들도 함께 박수를 올렸다.

장군님께서는 답례로 몇차례 가볍게 박수를 치고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들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제 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조국땅을 떠나 살길을 찾아 산설고 물설은 이곳에 와서까지 당하는 고생살이와 설음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것은 우리가 만난 몇몇 마을로인님들의 이야기만 듣고도 짐작이 갑니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벌써전부터 하늘에 사무친 남강마을 여러분들의 원한을 알고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일제의 압제밑에서 마을사람들이 당한 고통을 손금보듯 환히 꿰뚫어보시고 그 몇가지 실례까지 드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귀기울이고있던 마을사람들속에서 훌쩍거리는 낮은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을 못보았고 하소할데도 없던 마을사람들은 그 기막힌 사연들을 가슴아파하며 뇌이시는 장군님을 우러러보며 가슴이 후더워졌다.

장군님께서는 연설을 계속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동포들이 나라를 잃고 살길을 찾아 이국땅에 와서까지도 이렇게 고생하는것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이 나라를 빼앗았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일제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까밝혀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늙은이들은 하얀 머리들을 끄떡이였다.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총총히 들어앉은 사람들을 둘러보고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렇게 하자면 2천만 우리 동포들이 모두 한덩어리로 뭉쳐야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여 2천만 동포들이 모두 한데 뭉쳐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인 지주, 자본가놈들을 때려부시고 삼천리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토를 되찾아야 합니다. …》

또다시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가 울리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손에 무장을 들고 피흘려 싸우는것은 일제를 조국땅에서 몰아내고 우리 인민을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항일무장투쟁에 적극 호응하여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장군님의 연설은 폭풍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와 만세를 불러일으켰다.

그 자리에서 수십명 마을청년들이 저마끔 유격대참군을 지원해나섰다.

마당안은 흥성거렸다. 한쪽에서는 입대를 청원한 청년들을 등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어울려 춤추고 노래부르며 이 즐거운 밤을 보냈다.

밤이 깊어 모임자리는 파했으나 장군님을 모신 남강마을은 집집마다 골목마다 떠들썩한 이야기소리, 혁명가요를 부르는 노래소리, 웃음소리에 실려 밤새껏 잠들지 못하였다.

제 11 장

1

무송시내에도 봄빛이 짙어갔다.

북문밖거리를 벗어나 잠시만 걸으면 인차 보게 되는 이도송화강과 서문밖거리를 나서면 곧 맞다들리는 송화강에 성에장들이 떠내리기 시작한것이 어제 같은데 구질구질한 구정물이 흐르는 뒤골목 도랑옆에는 냉이풀들이 파랗게 돋아났고 시내에 드문드문 서있는 버드나무의 휘늘어진 가지들도 햇순을 내밀면서 그 까칠하던 때를 벗기 시작했다.

개나리울타리들은 꽃망울들이 부풀대로 한껏 부풀어올라서 벌써부터 노르끼레한 빛을 띠였다.

봄빛이 짙어질수록 사진관에 와짝 쓸어드는 젊은이들로 하여 《금강사진관》도 요즘 영업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그런 들뜬 손님들로 인해서만 《금강사진관》영업이 활발해진것은 아니다.

박문필이 하르빈에서 사귀였다는 점잖은 사진사가 사진관에 와서 사진업을 돕게 된 때로부터 손님이 더 많이 쓸어들었다.

박문필한테로 온 다음 며칠사이에 인차 사진기술을 배운 리경준은 지하공작사업에 여러모로 편리한 사진사라는 명목으로 그의 사진관에서 《일》하고있었다.

오늘도 아침부터 어지간히 붐비며 밀려드는 손님들에게 시달리우면서 세다리 사진기를 내내 지키고 서있다싶이 하던 리경준은 점심때쯤해서 보슬비가 내리는것을 보고 손님이 오후에는 적어지리라고 생각하였다.

비때문에 사실 손님들은 퍼그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띠염띠염 나

타나는것 같은 손님들도 리경준에게 별로 한가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

우산대신 꽃무늬 돋친 양산을 들고 들어선 요염한 젊은 부인을 사진기앞에 앉히고 좀 멋있게 찍혀보자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그 허영의 그림자를 찍어준 다음에는 웬일인지 메슥메슥해지는 목안을 독한 담배연기로 가셔내리라 작정했던 리경준은 샤타를 누르기전에 안으로 들어서는 다른 손님의 신발소리를 들었다.

녀자손님이 물러나자 곧 그자리에 방금 들어왔던 키가 늘씬한 남자손님이 다가왔다. 그 손님은 조선바지저고리에 검은 조끼를 받쳐입었는데 옷이 푹 젖은데다가 바지가랭이가 흙물에 마구 더럽혀진것으로 보아 비를 맞으며 꽤 먼길을 걸어온것 같았다.

《시내에 왔던김에 한장 찍어봅시다. 회계는 찍은 담에 치르지요.》

촌젊은이인듯한 그 손님은 반죽좋게 웃으며 비물이 뚝뚝 떨어지는 도리우찌를 한손에 움켜쥐고 삐걱소리가 나게 걸상에 앉았다.

어딘지 그 목소리가 귀에 익다고 느꼈던 리경준은 렌즈를 통해 조그맣게 꺼꾸로 보이는 푸접좋고 체격좋은 촌젊은이의 얼굴을 보면서도 역시 낯익다고 생각되였다. 신통히 장기령이 같았던것이다.

그러나 장기령이 여기 무송에 나타날리가 없었다.

세상에 정말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진기의 초점을 맞추던 리경준은 그 버룩버룩 웃는 모양마저도 너무나 장기령이를 방불케 하였기때문에 차광포를 젖히고 머리를 쳐들었다. 그는 렌즈를 통해서 꺼꾸로 앉은 작은 사람이 아니라 육안으로 그 사람을 보았다. 그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장기령이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다름아닌 장기령이였다.

등뒤에서 그 어떤 충격적인 힘이 그를 장기령이앞으로 떠밀치는듯싶었다. 리경준은 금시 그에게로 달려가 부둥켜안고싶은 자기를 다잡았다.

장기령이 역시 엉거주춤하고 일어날듯하다가 다시 의자에 궁둥이

를 붙이더니 눈인사만 보내며 접선된것이 기뻐서 입귀가 들리는 것이 알리게 미소를 지었다.

리경준은 장기령의 뒤로 촬영장에 들어온 손님들이 장기령과 자기의 얼굴을 번갈아보자 자못 흥분되였을 얼굴표정을 감추기 위하여 다시 차광포를 뒤집어썼다. 그는 차광포밑에서 지나치달만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냥 웃고있는 장기령에게 말을 건넸다.

《손님은 비를 맞으며 먼길을 온것 같은데 그래도 무슨 기쁜 일이 있는 모양이구려?》

《네, 우리 형님이 오늘 장가를 든답니다. 그래서 실은 사진사어른을 모셔가자구 왔습니다.》

장기령은 사진사를 데려가러 왔다는 사람이 사진을 찍자고 앉았다는것은 리치에 맞지 않는 소리임을 깨달았던지 인차 변명조로 뒤말을 달았다.

《촌에서 살다나니 사진이란건 말만 들었지 어디 찍어보았습니까. 비까지 맞으면서 사진관이라는데를 처음 들어와보니 그냥 돌아갈수가 있어야지요.》

《처음이라니 그럴만하지요. 비맞은 값이라두 해야지. 그럼 제깍 찍고 어디 우리 〈주인〉과 의논해봅시다.》

리경준은 《주인》과 급히 의논할 일이 있기때문에 들어가봐야겠다는 구실을 붙여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량해를 구하고 장기령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후에 사진기옆에는 사진관주인인 박문필이 나타났다.

리경준은 박문필이네 살림집 2층의 구석방에 장기령이와 마주 앉았다. 그가 거처하며 아지트로 쓰고있는 마루방이였다.

《사람두… 그렇게 놀래우다니? 그러다 내가 놀라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자구?》

《제가 왔다는걸 똑똑히 알려주자구 그랬습니다. 경준동지가 사진찍는 솜씨도 한번 보구싶었구요.》

장기령은 뒤더수기를 긁으면서 싱글벙글 웃었다.

《저는 경준동지가 사진사로 변장하구 공작한다는 말을 듣구 그거 꽤 해낼가 하구 은근히 걱정했었는데 정작 와보니 그럴듯하더군

요. 영낙없이 의젓한 사진사더란말입니다. 그래 제 사진은 찍었습니까?》

《아니 그저 찍는척했지. 찍히지 않게 가리우고 샤타만 눌렀거던. 그런데 어떻게 장동무가 왔소? 나는 장동무가 나타날줄은 몰랐소.》

그동안 경준이와 련계를 취해왔던 통신원은 송동무였다.

《송동무는 다른 중요한 임무를 받고 국내에로 나가게 된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오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저를 찾으시기에 사령부에 갔더니 여기로 다녀올데 대한 련락임무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이께서는 부대와 떨어져 혼자 적후에 들어가 수고하는 경준동지가 전우들을 퍽 그리워하겠는데 이제 동무가 가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기뻐할게라구 그러시더군요. …》

전우들을 그리워하구 보고싶어하는 경준이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다름아닌 장기령이를, 그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다정한 동무를 골라보내주신 사령관동지이시였다. 가까이 있을 때와 같이 사령관동지의 자애로운 따뜻한 손길을 느낀 리경준은 목이 메고 눈앞이 흐려져왔다.

《장동무, 사령관동지께서는 여전히 건강하시겠지?》

《예, 건강하시고 매우 바쁘게 보내십니다. 제가 떠날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꼭 다젠창밀영에 들려서 선금아주머니와 명일이, 명숙이를 만나보고 가서 가족들의 소식부터 전하라고 이르십디다. 그래 다젠창에 들려 만나보고 왔는데 아주머니는 이젠 병도 상처도 다 낫구 얼굴색도 몰라보게 좋아졌더군요. 밥도 제손으로 짓게 되구 약간씩 재봉대일도 도와줄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구 명랑하게 지내구요. 나를 보자 막 매달리며 어찌나 좋아하는지… 명숙인 아버지가 퍽 보구싶었던가봅디다. 대뜸 묻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안오는가, 언제 오는가 하질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손가락을 펴보이면서 열밤을 자면 만난다구 말해주었습니다. …》

리경준은 장기령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몇번이고

(사령관동지,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였다.

장기령은 사령관동지께서 경준이와 박문필이를 비롯한 지하혁명조직성원들에게 보내시는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부대의 소식들도 전해주었다. 남강촌전투이후 부대가 또 신입대원들을 받아들여 수백명으로 불어난데 대하여, 남강부락전투때 자기가 미야께부대장놈을 쏘아죽이고 다시 기관총을 수여받은데 대하여, 그 전투가 있은 다음 사령관동지께서 마안산에서 다젠창밀영에 옮겨와있는 아동단원들에게 새 하모니카와 공책들과 학용품들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지금 부대가 만강부락방면으로 진출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밖에 크고작은 새 소식들을 모두 전해주었다.

소식에 주려 욕심스럽게 귀담아듣던 리경준은 불만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왜 한남실동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소?》

한남실의 이야기가 나오자 장기령은 대뜸 얼굴이 붉어졌다. 장기령은 한숨과 함께 헛기침을 몇번 하고는 잦아드는 목소리로 띠염띠염 말했다.

《뭐 전할 소식이 있어야지요. 잘 있다고 합디다.》

《잘 있다고 합디다라니? 그래 아직 만나보지 못했단말이요?》

《네, 아직…》

《못만났다? 만나본게 언제인데?》

《언젠 언제겠습니까? 왕청에서 헤여진 뒤엔 못만났지요.》

《그게 무슨 소리요?》

《일이 참 매번 공교롭게 됐습니다. …》

마안산에서 부대가 떠나던 날이였다.

장군님께서 부대와 함께 마안산을 떠나신다는것을 알게 된 아이들이 장군님을 따라가겠다고 밀영으로 달려왔을 때 한남실이도 뒤미처 뛰여왔었다. 그러나 선두대렬에 속하였던 장기령은 그때 방금 행군길에 오른 뒤였다.

이번에도 역시 일은 그렇게 공교롭게 되였다. 장기령은 리경준의 가족들에게 꼭 들려가라고 하신 사령관동지의 지시대로 다젠창으로 가면서 이번 걸음에는 틀림없이 한남실을 만나게 되리라는 생

각에 가슴이 울렁거리였다.

그러나 정작 다젠창밀영에 가보니 남실은 병원 원장과 같이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싹이 돋기 시작한 약초뿌리를 캐러 어디엔가 가고 없었던것이다. 장기령은 언제 돌아올지 알수 없는 한남실을 우두커니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수 없어서 리경준의 가족들만 만나보고 곧 떠나왔다는것이다.

《…참 사람두! 시간을 지체하면 얼마나 지체하겠다고 그냥 왔단말이요? 약초캐러 갔다면 얼마나 멀리 갔겠다구? 동무가 달려가서 찾아보구 돌아서면 안되오? 마음착한 남실동무니 그렇지 다른 녀성이라면 동무같이 매정한 사람을 털끝만치도 사랑하지 않겠소. …》

리경준은 적후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반가운 전우에게 한참이나 나무람을 하였다. 장기령은 그 말을 별로 뜨끔해하지 않고 머리를 숙일사해서 듣고만 있더니 히죽히죽 웃으며 이제 오래지 않아서 만나게 될터이니 그만 꾸짖고 사업이야기로 넘어가자고 말하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뿌렸다. 비발은 퍼그나 굵어졌다. 창가에 드리운 버드나무가지는 봄비에 미역을 감더니 한층 싱싱하게 푸른 기운을 돋구었다.

리경준은 조용한 목소리로 그동안 진행한 사업정형을 이야기하였다.

부대가 남강부락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야께부대를 격멸소탕한 이후 남강과 그 주변일대의 농촌지역들에서는 인민들의 기세가 높아지고 마을마다에 반일회, 반제동맹 조직들과 부녀회들이 조직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망라되였다.

무송시내의 반일회, 반일청년회 등 조직들도 로동자, 교원, 학생 등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대중속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선전사업을 널리 벌리고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무송지구의 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면 사령관동지께서 매우 기뻐하실겁니다.》

리경준을 넘겨다보는 장기령의 눈에는 새삼스럽게 감출수 없는

존경과 자랑스러운 빛이 어리였다.

《조금이나마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사령관동지께서 남강마을의 적을 치시여 우리들의 공작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주시구 멀리에 있는 저를 항상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옳바르게 이끌어주신때문이요. 그리고 박문필동무랑 모든 지하혁명조직성원들이 사령관동지의 뜻을 받들어 애쓴 덕이지. 누구보다도 박문필동무가 큰 역할을 하고있소.》

《그러기에 사령관동지께서도 박문필동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계십니다. 그이께서는 이번에 박문필동지에게도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장기령이가 무엇을 념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아직 알지 못하는 리경준은 의아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장기령은 앉음새를 고치고 허리를 꿋꿋이 펴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립할 시기가 성숙되였다고 하시면서 경준동지에게 박문필동지를 데리고 어김없이 이달말까지 동강밀영으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전하라고 이르시였습니다. 그래야 5월초에 진행될 조국광복회창립대회에 무송지구지하혁명조직대표가 참석할수 있다는것입니다. …》

장기령은 회의를 위해 새로 설치하는 동강밀영장소를 알려주었다.

그 지시를 전해듣는 순간 리경준은 《드디여 왔구나!》 하고 소리치고싶은 충동과 머리가 피잉 도는것 같은 환희를 느꼈다. 항상 무거운 시름을 안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매 순간을 긴장한 투쟁속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던 리경준이다. 이 익숙되지 못한 도시에서의 고심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의식과 함께 투쟁의 보람을 느끼였다.

《얼마나 거창한 사업이 눈앞에 펼쳐지고있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다주어 고맙소.》

리경준은 장기령의 손을 그러쥐였다.

《그래서 동무는 우리 명숙이한테 내가 인차 간다는 말이랑 했

구만. 난 왜 그런 실없는 소릴 했나 하구 은근히 속으로 나무랐댔소.》

《사실 나도 그런 말을 하려구는 하지 않았는데 명숙이한테 기쁜 말을 해주고싶더란말입니다. 선금아주머니랑 아이들이랑 그때 다 동강에 오게 될겝니다.》

《그럼 한남실동무도 동강에 오겠구만?》

《아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조국광복회가 탄생되게 될 동강밀영! 그리웠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될 동강!

리경준에게는 그곳이 기쁨의 축전장으로 생각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만나게 될 그무렵은 그자신에게는 물론 안해와 아이들에게도, 장기령이와 한남실에게도, 모든 전우들과 대표들에게도 한결같이 경사로운 명절맞이 기분일것이였다.

미구하여 있을 그날을 상상해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였다.

《이달말까지… 알겠소. 그담엔?》

《다른 한가지는 등사기를 해결하여보내라는 지시입니다. 조국광복회창립대회를 맞이하여 강령과 창립선언문을 많이 찍어내야 하겠는데 경준동지도 알고있지만 아직 등사기가 없어서…》

등사기는 삐라를 찍어내기 위하여 얼마전에 한 학교에서 공작해내다가 쓰는것이 한대 있었다. 미야께부대가 녹아난 다음부터는 남강쪽지대가 오히려 안전지대로 되였기때문에 리경준이네는 등사기를 그쪽에 있는 농촌아지트에 감춰두고 삐라를 찍어다가 시내에도 뿌리고 다른데도 보내고있었다.

리경준은 우선 그 등사기를 사령부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한대 있는데 어떻게 보낸다?》

《있다면야 운반이 문제될것 있습니까? 제가 가져가지요. 다젠창밀영까지 갖다놓으면 거기에서 앞으로 동강에 옮겨가게 될겝니다.》

《그러면 이제 나하고 같이 등사기가 있는 촌으로 나가는게 어떻소? 형님의 잔치가 있다는데 가서 한장 찍어줘야지. 비를 맞으며 일부러 먼길을 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수야 있소? 좀 기다

리오.》
리경준이 정색하여 말하는바람에 장기령은 허허 웃었다.
리경준은 2층에서 내려와서 박문필을 만나 장기령의 편에 등사기를 보내기 위하여 촌에 다녀오겠다는것을 알려주었다. 그동안 박문필이 잊지 말고 해야 할 사업과 주의할 점들, 또한 불의의 정황이 생겼을 때 그 정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일러주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박문필이 자기와 함께 조국광복회 창립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동강밀영에 가게 된데 대하여서도 알려주려다가 그만두었다. 보다 더 적당한 시간에 말해주리라 생각했던것이다.
리경준은 박문필이한테서 휴대용사진기를 달래가지고 들어오다가 계단옆의 첫방에서 철숙이를 찾았다. 사령부에서 통신원이 왔다는것을 알고있는 철숙은 그 방에서 망을 보고있는 참이였다.
경준은 문을 연 철숙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내가 정히 보관해달라던것이 있지요? 그걸 좀 꺼내주십시오.》
《?…》
철숙은 긴장되여있었던 탓인지 그의 말귀를 인차 알아듣지 못하고 의아스럽게 쳐다보았다.
《저 먼저날 내가 사다가 맡긴것말입니다.》
《네, 그걸… 좀 기다려주십시오.》
그제야 생각난듯 철숙은 장농쪽으로 물러가더니 쇠를 열고 리경준의 부탁대로 정하게 깊이 건사해두었던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거기에는 한벌의 고급군복지가 들어있었다. 물론 철숙이는 그 천이 어떻게 마련되였고 어데 쓰게 되는지 몰랐다.
《촌에 〈이동사진〉 찍으러 다녀오겠습니다. 래일 돌아올것같은데 조심하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약속대로 하십시오. 주인한테도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철숙은 문밖에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였다. 경준은 다시 자기가 거처하는 2층 구석방으로 올라왔다.
《이건 동무가 드는게 좋겠소.》

그는 장기령에게 옷감보자기를 내주었다.

《이건 뭡니까?》

《누가 물으면 시내에 왔다가 천방에서 산것이라구 하오. 촌에서 누가 부탁하더라구…》

《천입니까?》

《그렇소. 자, 이젠 떠나지.》

《어디 가져갈겝니까?》

《다젠창에 가서 우리 명일 어머니한테 전해주오. 정하게 가지고 가서 책임적으로 전해야 하오. 그건 내 개인적인 부탁인데 특별히 명심해서…》

장기령은 마음에 짚이는것이 있었던지 리경준을 빤히 쳐다보다가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이건 저… 군복감이 아닙니까?》

눈치빠른 장기령을 보고 리경준은 시무룩이 웃으면서 그의 손을 다정스럽게 잡아끌었다.

《선금동무가 잘 알고있으니까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그들은 계단을 내려왔다.

철숙은 계단 옆방의 창가에 그냥 붙어서서 긴장한 눈초리로 밖을 감시하고있었다.

리경준과 장기령은 철숙에게 눈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다.

《비가 내리는데 수고하겠습니다.》

박문필이도 대기실에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다가 출입문 있는데까지 따라나와서 바래주었다.

리경준과 장기령은 초를 먹인 종이우산을 같이 쓰고 길을 떠났다. …

다음날 리경준이 장기령을 떠나보내고 촌에서 돌아왔을 때 박문필이 체포되였다는 뜻하지 않은 불행한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2

쇠살창사이로 한줄기의 연하고 부드러운 해빛이 스며들자 박문필은 불덩이같이 달아오른 몸을 간신히 움직여서 창가로 다가갔다. 고문으로 상한 오른쪽 다리가 몹시 저려올라서 머리끝까지 징징 울리였지만 그런대로 한걸음한걸음 발을 옮길수 있는것이 다행이였다. 두볼이 꺼져들고 이마에 푸른 피줄이 일어섰으나 눈만은 안경속에서 불타는듯 빛을 뿜고있었다. 코등에는 한쪽다리가 부러진 안경이 간신히 걸려있었다. 밖이 몹시도 그리웠다. 쇠살창 저쪽으로 푸른 하늘이 안겨왔다. 그 하늘로 한떼의 새무리가 날아지나갔다. 일순간 수척해진 그의 얼굴에 미소가 어렸다.

…그날 박문필은 비를 맞으며 만나기로 약속한 교외 농촌마을 조직책임자의 집을 찾아갔다. 시내의 한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그 조직원은 자그마한 초가집에서 살고있었다.

박문필이 약속된 저녁시간이 되여 그의 집 울타리밖에 접근했을 때 빨래줄에는 흰 빨래들이 걸려있지 않았다. 안전하다는것을 확인한 박문필은 다시 집주변을 살펴본 다음 안심하고 사립문안에 들어서면서 낮은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다.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어두울무렵인데도 불은 켜져있지 않았다. 다시 주인을 찾아도 대답이 없었다. 약속된 시간에 이 집이 비여있은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방문앞에 다가서던 그는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것 같은 예감이 들어 물러서려 하였다. 그때 굴뚝모퉁이와 헛간뒤에서 달려나온 두놈의 경찰과 집안에서 문을 박차고 나온 한놈의 사복경관놈이 박문필에게 달려들었다. 집안에는 교원이 이미 묶이운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었고 교원의 처도 뒤고방에 갇혀있었다. 그제야 박문필은 사태를 짐작하였다.

체포되여 경찰서에 압송된 즉시로 박문필은 세모눈에 볼따귀가

축 처지고 코밑수염에까지 머리기름을 바른 형사놈의 심문을 받았다. 그놈은 교원과의 관계를 말하라, 조직선을 말하라, **김일성**장군유격대와의 련계를 말하라 하고 처음부터 강박해나섰다.

박문필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자 형사놈은 볼따귀를 후들후들 떨더니 사정없이 칼끝처럼 앞코가 뾰족한 양가죽 구두발로 박문필의 무릎이며 허벅다리를 찼고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서 폭이 넓고 두툼한 가죽채찍을 마구 휘둘렀다. 놈은 금시 박문필을 물어뜯을듯이 굵은 땀방울이 맺힌 코수염을 떨며 이를 사려물고 달려들었다. 박문필은 한마디로 모른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

거듭되는 심문과 고문을 받는 과정에 박문필은 교원이 체포되게 된 까닭을 알게 되였다. 놈들은 최근시기 자기들을 매우 불안케 하는 심상치 않은 사건들 가운데서 특히 무송시내에서 눈에 뜨이게 자주 나타나는 삐라사건으로 하여 이미부터 의심스럽게 보아왔던 그 교원을 은근히 감시하고있었다.

그러던중에 종이가 절반 접혀져서 찍힌 삐라를 얻어내게 되였고 그 절반짜리 삐라 한쪽귀에서 등사잉크가 묻은 그의 지문을 발견하게 되였다.

사실 학교에서 등사기를 공작해낸 사람은 그 교원이였다. 그런데 등사기의 분실과 삐라가 나붙기 시작한 시기가 거의 일치되였기때문에 놈들이 등사기의 분실과 관련하여 의심을 품어왔던 그 교원에게 바싹 눈을 밝혀 감시하고있는줄을 박문필이도 몰랐던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체포된것은 놈들이 교원을 붙잡으러 온 그 시각에 그의 안해가 봄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날씨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흰 빨래감을 빨래줄에 널려고 하였으며 바로 그것을 눈치챈 놈들이 반드시 교원과 련결된 그 누군가가 나타날것이라고 인정하고 대기하고있을 때 자기가 나타난때문이라는것을 명백히 깨달았다.

박문필은 적들이 조직을 모르고있다고 확신하였다. 그것은 적들이 조직선을 대라고는 하면서도 박문필이나 그의 조직의 활동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를 걸고들며 따지기때문이였다.

매우 의심스러운 시각에 교원의 집에 나타났다는 사실밖에는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고있는 적들이였다.

놈들은 유산계급출신의 지식인인 박문필이쯤은 쉽게 다룰수 있고 잘만 하면 뜻밖의 자료를 얻을수 있다고 단단히 믿고있는듯하였다.

박문필은 놈들의 고문시간이 길어지고 고문방법이 악착해짐에 따라 그것을 더 강하게 느끼였다. 련이어 내려치는 채찍을 받으면서 박문필은 가물가물해지는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이를 악물었다.

《너희들의 지하조직을 대라! 말하라!》

놈은 박문필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씩씩거리며 다그쳐물었다.

《교원은 다 말했다. 그놈은 자기가 너와 련결된 조직원이라는걸 실토했다. 네가 무슨 일로 거기 갔는지 다 안다. 그러나 우리는 너를 위해서 네가 스스로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주는것이다. 등사기는 어데다 감추었는지, 삐라관계자는 누구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너의 솔직성을 검열하자는것이다.》

《너는 학생시절부터 **김일성**장군과 련계되여있다. **김일성**장군이 지금 무송경내에 와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너는 그것까지 숨기려든다. **김일성**장군이 무송에 온 때부터 이 일대가 소란하다. 과연 이것이 **김일성**장군과 선을 잇고 활동하는 너의 소행과 무관계한가?》

놈들은 사진사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지고 물었다. 박문필은 이미 리경준이와 약속한대로 그의 전생활과 하르빈에서 《금강사진관》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하였다.

놈들은 사진사가 어데 갔는가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물음에서 박문필은 리경준이 몸을 피하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하르빈에 있는 형네 집에 다녀올 일이 있어 떠났다고 대답하였다. 그것 역시 지금 같은 불의의 정황이 생길 때 꾸며대기로 리경준과 그리고 안해 철숙이와도 미리 약속되여있는 대답이였다.

육체적고통을 당하면서도 박문필의 마음은 스스로도 놀라우리만큼 평온하였다.

경준동지는 무사하다, 조직은 살아있다, 교원은 불지 않았다,

그도 나처럼 견딜것이다, 따라서 경준동지도 우리 조직도 무사히 남아있을것이다. 문필은 속으로 이렇게 뇌이며 앉아있다가 형사놈이 구두발로 콱 밀쳐버리는바람에 피가 축축히 스며있는 마루바닥에 여윈 볼을 쓸치며 쓰러졌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었다. …

얼마나 지났는지 감방의 녹이 쓴 접철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박문필은 뒤를 돌아보았다. 이번에는 털보순사놈이 문고리를 쥐고 서있었다. 놈은 흐리멍텅한 눈으로 빤히 박문필을 바라보다가 복도쪽으로 고개짓을 하였다. 어서 일어나서 빨리 따라오라는 수작이였다.

순간 박문필은 긴장으로 하여 오른쪽 볼편이 가늘게 떨리는것을 느꼈다. 털보순사놈의 출현은 고문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으리라는것을 말해주었다.

박문필은 놈들의 출현을 기다리고있은듯이 입가에 차거운 웃음을 띠운채 주저없이 털보놈을 따라나섰다. 대결이 또 벌어질것이였다. 박문필은 고문과의 싸움을 대결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대결에서는 언제나 이길 자신이 있었다.

털보놈은 복도끝에 있는 고문실로 향한것 같더니 거기로 채 가지 않고 왼쪽으로 꺾어들었다. 털보놈은 밤색뼁끼칠을 하고 손잡이가 반들반들한 세번째 방문을 열었다. 방안은 보통사무실의 세곱은 되리만큼 넓었다.

방안에 들어서던 박문필은 출입문을 마주하여 놓인 굽높은 커다란 량수책상에 시선이 끌렸다. 방안에 있는 비품이라고는 벽에 기대놓은 의자 몇개가 있을뿐이여서 가뜩이나 넓은 방안이 더욱 휑뎅그렁한 감을 주었는데 그때문에 굽높은 커다란 량수책상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여기 와서는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말없이 위협하고있는것 같았다.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책상너머에 시선을 옮기던 박문필은 눈초리가 꼿꼿하게 굳어졌다. 서류더미사이로 은백색 호박대가리가 번득인것이였다. 정수리는 잘 여문 호박빛으로 번들거렸고 그 변두리를 빳빳한 흰털이 선을 두르고있었다. 그것은 경찰

관의 관록을 말해주는 동시에 빳빳한 흰털 한오리한오리가 덧없이 센것이 아니라는것을 말해주는것 같았다.

박문필은 대뜸 일이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느끼며 가빠지는 숨결을 가까스로 눌렀다. 그놈은 고등계주임이였다.

얼핏 백대가리가 들리우면서 도드라진 이마아래에서 얼음장같이 차거운 눈길이 번쩍이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백대가리는 다시 서류더미속에 끌리듯 천천히 묻히우고말았다.

털보놈이 기다리기에 지친듯 제자리걸음으로 발을 옮겨놓다 말고 손을 마주비비며 그 근엄한 책상앞으로 다가갔다.

털보놈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려는데 백대가리가 번쩍 들리였다. 놈은 펜대를 쥔채 털보같은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치 언제 이런 사람이 방에 와있었는가 의심스럽다는듯한, 그러면서도 사람을 떠보는듯한 눈길로 박문필을 바라보았다. 늙다리답게 째진 눈은 빛이 사위여있어서 놈의 속심을 알수 없었다.

고등계주임놈은 펜대로 장단을 치듯 책상을 똑똑 두드리며 《흥흥》 하고 코소리를 냈다.

《아, 박선생이요? 알만하오.》

얼마후 그놈은 무엇을 생각했던지 이렇게 희떠운 소리를 하며 벽에 기대놓은 의자를 가리켰다.

《박선생, 인사가 안됐소. 내 직분이 이래놔서… 널리 량해해주길 바라오.》

놈은 입까지 벙싯거리며 상냥한척했지만 그 재빛눈은 검질기게도 박문필에게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박문필은 벽에 기대놓은 두번째 의자에 가 앉았다. 이때 출입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고등계주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러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방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을 맞았다.

《박오필군, 오래간만이요. 박선생, 형님이 오셨소.》

박문필은 출입문쪽으로 얼굴을 돌리였다.

거기에는 곤색세루양복에 흰줄이 간 검정넥타이를 맨 박오필이가 서있었다.

박오필은 박문필이와 시선이 마주치자 눈과 입가에 비웃는듯한

웃음을 띠우더니 고등계주임에게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박문필은 그처럼 곰살궂은 박오필을 처음 보았다. 이때에야 비로소 박문필은 구렝이같은 고등계주임놈한테 어떤 꿍꿍이속이 있다는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박오필은 발끝걸음으로 걸어서 고등계주임의 의자곁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동생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는것을 나타내보이려는듯 상반신을 뒤로 젖히는것으로 박문필이와의 거리를 될수록 멀리 한 다음 눈에 간사스러운 웃음을 띠우며 고등계주임놈에게 말하였다.

《주임님,걱정을 끼쳐서 매우 죄송합니다. 형이 제구실을 못하다나니 이렇게…》

박오필은 엉뎅이를 가볍게 들었다놓았다.

고등계주임은 굽높은 량수책상에 앉으면서 이마살을 찌프렸다.

《동생이 참 안됐소. 내가 있었으면 이번 일이 이렇게 처리되지는 않았을것인데… 내가 관하 경찰분서에 시찰하러 내려가있는 동안에 그만…》

고등계주임의 유들유들한 볼따귀에 주름이 잡히고 재빛눈에는 살기가 번뜩이였다.

《박오필군도 잘 알고있는바이지만 요즘 우리가 관할하는 이 지대가 깨끗치 못하오. 무송지구가 좀 소란하단말이요. 군들도 신문에서 봤겠지만 공산군이…》

담배를 쥔 고등계주임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될수록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면서 말을 이었다.

《이건 기밀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군들한테야 하지 못할 말도 아니지.》

이러며 그놈은 그 재빛눈을 박문필에게 보냈다. 그놈은 《군들》이라는 말을 써가며 자기와 그대들은 같은 족속이라는것을 은근히 나타내려고 하였다.

《무송시내의 민심도 좋지 못하오. **김일성**공산군과 내통하는 자료들이 입수되고있소. 두 박군이 다 알만한 일인데 무송시내에서 최근 적지 않은 식량과 천이 **김일성**공산유격대의 손에 넘어갔

소. 유격대가 무송지대에 나타난 이후부터 아주 불길한 류언비어가 돌구 최근에는 와짝 불순삐라가 많아지구 민심이 소란하오. 우리 군대나 경찰들이 한발 움직이기만 하면 어느새 유격대에 내통되는지 유격대의 매복기습에 영낙없이 걸리고마오. 며칠전에는 남강부락에 유격대의 대부대가 나타나서 우리 제국에 충실했던 미야께부대를 거의 전멸시켜버렸소. 때가 이러한 때인것만큼 우리 경찰들의 신경이 매우 예민해졌다는것을 나는 군들이 리해하길 바라오.》

안경속에서 박문필의 시선이 날카롭게 번뜩이였다.

《이 소란한 시기에 주임님의 중하를 덜어드리지 못할망정… 이제는 년세도 많으신 주임님에게 그만 이렇게 걱정만 끼치고… 정말 뵈올 면목이 없습니다.》

박오필은 반짝거리는 금이발을 드러내보이며 진정으로 죄송스럽다는듯 허리를 굽혔다가 천천히 폈다. 그리고는 박문필의 반응을 알아보려는듯 조심조심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다 조소가 담긴 박문필의 눈과 부딪치자 박오필은 창황히 머리를 돌렸다.

《여기에는 박선생의 불찰도 없지는 않소.》

주임놈은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오필에게 머리를 돌렸다.

《지당한 말씀이요.》

하고 박오필은 박문필에게 어서 일어나서 고등계주임놈에게 사과를 하라고 독촉하는듯한 시선을 보냈다.

박문필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박오필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박오필은 불길이 타번지는듯한 박문필의 눈과 고등계주임의 얼굴을 번갈아보며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고등계주임은 박문필의 그 타는듯한 눈길을 넘겨다보더니 섭섭하다는듯 박오필을 바라보며 머리를 흔들었다. 이렇게 되자 박오필의 얼굴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넥타이매듭을 끄르면서 소리소리 질렀다.

《야, 너는 왜 제 형을 원쑤보듯하니? 응?》

박오필은 금방 튕겨일어설것처럼 엉뎅이를 들었다놓으며 소리쳤다.

《그래 지금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하니? 너때문에 온 집안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기나 하는가말이다!》

박문필은 그제야 고등계주임놈의 꿍꿍이놀음이 드러났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고등계주임놈은 유감이라는듯 머리를 흔들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안을 거닐었다. 박오필은 안타까운듯 두손을 마주 쥐였다 놓았다 하며 고등계주임의 거동만 흘끔흘끔 곁눈질했다.

박오필은 박문필이가 체포되였다는 소식을 인차 들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박오필의 얼굴은 그만 흑빛이 되였다. 박문필의 신변이 걱정되여서가 아니라 그의 체포가 자기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였기때문이였다. 후과가 무서웠다. 더는 참고있을수 없었다. 그는 고등계주임하고는 구면이였고 가까운 사이였다. 그는 고등계주임의 집에 목침만한 돈뭉치를 두개나 가져갔다. 두사람은 이번 기회에 박문필을 돌려세워보자고 단단히 약속하였다. 고등계주임이 념려 말라고 장담하는터여서 박오필은 어지간히 마음을 놓았었다.

《내가 한때 너를 미워한것은 사실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형으로서 너무 지나친것도 없지 않았다. 물불을 모르는 청년시절에는 있을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너도 정신을 차릴 때가 아니니? 정신을 차려야지. 공산주의사상이 너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왔니? 얻은것은 티끌도 없지만 너는 얼마나 많은것을 잃었느냐? 얻은것은 온 세계라고? 너한테는 로동자들처럼 철쇄도 없다. 잃을것이 없단말이다. 그래 얻은것을 보자. 온 세계야?》

박오필은 끄떡도 않는 박문필을 한번 쳐다보고는 이번에는 잦아드는 목소리로 달래듯이 말하였다.

《너도 인제는 가정을 가지지 않았니? 지금 네 처는 울고있다. 혼자때하구는 달라.》

안해이야기가 나오자 박문필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박문필이자신도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였다. 시집을 와서 함께 생활한지 오래 되였으나 아직도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마주보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던 안해였다. 안해의 이야기가 나오자 박문필은

불현듯 그가 얼마나 가슴태우며 외롭게 지낼가 하는 생각이 불같이 떠오른것이였다. 그러나 박문필은 어지러운 환영을 쫓듯 머리를 저었다.

(안해가 눈물을 흘린다구? 어진 녀자이지만 내가 체포되였다고 하여 눈물을 흘릴 사람은 아니다. 아니구말구. 나약한 안해가 아니지.)

박문필은 속으로 이렇게 뇌이였다.

고등계주임은 이마를 찡그렸다. 입귀가 실룩거렸다. 박문필쪽으로 등을 돌리고 서서 한동안 눈을 감고있던 고등계주임은 량수책상옆에 놓인 철궤를 뜨르륵 소리나게 열어제끼고 침침한 철궤의 맨 웃단 서류더미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하나 꺼내들고 와락와락 종이소리가 나게 번지였다. 험상궂게 이그러진 그의 얼굴에서 볼편이 씰룩거렸다. 고등계주임은 애써 거칠어지는 목소리를 누르며 입을 열었다.

《박문필,당신은 뭘 믿고 그리 뜬뜬하오. 당신의 운명은 내 손아귀에 있소. 1928년 가을을 기억하고있겠지?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소란때 당신은 반도들속에 섞여서 우리 황국경찰에게 돌을 던졌소. 이 한가지 건만으로도 당신은 사형감이요. 그때 소란을 지도한 지도자가 지금의 공산유격대 사령관이요. 당신은 그때부터 그와 련계되여있었소. 당신은 지금 공산유격대 사령관과 이 무송땅에서 다시 접선하였소.》

고등계주임놈은 또다시 서류철을 번졌다. 그러다가 종이장을 머리우로 쳐들었다.

《당신은 이것을 기억하고있겠지?》

그것은 반일삐라였다. 고등계주임은 그것을 마구 내흔들었다.

《이 삐라는 1929년 봄에 당신이 **김일성**장군과 같이 다닌 그 학교에서 나왔소. 여기에 당신의 지문이 찍혀있소!》

고등계주임은 서류철을 탕하고 소리나게 책상우에 던졌다.

《주임님,그때는 저 애가 철이 없었지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덤벼칠 땝니다. 널리 량해해주십시오.》

《그런 면에서 우리 대일본제국은 너무도 너그럽소. 그 너그러움

때문에 우리는 종종 쓴 고패를 맛보군하오. 그렇다고 하여 그 관용을 리용할 생각은 마시오.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니까.》

주임놈은 팔을 벌려보이고는 천천히 담배를 피워물었다. 방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오필에게 등을 돌린 주임놈은 한참이나 말없이 담배를 빨았다.

그러다가 박오필을 돌아다보았다.

《그러나 우리의 너그러움은 당신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것이였지. 나는 그 대가를 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소. 다른 사람 같으면 동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앉아있을수 없소.》

주임놈이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하자 박오필의 입에서 금이빨이 번쩍거렸다.

주임놈은 팔짱을 끼고 일어나서 왔다갔다하더니 박문필의 맞은편에 놓여있는 쏘파에 몸을 잠그었다. 그리고는 박문필을 쏘아보며 말하였다.

《박선생,박선생도 인제는 이런 위험한 장난을 그만둘 나이가 되였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꼭 그만두게 될것인데 일찍 그만하고 손을 떼는게 좋겠소. 내 오늘 박선생한테 교훈이 될만한 이야길 하나 해주겠소.

1927년 내가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근무하고있을 때였소. 공산주의자로 자칭하는 한 청년이 경찰서에 체포되여왔는데 때마침 내가 맡게 되였소. 공부도 했고 역시 두뇌도 명석한 젊은인데 알고보니 대재산가의 아들이였거든. 그는 우리 대일본제국에 공공연히 반항해나섰소. 나는 대일본제국주의와 한하늘아래서 살수 없다,나는 프로정권을 세우기 위하여,무산대중을 위하여 싸움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신념을 주장하며 으르렁거렸소. 문초를 하자 그는 더 악을 쓰며 달려드는게 아니겠소. 나는 그를 위해서 한두번 짭짤하게 고문을 하였소. 그때야 정신을 좀 차리는것 같았는데 굴복하지는 않더군. 몸이 아니라 정신이 황소같은 청년이였소. 우리 동료들은 계속 고문을 하자고 하였소. 그런걸 내가 반대했소. 왜 고문을 계속하겠소? 고문이라는것은 한두번 시험삼아 해보는것이지 그것으로 만사가 해결되는것은 아니거든. 더

우기 돈많은 사람의 자식인데… 아까운 청년이였소. 그후 난 한 40일동안 마포형무소와 교섭해서 청년한테 감옥구경을 시켰소. 사형장도 보이고 정치범 독감방도 보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무말 없이 석방시켰소. 그때 나는 젊었을 때이라 나많은 우리 경찰서장은 나의 처사를 매우 못마땅해했소. 그러나 나는 유능한 형사들의 지지를 받았던것이요. 그들이 내 수완을 알아차렸지.… 그 청년은 집에 가서 휴식한 연후에 어느 금융조합서기로 들어가 일했소. 난 한달에 한번씩 그 청년을 데려다가 교수대나 고문실 구경을 시키고 아무말 없이 보내군했소.…》

고등계주임놈은 거퍼 담배를 빨았다.

《1932년초에 라남에서 우연히도 경찰제복을 입은 그 리군을 만나지 않았겠소. 리군이 날 먼저 알아보구 달려왔더군. 아주 뜻깊은 상봉이였지. 내가 맑스머리가 어떻게 제복을 입었느냐고 물으니까 리군은 얼굴을 붉히면서 하는 말이 과거는 다 잊어주시오, 그때는 젊은 혈기에 그랬는데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했소. 리군,당신은 인제야 제길을 찾았소 하구말이요. 일전에 편지에서 리군이 만주 어덴가 전근될것 같다고 하였소. 리형사의 과거이야기는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있소.》

박오필은 머리를 끄덕이며 메밀눈을 깜박이였다.

《주임님,믿어주십시오. 주임님이 우리 동생을 두고 지금처럼 그런 옛말을 할 때가 꼭 있으리다.》 하고 박오필은 박문필이쪽을 흘끔 건너다보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주임놈은 갓 태우던 담배불을 재털이에 비벼끄고나서 빠른걸음으로 박문필에게 다가갔다.

《박선생…》

놈은 떠보는듯이 바른쪽 엄지손가락으로 박문필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다.

차거운 미소가 그놈의 입가를 스쳐지나갔다. 놈은 박문필의 안경에 번들이마를 바싹 들이대며 속삭이듯 말하였다. 속에서 불덩어리가 쏟아져나올것만 같았다. 그 불덩어리를 한가슴에 안고있자

고 하니 격분으로 온몸이 떨렸다.

《여보 박선생, 안심하오. 당신의 체면이 깎이지 않게 절대비밀을 보장하겠소. 당신이야 유산층 출신이구 우리편 사람이 아니요!》

박문필은 지하사업은 단 한순간의 비리성적인 행동도 허용치 않는다고 자주 일러주군하던 리경준의 말을 잊지 않고있었다.

박문필은 입술을 악물면서 머리를 수그렸다.

《왜 그렇게 몸을 떠오?》

고등계주임놈의 물음이였다.

《겁이 나오?》

《…》

《겁이 난단말이지?》

그 말을 되뇌이는 주임놈의 어조에는 자기만족이 력력히 비껴있었다. 제 수가 마침내 은을 냈다고 생각한 모양이였다.

《겁낼건 없소.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솔직하고 기탄없는 고백이면 당신의 생명뿐아니라 안락한 장래와 출세가 담보된다는 것을 내 이 하얀 머리로 보증하오. 이야기해보시오.》

박문필은 이 호박대가리가 아직 이렇다할 단서를 잡지 못하여 퍽 초조해한다는것을 감촉하였고 따라서 견디여내기만 하면 다시 대오에 돌아가 싸울수 있다는것을 느끼였다.

박문필은 분노를 의지로 애써 누르며 말했다.

《나에 대한 체포와 당신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경찰관 관록과는 아주 모순된다는걸 당신자신이 인정하겠지요? 근거없이 체포하는건 당신의 명예손상이 아닌가요? 나는 우선 나를 체포한 근거를 내놓기 바라오.》

그러자 주임놈은 고개를 저으며 박오필에게

《박군, 나는 바쁜 시간을 모처럼 냈는데 늙은이에 대한 례절이 이렇소. 동생은 당분간 내가 돌봐주어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놈의 마지막 말마디가 떨리는것을 박문필은 알아들었다.

박문필은 일이 간단하지 않을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3

박문필과 교원의 체포에 대한 소식을 리경준에게 알린것은 비밀조직성원인 전공 김태준이였다.

박문필과 교원이 놈들에게 체포되여 경찰서에 압송되여갔다는 통보를 받은 시내조직에서는 긴급수습대책을 세우면서 그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리경준에게 이 사실을 알려 그가 피신하게 하기 위하여 즉시에 촌으로 련락원을 띄웠다. 그리고 리경준이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채 시내로 돌아올수 있다는것도 타산하여 몇몇 조직원들이 그가 돌아올수 있는 세개의 길목을 지키며 기다리게 하였다.

그런 과업을 받은 사람들중의 한사람이였던 전공 김태준은 양지촌에서 동문밖거리로 들어서는 길목의 전주대우에 올라가 애자를 갈아대고 끊어진 전기줄을 잇는척하며 기다리고있다가 리경준을 만났다. 그는 리경준에게 소식을 전하고 양지촌에 있는 교외조직원의 집에 피신하도록 하였다.

이런 불의의 사태를 예견하여 미리 박문필에게 주의할 점들을 일러도 주고 이런저런 경우에 대처할 약속도 해놓은 리경준이였지만 처음에는 그자신도 저으기 당황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를 당황하게 한것은 이번 사태를 폭발시킨 원인과 단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였다. 그에게 빚어진 사태를 통보해준 전공도 그들이 체포되였다는 사실밖에는 아는것이 없었다.

몹시 불안한 가운데서도 약간이나마 다행으로 여기게 되는것은 교원과 박문필 이외의 어느 한 조직원도 체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였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체포는 조직의 활동이나 조직선을 알고있는자의 변절이라든가 밀고에 의한것이 아니라 순전히 적의 감시를 눈치채지 못한 교원의 실수가 빚어낸 후과인듯하였다.

리경준은 조직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만단의 대책을 취하

면서 사태발전을 주시하였다.

적들은 교원과 박문필의 집만을 수색하였다. 놈들은 철숙에게 사진사인 리경준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나 리경준의 방에서 사진사가 하르빈에서 두루 《굴러다니던 사람》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진첩(그것은 리경준이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둔것이였다.)을 본 놈들은 미리부터 준비되여있는 철숙의 대답을 듣고 리경준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기색으로 돌아갔던것이다.

수색때에 놈들이 철숙에게 한가지 더 물어본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인이 등사기를 어디 갖다두었거나 잠간이라도 가져온적이 없었느냐는것이였다. 교원의 집을 수색할 때에도 그와 동일한 질문이 있었다고 하였다.

분명 놈들은 삐라사건에서 확실한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애쓰고있는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을 간파한 리경준은 대담하고 결단성있게 수습대책을 세워 박문필과 교원을 무사히 풀려나오게 하리라고 결심하였다. 조국광복회창립대회를 목전에 둔 지금 무송지구지하혁명조직대표로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회의에 가게 되여있는 박문필을 쇠살창안에 둔채 어찌 혼자 가서 장군님을 뵈올수 있으랴?

리경준은 더이상 사태를 관망하며 숨어배겨있을수 없었다. 그는 차라리 자기가 대신 쇠살창속에 들어가 앉게 되더라도 박문필이 풀려나오게 할 각오를 품었다.

그는 조직원들을 발동하여 시외의 어디에 등사기가 있는가를 탐문해냈다. 박문필과 교원이 체포된후 삐라사건이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면 놈들은 반드시 분실당한 등사기가 박문필과 교원의 수중에 있으며 바로 그들이 그 등사기로 삐라를 밀어왔다고 인정할것이다. 공교롭게도 유격대에 등사기를 보낸것과 두사람의 체포가 일치한 때인만큼 다른 등사기를 지체없이 구해서 삐라사건을 계속 일으키지 않으면 박문필과 교원에 대한 혐의가 짙어질것은 명백하였다. 그러므로 리경준은 새로운 등사기공작이 곧 두사람을 구출하는 유일하고 속한 길이라고 여기였다. 특히 근거없이 체포

된 박문필은 빨리 나올수 있다고 생각되였다.

탐문한 결과 등사기 있는데가 몇군데 나졌는데 그중 가장 안전하게 해결해낼수 있는것은 한 목재판가까이에 있는 제재소사무실의 등사기였다.

그는 그 등사기를 빼낸 다음 자연화재가 일어난것처럼 사무실과 제재소에 불을 질러 등사기의 분실에 주목이 돌아가지 않도록 면밀히 행동계획을 짜고 자기가 직접 그 일대 지하조직성원들과 함께 이 공작을 현지에서 지휘하였다.

콩크리트벽에 머리를 기댄채 의식을 잃었던 박문필은 강아지란놈이 그 축축한 혀바닥으로 볼을 핥는것만 같아 강아지를 물리치려고 손을 내젓다가 눈을 떴다.

눈을 떠보니 강아지는 보이지 않고 높다란 뙤창으로 차거운 바람이 스며들고있었다.

뙤창에 꽂힌 쇠살창사이로 별들이 반짝거리는것이 내다보였다.

집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지친 몸으로 창문가에 기대서서 밖을 내다보면 언제나 자기를 반기던 별,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장군님의 뜻을 심어주기 위하여 밤길을 걸을 때면 머리우에서 자기의 리상처럼 반짝이던 그 별들이였다.

박문필은 몸을 움직이려 하였으나 웬일인지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몸을 일으키려고 하여도 예리한 칼끝으로 뼈속을 찌르는것 같이 아파서 꼼짝할수 없었다.

박문필은 천천히 주위를 살펴보았다. 차츰 어둠에 익어지면서 우중충한 세멘트벽과 굳게 닫힌 철문이 어둠속에서 우렷이 떠올랐다. 그제야 박문필은 여기가 감방이라는것과 자기가 모진 고문을 당한후 감방에 와서 의식을 잃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박문필은 동지들이 그리웠다. 특히 리경준이가 그리웠다. 적들이 매일같이 악착한 고문을 들이대며 유격대와의 련락선을 대라, 조직을 대라고 악을 쓰는것을 보면 조직은 무사한것 같았으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안타깝고 불안하였다.

그는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수 없어서 뜬눈으로 밤을 밝혔다. 무시로 갈마들군하는 동지들에 대한 생각으로 하여 박문필은 육체적고통과 살점을 꿍꿍 얼구는 추위도 잊었다.

이튿날 아침에 박문필은 밖에서 들여보낸 꾸레미 하나를 받았다.

어머니가 몇번 그런 차입품을 들여보낸적이 있었기때문에 이번에도 어머니가 들여보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번의것은 달라보였다.

어머니가 들여보내던 차입품은 비단보자기 아니면 하얀 반지에 싼것이였는데 이번것은 허줄한 포장종이를 차근차근 무어서 싼것이였다.

박문필은 꾸레미를 손에 든채 신기한 물건이나 보듯이 한참동안 살펴보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여 조심스럽게 펼쳐보기 시작하였다. 무엇일가? 누가 보냈을가? 종이를 헤치면서도 박문필은 줄곧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안에는 정성들여 빚은 주먹밥 세개가 들어있었다. 밥덩이는 아직 따스하였다. 방금 밥을 지어서 들여보낸것이 분명하였다.

그리고 한쪽에는 경찰들이 헤쳐본듯한 종이로 달달 만 물건이 있었다. 박문필은 그것도 역시 조심스럽게 들어서 무릎우에 올려놓고 천천히 헤쳤다. 거기에 뿌리를 자른 푸르싱싱한 파 한대와 유지에 싼 고추장 한덩이가 있었다.

고추장과 파는 박문필이가 언제나 즐겨하는 음식이였다. 그는 싱싱한 파잎에 고추장을 찍어먹기를 좋아하였다. 언제인가 의사는 그에게 매운 음식을 삼가하는것이 좋겠다고 권고하였으나 박문필은 그 말을 잊어버렸다. 철숙이도 박문필의 성미를 알고 때때로 신선한 파를 고추장에 받쳐 상에 올려놓군하였다.

박문필의 이러한 식성을 알고있는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사람, 철숙이밖에 없었다. 그러니 그것은 철숙이가 들여보낸것이였다.

감방안에는 향긋한 파냄새가 풍기였다.

그는 종이를 헤쳐놓고 연한 줄기 하나를 잘라서 고추장에 찍어 입에 넣었다. 금시 정신이 드는것 같았다. 착하고 어진 안해가 새삼스레 그리웠다. 박문필은 다시 싱싱한 파허리를 꺾다말고 주

춤하였다. 뜻밖에도 대속에서 돌돌 만 종이쪽지가 무릎우에 톨롱 떨어지는것이였다. 박문필은 감방문을 흘끔 살펴본 다음 그 종이쪽지를 집어서 펴보았다. 조그마한 종이쪽지에는 연필로 깨알같이 박아쓴 글자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습관대로 손을 눈언저리에 가져갔으나 어느때건 눈에 꼭 붙어있군하던 안경이 이상하게도 잡히지 않았다.

어제 감방에서 쟁강소리를 내며 콩크리트바닥에 떨어지던 안경생각이 간절하였다.

박문필은 해빛을 따라가며 글을 읽었다.

산과 강은 변함없음, 산에서 인사를 보냄.

산은 공작원이였고 강은 조직이였다.

(조직이 무사하다! 동지들이 무사하다!)

박문필의 파리한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어리였다. 박문필은 애써 일어서서 아픈 다리를 옮겨놓으며 간신히 두손을 마주잡고 흔들었다.

《경준동지, 동무들, 반갑소. 기쁘오!》

박문필은 비틀거리다 겨우 물기가 축축한 벽에 의지하여 몸을 가누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 하였다. 그처럼 기다리던 동지들의 소식을 앉아서 받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어쨌든 일어서서 동지들에게 인사를 전해야 하고 또 내가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고싶었다. 그리하여 박문필은 창가로 얼굴을 돌리고 웃음을 지어보이였다. 이윽하여 안경이 없어 한결 우묵해보이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핑 고이였다.

그러던 박문필의 생활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면회날도 아닌데 그 다음날 아침 박문필은 감방안에서 아버지의 방문을 받았다. 언젠가는 아버지의 방문이 있을것이라고 짐작을 한 박문필이였으나 정작 늙어버린 아버지를 뜻밖에 대하고보니 가슴이 떨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감방안에 들어서서 아들의 험상스러운 정상을 보게 된 늙은이의 커다란 눈은 놀람과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였고 뒤이어 곧 눈물이 어리였다.

《싱싱하던 사람을 이꼴로 만들다니.》

늙은이는 열려진 감방문밖을 돌아보며 떨리는 손으로 피멍이 든 박문필의 어깨를 만졌다. 이윽고 늙은이는 한숨을 내쉬였다.

《너의 어머니두 오겠다는걸 겨우 말렸다. 이런덴 녀자들이 다닐 곳이 아니지. 너의 어머니는 며칠째 밥 한술 못뜨고 노상 누워있다.》

늙은이는 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박문필은 피기없고 누런 주름살이 덮인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문필아, 너의 형제는 셋도 못되고 도무지 둘이 아니냐? 그런데 너의 형은 사람이 되기엔 코집이 틀려먹은지 오래다. 이제 내게는 자식이라구는 너 하나밖에 없다. 나와 네 에미는 너 하나를 믿고 살아왔는데 네가 우리를 버리고 왜 이런데서 고생하겠니? 어서 저 사람들이 듣고싶어하는 말을 시원히 다 털어버리구 집으로 가자.》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안타깝게 말하였다. 그러나 박문필은 아버지의 손을 가볍게 밀며 머리를 저었다.

《아버지!》

박문필은 뜨겁게 불렀다.

그 말에 늙은이는 눈물이 글썽해서 다음말을 기다렸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나라를 잃은 우리 조선사람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외면하여왔습니다. 이것은 말하기도 가슴아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라도 아버지가 우리 조선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찾는 의로운 일을 도와나서신다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늙은이는 손수건으로 물기가 어린 눈언저리를 눌렀다.

《애야, 그런, 그런 얘기는 집에 가서 두고두고 하자꾸나. 그래 넌 아직도 그 마르쿠스(맑스)라는 사람을 신봉하느냐?》

이때 고등계주임놈이 입가에 웃음을 담고 백대가리를 흔들며 들

어왔다.

《부자간의 상봉치구는 너무 쓸쓸합니다. 우리가 좀 도와드릴것이 없겠습니까?》

《아버지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오만 이런속에서도 의로움을 버리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되려 정은 두터워지오. 도대체 무슨 리유로 죄 없는 내 자식을 저 지경으로 만들었소?》

늙은이는 손수건을 감추면서 고등계주임놈한테 등을 돌려댔다.

《그건 당신 아들이 대답할 일이지요. 부자간의 상봉이 더 쓸쓸해지지 않도록 각방으로 힘쓰기를 바랍니다.》

비웃는 고등계주임놈의 목소리였다. 그놈은 더 있기가 멋적었던지 그냥 돌아서 나가버렸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박문필은 아버지의 손을 오랜만에 잡아쥐였다.

《제가 신봉하는분은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아버지, 저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일생을 살아갈 결심입니다.》

몹시 놀란 아버지는 아들을 새삼스레 마주보았다.

《음, 그렇댔구나! …》

아버지는 무겁게 머리를 끄덕였다. 작은아들의 운명에 대한 걱정때문에 노상 불안이 가시지 않던 아버지의 얼굴은 전에없이 평온해졌다.

《네가 그렇다니 마음이 놓인다. 될성부른 나물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구 나는 벌써 네가 중학을 다닐 때부터 학생시절의 장군님을 뵙고 그이께서 이담에 의로운 사람들을 거느리실 훌륭한 인물이 되리라고 혼자속으루 생각했댔다. 네가 그분을 따른다니 너는 그릇된 길로 갈 념려가 없다구 나는 믿는다. 다시는 내가 너를 실망시키는짓을 안하리라는걸 알아두어라.》

아버지는 이런 말을 남기고 흔연히 돌아갔다.

여직껏 계속되던 고문이 중단되였다. 감방문을 불이 나도록 드나들던 순사와 형사도 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냥개처럼 사납던 털보도 무엇때문인지 박문필의 요구를 고분고분 들어주는것이였다.

늙은이가 다녀간 다음날 털보가 와서 또 면회라고 소리를 쳤다.

면회실은 천정이 낮은 집이였는데 면회자들이 서로 얼굴이나 겨우 가려볼수 있을 정도로 구멍을 내고는 온통 나무판자로 사이벽을 쳐놓았기때문에 좁고 어둑시근하였다.

천장에서 수수떡같은 전등알이 희미한 빛을 뿌리고있었고 출입문곁에는 당번순사놈이 앉아있었다.

쇠창살을 댄 뙤창만한 구멍으로 가느다란 해빛이 강렬하게 스며들고있어 박문필은 눈이 사물거려 광선을 피하였다.

한참후에야 박문필은 한손을 창백한 이마우에 갖다대고 안경자리가 또렷한 눈을 쪼프리며 쇠창살너머로 밖을 살피였다. 이때 쇠창살 저쪽에서 무엇인가 언뜻거리는것 갈더니 반기듯 달려오는 잰걸음소리가 들렸다.

모든것이 희뿌연 안개속에 잠긴것처럼 흐리멍텅한 가운데서 말쑥하게 가리마를 탄 검은 머리와 흰 이마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어딘가 퍽 낯익은 모습이였다. 박문필은 눈을 흡떴다. 안해 철숙이였다.

남편을 기쁨과 그리움에 차서 바라보던 철숙은 얼핏 눈길을 떨구었다.

박문필은 그 눈길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낀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의 일이였다.

안해는 또다시 남편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은 여전히 웃고있었다. 그 웃음에는 어딘지 모르게 남편을 안심시키고 위안하려는 철숙의 마음이 어려있어 박문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 웃음은 전에없이 안해의 눈귀에 자리잡기 시작한 가느다란 한줄기 주름과 해쓱해진 얼굴모습과 한데 어울려 이번에는 박문필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당신이 왔구려.》

박문필은 가슴속에서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자기도 모르게 쇠창살사이로 두손을 내밀며 안해의 차겁고 떨리는 손을 더듬어잡았다.

결혼한후 이렇게 서로 손을 마주잡아보기는 처음이였다.

안해의 손은 차거웠다. 박문필은 안해의 차거운 손을 덥혀주려는

듯 꽉 그러쥐였다.

《걱정 마세요. 모든 일이 다… 잘되여간답니다.》

철숙은 입속말로 속삭이듯 말하고 출입문곁에 앉아서 선하품을 하고있는 당번순사놈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가볍게 한숨을 쉬였다. 무슨 간절한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였다.

《그래 우리 사진관은 지금 쉬겠구만.》

박문필은 안해가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리겠는지 걱정하며 물었다. 그것은 리경준의 안부를 묻는 말이였다.

철숙은 뜻밖에도 눈을 반짝이며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예요. 여전히 손님들이 와요. 저도 일하구요.》

박문필은 그 말을 조직이 움직이며 안해도 조직의 사업을 돕고있다는것으로 리해하였다. 박문필은 다시금 안해의 손을 뜨겁게 잡아 눈인사를 보냈다.

이때 《면회 그—만.》 하는 순사놈의 늘어진 목소리가 울렸다.

두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철숙의 눈에 불꽃이 반짝이였다.

무엇인가 결심한듯 철숙은 박문필의 손을 자기앞으로 끌어당기였는데 이때 박문필은 자기의 손바닥에 얇은 종이말이가 닿는것을 느끼였다.

철숙은 나직하나 다급하게 말하였다.

《집일은 절대 걱정 마세요. 몸성히 계셔요. 몸성히…》

말도 끝나기전에 나무판대기가 그들의 사이를 꽉 막아버렸다. 시간이 되였다고 순사놈이 막아버린것이였다.

철숙의 숨결소리가 판자너머에서 들렸다. 그러다보니 안해와 작별인사도 나누지 못하고만것이였다. 박문필이 이슥토록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있는데 판자너머에서는 안해의 가느다란 흐느낌소리가 들리였다.

감방에 돌아온 다음에도 박문필은 한참동안 무엇을 생각하는것도 없이 벽에 기대 앉아있었다. 안해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날줄 모르고 얼른거렸다.

그러다가 안해가 손에 쥐여주던 종이말이 생각이 나서 펴보았다.

신심을 잃지 마세요. 삐라가 다시 뿌려지고있어요. 당신에게 크나큰 영광이 차례졌어요.

엷은 종이며 연필글씨는 모두 전날의 파속에서 나온것과 같은것이였다. 오늘에야 그것이 안해의 글씨라는것을 알았다. 뒤늦게 알아본것이 미안스러웠다.

박문필은 삐라가 다시 뿌려지고있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다. 등사기와 삐라사건들이 자기와 무관계하다는것을 적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리경준이 어떤 비상대책을 취했으리라는것을 그는 짐작하였다.

그러나 자기에게 차례졌다는 크나큰 영광이 무엇인지는 온밤을 두고 생각했지만 알수 없었다. 그는 자기가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동강밀영으로 가게 되여있는줄은 꿈에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그리고 그 밤에 또한 자기를 서뿔리 체포하고 고문한 경찰서놈들이 자기들의 상급으로부터 어떠한 꾸중을 받고 어떤 새로운 흉계를 꾸미고있는지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4

삼도묘령에서 동강으로 뻗은 인적드문 호젓한 길을 따라 한대의 마차가 고원우에 아득히 펼쳐진 밀림속을 헤쳐가고있다.

달구지나 말파리가 겨우 어길 정도밖에 안되는 넓지 않은 길이지만 무송에서 장백으로 넘나드는 유일한 길이다.

지난날 압록강을 건느고 룡강산줄기를 넘어온 수많은 류랑민들이 바로 이곳을 거쳐 망국노의 이역살이를 찾아들어갔던 길이다.

그 뭇사람들의 한숨소리가 그대로 멈출줄 모르는 이고장 밀림의 바람소리로 변하고 그 설음에 겨운 피눈물이 길가의 풀숲에 영원히 스러질줄을 모르는 이슬방울로 맺혀버린듯한 길, 살길을 찾

아 헤매다가 기진하여 쓰러진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길역의 나무밑에 묻혀버린채 벌초 한번 받아보지 못하는 무주고혼이 되여 무성한 잡초와 관목과 교목까지 떠인 허술한 봉분만을 남겨놓은 길…

그 길로 마차는 경쾌한 말발굽소리와 바퀴소리를 내며 굴러가고있다. 북쪽으로가 아니라 남쪽으로, 조국땅이 더 가까운쪽으로 향한 마차다.

마차우에는 이 세상에 그렇게도 흔한 궁핍의 모상도, 우울의 그림자도, 절망의 한숨도 실려있지 않았다.

늙수그레한 마부와 행상인의 차림을 한 사람 그리고 안경을 낀 젊은이, 그렇게 세사람이 탄 마차에는 희망과 웃음과 기쁨이 가득히 실려있다.

리경준과 박문필이 장군님의 부르심대로 조국광복회창립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동강밀영으로 가고있는것이다.

박문필은 어제 아침에야 놓여나왔다.

그가 무사히 풀려나오게 하려고 리경준이가 조직했던 몇차례의 삐라살포와 박문필의 견결하고 사리정연한 반항이 마침내 은을 낸것이다.

놈들은 박문필을 그냥 경찰서에 붙잡아둘만한 확실한 근거를 끝내 박문필의 입에서 받아내지 못했을뿐아니라 두사람의 체포이후에도 계속된 삐라소요로 하여 혼란과 수세에 빠져버렸었다. 그런데다 성에서 내려온 유능한 고등계형사부장으로부터 서뿔리 손을 댔다는 혹독한 추궁까지 받았다.

형사부장놈은 박문필을 서투르게 다룬 현경찰서의 백대가리 고등계주임을 풋내기 취급하듯하면서 지체없이 박문필에게 깍듯한 사죄를 하고 놓아준 다음 그의 일거일동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미행을 조직하라는 지시를 내렸던것이다.

성고등계형사부장놈은 특별히 의의있는 박문필의 경력을 료해하고 그가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놓아주면 무송현에 있는 유격대사령부와 꼭 접선하게 되리라는것을 타산하였는데 백대가리가 그일에 끼여들어 훼방을 놓았던것이다. 생각할수록 괘씸하기 그지

없는 일이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박문필을 그대로 놓아주고 그를 통하여 유격대사령부의 행방을 알아내며 유격대에 불의의 타격을 가할 작전을 세워야 한다고 백대가리를 닦아세웠다. 그제서야 백대가리는 경솔했던 자기의 실책을 느끼고 새로운 결심으로 박문필에게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리경준은 놈들의 그런 꿍꿍이속은 속속들이 알수 없었지만 놈들의 교활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머리속에 계산해두고있었던것만큼 있을수 있는 적들의 감시와 미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용의주도하게 출발을 조직하였다. 그는 박문필의 석방이 늦어진탓에 동강에 가닿아야 할 날자가 아주 밭다는것과 걸어서는 그 먼길을 도저히 제 날자에 가댈수 없다는것 그리고 미행이 있을수 있다는 세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무송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동강과는 정 반대방향으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돌아서서 동강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농촌지하혁명조직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행상마차를 타도록 하였다.

리경준은 마차를 리용하는김에 행상마차로 가장하고 거기에 원군물자까지 싣도록 하였다. 그리고 길을 재촉해왔다.

어서 가닿아야 할 걸음이며 어서 가닿고싶은 길이다.

리경준은 한달만에, 그렇다, 꼭 한달만에 사령부로 돌아간다. 무송으로 나오던 때에는 수림속에 그냥 희끗희끗한 눈이 깔려있었지만 돌아가는 지금은 그도 봄옷차림을 했고 밀림도 신록으로 물들어가고있다. 건강이 회복되였다는 최선금도 지금쯤은 장군님의 새 군복을 지었을테지. …

하늘엔 끝없이 부풀어오르는 마음처럼 호함지게 꽃핀 한송이 흰 꽃구름송이가 둥실 떠서 마차와 함께 둥둥 떠간다.

푸른 공간에 가득찬 신선한 대기는 알싸하도록 싱그러운 풀향기를 가슴가득 채워주며 취할듯한 봄의 정취를 자아낸다.

조심하지 않고 눈을 팔아도 좋을 대자연속이다. 숨을 크게 쉬며 맘껏 들여마셔도 일없을 대기다.

적들은 보이지 않고 동지들은 이제 얼마 멀지 않은 숲속에 있을것이다.

이제 동강의 숲속에 가면 그리웠던 동지들이 다 모여와 있으리라.

마안산숲속을 멀리까지 함께 걸어나오시며 임무를 잘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오라고 일러주시던 사령관동지께서도, 어느 길로 어떻게 가서 어느 거리에서 《금강사진관》을 찾으라고 차근차근 대주던 강세호련대장도, 주먹밥을 싸주며 몸조심하라던 철구어머니도, 무송을 갓 다녀간 장기령이도, 왕청에서 본 다음 오래동안 보지 못한 예쁘고 얌전한 한남실이도, 그리고 건강해진 사랑하는 안해도, 아버지가 돌아오면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던 귀여운 어린것들도 모두 거기에 모여 자기들이 닿기를 손꼽아 기다리리라.

앞자리에 앉은 마부는 마차가 밋밋하게 경사진 내리막길에 접어들자 리경준과 박문필을 슬쩍 돌아보고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채고 나긋나긋한 가죽채찍을 쳐들었다.

채찍은 바람소리를 일으키며 탄력있게 허공을 걷어차고 내리꽂히면서 그 끝으로 슬쩍 실팍한 말엉뎅이를 건드렸다. 말은 벌써 채찍이 재촉하는 소리를 알아듣고 그 끝이 닿기전에 움쭉 마차를 내끌었다.

마차는 덜컹거리며 흠뻑 기름을 먹은 굴대가 슬슬 구으는 소리를 내며 밋밋하게 뻗어내린 등판의 내리막길을 달려내려갔고 그냥 그 기세로 다시 밋밋하게 뻗어오른 등판길을 달려올라갔다.

마차는 꽁무니에서 뽀얗게 타래쳐오르는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봄빛어린 숲속을 굽이쳐간 고원의 한복판을 내달렸다.

《이제 동강부락은 시오리 남았습니다.》

두개의 고개를 더 넘자 말고삐를 잡아당겨 속도를 늦추며 마부가 말하였다.

《인차 오솔길이 나질거웨다. 오솔길을 따라나가면 도중에 두갈래 길이 있는데 바른쪽 길로 들어서면 강과 동강부락 사이를 꿰지른 밀림에 깊이 들어가게 될거웨다.》

마부로 가장한 지하조직원은 백두산 맹수사냥군들을 따라다닌 적이 있어 이 아근의 지리를 좀 안다는 사람이였다.

오솔길이 나지면 그 근방에 마차와 말을 숨겨두고 리경준과 박문

필은 밀영으로 들어가며 마부만 원군물자를 지키고있다가 유격대원들이 오면 그것을 넘겨주고 떠나도록 약속되여있었다.

그러나 잠시 숨을 돌린 마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할 때부터 멀리 뒤따라오고있던 두필의 말과 그뒤로 묻어오는 한대의 마차도 역시 자기들과 같은 속도로 달려오기도 하고 말을 쉬우며 천천히 오기도 한다는것을 퍽 뒤늦게 감촉한 리경준은 당초의 계획을 변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오솔길이 나지면 거기서 우리를 내리우고 아바이는 그냥 동강부락으로 곧추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려인숙에 묵으면서 우리가 련락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시오.》

갑작스런 리경준의 말에 마부는 머리를 기웃거렸다.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밀영에 찾아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닐가요? 그 사람들도 길이 늦어져 말을 쳐모는게 아닐가요?…》

그런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무송지구에서 올 사람은 자기들밖에 없다는것을 리경준은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어쨌든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는것이 지하공작의 원칙이다.

《오솔길은 얼마나 남은것 같습니까?》

《이제 저 앞등판길만 넘어서면 나집니다.》

리경준은 등판길을 넘어서 뒤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마차를 멈추게 하였다.

《아직 이릅니다. 저 밑바닥에 떨어져야 오솔길이 나집니다.》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어서 권총들을 꺼내십시오.》

리경준은 박문필을 부축하여 마차에서 내리웠다. 마부는 마차밑으로 기여들어가 짐판밑에 감춰가지고 왔던 유지에 싸고 또 헝겊으로 싼 권총들을 꺼내다가 두사람에게 주었다.

《자, 그럼…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려인숙에 묵으십시오. 될수록이면 제가 아바이한테 가겠습니다. 어서 떠나십시오.》

《조심들해서 가시오. 길을 헛갈리지 말고…》

마차는 다시 떠나자바람으로 속력을 내여 달렸다.

리경준이와 박문필은 도랑을 넘어 바삐 이깔나무숲속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금방 잎이 돋아나기 시작한 숲은 아직도 앙상하여 그들을 깊이 숨겨주지 못하였다.

리경준은 박문필이 따라오기 힘들어할것을 알면서도 빨리 따르라고 재촉하며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벌써 꽤 멀어진 길에서는 잰 말발굽소리와 잦은 가락으로 덜커덩거리는 바퀴소리, 짐판이 들추는 소리 그리고 굴대에서 나는 삐거덕소리가 점점 더 약하게 들렸다. 그에 뒤이어 다시 새로운 여러 마리의 말이 달리는 소리가 나더니 마차가 굽이돌아간 뒤를 쫓아 다급히 박차를 가한듯 말발굽소리가 잦게 울리다가 점차 멀어져갔다.

《좀 쉽시다. 무슨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다 지나갔소. 걷기가 급했지요?》

리경준은 부축해오던 박문필을 돌아보며 미안쩍은듯 웃었다. 헐썩거리며 숨차하던 박문필은 북신한 락엽우에 쓰러지듯 앉더니 손에 들고오던 권총을 그냥 틀어쥔채 그 손등으로 땀방울이 보송보송 돋은 창백한 이마를 훔쳤다. 그는 잠시 숨을 돌린 뒤에야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고문에서 상했던 발목을 주물렀다.

얼마쯤 쉰 다음 다시 걷기 시작해서 사냥군들과 고기잡이군들의 발길에 다져진, 그러나 거기에 오솔길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아볼수 없는 숲속길에 접어들던 리경준은 누가 자기들의 뒤를 따르고있는것 같은 륙감을 느끼고 얼핏 뒤를 돌아다보았다.

숲속은 바스락소리 하나 없이 괴괴하고 사방에 보이는것은 한결같이 미출하게 뻗어오른 이깔나무줄기들뿐이였다.

너무 긴장했던 탓인듯싶었다. 뒤따르던 말도 마차도 이미 지나갔고 여기는 아무도 있을수 없는 밀림이다.

이제 좀더 걸어가면 두가닥 길이 나질것이고 그 바른쪽길을 따라가면 아직도 드문드문 성에장이 떠있을수도 있는 백두산마루 턱밑에서 시작된다는 강물을 보게 될것이며 다른 한길을 따라가면 모르긴 해도 장기령이가 찾아오라고 알려주던 새로운 밀영이 꾸려진곳에 그립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을곳에 들어서리라. 조금만

더 가면 밀영에서 연기없이 피우는 내내와 음식 끓이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와서 그 냄새를 그리도 맡아보고싶어하며 그리워했던 경준이의 후각을 자극할는지 모른다. 이처럼 청신한 밀림의 대기속에서는 약간만 색다른 냄새도 인차 구별되는것이다. 그리고 또 이토록 적막한 숲속에서는 총을 다루는 소리나 나직한 구령소리도 쉽게 알아들을수 있다. 이제 유격대원들이 모이는곳이면 언제나 있기마련인 씩씩한 노래소리도 어느 시각에 들려와줄는지 모른다.

아, 밀영에 들어서면 마음을 풀어놓고 실컷 부르고싶던 노래도 불러야지. 오락회가 있게 되면 틀림없이 사령관동지께서는 또 우리 부부를 불러내여 2중창을 시키시겠지. 그이께서는 늘 우리의 2중창을 퍽 좋아하셨거던. 그 사람도 건강해져서 대오로 돌아오고 나도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가고… 기쁜김에 부부가 나란히 서서 부르는 노래를 듣고싶으시다면 우리 같이 불러드려야지. 그이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사향가》를 불러드리지. …

리경준은 마침내 앞에 나타난 두가닥 길을 보고 성큼 바른쪽길로 발을 내짚으려다가 다시금 무엇인가 자기들을 뒤따라오는것 같은 느낌을 받고 힐끔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는 온몸이 오싹해지고 머리칼이 주뼛해졌다.

(꼬리를 밟혔구나!)

번개같은 생각이 머리를 때렸다. 얼핏 나무그루뒤에 몸을 숨기는 그림자를 보았던것이다.

가슴이 뛰고 진땀이 났다.

리경준은 그냥 곧추 강쪽으로 나간다는 오솔길로 걸음을 옮겨짚었다.

그는 아무것도 못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걸어가며 박문필에게 낮은 소리로 말을 하였다.

《박동무, 내 말을 들으시오. 놀라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따라오시오. 뒤에 꼬리가 붙었습니다.》

《잘못보지 않았습니까?》

놀라움때문인지 박문필의 목소리도 역시 떨렸다.

《아니요, 잘못 보지 않았소.》

어찌되여 이런 일이 생긴것인가?

리경준은 무송서 떠날 때부터의 걸음걸음을 더듬어보았다.

적들이 박문필을 석방하고 감시할수 있다는것을 리경준도 타산하였기때문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길로 하여 멀리 에돌아서 시내를 빠져나왔었다. 그리고 동강 반대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서 딴 길을 에돌아오다가 마차에 올랐었다.

그때에는 뒤따르는 기미가 없었다.

대체 어디서 꼬리를 잡혔는가?

사실 적들은 교활하였다. 놈들은 형사부장놈의 지시대로 박문필을 놓아주었지만 그 순간부터 빈틈없는 감시를 하고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마음을 놓을수 없었던 적들은 무송과 동강주변의 밀림으로 들어가는 길목마다에 밀정들을 파견하여 지하조직원들과 유격대원들의 류동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리경준의 세밀한 행동계획에 따라 두사람은 무송시내에서 감쪽같이 빠져나올수 있었고 역시 동강밀영근방까지 무사히 들어설수 있었다.

이때까지도 무송시내의 적들은 이들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있었다.

리경준일행은 한길에서 오솔길로 들어서는 갈림길에서 적들의 미행을 받게 되였다. 거기에 적의 특무놈들이 엎디여있다가 마차에 탄 일행을 수상하게 보고 뒤를 따르기 시작하였던것이다. 물론 밀정놈들은 일행이 어떤 사람들이라는것을 알지 못했지만 끝까지 미행해보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적들의 미행경과를 알지 못하며 알수도 없으며 또 그것을 충분하게 추리해볼만한 여유를 가지고있지 못한 리경준은 그것이 어떻게 되였든 이 위험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것인가 하는데 머리를 썼다.

이대로 그냥 적을 꼬리에 달고가다가는 밀영의 위치를 로출시키고 사령부와 동강에 모여있을 모든 혁명동지들을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

적을 따돌려야 한다. 그리고 무송의 조직과 군중을 대표하는 박문필 한사람만이라도 회의에 참석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리경준은 다리가 아파서 주먹으로 무릎을 두드리는척하면서 박문필을 앞세웠다. 나무뒤에 숨으며 따라오던 세놈의 적들은 앞에서 미행당하는줄을 아직도 모른다고 여겼던지 리경준이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주무르는동안에는 숨어있었다. 리경준은 앞세운 박문필에게 바싹 붙으며 귀속말을 하였다.

《내 말을 명심하오. 내가 이제 조금후에 신끈을 매는척하고 주저앉아도 기다리지 말고 그냥 걸어가시오. 그러다가 내가 적을 갈기게 되면 달리시오. 내가 적을 견제하는동안 필사적으로 달려 적의 눈에 뜨이지 않을만한곳에서 옆으로 빠지시오. 오른쪽으로 꺾어 그냥 달리면 아까 들어서자던 오솔길을 찾을수 있을것이요. 그길을 따라 백두산방향으로, 남쪽방향으로 들어가면 밀영을 찾을것이요.》

《그건 안됩니다! 안됩니다!》

박문필은 걸음을 주춤거리며 돌아서려 했다.

《서지도 돌아보지도 마시오! 아직은 적이 우리가 눈치챈줄 알게 하면 안됩니다.》

박문필은 할수없이 돌아서지도 멈춰서지도 못하고 그냥 걸으며 낮으나 격해서 말하였다.

《내가 남겠습니다. 경준동지는 가야 합니다.》

《안됩니다. 흥정해서는 안됩니다. 내 말을 명심하고 찾아가십시오.》

《나는 산길을 모릅니다. 나는 뛸 형편이 못됩니다. 뛰지 못하는 내가 남아야 합니다. 경준동지는 나보다 열배나 빨리 적의 감시에서 벗어날수 있지 않습니까?》

《고집하지 마시오. 박동무는 세놈을 다 없애치울수 없습니다. 만일 막다가 한놈이라도 놓치면 사령부와 온 밀영이 적의 포위에 들수 있습니다. 온 민족의 대표들이 위험에 처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셨던 창립대회도 예정대로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나를 믿으시오. 한놈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으니…》

《아니, 박동무는 기어이 가야 합니다. 창립대회에 참가할 무송지구대표는 박동무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사히 뒤따라갈터이니 안심하고 행동하시오. 필사적으로! 더는 돌아보지 말고 걸음을 다우치시오. …》

리경준이의 요구대로 그이상 고집하지 못하고 얼핏 경준을 돌아본 박문필은 입술을 악물었다.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음발을 재촉하시오.》

리경준은 웃으며 눈짓으로 그를 슬쩍 떠밀었다. 그러나 박문필은 발길을 떼지 못하였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서 가시오! 총소리가 나면 뛰다가 옆으로 빠져서 가달난 오솔길을 찾아 그 길로 따라가시오.》

리경준은 머리를 숙이고 마지못해 걸음을 떼는 박문필의 뒤잔등을 바래주며 거듭 타일렀다. 그리고 신발끈을 매는척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따라오던 세놈의 적은 제가끔 분비나무그루뒤에 몸을 사리며 숨었다.

리경준은 일부러 늦잡으며 햇잎이 돋기 시작한 들쭉덤불뒤에 주저앉았다. 지루함을 느꼈던지 저으기 안달이 난놈들은 나무뒤에서 눈알을 번들거리며 권총구를 내밀다가 리경준의 눈에 띄울것 같은 위험을 느꼈는지 다시 디밀었다.

그러나 리경준은 놈들이 다 감춰낼수 없는 모자채양과 옷자락을 보고 놈들이 숨어있는 나무들을 쉽게 가려냈다.

들쭉덤불뒤에서 다시 일어난 리경준은 몇걸음 걷는척하다가 놈들이 나무뒤에서 나왔다고 생각된 순간에 홱 돌아서며 먼저 눈에 드는놈을 겨냥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야무진 총소리가 고막을 멍멍하게 하는것과 거의 동시에 적의 비명이 들려왔다. 리경준은 물씬 코구멍에 날아드는 화약내를 맡으며 금방 나무뒤에서 나왔던 회색양복쟁이가 두팔로 분비나무줄기를 부둥켜안고 몸을 뒤틀다가 땅바닥으로 처져내리는것을 보았다.

다른놈이 쏘아댄 탄알이 귀뿌리를 스쳐지나가며 아츠럽게 공기째는 소리를 냈다.

리경준은 허리를 굽히고 오솔길을 내달리다가 길옆에 있는 분비나무를 붙잡으며 그뒤에 숨었다.

그 경황없는 가운데도 그는 박문필을 눈으로 찾아보았다. 박문필은 이미 자취를 감춰버렸는지 눈에 띄우지 않았다.

리경준은 한결 마음이 홀가분해짐을 느꼈다. 박문필이가 일러준대로 하겠는지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도 그가 자기의 뜻대로 해준것이 기뻤다.

(고맙소, 박동무! 무사히, 제발 무사히만 가주오.)

경준은 적의 동정을 살펴보다가 날쌔게 다음나무를 향해 자리를 옮겼다. 나무뒤에 붙어서기전에 또다시 탄알이 곁에 있는 나무의 껍질을 뚜지며 지나갔다. 나무에 의지하여 돌아선 그는 들쭉덤불에 발을 걸채이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놈을 향해 총알을 안겼다. 두팔로 땅을 짚고 일어나던 그놈은 면바로 이마에 탄알을 받았던 모양 비명도 지르지 못한채 그대로 땅바닥에 얼굴을 박았다.

리경준은 걷잡을수 없는 통쾌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그렇겠지. 내가 어느분한테서 권총사격술을 배웠다고? 마지막으로 남은 네놈도 내 눈앞에서 이 밀림을 벗어나지 못한다!)

일대일로 남은 역전된 정황에서 나머지놈은 감히 그이상 따라올념을 못하고 숨어있었다. 한놈만이라도 놓치면 이미 나가너부러진놈들에 대한 통쾌한 명중도 아무런 보람없이 되고말것이다.

그놈이 살아 달아나기만 하면 수많은 적을 달고 올것이다. 밀영의 위치를 로출시킴이 없이 사령관동지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사업이 무사히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놈을 절대로 놓쳐버리지 말아야 한다.

리경준은 맞은편 이깔나무뒤에 숨어서 머리를 빠끔히 내밀고 이쪽 동정을 살피고있는 적의 공포에 질린 눈을 살펴보고는 그놈이 도망칠 구멍수를 노리고있다는것을 눈치챘다.

그놈이 기회를 보다가 몸을 날려 몇걸음 뛰여갈 때 리경준의 권

총이 땅하고 야무지게 울리였다.

리경준은 죽어너부러진 그놈에게서 권총을 빼앗아들고 허리를 펴다가 뜻하지 않았던 총알을 받았다. 몸을 비틀며 쓰러질듯했다가 간신히 돌아선 그는 맨 처음에 자기의 총탄을 얻어맞고 쓰러졌던 회색양복쟁이가 한팔로 땅을 짚고 비스듬히 누운채 또다시 자기를 겨냥하고있는것을 보았다.

리경준은 권총쥔 손을 쳐들려 했지만 손은 이미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가까스로 손을 눈앞에 쳐든 그는 방아쇠를 당기기전에 자기의 바른쪽 가슴노리가 뜨끔해짐을 느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그리고 자기에게 거듭 발사했던 양복쟁이가 악—하고 지르는 짐승의 비명같은 소리를 이미 흐리마리해지는 감각속에 가까스로 가려들으며 햇풀이 돋기 시작한 땅바닥에 쓰러졌다.…

몽롱한 의식속에서 누군가 자기를 마구 흔들며 부르는 소리를 느끼고 온힘을 다 짜내여 몹시 무거운 눈두덩을 올려밀었을 때 그의 눈에 먼저 비쳐진것은 분비나무숲사이로 빨갛게 타고있는 쪼각하늘이였다. 그리고 역시 그렇게 빨간 한쌍의 둥그런 유리알이였다. 그 한쌍의 유리알 아래쪽에는 반짝거리는 붉은 구슬알이 맺혔다가는 길죽하게 늘어지며 아래로 떨어졌다.

잠시후 리경준은 그것이 박문필의 안경이며 웬일인지 그가 자기 몸을 받쳐 안고 울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적의 미행을 받은 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일시에 생생히 되살아났다.

《동무는 왜 여기 있소?》

박문필은 눈물에 젖은 입술을 감빨뿐 대답하지 못하였다.

《밀영을 못찾았소?》

박문필은 밀영에 아직 가지 않았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하늘이 왜 저렇게 붉소?》

《저녁노을이…》

흐느낌에 떨며 박문필은 겨우 대답하였다.

《아, 벌써 저녁이… 지내 어둡기전에 어서… 나를 두고 어서 가서…》

점점 더 잦아드는 목소리로, 점점 더 숨차하며 가까스로 떠듬거리던 리경준은 마침내 입술만 움쭉거릴뿐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사령관동지를…》

그는 자기에게 이토록 빨리 말할 힘마저 없어질줄 모르고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그렇게도 많은 말중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한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입을 벌리려 하였지만 이제는 그 입술도 영원히 붙어버렸는지 도무지 열리지 않았다.

아, 입술을 벌릴수 있었던 좀전에 왜 가장 남기고싶은 말부터 꺼내지 못했던가?

몸은 자꾸만 땅속으로, 땅속으로 꺼져들어갔다. 붉어보이던 쪼각하늘은 자꾸만 어두워졌다.

리경준의 두눈에 담겼던 노을은 갑자기 사라졌다. 그는 영원히 눈을 감은것이다.

하늘에 비꼈던 노을도 차츰 스러져갔다.

숲속엔 갑자기 짙은 어둠이 덮씌웠다.

《경준동지!》

울부짖는 박문필의 슬픔에 찬 목소리만이 짙은 어둠과 무시무시한 적막을 발기발기 찢으며 광막한 공간에 메아리쳤다.

제 12 장

1

천지의 물이 부석짬으로 슴새여나오며 그 원천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한여름철까지도 말기에 덮여있는 장설이 사시장철 마를줄 모르는 수원을 이루는지 백두산 서북쪽마루턱에서 새여나온 두 물줄기는 서북방으로 줄기차게 흘러내리다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도송화강줄기를 이룬다.

그 합수지점에서 10여리 떨어진곳에 백두산아래의 첫동네라 불리우는 동강마을이 있다. 수백리를 완만하게 뻗어내린 백두산의 서북쪽비탈 첫머리에 올라앉았다고들 하는 마을이다.

백두산정에서 동강마을까지는 백리, 그러나 백두밀림의 태고연한 정적에 잠긴 이 마을에서는 백두산말기에서 따웅— 하고 울어대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것이다.

이도송화강줄기에 떠내려가던 성에장들이 거의 없어져가고있던 얼마전에 백두산쪽에서는 동강마을이 생긴이래 아직 들어본적 없다는 장엄하고 신비한 우뢰소리가 길게 메아리쳐왔다. 하늘도 땅도 쩍 갈라내는것 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며 울려오기 한참전에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눈부시게 솟아있던 백설의 백두산이 갑자기 떠오르는 희뿌연 구름속에 잠겨버렸다.

그리고 우뢰소리가 울려온지 여러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성에장들이 없어져가던 이도송화강지류의 넘쳐나는 봄시위물결우에 빙산마냥 두터운 얼음장들과 물에 채 녹지도 부스러지지도 않은 커다란 눈덩어리들이 부석들과 함께 끊임없이 떠내려왔다. 뒤번져진채 물결우에 실려 흘러내려오는 성에장들에도 부석덩어리들이 얼

어붙어있었다. 백두산마루턱밑에 붙어있던 거대한 눈무지와 얼음산이 쩍 버그러지며 무너져내려 동강마을이 생겨서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얼음사태를 일으킨것이다.

백두산에서 마지막 화산폭발이 있은 뒤에 그렇게 요란한 천둥소리가 울린것은 처음이였다.

동강마을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천지개벽의 징조라고들 말하였다. 우리 나라 조종의 산에서 조국광복의 대군이 새로 태여났다고 온 세상을 향하여 웨친것이니 곧 그 대군은 얼음사태마냥 3천리 조국강토우에 쏟아져내려가며 섬오랑캐들을 모조리 휩쓸어버리고 말리라는것이다.

그 일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봄빛어린 동강숲속에 한폭의 유난스럽게 붉은 기발을 앞세운 긴 대렬이 나타났다. 붉은 별이 달린 모자에 견장도 연장도 없는 누런색군복을 입고 총과 배낭들을 멘 대렬이였다. 그 대렬속에는 목에 붉은넥타이를 맨 유표한 한무리의 소년,소녀들도 끼여있었다.

인적이 드물던 고요한 동강의 숲속은 그날부터 술렁거렸다. 도끼소리와 톱소리,구령소리와 웃음소리,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울리고 연기가 피여올랐다.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여러 지역에서 싸우던 부대들과 여러 지역에 나가 활동하던 공작원들,귀중한 손님들이 날마다 몰려드는 동강수림속은 명절처럼 들끓었다.

보초소에서는 연방 들이닥치는 사람들을 맞아들이기에 바빴다.

《어느 부대요? 어데서 오는 사람들이요?》

보초가 묻기 바쁘게 저쪽에서 반겨 화답하는 목소리들이 울렸다.

《그새 안녕들하오? 안도쪽에서 오는 부대요.》

《섯,누구야?》

《남호두에서 헤여졌던 사람들이요. 우릴 모르겠소?》

그리고 다른 보초소에서도 묻는 소리가 울리고 웃음섞인 대답이 뒤따랐다. 순간순간 이어지는 이런 웨침과 서로 오랜만에 만나는 포옹으로 등판은 떠들썩하였다.

봄이다. 완연한 봄이다.

백두산머리에는 여전히 백설이 덮여있고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에는 여전히 부석을 걷어안은 성에장들이 둥둥 떠내려오고있지만 여기 백두산기슭의 해발고 1,800을 헤아리는 높은 등판, 동강숲속에도 봄빛이 깃들었다.

엉성하던 벌거숭이 이깔나무들에는 아직은 찔러주지 못하고 간지럽히기만 하는 야들야들한 짧은 바늘잎들이 돋아났다. 눈석임물에 축축히 젖었던 썩은 락엽밑에서 싹터오른 풀잎들은 어느덧 늘씬하게 자라올라 봄의 미풍에 건들거리며 싱싱하게 넘쳐나는 생기를 풍기였다.

들크무레한 락엽 썩은 내만 풍기던 숲속에 싱그러운 풀향기가 가득찼다.

봄바람은 새파란 잎새들을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수집은듯 고개를 숙인 봉긋한 꽃망울들을 어서 피라고 퉁겨주기도 하고 부지런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새 깃을 간지럽혀주기도 하면서 산들산들 불어왔다.

숲은 초록색 새옷으로 단장하기에 바빴다.

동강의 숲속은 이 봄따라 류달리 일찍 잠을 깬듯싶었다.…

한남실은 숲속을 걸어가고있었다. 새 군복을 입은 잘룩한 허리에는 자그마한 권총을 차고 새 군화도 신었다.

연한 자주빛 할미꽃과 제비꽃을 꺾어든 한남실은 해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연두빛 애잎들을 정겹게 바라보기도 하고 재잘거리는 새소리에 공연히 귀기울이기도 하면서 걸음을 가볍게 옮겨놓았다.

그는 방금 이 동강의 숲속에 새로 지은 귀틀집에다 완쾌한 아동단원들을 데려다놓고 보고하러 사령부로 가는 길이였다. 부대가 전투를 하는동안 다젠창후방밀영에서 건강을 회복한 다음 학습도 하고 군사훈련도 한 아동단원들은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방금 여기 동강에 도착한것이였다.

앓는 아이도 없고 학습성적도 좋은, 한결같이 씩씩한 어린것들의 소식을 들으시면 장군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실것이다.

넓은 등판의 여기저기에 숙영지가 자리를 잡았고 숲속에서는 도끼소리, 톱소리,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왔다.

한남실이 보기에 밀영이 이처럼 환희에 넘친 때는 일찌기 없었던 것 같았다.

맞은편 참나무숲에서는 유격대원들이 길다란 귀틀집을 짓고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창문을 달고 또 한쪽에서는 봇나무껍질로 이영을 얹고있었으며 그 아래켠 공지를 지나서는 벽체를 올리는 귀틀집이 5채나 보이였다.

한남실곁으로 잘 다듬어진 재목을 메였거나 톱과 도끼를 든 유격대원들이 분주스레 뛰여다니면서 한남실을 흘끔흘끔 쳐다보기도 하였다.

한남실은 그 참나무숲을 에돌아서 작식대가 자리잡고있는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도리풍을 친 작식터에서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녀대원들이 방금 점심을 끝내고 뒤따라 저녁을 준비하느라고 샘터에 가서 물도 길어오고 쌀도 씻고 늪식기들을 달그락거리면서 분주하게 뛰여다니고있었다. 평행으로 가지런히 눕혀놓은 통나무우에 놓인 여러개의 소랭이에서 하얀 김이 문문 피여오르고 도리풍밖에서는 유격대원들이 방금 안아들인 산나물을 가리느라고 버쩍 고아대고있었다. 남자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그 커다란 손으로 야들야들한 산나물을 가리는것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와서 한남실은 입을 막고 돌아섰다. 그러는데 어데선가 《남실동무.》 하고 부르는 반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한남실은 목소리임자가 장철구어머니라는것을 알아맞히고는 도리풍맞은편 떡갈나무숲언저리에 눈길을 보내면서 두루 살펴보았다. 떡갈나무가지밑에서 군모를 벗은 장철구가 머리가 버성겨진 얼굴을 내밀고 웃으면서 손짓을 하고있었다.

《철구어머니.》

한남실은 나는듯이 달려갔다.

장철구는 나무절구에다 물에 불군 콩을 찧고있었다. 한남실은 어딘지 모르게 장철구가 한결 젊어졌다고 생각되였다. 나무절구옆에는 새 군복을 입은, 얼굴이 동그스름하여 무척 복스럽게 보이는 낯모를 녀대원이 서있었는데 그는 한남실에게 눈인사를 하였다.

《정말 남실동문 모르지? 이 동문 새로 입대한 동무야.》
장철구는 절구옆에 서있는 그 신입대원한테 눈길을 돌렸다.
《은덕동무, 인사해요. 아동단책임자동무라오.》
한남실은 구대원답게 먼저 손을 내밀어 은덕의 손을 다정스레 잡아흔들며 인사를 하였다.
《우리 손잡구 함께 싸워요. 어데서 입대하였나요?》
《남강부락에서 입대했어요.》
《그래요? 입대한 녀성동무들이 많아요?》
《남성동무들은 많지만 녀성동무는 세 동무예요.》
이때 련대장 차동범이 허리에 찬 권총을 덜룩거리며 지나치다가 한남실을 알아보고는 그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며 반가와하였다.
《오래간만이요. 그래, 아동단원들은 무사히 왔소? 내 한번 아이들한테 가지. 아이들이 보고싶구만. 남실동무, 아이들 문제루 나한테 부탁할게 있으면 아무때건 찾아오오. … 그래 무슨 일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있소? 아하, 이건 내가 좋아하는 콩비지감이군. 허, 이거 철구어머니 덕분에 생일을 쇠게 됐군.》
하고 차동범은 절구확을 기웃이 들여다보며 웃기까지 하였다.
《련대장동지가 오신다기에 특별히 준비하는중이라우.》
장철구는 보란듯이 절구를 차동범쪽으로 기울였다.
《누구누구해도 철구동무가 제일이라니까.》
이어 절구공이 오르내리고 그에 따라 웃음소리가 한결 높아졌다.
차동범은 권총을 흔들거리며 저쪽으로 걸어갔다.
녀대원들은 절구공이를 마주잡고 다시 콩을 찧었다. 처음에는 콩이 밖으로 튀여나가지 않게 조심조심 찧다가 차츰 힘있게 절구공이를 들었다놓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동범련대장동지는 아주 기분이 좋았구만요.》
《모두들 명절날처럼 들끓지. 요즘은 매일 명절이라니까. 신입대원들이 날마다 입대를 하지, 서로 헤여졌던 동무들을 만나지, 또 지방조직에서도 사람들이 쓸어들고… 장군님을 오랜만에 가까이 모시게 되니 모두 어린애들처럼 기뻐들할밖에…》
《사방에서 이렇게 모여드는걸 보니 큰 회의라도 있는게 아닌

가요?》
절구공이는 한결같이 머리우로 오르내리였다.
《장군님께서 큰 회의를 준비하고계셔. 그래서 차동범련대장동무도 어깨를 으쓱거리며 기분이 좋아 다니지.》
콩이 밖으로 튀여나지 않게 절구확을 감싸고 선 은덕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양을 재미있게 보고있었다.
《무슨 회의게요?》
《아주 중한 회의라구 하더구만. 간부들은 다 모인다니까. 그래서 작식대에서두 이렇게 바쁘지 않어. 〈대통령감〉은 이번 회의가 조선혁명에서 큰 사변으로 되는 회의라구 하더군. 그래서 출판소에서는 밤을 밝혀가며 무슨 문건들을 만든다누만.》
《그렇다면 우리 아동단원들도 노래와 춤을 준비하겠어요. 가만 있을수 없지요뭐. 노래 잘하는 문순녀도 있고 하모니카 잘 부는 응남이두 있고. 한번 연예공연을 크게 준비하겠어요. 철구어머니, 어때요?》
《정말 그게 좋겠구만. 참 좋은 생각을 했어. 아동단원들의 공연을 보면 유격대원들은 더 말할것도 없구 손님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아동단공연준비를 생각한것이 한남실자신에게도 신통하게 느껴졌다.
《아동단공연을 하면 저도 꼭 보도록 해주세요.》
은덕의 간절한 부탁에 그렇게 하자고 약속하며 철구는 절구통을 기울이더니 빻아진 콩을 번들거리는 늪소랭이에 퍼담았다. 한남실이 절구공이를 들고있자 은덕이 그것을 빼앗다싶이 가져다가 훔치였다.
한남실은 한켠에 나서서 절구를 두루 살펴보았다.
《절구를 참 잘 만들었어요. 그냥 지고다니면서 썼으면 좋겠네!》
웬일인지 철구는 머리를 들어 한남실을 곱게 흘겨보았다.
《내가 절구소리를 했더니 장기령동무가 어느새 제꺽 만들어놓았지. 손재간이 얼마나 좋은지…》
철구의 말에 한남실은 저도모르게 얼굴을 살짝 붉혔다. 사실 아

까부터 장기령의 소식을 묻고싶으면서도 부끄러워 입밖에 내지 못했던 남실이다.

《아유, 그 뚝바우가 이런걸 다 만들어요?》

《남실동무는 아직 장기령동무를 잘 몰라.》

《장기령동지는 싸움도 잘하구 얼마나 인정이 많은지 몰라요.》

갑자기 은덕이가 장기령을 두둔해나서는바람에 한남실은 어안이 벙벙하였다.

장철구는 인차 한남실의 마음속을 알아차리고 정겹게 웃어보이였다.

《남실동무, 은덕동무는 장기령동무가 보증해서 입대했어. 장동무한테 부엌녀동무를 아는가고 물어보지?》

철구는 입대후에 부엌녀의 이름을 은덕이라고 고쳤다는것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다 한남실에게 있어서 처음 듣는 새 소식들이였다.

《남실동무는 잘 모를거야. 장기령동무는 지난번 남강부락전투때 아주 잘 싸웠어. 미야께대장놈을 쏘아눕힌게 누군줄 아나? 바로 장동무야. 그날 장동무는 기관총명사수 솜씨도 톡톡히 보여주었지. 혼자서 글쎄 한개 소대나 쓸어눕혔다나. 장군님께서는 기관총소리를 들으시고 벌써 그게 장동무의 솜씨인줄 알아내셨다니까. 장군님께서는 전투총화를 하시면서 표창으로 장동무에게 그날 전투에서 로획한 기관총을 수여하셨지.》

나무가지들은 잔잔한 미풍에 설레였다.

그들과 헤여진 한남실은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숲속을 가벼이 헤쳐나갔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것이 기쁨에 차있는것만 같았다.

2

숲에는 봄이 늦게 찾아왔지만 한번 찾아온 다음은 빨리도 무르익

어갔다. 숲에서 겨울의 흔적을 찾을수 없는것처럼 한남실의 말쑥한 군복차림에서도, 청신한 생기가 어린 그의 얼굴에서도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헤쳐오면서 당한 그 엄청난 시련의 흔적은 티끌만큼도 찾아볼수 없었다. 이제 와서는 누구도 그 일을 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을 아침저녁으로 대하게 되는 한남실이도 그때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였다.

한껏 부푼 애기주먹만한 버들강아지가 달린 버들가지를 꺾어든 한남실은 아름드리 이깔나무가 듬성듬성 널려있는 공지를 사뿐사뿐 걸어가며 이마우에 드리운 햇솜같이 부드러운 송라를 만져보기도 하고 두터운 락엽층을 헤치고나온 햇나물순을 따서 입술에 갖다대기도 하면서 코노래를 불렀다.

버들강아지로 볼을 비비면서 걷던 한남실은 신발이 축축해진것을 느끼고 발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앞에는 썩은 락엽우에 비물이 흥건히 고인 진펄이였다. 에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맞춤한 이깔나무가지를 얻은 한남실은 그것을 지팽이삼아 짚고 진펄에 길게 누운 진대를 타고 가다가 듬성듬성 풀뿌리가 얽혀서 자그마한 봉우리를 이룬 꼬지개대가리를 찾아 밟으며 돌다리 건느듯하였다.

《아이— 속상해.》

한남실은 다음에 밟을 꼬지개대가리를 살펴보았다. 서너발자국앞에 커다란 꼬지개가 있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 발길을 옮길수가 없었다. 누가 앞에서 나무다리를 놔주었으면 좋으련만…

언제인가 유격근거지에 있을 때 장기령이와 함께 이런 진펄을 건느던 생각이 났다. 그때 장기령은 망설이는 자기 발앞에 긴 장대를 걸쳐놓아주었다. 물론 그 진펄은 깊었지만…

저도모르게 장기령의 생각에 빠져든 자신을 발견한 한남실은 《흥—》 하고 코소리를 치며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내밀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무어나 장기령생각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왜 이래? 우쭐해져서는 얼굴 한번 내밀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장기령생각때문에 스스로 화가 난 그는 다시한번 그 먼 꼬지개를 바라보며 주저주저하다가 손에 든 이깔나무가지를 깊숙이 땅에

박고 휭—하고 몸을 날렸다. 어떻게 되여 그렇게 먼거리를 뛰여넘었는지 놀라운 일이였다. 여느때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것이였다.

《제가 우쭐해질 근거가 없지뭐. 자기보다 더 잘 싸우는 동무들이 얼마나 많게?》

한남실은 입술을 내밀고 이제 가야 할 길을 두루 살펴보았다.

여전히 비물이 고인 진펄이기는 하지만 전보다 험하지 않아서 그럭그럭 군화를 마치지 않고 갈수 있을것 같았다. 진대나무도 누워있고 품을 들이지 않고 잠간 에돌아갈데도 있었다.

문득 이깔나무숲속에서 말울음소리와 함께 공기를 째는 채찍소리가 울려왔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떠들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데 어울려왔다. 이윽하여 이깔나무줄기들 사이사이로 말파리행렬이 언뜻언뜻 보이였다. 말파리에는 쌀포대가 늘어지게 쌓이였다. 유격대원들은 대가리를 마구 내젓는 말을 끄당길라, 앞을 막는 잡관목을 헤칠라, 게다가 진펄을 피해 밟을라 바빴지만 호탕한 웃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이놈아, 인민들의 정성을 싣고 가는데 이렇게 흙탕물만 튕기면 어떻게 해?》

《아, 앞에서 뭘 그리 꾸물거리는거요? 쭉쭉 뽑으라구—》

《진펄이야, 진펄.》

걸걸한 목소리에 뒤이어 채찍소리가 울리였고 철썩철썩 진펄을 가르는 말발굽소리가 들렸다.

한남실은 여전히 이깔나무사이를 누비며 흐르는 말파리대렬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드디여 마지막 말파리가 지나가는데 가만 보니 그중 힘들어하였다. 실은 짐은 곱으로 많고 말은 어데서 골라잡았는지 힘을 쓰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그 말파리를 몰아가던 체격이 건장한 유격대원은 진펄에 말파리가 빠지기 시작하자 《자, 자, 좀 당겨보아. 응?》 하면서 멍에를 쳐들어주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며 느릿느릿 진펄을 지나고있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멈춰서고말았다.

유격대원은 앞에서 진펄을 밟아보며 길을 가늠하고는 다시 말을 몰았으나 말파리는 앞뒤로 흔들흔들하기만 하고 나가지를 못

하였다.

한남실은 저만치 지나간 말파리를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짐을 실은것을 보니 욕심이 대단한 동무였다. 앞뒤로 몇번 들까부는 바람에 짐우에 비끄러매두었던 군용밥통이 아래로 흘러내린채로 데룽거렸다. 밥통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뚜껑이 아래로 기울어지면 그안에 들어있는것이 진펄에 쏟아질판이였다.

한남실은 위태로운 그 밥통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말파리를 향하여 달려갔다. 군화가 흙탕물에 범벅이 되는것을 생각할 사이도 없이 그는 금방 뚜껑이 아래로 기울어지는 밥통부터 얼른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겨우 움직이기 시작하는 말파리를 힘껏 밀면서 말했다.

《동무, 말을 잡아채시라요. 욕심을 너무 부렸군요.》

앞에서 유격대원이 반죽좋게 받아넘겼다.

《이랴 쯧쯧. 동무, 고맙소. 욕심을 안부리게 됐소.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기만 하면 실을판인데…》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이였다. 한마디만 들어봐도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통이 큰 좋은 동무 같았다. 한남실은 미소를 지으며 온힘을 다하여 힘껏 밀었다.

《별을 누가 따주겠어요. 참 뚱딴지 같군요.》

한남실의 말소리는 힘을 쓰느라고 다소 진펄에 잦아들기도 하면서 동강이 났다. 짐바리너머로 들려오는 유격대원의 목소리도 웅얼웅얼 똑똑치 않았다.

《허허, 이랴, 바른쪽으루… 옳지. … 그야 알겠소, 누가 따줄지. … 혹, 동무가 따줄수도 있지 않소.》

한남실은 그 흐물흐물하는 말투며 목소리가 어데서 듣던 소리 같았으나 말파리가 빙그르 도는바람에 한쪽으로 기울어질듯하는 짐을 붙잡느라고 더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어쨌든 말문이 막힌것은 한남실쪽이여서 톡톡한 대답을 주고싶었지만 신통한 말마디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럭저럭하는 사이에 겨우 진펄을 벗어났다.

한남실은 밥통을 단단히 처매놓고 말파리뒤에서 물러났다. 그런것도 모르고 그 유격대원은 앞을 가로막는 풀숲과 잡관목을 헤

치면서 그냥 말파리를 몰았다. 깊은 숲속이라 인차 말파리도 사람도 풀숲에 가리워지고있었다.

한남실은 수고하는 동무에게 공연히 퉁명스럽게 말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멀어져가는 유격대원의 등에 대고 인사말을 보냈다.

《동무— 수고하겠어요. —》

무엇때문인지 그 욕심쟁이 유격대원의 대답이 없는것이 섭섭했다. 어디선가 꼭 듣던 음성이였다. 그는 혹시나 하고 대답을 기다리며 귀를 기울였으나 말울음소리가 늘어지게 울릴뿐이였다. 한남실은 자기도 알수 없이 심란해지는 마음을 안고 돌아서서 말파리가 지나간 길을 따라 오던 길을 걸어갔다.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러나 숲속은 쥐죽은듯 고요하고 어데선가 산새들이 처량하게 우짖었다.

그가 버들강아지를 볼에 대고 쓰다듬으며 다시 걸음을 옮길 때였다.

뜻밖에도 등뒤에서 《동무—》 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한남실은 귀익은 그 목소리를 다시금 듣는 순간 심장이 후두둑 뛰였다. 이제는 돌아보지 않아도 그 목소리의 임자가 누구라는것을 너무도 똑똑히 알수 있었다. 그는 굳어진듯 버들강아지를 쥔 손을 가슴에 꼭 대고 옴짝하지 않았다.

《남실동무！》

이쪽에서 대답이 없자 그 유격대원은 좀 갈린 목소리로 다시 찾았다.

《남실동무, 나요. 장기령이요.》

이윽고 몸을 돌려 그를 쳐다보는 한남실의 두눈에는 물기가 어렸다.

장기령은 유격근거지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실팍해보이지 않았고 그대신 키가 후리후리하게 커보이였다.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얼굴빛은 검실검실하였으나 어딘지 모르게 전보다 훨씬 의젓해보였다.

한남실은 장기령이 잡아흔드는대로 손을 맡기고 한동안 말없이 서있었다.

장기령도 구태여 한남실한테서 이야기를 바라지 않는듯하였다.

목소리보다 몰라보게 변한 그의 모습을 보고싶었다.
몸에 착 맞는 보위색군복에 권총이 달린 혁띠로 허리를 잘룩하게 동인 한남실의 몸매는 날씬하였다. 군모밑으로 흘러내린 머리칼은 땀발에 촉촉히 젖어있었다. 상냥하면서도 고집기가 있어보이던 눈빛은 정숙하고 담담하여 한남실을 한결 돋보이게 하였다.
《남실동무, 정말 이렇게 만날줄은 몰랐소.》
장기령은 또 한번 손을 잡아흔들며 자기의 말로는 다할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표시하였다.
한남실은 처음에는 놀랐고 다음에는 내심 반가왔으나 이런 내색을 비치지 않기 위하여 말파리가 있을 저편 숲속을 바라보았다.
《말파린 일없어. 인제는 진펄이 없으니까 빨리 갈수 있소. 걱정마오.》
장기령은 한남실의 새 군화를 내려다보며 머리를 흔들었다. 자기때문에 그가 군화를 마치였다고 생각할 때 미안했다.
《남실동무, 어째 기분이 좋지 않구만. 여하튼 말파리 있는데로 좀 가자구.
그래 어델 가던 참이요?》
장기령은 한남실의 눈앞에 드리우군하는 풀대와 나무가지를 서둘러가며 밀어놓기도 하고 꺾어버리기도 하면서 앞서 걷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다소 의아한 눈길로 한남실의 얼굴이 아니라 흙탕이 게발린 그의 군화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그동안 앓지는 않았소?》
《…》
《아동단원들은 모두 잘 있소?… 아, 이쪽으로 나서오. 물탕이구만. …》
장기령은 발밑에 고인 물탕을 가리키며 한남실의 손을 잡아 이끌려 하였으나 한남실은 손을 내주지 않았을뿐아니라 한치도 비켜서지 않고 물탕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버렸다. 장기령은 놀란 눈을 껌벅거렸지만 한남실은 본체만체하였다. 한동안 그들은 말없는 가운데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장기령은 앞서 걸으면서 한남실을 위하여 여전히 나무가지를 꺾어놓기도 하고 인제는 그럴 필

요도 없는 물탕을 눈여겨 살피기도 하였다.

말파리 있는데 오니 한남실이 처매놓았던 그 군용밥통이 다시 처져버렸고 뚜껑까지 들려서 불깃불깃한 고추장기름이 새여나왔다. 한남실은 얼른 밥통을 손에 받쳐들었다.

장기령이 엉거주춤 서있다가 한남실의 손에서 밥통을 받아들려고 커다란 두손바닥을 펼쳐들었을 때였다.

《어서 말을 모세요.》

한남실은 밥통을 손에 든채 고집스럽게 말하였다. 그러나 장기령은 그 목소리가 따뜻하고 인정이 흐르는것 같이 느껴져서 속으로 한남실을 고맙게 생각하였다.

《욕심스레 짐을 실은걸 보구 난 동무인줄 알았어요. 하늘의 별까지…》

《…》

이번에는 장기령이 대답이 없었다.

장기령은 심드렁해서 말한테로 갔다. 요동하는 말을 달래이고 나서 먼저번처럼 뒤를 돌아다보았다. 한남실은 밥통을 꽁꽁 처매느라고 허리를 굽혔기때문에 권총집과 군화만 보이였다.

앞에서 인기척이 없자 한남실은 다시 소리쳤다.

《하늘에 별이 돋기를 기다리는 모양이군요.》

그러자 장기령의 볼부은 소리가 울렸다.

《남실동무, 아무렴 동무가 그럴수 있소? 내라는걸 알면서 그냥 돌아선단말이요? 아마 난줄 몰랐겠지. …》

《그럼 제가 동무를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한남실은 허리를 펴고 놀라와하는 장기령을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판단은 동무 량심에 맡기오.》

이번에는 장기령이 등을 돌리고 돌아섰다.

《량심? 동무 량심이나 반성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실동무앞에서는 내 량심이 깨끗하오.》

장기령은 돌아서더니 와락 목단추를 끌렀다.

《그렇게 량심이 깨끗한 동무가 보구서두 그냥 돌아섰군요? 다젠창병원에 왔다가 그냥 돌아갔지요?》

《남실동무, 그건 사실…》
한남실은 저편으로 눈을 돌리였으나 장기령이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을 느끼였다.
《남실동무, 난 사실 동무를 만나보고싶었소. 할 이야기도 많았지. 다젠창밀영병원에 갔을 땐 시간이 없었소. 원장동무는 남실동무가 약초캐러 산으로 갔다면서 좀 기다리라더군. 그래서 기다리는데 동무가 와야지. 사실 그땐 내가 아주 급한 임무수행중이였소. 무송에 가있는 리경준동무한테 사령부의 지시를 전하러 가는길이였소. 이제 리경준동무가 오면 물어보라구. 정말인지 아닌지. 오늘래일 리경준동무가 돌아올거요. 그리고 작식대에 들렸던 일이 있었소. 아이들 옷 견본을 토론하다가 귀틀집문밖에 남실동무가 척 나선걸 보았지… 나는 숨어버렸어. 왜 숨었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소. 내 심장은 만났으면 하는데 내 량심은 허락하지 않더군. 혁명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놓고 동무를 만나서 그것으로 동무에게 기쁨을 주자고 했지. 그 생각이 잘못이였다면 날 용서해달라구. …》 장기령은 눈길을 떨구고 한손에는 말고삐를, 다른 손으로는 진한 토색의 말갈기를 쓸어내리면서 긴숨을 쉬였다.
한남실은 여직 손에 들려있는 버들강아지를 이윽토록 내려다보았다.
장기령의 말이 지금처럼 가슴을 울리기는 처음 같았다. 말이 요동치는바람에 짐바퀴에 걸었던 띠가 처져내렸다. 한남실은 띠를 조이는 장기령의 일손을 도와주었다. 그러다가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 발구옆에 누운 진대나무에 나란히 걸터앉았다. 그렇게 한동안 말이 없었다.
먼저 장기령의 말소리가 낮게 울리였다.
《남실동무, 난 동무가 보내준 그 딱딱한 편지때문에 가슴을 앓았소.》
《내가 무슨 편지를 보냈게요?》
한남실은 의아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편지라기보다는 전보문이였소. 〈장동무, 량해해주세요. 일이 바빠서 못가고 이렇게 인편에 전합니다. 만나면 꼭 하자던 말인

데 장동무, 정말 부탁입니다. 학습을 하셔야 해요. 동지로서 부탁합니다. 한남실 올림〉》

그것은 한남실이가 급히 몇자 적어보낸 쪽지편지였다. 편지내용도 그렇고 시일도 많이 흘러 한남실은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장기령은 편지구절을 외우고있는것이다.

《정말 내가 그렇게 썼던가요…》 하고 중얼거리는 그의 맑은 눈에는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행복스러운 빛이 어리였고 고운 입매에는 웃음이 가볍게 떠올랐다. 그러나 그 눈빛과 미소를 장기령은 보지 못하였다. 그 눈빛과 미소야말로 장기령이 간절히 바라던것이였으나 이때 그는 자기 생각에 잠겨 저편 먼 산발을 바라보고있었던것이다.

《딱딱한 편지였지. …》

하고 장기령은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다는듯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 편지는 제일 어려운 시기에 늘 나와 함께 있었지.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위로해주면서말이요. 사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늘 나는 남실동무 생각이야.》

갈갬질을 잘하던 말이 이상하게도 잠잠히 서있었다. 이쪽에 머리를 돌리고 눈을 데룩거리다가 이야기의 뜻을 알아차리기라도 한듯 길다란 목을 아래로 떨구고 끄덕거렸다.

《나쁜놈들이 나한테 그 더러운 협의를 씌웠을 때 나는 가슴이 쓰리고 아파서 울었어. 울면서도 동무를 생각했지. 아버지, 어머니와 동생 셋을 왜놈 〈토벌〉에 잃은 내가 그 원쑤를 돕다니? 원통하고 분하고… 눈앞이 캄캄했지. 난 남실동무만 내 심정을 리해해주리라고 믿었어. 아, 그 일을 다 이야기해선 뭣해… 장군님께서 그 저주로운 협의를 벗겨주시고… 사랑의 품에 안아주실 때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어. … 일생 잊지 못할 그 기쁨을 받아안았을 때 난 남실동무한테 막 달려가고싶었지. …》

검실하게 탄 장기령의 거친 두볼우로 쭈르륵 눈물방울이 굴러내렸다.

《나는… 장군님 품속에서…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난 사람

이야.… 나는 외롭지 않아. 장군님께서 계시고… 이렇게 남실동무가 옆에 있는데 내가 왜 외롭겠어?》

장기령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있었다.

한남실의 눈에도 눈물이 핑 고이였다. 신록이 우거진 맞은편 참나무숲도 흰구름이 떠도는 푸른 하늘도 눈물때문에 희뿌옇게 보이였다.

《장동무 말이 옳아요. 옳아요.》

한남실은 머리를 숙인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장군님의 손길이 아니였더라면 나도 이렇게 장동무를 만날수 없었을거예요. 아동단원들두 그렇구요.… 장동무의 이야기는 나도 들었어요. 나도 가슴이 막 찢어지는것 같았어요. 뜬눈으로 밤을 밝히면서 늘 장동무 생각이였어요.》

한남실의 볼에서 흘러내린 눈물방울은 손에 든 버들강아지우에 떨어져서는 축축히 스며들고있었다.

얼마후 두사람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마주보며 처음으로 소리없이 웃었다.

장기령은 한남실의 손에서 버들강아지를 받아들고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벌써 버들강아지가 이렇게 피였군. 우리 고향 내가에도 봄이 되면 이런 버들강아지가 피군하였소. 조국땅에도 봄일거요.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남실동무와 나란히 서서 그리운 조국땅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얼마나 좋겠소!》

한남실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다. 봄바람이 그의 함함한 귀밑머리를 가볍게 날리였다.

《오래지 않아 조국으로 진군한다고 해요. 그때 정말 장군님을 모시고 우리 함께 조국으로 가자요.》

한남실의 눈물에 젖은 눈은 은은히 빛났다. 장기령은 한남실의 정에 넘친 목소리가 가슴에 흘러드는것을 행복속에 느끼며 역시 눈물이 어린 눈으로 먼 숲의 저쪽 변두리를 바라보고있었다.

3

한남실이 나머지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동강밀영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이였다.

어제밤 늦게까지 래일부터 열리게 될 회의준비와 각지에서 모여든 대표들과의 사업때문에 좀처럼 짬을 내지 못하시여 한남실의 보고만 받으셨을뿐 아직 새로 온 아동단원들을 만나보지 못하신 장군님께서는 일부러 아침 첫시간을 내시여 아이들에게로 향하시였다.

가시는 걸음에 그이께서는 사령부에서 얼마쯤 떨어진 숲속에 새로 큼직하게 짓고있는 귀틀집에 들리시였다. 래일부터 회의장으로 쓰게 될 귀틀집이였다.

엊저녁에 7련대에 지시를 주시였는데 신새벽부터 어찌나 날파람있게 손을 썼는지 귀틀벽 네벽을 아침결에 벌써 거의다 맞춰올렸다. 하긴 7련대의 도끼목수군들이라고 하면 도끼와 톱만 가지고서도 한채의 귀틀집쯤은 한겻에 제꺽 맞춰내는 솜씨를 가졌기로 유명한 사람들이다.

군복상의저고리를 벗어붙이고 땀을 철철 흘리며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어제날의 《민생단》혐의자들이였던 7련대의 도끼목수들과 가벼운 롱말까지 건네시며 귀틀집이 되여가고있는것을 만족스럽게 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마냥 즐거운 기분에 잠기시여 돌투성이의 개울을 건느신 다음 우묵하게 꺼져든 골짜기에 들어서시였다. 이깔나무숲은 연한 안개속에 잠긴채 묵묵히 서있었다.

그이께서 이끼낀 진대나무를 돌아서 맞은편 약간 둔덕진 언덕에 올라서실 때였다. 아름드리 분비나무밑에서 불현듯 《섯！ 누구냐！》 하는 새된 목소리가 울렸다. 처녀애의 챙챙한 목소리였다.

장군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뒤따르는 리북철과 주봉길을 돌아보시며 소리없이 웃으시였다. 리북철이 보초병에게 장군님께서 오신다는것을 알리려고 앞으로 가려 하자 그이께서는 그러지 말라

고 손짓하시였다.

《누구야, 섯!》

또다시 새된 목소리가 울렸다. 연한 안개때문에 보초병은 보이지 않았다. 주봉길이가 참지 못하고 사령부에서 온다고 알렸으나 보초병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하, 이거 야단났군.》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대견스러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우리 아동단원들이 보통이 아니군. 보초병의 다음 명령을 기다립시다.》

그이께서는 딱한 표정을 하고있는 리북철과 주봉길을 돌아보시며 나직하게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가둑나무숲을 헤치는 소리가 나더니 안개속에서 한남실이 나타났다. 그는 보초소를 순찰하고 돌아가던길에 보초병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오는 모양이였다.

한남실은 눈앞을 가리우는 가둑나무잎을 조심스레 헤치면서 이쪽을 살피더니 장군님의 모습을 알아뵙고는 대뜸

《장군님!》

하고 소리치며 달려왔다. 한껏 웃음을 머금은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그것으로도 반가움을 다 드러내지 못한듯 미소가 넘친 입술이 방끗 열리여 무슨 말씀인가 더 올리려고 하였으나 리북철의 어색한 웃음과 주봉길의 찌프러진 이마살을 보더니 한남실은 곧 보초병때문에 장군님께서 지체되셨다는것을 눈치챈듯 저으기 당황해하였다.

장군님께서는 한남실의 마음속을 헤아리시고 웃으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였다.

이때 잣나무밑에서

《장군님!》

하는 처녀애의 목소리가 울리고 뒤이어 문순녀가 풀숲을 헤치며 달려나왔다. 그의 허리에는 수류탄 한개가 매달려있었다.

《순녀가 보초를 섰댔구나! 참 용하구나.》

장군님께서는 문순녀의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였다. 한

남실은 장군님께서 오신줄도 모르고 무엄하게 멈춰서시도록 한 순녀에게 나무람하는듯한 눈길을 보냈으나 소녀는 장군님을 맞이한 기쁨때문에 한남실의 그런 눈길을 감촉하지 못하다가 주봉길이 입을 삐죽거리고 눈살을 찌프려 보였을 때에야 자기의 실책을 깨달았다. 죄송스러움을 느낀 순녀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머리를 숙였다.

《보초병은 그렇게 엄격해야 한다. 잘했다.》

그이께서는 갑자기 풀이 죽어버린 문순녀를 오히려 칭찬해주시고 허리를 굽히시여 그의 혁띠고리를 바로잡아주신 다음 이슬에 젖은 옷섶을 어루만져주시였다.

《인제는 제법 유격대원 같구나. 순녀가 소왕청근거지에서 연예공연을 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순녀는 독창을 잘 불렀지. 인제는 어른이 다 되였구나.》

그러시고는 순녀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기시였다.

한남실은 장군님을 모시고 아동단귀틀집이 자리잡고있는 골짜기막바지로 올라갔다.

개버들숲속으로 졸졸 흐르는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일행이 중간 보초소를 통과하여 이깔나무에 둘러싸인 귀틀집마당으로 가까이 갔을 때 아동단원들은 훈련중이였다. 《앞으로 갓!》구령에 따라 소년,소녀들이 두패로 나뉘여서 좁은 공지를 빙빙 돌고있었다. 가둑나무껍질로 물을 들인 누런 옷을 입고 머리에도 같은 색의 모자를 쓰고 흰 운동화를 신은 아동단원들이 땅을 구르며 호기있게 행진해나갔다. 얼굴은 해빛에 타서 거밋거밋하였고 모자채양밑에서는 까만 눈이 당돌하게 번쩍이였다. 무겁게 다문 입술과 긴장된 눈초리는 그들이 온 정신을 훈련에 쏟아붓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마당 한복판에는 늘씬한 허리에 혁띠를 바싹 죄여매고 모자를 꾹 눌러쓴 아동단원이 틀스럽게 뻗치고 서서 대렬을 지휘하고있었다. 그 애는 챙챙한 목소리로 좌로,우로,앞으로 하며 구령을 쳤다. 조경수였다.

《음,아동단학교 나팔수로군. 우리 아동단원들이 모두가 건강

해졌구만.》

그들은 어떻게나 훈련에 열중하였던지 장군님께서 가까이에 와계시는줄도 몰랐다. 한남실은 장군님께서 오셨다고 소리치고싶은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며 아무나 이쪽으로 눈길을 돌렸으면 하고 바랐으나 곁눈질하는 아이 하나 없었다.

《남실동무가 수고한 보람이 있소.》

훈련을 지도하는 조경수가 휴식구령을 내렸을 때에야 장군님께서는 귀틀집마당에 들어서시였다. 그제야 그이께서 오신줄을 알게 된 아동단원들은 《장군님—》 하고 저마다 소리쳐 부르며 달려와서 그이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물결처럼 순식간에 장군님을 휩쌌다. 그이의 군복자락에도 권총갑에도 전투가방에도 마구 매여달렸다.

《잘들 있었느냐？》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이렇게 물으시였다.

《예.》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예—》

대답은 한결같이 기운찼다.

장군님께서는 다젠창에서 지내다가 건강해져 돌아온 아이들을 눈여겨 살펴보시며 그 애들과 한동안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누시였다. 그러자 사내애들은 가둑나무물을 들인 저고리아래섶을 빳빳하게 잡아당기거나 신발에 오른 먼지를 털었고 처녀애들은 주름이 반듯한 치마에 묻은 검불을 털었다.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장군님께 될수록 깨끗한 옷차림을 보여드리려고 마음을 썼다.

문득 빙 둘러선 아이들뒤에서 《장군님！》 하는 사내애의 맑은 목소리가 울렸다. 아동단원들이 뒤를 돌아다보며 길을 내주자 명일이가 장군님 앞에 걸어와서 굽석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기특하시여 명일을 덥석 들어안으시였다.

《우리 명일이구나. 인제는 꽤 무겁구나. 그래 명숙이랑 잘 있었니？》

《예.》

《어머니도 건강하시다지？》

《예.》

명일은 이번에도 기운차게 대답했다.

장군님의 품에 안긴 명일은 장한듯 다른 아동단원들을 내려다보았다.

《잘 왔다. 아버지를 보구싶었지?》

《아닙니다.》

《명일이가 나에게 걱정끼칠가봐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라고 어머니가 일러서 보낸게구나.》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다. 명일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일없다. 이제 인차 명일이가 보고싶었던 아버지를 만나보게 될게다. 명일이는 아버지랑 같이 사진을 찍구싶다지? 아버지가 오면 어머니랑 명숙이랑 같이 찍자. 여기 있는 아동단원들두 한장 찍구.》

《장군님도 우리와 같이 찍어주지요?》

《그래 그래, 나도 같이 찍자꾸나.》

아동단원들속에서는 환성이 일어났다.

이윽고 장군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풀밭에 앉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빙 둘러앉은 아동단원들을 잠시 정겹게 돌아보시였다.

《경수는 언제 구령치는 법을 배웠느냐?》

장군님께서는 맨 뒤줄에 앉아있는 조경수에게 물으시였다.

한남실은 언뜻 자기를 바라보는 조경수에게 어서 일어서서 말씀드리라고 눈짓을 하였다. 조경수는 힘있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동단에서 배웠습니다.》

《경수는 나팔도 잘 불지?》

《잘 불지 못합니다.》

《그래 경수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하루밤에 백리를 달릴 자신이 있느냐?》

《자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좋다. 캄캄한 밤이다, 비가 막 쏟아진다, 이때 너는 우등불을 어떻게 피울테냐?》

조경수는 눈을 깜박거리며 생각에 골몰하였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서로 조경수와 한남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장군님께서는 한남실에게 웃음을 보내시며 조경수의 대답을 기다리시였다.

《아, 알겠습니다.》

조경수는 자신있게 말씀올렸다.

《비가 와도 봇나무껍질은 젖지 않습니다. 속껍질을 벗겨서 밑불을 피우면 젖은 나무로도 우등불을 크게 놓을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긴장했던 얼굴에 웃음을 담고 저희들끼리 머리를 끄덕이였다.

《옳다, 잘 대답했다. 그만하면 비오는 날에 젖은 옷을 말릴수 있겠다. 그럼 이번에는…》

장군님께서는 주봉길이한테서 장총을 받으시여 조경수에게 넘겨주시였다.

《분해결합을 한번 해보아라.》

조경수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격발기를 열어제끼고 탄알이 없는가 검열을 하였다. 그 동작이 제법 총을 많이 다루어본 사람처럼 의젓하였다.

조경수는 모자를 벗어 풀밭에 놓고 두눈을 딱 감았다.

《눈은 왜 감느냐?》

《저는 보지 않고 합니다.》

《그래, 어디 보자.》

조경수는 눈깜박할 사이에 장총의 분해와 결합을 끝냈다. 그리고 모자를 썼다. 그의 얼굴에는 한번 더 뽐내고싶어하는 기색이 은근히 어렸다.

장군님께서는 탄복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경수가 눈을 감고 그렇게도 빨리 분해결합을 해치우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였던것이다.

《누가 또 눈을 감고 해보겠니?》

《예.》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은 일제히 손을 들었다. 천응남은 엉거주춤 일어서기까지 하였다. 보초를 교대하고온 문순녀가 손을 제일 높이 들었다.

장군님께서는 대단하다고 칭찬하시며 모두 손을 내리라고 말씀하

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요즘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학습하는가고 물으시였다.

문순녀가 일어서서 남호두회의에서 하신 장군님의 보고를 배웠다고 말씀드렸다.

《공부 잘했는지 내가 하나 물어봐야겠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은 어떤 사람들로 조직되였는지 어디 한번 대답해봐라.》

명일이가 얼른 일어나서 마른침을 꿀깍 삼키고 눈을 깜박깜박하더니 쟁쟁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로 조직되였습니다.》

《유격대는 누구의 리익을 위해서 싸우느냐?》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있습니다.》

《잘 대답했다. 공부를 잘했구나.》

얼마후 아동단원들은 2렬 횡대로 나란히 정렬하였다. 장군님께서는 그중 숙성해보이는 조경수, 문순녀 그리고 천응남을 대렬앞으로 부르시였다. 정보로 걸어나와 나란히 선 그 세명의 숙성한 아동단원들은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머리들을 쳐들었다. 그 어떤 명령이 떨어지건 자신있게 해낼수 있다는 기상들이였다.

그 어른스런 모습을 잠시 미덥게 살펴보시던 장군님께서 그들 세명을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으로 받아들인다고 선포하시려고 하셨을 때 와삭와삭 소리를 내며 누군가 숲을 헤쳐나왔다. 전령병 한종삼이였다.

허겁지겁 풀판으로 달려나온 그는 장군님을 뵈옵자 이것저것 살피고 헤아려 처신할 경황이 없는듯 곧장 그이곁으로 다가갔다. 한종삼의 얼굴은 흙빛이 되여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경례붙일것마저 잊어버리고 곁에 와 선 전령병을 의아쩍게 돌아보시였다.

종삼이가 말하기를 꺼리며 주저하는것을 알아차리신 장군님께서는 그를 데리시고 저편으로 몇걸음 물러나시였다.

무어라고 여쭙는 전령병의 몇마디 말을 들으시자 장군님께서는

대뜸 안색을 흐리시였다.

《정말이요?!》

불쑥 이렇게 소리쳐 물으시는 장군님의 음성에는 짙은 의혹이 비껴있었다.

전령병은 우물거리며 같은 말을 거듭 여쭙다가 머리를 숙이고 말았다.

전령병이 그러는 모양을 지켜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돌아서시여 눈으로 리북철을 찾으시였다. 방금전까지 그렇게도 밝으셨던 장군님의 안광에는 짙은 그늘이 져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떨리는 음성으로 리북철경위중대장에게 대렬앞에 나선 세 아동단원을 입대시킬데 대하여 선포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는 아동단원들과 시선을 마주치시는것조차 피하시며 급한 걸음으로 떠나시였다. 주봉길이와 한종삼이도 황황히 뒤쫓아갔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즐거운 웃음이 들들 구을던 풀밭에 야릇한 불안이 스며들었다.

4

장군님께서는 그럴수 없다, 그럴수 없다고 거듭거듭 마음속으로 되뇌이시며 나무가지들을 마구 헤쳐나가시였다. 발에 걸채이는 풀대들과 관목덤불들을 마구 짓밟아나가시였다.

가시 돋친 나무가지들이 그이의 낡은 군복자락을 걸어채고 손등을 허비고 날카로운 침엽수의 바늘잎들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이께서는 감각하지 못하시였다.

가시는 앞길에 나무가지가 막아섰는지, 실개울이 누워있는지, 돌판이 깔려있는지 그런것도 보시지 못하시였다.

오직 그이의 눈앞엔 마안산을 떠나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던 리경준의 그 얼굴이, 곁을 떠나는 서운함을 감추고 웃음지으며 떠나가던 그의 얼굴만이 보이시였다.

신발과 바지아래도리를 적시시는줄도 모르시는듯 그냥 물속에 들어서시여 개울을 건느시고 개버들숲을 헤쳐나오신 장군님께서는 나직한 둔덕우에 우거진 이깔나무숲속을 곧추 질러 넘으시며 마음속에 오직 그 하나의 생각뿐이신듯 거듭 되뇌이시였다.

(그럴수 없다. 그런 일이 있을수 없다. 아니,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다!)

장군님께서는 이제 사령부의 귀틀집문을 여시고 들어서시면 리경준이가, 항상 침착한 그 리경준이가 반가운김에 의자를 넘어뜨리며 마주 달려나와 《사령관동지!》 하고 소리쳐 부르며 가슴에 와락 안길것만 같으셨다. 길을 서둘러 오느라고 경준이는 제때에 면도도 못했을수 있다. 이틀만 면도질을 못해도 보기좋은 구레나룻이 시꺼멓게 자라오르군하는 경준이의 껄껄한 볼도 비벼보시게 될듯싶으신 장군님이시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군모와 군복자락에 거미줄처럼 달라붙은 송라들과 잎갈이를 한 묵은 침엽수잎들을 털지도 못하신채 개울물에 젖은 군복바지아래도리에 물방울을 흘리시며 사령부 귀틀집문을 여시였을 때 그안에는 부은 얼굴에 안경을 낀 박문필 한사람만 있을뿐 리경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박문필은 중학생복을 입던 시절에 헤여진 다음 8년만에 처음으로 장군님을 다시 뵈옵는 자리였지만 상봉의 기쁨 대신 너무나도 가슴아픈 사연을 전해드리지 않으면 안되는 기막힌 심정때문에 한마디의 인사말조차 못올리고 눈두덩이 퉁퉁 부은 얼굴을 깊이 숙였다.

젖은 신발자국을 내시며 말없이 인사를 드리는 박문필에게로 다가가신 장군님께서도 그의 손을 잡으셨지만 잠시 말씀을 꺼내지 못하시였다.

얼마후에야 그이께서는 짤막한 오직 한마디의 인사말을 하시였다.

《수고했습니다. …》

그 말씀은 비록 짧았지만 그동안 박문필이 리경준이와 함께 진행해온 지하혁명사업은 물론 그 기간에 그가 겪은 모든 경난과 고

초를 다 헤아리신 뜻깊은 말씀이시였다.

박문필은 장군님의 손을 맞잡은채 그냥 말없이 머리를 숙이고 서있었다.

《그동안 박동무가 수고한것도 보고받고 성의를 다해 보내준 사진기도 받았습니다. … 박동무랑 만나기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

박문필을 만나시면 학창시절도 회고하시며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것 같으셨던 장군님이시였으나 그와 같이 나타났어야 할 리경준이 보이지 않기때문이신지 그이상 말씀을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에없이 설렁하고 휑뎅그렁한듯한 귀틀집안을 둘러보시고 다시 둘러보시였다.

아무리 둘러보셔도 여기 들어서시면 옛 학우의 얼굴과 함께 꼭 보시게 될듯싶으셨던 구레나룻자리가 푸릿푸릿한 리경준의 얼굴은 어느 구석에도 보이지 않으시였다.

(정말 박문필동무만 왔는가? 리경준동무가 오지 못했다는게 사실인가?)

장군님께서는 전령병이 전해주던 말이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으시여, 경준이를 더는 보실수 없다는것을 아무리 해도 믿으실수 없으시여 마음속으로 물으시고 또 되물으시였다.

문득 머리를 숙이고 서있던 박문필에게서 무거운 무엇엔가 짓눌리운듯한 흐느낌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저며내는 그 흐느낌소리는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싶지도 않은 그 비보가 움직일수 없는 사실임을 말해주고있었다.

《그래 그게 정말입니까?》

마침내 장군님께서는 박문필의 두어깨를 잡으시며 조용하나 비분에 차신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박문필은 더 깊이 머리를 숙였다. 안경밑으로는 줄줄 굵다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걷잡을수 없는 슬픔에 잠겨 온몸을 떨며 울고있는 박문필이로부터 장군님의 두팔을 거쳐 심장에 굽이쳐오는 흐느낌의 파도는 그이의 가슴속에 마지막 남아있던 의혹마저 말끔히 지워버리고말았다.

장군님께서는 마음을 찌르고드는 아픔에 가벼이 몸을 떠시며 박문필의 어깨에서 힘없이 손을 내리우셨다.

그이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잠시 움직이지 못하시였다. 감으신 속눈섭사이로는 눈물이 배여나와 눈가에 맺혔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장군님께서는 그냥 눈을 감으신채 조용히 갈리신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채 흐느끼고있던 박문필은 소리를 억제해가며 천천히 머리를 쳐들었다. 고문받은 흔적과 숲속을 헤맨 흔적, 모진 쇠약과 피로와 그우에 겹친 모진 비애의 그림자를 한꺼번에 다 담고있는 얼굴이였다.

앙다문 입술을 부르르 떨며 울음소리를 삼키고있던 박문필은 불현듯 울음섞인 목소리를 터쳤다.

《리경준동지는 저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이 저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기어코 회의에 참가시키려고 희생적으로…》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뜨시고 물기어린 눈으로 흐느낌에 온몸을 떨고있는 박문필을 말없이 건너다보시였다.

박문필은 말마디들을 더듬으며 끊겼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를 그냥 감옥에 있는대루 두고 리경준동지가 먼저 떠났더면… 저를 기어이 데리구 오느라구…》

《진정하시오.》

장군님께서는 박문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만 못지 않게 북받쳐오르는 슬픔을 진정하실수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들창앞에 가시였다.

열려있는 그 들창으로는 봄빛어린 개울건너편 숲가에 회의장으로 짓고있는 커다란 귀틀집과 그 집앞에 외로이 서있는 하얀 봇나무가 내다보였지만 장군님께서는 바깥풍경이 연한 초록색의 얼룩으로만 되여보이시였다.

통나무를 깎아 회의장에 놓을 긴 결상의 통널감을 만드는 도끼소리가 울려왔다. 아까는 장군님께 그렇게도 흥겹게 들리셨던 그

도끼소리가 지금은 가슴아프게 들리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이제라도 부르시면 금시 눈앞에 나타날듯싶은 경준을 마음속으로 부르시였다.

그러나 부르시면 언제나 첫마디에 대답하며 달려오군하던 사랑하는 전사의 구레나룻은 그이의 눈앞에 웃음지으며 나타나지 않았다. 대답하는 소리조차 없었다.

(저렇게 회의장도 거의 다 돼가고 동무가 앉을 자리까지 저기 마련됐는데… 동무는 어디 있소? 그렇게도 애써 조국광복회창건사업을 준비해온 동무가 창립대회를 열게 된 이 기쁜 때에 십여리밖에 안되는데까지 와서 못들어오고 거기 누워있단말이요?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밀영문턱밑에까지 와서 누워있는 법이 어디 있소? 내가 기어이 오라구 했구 동무도 꼭 오겠다구 약속해놓고 못오다니?…)

여러 가락의 도끼소리가운데 어디선지 가까운데서 통나무가 서로 부딪치며 딩굴어가는 소리가 웅글게 들려오며 땅이 우르르 흔들렸다.

장군님께서는 그 소리가 멎어버린 뒤에도 한참동안 움직이실줄 모르시였다.

그러시다가 마침내 흥건히 젖은 손수건을 낡은 군복바지주머니에 넣으시였다.

《박동무, 경준동무한테로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나를 찾더라는데 그 동무가 못보더라도 그의 곁에 갑시다.》

장군님께서는 박문필을 부축하시여 출입문밖으로 나가시다가 방안에 그 무엇인가 남기고 떠나시는것만 같으시여 잠시 이구석, 저구석 살피고계시였다. 그러나 특별히 두고 가시는것도 없고 또 가지고 가실것도 없으시였다.

그이께서 문께로 채 다가가시기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리북철이 최선금의 도착을 알리려고 들어왔다. 그러나 미처 문을 닫을 사이 없이 리북철의 뒤로 단발머리에 연분홍색 리봉을 달고 깜찍스러운 아동단복을 입은 작은 계집애가 살짝 빠져들어오더니

《장군님!》 하고 소리치며 무작정 장군님의 바지에 매달렸다. 리경준의 딸 명숙이였다.

장군님의 가슴속에서 뭉클 뜨거운것이 치받쳐올랐다. 이제는 이 귀여운 명숙이한테 아버지가 없다는 생각이 일순간에 떠오르셨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방끗 웃는 명숙이를 드시여 꽉 부둥켜안으시였다. 명숙이는 그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뺨을 장군님의 볼에 꼭 갖다붙이며 작고 귀여운 두팔로 그이의 목을 휘감아안았다. 그랬다가 금시

《이봐요, 댕기!》

하고는 장군님 앞으로 머리를 숙여 거기에 꽂힌 분홍색댕기를 보여드렸다. 그 엄혹한 시련의 나날 고이고이 간직해오며 장군님을 만나뵙는 가장 기쁜 날에 매자고 했던 댕기였다.

《장군님께 온다구 엄마가 매줬어요. 나 곱지?》

그러며 명숙은 그이의 목에 힘껏 매달렸다.

《참… 곱구나. …》

그이께서는 입술이 떨리시여 그이상 더 말씀을 못하셨다.

《나 장군님 보고싶었댔다.》

명숙이는 맑고 챙챙한 목소리로 다시금 재잘거렸다.

《그래?!》

장군님께서는 뜨거운것을 삼키시며 가까스로 대답해주셨다.

《장군님도 나 보구싶었나요?》

《그럼!》

《정말?》

《정말…》

명숙이는 보조개를 지으며 얼굴을 돌려 장군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금시 눈이 둥그래졌다.

《장군님 왜 우시나?》

《명숙일… 만나… 기뻐서 울지…》

《해해, 난 장군님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명숙이는 다시금 장군님의 얼굴에 뺨을 꼭 붙이고 목을 그러안았다.

《엄마두 아버지두 장군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대.》

《그래？》

《엄마는 장군님의 새옷을 만들었지뭐.》

《그건 무슨 소리냐？》

장군님께서는 저으기 놀라시였다.

《아버지가 먼데 가서 장군님이 입으실 군대옷을 만들라구 옷감을 보냈거던. 그래서 엄마가 곱게 만들었지뭐. 장군님이 회의할 때 입으실 옷이래. 장군님은 그걸 모르시나？…》

명숙이는 장군님더러 엄마가 이제 새옷을 가져오면 지금 입고계시는 낡은 군복을 갈아입으시라고 말하였다.

장군님께서는 목이 꽉 메시여 말씀을 못하시고 그렇게도 맑고 천진스런 명숙의 눈을 피하시며 머리를 돌리고마시였다.

《엄마가 아버지두 여기 온다구 그랬어.》

명숙이는 가장 아픈 말을 하였다.

장군님께서는 말씀을 못하시고 머리만 끄덕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명숙이를 꼭 안으시며 마음속으로 뇌이시였다.

(아버지를 잃은 너희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어이 나라를 찾아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

명숙을 안으신채 출입문쪽으로 향하시던 장군님께서는 꼭 닫기지 못한 문짬으로 얼굴을 싸쥐고 소리없이 흐느끼고있는 최선금의 모습이 언뜻 비쳐들자 주춤 걸음을 멈추시고 눈길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더욱 깊어지는 가슴아프심을 느끼시며 명숙을 꼭 껴안으시였다.

최선금의 가벼운 흐느낌소리는 한동안 그렇게 계속되였다.

5

회의실로 지은 동강밀영에서 제일 큰 귀틀집지붕꼭대기에 한폭의 붉은기가 봄바람에 나붓기고있었다.

그 지붕우에 붉은기가 꽂힌것은 닷새전 바로 리경준의 소식이 사령부에 전해진 다음날인 전세계무산자들의 국제적명절날부터였다.

그 5월초하루날부터 이 귀틀집주변에는 엄숙한 고요가 떠돌았다.

가둑나무물을 들인 새 군복차림의 경위대원들은 알른알른하게 닦은 총을 세워잡고 닷새째나 정숙을 지키며 보초를 서고있었다.

지붕우의 붉은기보다 훨씬 키높이 솟은 봇나무가지끝에 목덜미와 가슴털이 하얀 백두산멧새가 날아와 앉았다.

물이 오를대로 올라서 한껏 연해지고 발그스름해진 가느다란 나무가지는 멧새의 무게에 눌려 한참이나 흔들거렸다.

불현듯 정숙하기만 하던 귀틀집창문으로부터 좌르르— 요란한 박수소리가 쏟아져나왔다.

갑작스러운 박수소리에 놀란 멧새는 포르르 깃을 치며 날아가버렸다.

하늘은 가없이 맑고 푸르다.

다시 고요가 깃든 숲속의 곳곳에서 뭇새들이 우짖으며 화창한 봄을 노래하고있다.

또다시 좌르르 쏟아져나오는 우렁찬 박수소리…

귀틀집안에 꽉 들어찬 사람들이 가슴가슴에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일시에 터뜨려내군하는 소리다.

여기에 2천만겨레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유구한 반만년의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온 조선인민의 각계각층대표가 한자리에 마주앉았다.

유구한 반만년의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저 백두산지맥이 잇닿아있는 광활한 땅 곳곳에서 이 백두밀림속의 귀틀집으로 찾아들왔다.

두루마기차림의 수염 기른 늙은이와 양복차림의 대머리중년, 농사군차림을 한 장년과 무명치마저고리를 입은 부인, 학생복차림의 청년과 긴머리채끝에 붉은 댕기를 드린 처녀, 새 군복을 차려입은 인민혁명군 남성대원과 단발한 녀성대원… 형형색색의 차림을 한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연설을 시작하신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열

광적인 박수갈채를 올리는것이다.

설레며 술렁이는 그 뭇사람들가운데는 무송지구의 대표로 참석한 박문필의 안경 쓴 얼굴도 보이고 리경준을 대신하여 그가 앉기로 된 자리를 차지한 최선금의 얼굴도 보이였다.

회의장 정면의 귀틀벽에는 커다란 조선지도가 걸려있었다. 지도우로 길게 가로늘인 흰 광목필에는 먹글씨로 《조국광복회창립대회》라고 쓴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회의장에는 높고 호화로운 연탁대신 나무토막을 그루박듯하고 그우에 널판지를 건너대고 모포를 씌워놓은 책상이 앞에 놓이였다.

책상우에는 흰 양철주전자와 양철고뿌가 놓여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그 투박한 통나무 책상옆에 서계시였다. 그이께서는 박수소리가 가라앉기를 기다리시였다가 감회에 잠기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가 강산같이 쌓인 눈을 헤치며 북만땅 남호두에서 떠나던 일이 어제 같은데 여기 동강에서는 어느덧 나무가지에 새움이 트는 봄을 맞습니다.

불과 두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 혁명은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전반적조선혁명의 핵심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이 량적으로 늘어났고 또 질적으로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우리는 남호두회의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주류를 이루고있는 항일무장대오를 확대하기 위한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토의하고 그 중요한 대책으로서 새 부대들을 편성하며 그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강화할것을 결정지었습니다. 남호두회의후 두달이 지나는 동안 이미 새 부대들은 편성되였고 그 대렬은 급격히 늘어나고 무장장비가 개선되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나날이 강화되고있습니다. …》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진정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과 새롭게 백두산근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는데 대하여 개괄하시고나서 바로 오늘의 이 창립대회를 맞이하기까지의 뜻깊은 로정과 경과에 대

하여 새로운 격조를 담아 말씀을 이으시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2천만 동포가 사랑하는 조국강토를 원쑤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강탈당한지도 이제는 수십여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일제의 식민지폭압밑에서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으며 피땀을 흘리면서 짐승보다 못한 망국노의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동포들은 일제의 학정밑에서 견딜래야 견딜수 없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살길을 찾아 남부녀대하고 류랑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까지 갔으나 외로운 그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고 짓밟히며 학살당하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전대미문의 참담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조국강토를 강탈당하고 암담한 비운에 처하여있는 우리 민족앞에는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길밖에 없으며 오직 이 길로 나감으로써만 조국광복의 서광을 맞이할수 있는것입니다.》

장군님의 목소리는 민족의 수난을 한몸에 받아안으신듯 비분에 떨리기도 하시고 그 모든 민족의 불행을 단매에 쳐없애실듯 힘에 넘치기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잠시 숙연한 분위기에 잠긴 장내를 둘러보신 다음 지난날 조국애에 불타는 조선인민들이 벌려온 용감한 반일투쟁을 분석하시면서 아직까지 민족적독립과 광복의 목적을 이룩하지 못한 주요원인이 통일적인 정치강령과 정확한 투쟁방침을 못가지고 반일애국력량의 튼튼한 통일단결을 이룩하지 못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다시금 오늘의 창립대회가 가지는 크나큰 민족사적의의에 대하여 격조높이 말씀하시였다.

《…이번에 국내와 국외의 모든 반일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그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총령도기관으로서의 조국광복회의 건립은 참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조선인민의 간고한 투쟁과 로정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흘린 숱한 피눈물과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얻게 된 귀중한 열매입니다.…》

대표들은 기다렸던듯 또다시 우렁찬 박수를 터쳤다.

감격에 넘쳐 요란한 박수소리를 울리는 그들의 눈에는 눈물방울

이 맺혔다.

감개무량한 이 자리를 뼈아픈 회고 없이 맞으실수 없으신 장군님의 눈가에도 눈물방울이 맺히시였다.

실로 이 뜻깊은 날을 맞기 위하여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거쳐왔으며 얼마나 많은 피눈물과 고심에 찬 나날을 바쳐왔던가.

백두의 하늘높이 광복성전의 첫 총소리를 울린 그날로부터 그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지나온 자욱우에 얼룩졌던가.

그 모든 피와 눈물의 준엄한 시련을 거쳐 위대한 탄생이 만천하에 고해질 오늘이 마련되였다.

《…그간 모두가 참으로 오늘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워왔습니다. 백두산지맥이 잇닿아있는 이 넓은 땅,그 어느곳에 우리 혁명동지들의 피어린 자욱이 찍히지 않은데가 있습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헤쳐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놈들의 총칼이 항상 우리 앞길을 가로막았고 우리를 뒤따랐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이 덮쳐들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조선혁명에 주력하며 조선혁명에 충실하려는 우리들의 주장과 조선혁명가로서의 우리의 응당한 권리와 의무수행을 달가와하지 않고 훼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조선인민혁명군 여러 대표동지들과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각계각층 대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표로 보낸 각계각층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과 성실한 노력과 아낌없는 지지성원에 의하여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은 강유력한 혁명무력으로 자라났고 조선혁명은 승승장구하면서 마침내 조국광복회의 건립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장내는 기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하였다.

대표마다 정숙을 지키고 앉아서 장군님의 말씀을 감격깊게 받아안으며 지나온 나날들을 더듬었다.

그 어느 누구보다 깊은 감회에 잠긴것은 리동백이였다.

비록 짧기는 했지만 그는 돈화땅에서부터 이곳 백두산기슭까지의 로정을 장군님을 모시고 따라오며 그 로정우에서 빚어진 눈물겹도록 자랑차고 위대한 력사의 목격자로,참가자로,기록자로 되여

왔던것이다. 그 짧은 력사의 한순간에 그는 어떻게 열다섯명의 전사와 한정의 기관총이 혁명무력의 최정예주력부대로 변하고 혁명가의 존엄과 인간적가치를 상실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운명과 력사의 주인으로 변해지는가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숭고한 삶을 마치는가를 보고 알았으며 찬서리를 맞은 꽃망울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나 활짝 꽃을 피울수 있게 되였는지를 알았다.

그는 어떻게 불가능한것이 가능한것으로 되며 어떻게 먼 장래에나 실현될지 말지 막연하게 여겨졌던 리상이 삽시에 현실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이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깨달았다.

이 백두산기슭까지 그가 따라오며 목격하고 체험한 모든것은 장군님께는 불가능한것이란 없으시다는것을 력력히 증명하고 확신케 하였다. 장군님께서 의도하시는것이면 그 어느것이나 실현되지 않는것이 없었다. 사람들을 키우는 일도, 새 부대를 편성하는 일도, 새 근거지를 꾸리는 일도, 2천만의 온 겨레를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하나로 묶어세우는 거창한 일도 그이의 의지대로만 되여왔고 또 되여가고있는것이다.

그는 지난날 그처럼 막연하게 생각되였던 온 겨레의 한결같은 절절한 숙원인 조국의 광복도 이제 반드시 그이의 의지대로 이룩되고야말리라는것을 굳게 믿어마지 않았다.

남들보다 더한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세상의 단맛, 쓴맛도 다 보고 명색만 그럴듯했던 운동들의 기울어져가는 형세와 거짓위인들의 감출수 없는 본바탕과 파쟁의 돌이킬수 없는 후과도 보았으며 이제는 참과 거짓을 똑바로 가려볼수 있게 된 리동백은 지나온 행로를 더듬어보는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오직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만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수 있는 유일한분이시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길만이 가장 옳바르고 빠른 조국광복의 길임을 절절하게 느꼈다.

그리고 그이를 따라 나아가는 그 길만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달성하고 민족의 휘황찬란한 장래번영을 가져오게 될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였다.

(우리 조선의 2천만 겨레는 한결같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높

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리동백은 마음속으로 격조높이 부르짖었다.

조국광복회 정치강령의 취지를 서론적으로 설명하신 장군님께서는 마침내 그간 친히 작성하신 강령을 한조항 한조항 읽으시기 시작하시였다.

모든 대표들은 더욱 숭엄하고 경건한 정적속에 귀를 기울여 가슴에 새겨듣고있었다.

그 강령을 이미 수십번이나 읽고 자기가 책임진 출판소에서 수백부나 등사하여 모든 대표들에게 배포한 리동백은 강령의 어느 한 자도 빠짐없이 죄다 외우고있었다.

그러나 광복회의 창립을 선포하게 되는 이 엄숙하고 장엄하고 감개무량한 자리에서 친히 그것을 저술하신 장군님께서 발표하시는 강령의 매 조항, 매 구절들에서 리동백은 전에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찬란한 예지의 빛을 보았다. 강렬한 사상의 광원으로부터 빛발쳐나오는 빛나는 그 예지를 온몸으로 느낀 이 순간 리동백은 자기의 머리속에 비쳐드는 태양의 빛을 의식하였다.

그와 함께 자기를 따사롭게 감싸주는 해볕을 감수하였다.

번쩍이는 섬광같은 생각이 날아들었다.

(태양에는 두가지 속성이 있다. 빛과 열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도 두가지 성품을 지니고계시니 즉 빛나는 예지와 뜨거운 사랑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빛나는 예지, 그것은 곧 태양의 빛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사랑, 그것은 곧 태양의 볕이다.

그 광휘로운 빛과 따사로운 볕을 한몸에 지니신 그이는 인간세계의 찬란하고 위대한 태양이시다!)

강령을 그대로 채택할것을 지지결정하는 우렁찬 박수속에서도 리동백은 자기 머리속에 떠오른 그 생각에 더욱더 깊이 잠겨들었다.

(장군님께서 계시여 캄캄했던 조선혁명의 앞길이 저렇게 환히 밝혀졌고 민족재생과 번영의 광명한 미래가 내다보이게 되였다!

그이의 빛나는 예지에 의하여 어둡던 삼천리강산에 려명이 밝아온다.

그이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사람들은 소생하고 삶의 보람과 투쟁의 행복을 받아안았다.

장군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더면 저 얼굴들이 저렇게 밝을수 있으며 저 눈들이 저렇듯 반짝일수 있으랴?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을 받지 않는다면 뭇행성들이 그 무슨 빛을 내며 태양의 빛과 별을 받지 않는다면 만물이 무슨 삶을 영위할수 있으랴?

우리는 광원이 없이는 빛을 낼수 없는 별들이다. 태양이 있어야 빛을 내는 행성들이다.

뭇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돌듯이 우리는 그이의 두리에 뭉치고 그이를 옹위하며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생각에 깊이 잠겨있던 리동백은 대표들앞에 나선 강세호가 누구의 이름으로 방금 채택된 창립선언을 발표하겠는가고 정중한 음성으로 물었을 때 머리를 쳐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술렁거리던 장내는 남먼저 일어선것만으로도 성차지 않아 머리우에 높이 손까지 쳐든 인민혁명군에서의 가장 나이 많은 그를 존중하여 소음을 갈앉혔다. 첫 언권을 받은 리동백은 사람들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갔다.

리동백은 모포가 씌워져있는 통나무탁상열에 나서자 눈들을 빛내며 자기를 쳐다보고있는 대표들을 향하여 인사를 하였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대변해줄 그의 말을 엄숙하게 기다렸다.

그는 한참이나 입술을 감빨며 말마디를 고르다가 불쑥 갈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맡으실분은 우리모두의 운명을 한몸에 맡아안으신 장군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일성**장군님을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하며 회장명의로 창립선언을 발표할것을 제기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솟구쳐올랐다. 한번 터져오르자 멎지 않는 그 눈물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고일어나 올리는 폭풍같은 박수소리와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들었을뿐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대표들에게 답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강세호와 차동범,최선금,박문필,리동백,장기령을 비롯하여 오늘을 위하여 시련의 길을 함께 헤쳐온 사랑하는 전우들과 대표들이 기쁨에 넘쳐 눈물을 흘리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시였다.

조선혁명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간고한 길을 걸어왔던가! 그이께서 조국광복의 높은 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신 그때로부터 어언 10년세월이 흘러갔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세월… 그러나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자면 또다시 10년세월이 흐를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인들 헤쳐가지 못하랴.

장군님께서는 젊음과 열정,의지와 신념이 넘쳐흐르는 안광으로 장내를 둘러보시며 이제는 그만 자리에들 앉으라고 거듭 손을 흔드시였다.

우렁찬 만세와 박수소리는 그칠줄 모르고 계속되였다. 그 소리는 길게 메아리치며 태고연한 정적속에 묻힌 동강밀림을,백두산기슭을 뒤흔들었다.

이날은 1936년 5월 5일이였다.